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15호, 2024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차례

[지식과 과학]

■ 노경숙 ■

대학생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 연구 : ‘가’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13

■ 연용호 ■

퍼지함의를 일반화한 대수구조 41

[지식과 교육]

■ 고선정 ■

미디어 지식을 활용한 대학생 UX 라이팅 교육 연구 61

■ 김록희 ■

의사소통 역량 계발을 위한 대학 글쓰기 수업 구성 연구
: 백워드 설계 모형을 기반으로 89

■ 김상철 ■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 117

■ 김정현·조형일 ■

대학 교양 한국어 발표 수업에서 ‘동료 편집(Peer editing)’ 적용 논의
: 쓰기 단계를 중심으로 149

■ 박고운·고혜림·이상룡·이정민 ■

대학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 부산대학교의 「열린사고와 표현」강좌를 중심으로 177

■ 유재두 ■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의 메타버스 적용방안 연구 211

■ 임운정 ■

‘철학하기’의 발전과 확장을 위한 기반 모색 : ‘철학하기’의 본질 탐구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235

■ 조용선·채진 ■

화재조사관 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화재조사관 인식을 중심으로 273

■ 천민경 ■

바로크 시대 역사주의 연주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현대적 재해석 및 재구성 기반의 교육적 접근 299

[지식과 문화]

■ 강성률 ■

배우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 연구 327

■ 김현우 ■

K-콘텐츠에서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
: 웹툰 <살인자○난감>을 중심으로 357

■ 노기수 ■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 FGI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문가 의견 분석 377

■ 덩단니·김태덕 ■

중국 야오족 장고춤의 특징과 가치에 관한 연구 399

■ 송홍규 ■

사동문의 구성과 의미에 대한 연구 439

■ 신지연 ■

유사 피사동 ‘-되다, -시키다’의 양태 의미 459

■ 조충범·조준희 ■

미디어 이론을 통한 연극의 미디어적 특성 고찰
: 마셜 매클루언과 월터 옉의 이론을 중심으로 481

[지식과 사회]

■ 김영걸 ■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 되기 :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 511

■ 박윤자 ■

어린이집 영아반의 낮잠 시간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
: 초임 영아교사와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535

■ 서기자 ■

어른을 위한 동화 활용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555

■ 오인근·주소희·권지성 ■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581

■ 이상우·김춘남 ■

독거노인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를 중심으로..... 613

■ 최나다·이희성 ■

클래식 공연 관람객의 체면유형이 주관적 행복감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639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669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679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683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694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15. 2024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Knowledge and Science]

■ Noh, Kyoung Sook ■

A Case Study of an Extracurricular Program to Enhance University Students' Data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tilization Skills 13

■ Yon, Yong Ho ■

Algebraic structures generalizing fuzzy implications41

[Knowledge and Education]

■ Ko, Sun Jung ■

The Education of UX Writing with Media Knowledge
: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61

■ Kim, Rok Hui ■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University Writing Class for Developing Communication Competency : Based on the 'Backward by Design'89

■ Kim, Sang Cheol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chievement Testing in the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System in Open Schools 117

■ Kim, Jung Hyun · Zo, Hyung Il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eer editing' in University Liberal Arts Korean Presentation Class : Focused on Writing steps 149

■ Park, Ko Woon · Koh, Hye Lim · Lee, Sang Ryong ·

Lee, Jeong Min ■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with a University Writing Feedback Program..... 177

■ You, Jae Doo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etaverse for the New Education of Private Security Officers211

■ Im, Yoon Jeong ■

Finding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Doing Philosophy : Focusing on the search for ways to develop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nature of ‘Doing Philosophy’ ..235

■ Cho, Yong Sun · Chae, Jin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raining for Fire Inspectors :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fire inspectors.....273

■ Chun, Min Kyeong ■

Educational Applications of Historical Performance Practice of the Baroque Era : An Educational Approach Based on Modern Creative Reinterpretation and Reconstruction.....299

[Knowledge and Culture]

■ Kang, Seung Ryul ■

A Study on Actor Don Lee’s Star Persona.....327

■ Kim, Hyun Woo ■

Translation Strategy for Proper Nouns in K-content : Focused on the webtoon <A Killer Paradox>357

■ Noh, Ki Su ■

Strategies for Activating the Daejeon Cultural Content Industry Cluster : Analysis of Opinions from Daejeon Cultural Content Industry Experts through FGI.....377

■ Deong, Danni · Kim Tae Deok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Chinese Yao Django Dance399

■ Song, Hong Kyu ■	
A Study on Formation and Meaning of Causative Sentences	439
■ Shin, Ji Yeon ■	
Semantic Function of Non-Normative ‘-doeda, -shikida’	459
■ Cho, Chung Beom · Cho, Joon Hui ■	
An Examination of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Theater through Media Theory : Focusing on the Theories of Marshall McLuhan and Walter Ong	481

[Knowledge and Society]

■ Kim, Young Geol ■	
Becoming a Cosmopolitan as a Democratic Citizen : Necessity for climate crisis response education	511
■ Park, Yun Ja ■	
The Meanings of Nap Time to Infants and Infant Teachers	535
■ Seo, Gi Ja ■	
A Study on the Impact of a Bibliotherapy Program Using Fairy Tales for Adults on the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555
■ Oh, In Geun · Ju, So Hee · Kwon, Ji Sung ■	
A Qualitative Analysis Study of Continuing Education Experiences Among Social Workers.....	581
■ Lee, Sang Woo · Kim, Chun Nam ■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613
■ Choi, Na Da · Lee, Hee Sung ■	
The Effect of Facework on the Subjective Happiness and Behavioral Intention of Korean Classical Performance Audience.....	639

대학생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 연구 : ‘가’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노 경 숙*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¹⁾

4차 산업혁명에는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초빙교수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의 특징을 갖는다. 디지털 기술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토대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혁신을 이끌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는 지능정보화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²⁾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대학의 모든 계열 신입생이 교양필수 과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수하도록 기초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또한, 심화 과정을 희망하는 비전공자에게는 대학별 특화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융합인재를 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³⁾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마다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 수업 또는 특강형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 기초 파이썬,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대학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이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별도로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⁴⁾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양 및 전공의 교과 영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가 희망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2) 대한민국정부, 「2023 지능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 59쪽.

3) <SW중심대학협의회>, <https://www.swuniv.kr/36>, 2024.06.15.

4) 김수연·이명관,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인식 및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 방향성 제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권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596쪽.

있다.

정규 수업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수업 내용을 심화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여러 대학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⁵⁾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교과목 또는 비전공자들의 진로에 대해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가’ 대학에서는 지능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 대학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위한 비교과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양 교과와의 연계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멘티 방식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둘째,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비교과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비교과 프로그램

대학교에서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교육 활동이다.

5) 김현주, 「인문교양 수업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 연구』 11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762쪽.

(2) 멘토링(mentoring)

멘토링(mentoring)은 경험 있고 믿을만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관계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의 경험이 있는 멘토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멘티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 지도, 조언, 프로젝트 매니저 등의 활동을 통해 멘티의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SW 교육 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컴퓨터과학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다루는 인재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소프트웨어가 일상화되어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하고 창조성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창의융합인재의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정은(2017)이 실시한 대학생들의 SW 코딩 교육 수요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전공과 무관함에도 SW 코딩 교육은 필요하고, 대학 4학년일수록 SW 코딩 교육 수요는 강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경기도의 K 대학의 비전공 대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8.4%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공 대학생들의 SW 교과목 현재 실행 수준 및 교육 필요도 측면에서는 스크래치, 컴퓨팅 사고를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C언어와 컴퓨팅 사고, 파이썬 등

으로 나타났다.⁶⁾

PYPL(PopularitY of Programming Language) 인덱스는 Google에서 언어 튜토리얼이 얼마나 자주 검색되는지 분석하여 생성하는 지수이다. 특정 언어 튜토리얼을 더 많이 검색할수록 해당 언어의 인기가 높아진다고 가정하는 선행지표이다. 이 지표에서 파이썬이 29.06%로 2023년과 비교하여 1.4% 증가하여 단연 1위를 차지하고, Java 가 15.97%로 2위, JavaScript 가 8.7%로 3위, C#과 C/C++이 각각 2023년과 비교하여 제자리인 4위, 5위에 올랐고 R이 2023년에 비교하여 0.3% 상승하여 6위에 올랐다.⁷⁾

TIOBE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고 추적하는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매일 실시간으로 10억 줄 이상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확인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자체 계산 공식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발표한다. TIOBE 지수에서도 역시 파이썬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⁸⁾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요구가 활발해지면서 두 기술을 적용 및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파이썬 언어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R 언어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기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파이썬 언어는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파이썬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등과 관련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문법이 비교적 직관적이고 간단하여 초보자도 접근하기 쉽다. 풍부한 자료와 튜토리얼이 제공되고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가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의 학문이나 기술

6) 김성현, 「비전공 대학생의 코딩교육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인문사회 21』 13권 2호, 인문사회 21, 2022, 738쪽.

7) <PYPL>, <https://pypl.github.io/PYPL.html>, 2024.06.15.

8) <TIOBE>, <https://www.tiobe.com/tiobe-index>, 2024.06.15.

만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융합교육은 대학의 전공 학과에서 다학문적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양교육과정에 크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⁹⁾

2) 비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교육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인성 및 소양, 학업 지원, 진로지도, 사회봉사 등의 목표 범주로 나뉜다.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건학 이념에 비추어 명시적 목표로 규명하고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증제도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관리 체제를 견고히 하고, 취·창업 교육과 같이 대학이 직면한 문제 중심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1) 비교과 SW 교육 사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유형 중 SW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코딩 또는 SQL 프로그램 등은 제외하고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관련한 프로그램을 주로 살펴보았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강도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강화

9) 손동현, 「자유교육의 르네상스는 반시대적인가?」,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2024, 12쪽.

할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선정 조직한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운영시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역량 중 ‘창의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코딩스터디’와 ‘지식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SW021 입문, SW021 기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¹⁰⁾

SW 중심 대학에 선발된 동명대학교는 파이썬, C언어, JAVA 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대학교는 ‘창의적 생활코딩 SW기초교육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캠프에서 참여자들은 협업하여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등의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SW 지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대학교는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인공지능 딥러닝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¹¹⁾

[표 1] 비교과 프로그램 중 SW 관련

프로그램	내용	비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스터디 (기초반)	파이썬 기본 문법, 파이썬 프로그래밍 구조 입문, 객체지향 사고법과 함수, 클래스, API 활용과 파일 시스템, 파이썬을 활용한 미니 웹 브라우저 개발	12시간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코딩스터디 (심화반)	웹프로그래밍 기본, 파이썬 백엔드 엔지니어링입문, FastAPI 프레임워크로 파이썬 데이터 수집, 웹 개발부터 배포까지, Django프레임워크로 파이썬 웹 개발 입문	12시간
SW021입문	엑셀보다 조금 덜 어려운 SQL	10시간
SW021기초	빅데이터 분석 실무 기초,	32시간
	코딩 테스트 대비 과정(팀티칭),	32시간
	Chat GPT가 바꾸는 인류의 미래	10시간
코딩 초급	파이썬, C언어, JAVA	20시간(과목별)
코딩 문제풀이 초급	파이썬, C언어, JAVA	20시간
AI프로그래밍	AI프로그래밍 초급	2일(캠프)

10) <성신여자대학교>, <https://www.sungshin.ac.kr>, 2024.06.15.

11) <SW 중심대학협의회>, <https://www.swuniv.kr>, 2024.06.15.

창의적 생활코딩 SW기초교육 캠프	Chat GPT 활용 특강, Chat GPT를 이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70시간 (캠프)
웹으로 개발하는 딥러닝과 생성형 AI 서비스 교육	딥러닝 모델구축과 전이학습 활용, 웹 프레임워 크와 웹 서비스, 웹 기반 AI 서비스 교육	

(2) 멘토링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의 한 형태인 멘토링은 사전적 의미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 학교 등에서 선배가 후배를 돕는 것에 활용하지만, 1:1로 지도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어도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하는 자리나 행사, 프로젝트 등에 모두 멘토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멘토링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험이 많은 선배 동료(멘토)와 경험이 적은 후배 동료(프로테제) 사이의 집중적인 대인 교류로, 이는 모든 당사자에게 유익한 관계이다. 멘토링의 유형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1:1멘토링 동료 멘토링 그룹 멘토링으로 구분한다. 1:1 멘토링은 학습과정이나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단계에 있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경험이 많은 멘토가 일대일로 가르치는 관계를 말한다. 동료 멘토링은 비슷한 수준의 동료들이 서로 지원하고 지도해주는 관계를 말한다. 그룹 멘토링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한 명 이상의 멘토 아래 여러 명의 멘티가 함께 있는 형태이다. 그룹의 멘토는 일대일 멘토의 역할을 하고 서로 동료 멘토의 역할도 한다. 그룹으로서 아이디어 및 정보를 교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¹²⁾

멘토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능력, 성격, 감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¹³⁾ 학습 촉진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풍부한 내용의 지식과 경험

12) 간진숙, 「대학에서의 멘토링 모형 개발 연구」, 2011, 25쪽.

13) 최병권,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인재멘토링」, 2004, 102쪽.

진실한 마음과 열정 등이 있어야 하고 호의적이며 성실하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자아 인식능력, 자기 관리능력, 동기부여 능력, 타인 의식 능력, 타인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멘티는 멘토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사람으로, 멘토링에서 피교육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프로테제 멘토리 멘티 등이 쓰이고 있다. 멘티의 특징으로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자기 평가 또는 외부의 평가에 기초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체계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¹⁴⁾

H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직면하는 전공 관련 문제 상황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창의성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공 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병행하도록 설계하였는데,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의 구성원이다. 창의성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멘토 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 6명 멘토와 관련 교과목을 수업하는 공동연구 교수인 멘토링 관리자 1명, 멘토와 멘티, 멘토와 멘토링 관리자 사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슈퍼바이저 1명으로 구성하였다. 슈퍼바이저는 연구의 책임자가 담당하였으며, 멘토링 활동 속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요소인 확산적 사고 기술, 수렴적 사고 기술,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성격 증진, 동기유발, 연상적 사고능력, 창의적 산물 등을 탐색하여 이들의 멘토링 활동이 창의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방향에 맞게 실현되는지 평가하여 피드백하였다.

또한, 멘토를 선발하여 2 ~ 3개월간 집중 양성 과정을 참여하게 된다. 양성 과정은 프로그램 소개 및 창의성 원리, 멘토링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 안내 및 중점적인 세부 활동 학습, 활동의 예행연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교과에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전 전공 영역으로

14) Margo, M. 저, 이용철 역, *Beyond the myths and magic of mentoring*, 2005, 41쪽.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실제 전공 분야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다.¹⁵⁾

3. 연구의 방법

1)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A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A 멘토링 프로그램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래밍 기술 교육 확대를 통해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링 학습 방식을 통해 운영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상호 이해 및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실무 실용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구성	멘토 1인당 멘티 4인 이내 팀		
목표	산학교육센터의 기술 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활용 기술 능력 향상		
기간	10주		
방식	1개월에 4회 이상,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가능		
지원사항	멘토링 공간 및 교재, 멘토 장학금, 이수증 발급		
운영절차	일정	2023학년도 2학기	2024학년도 1학기
	오리엔테이션	23.11.23	24.03.28
	멘토링 계획서 제출	23.11.22 ~ 11.26	24.04.01 ~ 24.04.07
	멘토링 진행	23.11.27 ~ 24.02.02	24.04.01 ~ 24.06.07

15) 송복섭·이순주, 「창의성 멘토링프로그램에 의한 건축설계 교수법 혁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1권 12호, 대한건축학회, 2015, 26쪽.

운영절차	예선평가	24.01.23 ~ 24.01.25	24.05.29
	경진대회	24.02.01	24.06.07
	최종 보고서 제출	24.02.02 ~ 24.02.07	24.06.07 ~ 24.06.16
	만족도 조사	24.02.02 ~ 24.02.07	24.06.07 ~ 24.06.16

A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기보다는 파이썬의 기초 내용을 학습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의 전체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을 지향한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멘토와 멘티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무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여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인 사고,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주도 능력 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멘토는 전공과 관계없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기존에 해당 프로그램의 멘토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멘토와 멘티는 팀으로 지원하거나 개인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팀을 구성한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팀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우선 선발한다.

2) 프로그램 개선 보완

A 멘토링 프로그램은 2020년 11월에 처음 실시하였다. 하나의 팀을 멘토 1인과 멘티 3~4인으로 구성하여 10개의 팀 내외로 시작하여 10주간 진행하였다. 멘토링 주차별 활동 보고서와 중간 결과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멘토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3회이상 불참하거나 관련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도 탈락제도를 두어 관리 감독

하였다.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기술 학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23년 2학기부터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경진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예선평가를 거쳐 전체 팀 중 50%를 선발한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발표 및 프로젝트 시연을 하고 3인의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보완하였다.

멘토들이 경진대회 및 프로젝트 진행에 맞는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제를 도입하였다. 2인의 지도교수가 참여하여 10주 동안 각 팀을 5회 이상 지도하고 지도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지도교수는 경진대회를 위한 예선 평가 및 본선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A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의 함양 정도, 지도교수제 방식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향상, 학습 난이도와 분량의 적절성, 재참여 의사 등을 알아보기 위한 5점 척도의 6개의 평가 문항과 핵심 역량과 관련하여 어느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개선할 점 등을 알아보았다.

[표 3]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문항

문항
1. A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 A 프로그램의 디지털 역량 개발 효과
3. 지도교수제 방식의 디지털 역량 개발 효과
4. 해당 분야의 이해와 관심도 향상
5. 학습 난이도와 분량의 적절성

6. 프로그램에 재참여 및 다른 학생에게 추천할 의향

7. 개선할 점

자료 분석은 2023학년도 1학기과 2023학년도 2학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빈도분석을 하였고, 각 항목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멘토와 멘티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A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023년 2학기는 22명의 멘토와 81명의 멘티로 총 103명이 참여하고, 2024년 1학기에는 20명의 멘토와 73명의 멘티 총 93명이 참여하였다. 지도교수 2명, 운영 및 관리 산학교육센터 직원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멘토와 멘티는 지원서와 함께 학습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멘토를 선발한다. 멘토링 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관련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도 탈락제도를 두어 관리하였다.

멘토링 진행 방식은 팀별로 멘토링 학습 계획서를 토대로 진행하지만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회차별로 진행보고서를 제출하고, 멘토링 활동이 종료된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를 통해 멘토링 학습 내용 및 멘토와 멘티들의 실력 향상 정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이수증을 발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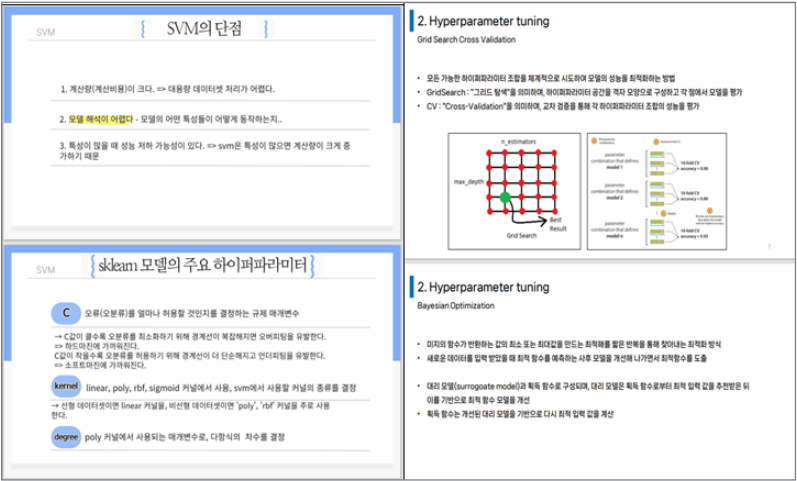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그램의 취지 및 유의 사항 등을 전달하고, 멘토링을 시작한다. 실질적인 학습은 멘토가 주도하며, 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강의할 수도 있지만 주로 전체적인 멘토링 진행 관리, 팀에서 계획한 학습의 전체 수준과 난이도 조절,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 멘토링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및 멘토의 고충 상담 등의 역할을 주로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도교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며, 멘토와 멘티가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멘토는 [표4]와 같이 멘토링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제 논의 및 데이터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도록 지도하였다.

멘토는 Notion 또는 Microsoft Teams를 이용하여 멘토링 학습 자료, 멘티들이 수행한 과제, 보고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여 멘티 및 지도교수의 접근성을 높였다. 멘토의 역량과 팀의 구성원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팀에서 지정한 교재로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멘토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 팀마다 자율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멘토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멘토는 본인이 멘토링 한 주요 내용과 각 멘티의 활동 내용 및 이전보다 역량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2주에 한 번씩 지도교수의 검토 및 피드백을 받았다. 지도교수는 멘토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학습에 멘티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때 각각의 멘티가 최소 하나 이상의 주제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선정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각각의 멘티들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의 한 분야씩 각자 해결하여 모두 통합할 방법을 활용하기를 제안하였다.



[그림 5] 멘토링 활동 자료

[표 4] 멘토링 활동계획서

멘토링 분야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분석 및 머신러닝/딥러닝 활용
멘토링 학습 계획	<p>멘티들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분석 및 머신러닝/딥러닝에 필요한 기본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Pandas, matplotlib, seaborn, numpy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Kaggle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EDA 실습을 하고자 한다. EDA나 데이터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유의미한 데이터 속 의미를 찾는 것도 있지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개발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EDA 및 데이터 시각화가 끝난 후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다양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실습하고 모델을 개발해보고자 한다. 실습위주의 학습을 진행하되, 중요 개념이 있다면 이론도 병행할 예정이다.</p>
기대 효과	<p>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머신러닝, 딥러닝에 필요한 기초적인 파이썬 지식부터 시작하여, 중요 이론 및 코드 실습, 간단한 모델 개발을 통해 멘티들이 T-SUM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모든 코드를 작성할 순 없겠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코드 자료나 ChatGPT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코드를 해석하고,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되는지 등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분야의 경우에는 다양한 세부 연구분야가 존재한다. 이번 T-SUM을 통해 머신러닝 및 딥러닝의 세부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 분야는 어떤 것을 다루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p>

세부 활동계획 (주별 계획)	회차	활동 내용
	1	파이썬 기초 문법 이론 및 실습 (if문, while문, for문 등...)
	2	파이썬 기초 라이브러리 이론 및 실습 (Pandas, numpy, matplotlib 등...)
	3	Kaggle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EDA)(1)
	4	Kaggle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EDA)(2)
	5	붓꽃데이터(iri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EDA)(1)
	6	붓꽃데이터(iris)를 이용한 머신러닝 이론 및 실습 - (1) 머신러닝 이론
	7	붓꽃데이터(iris)를 이용한 머신러닝 이론 및 실습 - (2) 머신러닝 실습
	8	붓꽃데이터(iris)를 이용한 머신러닝 이론 및 실습 - (3) 머신러닝 실습
	9	딥러닝 이론 및 YOLOv8 실습 (CCTV 영상 데이터 사용 예정) - (1)
	10	딥러닝 이론 및 YOLOv8 실습 (CCTV 영상 데이터 사용 예정) - (2)

[표 5] 주차별 활동 보고서-4주차

팀명	**파이썬	장소	**관 4**호	일시 (주차)	4주차, 2024. 05. 02.(목), 16시
활동주제	경진대회 주제 선정 토론				
활동 내용	<p>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주제 선정에 관해 멘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멘티들은 Kaggle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많은 책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예제를 통해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것보다 안해봤던 라이브러리나, 이미지, 객체탐지 쪽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경진대회를 나가고 싶다는 의견이 주도적이었습니다.</p> <p>멘토인 저 또한, 머신러닝보다 이미지 객체 탐지 쪽 분야에 있어 멘티분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방향으로 주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p> <p>AI-Hub, 데이콘, 캐글 등에서 자료를 찾아보며 각 데이터셋의 어노테이션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난이도는 어느정도 수준의 데이터셋인지, 경진대회를 나가기 위해 모델 개발이 가능한 수준인지, 실현 가능한지, 주제는 참신한지 등을 파악하며 토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이터셋은 아래와 같습니다.</p> <p>[AI-Hub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데이터]</p> <p>https://www.aihub.or.kr/aihubdata/data/view.do?currMenu=115&topMenu=100&aihubDataSe=data&dataSetSn=614</p> <p>최근 학교 캠퍼스 근처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나 논란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p>				

활동 내용	위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안전모 미착용이나 신호 위반에 대한 객체 탐지를 주제로 T-SUM 경진대회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YOLOv8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멘티별 활동 내용	멘티이름	활동 내용 및 역량 증가 정도
	박OO	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주제 선정 및 데이터 선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공장 시설 내의 이상 제품 탐지”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으며 관련한 데이터를 찾아보고, 주제의 적합성이나 참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과정을 성실하게 참여해주셨습니다.
	김OO	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주제 선정 및 데이터 선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CCTV에서 사람을 Detection하여 위급 상황 탐지”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으며 관련한 데이터를 찾아보고, 주제의 적합성이나 참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과정을 성실하게 참여해주셨습니다.
	김OO	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주제 선정 및 데이터 선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머신러닝을 이용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으며 관련한 데이터를 찾아보고, 주제의 적합성이나 참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과정을 성실하게 참여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멘토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데, [표 6]은 자유롭게 작성한 멘토링 소감 예시이다.

[표 6] 멘토 최종 소감 예시

멘토	멘토링 학습 최종 정리
멘토 A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멘티들은 파이썬과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프로젝트였으며, 멘티들이 실제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멘토인 저도 제 지식을 남에게 공유하고, 팀을 이끌며 리더십과 책임감, 남을 가르치는 재미 등을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멘토 B	<p>1.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진행 : 멘티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술, 창의성, 협력 등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멘티들은 개인 프로젝트와 경진대회 준비를 하며 실제 문제에 도전하면서 학습하고,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p> <p>2. 개인 프로젝트 과제 수행 : 경진대회 외에도 멘티들은 데이터 분석 관련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진대회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며, 멘티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멘티들에게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단계별로 나아가며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p> <p>3. 팀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 학습 :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경험을 통해 팀원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충돌시키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p> <p>최종적으로,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들은 자신의 실력을 매우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멘티들의 진로 선택과 미래 경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p>
멘토 C	<p>머신러닝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 개념부터 경영과목에서 많이 사용하는 Linear regression과 Logistic Regression, 트리기반 구조인 Decision Tree, RandomForest와 XGBoost까지 디지털 경영에서 다룰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대부분 다루고 이론과 실습으로 익혀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멘티들마다 수준과 특성이 모두 달라서 처음에 어떻게 진도를 나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당초 목표였던 각 모델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수식을 이해하는 것, 디지털 경영과목과의 연계, 경진대회를 통한 실무와 이론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번 멘토링을 통하여서 정량적으로는 머신러닝 과목 및 분석과목에서의 전반적인 성적 향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정성적으로는 파이썬에대한 자신감과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 능력, 협업 능력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p>

2) 경진대회를 통한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공유

A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 분야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 활용 및 도전 의식을 제고하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성과를 확인하고 공유·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우수 성과를 거둔 팀을 선발하여 멘티 및 멘토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평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는 지도교수 및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1~8주 차의 활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

으로는 팀 활동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 성실도, 프로젝트 진행 정도, 멘토의 팀 역량 평가 등을 취합하여 예선 심의를 하였다. 2023학년도 1학기의 경우 22팀에서 11팀을 1차에서 선발하고, 2024학년도 1학기의 경우 20팀에서 10팀을 선발하여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본선에서 멘토는 보조 역할을 하며, 멘티들이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멘토의 역량이나 성향만으로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 멘토와 멘티의 협업과 멘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했다. 앙상블 모델을 활용한 정기예금 가입 여부 예측 성능 비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안전사고 탐지 모델 개발, 비만 위험도 예측, 실생활 갯생 비서 AI 개발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차 심사에서 통과한 팀들은 발표를 통해 3인의 심사위원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1, 2, 3, 4등 팀과 우수멘토를 시상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3)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A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지막까지 참여한 학생 중 2023학년도 2학기에는 67명, 2024학년도 1학기에는 63명이 응답하였다. 이 중 멘토는 31명이 포함되고 멘티는 99명으로 구성된다. 2023학년도 2학기과 2024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2023학년도 2학기 4.28에서 2024학년도 1학기에는 4.42로 향상되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는 4.38에서 4.4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기초 내용 위주로 진행하는 팀들은 분량을 조절하도록 지도하였다. 멘토들이 체계적인 관리 감독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던 멘토링을 활동 보고서 검토와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지도교수제 문항의 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

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7]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결과

항목 \ 기간	23-2학기		24-1학기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프로그램 만족도	4.28	0.692	4.43	0.777	4.35	0.735
디지털역량개발	4.42	0.607	4.37	0.768	4.39	0.688
지도교수제	3.93	1.034	4.05	1.054	3.98	1.042
분야 이해도와 관심도	4.39	0.65	4.43	0.734	4.41	0.69
학습 난이도와 분량	4.21	0.946	4.11	0.863	4.16	0.905
추천 의향	4.27	0.75	4.25	0.983	4.26	0.868

문항별 상관분석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개발과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향상이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와 멘티의 t-검증 결과 멘토의 멘토링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은 4.32, 멘티의 만족도 평균은 4.36으로 두 그룹 간 평균 만족도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멘토가 0.832, 멘티가 0.706으로 멘토 그룹의 분포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시 참여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추천할 의향은 멘토가 4.42로 멘티의 4.21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변수에서 멘토와 멘티 간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으며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 난이도와 분량에서는 멘토의 표준편차가 멘티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멘티의 기존 학습 경험 유무 및 수준 차이로 인해 멘티 구성원에 따라 멘토가 느끼는 부담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표 8] 문항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항목	만족도	디지털 역량개발	분야 이해도와 관심	지도 교수제	학습난이도와 분량	추천의향
만족도	1	.659**	.646**	.655**	.683**	.729**
디지털 역량개발	.659**	1	.804**	.604**	.558**	.762**
분야이해도와 관심	.646**	.804**	1	.634**	.614**	.740**
지도교수제	.655**	.604**	.634**	1	.521**	.605**
학습난이도와 분량	.683**	.558**	.614**	.521**	1	.696**
추천의향	.729**	.762**	.740**	.605**	.696**	1

** p < 0.01

t-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p값이 0.05보다 크므로, 멘토와 멘티 간의 항목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멘토와 멘티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9] 멘토 멘티 집단 t-분석 (멘토 31명, 멘티 99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검정	
	멘토	멘티	멘토	멘티	멘토	멘티	t	p-value
만족도	4.32	4.36	0.832	0.706	.149	.071	-0.270	0.787
디지털 역량개발	4.45	4.37	0.568	0.723	.102	.073	0.549	0.584
지도 교수제	3.97	3.99	1.08	1.035	.194	.104	-0.103	0.918
분야이해도와 관심	4.39	4.41	0.667	0.7	.120	.070	-0.195	0.846
학습난이도와 분량	4.00	4.21	1.065	0.848	.191	.085	-1.013	0.317
추천의향	4.42	4.21	0.62	0.929	.111	.093	1.426	0.158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한 문항에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 및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융합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협동 및 대인관계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개선할 점에 대한 자유 의견으로 멘티 중에는 파이썬 기초지식이

있는 학생도 있고, 파이썬을 다뤄보지 않은 학생도 있어서 짧은 기간 내에 기초지식과 프로젝트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진대회 위주로 진행하려면 멘토 또는 멘티의 수준을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전공에 제한이 없다 보니 비전공 학생들의 학습 난이도의 레벨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생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3학년도 2학기 4.28에서 2024학년도 1학기 4.42로 향상되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는 4.38에서 4.42로 증가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질 향상이 학생들의 재참여 의향과 추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된 지도교수제는 멘토들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받으며 활동 보고서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였다. 그러나 지도교수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멘토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재참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교수제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멘토들의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멘토와 멘티 간의 학습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멘토링 방식을 조정하거나 멘토와 멘티 수준을 판단하여 팀을 배정하거나 멘토에 대한 선발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지식과 배경지식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분석과 융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양 기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SW 코딩 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양 교과목으로 SW 과목을 수준별로 기초/심화 또는 활용 분야별로 데이터 분석/인공지능 등과 같이 다양하게 개설하기엔 학습자의 수요 및 교수자 배정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또한, SW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초 SW 코딩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의 교양 교육 및 전공 교육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교양 교육 및 전공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간진숙, 「대학에서의 멘토링 모형 개발 연구」, 2011, 25쪽.
- 김성현, 「비전공 대학생의 코딩교육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인문사회 21』 13권 2호, 인문사회 21, 2022, 738쪽.
- 김수연·이명관,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인식 및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방향성 제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권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596쪽.
- 김현주, 「인문교양 수업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1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762쪽.
- 대한민국정부, 「2023 지능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 59쪽.
- 부선영, 「프로젝트 수업 모형을 활용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교수·학습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성신여자대학교>, <https://www.sungshin.ac.kr>, 2024.06.15.
- 손동현, 「자유교육의 르네상스는 반시대적인가?」,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2024, 12쪽.
- 송복섭·이순주, 「창의성 멘토링프로그램에 의한 건축설계교수법 혁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1권 12호, 대한건축학회, 2015, 26쪽.
- 장상필·김지일, 「비교과 교육을 통한 융합적 사고력 증진 방안 연구」, 『교육종합연구』 13권 4호, 교육종합연구원, 2015, 137쪽.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 최병권,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인재멘토링」, 2004, 102쪽.
- 한안나,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 D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0권 4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7, 114쪽.

Margo, M. 저, 이용철 역, *Beyond the myths and magic of mentoring*,
2005, 41쪽.

<PYPL>, <https://pypl.github.io/PYPL.html>, 2024.06.15.

<SW중심대학협의회>, <https://www.swuniv.kr/36>, 2024.06.15.

<TIOBE>, <https://www.tiobe.com/tiobe-index>, 2024.06.15.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28에서 4.42로 향상되었고, 프로그램 재참여 의향과 추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도교수제를 도입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의 관리 및 멘토의 활동 보고서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자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파이썬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실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및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융합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협동 및 대인관계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배울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 간의 학습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멘토링 방식이나 난이도를 조정하고, 멘토의 선발기준을 체계화 시킬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교양 교육 및 전공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비교과 프로그램, 멘토링

■ Abstract

A Case Study of an Extracurricular Program to Enhance University Students' Data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tilization Skills : Focused on the case Mentoring program

Noh, Kyoung Sook /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This study conducted and evaluated an extracurricular program aimed at improving university students' skills in data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increased from 4.28 to 4.42, which is significant for enhancing stu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again and recommend it to others. By introducing a faculty advisor system,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mentoring program were strengthened through review and feedback on mentors' activity reports, improving the program's effectiveness. Additionally, through competitions, participants enhanced their practical problem-solving skills and their understanding and proficiency in Python and AI.

Furthermore, students reported learning 'integrative competencies utilizing diverse majors and backgrounds',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collabor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and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through the program.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the difference in learning levels between mentors and mentees during program operation, adjusting mentoring methods or difficulty levels, and systematizing mentor selection criteria.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directions for future program improvements. By doing so, it intend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ity's general education and major education programs.

Keyword • AI Data Science extracurricular program, mentoring

■ 논문투고일:2024.06.23. ■ 심사완료일:2024.07.22. ■ 게재확정일:2024.07.24. ■

퍼지함의를 일반화한 대수구조

연 용 호*

목 차

1. 서론
2. 정의 및 기본성질
3. 퍼지함의
4. DBCK-대수
5. 맺음말

1. 서론

퍼지 집합(fuzzy set)은 1965년 Zadeh(Zadeh, 1965)에 의해 소개되었다. 퍼지 집합은 기존의 집합을 퍼지 논리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으로 각 원소가 그 집합에 속하는 정도(소속도)를 나타내는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 $\mu_A : X \rightarrow [0, 1]$ 에 의해 정의한다. 여기에서 각 $x \in X$ 에 대한 함숫값 $\mu_A(x)$ 는 퍼지집합 A 에 대한 x 의 소속도를 의미한다. 즉, 원소가 집합에 완전히 속하는 경우는 1, 전혀 속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나타내고, 그 외의 소속도는 0과 1 사이의 실수로 나타낸다.

* 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교수

퍼지 집합의 개념을 논리의 개념으로 변환하여, 원소의 소속도를 어떤 명제의 참인 정도로 해석하면 퍼지논리의 개념을 다치논리의 개념에 적용할 수 있다.

퍼지 집합의 정의에서 $[0, 1]$ 은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임의의 두 원소 $x, y \in [0, 1]$ 에 대한 최소상계(least upper bound)와 최대하계(greatest lower bound)가 각각

$$x \vee y = \sup\{x, y\}, \quad x \wedge y = \inf\{x, y\}$$

로 존재하여 $[0, 1]$ 은 하나의 격자(lattice)가 된다. 또한 집합에서 추론을 위한 함의(implication) \rightarrow 를 정의하고 있으나, Łukasiewicz의 함의, Gödel의 함의(연용호, 2023) 등 다양한 함의가 존재하며, 그 정의가 유일하지 않고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특정 성질들을 만족하는 함의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Jayaram & Mesiar, 2009). 따라서 퍼지논리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함의가 정의된 격자 또는 부분순서집합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많은 문헌에서 격자함의대수(lattice implication algebra), 헤이팅 준격자(Heyting semilattice), DBCK-대수(DBCK-algebra)와 같이 격자나 부분순서집합(partially ordered set)에 진릿값을 갖는 다치논리들이 소개되고 있다(Xu, 1993; Nemitz, 1965; Iséki & Tanaka, 1978). 이들은 논리합(disjunction), 논리곱(conjunction), 또는 함의 등을 이항연산자로 갖고, 특정 공리들을 만족하는 대수구조(algebraic structure)로 정의되어, 대수적인 관점에서 그 특성들이 연구되고 있다.

퍼지논리의 집합 $[0, 1]$ 은 전순서집합으로 좀 더 다양한 실생활의 예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퍼지논리의 성질들이 반영될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한 실생활의 예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다치논리 체계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뒤에서 다루어질 대수구조로 격자함의대수, 헤이

팅준격자, DBCK-대수의 정의와 성질을 소개한다. 3절에서 기존의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퍼지함의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어떠한 대수구조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4절에서 대수구조 $(L, \rightarrow, 1)$ 이 DBCK-대수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알아보고, 격자함의대수와 헤이팅대수가 DBCK-대수임을 증명한다. 또한, 격자함의대수이고 헤이팅대수인 대수구조는 부울대수임을 증명하여, 집합 $[0, 1]$ 에서 격자함의대수이고 헤이팅대수인 대수구조의 예를 만들 수 없음을 보인다.

2. 정의 및 기본성질

이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될 대수구조의 정의와 그들에 관련된 기본성질 들을 알아본다.

일련의 이항연산(binary operation)들이 정의되어 각 원소가 특정 공리들을 만족하는 집합 L 을 대수구조라 한다, 집합 L 에 정의되어 있는 이항연산들의 집합이 B 일 때, 이 대수구조를 (L, B) 로 나타낸다.

정의 2.1. 집합 L 이 부분순서집합이고, 임의의 두 원소 $x, y \in L$ 에 대하여 x 와 y 의 최대하계 $x \wedge y$ 가 존재할 때, (L, \wedge) 을 준격자(semilattice)라 한다. 또한, x 와 y 의 최소상계 $x \vee y$ 와 최대하계 $x \wedge y$ 가 모두 존재할 때, (L, \vee, \wedge) 을 격자라 한다(Davey & Priestley, 2002).

정의 2.2. 다음의 성질을 만족하는 $(L, \rightarrow, 1)$ 을 DBCK-대수라 한다(Iséki & Tanaka, 1978; Yon & Kim, 2012):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D1) (x \rightarrow y) \rightarrow ((y \rightarrow z) \rightarrow (x \rightarrow z)) = 1,$$

$$(D2) x \rightarrow ((x \rightarrow y) \rightarrow y) = 1,$$

$$(D3) x \rightarrow x = 1,$$

$$(D4) x \rightarrow y = y \rightarrow x = 1 \Rightarrow x = y,$$

$$(D5) x \rightarrow 1 = 1.$$

DBCK-대수 L 은 이항연산자 \rightarrow 와 특정 원소 1이 성질 (D1) ~ (D5)를 만족하는 대수구조로 격자가 아니다.

정의 2.3. 최솟값 0과 최댓값 1을 갖는 격자 (L, \vee, \wedge) 에 이항연산자 \rightarrow 와 대합(involution)인 단항 연산자 $'$ 가 정의되어, 다음의 성질을 만족할 때, 대수구조 $(L, \vee, \wedge, \rightarrow, ', 0, 1)$ 을 격자함의대수라 한다(Xu, 1993):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I1) x \rightarrow (y \rightarrow z) = y \rightarrow (x \rightarrow z),$$

$$(I2) x \rightarrow x = 1,$$

$$(I3) (x \rightarrow y) \rightarrow y = (y \rightarrow x) \rightarrow x,$$

$$(I4) x \rightarrow y = y \rightarrow x = 1 \Rightarrow x = y,$$

$$(I5) x \rightarrow y = y' \rightarrow x',$$

$$(L1) (x \vee y) \rightarrow z = (x \rightarrow z) \wedge (y \rightarrow z),$$

$$(L2) (x \vee y) \rightarrow z = (x \rightarrow z) \wedge (y \rightarrow z),$$

대합인 단항연산자란 임의의 $x \in L$ 에 대하여 $x'' = x$ 를 만족하는 연산자 $'$ 을 의미한다.

정리 2.4. 대합인 단항 연산자 $'$ 를 갖는 대수구조 $(L, \rightarrow, ', 1)$ 이 격자함의대수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L 이 공리 (I1) ~ (I5)를 만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1'은 L 의 최소원소이고 이를 0으로 나타낸다(Yon, 2015).

정리 2.5. 격자함의대수 L 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Yon, 2015):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1) 0' = 1, 1' = 0,$$

$$(2) x' = x \rightarrow 0, x'' = (x')' = x,$$

$$(3) x \rightarrow 1 = 1.$$

정의 2.6. 이항연산자 \rightarrow 이 정의되어 다음의 성질 (H)를 만족하는 격자

$(L, \vee, \wedge, \rightarrow)$ 을 헤이팅대수라 한다(Johnstone, 1982):

(H)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z \wedge x \leq y \Leftrightarrow z \leq x \rightarrow y)$.

L 이 헤이팅대수이면 임의의 원소 $x, z \in L$ 에 대하여 $z \wedge x \leq x$ 이고, 정의에 의해 모든 $z \in L$ 에 대하여 $z \leq x \rightarrow x$ 가 성립한다. 즉, 임의의 $x \in L$ 에 대하여 $x \rightarrow x$ 는 L 의 최대원소이다. 따라서 헤이팅대수는 최대원소 1을 갖는 격자이다.

정리 2.7. L 이 격자함의대수 또는 헤이팅대수이면, L 은 분배격자이다(Johnstone, 1982; Yon, 2015). 즉,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다음의 분배법칙을 만족한다:

$$x \vee (y \wedge z) = (x \vee y) \wedge (x \vee z) \quad (\text{또는} \quad x \wedge (y \vee z) = (x \wedge y) \vee (x \wedge z)).$$

정의 2.8. 이항연산자 \rightarrow 이 정의되어 정의 2.1의 성질 (H)를 만족하는 준격자 (L, \wedge, \rightarrow) 을 헤이팅준격자라 한다(Nemitz, 1965).

정리 2.9. 이항연산자 \rightarrow 와 원소 1을 갖는 준격자 $(L, \wedge, \rightarrow, 1)$ 이 헤이팅준격자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다(Johnstone, 1982):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HS1) \quad x \rightarrow x = 1,$$

$$(HS2) \quad x \wedge (x \rightarrow y) = x \wedge y,$$

$$(HS3) \quad y \wedge (x \rightarrow y) = y,$$

$$(HS4) \quad x \rightarrow (y \wedge z) = (x \rightarrow y) \wedge (x \rightarrow z).$$

정리 2.10. 헤이팅준격자 $(L, \wedge, \rightarrow, 1)$ 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Nemitz, 1965; Yon & Kim, 2012):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1) \quad x \rightarrow 1 = 1,$$

$$(2) \quad x \rightarrow y = y \rightarrow x = 1 \Rightarrow x = y,$$

$$(3) \quad x \rightarrow (y \rightarrow z) = y \rightarrow (x \rightarrow z).$$

정리 2.11. L 이 격자함의대수, 헤이팅준격자, 또는 DBCK-대수이면, L 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Iséki & Tanaka, 1978; Yon, 2015; Yon & Kim, 2012):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BR) L 의 부분순서 \leq 가 ($x \leq y \Leftrightarrow x \rightarrow y = 1$)로 정의된다,

(UB) $x \rightarrow ((x \rightarrow y) \rightarrow y) = 1$,

(AM) $x \leq y \Rightarrow z \rightarrow x \leq z \rightarrow y$ 그리고 $y \rightarrow z \leq x \rightarrow z$.

정의 2.12. 다음을 만족하는 격자 (L, \vee, \wedge) 을 부울대수(Boolean algebra)라 한다(Davey & Priestley, 2002).

(1) \vee 와 \wedge 에 대한 분배법칙(distributive law)이 성립한다,

(2) 최소원소 0과 최대원소 1이 존재한다,

(3) 임의의 원소 $x \in L$ 에 대해 x 의 여원(complement) x' 이 존재한다.

즉, $x \vee x' = 1$, $x \wedge x' = 0$ 를 만족하는 x' 이 존재한다.

정리 2.13. 부울대수 L 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Davey & Priestley, 2002): 임의의 $x, y \in L$ 에 대하여,

(1) $0' = 1$, $1' = 0$,

(2) $x'' = x$

(3) $(x \vee y)' = x' \wedge y'$, $(x \wedge y)' = x' \vee y'$.

3. 퍼지함의

이 절에서는 잘 알려진 퍼지함의들과 이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대수구조의 관계를 알아본다. 퍼지논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퍼지함의는 다음과 같다(Jayaram & Mesiar, 2009): 임의의 $x, y \in [0, 1]$ 에 대하여

(1) $x \rightarrow_L y = \min \{1, 1 - x + y\}$ (Łukasiewicz)

$$(2) x \rightarrow_G y = \begin{cases} 1 & \text{if } x \leq y \\ y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text{Gödel})$$

$$(3) x \rightarrow_F y = \begin{cases} 1 & \text{if } x \leq y \\ \max\{1-x, y\}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text{Foder})$$

$$(4) x \rightarrow_R y = \begin{cases} 1 & \text{if } x \leq y \\ 0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text{Rescher})$$

$$(5) x \rightarrow_W y = \begin{cases} 1 & \text{if } x \neq 1 \\ y & \text{if } x = 1 \end{cases} \quad (\text{Weber})$$

$$(6) x \rightarrow_{GG} y = \begin{cases} 1 & \text{if } x \leq y \\ \frac{y}{x}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text{Goguen})$$

실수의 부분집합 $[0, 1]$ 은 전순서집합(totally ordered set)이므로 임의의 실수 $x, y \in [0, 1]$ 에 대해 \vee 와 \wedge 가

$$x \vee y = \max\{x, y\}, \quad x \wedge y = \min\{x, y\}$$

로 정의되고, 최소원소 0과 1최대원소 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1) ~ (6)에서 정의된 각각의 함의 \rightarrow_{NAME} 을 갖는 대수구조 $([0, 1], \vee, \wedge, \rightarrow_{NAME}, 0, 1)$ 를 간단히 $[0, 1]_{NAME}$ 로 나타낸다.

Łukasiewicz의 퍼지함의 \rightarrow_L 를 갖는 대수구조 $[0, 1]_L$ 는 격자함의대수의 예이다(연용호, 2023). 그러나 $0.8, 0.3 \in [0, 1]$ 에 대해

$$0.8 \wedge (0.8 \rightarrow_L 0.3) = 0.8 \wedge (1 - 0.8 + 0.3) = 0.8 \wedge 0.5 = 0.5,$$

$$0.8 \wedge 0.3 = 0.3$$

으로 (HS2)를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0, 1]_L$ 은 헤이팅 준격자가 아니다.

Gödel의 퍼지함의 \rightarrow_G 를 갖는 대수구조 $[0, 1]_G$ 는 헤이팅 준격자이다(연용호, 2023). 그러나 $x < y$ 인 $x, y \in [0, 1]$ 에 대하여

$$(x \rightarrow_G y) \rightarrow_G y = 1 \rightarrow_G y = y \neq 1 = x \rightarrow_G x = (y \rightarrow_G x) \rightarrow_G x$$

로 격자함의대수의 공리 (I3)를 만족하지 못하여 격자함의대수가 아니다.

Forder의 퍼지함의 \rightarrow_F 를 갖는 대수구조 $[0, 1]_F$ 는 (I3)와 (BS2)를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격자함의대수도, 헤이팅준격자도 아니다. 실제로,

$$(0.5 \rightarrow_F 0.8) \rightarrow_F 0.8 = 0.8 \neq 1 = (0.8 \rightarrow_F 0.5) \rightarrow_F 0.5,$$

$$0.5 \wedge (0.5 \rightarrow_F 0.3) = 0.5 \neq 0.3 = 0.5 \wedge 0.3.$$

Forder의 대수구조 $[0, 1]_F$ 에서 $x' = 1 - x$ 이라 하면, 함의 \rightarrow_F 는

$$x \rightarrow_F y = \begin{cases} 1 & \text{if } x \leq y \\ x' \vee y & \text{otherwise} \end{cases}$$

로 정의될 수 있다.

정리 3.1. Forder의 대수구조 $[0, 1]_F$ 에서 $x' = 1 - x$ 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임의의 $x, y \in [0, 1]$ 에 대하여

$$(1) x'' = (x')' = x,$$

$$(2) x \leq y' \Rightarrow y \leq x',$$

$$(3) x \leq y \Rightarrow y' \leq x', \text{ 특히, } x < y \Rightarrow y' < x',$$

$$(4) x \rightarrow_F y = y' \rightarrow_F x'.$$

(증명) (1) $x'' = (1 - x)' = 1 - (1 - x) = x$ 이다.

(2) $x \leq y' = 1 - y$ 라 하면, $y \leq 1 - x = x'$ 이다.

(3) $x \leq y$ 라 하면, 이 정리의 (1)에 의해 $x \leq y = (y')'$ 이고, (2)에 의해 $y' \leq x'$ 이다. 또한 $y' = x'$ 이면 $y = y'' = x'' = x$ 이다. 따라서 $x < y$ 이면 $y' < x'$ 이다.

(4) 임의의 $x, y \in [0, 1]$ 에 $x \leq y$ 또는 $x > y$ 이다. $x \leq y$ 이면 이 정리의 (3)에 의해 $y' \leq x'$ 이다. 따라서 $x \rightarrow_F y = 1 = y' \rightarrow_F x'$ 이다. $x > y$ 이면,

$$x \rightarrow_F y = x' \vee y = y \vee x' = (y')' \vee x' = y' \rightarrow_F x'$$

이다. 따라서 $x \rightarrow_F y = y' \rightarrow_F x'$ 이 성립한다.

정리 3.2. Forder의 대수구조 $[0, 1]_F$ 는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임의의 $x, y, z \in [0, 1]$ 에 대하여

$$(1) x \leq y \Leftrightarrow x \rightarrow_F y = 1,$$

$$(2) y \leq x \rightarrow_F y,$$

$$(3)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4) x \leq y \rightarrow_F z \Rightarrow x \leq y \rightarrow_F z,$$

$$(5) x \leq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y$$

$$(6) x \leq y \Rightarrow y \rightarrow_F z \leq x \rightarrow_F z \text{ 이고 } z \rightarrow_F x \leq z \rightarrow_F y$$

(증명) (1) (\Rightarrow) 함의 \rightarrow_F 의 정의에 의해 자명하다.

(\Leftarrow) $x \rightarrow_F y = 1$ 이라 하면, $x \leq y$ 또는 $x' \vee y = 1$ 이다. $x \leq y$ 이면 결론이 성립한다. $x' \vee y = 1$ 이면 $x' = 1$ 또는 $y = 1$ 이고, $x' = 1$ 이면 $x = x'' = 1 - x' = 1 - 1 = 0$ 이므로 $x = 0 \leq y$ 가 성립하고, $y = 1$ 이면 $x \leq 1 = y$ 가 성립한다. 따라서 $x \leq y$ 이다.

(2) 임의의 $x, y \in [0, 1]$ 에 대해 $x \leq y$ 또는 $x > y$ 이다. $x \leq y$ 이면 $x \rightarrow_F y = 1$ 이므로 $y \leq 1 = x \rightarrow_F y$ 이고, $x > y$ 이면

$$y \leq x' \vee y = x \rightarrow_F y$$

이다. 따라서 $y \leq x \rightarrow_F y$ 이 성립한다.

(3) $x, y, z \in [0, 1]$ 이라 하자. $x = y$ 이면 자명하다. 또한 $x \leq z$ 이면 이 정리의 (2)에 의해 $x \leq z \leq y \rightarrow_F z$ 이고 $x \rightarrow_F z = 1$ 이므로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 1 = y \rightarrow_F 1 = y \rightarrow_F (x \rightarrow_F z)$$

이다. 즉, $x = y$ 또는 $x \leq z$ 이면 이 성질이 성립한다. 따라서 $x \neq y$ 이고 $x > z$ 인 경우에 이 성질을 증명한다.

$x < y$ 라 하면, $y' < x'$ 이고, z 의 크기에 따라 다음의 가능한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다.

① $z \leq y' < x'$ 이면, \vee 의 정의와 정리 3.1에 의해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 x \rightarrow_F (y' \vee z) = x \rightarrow_F y',$$

$$y \rightarrow_F (x \rightarrow_F z) = y \rightarrow_F (x' \vee z) = y \rightarrow_F x' = x'' \rightarrow_F y' = x \rightarrow_F y'$$

이다. 따라서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 y \rightarrow_F (x \rightarrow_F z)$ 가 성립한다.

② $y' < z \leq x'$ 이면, $y' < z < x$ 이고 $x' < z' < y'' = y$ 이므로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 x \rightarrow_F (y' \vee z) = x \rightarrow_F z = x' \vee z = x',$$

$$y \rightarrow_F (x \rightarrow_F z) = y \rightarrow_F (x' \vee z) = y \rightarrow_F x' = y' \vee x' = x'$$

이다. 따라서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 y \rightarrow_F (x \rightarrow_F z)$ 가 성립한다.

③ $y' < x' < z$ 이면, $x = x'' < y'' = y$ 이고, $z < x < y$ 이므로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 x \rightarrow_F (y' \vee z) = x \rightarrow_F z = x' \vee z = z,$$

$$y \rightarrow_F (x \rightarrow_F z) = y \rightarrow_F (x' \vee z) = y \rightarrow_F z = y' \vee z = z$$

이다. 따라서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 y \rightarrow_F (x \rightarrow_F z)$ 가 성립한다. $x > y$ 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4) 임의의 $x, y, z \in [0, 1]$ 에 대하여 $x \leq y \rightarrow_F z$ 라 하면, 이 정리의 (3)과 (1)에 의해 $y \rightarrow_F (x \rightarrow_F z) =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z) = 1$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정리의 (1)에 의해 $y \leq x \rightarrow_F z$ 이다.

(5) 임의의 $x, y \in [0, 1]$ 에 대하여 $x \rightarrow_F y \leq x \rightarrow_F y$ 이다. 따라서 이 정리의 (4)에 의해 $x \leq (x \rightarrow_F y) \rightarrow_F y$ 가 성립한다.

(6) $x \leq y$ 라 하면, 이 정리의 (5)에 의해 $x \leq y \leq (y \rightarrow_F z) \rightarrow_F z$ 이다. 따라서 이 정리의 (4)에 의해 $y \rightarrow_F z \leq x \rightarrow_F z$ 이다.

또한, $z \rightarrow_F x \leq z \rightarrow_F y$ 임을 보이기 위해 $x \leq y$ 라 가정하자. $z \rightarrow_F y = 1$ 이면 $z \rightarrow_F x \leq 1 = z \rightarrow_F y$ 이 성립한다. $z \rightarrow_F y \neq 1$ 이면, 이 정리의 (1)에 의해 $z \not\leq y$ 이므로 $y < z$ 이고, $x \leq y < z$ 이다. 따라서 $z \rightarrow_F x = z' \vee x \leq z' \vee y = z \rightarrow_F y$ 가 성립한다.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대수구조 $[0, 1]_L$, $[0, 1]_G$, $[0, 1]_F$ 는 정리 2.11과 정리 3.2에 의해 성질 (BR), (UB), (AM)을 모두 만족한다.

Rescher의 퍼지함의 \rightarrow_R 를 갖는 대수구조 $[0, 1]_R$ 는 $0 < x \leq y < 1$ 을 만족하는 $x, y \in [0, 1]$ 에 대하여

$$x \not\leq 0 = 1 \rightarrow_R y = (x \rightarrow_R y) \rightarrow_R y$$

로 (UB)를 만족하지 못한다. 또한 Weber의 퍼지함의 \rightarrow_W 를 갖는 대수구조 $[0, 1]_W$ 도 $0.8 \rightarrow_W 0.1 = 1$ 이지만 $0.8 \not\leq 0.1$ 로 (BR)을 이용하여 부분순서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정리 2.11에 의해 $[0, 1]_R$ 와 $[0, 1]_W$ 는 DBCK-대수가 아니다.

4. DBCK-대수

정리 4.1. 성질 (BR), (UB), 그리고 (AM)를 만족하는 대수구조 $(L, \rightarrow, 1)$ 에서 다음의 두 성질은 서로 동치이다: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EC) \ x \rightarrow (y \rightarrow z) = y \rightarrow (x \rightarrow z)$$

$$(D1) \ (x \rightarrow y) \rightarrow ((y \rightarrow z) \rightarrow (x \rightarrow z)) = 1$$

(증명) $((EC) \Rightarrow (D1))$ $x, y, z \in L$ 에 대하여 (EC)가 성립함을 가정하자. (UB)에 의해 $y \leq (y \rightarrow z) \rightarrow z$ 가 성립한다. 또한 (AM)과 가정 (EC)에 의해 $x \rightarrow y \leq x \rightarrow ((y \rightarrow z) \rightarrow z) = (y \rightarrow z) \rightarrow (x \rightarrow z)$ 이 성립한다. 따라서 (BR)에 의해 (D1)이 성립한다.

$((D1) \Rightarrow (EC))$ $x, y, z \in L$ 에 대하여 (D1)이 성립함을 가정하자. (UB)에 의해 $y \leq (y \rightarrow z) \rightarrow z$ 가 성립한다. 또한 (AM)에 의해

$$((y \rightarrow z) \rightarrow z) \rightarrow (x \rightarrow z) \leq y \rightarrow (x \rightarrow z)$$

이 성립하고, 가정 (D1)과 (BR)에 의해

$$x \rightarrow (y \rightarrow z) \leq ((y \rightarrow z) \rightarrow z) \rightarrow (x \rightarrow z)$$

이 성립한다. 따라서 $x \rightarrow (y \rightarrow z) \leq y \rightarrow (x \rightarrow z)$ 이다. x, y, z 는 L 의 임의의 원소이므로 위의 증명에서 x 와 y 를 바꾸어 $y \rightarrow (x \rightarrow z) \leq x \rightarrow (y \rightarrow z)$ 임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y \rightarrow (x \rightarrow z) = x \rightarrow (y \rightarrow z)$ 이다.

정리 4.2. 모든 격자함의대수는 DBCK-대수이다.

(증명) L 이 격자함의대수이면, 정리 2.11에 의해 L 은 성질 (BR), (UB), (AM)

을 만족한다. 따라서 정리 4.1을 이용할 수 있다. L 은 공리 (I1)으로 부터 (EC)를 만족하고, 정리 4.1에 의해 (D1)을 만족한다. 그리고 L 은 성질 (UB), (I2), (I4)를 만족하므로 (D2) ~ (D4)를 모두 만족한다. 또한, 정리 2.5(3)를 만족하므로 (D5)도 만족한다. 따라서 L 은 DBCK-대수의 공리 (D1) ~ (D5)를 모두 만족하여 DBCK-대수이다.

정리 4.3. 모든 헤이팅 준격자는 DBCK-대수이다.

(증명) L 이 헤이팅 준격자이면, 정리 2.11에 의해 L 은 성질 (BR), (UB), (AM)을 모두 만족한다. 따라서 정리 4.1을 이용할 수 있다. 은 정리 2.10(3)에 의해 (EC)를 만족하고, 정리 4.1에 의해 (D1)을 만족한다. 또한, L 은 (UB), 정리 2.9(HS1), 정리 2.10의 (1), (2)를 만족하므로 공리 (D2) ~ (D5)를 모두 만족한다. 따라서 L 은 DBCK-대수이다.

정리 4.4. 최대원소 1을 갖는 대수구조 $(L, \rightarrow, 1)$ 에 대하여 다음은 동치이다:

(1) $(L, \rightarrow, 1)$ 이 성질 (BR), (UB), (AM), (EC)를 만족한다.

(2) $(L, \rightarrow, 1)$ 은 DBCK-대수이다.

(증명) $((1) \Rightarrow (2))$ L 이 성질 (BR), (UB), (AM), (EC)를 만족하면, 정리 4.1에 의해 (D1)을 만족하고, (UB)를 만족하므로 (D2)도 만족한다. 또한 임의의 $x, y \in L$ 에 대해, $x \leq x$, $x \leq 1$ 이므로 (BR)에 의해 $x \rightarrow x = 1$, $x \rightarrow 1 = 1$ 이다. 또한 $x \rightarrow y = y \rightarrow x = 1$ 이면 $x \leq y$ 이고 $y \leq x$ 이므로 $x = y$ 이다. 따라서 (D3) ~ (D5)를 모두 만족한다.

$((2) \Rightarrow (1))$ L 이 DBCK-대수이면, 정리 2.10에 의해 L 은 성질 (BR), (UB), (AM)을 만족한다. 또한 (D1)을 만족하므로 정리 4.1에 의해 (EC)를 만족한다.

Forder의 대수구조 $[0, 1]_F$ 는 정리 3.2로 부터 성질 (BR), (UB), (AM), (EC)를 모두 만족한다. 따라서 정리 4.4에 의해 $[0, 1]_F$ 는 DBCK-대수이다.

그러나 Rescher와 Weber의 대수구조 $[0, 1]_R$, $[0, 1]_W$ 는 3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DBCK-대수가 아니며, 정리 4.2와 정리 4.3에 의해 격자함의 대수도 아니고, 헤이팅준격자도 아니다.

정리 4.5. L 이 격자함의대수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임의의 $x, y \in L$ 에 대하여

$$(1)(x \vee y)' = x' \wedge y',$$

$$(2)(x \wedge y)' = x' \vee y'$$

(증명) $x, y \in L$ 이라 하면 정리 2.5(2)와 (L1), (L2)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

$$(x \vee y)' = (x \vee y) \rightarrow 0 = (x \rightarrow 0) \wedge (y \rightarrow 0) = x' \wedge y',$$

$$(x \wedge y)' = (x \wedge y) \rightarrow 0 = (x \rightarrow 0) \vee (y \rightarrow 0) = x' \vee y'.$$

정리 4.6. 대수구조 $(L, \vee, \wedge, \rightarrow, ', 0, 1)$ 이 격자함의대수이고 헤이팅준격자이면, $(L, \vee, \wedge, ', 0, 1)$ 은 부울대수이다.

(증명) $x \in L$ 이라 하면 정리 2.5(2)와 정리 2.9(HS2)에 의해

$$x \wedge x' = x \wedge (x \rightarrow 0) = x \wedge 0 = 0$$

이고, 정리 2.5의 (1), (2)와 정리 4.5(2)에 의해

$$x \vee x' = x'' \vee x' = (x' \wedge x)' = 0' = 1$$

이다. 즉, 모든 $x \in L$ 에 대해 x 의 여원 x' 이 존재한다. 또한 정리 2.7에 의해 L 이 분배격자이므로 L 은 부울대수이다.

정리 4.7. 대수구조 $(L, \vee, \wedge, ', 0, 1)$ 이 부울대수이면 L 은 격자함의대수이고 헤이팅준격자이다.

(증명) 먼저 정의 2.6의 (H)를 이용하여 L 이 헤이팅준격자임을 증명한다. 임의의 $x, y \in L$ 에 대해 $x, y \in L$ 라 정의하자.

$$z \wedge x \leq y \text{라 하면, } x' \vee (z \wedge x) \leq x' \vee y = x \rightarrow y \text{이고,}$$

$$x' \vee (z \wedge x) = (x' \vee z) \wedge (x' \vee x) = (x' \vee z) \wedge 1 = x' \vee z$$

이므로 $x' \vee z \leq x \rightarrow y$ 이다. 또한, $z \leq x' \vee z$ 이므로 $z \leq x \rightarrow y$ 이다.

$z \leq x \rightarrow y$ 라 하면 $z \leq x \rightarrow y = x' \vee y$ 이고, $x \wedge z \leq x \wedge (x' \vee y)$ 이다.

$$x \wedge (x' \vee y) = (x \wedge x') \vee (x \wedge y) = 0 \vee (x \wedge y) = x \wedge y \leq y$$

이므로 $x \wedge z \leq y$ 이다. 따라서 정의 2.6에 의해 L 은 헤이팅준격자이다.

다음으로 정리 2.4를 이용하여 L 이 격자함의대수임을 보인다. 임의의 $x, y, z \in L$ 에 대하여 $x \rightarrow x = x' \vee x = 1$ 이므로 (I2)를 만족하고,

$$x \rightarrow (y \rightarrow z) = x' \vee (y' \vee z) = y' \vee (x' \vee z) = y \rightarrow (x \rightarrow z),$$

$$x \rightarrow y = x' \vee y = y'' \vee x' = y' \rightarrow x'$$

이므로 (I1)와 (I5)를 만족한다. 또한,

$$(x \rightarrow y) \rightarrow y = (x' \vee y)' \vee y = (x \wedge y') \vee y$$

$$= (x \vee y) \wedge (y' \vee y) = (x \vee y) \wedge 1 = x \vee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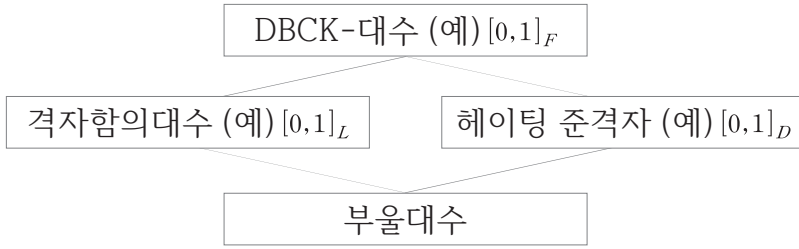
이고, 같은 방법으로 $(y \rightarrow x) \rightarrow x = x \vee y$ 임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I3)를 만족한다. (I4)를 만족함을 보이기 위해 $x \rightarrow y = y \rightarrow x = 1$ 이라 하면 $x' \vee y = 1$ 이고 $y' \vee x = 1$ 이다. 따라서

$$x = x \wedge 1 = x \wedge (x' \vee y) = (x \wedge x') \vee (x \wedge y) = 0 \vee (x \wedge y) = x \wedge y,$$

$$y = 1 \wedge y = (y' \vee x) \wedge y = (y' \wedge y) \vee (x \wedge y) = 0 \vee (x \wedge y) = x \wedge y$$

이므로 $x = y$ 이다. L 이 (I1) ~ (I5)를 모두 만족하므로 정리 2.4에 의해 L 은 격자함의대수이다.

위의 정리와 예제들을 요약하여 [그림 1]로 표현하였다. [그림 1]은 앞에서 소개한 퍼지함의를 예로 갖는 일반화된 대수적 구조들을 나타낸 것이다. 위쪽의 대수구조가 아래쪽보다 일반화된 구조이며, 각 대수적 구조의 예를 명시하였다.



[그림 1]

실수의 부분집합 $[0, 1]$ 을 이용하여 격자함의대수이면서 동시에 헤이팅준격자인 대수구조의 예 $([0, 1], \vee, \wedge, \rightarrow, ', 0, 1)$ 는 만들 수 없다. 이유는 만약 $([0, 1], \vee, \wedge, \rightarrow, ', 0, 1)$ 이 격자함의대수이면서 헤이팅 준격자라 하면 정리 4.6에 의해 $(L, \vee, \wedge, ', 0, 1)$ 이 부울대수이어야 한다. 그러나 $0 < x < 1$ 인 $x \in [0, 1]$ 에 대하여 $x \vee x' = 1$ 이 성립하는 x' 이 존재하지 않는다.

Goguen의 대수구조 $[0, 1]_{GG}$ 는 격자함의대수도, 헤이팅준격자도 아니지만 (I3)를 만족한다. $[0, 1]_{GG}$ 는 DBCK-대수이면서 임의의 $x, y \in [0, 1]_{GG}$ 에 $x \vee y = (x \rightarrow y) \rightarrow y$ 를 갖는 대수구조를 갖는다.

5. 맺음말

퍼지논리에서 잘 알려진 함의연산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특성과 함께 이러한 함의들을 예로 가질 수 있는 일반화된 대수구조를 알아보았다. Łukasiewicz과 Gödel의 퍼지함의는 각각 격자함의대수와 헤이팅준격자로 일반화될 수 있으나, Rescher와 Weber의 퍼지함의는 DBCK-대수가 아닌 예로 그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대수체계가 추가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Forder의 함의연산자에 대한 성질을 조사하여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대수구조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일반화의 한 예로 DBCK-대수를 소개하였

다. 또한, 격자함의대수와 헤이팅준격자가 DBCK-대수임과, 격자함의대수 이면서 헤이팅준격자인 대수구조는 부울대수이고, 역으로 부울대수는 격자함의대수이면서 헤이팅 준격자임을 입증하였다.

■ 참고 문헌

- 연용호, 「괴델과 우카시에비치의 다치논리」, 『지식과 교양』 통권 12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3, 265-277쪽.
- B. A. Davey · H. A. Priestley, *Introduction to lattices and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 2002.
- B. Jayaram · R. Mesiar, “On special fuzzy implication”, *Fuzzy Sets and System*, vol. 160, 2009, pp.2063-2085.
- K. Iséki · S. Tanaka,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BCK-algebras”, *Mathematica Japonica*, vol. 23, 1978, pp.1-26.
- L. A. Zadeh, “Fuzzy sets”, *Information and Control*, vol. 8, 1965, pp.338-353.
- P. T. Johnstone, *Stone spa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W. C. Nemitz, “Implicative semi-lattices”, *Trans. Amer. Math. Soc.*, vol. 117, 1965, pp.128-142.
- Y. H. Yon · K. H. Kim, “On Heyting algebras and dual BCK-algebras”, *Bull. Iranian Math. Soc.*, vol. 38, no. 1, 2012, pp.159-168.
- Y. H. Yon, “On quasi-lattice implication algebras”, *J. Appl. Math. & Informatics*, vol. 33, 2015, pp.739-748.
- Y. Xu, “Lattice implication algebras”, *J. Southwest Jiaotong Univ.*, vol. 1, 1993, pp.20-27.

■ 국문초록

퍼지논리는 실수의 부분집합 $[0, 1]$ 안에 진리 값을 갖는 다치논리 체계이다. 집합 $[0, 1]$ 은 전순서집합으로 다양한 실생활의 예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실생활의 예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다치논리 체계가 연구되고 그들의 성질이 조사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퍼지논리가 일반화될 수 있는 대수구조로써 격자함의대수, 헤이팅 준격자, DBCK-대수의 정의와 성질을 소개한다. 그리고 집합 $[0, 1]$ 에서 정의된 퍼지함의들과 이들의 성질을 조사하고, 이러한 함의를 갖는 퍼지논리가 일반화될 수 있는 대수적 구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수구조 $(L, \rightarrow, 1)$ 이 DBCK-대수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알아본다. 또한 격자함의대수와 헤이팅 준격자가 DBCK-대수임과, 격자함의대수이고 헤이팅 준격자인 대수구조는 부울대수임을 증명한다.

주제어 • 퍼지함의, 격자함의대수, 헤이팅 대수, DBCK-대수, 부울대수

■ Abstract

Algebraic structures generalizing fuzzy implications

Yon, Yong Ho / Mokwon University

Fuzzy logic is a many-valued logical system with truth values within the subset $[0, 1]$ of real numbers. The set $[0, 1]$ is a totally ordered set, and thus it has limitations in application to various real-life examples. Therefore, generalized many-valued logical systems that can be applied to more various examples of real life need to be studied and their properties investigated.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definitions and properties of lattice implication algebras, Heyting semi-lattices, and DBCK-algebras as algebraic structures that can generalize existing fuzzy logic. We also investigate the fuzzy implications defined in the set $[0, 1]$ and their properties, and propose algebraic structures in which fuzzy logic with such implications can be generalized. To do this, we find out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an algebraic structure $(L, \rightarrow, 1)$ to be DBCK-algebra. Also, we prove that lattice implication algebras and Heyting semilattices are DBCK-algebras, and that the algebraic structure, which is a lattice implication and a Heyting semi-lattice, is an equivalent notion to Boolean algebra.

Keyword • Fuzzy implication, Lattice implication algebra, Heyting algebra, DBCK-algebra, Boolean algebra

미디어 지식을 활용한 대학생 UX 라이팅 교육 연구

고 선 정*

목 차

1. 서론
2. UX 라이팅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3. 미디어 지식을 활용한 UX 라이팅 수업 사례
4.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UX 라이팅 수업 설계 방안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미디어 지식을 활용한 UX 라이팅(User eXperience Writing) 교육을 시도하고, 향후 대학생 글쓰기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간의 언어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양적으로 성숙된 인간을 대학에서 육성하려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주체적인 글쓰기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온라인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연구원

가운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요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글쓰기 수업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본 연구는 UX 라이팅 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존 연구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창덕(2021)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 필요한 문식력(literacy)은 단순한 글쓰기 능력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글쓰기 수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¹⁾ 김현정(2020)은 글쓰기 교육의 목표가 기초 문식력 향상이 아닌 고차원적인 사고력 계발에 있기 때문에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학술적 글쓰기 이외에 다양한 글쓰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²⁾ 실제로 대학 글쓰기 담당 교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사회 변화에 따라 대학 글쓰기 교육에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물었을 때 63.7%(70명)가 '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³⁾ 이러한 연구는 글쓰기 교육에 개선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글쓰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수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글쓰기는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고차원의 사고력을

-
- 1) 이창덕, 「21세기 문식력 (literacy) 과 '대학글쓰기'교육에 대하여」, 『리터러시연구』 18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6, 18쪽.
 - 2) 김현정,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 『교양교육연구』 14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18-19쪽.
 - 3) 이윤빈,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양상-전국 4년제 대학 소속교원 110명의 설문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53권, 한국작문학회, 2022, 65-66쪽.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글쓰기가 대학 글쓰기 수업과 연계될 수 있게 하거나(이창덕, 2021), 의사소통 역량과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간 연계성을 구축해야 한다고(김현정, 2020) 보았다. 여기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연계성’이다. 이때의 연계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글쓰기 역량을 함양하면서,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UX 라이팅 교육과 글쓰기 수업의 연계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UX 라이팅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UX 라이팅 교육의 방향성을 세워본다. 다음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서 소규모로 UX 라이팅 교육을 진행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UX 라이팅 수업 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UX 라이팅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1) UX 라이팅 기본 개념

UX 라이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UX 라이팅 업무를 소개하는 책이나 UX 라이팅과 관련한 융합적 연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UX 라이팅에 대한 개념은 UX 라이터와 UX 라이팅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UX 라이팅을 일종의 디자인으로 보는 견해다. 익스피디아와 어도비에서 UX 라이팅 업무를 맡고 있는 마이클과 앤디는 자신들을 ‘문구 디자이너’라고 소개한다.⁴⁾ UX 라이팅은 여러 단어를 엮어서 사용자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문구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문구 디자이너라는 것이

4) Michael J. Metts · Andy Welfie 저, 심태은 역, 『UX 라이터의 글쓰기 수업』, 유엑스리뷰, 2023, 20쪽.

다. 구글의 UX 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토레이는 사용자가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 경험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정보나 콘텐츠에 들어가는 표현을 작성하는 과정이 UX 라이팅이라고 보았다.⁵⁾

둘째, UX 라이팅을 상호작용을 통한 사용자의 경험을 다루는 글쓰기로 보는 견해다. 버헨스던크와 샬라모바(Verhulsdonck & Shalamova, 2020)는 UX 라이팅에 대해 상호작용을 통한 사용자의 전체적인 경험과 관련되며, 제품의 사용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감정, 행동과 같은 전체적인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송수진 외(2023)도 UX 라이팅에 대해 사용자 경험에 쓰이는 표현을 만드는 과정이며 사용자가 다음 단계의 경험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⁶⁾

셋째, UX 라이팅에 대해 메시지 전달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다. 이유림과 최종훈(2023)은 UX 라이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 및 조직과 서비스를 이용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용자 간의 대화라고 정의했다.⁷⁾ 언어의 선택과 표현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쉹(Cheng, 2021)은 UX 라이팅이 단지 정보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정보를 탐색하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도록⁸⁾ 이끌어야 한다고

5) Torrey Podmajersky 저, 김경애 역, 『전략적 UX 라이팅』, 유엑스리뷰, 2022, 8쪽.

6) 송수진·정글지·정주미·전수진, 「관계에 따른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UX writing framework」,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23년 2호, 한국HCI학회, 2023, 479-484쪽.

7) 이유림·최종훈, 「모바일 금융 플랫폼 UX 라이팅 개선 가이드라인 제안 -Grice의 협력 원리는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9권 9호,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676-677쪽.

8) Wei Cheng, "Translator Competence Revisited in the Scenario of Digital

보았다. 이처럼 문구, 경험, 관계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인 기반은 UX 라이팅은 사용자 중심 글쓰기라는 점이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UX 라이팅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구와 표현을 사용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중심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UX 라이팅은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포장하여 제시하는 카피 라이팅(Copy writing)과 구별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UX Copywriting 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업무 간에 유사성 때문에 카피라이터에서 UX 라이터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듯 두 개념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구분이 쉽지가 않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UX 라이팅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UX 라이팅을 사용자의 감정을 고려한 글쓰기,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글쓰기, 사용자의 지속적인 정보 탐색을 이끄는 글쓰기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고나 판매를 위해 창의적인 글쓰기가 요구되는 카피라이팅과 달리 UX 라이팅은 사용자 심리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한 글쓰기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UX 라이팅에서 상호작용은 영상 또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뤄진 복합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매개로 이뤄진다. 따라서 UX 라이팅 교육은 글쓰기 교육을 통해 미디어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UX 라이팅의 인문학적 요소

UX 라이팅이 사용자의 심리를 고려한 글쓰기를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

Genr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vol. 01, 2021, p.49.

한다는 점에서 행동 경제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UX 라이팅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용자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넛지(nudge)가 UX 라이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⁹⁾ 넛지는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X 라이팅의 목적은 언어를 통한 넛지가 되어야 한다. 넛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설득’이 관건이며, 그런 점에서 UX 라이팅 교육은 설득적 글쓰기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서 행동을 설계하려면 사용자의 심리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이스와 톤을 설정하려면 단어와 표현 사용에 신중해야 하고, 어감에도 민감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관계에 따라 높임법이나 공손법이 달라지는데다, 적당히 상대방을 높이면서 친근하게 대화하기가 어렵다 보니, 어법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학과도 연결되면서, UX 라이팅은 사용자의 심리를 반영한 글쓰기라고도 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UX 라이팅은 또한 커뮤니케이션학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화면을 스크롤하고 하이퍼링크를 따라가거나 클릭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용자를 목표 지점까지 이동시키려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능이 어렵고 과정이 복잡할수록 문구가 간결해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와 어휘를 사용하고 명료한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글쓰기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Gustav Verhulsdonck · Nadya Shalamova, “Creating content that influences people: Considering user experience and behavioral design in technical communication”, Journal of Technical Writing and Communication, vol. 50, no. 4, 2020, p.377.

쿠팡, 무신사 그리고 LINE 등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UX 라이터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접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언어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객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기업과 브랜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기업의 자세를 드러내며 기업의 메시지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권오형, 2021).¹⁰⁾ 또한 고객에 대한 코멘트가 공감인지, 격려인지, 감시인지, 주제 넘은 치하인지는 메시지를 받는 각 개인의 성향, 상황, 감정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충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언어적 표현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UX 라이팅이라고 한다(전주경, 2023).¹¹⁾

이처럼 UX 라이팅에서는 텍스트의 성격과 목표 대상에 따라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글쓰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풍부한 언어 지식이 요구된다. 언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은 또한 글쓰기 교육의 핵심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UX 라이팅은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글쓰기로 미디어의 특성과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UX 라이팅을 다룬다면 특정 주제 글쓰기나 혼자서 완성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 지식을 습득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는 그룹 활동을 통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는 의미를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UI(User Interface) 디자인, 모바일과 PC의 차이, 콘텐츠별 스크롤 방식 등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한 글쓰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그룹 활동 중심의 글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0) 권오형, 『UX 라이팅 시작하기』, 유엑스리뷰, 2021, 53쪽.

11) 전주경, 『그렇게 쓰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월북, 2023, 162-163쪽.

3. 미디어 지식을 활용한 UX 라이팅 수업 사례

1) UX 라이팅을 적용한 프로젝트 제작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번역 수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일부 그룹 학생을 대상으로 UX 라이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이전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종합하여 창의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목이다. 수강생의 관심사에 따라 미디어 번역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수업은 그룹별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한 학기 15주 수업 가운데 수업 초반(4주)은 수강생들이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설명을 제공했고, 중후반(5주 ~ 15주)부터는 그룹별로 프로젝트를 계획, 제작, 발표 및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 수업 초반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UX 라이팅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학습자가 평소에 소비자로서 미디어를 이용해 왔다면, 이제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의 위치에서 UI와 UX 라이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UX 라이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며, UX 라이팅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론 설명 이후 수업 중반부터는 수강생의 관심에 따라 그룹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UX 라이팅 중심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그룹들에 초점을 맞춰 수업 진행 과정과 단계별 수업 내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주차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뤄졌다.

[표 1] 주차별 프로젝트 진행 순서

교수자	주차	UX 라이팅 프로젝트 진행 순서
프로젝트 아웃라인 설계	5 ~ 7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뉴스, 문화행사, 쇼핑, 여행 · 주제별 콘텐츠 수정을 위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사용자 설정 - 보이스와 톤 설정
프로젝트 제작	8 ~ 1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트의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사용자 중심 프로세스로 재구성 - 보이스와 톤 변경하여 제작 - 문구 및 디자인 수정
프로젝트 발표 및 수정	13 ~ 15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별 프로젝트 발표 · 동료 평가 · 평가 반영해서 수정 제출

우선 프로젝트 아웃라인을 설계할 때 학습자가 직접 주제를 탐색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과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새롭게 구성하고 싶은지 논의해 보았다. 프로젝트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제별 콘텐츠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계획에는 목표 사용자 설정, 사용자를 고려한 보이스와 톤의 설정, 목표 사용자를 위한 정보의 재구성 방식이 포함되었다.

프로젝트 제작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교수자는 프로젝트 일정을 조율하고 단계별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사이트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느꼈던 불편함이나 아쉬운 점을 토대로 목표 사용자 중심 프로세스로 재구성하고, 보이스와 톤도 목표 사용자에게 맞게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구와 디자인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교수자는 3차례로 나눠서 진행된 수정 작업마다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특히 보이스와 톤을 조정하고, 문구와

표현을 수정하는 것은 글쓰기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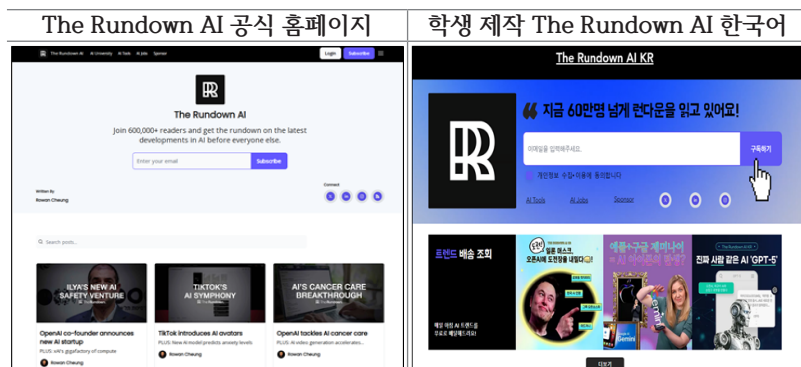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다른 학우들이 제시한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때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에서 동료 평가를 중요하게 참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삼은 사용자 연령층이 주로 20대였기 때문에 동료 평가가 곧 실제 사용자의 평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동료 평가를 할 때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도록 했고,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진행 과정을 거쳐 완성된 UX 라이팅 중심 프로젝트 가운데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적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프로젝트 사례와 교육적 효과

UX 라이팅 중심 프로젝트 가운데 대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사례는 AI 뉴스레터 영어 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하면서 20대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춰 재구성했으며, 두 번째 사례는 지역 문화행사 중에 ‘낙화놀이’ 행사 예약 페이지를 외국인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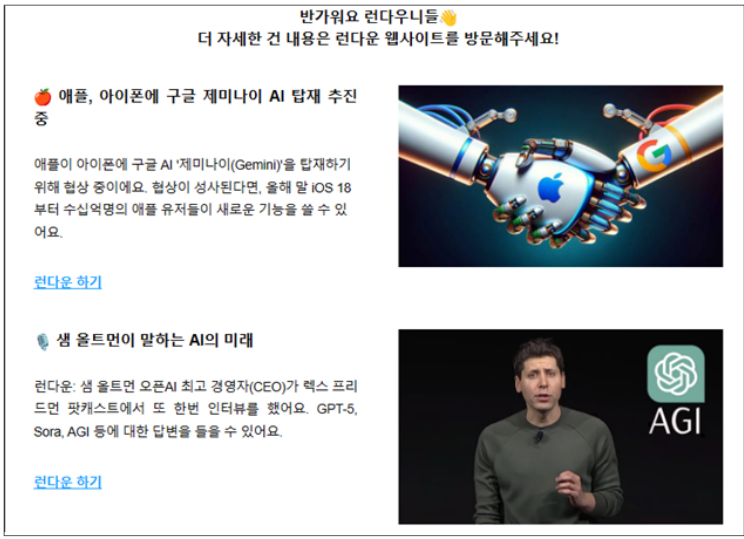
최근 뉴스레터 서비스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IT 분야 뉴스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뉴스레터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늘고 있다. IT 뉴스레터 제작팀은 ‘The Rundown AI’ 라는 영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20대 한국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20대 사용자가 익숙한 UI로 디자인을 수정하고 사용자가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한 보이스와 톤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1] The Rundown AI 공식 홈페이지와 학생 제작 한국어 사이트

[그림 1]에서 두 사이트는 UI 디자인에 있어서 확연하게 구별된다. UI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UX 라이팅을 통해 구현되는 보이식도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왼쪽의 영문 공식 사이트는 간결한 디자인에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오른쪽의 학생 제작 한국어 사이트는 유명 검색 사이트 ‘구글’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바꾸고, 검색 화면 하단에는 재미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디자인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의 검색창 상단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지금 60만명 넘게 런다운을 읽고 있어요!’ 라는 문구를 사용해 현재성을 강조하며 친근하게 접근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편승하려는 심리를 자극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려는 영어 문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한국어 표현을 찾아서 친근한 보이스를 더해준 것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편안하고 친근한 보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해요체’를 일관성 있게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AI 기술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비표준어 사용을 자제했다.



[그림 2] 학생 제작 The Rundown AI에서 문구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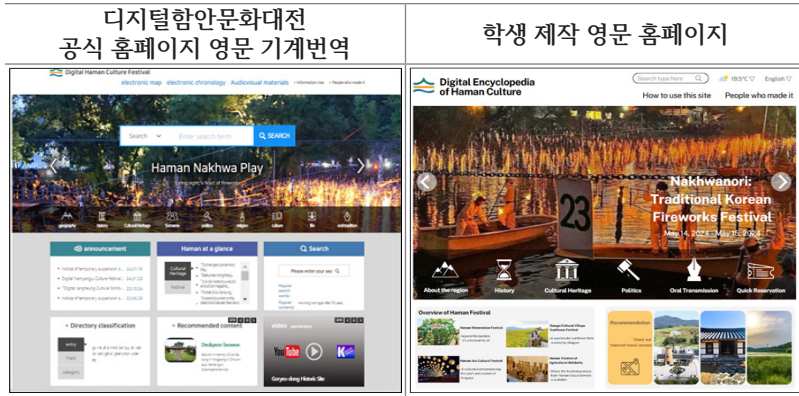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뉴스레터 제작팀은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함께 배치해서 사용자에게 정보 탐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첫 번째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런다우니’라는 애칭을 사용해서 친근하게 접근하고 있다. 기사 하단에는 ‘런다운’ 기업의 이름을 이용해 ‘런다운 하기’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대 사용자를 고려한 UI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친근한 보이스를 사용하며 회사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문구들을 활용해 UX 라이팅 작업을 수행했던 뉴스레터 제작팀에 대한 동료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표 2] 뉴스레터 제작팀에 대한 동료 평가

평가자	평가 내용
A학생	홈페이지 구도를 한국인 맞춤형으로 수정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높인 점이 좋았습니다.
B학생	디자인 자체도 깔끔했고, 정보의 배치가 가독성이 좋았다
C학생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친근한 말투를 사용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내용이 어려워도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 좋았습니다.
D학생	기사의 표지도 재밌었고, 딱딱한 말투가 아니라 ‘~요’체를 써서 읽을 때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표 2]는 뉴스레터 제작팀에 대한 동료 평가 중에 일부이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히 홈페이지 디자인을 한국인 사용자에게 익숙하게 변경하고 해요체를 사용해 친근한 보이스를 전달하려는 UX 라이팅 전략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또한 뉴스레터 서비스의 특성상 사용자의 방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레터 제작팀은 20대 한국인 사용자에게 익숙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여 사용자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방문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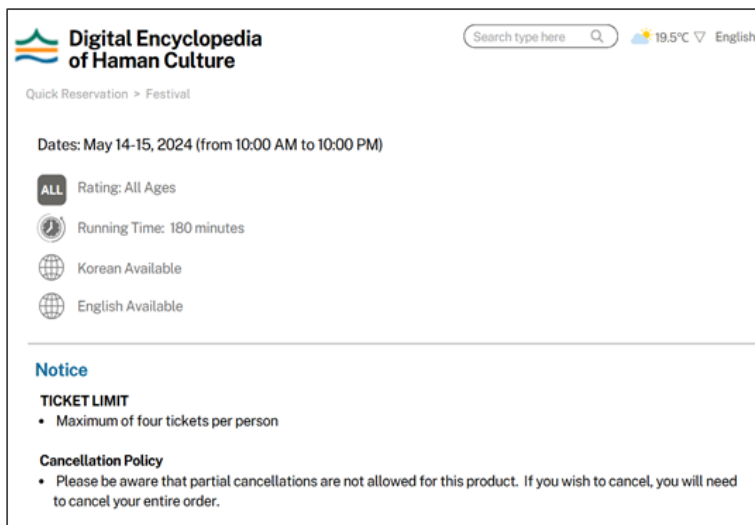
두 번째 사례는 지역 문화행사인 ‘낙화놀이’ 행사 예약 페이지를 외국인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한 경우다.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행사를 재현한 ‘낙화놀이’가 해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행사를 예약하기가 어려웠다는 외국인 사용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문화행사 제작팀은 우선 자동번역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관의 영문 홈페이지를 외국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그리고 ‘낙화놀이’ 행사 예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예약 페이지를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그림 3] 영문 기계번역 홈페이지와 학생 제작 영문 홈페이지

[그림 3]에서 왼쪽 그림을 보면 공식 홈페이지를 기계 번역했을 때 UI는 그대로 유지되고 텍스트만 영문으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학생들은 외국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카테고리를 재구성했다. UI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이미지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했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클릭했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은 예약 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했다. 현재 함안 낙화놀이 행사를 예약하려면 티켓 예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예약 단계를 줄이면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홈페이지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작했다. 또한 외국인 사용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 예약 사이트를 참고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예약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림 4] 학생들이 구축한 예약 페이지

[그림 4]의 예약 페이지는 학생들이 제작한 것으로 해외 예약 사이트와 유사하게 관람 연령과 행사 시간과 같은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티켓 구매 유의 사항을 하단에 배치하였다. 문화행사 제작팀은 해외 예매 사이트들을 찾아보면서 해외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예약 화면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행사 예약 시 제공하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예매를 위한 행사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해외 예매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클릭하면 팝업 형식으로 결제가 진행되고 카드 정보와 같은 최소한의 내용만 입력하여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유사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트 재구성 과정에서 고려할 점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다. 특히 문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AI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의 반응을 고려한 표현에 대해 고민하도록 독려했다. 예를 들어 티켓 배송과 지참 시 주의사항을 작성할 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명령조로 인식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프로젝트에 대한 동료 평가는 아래와 같다.

[표 3] 문화행사 제작팀에 대한 동료 평가

평가자	평가 내용
A학생	전체적으로 기존에 작게 적혀있던 폰트나 이미지를 큼직하게 배치해서 시선을 끌게 만들고, 커서를 올리면 설명이 나오는 시스템도 좋았음. 외국인이 예약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친절하다고 생각했음.
B학생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사진도 추가하고 10단어 내외로 단어도 문장도 신경써서 수정한 점들도 좋았습니다.
C학생	외국인(타겟층)을 위한 예약페이지 서비스를 추가한 점이 특히나 인상적임.
D학생	다른 관광 관련 사이트를 많이 참고한 것이 느껴졌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보다 훨씬 더 한 눈에 들어오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 3] 동료 평가를 보면 공통적으로 UI 디자인 변경과 예약 페이지 추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용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재구성과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첫 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제시하기보다 10단어를 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문구를 간결하게 작성한 것이다. 이에 맞춰 텍스트와 이미지를 배치하고, 관광 사이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심을 끌 만한 이미지 중심으로 사이트를 재구성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었다.

한편 프로젝트를 아쉽게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 해외 쇼핑몰을 한국인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으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쇼핑몰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신뢰감을 주면서 친근한 보이스 설정도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정보 탐색의 즐거움도 줄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하다보니 동료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 4] 쇼핑물 제작팀에 대한 동료 평가

평가자	평가 내용
A학생	제품에 대한 설명이 사진 위에 적혀 있을 때도 있고, 밑에 적혀 있을 때도 있어서 통일시켜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B학생	제품명 앞에 모두 이모티콘이 들어간 것이 누가 입었던 옷이고, 이 옷을 따라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들긴하지만, Kpop 카테고리에 들어간 모든 상품 이름에 이모티콘이 들어간 것은 페이지가 복잡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
C학생	대형 쇼핑물의 말투라기보단 스마트스토어에서 조금씩 떼어서 파는 영세 사업장의 말투처럼 보임
D학생	제품명과 설명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표 4]의 동표 평가에서 지적했듯이 쇼핑물은 카테고리별로 동일한 구성이 중요한데 이미지와 텍스트 배치에 통일성이 부족해 사이트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명이나 제품 정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외 쇼핑물의 제품 정보 안내와 관련된 문구를 한국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정하지 않고 기계 번역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정보 탐색 경로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림 5] 학생 제작 쇼핑물의 제품 정보 안내

[그림 5]를 보면 첫 번째 줄의 경우 ‘사이즈 가이드 및 모델 정보’라고 되어 있어 ‘사이즈 가이드’와 ‘모델 정보’가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다. 그러다보니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기를 클릭했을 때 다음에 어떤 정보가 나타

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사이즈 가이드’만 원하고 ‘모델 정보’는 알고 싶지 않는데 두 가지 정보를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줄에 ‘사이즈 추천을 위해 허리 둘레 & 엉덩이 둘레 측정값을 입력하세요’라는 문구는 길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데다 ‘측정값’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국내 쇼핑몰에서는 ‘실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허리 단면’과 ‘엉덩이 단면’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동일한 메시지를 ‘실측 직접 입력하기’와 같이 간결하게 전달하기도 한다. 한국인 사용자를 목표로 정했다면 국내 쇼핑몰의 UX 라이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피상적 경험에만 의지해 재구성한 점이 아쉬웠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디자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사이트에 오래 머물면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 정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찾고자 하는 정보 경로가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으면 탐색을 중단하고 사이트에서 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카피라이팅도 중요하다지만, 제품 정보와 관련한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험과 감정을 고려한 UX 라이팅도 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실험적 수준에서 UX 라이팅 수업을 진행하긴 했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선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토대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초반에 교수자가 이론적 설명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 사용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으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평소에 무심하게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사이트의 정보 배치부터 클릭을 유도하는 작은 버튼의 문구에서도 의미를 찾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한계점은 UX 라이팅에서 글쓰기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IT 전공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 구축이나 UI 디자인 변경과 같은 기술적 문제는 'Wix'와 같은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나, 챗GPT를 활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한다든지,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친근함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UX 라이팅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글쓰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UX 라이팅 교육과 글쓰기 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한국인 UX 라이터들이 언어 역량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같은 표현이라도 의미와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지고, 띄어쓰기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고, 단어의 배치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UX 라이팅 수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업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UX 라이팅 수업 설계 방안

UX 라이팅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사용자의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문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행동을 설계하는 UX 라이팅이 가능

할 것이다. 그러려면 기존의 학술적 글쓰기나 형식을 갖춘 글쓰기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버헨스덩크와 샬라모바(2020)의 연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버헨스덩크와 샬라모바(2020)는 행동경제학 개념에서 나온 ‘CHOICES’ 프레임을 UX 라이팅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¹²⁾

여기에서 ‘CHOICES’는 ‘Context, Habit, Other people, Incentives, Congruence, Emotions, Salience’의 약자로 인지편향과 관련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버헨스덩크와 샬라모바(2020)가 제시했던 ‘CHOICES’ 프레임을 UX 라이팅 실습에 앞선 예비 단계의 수업으로 설계해 보았다.

[표 5] CHOICES 프레임에 따른 수업 설계

키워드	개념	수업 활동
Context 연결성	최초의 정보가 이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사용자의 계속적인 정보 탐색을 유도하는 표현이나 정보 배치 방식 분석하기
Habit 습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함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습관적으로 클릭하게 되는 문구 찾아보기
Other people 모방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인기 제품이나 구매 후기에 의지하도록 유도하는 문구나 정보 제공 방식 분석하기
Incentives 보상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이익을 쫓는 경향	시간 제약을 두고 선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표현 찾아보기
Congruence 합리화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 선택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표현 수집하고 분석하기
Emotions 감정	경험한 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만 기억하는 경향	사용자 친화적인 문구와 그렇지 못한 문구 비교 분석하기
Salience 편중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취하고 어려운 내용은 무시하는 경향	단어의 배치, 문형, 어휘 수준이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 찾아보기

[표 5]는 ‘CHOICES’의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과 관련된 수업 활동을 구

12) Gustav Verhulsdonck · Nadya Shalamova, op. cit., p.378.

상한 것이다. 사례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 활동을 통해 단어나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적 효과를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어나 표현의 선택에 따라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UX 라이팅에서 필요한 글쓰기 전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려면 직접 표현을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익숙한 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력과 분석력이 요구되며, 이는 정보를 취합하고 판독하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배경지식을 축적한 뒤에 그룹별로 수집한 문구나 정보를 적용하거나 응용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면 효과적인 글쓰기 전략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룹 구성원 간에 특정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 상황을 설정해 UX 라이팅을 연습하든가, UX 라이팅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사이트를 선정해서 수정해 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와 톤을 구사하는 방법,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표현, 정보의 배치 방식이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문구 작성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UX 라이팅 실전 연습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전 연습 단계에서 교수자는 사용자의 감정을 고려하고 심리적 거리를 설정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보이스가 일관성이 있는지, 적당한 존대법으로 공손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부드럽게 설득하려면 어떤 문형이나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지 조언해 줄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보 배치의 문제인지, 메시지 전달 방식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글쓰기와 UX 라이팅 수업을 연계한다면 언어 사용의 목적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두고, 그에 적합한 언어 지식을 습득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활용해 보는 사용자 중심 글쓰기 연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UI 디자인, 모바일과 PC의 차이, 콘텐츠별 스크롤 방식 등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쓰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해 본다면 더욱 체계적인 UX 라이팅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글쓰기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글쓰기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안으로 UX 라이팅 교육과 글쓰기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UX 라이팅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UX 라이팅 교육의 방향성을 세워보았다. 다음으로 실제 수업에서 UX 라이팅 교육을 진행한 결과를 분석하고, 수업 성찰을 토대로 글쓰기 교육에 초점을 맞춘 UX 라이팅 수업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UX 라이팅에 대해 문구, 경험, 관계 중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나, UX 라이팅이 사용자 중심 글쓰기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UX 라이팅에 접근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감정을 고려한 글쓰기,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글쓰기, 사용자의 지속적인 정보 탐색을 이끄는 글쓰기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그리고 UX 라이팅 교육을 위해서는 사용자 심리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지식을 활용하는 글쓰기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실험적 수준에서 UX 라이팅 교육을 진행한 결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관심은 UX 라이팅 중심 프로젝트

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던 것도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습자 주도의 학습이라는 교육적 효과 외에도 분명한 목표와 관심을 갖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UX 라이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글쓰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이 기술적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했으나, 글쓰기 과정에서 봉착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교수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다. 그때마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언어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UX 라이팅의 근간이 되는 언어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글쓰기 수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UX 라이팅 수업을 설계해 보았다. 우선 UX 라이팅 실습에 앞서 행동경제학 개념에서 나온 ‘CHOICES’ 프레임을 적용한 수업 활동을 통해 예비적 단계에서 UX 라이팅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룹 활동을 통해 수집한 문구나 정보를 적용하거나 응용해 보면서 UX 라이팅 목적에 적합한 글쓰기 전략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실전 연습 과정에서 교수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글을 쓸 때 유의점이나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어떤 문장 구성이나 단어 선택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I시대가 열리고 AI와 인간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인간 글쓰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UX 라이팅은 사용자의 감정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도하는 글

쓰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똑같은 단어라도 옆에 배치한 이미지에 따라 의도한/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날 수 있고, 단어의 길이와 문형에 따라 메시지 이해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의 글 읽기 행위가 시각과 인지 능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읽기 활동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같은 인간일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UX 라이팅은 인간의 고도화된 글쓰기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려면 UX 라이팅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UX 라이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UX 라이팅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 많은 연구자의 참여로 보다 체계적인 UX 라이팅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권오형, 『UX 라이팅 시작하기』, 유엑스리뷰, 2021.
- 김현정,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개 양상과 발전 방향」, 『교양교육연구』 14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11-23쪽.
- 송수진·정글지·정주마·전수진, 「관계에 따른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UX writing framework」,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23년 2호, 한국HCI학회, 2023, 479-484쪽.
- 이유림·최종훈, 「모바일 금융 플랫폼 UX 라이팅 개선 가이드라인 제안-Grice의 협력 원리는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9권 9호,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675-683쪽.
- 이윤빈,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양상-전국 4년제 대학 소속교원 110명의 설문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53권, 한국작문학회, 2022, 35-81쪽.
- 이창덕, 「21세기 문식력(literacy)과 ‘대학글쓰기’교육에 대하여」, 『리터러시연구』 18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6, 11-43쪽.
- 전주경, 『그렇게 쓰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월북, 2023.
- Gustav Verhulsdonck · Nadya Shalamova, “Creating content that influences people: Considering user experience and behavioral design in technical communication”, Journal of Technical Writing and Communication, vol. 50, no. 4, 2020, pp.376-400.
- Michael J. Metts · Andy Welfle 저, 심태은 역, 『UX 라이터의 글쓰기 수업』, 유엑스리뷰, 2023.
- Torrey Podmajersky 저, 김경애 역, 『전략적 UX 라이팅』, 유엑스리뷰, 2022.
- Wei Cheng, “Translator Competence Revisited in the Scenario of Digital Genr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vol. 01, 2021, pp.45-58.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미디어 지식을 활용한 UX 라이팅 (User eXperience Writing) 교육을 시도하고, 향후 대학생 글쓰기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시대가 다가온다고 해도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교양적으로 성숙된 인재를 육성하려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다양해지는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 지식을 활용한 UX 라이팅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콘텐츠 사용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면서 학습자의 디지털 문해력도 향상될 수 있다. 사용자의 감정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도하려면 사용자에게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글쓰기 전략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UX 라이팅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그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미디어 지식, 글쓰기 교육, UX 라이팅, 디지털 문해력, 대학생

■ Abstract

The Education of UX Writing with Media Knowledge :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Ko, Sun Jung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UX writing (User Experience Writing) education using media knowledge as a method of teaching writing to university students in the digital age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Even as we approach the AI era, nurturing well-educated individuals who can express their thoughts properly in writing should remain an essential goal of university education. UX writing education using media knowledge can not only help develop the writing skills required in a digital environment but also serve as an approach to integrative education through digital experience. Moreover, UX writing education can help students improve their digital literacy. Writing strategies that appropriately express emotions and build empathy remain crucial ev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is is why we need to delve into the education of UX writing to provide innovative insights into writing and communication.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extending research in UX writing.

Keyword • Media knowledge, writing education, UX writing, digital literacy, university student

의사소통 역량 계발을 위한 대학 글쓰기 수업 구성 연구 : 백워드 설계 모형을 기반으로 *

김 록 희**

목 차

1. 서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역량개념을 제시한 이래 역량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적 움직임도 활발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¹⁾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각 대학들도 역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4946)

** 국립공주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1)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교육

량중심 교육과정을 도입²⁾하여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역량중심 교육을 대학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육과 이 수업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역량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대학 글쓰기 수업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사고와 표현, 문해 능력을 기본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³⁾을 계발하고 이 역량을 다양한 상황으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역량을 도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였을 때 이 역량을 평가할 도구와 기준의 모호함은 교육 현장의 교수자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워드 설계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교수 설계가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을 선정·조직한 후 평가하는 순서로 설계된다면 백워드 설계는 목표 설정 후에 평가를 계획하고 학습 경험과 수업을 계획한다. 따라서 평가와 연계되는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글쓰기와 같이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학습자의 수행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때문에 핵심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⁴⁾ 효과적인 설계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언어교육에서 백워드 모형의 적용이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⁵⁾이지

부, 2015a, 2쪽.

2) 유인영·강현석, 「역량중심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문제 비판: D대학 사례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권 7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210쪽.

3) 교육부, 앞의 책, 2쪽.

4) 홍서영,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과 백워드 수업 설계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3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2쪽.

5) 문진숙·이정희,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KSL 수업 구성 연구」, 『이중언어학』 80호, 이중언어학회, 2020, 143쪽.

만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연구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전제 단원을 개발한 유상희⁶⁾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재를 기본으로 하되 다각도로 수업을 구성하여야 하는 교수자들에게 단위 구성의 과정과 방법을 보여주는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양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글쓰기 수업에 적용 가능한 백워드 설계의 단위 구성 방안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역량을 추출하여 백워드 수업 설계 모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단원을 재구성하여 백워드 설계 단계에 따른 템플릿을 구안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교양 교과목인 대학 글쓰기 강좌에서 성취해야 할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ADDIE 모형을 미시적 차원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한다. 수업 설계 과정에서는 ADDIE 모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 단원을 구성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미시적 측면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표 1]과 같은 설계를 계획하였다.

[표 1] ADDIE 모형에 따른 대학 글쓰기 수업 설계

단계	연구 내용
분석 (Analysis)	- 백워드 설계 선행 연구 - 의사소통 역량 관련 선행 연구 - 교양 교육과정(학교 차원 교육과정) - 글쓰기 교재

6) 유상희, 「논증 교육에서 전제의 재개념화 및 백워드 설계 기반 ‘전제 탐구’ 단위 개발」, 『작문연구』 40호, 한국작문학회, 2019.

설계 (Design)	- 교양 교육과정 및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글쓰기 교육과정 재구성 - 백워드 적용 수업을 위한 단위 재구성 - 백워드 수업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개발 (Development)	- 의사소통 역량 평가 요소와 성취 기준 연계 - 의사소통 역량 계발을 위한 백워드 템플릿 개발 - 평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
실행 (Implement)	- 개발된 백워드 템플릿 수업 실행
평가 (Evaluation)	-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수업의 효과성 평가 - 교수자/학습자 수업 피드백을 통한 수업 성찰 - 평가를 바탕으로 백워드 설계 수정 · 보완 - 전문가 자문 실시

그러나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⁷⁾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을 축소하였다. 당초 계획에서는 실행(Implement)과 평가(Evaluation)를 통한 수업 모델의 효과성까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교수 설계의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링을 설계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 2]와 같이 백워드 설계를 위해 의사소통 역량 탐색과 교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백워드 템플릿을 개발한다. 글쓰기 수업 설계의 기초 단계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단계	연구 내용
분석 (Analysis)	- 의사소통 역량 - 글쓰기 교재
설계 (Design)	- 백워드 적용 수업을 위한 단위 재구성
개발 (Development)	- 의사소통 역량 평가 요소와 성취 기준 연계 - 의사소통 역량 계발을 위한 백워드 템플릿 개발 - 평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

7) 이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당초 제출한 연구 계획서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반영하였다.

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1) 의사소통 역량 탐색

Education 2030에서는 역량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⁸⁾으로 정의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을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⁹⁾고 서술하고 있다.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온라인 진단도구이다. K-CESA는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글로벌역량, 의사소통역량, 종합적 사고력 등 모두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¹⁰⁾ 있고, 그 중 의사소통역량 하위 요인은 [표 3]과 같다.

[표 3] K-CESA 의사소통 역량 영역의 하위 요인과 요인 설명¹¹⁾

역량 영역	하위 요인	요인 설명
의사 소통 역량	적극적 경청과 이해 (듣기, 읽기)	메시지 수신자가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의 텍스트를 - 올바르게 인지하고 - 1차적 의미를 이해하고 - 발신자의 의도를 이해하며 - 전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메시지를 맥락화 하는 능력

8) 이상은, 「OECD Education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9권 4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9, 134쪽.

9)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교육부, 2015c, 41쪽.

10) 배현주·백영은·송초희, 「K-CESA 의사소통역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역량교육연구』 3권 1호,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2018, 25쪽.

11) 위의 논문, 28쪽, 재인용.

의사 소통 역량	효과적인 의사전달 (쓰기, 말하기)	메시지의 발신자가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 정확하고(accuracy), - 명확하게(clarity) - 논리적이고(logic), 목적된 의도대로, - 효과적이며(effectiveness), - 효율적으로(efficiency), 전달하는 능력
	토론과 조정 (토론과 조정)	사실이나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논리적 주장을 펼쳐 나가면서 상대와 공유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

K-CESA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을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토론과 조정’의 5가지로 제시하고, 듣기, 읽기 요인은 ‘인지-1차적 의미 이해-의도 이해-맥락화’로 설명하고 있다. 쓰기 말하기 요인은 ‘정확성, 명확성, 논리성, 목적성, 효과성, 효율성’있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토론과 조정은 상충하는 상황에서의 논리적 주장과 공유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설명한다. K-CESA의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인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중등교육과는 달리 고등교육에서의 교양교육은 각 대학의 커리큘럼과 교수자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 수업도 마찬가지로 공통의 교재가 있는 대학도 있지만, 교재 유무에 상관 없이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수업이 구성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의사소통 역량 계발을 위한 글쓰기 수업을 구성할 때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이 연구의 시작점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량의 하위 요소를 비교적 세분화한 [표 4]를 기반으로 의사소통 역량 계발을 위한 대학 글쓰기 수업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표 4] 의사소통 역량 하위요소와 의미¹²⁾

범주	영역	하위 요소	의미
지식 (K)	Ⅰ. 의사소통 도구	언어, 준언어, 비언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언어(말, 글), 준언어(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 약 등), 비언어(표정, 몸짓, 의상 등)의 중요성 과 특성을 이해한다.
		장르와 언어 관습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의사소통 장르(보고서, 이메일, 발표, 연설 등)의 특성과 맞춤법, 어법, 어휘의 쓰임 에 대해 이해한다.
		다양한 매체와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	다양한 매체(인쇄 매체, 영상 매체, 디지털 매 체 등)와 그림, 영상, 음향 등의 복합적으로 제 시된 매체 자료 특성과 효과를 이해한다.
	Ⅱ. 의사소통 맥락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관계 및 의사소통 참여 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이해한다.
		의사소통 목적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의사소통의 목적(설득, 정보 전달, 관 계 형성, 정서 표현, 문제 해결, 갈등 해소 등) 에 대해 이해한다.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상황(참 여자 규모, 당면한 과제, 환경 등)과 사회·문화 적 맥락을 이해한다.
기능 (S)	Ⅰ. 의사소통에서 의미 수용과 평가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의사소통 내용에 나타난 정보들의 의미 관계 를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의도, 목적, 내용 추론하기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의 도나 목적, 생략된 내용 등을 문맥을 통해 미 루어 짐작한다.
		비판적, 성찰적 수용하기	의사소통 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 자료의 적 절성 등을 검토하여 의사소통 내용을 성찰, 비 평한다.
		감상적 수용하기	의사소통 내용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의사소 통 내용에 공감하며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는 다.
	Ⅱ. 의사소통에서 의미 생산과 표현	설득과 문제해결하기	설득의 표현 원리를 바탕으로 청자/독자의 신 념,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정보 전달과 공유하기	정보 전달을 위한 내용 조직 방식과 표현 전략 을 수립하고 의사소통 참여자들과 정보를 공 유한다.
		관계 지향적 소통하기	의사소통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인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데 적합하게 의 사소통한다.

12) 이인화, 「핵심역량으로서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요소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2권 3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13-14쪽.

기능 (S)	Ⅲ.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정서 표현하기	의사소통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한다.
		의사소통 내용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의 각 단계(의사소통 계획의 수립, 의사소통의 수행 등)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태도 (A)	Ⅰ.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경청, 공감	의사소통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다.
		배려, 예절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배려하며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갖는다.
		다양성에 대한 인정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와 타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Ⅱ. 의사소통에서 의 적극성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자기 객관화와 합리적 사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과 참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Ⅲ. 의사소통에서 의 책임감	의사소통 윤리	의사소통 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는 윤리적 태도를 갖는다.
		의사소통 결과의 수용과 실천 의지	자신의 말이나 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 의도된 의사소통 결과를 수용하여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2) 글쓰기 수업을 위한 단원 구성-백워드 설계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의사소통 역량 계발을 위한 글쓰기 수업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백워드 설계에 대한 이론은 이미 다수의 논문에서 논의되어 왔기에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른 글쓰기 수업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K대학의 교재를 바탕으로 한 단원 구성의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K대학 교재는 글쓰기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 I 장과, 개별 장르 글쓰기로 구성된 II 장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찰적, 실용적, 창조적 글쓰기를 제외한 대학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대부분은 논증적 글쓰기¹³⁾이다.

13) 김경현·김미라·김성수, 『창의적 사고 소통의 글쓰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칼럼은 대표적인 논증적 글쓰기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이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場)이며 사회적 쟁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¹⁴⁾하려는 장르이다. 칼럼은 다양한 성격의 소재를 다룰 수 있고, 소재를 다루는 태도에 따라서도 여러 유형의 글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의사소통 역량을 계발하고 이 역량을 다양한 쓰기 상황으로 전이하는 데 유용한 장르이다.

따라서 II장의 개별 장르 중 ‘칼럼 쓰기’ 단원의 수업 설계를 한다. 칼럼은 소재를 다루는 태도에 따라 논평형, 의견제시형, 에세이형, 해설형, 자아성찰형 칼럼¹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의견제시형 칼럼 쓰기를 위한 단원을 구성한다. 의견제시형 칼럼은 다른 칼럼들보다 설득하는 목적이 뚜렷한 만큼 주장을 위한 근거가 적절한지, 대안이 제시되었다면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만 한다.¹⁶⁾

[표 5] 교재의 내용 구성 - ‘칼럼 쓰기’ 장르¹⁷⁾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칼럼 쓰기의 본질 2) 칼럼 쓰기의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 발견하기 (2) 문제 이해하기 (3) 문제 판단하기 (4) 근거 마련하기 (5) 표현하기 3) 칼럼 쓰기와 읽기 	<p>연습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칼럼 집필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평소 주목하거나 관심 가진 사건이나 현상은 무엇인가? - 나는 이 사건이나 현상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가? -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이상적일까? -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글들은 무엇이 있나? 2. 집필하기 3. 평가하기
--	--

교재에는 ‘1) 칼럼의 본질’에서 칼럼에 대한 장르적 설명이 ‘2) 칼럼 쓰기의 방법’에는 칼럼 쓰기의 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간단하게

2016, 276쪽.

14) 위의 책, 277쪽.

15) 송재일 외, 『대학생을 위한 성장과 소통의 글쓰기』, (주)박이정, 2021, 213쪽.

16) 위의 책, 214쪽.

17) 송재일 외, 앞의 책, 213-223쪽. 연구자가 정리.

기술되어 있다. ‘3) 칼럼 쓰기’와 읽기’는 칼럼 장르가 읽기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연습문제’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칼럼을 집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평가하기는 ‘상호평가’로 친구의 칼럼을 읽고 평가표에 맞춰 평가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1) 바라는 결과 확인: ‘칼럼 쓰기’ 단원의 목표 설정

초·중등학교에서는 백워드 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단원을 설계할 때,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교육과정 고시」에 정한 목표와 단원의 성취기준을 먼저 검토¹⁸⁾하여 영속적 이해 즉, 단원 수준의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영속적 이해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초점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핵심 개념, 원리와 과정인 ‘주요 아이디어’들을 검토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대학은 단원별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 4]의 의사소통 역량 하위요소와 의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표 4]의 의사소통 역량 하위요소 중 ‘칼럼 쓰기’와 관련된 하위요소를 선정하면 [표 6]과 같고 ‘칼럼 쓰기’의 ‘영속적 이해’로 도출할 수 있는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²⁰⁾

18) 신봉섭, 「대학에서 백워드 설계에 기반한 플립드 러닝 설계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7권 3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20, 508쪽.

19) 김진희,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른 국어과 화법 영역 ‘연설하기’ 단원 개발 연구」, 『청람어문교육』 60호,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91쪽 재인용.

20) 밑줄에 표기된 원번호는 연구자가 표기하였음.

[표 6] 의사소통 역량²¹⁾- 칼럼 쓰기

범주	영역	하위 요소	의미
지식 (K)	I. 의사소통 도구	장르와 언어 관습에 대한 이해	① 다양한 의사소통 장르(보고서, 이메일, 발표, 연설 등)의 특성과 맞춤법, 어법, 어휘의 쓰임에 대해 이해한다.
	II. 의사소통 맥락	의사소통 목적에 대한 이해	② 다양한 의사소통의 목적(설득, 정보 전달, 관계 형성, 정서 표현, 문제 해결, 갈등 해소 등)에 대해 이해한다.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이해	③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상황(참여자 규모, 당면한 과제, 환경 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한다.
기능 (S)	II. 의사소통에서 의미 생산과 표현	설득과 문제해결하기	④ 설득의 표현 원리를 바탕으로 청자/독자의 신념,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III.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 내용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의 각 단계(의사소통 계획의 수립, 의사소통의 수행 등)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태도 (A)	I.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배려, 예절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배려하며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갖는다.
		다양성에 대한 인정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와 타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II.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자기 객관화와 합리적 사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과 참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영속적 이해’에서 ‘영속한’의 의미는 학문의 중심부에 있는 기본적인
고 중요한 아이디어, 개념, 원리를 가리키며,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그대로 불변인 지식²²⁾을 말한다. ‘이해’는 학문에 기초한 항구한 지식에 대한 이

21) 이인화, 앞의 논문, 13-14쪽에서 발췌.

22) 조재식,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고찰」, 『교육과정연구』 23권 1호, 한국 교육과정학회, 2005, 75쪽.

해를 지칭하며 어떤 실질적이고 응용적인 수행(외적인 행동을 포함하여)을 학습자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능력²³⁾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6]의 ‘① 장르 특성에 대한 이해, ② 의사소통 목적에 대한 이해, ③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영속한’ 지식이다. ④는 표현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이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와 작문 영역 목표’²⁴⁾에서 ‘칼럼 쓰기’의 영속한 이해를 검토하였다. ‘영속한’ 지식으로는 ㉠ 의사소통 맥락, ㉡ 의사소통 목적, ㉢ 장르 특성을, ‘이해’로는 ㉣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 설득 능력을 선정하였다.

[표 7]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²⁵⁾ 및 작문 영역 목표²⁶⁾

국어과 목표	<p>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u>㉠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u></p> <p>가. ㉡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u>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u></p> <p>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p> <p>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p>
-----------	---

23) 위의 논문, 75-76쪽.

24) 밑줄에 표기된 원번호는 연구자가 표기하였음.

25)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교육부, 2015b, 4쪽.

26) 위의 책, 75-76쪽.

작문 영역 목표	<p>작문은 글을 통해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행위이다.</p> <p>㉠ 학습자는 작문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구체화할 수 있고, 정보를 분석·종합·비판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작문을 통하여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 포괄적인 사회·문화적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글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작문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작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바람직한 쓰기 태도를 갖추으로써 작문의 목적과 의의를 달성할 수 있다.</p> <p>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화법과 작문 능력을 기르고, ㉡ 사회적 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화법과 작문의 태도를 함양하며,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p> <p>가.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p> <p>나. ㉢ 효과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전달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라.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른다.</p>
----------------	---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칼럼’ 관련 진술을 확인해 보았다. ‘칼럼 쓰기’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12화작03-04]와 [12화작03-05]로, 성취기준에 칼럼 장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12화작03-04]의 성취기준은 칼럼 장르가 속해 있는 논증적 글 쓰기의 성취기준이고, [12화작03-05]는 논증적 글쓰기 중 칼럼 장르의 특성인 시사 현안과 쟁점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쓰는 것으로 칼럼 장르의 특성과 목적, 의사소통 맥락에 부합하는 성취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속한 이해’에서 ‘이해’에 해당한다.

[표 8]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칼럼’ 관련 진술²⁷⁾

영역	작문의 원리와 실제
핵심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문의 구성 요소 - 작문의 맥락 - 글의 유형 - 작문의 전략 - 작문의 표현과 전달 방법

27) 교육부, 앞의 책, 79-83쪽.(밑줄과 원번호는 연구자가 표기하였음)

일반화된 지식	- 작문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된다. - 작문은 인지적·상위 인지적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과 전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내용요소	- 설득하는 글[논거와 설득 전략] - 비평하는 글[필자의 관점]
성취기준	[12화학03-04] ㉔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12화학03-05] ㉔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기능	- 맥락 분석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전달하기 - 자료·매체 활용하기 - 이해·평가하기 - 상호 소통하기 - 점검·조정하기

지금까지 검토한 영속적 이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영속한’에 해당하는 ‘칼럼 쓰기’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아이디어, 개념, 원리는 ‘의사소통 목적,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 장르 특성’이고, 이와 같은 영속한 지식에 기반하여 학습자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문제 해결, 사회적 협력, 설득, 관점 제시’이다.

[표 9] ‘칼럼 쓰기’ 단원의 영속적 이해²⁸⁾

영속한	① 다양한 의사소통 장르(보고서, 이메일, 발표, 연설 등)의 특성과 맞춤법, 어법, 어휘의 쓰임에 대해 이해한다.	장르 특성
	② 다양한 의사소통의 목적(설득, 정보 전달, 관계 형성, 정서 표현, 문제 해결, 갈등 해소 등)에 대해 이해한다.	의사소통 목적
	③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상황(참여자 규모, 당면한 과제, 환경 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한다.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
	⑦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 고려	의사소통 맥락

28) [표 6] ~ [표 8]에서 칼럼 쓰기 단원의 영속적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정리한 것이다.

영속한	㉠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데 필요한 기능	의사소통 목적
	㉡ 사회적 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특성	장르 특성
이해	㉣ 설득의 표현 원리를 바탕으로 청자/독자의 신념,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해결
	㉤ 학습자는 작문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구체화할 수 있고, 정보를 분석·종합·비판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회적 협력
	㉥ 효과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전달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른다.	설득
	㉦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설득
	㉧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관점 제시

따라서 ‘칼럼 쓰기’의 영속적 이해에는 칼럼의 의사소통 목적,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 장르 특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는 관점 제시를 통한 설득, 문제 해결, 사회적 협력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를 포괄하여 ‘칼럼 쓰기’ 단원의 영속적 이해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을 쓴다’로 설정하고, ‘칼럼 쓰기’ 단원 목표를 다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 ① 의견제시형 칼럼 쓰기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 ② 현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칼럼을 쓴다.

‘이해’를 어떤 실질적이고 응용적인 수행(외적인 행동을 포함하여)으로 학습자가 보여줄 수 있고, 교수자는 학습자가 교과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느냐로 보았을 때 ‘이해’는 단원 목적 설정의 핵심이다.²⁹⁾ 따

29) 조재식, 앞의 논문, 76쪽.

라서 이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6가지 ‘이해’의 측면을 모색하였다.

[표 10] ‘칼럼 쓰기’ 단원의 6가지 이해의 측면

영속적 이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을 쓴다.
↓	
설명	칼럼의 효용성과 칼럼을 쓰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석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어떻게 내용 구성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칼럼의 표현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적용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을 쓸 수 있다.
관점	칼럼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참여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공감	칼럼을 읽고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자기 의식	적절한 근거와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칼럼을 썼는지 자기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칼럼 쓰기’ 단원의 본질적 질문을 개발하였다. 본질적 질문을 먼저 던져 봄으로 단원 전체를 구조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얻을 수 있다.³⁰⁾ 본질적 질문은 교과 중심이 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으로, 목표의 성취와 영속적 이해로 나아가게 하는 ‘포괄적 본질적 질문’과 주제 범위 안에서 심층적 탐구의 결과로 응답할 수 있는 ‘제한적 본질적 질문’³¹⁾으로 구성된다. 즉, 포괄적인 본질적 질문은 주요 아이디어와 영속적 이해로 나아가는 질문이고 제한적인 본질적 질문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깊은 사고와 탐구 결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³²⁾ ‘칼럼 쓰기’ 단원의 포괄적·제한적 본질적 질문을 [표 11]과 같이 개발하였다.

30) 조재식, 앞의 논문, 77쪽.

31) 문진숙·이정희, 앞의 논문, 152쪽.

32) 윤아인, 「‘주장하는 글쓰기’ 단원의 백워드 설계 사례」, 『초등국어과교육』 27호, 초등국어교육연구소, 2020, 127쪽.

[표 11] ‘칼럼 쓰기’ 단원의 본질적 질문

포괄적 본질적 질문	제한적 본질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 글쓰기의 원리는 무엇인가? - 효과적인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글쓰기의 효과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럼은 언제, 왜 쓰는가? - 칼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 효과적인 칼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칼럼을 쓸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 칼럼 쓰기를 통해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2)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앞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평가를 계획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계획한다는 점이 포워드 설계와 차별화되는 백워드 설계의 특징이다. Wiggins & Mctighe(2005)는 수행과제를 설계할 때 GRASPS를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수행과제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구성될 수 있다. [표 12]는 GRASPS를 고려한 수행과제이고, 이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 준거는 [표 13]과 같이 분석적 루브릭으로 제시하였다.

[표 12] ‘칼럼 쓰기’ 단원의 수행과제 개발

수행과제	칼럼 쓰기
목표(Goal)	여러분의 과제는 SNS에 대한 칼럼을 쓰는 것이다.
역할(Role)	여러분들은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이다.
관계(Audience)	대상은 칼럼을 읽는 독자이며 주로 대학생들이다.
상황 (Situation)	여러분은 칼럼니스트로 대학 신문에서 SNS를 화제로 칼럼을 써 줄 것을 의뢰받았다.
수행 (Performance)	여러분은 SNS 사용 실태와 상황,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여러분은 SNS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을 써야 한다.
기준 (Standard)	여러분이 칼럼을 쓸 때에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칼럼을 통해서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칼럼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SNS사용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해석, 의견이 드러나야 한다.

기준 (Standard)	- 의견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
------------------	---

[표 13] ‘칼럼 쓰기’ 단원의 분석적 루브릭

항목 점수	문제 인식(20%)	판단(의견)의 적합성(30%)	근거의 적절성 (40%)	문장 구성력 (10%)
3점	SNS 사용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분명하게 드러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독창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됨.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됨.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확한 문장을 구성함.
2점	SNS 사용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모호하게 드러남.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되었 지만 독창성이 부족함.	의견을 뒷받침할 근 거의 객관성이 다소 떨어짐.	문법적 오류,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 사용됨.
1점	SNS 사용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드러나지 않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호하거나 상투적으로 제시함.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움.

백워드 설계에서는 핵심적인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단원의 핵심적인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안 모색이 강조된다.³³⁾ 이를 위해 평가를 위한 다른 증거 자료를 마련하도록 한다. ‘칼럼 쓰기’ 단원의 기타 평가 자료는 [표 14]와 같다.

[표 14] ‘칼럼 쓰기’ 단원의 기타 증거 자료

평가 방법	평가 내용
지필 평가 (서술형)	- 현상(사실)과 의견의 차이 설명하기 - 현상(사실)에 대한 의견 쓰기 - SNS 사용 실태와 상황, 인식 조사 계획 세우기 - SNS 사용 실태와 상황, 인식 조사 결과 분석하기
구술 평가	- 칼럼을 읽거나 써 본 경험 이야기하기
상호 평가	- 친구의 칼럼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자기 평가	- 자신이 쓴 칼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33) 유상희, 앞의 논문, 279쪽. 재인용.

(3) 학습 경험 계획하기: ‘칼럼 쓰기’ 단원의 수업 계획

Wiggins & Mctighe는 구체적으로 학습 경험을 계획하기 위해 ‘WHERETO’의 요소를 제안하였다. W(Where and Why)는 단원의 방향과 목적, H(Hook and hold)는 주의 환기와 유지, E1(Explore and Equip)은 탐구하기와 탐구 준비하기, R(Reflect, rethink, revise)은 반성하기와 다시 생각하기, E2(Evaluate)는 평가하기, T(Tailored)는 개별화하기, O(Organized)는 조직하기이다.³⁴⁾

[표 15] WHERETO 요소를 활용한 ‘칼럼 쓰기’ 단원의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	W	H	E1	R	E2	T	O
현상(사실)과 의견의 차이 설명하기			○			○	
현상(사실)에 대한 의견쓰기			○			○	
칼럼을 읽거나 써 본 경험 이야기하기		○			○		
칼럼은 언제, 왜 쓰는지 알기	○	○					
칼럼의 특징과 쓰는 방법 알기	○		○				
수행과제 안내하기	○	○					
수행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 세우기			○			○	○
SNS 사용 실태와 상황, 인식 조사 결과 분석하기			○			○	
SNS를 화제로 칼럼 쓰기	○	○	○	○	○	○	○
친구가 쓴 칼럼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		○	○	
칼럼 고쳐쓰기	○		○	○	○	○	○
자신이 쓴 칼럼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기				○	○		

3) 백워드 설계 템플릿

백워드 모형에 기반하여 의사소통 역량 계발을 위한 ‘칼럼 쓰기’ 수업에 적용 가능한 수행 과제를 구성하였다. 설계 템플릿은 [표 16]과 같다.

34) 김진희, 앞의 논문, 105쪽.

[표 16] ‘칼럼 쓰기’ 단원의 백워드 설계 템플릿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Identify Desired Results)		
목표 설정 (1) 의견제시형 칼럼 쓰기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2) 현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칼럼을 쓴다.		
영속적 이해	본질적 질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을 쓴다.	- 글쓰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 글쓰기의 원리는 무엇인가?	
	- 효과적인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칼럼은 언제, 왜 쓰는가?	
	- 칼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 효과적인 칼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칼럼을 쓸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 칼럼 쓰기를 통해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 글쓰기의 효과는 무엇인가?	
핵심 지식	기능	
칼럼의 목적	맥락 이해하기	표현하기
칼럼 쓰기의 원리	독자 분석하기	고쳐쓰기
칼럼 쓰기의 절차와 방법	내용 생성하기	독자와 교류하기
칼럼 쓰기의 기대 효과	내용 조직하기	점검 조정하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2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Determine Assessment Evidence)		

수행 과제

수행과제	칼럼 쓰기
목표(Goal)	여러분의 과제는 SNS에 대한 칼럼을 쓰는 것이다.
역할(Role)	여러분들은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이다.
관계 (Audience)	대상은 칼럼을 읽는 독자이며 주로 대학생들이다.
상황 (Situation)	여러분은 칼럼니스트로 대학 신문에서 SNS를 주제로 칼럼을 써 줄 것을 의뢰받았다.
수행 (Performance)	여러분은 SNS 사용 실태와 상황,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여러분은 SNS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을 써야 한다.
기준 (Standard)	여러분이 칼럼을 쓸 때에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칼럼을 통해서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칼럼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SNS사용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해석, 의견이 드러나야 한다. - 의견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

다른 증거

평가 방법	평가 내용
지필 평가 (서술형)	- 현상(사실)과 의견의 차이 설명하기 - 현상(사실)에 대한 의견 쓰기 - SNS 사용 실태와 상황, 인식 조사 계획 세우기 - SNS 사용 실태와 상황, 인식 조사 결과 분석하기
구술 평가	- 칼럼을 읽거나 써 본 경험 이야기하기
상호 평가	- 친구의 칼럼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자기 평가	- 자신이 쓴 칼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루브릭

	문제 인식(20%)	판단(의견)의 적합성(30%)	근거의 적절성 (40%)	문장 구성력(10%)
3점	SNS 사용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분명하게 드러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독창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됨.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됨.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확한 문장을 구성함.
2점	SNS 사용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모호하게 드러남.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지만 독창성이 부족함.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의 객관성이 다소 떨어짐.	문법적 오류,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 사용됨.
1점	SNS 사용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드러나지 않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호하거나 상투적으로 제시함.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움.

3단계: 학습 경험 계획하기(Plan Learning and Instruction)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	W	H	E1	R	E2	T	O
현상(사실)과 의견의 차이 설명하기			○			○	
현상(사실)에 대한 의견쓰기			○			○	
칼럼을 읽거나 써 본 경험 이야기하기		○			○		
칼럼은 언제, 왜 쓰는지 알기	○	○					
칼럼의 특징과 쓰는 방법 알기	○		○				
수행과제 안내하기	○	○					
수행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 세우기			○			○	○
SNS 사용 실태와 상황, 인식 조사 결과 분석하기			○			○	
SNS를 화제로 칼럼 쓰기	○	○	○	○	○	○	○
친구가 쓴 칼럼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		○	○	
칼럼 고쳐쓰기	○		○	○	○	○	○
자신이 쓴 칼럼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기				○	○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글쓰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단위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중등교육과는 다르게 고등교육에서의 교양교육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업 구성을 위해 의사소통 역량과 초중등 교육과정을 탐색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평가와 수업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백워드 설계 모형의 3단계 절차인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학습 경험 계획하기’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였다.

본고에서는 K대학교 글쓰기 교재 내용 중 ‘칼럼 쓰기’ 단원의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특히 ‘의견제시형 칼럼 쓰기’를 중심으로 단원을 설계하였는데 ‘의견제시형 칼럼 쓰기’ 단원의 영속적 이해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을 쓴다’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이해의 측면을 모색하여 본질적 질문을 개발하였다. 목표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GRASPS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과제를 개발하고 분석적 루브릭을 통해 평가 준거도 제시하였다. 또한 단원의 핵심적인 지식과 기능 평가를 위한 기타 증거 자료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학습 경험 계획을 위해 WHERETO 요소를 활용하여 학습 경험과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의견제시형 칼럼 쓰기’ 단원의 백워드 설계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다소 막연한 개념어의 나열에서 구성성을 띤 의사소통 역량의 목표, 평가 방안과 교육 방안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교수자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수업 현장에 적용하여 역량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글쓰기 수업과 같은 수행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 단원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수업 설계 절차와 사례를 제공하고, 평가 방법까지 도출하여 참조 교육 모델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설계안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장에 적용할 때의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로 남긴다.

■ 참고 문헌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교육부, 2015a.
-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교육부, 2015b.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교육부, 2015c.
- 김경환·김미란·김성수, 『창의적 사고 소통의 글쓰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 김진희,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른 국어과 화법 영역 ‘연설하기’ 단원 개발 연구」, 『청람어문교육』 60호,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87-118쪽.
- 문진숙·이정희,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KSL 수업 구성 연구」, 『이중언어학』 80호, 이중언어학회, 2020, 137-168쪽.
- 배현주·백영은·송초의, 「K-CESA 의사소통역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역량교육연구』 3권 1호,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2018, 23-41쪽.
- 송재일 외, 『대학생을 위한 성장과 소통의 글쓰기』, (주)박이정, 2021.
- 신봉섭, 「대학에서 백워드 설계에 기반한 플립드 러닝 설계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7권 3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20, 493-522쪽.
- 유상희, 「논증 교육에서 전제의 재개념화 및 백워드 설계 기반 ‘전제 탐구’ 단원 개발」, 『작문연구』 40호, 한국작문학회, 2019, 255-297쪽.
- 유인영·강현석, 「역량중심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문제 비판: D대학 사례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권 7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209-216쪽.
- 윤아인, 「‘주장하는 글쓰기’ 단원의 백워드 설계 사례」, 『초등국어과 교육』 27호, 초등국어교육연구소, 2020, 121-134쪽.

- 이상은, 「OECD Education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9권 4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9, 123-154쪽.
- 이인화, 「핵심역량으로서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요소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2권 3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1-29쪽.
- 조재식,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고찰」, 『교육과정연구』 23권 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5, 63-94쪽.
- 홍서영,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과 백워드 수업 설계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3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1-21쪽.
- Wiggins, G. P. · McTighe, J., Understanding by design(2nd ed.)
Alexandria, VA: ASCD, 2005.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양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글쓰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백워드 설계의 단위 구성 방안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 역량을 탐색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평가와 수업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백워드 설계 모형의 3단계 절차인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학습 경험 계획하기’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였다.

본고에서는 K대학교 글쓰기 교재 내용 중 ‘의견제시형 칼럼 쓰기’ 단원의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단원의 영속적 이해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을 쓴다’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이해의 측면을 모색하여 본질적 질문을 개발하였다. 목표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GRASPS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과제를 개발하고 분석적 루브릭을 통해 평가 준거도 제시하였다. 또한 단원의 핵심적인 지식과 기능 평가를 위한 기타 증거 자료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학습 경험 계획을 위해 WHERETO 요소를 활용하여 학습 경험과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의견제시형 칼럼 쓰기’ 단원의 백워드 설계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가 글쓰기 수업과 같은 수행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 단원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수업 설계 절차와 사례를 제공하여 참조 교육 모델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의사소통 역량, 백워드 수업 설계, 대학 글쓰기 교육, 핵심역량

■ Abstract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University Writing Class for Developing Communication Competency : Based on the ‘Backward by Design’

Kim, Rok Hui /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ackward-design unit that can be applied to a writing course taught in a university liberal arts program. To this end, a unit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three steps of the backward design model, ‘Identify desired outcomes - Determine acceptable evidence - Plan learning experiences’, in order to explore communication competencies, set goals, and reflect these goals in assessment and instructional content.

In this paper, we designed a lesson model for the unit ‘Writing an Opinion Column’ in the K University writing textbook. We set the enduring understanding of the unit as ‘Write an opinion column that considers various elements of the context in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and uses effective expression strategies to express opinions’, and developed essential questions by exploring aspects of the understanding that could refine it. To assess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performance tasks were developed using the GRASPS technique and an analytical rubric was used to guide the assessment. We also developed other sources of evidence to assess the unit’s core knowledge and skills. Finally, we utilized WHERETO elements to plan specific learning experiences and lessons. This process led to the development of a backward design template for the ‘Writing Opinion Columns’ uni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reference instructional model by providing lesson design procedures and examples that can be referenced when redesigning units in performance-based instructional settings such as writing classes.

Keyword • Communication competency, Backward design,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Core competency

■ 논문투고일:2024.06.23. ■ 심사완료일:2024.07.05. ■ 게재확정일:2024.07.22. ■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

김 상 철**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논의 및 제언

1. 서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이하 방송중·고)에서는 ‘학습경험인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외에서 학습한 경험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한국교육개발원, 2024a).¹⁾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방송중·고 학생들에게 인정 정도에 따라 최소 1과목에서 최대 1년의 조기졸업 혜택이 제공된다. 방송중·고의 학생 다수가 성인학습자라는 특성을

* 본 논문은 방송중·고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논의 및 구성된 논문임.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1) 한국교육개발원, 『2024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매뉴얼(교사용)』, 2024.

갖고 있기에, 그들이 학업공백 기간에 취득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방송중·고 학생들이 취득한 다양한 학습경험의 가치가 그에 상응하는 과목으로 이수 및 인정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²⁾

다만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생들의 과목 이수에 대해 성적 처리를 할 때, ‘이수’ 혹은 ‘미이수’ 방식(P/F, Pass/Fail)으로 처리하였다. 즉 학생들이 인정받은 과목은 이수로 인정되었고, 그에 대한 성취도 차등은 적용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실시됨에 따라 성취평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이수’ 혹은 ‘미이수’ 방식이 아닌, 과목별로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즉 2024년까지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에서 인정 가능한 과목을 찾아 ‘이수’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이수’ 처리가 아닌, A, B, C, D, E, I 등급으로 구분하여 성적을 처리해야 한다.³⁾

다시 말해 고교학점제 실시는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성적처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방송중·고에서는 더 이상 진로선택교과 및 전문교과의 성적처리를 ‘이수’ 혹은 ‘미이수’ 방식(P/F, Pass/Fail)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인정받은 학습경험을 교과목 성취 기준(A ~ E)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더불어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 중 하나인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성적이 표기되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성취기준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의 인정 대상

2) 김상철·강성국·도재우·이유리·임규화·김주경·안성훈,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인정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교육발전』 42권 2호,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225-257쪽.

3)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

은 성취도 차등 기준을 어떤 근거로 삼아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실시에 앞서,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에서 인정 대상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델파이 조사를 통해 현재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별로 A~E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적용가능하다면 A~E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학습경험인정제 인정기준 및 인정대상

학습경험 인정기준이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에 따라 방송중 및 방송고 학생들이 학교 외에서 학습한 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를 인정하기 위한 ‘학습경험인정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경험 인정기준은 학생이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경험 인정기준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에 따라 방송중 및 방송고의 학교장으로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받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를 위해 구성한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해 제·개정하도록 한다.

인정기준의 운영 근거 법령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및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이다. 학습경험 인정대상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2 ①항에 명시된 대상으로 하

며, 필요한 경우 ①항의 7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중 및 방송고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인정대상 학습경험을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은 아래와 같다.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의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평생교육법」 제23조)
- 입학 전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 입학 전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 입학 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제1호)
- 자격(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취득(「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학습과정 이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에서의 학습과정 이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구 취업사관학교는 舊 「고용노동부예규」 제102호))
-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 이수(舊 「교육법」 제81조, 「초·중등교육법」 제44조, 제54조, 제60조, 「평생교육법」 제31조)
-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평생교육법」 제39조)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구 전수교육교), 전수교육 이수자, 전수생(「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5조, 제2조제3항, 제2조제5항, 제2조제6항, 제2조제9항, 제26조)
-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제13조, 제10조)
- 시·도 교육감 개설 및 지정 운영 학습과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제3호의가)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이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시행령 제7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2) 영역별 인정기준

12가지의 학습경험 인정대상/영역은 인정시수 또는 인정단위의 인정

- 4)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한국교육개발원, 2023.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해당 학습경험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시간, 즉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이다.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에서의 학습과정 이수, 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학습경험은 학습경험 자체의 이수시간을 바탕으로 인정정도가 확정된다. 다시 말해 학습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시수 또는 인정단위를 인정받게 되며, 최대 방송중·고 1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시수 또는 단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학습경험 자체의 난이도 및 내용, 취득에 필요한 시간 등 해당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하는 학습경험이다. 예를 들어, 천 여 개가 넘는 국가기술자격을 살펴볼 수 있다. 자격의 경우 각각의 수준이 이미 관련 자격의 분류 및 체계 안에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고, 학점은행제가 대학 수준 이상의 국가자격 대부분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차등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경험인정제는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되, 중등수준에서 적합한 체계로 인정하는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자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등의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정도 해당한다. 셋째, 앞의 두 가지 특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인정하는 학습경험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유자, 전승교육사(구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 이수자는 그 수준과 등급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시수 또는 단위를 인정한다. 하지만 전수생의 경우 전수생 내에서 해당 무형문화재를 전수받은 시간에 따라 인정 정도를 차등하고 있다. 상술한 인정대상 영역별 세부 인정기준은 [표 1]과 같다.⁵⁾

5)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앞의 자료, 2023, 6-14쪽.

[표 1] 학습경험 인정대상 영역별 인정기준

구분	인정대상	인정시수 또는 인정단위	인정 제한 등
1	평생학습 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학습과정의 총 이수시간을 시수 또는 단위로 환산하여 인정함. -각 학습과정에 대한 방송중 인정시수는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시간과 동일하게 함 (인정시수 = 이수시간). -각 학습과정에 대한 방송고 인정단위는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시간을 17로 나누어 환산하여 인정하고 (인정단위 = 이수시간 / 17), 17로 나눈 후 남은 이수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는 1단위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학습과정을 두 개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 학습과정의 동일 여부는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기관, 이수기간 등을 참고하여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각 학습과정의 최대 인정시수 또는 인정단위를 방송중은 442시수, 방송고는 26단위로 함.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은 방송중과 방송고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중학교 졸업인정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은 방송중에서만 인정함.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에서 '기초문해영역'에 속하는 학습과정은 방송고에서 인정하지 않음. -초등학교 수준이 명확한 학습과정은 방송중과 방송고에서 인정하지 않음. 초등 수준 여부는 과정명, 교육내용 등을 참고하여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 설에서 과목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 전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한 과목별 시수 또는 단위를 그대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방송중 또는 방송고로 전편입학한 경우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과목 이수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3	학력인정 대안학교 과목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이수한 과목별 시수 또는 단위를 그대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방송중 또는 방송고로 전편입학한 경우에는 대안학교 과목 이수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인정 여부는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름.

4	입학 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검 정고시 과 목 합격	<p>-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과 목 합격은 각 학교에서 인정 하고자 하는 과목에 편제된 시수만큼 이수한 것으로 인 정함.</p> <p>-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과목 합격은 각 학교에서 인 정하고자 하는 과목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함. 과목의 인 정단위는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음.</p> <p>-검정고시 합격 과목 중 유사 한 과목을 2개 이상 신청했 을 경우, 해당 과목의 성취기 준과 내용 요소 등의 유사성 을 판단하여 동일한 과목으 로 인정할 수 있음.</p> <p>- 동일과목을 2회 이상 합격 시 높은 점수를 인정함.</p>	-
5	국가기술자 격, 개별법 에 의한 국 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p>-자격 등급⁶⁾에 따라 차등 인정 함.</p> <p>-자격별 인정시수 또는 인정 단위는 인정기준 [별표 2]에 따름.⁷⁾</p> <p>-과거에는 서로 다른 자격이 었으나 현재 하나로 통합된 자격은 과거 자격을 개별적 으로 인정함. 반대로 하나의 자격이 여러 개의 자격으로 나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 별적으로 인정함.</p>	<p>-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2개 이상 신청했을 경우, 가장 높은 등급 또는 수준의 자격만 인정할 수 있음.</p> <p>-인정 제외 자격은 다음과 같음.</p> <p>①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 하는 자격-의사/약사/한의사 등</p> <p>②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실기교사/정교사 등</p> <p>③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 가 자격-산림토목기술자 등</p> <p>④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 2종원동기 장치자전거) 등</p>
6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및 내일이룸 학교	<p>-각 학습과정에서 정한 이수 시간을 시수 또는 단위로 환 산하여 인정함.</p> <p>-각 학습과정에 대한 방송중 인정시수는 해당 이수시간 과 동일하게 함(인정시수 = 이수시간).</p> <p>-각 학습과정에 대한 방송고 인정단위는 해당 이수시간 을 17로 나누어 환산하여 인 정하고(인정단위 = 이수시간 / 17), 17로 나눈 후 남는 이 수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는 1단위로 인정함.</p>	-

6	(구 취업사 관학교) ⁸⁾ 학습과정 이수	-이수시간이 증빙서류에 명시 되지 않은 공공직업훈련시 설 학습과정은 [별표 5]의 이 수기간별 기준 이수 시간에 따라 인정시수 또는 인정단 위를 환산하여 인정함. ⁹⁾	
7	기술학교, 고등공민학 교, 고등기 술학교, 각 종학교, 학 교형태 평 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	-기술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방송중에서만 인정하며, 해 당 학교에서의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방송중 에서 1년 교육과정 이수 에 상응하는 시수로 인정함. -고등기술학교는 방송고 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방송고에서 1년 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 는 단위로 인정함. -각종학교는 해당 학교 의 학교급에 따라 방송중 또는 방송고에서 인정하 며, 해당 학교에서의 1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방송중 또는 방송고에서 1년 교육과정 이수에 상 응하는 시수 또는 단위로 인정함.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은 1년 이 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방 송중 또는 방송고에서 1 년 교육과정 이수에 상응 하는 시수 또는 단위로 인 정할 수 있음.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 생교육시설에서의 1년 미 만의 학습경험은 인정하 지 않음. -학력인정 학교에서 방 송중 또는 방송고로 전 편입학한 경우에는 교육과 정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 생교육시설은 해당 학 생이 재학 당시 학력미인 정이었으나, 졸업 후 학 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 육시설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8	중학교학력 인정 문해 교육 프로 그램 이수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수 한 시간을 방송중에서 그 에 상응하는 시수 시수로 인정함.	-
9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850시수 또는 50단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교육사(구 전수 교육 조 교): 850시수 또는 50단 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 680시수 또는 40단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생 • 3년 이상: 425시수 또는 25단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생의 경우, 6개월 미 만의 학습경험은 인정 하지 않음.

9	전승교육사 (구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 전수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3년 미만: 255시수 또는 15단위 • 1년 이상 2년 미만: 170시수 또는 10단위 •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2시수 또는 6단위 	-
10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 850시수 또는 50단위 숙련기술전수자: 850시수 또는 50단위 우수 숙련기술자: 425시수 또는 25단위	-
11	시·도 교육감 개설 및 지정 운영 학습과정 이수	- 각 학습과정에 대한 방송중 인정시수는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시간과 동일하게 함 (인정시수 = 이수시간).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https://www.educerti.or.kr '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습자만 해당함. - 시·도 교육감 개설 및 지정 운영 학습과정은 방송중에서만 인정하며, 각 학습과정의 최대 인정시수는 442시수로 함. - 초등학교 수준임이 명확한 학습과정은 방송중에서 인정하지 않음.
1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	- 신청 학습과정의 총 이수시간을 시수 또는 단위로 환산하여 인정함. - 학습과정에 대한 방송중 인정시수는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시간과 동일하게 함 (인정시수 = 이수시간). - 학습과정에 대한 방송고 인정단위는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시간을 17로 나누어 환산하여 인정하고 (인정단위 = 이수시간 / 17), 17로 나눈 후 남은 이수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는 1단위로 인정함.	-

- 6)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2017.02.03.)에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 2017.03.28.) '등급'의 정의에 준하여 해당 표현을 사용하기로 함.
- 7)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앞의 자료, 2023, 18쪽.
- 8) 고용노동부의 취업사관학교가 2017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내일이룸학교'로 명칭이 변경됨.
- 9)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앞의 자료, 2023, 18쪽.

3. 연구 방법

1) 분석 범위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패널(전문가 및 학교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범위로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검정고시’, ‘자격증’,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국가무형문화재’,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의 총 9개 학습경험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안)을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패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학습경험인정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및 고교학점제 주요 개편(안)과 조사 문항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와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조정 사항을 바탕으로 2차 조사 문항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1차 조사에서 구성한 9개 학습 경험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안)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에서는 각 인정 대상 영역별로 증빙서류의 특성에 따라 성취도 차등 적용(안)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성적 증명이 가능하다면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 & 전문 교과(성취 기준 E등급)’를 적용하였다. 특히 ‘자격증’의 경우에는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자격증 취득 기준인 60점 ~ 70점 이상의 합격 점수와 취득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D등급(성취율 60% 이상 ~ 70% 미만 해당)으로 적용하고, ‘국가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명장’ 등은 수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C등급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에서 인정 대상별 교과목 성취 기준을 확

립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틀에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제안을 고려하여 학습경험 인정 대상별 교과목 성취 기준을 확립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 기준은 평가나 심사를 통해 취득 가능한 이수원 여부이다. 즉 평가나 심사를 통해 취득한 이수원의 경우(평가나 심사를 통해 성적 산출이 되며 성적 증명이 가능한 이수원)에는 최소 D등급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이수원의 경우에는 최소 E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2] 평가 또는 심사 여부에 따른 이수원별 최소 성취 기준(안)

평가나 심사를 통해 취득 가능한 이수원 (최소 D등급)	평가나 심사 없이 취득 가능한 이수원 (최소 E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학력인정 대안학교 • 검정고시 • 자격증 •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이수자) •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p>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국가무형문화재(전수생)</p>

‘평가나 심사를 통해 취득 가능한 이수원’과 ‘평가나 심사 없이 취득 가능한 이수원’에 대한 구분을 바탕으로 2차 성취기준(안)이 구성되었고,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1차 성취기준(안)과 동일하고 나머지 인정 대상에 대한 성취도 평가 기준은 모두 변경되었다. 즉 대부분의 인정 대상이 평가나 심사를 통해 취득 가능한 이수원이므로 최소 D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국가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명장’ 등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수련기간 등을 고려한 교과목 성취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차 및 2차 조사 시 제시된 학습경험 인정 대상별 교과목 성취 기준(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학습경험 인정 대상별 교과목 성취 기준(안)

인정 대상	학습경험 인정 대상별 교과목 성취 기준(안)																			
	1차 성취기준(안)	2차 성취기준(안)																		
평생 학습 계좌 제 평 가인 정 학 습시 설	①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 적용 ② ‘보통교과 & 전문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평가 과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E등급(성취율 40% 이상 ~ 60% 미만 해당) 적용	좌동. ※ 평생학습계좌제는 평가를 통한 성적 산출이 되지 않으므로, 1차 조사에서 제안했던 E등급 부여를 유지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전문 교과(성취 기준 E등급)’를 적용함.	좌동. 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전문 교과(성취 기준 D등급)’를 적용함.																		
학력 인정 대안 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 & 전문 교과(성취 기준 E등급)’를 적용함.	좌동. 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 & 전문 교과(성취 기준 D등급)’를 적용함.																		
검정고시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과의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단, 검정고시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별도 마련하여 적용함.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에서 평가를 통한 성적 산출 증명이 가능하므로 해당 교과의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단, 검정고시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별도 마련하여 적용함. ※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성취 기준을 조정함.																		
	<table><tr><th>검정고시 취득 점수</th><th>성취도</th></tr><tr><td>90점 이상</td><td>C</td></tr><tr><td>70점 이상 ~ 90점 미만</td><td>D</td></tr><tr><td>60점 이상 ~ 70점 미만</td><td>E</td></tr></table>	검정고시 취득 점수	성취도	90점 이상	C	70점 이상 ~ 90점 미만	D	60점 이상 ~ 70점 미만	E	<table><tr><th>검정고시 취득 점수</th><th>성취도</th></tr><tr><td>90점 이상</td><td>A</td></tr><tr><td>80점 이상 ~ 90점 미만</td><td>B</td></tr><tr><td>70점 이상 ~ 80점 미만</td><td>C</td></tr><tr><td>60점 이상 ~ 70점 미만</td><td>D</td></tr></table>	검정고시 취득 점수	성취도	90점 이상	A	80점 이상 ~ 90점 미만	B	70점 이상 ~ 80점 미만	C	60점 이상 ~ 70점 미만	D
	검정고시 취득 점수	성취도																		
	90점 이상	C																		
	70점 이상 ~ 90점 미만	D																		
60점 이상 ~ 70점 미만	E																			
검정고시 취득 점수	성취도																			
90점 이상	A																			
80점 이상 ~ 90점 미만	B																			
70점 이상 ~ 80점 미만	C																			
60점 이상 ~ 70점 미만	D																			

자격증	<p>자격증은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에서 합격 연월일과 발급 연월일이 확인 가능하지만, 성적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 2가지 방안의 병행 적용을 제안함.</p> <p>① 자격증 공통 인정 과목인 '진로와 직업'은 교양 교과이므로 P/F(Pass/Fail) 적용</p> <p>②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자격증 취득 기준인 60점 ~ 70점 이상의 합격 점수와 취득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D등급(성취율 60% 이상 ~ 70% 미만 해당)*으로 적용</p>	<p>①까지 좌동.</p> <p>②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자격증 취득 기준인 60점 ~ 70점 이상의 합격 점수와 취득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D등급으로 적용</p> <p>※ 자격증의 취득 난이도에 따라 성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이미 자격증의 취득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수 혹은 단위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 따라서 매우 다양한 자격증의 성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성취 기준은 동일한 D등급을 부여하되,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p> <p><2024년 현행 인정 시수 및 단위 : 용접 관련 자격증 사례></p> <table> <tr> <th>자격명</th><th>(중)인정시수</th><th>(고)인정단위</th></tr> <tr> <td>용접기능장</td><td>850</td><td>50</td></tr> <tr> <td>용접기사</td><td>680</td><td>40</td></tr> <tr> <td>용접기술사</td><td>850</td><td>50</td></tr> <tr> <td>용접산업기사</td><td>425</td><td>25</td></tr> </table>	자격명	(중)인정시수	(고)인정단위	용접기능장	850	50	용접기사	680	40	용접기술사	850	50	용접산업기사	425	25
자격명	(중)인정시수	(고)인정단위															
용접기능장	850	50															
용접기사	680	40															
용접기술사	850	50															
용접산업기사	425	25															
공공 직업 훈련 시설 및 내일 이룸 학교	<p>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의 수료증 등(이수시간 및 성적증명 확인 가능 서류)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p> <p>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 & 전문 교과(성취 기준 E등급)'를 적용함.</p>	<p>좌동.</p> <p>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 & 전문 교과(성취 기준 D등급)'를 적용함.</p>															
고등 기술 학교, 각종 학교	<p>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의 졸업·수료증 및 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p> <p>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 & 전문 교과(성취 기준 E등급)'를 적용함.</p>	<p>좌동.</p> <p>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 & 전문 교과(성취 기준 D등급)'를 적용함.</p>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의 증빙서류에서 인정 여부 확인은 가능하지만, 성적은 산출 및 표기되지 않으므로, 다음 2가지 방안의 병행 적용을 제안함. ①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로 적용 ②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수련 기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C등급(성취율 70% 이상 ~ 80% 미만 해당)으로 적용	좌동. ②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수련 기간과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기준을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는 D등급으로, 전수생은 E등급으로 적용 ※ 국가무형문화재의 취득 난이도에 따라 성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이미 국가무형문화재의 취득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수 혹은 단위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성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성취 기준은 평가 혹은 심사를 받는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에게 동일한 D등급을, 평가 혹은 심사를 받지 않는 전수생에게는 E등급을 부여하되,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024년 현행 인정 시수 및 단위>																						
		<table><tr><th>자격명</th><th>(중)인정 시수</th><th>(고)인정 단위</th></tr><tr><td>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td><td>850</td><td>50</td></tr><tr><td>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td><td>850</td><td>50</td></tr><tr><td>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td><td>680</td><td>40</td></tr><tr><td>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3년 이상)</td><td>425</td><td>25</td></tr><tr><td>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2년 이상 3년 미만)</td><td>255</td><td>15</td></tr><tr><td>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1년 이상 2년 미만)</td><td>170</td><td>10</td></tr><tr><td>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6개월 이상 1년 미만)</td><td>102</td><td>6</td></tr></table>	자격명	(중)인정 시수	(고)인정 단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850	5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850	5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	680	4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3년 이상)	425	25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2년 이상 3년 미만)	255	15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1년 이상 2년 미만)	170	1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자격명	(중)인정 시수	(고)인정 단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850	5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850	5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	680	4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3년 이상)	425	25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2년 이상 3년 미만)	255	15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1년 이상 2년 미만)	170	1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생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2	6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p>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의 증빙서류에서 성적은 산출 및 표기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는 자격증의 경우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음 2가지 방안의 병행 적용을 제안함.</p> <p>①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로 적용</p> <p>②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C등급(성취율 70% 이상 ~ 80% 미만 해당)으로 적용</p>	<p>좌동.</p> <p>②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기준을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 기준 D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p> <p>※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의 취득 난이도에 따라 성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이미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의 취득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수 혹은 단위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의 성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성취 기준은 평가 혹은 심사를 받는 모두에게 D등급을 부여하되,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p> <p><2024년 현행 인정 시수 및 단위></p> <table data-bbox="606 777 970 925"> <thead> <tr> <th>자격명</th><th>(중)인정 시수</th><th>(고)인정 단위</th></tr> </thead> <tbody> <tr> <td>대한민국명장</td><td>850</td><td>50</td></tr> <tr> <td>숙련기술전수자</td><td>850</td><td>50</td></tr> <tr> <td>우수 숙련기술자</td><td>425</td><td>25</td></tr> </tbody> </table>	자격명	(중)인정 시수	(고)인정 단위	대한민국명장	850	50	숙련기술전수자	850	50	우수 숙련기술자	425	25
자격명	(중)인정 시수	(고)인정 단위												
대한민국명장	850	50												
숙련기술전수자	850	50												
우수 숙련기술자	425	25												

2)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대학, 공공기관, 중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면서,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분야에서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이거나,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별 전문가이면서 이수인정평가심의회와 교과군 심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혹은 교원과 수년간 학습경험인정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4] 전문가 패널 구성

분야	인원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인정평가 심의위원 경력자	13명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교과군 심의위원	9명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담당 교원(혹은 담당 경험자)	7명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운영 경력자	1명
합계	30명

조사 방법은 패널들에게 이메일로 조사지를 보낸 후에 작성된 조사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패널들이 작성한 조사 답안은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측정하였다. CVR이란 주요 쟁점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계량화(quantifying consensus)하는 것으로, 유의도 .05수준에서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의 CVR 값을 가진 항목들에 대해서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Lawshe, 1975: 567-568)하는 것이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그렇다(4점)’와 ‘매우 그렇다(5점)’에 체크된 경우만을 동의하는 수로 산출하였다. 패널 수가 30명인 경우 CVR 최소값 기준은 .33이므로, 그 이상의 비율이 도출되어야만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CVR 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VR = \frac{n_e - \frac{N}{2}}{\frac{N}{2}}$$

ne: 동의한다고 응답한 델파이 패널의 수(Likert식 5점 척도 중 ‘그렇다(4점)’와 ‘매우 그렇다(5점)’)
 N: 전체 델파이 패널의 수

상기 공식을 바탕으로 엑셀프로그램에서 CVR, 평균, 표준편차 값을 도출하였고, 1차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CVR을 바탕으로 2차 조사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연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

용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9개 인정 대상 가운데 내용 타당도를 얻은 이수원은 총 5가지이며, 이는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 4가지 인정 대상에 대한 교과목 성취 기준(안)에 대해서는 CVR 최솟값 .33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전문가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문항별 답변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이수원명	응답 분포(응답자수, 응답률)					평균	표준편차	CVR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1	3	4	13	9	3.87	1.074	0.467
	3.33	10.00	13.33	43.33	30.0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0	3	14	11	4.07	1.048	0.667
	6.67	0.00	10.00	46.67	36.67			
학력인정 대안학교	1	0	3	15	11	4.17	0.874	0.733
	3.33	0.00	10.00	50.00	36.67			
검정고시	1	12	5	5	7	3.17	1.289	-0.2
	3.33	40.00	16.67	16.67	23.33			
자격증	1	11	3	8	7	3.30	1.291	0
	3.33	36.67	10.00	26.67	23.33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1	4	4	9	12	3.90	1.185	0.4
	3.33	13.33	13.33	30.00	40.00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1	1	5	9	14	4.13	1.042	0.533
	3.33	3.33	16.67	30.00	46.67			
국가무형문화재	4	7	4	9	6	3.20	1.375	0.067
	13.33	23.33	13.33	30.00	20.00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4	7	3	11	5	3.20	1.349	0.296
	13.33	23.33	10.00	36.67	16.67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경우에 CVR 값이 0.467이므로, 패널들이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패널들은 해당 과정

과 같이 성취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인정대상은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취결과가 제시되지 않는 인정대상은 성취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및 수준 범위가 상당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수강신청 조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난이도 변별력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성취 기준을 적용한다면 최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CVR 값이 0.667,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CVR 값이 0.733,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의 경우에는 CVR 값이 0.4,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CVR 값이 0.533으로 나타났기에, 패널들이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성적 확인이 불가능할지라도 일괄적으로 E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비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패널들이 지적하였다.

성적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성취 기준을 정하는 것은 타당함. 또한 교양교과를 (P/F)로 평가하는 것도 좋음. 다만 성적 확인이 불가하다고 해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E로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짐. 평가위원회를 두어 C와 E 사이에서 평가 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함 (대안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시간 수가 다르다고 여겨지고 정규 학교 못지않게 수업 밀도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정 기준을 올렸으면 함.

성적이 있을 경우 해당 점수를 성취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은 동의함. 다만, 성적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E등급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부적절함. E등급은 60점미만 득점 시 부여되는 등급임. 교육과정 이수내역이 있으므로 최소 D등급 정도로 상향조정 검토 필요함.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예전의 기능대학, 직업훈련학교의 비학위과정(보통 1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폴리텍대학 학위과정

에서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도 규정할 정도로 성취도에 신뢰가 높은 편임. 따라서 최소 자격증에 상응하는 수준의 등급 부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CVR 값이 -0.2이므로, 패널들이 기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인정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 패널들은 검정고시의 성취도 기준을 기존 안보다 한 등급 이상 상향 조정하여 인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현재 제안 내용은 검정고시가 열등한 학습경험으로 오인받기 쉬워서 점수가 확인되는 평가를 거친 사항은 성적에 따라 적절히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제안 내용의 성취도 등급을 “90 이상 A, 80 이상 B, 70 이상 C, 60 이상 D”로 인정하는 것을 제안함.

검정고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그 신뢰도가 높은 편임. 검정고시가 최소 학력을 인정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점수에 따른 등급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대학입시에서도 검정고시 점수에 따라 내신등급(예: 90점 이상(?) 1등급)을 매겨서 입학 사정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됨.

‘자격증’의 경우에 CVR 값이 0이므로, 패널들이 기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격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 패널들은 자격증의 등급(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 따라 성취기준을 조정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패널들이 제안하였다.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자격증 취득 기준인 60점 ~ 70점 이상의 합격 점수와 취득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D등급(성취율 60% 이상 ~ 70% 미만 해당)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로 인정하는 것이니 수준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자격에 대해서는 수준을 고려하여 (예시 기술사(50단위) 수준 A등급, 기사수준 B등급, 산업기사 수준 C등급, 기능사 수준 D등급, 기능사 이하 수준 E등급 등) 대략

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함.

자격증의 등급(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 따라 성취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이 매우 다양하므로, 기사 이상의 자격증은 더 높은 성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즉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성취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면 함.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에 CVR 값이 0.067이므로, 패널들이 기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 패널들은 E등급보다는 난이도를 고려함으로써 보유자 수준별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패널들이 제안하였다.

문화재 기술 보유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분위기 조성 필요, 수련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 교육 조교는 A등급, 전수 교육 이수자는 B등급, 전수생 C등급으로 차등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박사학위, 전수 교육 조교는 석사학위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함. 그리고 전수 교육 이수자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한다고 함. 보유자와 전수 교육 조교는 A수준으로, 전수 교육 이수자는 B수준, 학습전수교육 이수자는 C수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의 경우에 CVR 값이 0.296이므로, 패널들이 기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 패널들은 E등급보다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보유자 수준별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패널들이 제안하였다.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등은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C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대한민국명장과 숙련기술전수자는 15년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을

인정받았으므로 성취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살펴보았듯이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의 5가지 인정 대상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검정고시’, ‘자격증’, ‘국가무형문화재’,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의 4가지 인정 대상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패널들이 5가지 인정 대상의 성취 기준(안)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동의되지 않은 4가지 인정 대상의 성취 기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취 기준(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전문가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된 2차 조사에서는 CVR값이 모두 최소값 .33 이상이 도출되어 제안된 모든 2차 성취 기준(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문항별 답변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이수원명	응답 분포(응답자수, 응답률)					평균	표준편차	CVR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0	0	1	14	15	4.47	0.571	0.933
	0.00	0.00	3.33	46.67	50.0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0	1	0	10	19	4.57	0.679	0.933
	0.00	3.33	0.00	33.33	63.33			
학력인정 대안학교	0	1	0	10	19	4.57	0.679	0.933
	0.00	3.33	0.00	33.33	63.33			

검정고시	0	0	1	15	14	4.43	0.568	0.933
	0.00	0.00	3.33	50.00	46.67			
자격증	0	1	2	16	11	4.23	0.728	0.8
	0.00	3.33	6.67	53.33	36.67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0	1	0	11	18	4.53	0.681	0.933
	0.00	3.33	0.00	36.67	60.00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0	1	0	8	21	4.63	0.669	0.933
	0.00	3.33	0.00	26.67	70.00			
국가무형문화재	1	2	2	16	9	4.00	0.983	0.667
	3.33	6.67	6.67	53.33	30.00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1	2	0	19	8	4.03	0.928	0.8
	3.33	6.67	0.00	63.33	26.67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 인정 대안학교’, ‘검정고시’,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의 경우에 CVR 값이 0.933, ‘자격증’과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의 경우에 CVR 값이 0.8,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에 CVR 값이 0.667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모든 영역에서 내용 타당도가 확보됨은 물론이고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다수의 패널이 2차 성취 기준(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조사를 토대로 성취 기준(안)을 재구성한 2차 조사를 통해 각 인정 대상별로 구체적인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먼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1차 성취 기준(안)과 2차 성취 기준(안)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로 적용하되, ‘보통교과 & 전문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평가 과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E등급(성취율 40% 이상 ~ 60% 미만 해당)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둘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는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

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하되,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교양 교과(P/F)’나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를 기존 E등급(1차 성취 기준(안))에서 D등급(2차 성취 기준(안))으로 변경함으로써 패널들로부터 더욱 높은 내용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검정고시’는 성적 산출 및 증명이 가능하므로, 1차 성취 기준(안)에서 90점 이상은 C, 70점 이상 ~ 90점 미만은 D, 60점 이상 ~ 70점 미만은 E등급으로 제안되었으나, 2차 성취 기준(안)에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 ~ 90점 미만이면 B,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면 C, 60점 이상 ~ 70점 미만이면 D등급으로 인정해주는, 즉 취득한 교과 성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과목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됨으로써 대다수의 패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마련되었다.

넷째, ‘자격증’은 1차 성취 기준(안)에서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자격증 취득 기준인 60점 ~ 70점 이상의 합격 점수와 취득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D등급(성취율 60% 이상 ~ 70% 미만 해당)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으나, 2차 성취 기준(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되 자격증별(기능장, 기사, 기술사, 산업기사 등)로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자격증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패널들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섯째, ‘국가무형문화재’는 1차 성취 기준(안)에서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수련 기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C등급(성취율 70% 이상 ~ 80% 미만 해당)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2차 성취 기준(안)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수련 기간과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기준을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는 D등급으로, 전수생은 E등급으로 적용하되,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패널

들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다.

여섯째,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는 1차 성취 기준(안)에서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수련 기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C등급(성취율 70% 이상 ~ 80% 미만 해당)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2차 성취 기준(안)에서는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기준을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 기준을 D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되,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패널들이 동의하게 되었다.

[표 기] 이수원별 성취 기준

이수원명	성취 기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다음 2가지 방안의 병행 적용을 제안함. ①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 적용 ② ‘보통교과 & 전문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평가 과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E등급(성취율 40% 이상 ~ 60% 미만 해당) 적용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는 P/F로,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는 성취 기준 D등급을 적용함.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는 P/F로,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는 성취 기준 D등급을 적용함.										
검정고시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에서 평가를 통한 성적 산출 증명이 가능하므로 해당 교과의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단, 검정고시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별도 마련하여 적용함.										
	<table> <tr> <th>검정고시 취득 점수</th><th>성취도</th></tr> <tr> <td>90점 이상</td><td>A</td></tr> <tr> <td>80점 이상 ~ 90점 미만</td><td>B</td></tr> <tr> <td>70점 이상 ~ 80점 미만</td><td>C</td></tr> <tr> <td>60점 이상 ~ 70점 미만</td><td>D</td></tr> </table>	검정고시 취득 점수	성취도	90점 이상	A	80점 이상 ~ 90점 미만	B	70점 이상 ~ 80점 미만	C	60점 이상 ~ 70점 미만	D
검정고시 취득 점수	성취도										
90점 이상	A										
80점 이상 ~ 90점 미만	B										
70점 이상 ~ 80점 미만	C										
60점 이상 ~ 70점 미만	D										

자격증	<p>다음 2가지 방안의 병행 적용을 제안함.</p> <p>① 자격증 공통 인정 과목인 '진로와 직업'은 교양 교과이므로 P/F(Pass/Fail) 적용</p> <p>②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자격증 취득 기준인 60점 ~ 70점 이상의 합격 점수와 취득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D등급을 적용</p>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p>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의 수료증 등(이수시간 및 성적증명 확인 가능 서류)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p> <p>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는 P/F로,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는 성취 기준 D등급을 적용함.</p>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p>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의 졸업·수료증 및 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p> <p>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양 교과'는 P/F로,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는 성취 기준 D등급을 적용함.</p>
국가무형문화재	<p>다음 2가지 방안의 병행 적용을 제안함.</p> <p>①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로 적용</p> <p>②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수련 기간과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기준을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는 D등급으로, 전수생은 E등급으로 적용</p>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p>다음 2가지 방안의 병행 적용을 제안함.</p> <p>①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로 적용</p> <p>② '보통 교과 & 전문 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기준을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 기준 D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p>

5. 논의 및 제언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성취평가제의 확대 적용이 계획되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취평가제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에 2023년 6월 이후로 교육부장관은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택과목에 있어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2021년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내용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은 전 과목 5단계 상대평가의 등급을 병기하겠다고 정정하였는데, 이는 모든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취평가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기에 방송중·학습경험인정제에서의 이수원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은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에서 인정 대상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통해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간략하게 연구 결과를 검토해보면, ①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로 적용,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는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 ③ ‘검정고시’는 성적 산출 및 증명 가능하므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 ~ 90점 미만이면 B,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면 C, 60점 이상 ~ 70점 미만이면 D등급으로 인정, ④ ‘자격증’은 자격증별(기능장, 기사, 기술사, 산업기사 등)로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자격증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 ⑤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수련 기간과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기준을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는 D등급으로, 전수생은 E등급으로 적용하되,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 ⑥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는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기준을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 기준을 D등급으로 적용하되,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10) 정미라, “[지상토론] 교육부는 왜 절대평가 약속 뒤집었나”, <한국교육신문>, 2024.02.06.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자격에 대한 등급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이수원별 성취 기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나, ‘국가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성취 기준을 D등급으로 적용하되,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국가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검정고시’ 혹은 일반 ‘국가기술자격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 기준을 D등급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향을 예상케 한다. 물론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취득의 난이도를 고려해본다면, D등급보다 상향 조정되는 방안 또한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방송중·고의 시수 및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여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22년에 추진된 ‘방송통신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적용 방안 연구’에서 학계 전문가 그룹이 학습경험인정제와 고교학점제의 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학점 인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학계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와 학습경험인정제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인정 단위를 학기나 시간 단위보다는 학점 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는 곧 방송고 학생들이 학교 밖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고교학점제에서 규정하는 학점 방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1) 김수진·황은희·김실희·이은주·한정윤·구예리·이재덕, 『방송통신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적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2.

‘국가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자격에 대한 등급 조정과 시수 및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여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성취평가제가 실시되더라도 방송중·고 학습경험 인정제가 적절하게 대응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향후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및 운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
- 김상철·강성국·도재우·이유리·임규희·김주경·안성훈, 「방송중·고 학습 경험인정제 이수인정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교육발전』 42권 2호,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225-257쪽.
- 김수진·황은희·김실희·이은주·한정윤·구예리·이재덕, 『방송통신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적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2.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 한국교육개발원, 2023, 6-14쪽.
- 정미라, “[지상토론] 교육부는 왜 절대평가 약속 뒤집었나”, <한국교육신문>, 2024.02.06.
- 한국교육개발원, 『2024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매뉴얼(교사용)』, 2024.
- Lawshe, C. H.,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vol. 28, no. 4, 1975, pp.563-575.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실시에 앞서, 방송중·고 학습 경험인정제에서 인정 대상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①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로 적용,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는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 ③ ‘검정고시’는 성적 산출 및 증명이 가능하므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 ~ 90점 미만이면 B,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면 C, 60점 이상 ~ 70점 미만이면 D 등급으로 인정, ④ ‘자격증’은 자격증별(기능장, 기사, 기술사, 산업기사 등)로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자격증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 ⑤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수련 기간과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기준을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는 D등급으로, 전수생은 E등급으로 적용하되,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 ⑥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는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기준을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 기준을 D등급으로 적용하되,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자격에 대한 등급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중·고의 시수 및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여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방송중·고(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성취평가제

■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chievement Testing in the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System in Open Schools

Kim, Sang Cheol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lan for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achievement recognition targets through a Delphi survey of experts for each recognition target of the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System in Open School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2025.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adjustments have been proposed: ① The ‘Accounts for Lifelong Learning System’ will be applied on a Pass/Fail basis if it qualifies as a ‘liberal arts subject’. ② The institutions will apply subject achievement standards (A to E) according to grades. ③ ‘Qualified Examination’ allows grades to be calculated and certified, so grades are recognized by score. ④ ‘Certificates’ will be classified by qualification. ⑤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orean Master Hand Craftsman’, etc. will have a training period with achievement standards to maintain consistency within a broader framework. Recommendation are also proposed as follows: Adjustment of the ratings for the qualifications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Korean Master Craftsman, Skill Transferee, and Excellent Skilled Technician’, and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converting and recognizing the number of hours and units of middle and high school broadcasting into credits.

**Keyword • Open Schools,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System,
Achievement Test**

대학 교양 한국어 발표 수업에서 ‘동료 편집(Peer editing)’ 적용 논의 : 쓰기 단계를 중심으로*

김 정 현 · 조 형 일**

목 차

1. 들어가며
2. 발표불안 연구 양상과 쟁점
3. 동료 편집과 교육 적용 논의
4. 맺음말

1. 들어가며

한국 대학에 입학할 앞두고 있거나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한국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학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수업에서

* 본 논문은 화법학회(제48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김정현 (제1저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대우전임강사

조형일 (교신저자) 송곡대학교 한국어비즈니스학과 조교수

- 1) 한국교육개발원_외국인 유학생 현황_대학 및 전문대학(2023년 4월 1일자 기준 자료)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학 학부(본교, 제2캠퍼스별 분리 통계) 유학생은 총 132,336명(4년제 219개소: 115,169명, 2년제 125개소: 17,167명)이고 어학연수 과정생을 포함한 연수과정 재학생은 총 50,375명(4년제: 43,309명, 2년제: 7,066명)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유학생은 23년 4월 1일 기준으로 182,711명이 된다.

* 24년 4월 1일자 기준 외국인 유학생 통계는 24년 12월 중순경 공개된다.

요구하는 한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생과 학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대학에서는 보고서 쓰거나 토론, 발표 등 학습자 개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이 중에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조리 있게 전달해야 하는 발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²⁾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대학교양교육과정에서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발표 부담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동료 편집(Peer editing)³⁾ 방법 적용’을 제안한 연구이다.

학문 목적 유학생의 대학 입학 후 원활한 학업 수행을 위해서 현재 많은 대학 부설 한국어 연수 기관에서는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발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수업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발표의 구조나 내용, 준비 과정에 대한 교육 수행 수준과 분량이 미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발표의 주제와 방향, 구성과 내용, 전달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한국의 대학 수업에서 대다수의 외국인 학습자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발표 결과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경험은 학습자에게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학습자의 자존감 하락 및 말하기 자기효능감의 저하

2) 일부 대학에서는 이 때문에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용 수업을 따로 개설, 운영하기도 한다.

3) 보통 동료 간 피드백이나 동료 간 평가의 방법이 언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료 편집’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편집’이라는 용어는 무언가 기존에 이루어진 글의 내용과 형식을 정리하고 다듬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동료로 수식된 이 용어가 언뜻 잘 이해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동료 편집’은 동료 간 서로 ‘EDIT’ 즉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 역시 ‘Peer editing’의 단어 병렬식 번역어 ‘동료 편집’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나 이론 측면에서 이미 굳어진 표현이기에 따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동료 상호 첨언’ 정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부설 기관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부터 발표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이와 함께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발표 준비 단계에서부터 초점화되어 적용되어야 함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기능 수행 역량 및 발표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쓰기 단계에 집중하여 동료편집(peer-editing) 방법을 적용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때 발표 능력 향상에 관계하는 쓰기 단계를 연구의 핵심 중점으로 삼았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원론부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추상적 수준에 머물 것을 염려하여, 쓰기 단계로 초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발표불안 연구 양상과 쟁점

1) 발표와 불안도 관련 연구 양상 검토

발표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조사를 진행한 연구로는 윤신애 외(2008)와 고은선·전한성(2019), 김지현·조희영(2023)이 있다. 윤신애 외(2008)⁴⁾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듣기·말하기 과제의 필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요구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과제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발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원고를 구상하고 작성하는 쓰기 능력과 발표 현장에서 청중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한 듣기 능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기

4) 윤신애·장윤미·김영규,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말하기 과제 중심 요구 분석: 중국인 이공계열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1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159-188쪽.

때문에 학습자가 단기간 내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고은선·전한성(2019)⁵⁾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정 만족도와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유학생들은 교양교육과정을 수강할 때 어려운 점과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으로 각각 ‘발표와 토론’(75.2%), ‘한국어 표현(쓰기, 말하기)’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학 교육에서 ‘발표와 토론’을 개설하는 목적이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의 신장을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기초적인 언어능력 함양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⁶⁾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발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김지현·조희영(2023)⁷⁾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표 요구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표 내용·구조 영역, 발표 전달 영역, 발표 불안 관리로 항목을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발표 불안에 해당하는 항목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불안 관리 요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발표에 있어서 학습자의 불안도 관리가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 발표와 관련된 불안이나 자신감과 같은

5) 고은선·전한성,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분석-D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 연구』 3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403-427쪽.

6) 이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 전체 응답자 206명이 618개 복수응답하였고 발표와 토론 이외에도 보고서 작성, 팀프로젝트 활동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김지현·조희영,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 내용 선정 연구」, 『새국어교육』 13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23, 373-401쪽.

정의적 요인을 개인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 보이듯이 학습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자신의 능력치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발표 수준의 격차가 심할수록 학습자의 불안도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교사와 동료 앞에서 홀로 수행해야 하는 발표는 모국어 학습자에게도 큰 부담이다. 하물며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발표를 해야 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발표 교육 수행에 있어서 정보를 검색하고 자료를 구성하는 준비 단계와 언어의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불안도를 낮추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향후 한국어 교육에서는 발표가 평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발표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발표의 준비 과정을 발표 수업의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발표를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 김지현·조희영(2023: 375)은 발표를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꾀할 수 있고 학습자는 교실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쓰기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른 학습자의 발표를 들으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발표 교육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네 기능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발표를 통한 교육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교육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 한국어 교실에서 발표는 다양한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준비 과정보다는 ‘발표’라는 말하기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다양한 언어 기능을 동시에 교육하기 위한 방

안으로 발표 수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발표의 결과보다 발표의 준비 과정을 교육적 목표로 삼고 교육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발표의 준비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발표로 인한 불안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발표에서 학습자의 불안을 낮춰 줄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2) 학습자의 발표 불안과 해소 방안

앞서 발표 교육이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에게 유용하고 선행 학습되어야 하며 과제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발표 준비 과정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는 발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 기능의 향상과 더불어 발표 전, 후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과 말하기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가 불안을 느끼는 원인과 개선점을 제시한 연구로는 이선영(2016)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기 영역에서의 불안 통제 전략 연구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며 학습자들이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목록을 제시하고 학문적 발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말하기 수업의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말하기 준비 단계에서 불안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발표의 중요성을 밝히고 학습자가 말하기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불안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교육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8) 이선영,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 통제 전략 사용 양상」, 『우리어 문연구』 56권, 우리어문화회, 2016, 321-352쪽.

그리고 이때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불안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에게 다양한 발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발표 준비 과정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발표에 대한 불안은 비단 외국인 학습자만이 겪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서영진·전은주(2010)⁹⁾는 국내 고등학생들의 공식적 말하기에 대한 불안 정도를 조사하고 말하기 불안 해소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는 말하기 활동 중 가장 먼저 수행하게 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발표’라고 하면서 불안도가 가장 높은 말하기 활동 유형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와 더불어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는데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표 과정에 대한 교육이 더 세심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한국어 교실에서 짝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던 학습자도 유독 발표에 부담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발표를 통한 의사소통 경험이 말하기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학습자 불안의 원인에 대해 이창덕 외(2021:99)는 말하기 준비 상태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청자에 대한 불안감,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이 총체적으로 화자의 말하기 불안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학습자가 말하기 활동에 불안을 느끼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a.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성격이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은 말하기 불안을 더 심하게 경험할 수 있다.
- b. 대중 앞에서 말을 해 본 경험이 적거나, 청자를 포함한 말하기 환경에 친숙하지 않을 경우 말하기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9) 서영진·전은주, 「고등학생의 공식적 말하기에 대한 불안 연구 -화법 구성 요소와 말하기 불안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2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209-242쪽.

- c. 자신이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화제와 관련한 입장이 나 내용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말하기 불안이 생긴다.
- d. 청자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특히 자신의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심리가 말하기 불안을 유발한다.

한국어 교사로서 마땅히 소극적인 학습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나 위의 학습자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원인 중 학습자의 소극적인 성향에 의한 불안감은 수업을 통해 단기간에 해소시키기는 어렵고 교사 개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그 외 항목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습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발표 전 미리 충분한 연습을 통해 경험을 쌓게 하고 동료 간 평가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불안한 감정을 낮출 수 있다면 이는 발표 실력을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표 전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준비 과정이 발표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창덕 외(2021:104)¹⁰⁾는 앞서 진단한 원인과 함께 실제 말하기 상황에서 말을 더듬거나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불안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말하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거나 말하기 기술 자체가 미숙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강조해서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자신에게 친숙한 주제를 선택하고 철저한 사전 연습을 통해 이러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히며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의 신호를 인식하고 학습자를 배려해야 하며, 협조적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교실 분위기 자체가 경직되어 있고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말하기 불안 증세의 호전을

10) 이창덕·임철성·심형택 외, 『화법교육론』, 역락, 2021.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앞서 학습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듯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속에서 이루어진다.

발표는 겉으로는 발표자의 일방적인 발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 발표자는 발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청자의 반응을 살피며 발표 과정 중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이러한 점이 발표자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는 학습자의 말하기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론적 논의는, 수업 단계마다 구체적인 처치 방법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료 편집’이라는 교수학습의 한 방법이 발표 상황에 맞닥뜨린 학습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¹¹⁾ 불안 요소를 감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이의 교육 적용을, 쓰기 단계에 집중하여 실제적 운영 방법까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동료 편집과 교육 적용 논의

1) 소그룹 활동에서 동료 편집의 유용성 논의

발표 시 학습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말하기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표 준비 단계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끌 만한 발표 주제를 선정하도록 돕거나 발표의 구조나 표현을 교육하는 등 내용 교육이 선행되어야

11) ‘추가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인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는 가정하에 발표라는 수업의 형태가 학습자들에게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틀린 접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안의 요소를 미리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 과정 중,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불안감을 높이는 존재는 발표를 경청하는 청중일 것이다. 실제 발표 과정을 수행하기 전 미래의 청중인 동료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발표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를 주고받게 된다면 학습자의 불안감은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으로 바뀌게 된다. 앞서 이를 위해서 발표 준비 과정에서 소그룹 활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습자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편안한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사와 동료 학습자 간 형성된 라포르(rapport)를 통해 청중의 질문이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다소 덜어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습자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만 발표를 할 수는 없는 일이나 어느 정도 실수가 허용되는 우호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 소극적인 학습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최건아(2016)¹²⁾를 들 수 있다. 이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소그룹 활동이 발표 불안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자 참여한 학습자들 소그룹 활동을 통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으며 이는 실제 발표를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발표 경험이 반복되며 익숙함을 느껴 편안해졌다고 하였다. 그룹 활동 후에는 모든 참여자가 서로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하였는데 이 점이 공동체에서의 라포르 형성에 기여했다고 하면서 소그룹 활동과 동료 평가의 장점을 주장하였다. 학습자의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편안한 분위기 조성 and 충분한 준비 과정이며 이를 위해 발표를 직접 보

12) 최건아, 「발표 불안 극복을 위한 대학생 소그룹 활동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10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389-418쪽.

게 되는 교사와 동료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중요한 것은 동료 평가는 평가의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비판을 자칫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이는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학습자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사전에 평가 방식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성향과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동료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작성한 결과물의 장점을 찾아 의견을 내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발표를 통한 종합적인 언어 기능 능력 향상과 발표 불안을 낮춰 말하기 실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발표 준비 과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발표 과정 중 발생하는 학습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말하기 준비 과정에 초점을 둔 동료 평가 활동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동료 평가 방식 중 쓰기 교육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동료 편집(peer editing)’을 발표 준비 단계 내 소그룹 활동에 접목시켜서 학습자의 발표 불안감을 낮추고 발표 능력 향상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Papadopoulos et al(2012:183)에 따르면 동료 편집(peer editing)은 학생들이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주어진 과제를 검토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학습자는 동료의 피드백을 받은 후 평가 내용을 선별하여 수정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동료 편집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일방적인 평가 대상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평가 과정에 개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언어 능력 향상과 비판적 사고

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奥田暁代(2016:93 ~ 74)¹³⁾는 고쳐 쓰기 단계에서 동료 편집의 유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쓰기 과제 수행에 학습자가 서로의 글을 읽어 보게 하는 활동을 포함시키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동료의 피드백 중에서 수용하면 좋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비판적 읽기가 가능해진다. 또한 동료 편집 활동을 통해 평가자의 의견도 정확해질 수 있다. 학습자가 동료 편집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간단한 양식이나 서식을 제공해서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이 쓰기 평가의 유용한 방식인 동료 편집은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글을 읽고 글의 구조와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이끌어낸다. 또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글쓰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발표 준비 과정은 학습자의 발표 부담을 낮춰 주고 성공적인 발표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거치면서 학습자는 발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동료 편집은 쓰기 교육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발표의 준비 과정에서도 이용해 볼 만하다. 발표문을 작성한 후 결과물을 검토하고 수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표문 작성 시 동료 편집을 활용할 때에는 발표 원고 작성 과정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피드백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실 내 소그룹을 만들어 주고 학습자 스스로 서로의 발표 원고를 검토한 후 평가해 주도록 한다. 이때 그룹 내 학습자들은 서로의 발표문을 읽어 보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각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교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이 작성한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는 쓰기 실력의 향

13) 奥田暁代, 大学で学ぶ英語の教科書, 慶應義塾大学出版, 2016.

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서로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평가 주체자의 신뢰도이다.

쓰기 평가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교사들도 처음 쓰기 결과물을 평가할 때에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하물며 훈련을 받지 않은 학습자가 정확하게 오류를 짚어내고 수정해 주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학습자 간 실력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동료 편집 활동 시 평가자의 실력이 평가 대상자의 실력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발표 준비 과정에서 동료 편집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동료 편집을 통해 학습자의 불안감을 낮추고 학습자가 주체적인 방식으로 언어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입학 후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이 동등하게 학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데 동료 편집을 통한 소통의 과정이 대학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의 연구 외에도 동료 편집의 유용함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로는 奥田暁代(2016)이외에도 Topping(1998), Rieber(2006)가 있다. Topping(1998:256)¹⁴⁾은 동료 편집을 통해서 학습자가 동료와 비판을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제안을 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ieber(2006, Jessica Holt(2019:32)에서 재인용)¹⁵⁾는 동료 편집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이 부족한 경험 안에서 더 비판적으로 자신의 과제를 성찰하고 글을 쓰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은 교사가 제공하는 피

14) Topping, “Peer assessment between student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68, 1998, pp.249-276.

15) Rieber, L. J., “Using peer review to improve student writing in business course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 81, 2006, pp.322-326.

드백과 크게 다른데, 교사들은 쓰기 결과물을 평가할 때 오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결과물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과제에 대한 이해도, 결과물이 주제와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고 한다. 교사가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 교육하고 학습자가 동료 편집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동료 편집이 발표 과제에서도 유용한 평가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다.

National Geographic Learning의 시리즈 중 하나인 Great Writing 2(2023:22)¹⁶⁾에는 발표 과제의 평가 방식에 참조할 만한 좋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는데, 동료 편집을 수행하기서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선행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료 편집은 다른 학습자가 여러분의 글을 읽고 준비된 질문과 지침에 따라 여러분의 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이러한 동료 편집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동료 편집의 전체적 진행 방식

- 1) 동료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는다.
- 2) 동료들이 여러분의 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 3) 여러분은 동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 4) 여러분은 동료의 제안을 듣고 수정할 내용을 생각한다. 만약에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그 평가는 여러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쓰기의 오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동료 편집 수행 시 표현 내용과 방식(Peer Editing Comments)

- 동료가 쓴 글을 평가할 때에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수행한다.
- 여러분의 의견이 도움이 됩니다. 틀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때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기를 원하는

16) Keith S. Fols · A. Muchmore-Vokoun · Elena Vestri, *Great Writing 2*,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2023.

방식으로 이야기하세요.

- 여러분이 글을 평가하기 전에 평가한 내용이 글쓴이에게 도움이 될지 자신도 그런 평가를 원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처럼 구체적인 수행상의 질문 양식과 방법을 제공하여 수업 운영 시 명확하게 동료 편집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서 학습자의 발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적인 수행 경험이 필요함을 알았다. 준비 과정에서 동료 편집 활동 이외에도 실제로 발표를 하는 것처럼 동료 앞에서 미리 발표를 해 보면 불안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복적인 발표 시연을 통해서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불안을 해소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표 준비 과정에서 동료 편집 활용 방안

앞 장에서는 글쓰기 활동에서 동료 편집은 정해진 미리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학습자가 서로의 쓰기 결과물에 직접 피드백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발표 원고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동료 편집 방식은 발표 시연 과정에서도 유용한 평가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의 발표 시연을 미리 보고 서로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피드백을 해 준 후에 수정 과정을 거친다면 실제 발표 시연 시 발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불안감도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소그룹 내 동료 앞에서 발표 시연을 해 봄으로써 스스로 발표 과제의 완성도를 높리게 되고 이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奥田暁代(2016:94)는 동료 편집의 평가지 샘플을 다음 [그림 1]처럼 제시해 놓고 있다.

Paragraph Evaluation

Writer:_____

Reader:_____

Rate the writing on each point:

Topic sentence is clear	Poor	Fair	Average	Good	Excellent
Topic sentence is fully supported	Poor	Fair	Average	Good	Excellent
Organization is clear	Poor	Fair	Average	Good	Excellent
Transitions are used effectively	Poor	Fair	Average	Good	Excellent
Language is clear	Poor	Fair	Average	Good	Excellent

What did the writer do most effectively?

What should the writer pay special attention to when revising?

General Comments (on topic sentence, supports, organization, etc.):

[그림 1] 동료 편집 리뷰 샘플(Peer Review Sample)

동료 편집 평가 항목으로는 주제 및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충분성, 글의 구조, 효과적인 내용 전환이 포함되었고 주관식으로 답 항목을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사용된 언어의 명료성, 필자가 수정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과 주제문이나 글의 구성 등 일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Saman Ebadi & Masoud Rahimi(2017)¹⁷⁾는 동료 편집을 활용한 발표 원고 작성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서 진행되었던 면대면 동료 편집 과정을 참고하여 발표 원고 쓰기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 [표 1]의 과정처럼 제안해 보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의 동료 편집은 학습자의 불안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의 동료 편집 과정이므로 소그룹 활동 시 교사의 개입을 최소

17) Saman Ebadi · Masoud Rahimi, “Exploring the impact of online peer-editing using Google Docs on EFL learners’ academic writing skills: a mixed methods study”,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ume 30, Taylor & Francis Online, 2017, pp.787-815.

화하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위해서 교사가 최종 검토 단계에서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총 3교시로 이루어진 과정 중 2교시와 3교시에 동료 편집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동료 편집 원리를 적용한 발표 원고 쓰기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동료 편집을 적용한 발표 원고 쓰기 과정의 과정 일레(3차시)

발표준비단계	학생 활동 내용	시간
브레인스토밍	- 소그룹으로 모여 주제를 소개한 후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다. - 교육 내용과 수준에 맞는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 주제를 결정한 후 서로의 주제에 대해 발표에 적합할지 의견을 주고받는다.	20분
초안 작성	- 초안 작성 후 소그룹 내에서 동료들과 공유한다.	30분
1차 동료 편집	- 동료의 글을 서로 평가한다. 서로의 평가 내용을 읽으며 학습자 스스로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30분
1차 수정	- 1차 수정 후 동료들과 공유한다.	20분
2차 동료 편집	- 동료의 글을 서로 평가한다. - 서로의 평가 내용을 읽으며 학습자 스스로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20분
2차 수정	- 동료들의 의견과 수정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원고를 2차로 수정한 후 제출한다.	20분
최종 수정	- 교사는 학습자가 제출한 원고를 마지막으로 검토하여 돌려준다.	10분

이러한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자유롭고 편안한 교실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표 원고 작성하기 활동에서 동료 편집을 적용시킨 이유는 발표 준비 과정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며 이러한 과정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의 발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의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결과보다는 학습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 간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감정 소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동료 편집 과정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전 교육 시 동료 편집 과정에서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조승희(2021)¹⁸⁾는 학생 발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발표 능력 평가 도구에 관한 여러 연구 내용을 종합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료 편집 활동을 위한 평가 도구를 개발해 보았다. 동료 편집은 학습자 간 서로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 능력과 발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발표는 본인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들어 청중을 설득해야 하는 말하기 활동이므로 발표의 주제와 근거가 명확한지, 발표문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글의 분량이 적당한지를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교사나 전문가가 아닌 학습자가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최대한 단순하게 작성하여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섯 개의 항목을 제시해 놓고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동료 편집은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가 작성한 쓰기 결과물을 보고 직접 그 결과물에 수정 표시를 해 주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교사는 동료 편집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자인 학습자에게 수정해야 할 내용과 수정 방식을 알려줘야 한다.

[표 2] 발표 원고 작성을 위한 쓰기 중점 동료 편집의 평가 항목 제안

내용 및 구성 요소	글의 주제와 근거가 명확하다.
	매우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좋음 / 매우 좋음
	글을 이해하기 쉽다.
	매우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좋음 / 매우 좋음
	글의 분량이 적당하다.
	매우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좋음 / 매우 좋음

18) 조승희, 「비대면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의 학생 발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Zoom을 활용한 실시간 한국어 수업에서의 발표 수행을 중심으로」, 『2021년 제31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1, 335-348쪽.

언어적 요소	흥미로운 내용이나 새롭게 알게 된 곳에 ☆ 표시를 해 보세요.
	맞춤법이나 어휘, 문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세요.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는 [] 표시를 하세요.
	너무 반복해서 나오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하세요.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발표 준비 과정 중 발표 원고 쓰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때 발표 원고 쓰기 수행 시 동료 편집 활용 이외에도 발표 전 소그룹 내에서 실전 연습을 해 보고 미리 동료들의 평가를 받아 수정사항을 검토해 보완해 나가는 행위도 동료 편집에 해당된다. 따라서 발표 준비 과정을 발표 주제를 정하거나 개요 및 초고를 작성하는 등의 발표 준비 과정과 실제 발표를 하는 것처럼 소그룹 내에서 발표를 수행해 보면서 발음이나 태도, 목소리 등 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는 발표 실행 준비 과정으로 나누어 동료 편집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평가 방식으로 발표 실행 연습을 위한 동료 평가표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말하기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표문의 내용이나 언어적 요소 외에도 발음이나 억양, 발표자의 태도, 손짓, 몸짓, 발표 자료 활용 등 언어 외적인 요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발표 외적 평가 항목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또는 동료 학습자를 평가해 보면서 실제 발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것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 [표 3]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발표 실행 연습을 위한 동료 평가 항목 제안

1. 발음, 억양, 속도, 목소리의 크기가 적당하다. <i>매우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좋음 / 매우 좋음</i>
2. 자연스럽게 자신 있는 태도로 발표한다. <i>매우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좋음 / 매우 좋음</i>

3. 자료 준비와 자료의 활용이 적절하다.
<i>매우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좋음 / 매우 좋음</i>
4. 청중의 질문에 잘 대답한다.
<i>매우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좋음 / 매우 좋음</i>

3) 발표 준비 과정에서 동료 편집 활용의 실제

앞서 논의한 평가표들을 실제 수업에서 간단하게나마 적용해 보았다. S 대학의 24년도 1학기 수업에서 기말평가 대신 발표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고 발표 개요를 짜고, 조원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게 한 후 발표 전 원고를 [표 1]과 [표 2]의 방식으로 서로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¹⁹⁾ 실제 수업 적용에서는 [표 1]의 3교시 정도로는 학습자들이 글을 작성하기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1교시 부분은 재택 과제로 주고 2교시와 3교시 부분을 이후 2주에 걸친 수업 시간에 수행하게 되었다.²⁰⁾ 이후 평가와 수정의 시간은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나 교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불안감을 조금씩 덜어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후 조사한 만족도 설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발표 원고 작성 시 동료 편집 활용하며 발표 전 소그룹 내에서 실전 연습을 해 보고 미리 동료들의 평가를 받아 수정사항을 검토해 보완해 나가는 행위를 수행하고 이의 과정마다 교수자가 참여하여 발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의견들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거친 이후 학습자들

19) S대학교 2학년 1학기 현대한국사회의 이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는 한국어 5급 3명, 4급 2명, 3급 5명, 1급 1명(영어트랙)이었다. 국가별로는 몽골 2명, 우즈베키스탄 4명, 베트남 5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결과를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 결과를 통한 실제적 검증과 명확한 이론의 제언은 다음을 기약한다.

20) 실제적으로 3주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표 1]의 차시 적용이 순차적으로 하루 안에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표 2]에 해당하는 결과의 적용은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표 2]의 조정이었다.

[표 4] 동료 편집을 적용한 발표 원고 쓰기 과정의 과정 조정(3차시)

발표준비단계		학생 활동 내용	시간
1일차	브레인 스토밍	- 소그룹으로 모여 주제를 소개한 후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 받는다. - 교육 내용과 수준에 맞는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 주제를 결정한 후 서로의 주제에 대해 발표에 적합할지 의견을 주고받는다.	50분
	초안 작성	- 초안 작성 후 소그룹 내에서 동료들과 공유한다.	재택 과제
2일차	1차 동료 편집	- 동료의 글을 서로 평가한다. 서로의 평가 내용을 읽으며 학습자 스스로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30분
	1차 수정	- 1차 수정 후 동료들과 공유한다.	20분
	2차 동료 편집	- 동료의 글을 서로 평가한다. - 서로의 평가 내용을 읽으며 학습자 스스로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30분
	2차 수정	- 동료들의 의견과 수정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원고를 2차로 수정한 후 제출한다.	20분
3일차	최종 수정	- 교사는 학습자가 제출한 원고를 마지막으로 검토하여 돌려준다.	재택 정리

이에서 보이듯 1 ~ 3교시 1일 수업으로 구성했던 하루의 수업을 3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특히 1일차 수업은 플립드러닝(flipped-learning) 방식을 적용하여 학습자들이 재택 과제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하고, 마지막 교수자의 검토 결과도 재택 정리 과정으로 돌려서 발표 준비를 편안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발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표 준비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

으로 불안 요소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료 편집을 활용한 평가 방식을 적용해 보았다. 이를 통한 발표 원고 작성부터 발표 실행까지의 단계에서 소그룹 내 동료 편집을 활용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동료 편집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 및 활용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소그룹 내 동료 편집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동료 편집 활동으로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주제와 발표 내용을 미리 검증받을 수 있고 청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표 내용을 수정해 나가면서 학습자의 불안감은 감소할 것이다. 또한 발표 실행 단계에 대한 선행 학습을 통해 발음이나 태도, 전달력과 같은 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고 이 또한 불안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미래의 청중인 동료의 피드백과 이를 반영한 수정은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표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표 준비 과정의 강화를 통한 불안감 감소와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다. 더 나아가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로의 전환은 학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습자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쓰기 단계에 집중하여 동료 편집의 방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불안감의 해소와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동료 편집을 실제 수업에서 충분히 적용해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의 실험 결과로는 그 성과와 만족도의 객관성을 얻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안되고 적용된 실험은 예비적 성과로 봐야 할 것이다. 향후 심화된 실제 수업 운영을 통해서 동료 편집 적용이 학습자의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불안감 감소 양상을 가져오는지와 발표 능력 향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켜 갈 것을 약속드린다.

■ 참고 문헌

- 고은선·전한성,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분석-D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3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403-427쪽.
- 김지현·조희영,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 내용 선정 연구」, 『새국어교육』 13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23, 373-401쪽.
- 서영진·전은주, 「고등학생의 공식적 말하기에 대한 불안 연구-화법 구성 요소와 말하기 불안의 상관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2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209-242쪽.
- 윤신애·장윤미·김영규,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말하기 과제 중심 요구 분석: 중국인 이공계열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1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159-188쪽.
- 이선영,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 통제 전략 사용 양상」, 『우리어문연구』 56권, 우리어문학회, 2016, 321-352쪽.
- 이창덕·임철성·심형택 외, 『화법교육론』, 역락, 2021.
- 조승희, 「비대면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의 학생 발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Zoom을 활용한 실시간 한국어 수업에서의 발표 수행을 중심으로」, 『2021년 제31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1, 335-348쪽.
- 최건아, 「발표 불안 극복을 위한 대학생 소그룹 활동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10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389-418쪽.
- Keith S. Fols · A.Muchmore-Vokoun&Elena Vestri, *Great Writing 2*,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2023.
- Jessica Holt, “Grade-Accountable Peer Editing: Students’ Perceptions of Peer-Editing Assignment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vol. 74, no. 1, 2019, pp.31-43.
- Papadopoulos, P. M. · Lagkas, T. D. · Demetriadis, S. N., “How to improve the peer review method: Free-selection

vs. assigned-pair protocol evaluated in a computer networking course”, *Computers & Education*, vol. 59, 2012, pp.182-195.

Rieber, L. J., “Using peer review to improve student writing in business course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 81, 2006, pp.322-326.

Saman Ebadi · Masoud Rahimi, “Exploring the impact of online peer-editing using Google Docs on EFL learners’ academic writing skills: a mixed methods study”,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ume 30, Taylor & Francis Online, 2017, pp.787-815.

Topping, “Peer assessment between student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68, 1998, pp.249-276.

奥田暁代, 大学で学ぶ英語の教科書, 慶應義塾大学出版, 2016.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발표 불안감 문제에 집중하여 이의 해결책을 동료편집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문 목적의 유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원활한 학업 수행을 받기 어렵다. 이를 위해 대학 부설 한국어 연수 기관에서 학문 목적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수업 시간의 부족으로 발표의 구조, 내용, 준비 과정에 대한 교육 수준과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 대학 수업에서 대다수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발표를 통해 얻은 부정적인 경험은 학습자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며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부정적 경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발표의 준비 과정부터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언어 기능 수행 능력, 발표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동료 편집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표 내용과 언어적 요소 외에 발음, 억양, 발표자의 태도, 손짓, 발표 자료의 사용 등 비언어적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발표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표 원고를 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표 주제를 정하거나 개요와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제 발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소그룹 내에서 미리 발표를 진행했다. 이때 동료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내용과 평가 항목을 제안하여 학습자 자신의 발음, 태도, 목소리 등 비언어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 한국어발표수업, 동료편집, 피드백, 교양교육, 한국어 교육

■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eer editing’ in University Liberal Arts Korean Presentation Class : Focused on Writing steps

Kim, Jung Hyun / Seoul Nat’l University

Zo, Hyoung Il / Songgok University

It is difficult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receive smooth academic performance after they enter university. To this end, a university-affiliated Korean language training institution provides present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for academic purposes. However, due to the lack of physical class time, the level and quantity of education on the structure, content, and preparation process of the presentation are often insufficient. Therefore, in Korean university classes, the majority of foreign learners are bound to face difficulties. Moreover, the negative experiences gained through presentation cause learners to experience anxiety about speaking. This anxiety causes a decrease in learner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speaking. In order to relieve this anxiety, this study suggested applying the peer editing method as a way to improve Korean communication skills, language function performance skills, and presentation skills together from the preparation process of the presentation.

A presentation can be defined as an activity that expresses one’s thoughts or opinions in front of several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leteness of the presentatio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non-lingual factors such as pronunciation, accent, presenter’s attitude, hand gestures, and use of presentation materials, in addition to the content and linguistic elements of the presentation. In this thesis, a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writing a presentation manuscript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presentation.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 the presentation was conducted in advance within a small group as if the actual presentation was made, such as deciding the topic of the presentation or writing an outline

and draft. At this time, the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and evaluation items were proposed so that peer editing could be performed so that non-verbal elements such as learners' own pronunciation, attitude, and voice could be evaluated.

Keyword • Korean Presentation Class, Peer-editing, feedback, Liberal education, Korean Education

대학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 부산대학교의 「열린사고와 표현」 강좌를 중심으로

박 고 운 · 고 혜 림 · 이 상 룡 · 이 정 민*

목 차

1. 서론
2. 부산대학교 글쓰기 프로그램
3. 결과 분석
4. 논의 및 결론

1. 서론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고, 인류의 지성이 고도로 발전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교육 한켠에서는 문해력의 부족과 문해력 향상에 대한 문제에 사람들이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에서 교육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만하다. “글쓰기는 역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과업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N. Sommers et., 2004)는 실험결과처럼 학생들

* 박고운 (제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초빙교수
고혜림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이상룡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이정민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에게 글쓰기란 기한에 맞추어 억지로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라 스스로 주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자료를 찾아보며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찾아 노력하는 과정이 되어야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 학기 수업에서 지적인 성장과 학습에 대한 평가를 ‘글쓰기’의 형태로 받게 된다. 강좌 이해도를 측정하는 과제물 작성,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을 쓰는 에세이, 자료조사를 정리한 내용,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모든 평가 항목들이 대체로 글쓰기라는 역량에 기대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글쓰기 역량에 따라 자신의 이해와 성찰을 더 잘 표현할 수도 있는 반면 실제 이해와 인식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대학생활이 끝나고 사회로 나아가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자원이 되는데, 계획안, 제안서, 보고서, 회의자료, 발표 등 모든 것이 글쓰기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글쓰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양필수 과목에서의 과정과 진단평가의 효용, 그리고 발전가능성을 고찰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글쓰기 진단 및 피드백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은 주로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교양 기초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과목 수업 내 교수 피드백, 글쓰기 튜터링 또는 클리닉, 논평,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역량 진단의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 신입생의 글쓰기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글쓰기 교과목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배혜진, 전은경, 2021). 이와 같은 글쓰기 피드백은 학습자의 글쓰기에 대한 교수자의 침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자

극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공성수, 2022).

대학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수업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즉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사례 및 효과에 관한 연구(추선진, 2023; 백애송, 박일운, 2022; 윤호경 외, 2022; 권현주, 김유정, 2022; 원진숙, 2022; 권양현, 2023; 배혜진, 2022; 곽미라, 2022), 개선 방안 연구(송명진, 2023; 고혜원, 2022; 조규찬, 2023), 그 외에도 온라인 글쓰기 피드백 사례 및 방법에 관한 연구(이슬기, 2023; 김지윤, 이현정, 구자황, 2021; 안상원, 2021; 이운빈, 2021)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글쓰기 피드백 지도 방법 및 효과성 연구는 전체 연구의 32.2%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김형성, 2023). 국내외 글쓰기 피드백의 연구 동향을 분석 결과, 많은 연구들이 교수자의 글쓰기 피드백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피드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형성(2023)은 국내외 글쓰기 피드백 연구 분석을 통해 글쓰기 피드백 관련 연구의 방향은 무엇보다 글쓰기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수용에 초점을 두고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글쓰기 피드백에 관한 학생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을 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쓰기 피드백의 유형과 구체적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학생들의 인식과 수용, 즉 만족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부산대학교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산대학교는 교양필수 교과목「열린 사고와 표현」에서 글쓰기 역량 진단과 글쓰기 튜터링의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역량 평가와 첨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글쓰기 역량진단과 글쓰기 튜터링에서 두 번의 피드백을 교수자로부터 받게 된다. 이때 기본적으로 오탈자와 맞춤법

의 문제부터 문장의 구성과 주어/술어의 호응과 앞뒤 문장과의 유기성, 단락 간의 유기성과 전체 글의 유기성, 자료의 인용과 표기 방법 및 근거자료의 적절성과 논리적 적합성, 서론-본론-결론에 이르는 흐름의 논리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 피드백을 받게 된다. 그리고 피드백 받은 자신의 글에 대해서 학생들은 다시 고쳐 써서¹⁾ 최종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윤문과 교정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글이 더욱 개선된 방식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결과물의 생성과 동시에 글쓰기에서의 성장에 따른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글쓰기 역량 진단과 튜터링 등 사전-사후 피드백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실제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효과성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부산대학교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해당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글쓰기 역량 진단 사전-사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부산대학교의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은 진단과 튜터링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글쓰기 피드백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대학과 동일하다. 다만 진단과 튜터링이 한 학기 내에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대학의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과 구별된다. 또한 부산대학교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은 학기 내 2회 이상 첨삭을 통한 적극적인 교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고쳐 쓰는 작업, ‘고쳐쓰기’는 초고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하며 더불어 글쓰기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윤호경 외(2022)의 정의를 참고한다. 비교할 만한 용어로는 첨삭, 퇴고, 교정, 수정, 피드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대학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2. 부산대학교 글쓰기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1) 글쓰기 역량 진단

글쓰기 역량 진단 프로그램은 신입생의 글쓰기 능력 수준 진단·평가 후, 결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신입생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글쓰기 진단 평가는 대학 교육에서 글쓰기 교과목 및 수업 시간의 부족, 개별 맞춤형 수업이 어려운 수강생 규모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되었다(조남민, 2019). 구체적으로 글쓰기 역량 진단은 부산대학교 교양 필수 교과목인 「열린 사고와 표현」²⁾ 수업에서 시

- 2) 부산대학교는 재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양 필수 교과목 「열린 사고와 표현」을 운영하고 있다. 강좌는 2학점으로 개설되며, 기초와 심화 글쓰기를 통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토론의 이해와 방법,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총 9개의 주제 중에서 교수자가 4~6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 토론 및 학술적 글쓰기를 시행하며 「열린 사고와 표현」의 주별 강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 「열린 사고와 표현」 주별 강의 계획

주차	강의내용	기타 참고사항
1주	오리엔테이션	글쓰기 역량 진단 시행
2주	글쓰기의 기초1	
3주	글쓰기의 기초2	글쓰기 역량 진단 피드백
4주	토론의 기초1	
5주	토론의 기초2	
6주	토론의 실제	
7주	주제 토론1	
8주	중간고사	
9주	주제 토론2	
10주	주제 토론3	
11주	주제 토론4	

행된다. 2022년부터 시행된 글쓰기 역량 진단은 「열린 사고와 표현」교과목에서 학생들의 역량 진단을 위해 1,000자 분량의 논증적 글쓰기를 통한 사전 성취도 결과를 측정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매 학기 1주차에 진행한다. 글쓰기 수업에 대한 이해가 성립되지 않은 1주차에 진단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자신들이 가진 자원 내에서 비교적 기본적인 바탕의 차원에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논증적 글쓰기의 주제³⁾는 찬성/반대 입장에서 본인의 주장과 근거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논증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며 학생들에게 한 단락 분량으로 서술된 글쓰기 자료 및 주제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주어진 90분의 시간 동안 글쓰기 자료를 확인한 뒤, 포털사이트 이용이나 자료검색 등의 다른 도움 없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진단평가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실시하며, 학생들은 평가지에 수기로 글을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지는 교수자가 회수하여 내용과 구성, 표현 세 가지 범주⁴⁾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평가하고, 개별 피드백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12주	주제 토론5	
13주	글쓰기의 실제1: 학술적 글쓰기	
14주	글쓰기의 실제2: 학술적 글쓰기	
15주	글쓰기 튜터링	1:1 글쓰기 튜터링 시행 및 피드백

3) 논증적 글쓰기 문항의 주제는 안락사의 허용, 로봇세의 도입,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많은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주제로 선정되었다.

4)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민병곤 외(2022)가 개발한 평가 도구를 적용하였다. 해당 평가 도구의 글쓰기 평가 준거는 다음과 같다(민병곤 외, 2022: 54). 내용, 조직, 표현의 범주에는 각각 5개, 2개, 2개의 하위 준거가 포함되어 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글쓰기역량진단과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에 해당 평가도구를 적용하고, 이를 5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표 2] 글쓰기 평가 준거

범주	내용					조직		표현	
세부 기준	주장의 적절성과 명료성	근거의 적절성	근거의 충분성	접근 방법과 아이디어의 참신성	예상 반론 고려	글 전체 구성	문단 내 구성	정확한 문장과 적절한 어휘	맞춤법과 글쓰기 관습

주장의 명료성과 적절성, 근거의 적절성과 충분성, 접근 방법과 아이디어의 참신성, 예상 반론에 대한 고려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구성은 글 전체와 문단 내 구성을 평가하며, 표현은 정확한 문장과 어휘의 사용 및 맞춤법, 글쓰기 관습 등의 영역에서 평가한다.

교수자는 위의 진단 준거를 바탕으로 채점을 수행하고 피드백한 평가를 학생들에게 다시 제공한다. 평가지에서 학생들은 세부 척도에 대한 본인의 점수와 내용, 구성, 표현 영역에서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주도적으로 글쓰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수자는 학생들의 글쓰기 수업 사전 역량 평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수업에서 달성해야 할 세부 목표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글쓰기의 역량을 집중하여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글쓰기 역량 진단의 과정에서 학교는 교수자의 평가 결과를 수집 및 분석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글쓰기 역량 진단의 전체 분석 결과를 교양 필수 교과목 교수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수자들이 담당 분반의 학생 수준이 학교 전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교수자가 수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글쓰기 역량 진단의 전체 분석 결과를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와 분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진다. 부산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역량 진단의 특징은 수업 시간 내 학생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다는 점, 학생들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솔직한 글쓰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2) 글쓰기 튜터링

본 프로그램은 교양 필수 교과목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화 보충된 글쓰기 교육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1:1 글쓰기 튜터링을 진행한다. 매 학기 15주에 시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에게는 비교과 마일리지⁵⁾가 지급된다. 글쓰기 역량 진단이 1,000자 내외의 비교적 짧은 글쓰기였다면 글쓰기 튜터링은 학생들이 3,000자 내외의 논증적(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한다. 여기서 글쓰기 튜터링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글쓰기 행위가 전체 수업의 과정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한 학기 동안의 교과와 흐름 속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글쓰기 행위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글쓰기 역량 진단이 수기로 직접 시행되었던 것과 달리, 글쓰기 튜터링의 제출은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된다. 또한 글쓰기 역량 진단이 공통된 주제를 제시하고 시행되었던 것과 달리 글쓰기 튜터링의 논증적 글쓰기 주제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와 참여 학생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되는데 이는 분반에 따라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글쓰기 역량 진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수자는 내용-구성-표현 세 가지 범주와 9가지 세부 준거에 따라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평가하고, 개별 피드백을 수행한다. 개별 피드백은 글쓰기 역량 진단에서보다 심화하여 단락과 문장, 맞춤법 등에 꼼꼼한 첨삭이 추가된다.⁵⁾ 작성된 피드백은 다시 학생들에게 전달되며 학생들은 1:1 개별 심화 피드백을 통해 본인의 글쓰기 역량 향상 정도 및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글쓰기 역량 진단과 연계되는 튜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기동안 자신의 글쓰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의 글

5) 이와 같이 글쓰기 역량을 진단하고 개별 피드백을 수행하는 것은 학습자의 글쓰기 기초역량과 더불어 학술적, 그리고 비평적 글쓰기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내용과 구성적 측면에서는 글의 논리성과 적절성에 대해 깊이 있는 평가가 가능하며, 표현적 측면에서는 맞춤법, 문장 쓰기, 어휘 등의 기초 역량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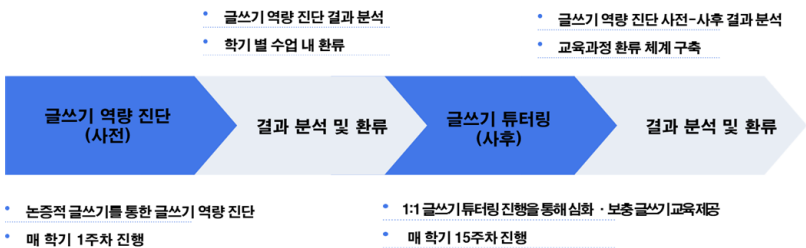
쓰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교수자는 글쓰기 튜터링과 함께 1주차에 진행했던 글쓰기 역량 진단에서의 학생들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학기별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성취를 측정할 수 있다. 교수자는 역량 진단과 글쓰기 튜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한 학기 수업을 점검하고, 다음 학기 수업을 구상할 수 있다. 특히 세부 평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측정하고, 성취가 없거나 낮은 부분에서 교수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한 글쓰기 튜터링의 전체 평가 결과, 즉 사후 진단 결과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교수자가 담당한 분반 학생들의 수준별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산대학교 글쓰기 튜터링의 추가적인 특징은 「열린 사고와 표현」교과목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해당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교수자로부터 1:1 튜터링을 받을 수 있다.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이 앞서 진행된 글쓰기 역량 진단과 연결되어 사전-사후 성취도가 측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회성 첨삭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 초 자신의 역량 진단을 위한 글쓰기 작업과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징을 가진다.

2) 글쓰기 프로그램 사전-사후 결과 분석

부산대학교는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진단하고, 사전-사후 성취도 분석, 결과 환류를 위하여 글쓰기 역량 진단 및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 기간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2023학년도 2학기(5개월)이며, 글쓰기 프로그램의 시행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글쓰기 역량 진단 및 튜터링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글쓰기 역량 진단 평가 및 글쓰기 튜터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열린 사고와 표현」 수강생으로 학기별로 약 1,000명 ~ 1,600명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열린 사고와 표현」수강생 1,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학기 글쓰기역량진단은 전체 수강생의 66.6%가 참여하였으며,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에는 전체 수강생의 93.7%가 참여하였다. 평가와 튜터링은 교양필수 수업에서 진행되므로 전공이 상이한 교내 전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지만 학년으로 구분하자면 대부분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되고 있다. 글쓰기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 수와 전공계열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2023-2학기 사전- 사후 참여자

구분	글쓰기 역량 진단(사전)	글쓰기 튜터링(사후)
경영대학	156	222
경제통상대학	168	243
공과대학	9	45
사범대학	2	2
사회과학대학	188	245
생명자원과학대학	162	241
생활과학대학	84	78
약학대학	31	53
예술대학	9	11
인문대학	223	320

자연과학대학	17	17
정보의생명공학대학	2	2
총 참여자 수	1,051	1,479

동일한 학기 내 사전-사후 참여자 수의 차이는 글쓰기 역량 진단이 매 학기 첫 주에 수기로 진행된다는 점과, 학기 시작 시의 인원이 학기 중 이탈하거나 수강정정을 하는 사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기 초 시행되는 글쓰기역량진단의 경우, 학생들의 수강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 글쓰기 튜터링에서 작성하는 학술적(논증적) 글쓰기는 과제로 평가되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학생에게 비교과 마일리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글쓰기 역량 진단은 수업의 과정에서 진행되어 그 결과가 학생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교과 마일리지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글쓰기 역량 진단과 글쓰기 튜터링의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총체적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⁶⁾ 가지 준거와 9가지 세부 척도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분류별, 진단준거별 분석 결과, 평균 점수는 [표 4]와 같다.

[표 4] 글쓰기 척도별 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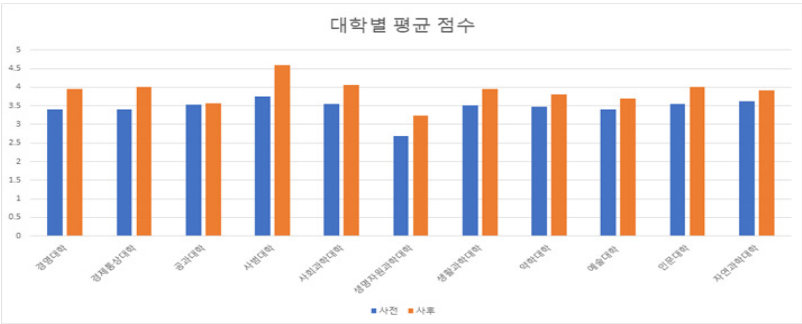
학기	분류	진단준거	분류별		진단 준거별		전후 차이
			사전	사후	사전	사후	
2023-2학기	내용	주장의 적절성과 명료성	3.33	3.89	3.79	4.13	▲0.34
		근거의 적절성	3.33	3.89	2.84	3.60	▲0.76

6) 조남진(2019)에 따르면, 글쓰기 역량 진단의 채점 시, 세부 평가 항목 없이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총체적 평가는 개괄적 인상 평가에 가깝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연구팀은 총체적 평가와 항목별 평가를 모두 진행해 본 결과, 이를 바탕으로 볼 때도 같은 평가대상 글쓰기에 대한 동일한 평가자의 평가는 총체적 인상과 항목별 평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2023 -2학기	내용	근거의 충분성	3.33	3.89	3.23	3.87	▲0.64
		접근 방법과 아이디어의 참신성	3.33	3.89	3.16	3.81	▲0.65
		예상 반론 고려	3.33	3.89	3.74	4.04	▲0.30
	구성	글 전체 구성	3.32	3.83	3.37	3.90	▲0.53
		문단 내 구성	3.32	3.83	3.28	3.77	▲0.49
	표현	정확한 문장과 적절한 어휘	3.63	3.82	3.63	3.82	▲0.19
		맞춤법과 글쓰기 관습	3.63	3.82	3.63	3.83	▲0.20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준거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내용과 구성, 표현 범주에서 모두 학생들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세부 진단 준거에서 ‘적절한 문장과 어휘 사용’과 ‘맞춤법과 글쓰기 관습’ 항목에서 낮은 성취도를, ‘근거의 적절성’, ‘접근 방법과 아이디어의 참신성’, ‘근거의 충분성’ 항목에서 높은 성취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성취도는 참여 대학별 평균 점수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 대학별 평균점수는 [그림 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모든 대학의 학생들에게서 전반적인 글쓰기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들의 역량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어서 정보의생명대학, 경제통상대학 학생들의 역량 향상 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2023-2학기 글쓰기 역량 대학별 평균 점수

다만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내용과 구성 범주에서보다 표현 범주에서의 역량 향상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인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범주별 역량의 사전-사후 진단 결과, 내용(3.51▶4.04), 구성(3.42▶3.99), 표현(3.81▶3.93) 으로 역량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내용과 구성에서 0.5 이상 역량이 향상된 것에 반해 표현은 0.12 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열린사고와 표현> 수업 과정에서는 글쓰기의 맞춤법과 어휘, 문장쓰기에 대한 글쓰기 기초교육보다는 학술적, 비평적 글쓰기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 결과 분석

1) 피드백 사례 분석

여기서는 글쓰기 역량 진단과 글쓰기 튜터링을 실시한 대상 학생들에 대해 각 교수자들이 피드백을 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은 대학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훈련을 받기 전 단계로, 표준화되고 공통된 교육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표현과 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다소간 개인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내용, 구성, 표현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피드백을 교수자들 간에 상호 공유하면서도 본고의 피드백 사례에서는 각 담당 교수자들이 대표적이고 여겨지는 피드백의 예시들을 중심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표 5] 글쓰기 역량 진단 피드백 사례

교수자	학생	구분	피드백 사례
A	D	내용	· 블라인드 채용을 옹호하는 가운데, 블라인드제의 단점에 대해 논의하는 글의 분량이 너무 많아, 글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
		구성	· 본문에서 문단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표현	·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장이 나열되어 있고, 대명사 ‘나’의 사용이 너무 많이 제시되어 있다.
	E	내용	·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같은 연령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 근거는 블라인드 채용을 옹호하는 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구성	· 서론-본론-결론이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표현	· 띄어쓰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어와 서술어가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입학 후에도 좋은 학점을 받는 사람이라면 학력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학 후에도 좋은 학점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로 교정하는 것이 좋다.
	F	내용	·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부는 수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하지 않은 채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구성	· 찬성과 반대를 모두 긍정하는 양시론적 주장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단의 구성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하는 근거도 있고, 부정하는 근거도 있다.
		표현	· ‘허나(하지만)’ 등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문어체로 쓰는 습관이 필요하다.
B	G	내용	· 몇 가지 어휘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휘로 선택할 경우 문장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구성	· 문단의 단락 구분을 4-5개 정도로 하여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면 좋습니다.
		표현	· ‘영역을 맞대고 있다’와 같은 부분은 내용상 ‘영역이 겹쳐 있다’거나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등으로 표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과 어문규범은 바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후 좋은 글들을 많이 읽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H	내용	· 몇 가지 어휘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휘로 선택할 경우 문장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구성	· 문단의 단락 구분을 4-5개 정도로 하여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면 좋습니다.
		표현	· ‘영역을 맞대고 있다’와 같은 부분은 내용상 ‘영역이 겹쳐 있다’거나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등으로 표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과 어문규범은 바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후 좋은 글들을 많이 읽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B	I	내용	·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신의 주장도 분명하게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단락 정도 추가해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락을 구분하면 의미가 더욱 분명히 나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성	· 글의 서술 문제가 논증적 글쓰기에 적절하며 문장 쓰기와 어휘의 활용 역시 훌륭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특히 다른 입장에 대한 고려를 깊이 있게 잘 다루어 자신의 글에 이어져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대개의 논증적 글쓰기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최소 두 가지 이상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단락 나누기와 주장을 두 가지 이상 갖추어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구조를 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 개념어를 글에서 다시 서술할 때는 논제에서 제시된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다소 긴 문장은 짧게 끊으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C	J	내용	· “회생 가능성 무시, 의료 기술 발전 저해”, 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기술 발전 저해’는 부적절한 근거입니다. 반론의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성	· 글의 구성에서 조력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 또는 고려가 없습니다. 반론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다른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일반적인 글이 되지 않습니다.
		표현	· 영성한 문장이 제법 있습니다. 가령, “화자에게의 연명치료”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글을 쓰고 나면 반드시 되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표현력은 교양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K	내용	· ‘자기 결정권’이란 말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로부터 그 결정을 의사가 존중해야 할까요? 즉, 의사는 왜 환자의 죽음을 도와야 할까요? 의사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나요? 그리고 불치병에 걸리면 그것은 무의미한 생명인가요? 제시된 근거는 불충분한 근거들입니다.
		구성	· 서론을 써야 합니다. 서론은 글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곳이고, 그 문제의식이 생각의 깊이를 보여 줍니다.
		표현	· 문단 구분은 생각의 마디를 나타냅니다. 주제나 화제가 달라지는 곳에서는 문단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단을 시작할 때는 들여쓰기를 하여 문단을 표시합니다.
	L	내용	· “본인의 삶 또는 죽음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라는 논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는 말에서 보듯이 조력 존엄사는 의사의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는 왜 환자의 존엄사 요청을 수용하여 조력해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C	L	구성	·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둘 이상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 근거를 폭넓게 설명하면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 또는 최소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
		표현	· 두 번째 단락은 너무 길니다. 단락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표 6] 글쓰기 튜터링 피드백 사례

교수자	학생	구분	글쓰기 튜터링 피드백 사례
A	M	내용	·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350자 내외 정도로, 근거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구성	· 서론에서 내용 전부를 포괄할 수 없는 정의를 사용하였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지만, 서론에 제시된 정의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한정되어 있다. ‘신상 공개 대상’에서 ‘강력 범죄자’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표현	· 길게 이어지는 문장을 자주 사용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또 각주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붙이고 있다.
	N	내용	· 근거가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근거에 대한 뒷받침 문장만이 표현되어 있다.
		구성	· 문단 내부에서 글이 전개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전개가 되어 있다. 가령, ‘모든 여성은 임신 중단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아래 ‘남성에게는 이 권리가 필요없다-여성에게 필요하다-국가는 그동안 이 권리를 외면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보다 효과적인 서술을 위해서는 필요없는 내용을 지우고, ‘국가는 그 동안 이 권리를 외면했지만, 여성에게는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표현	· 문장의 주요 부분이 빠져 있어 흐름을 이해하기 힘들다. ‘임신 중단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낙태죄를 방패 삼아 외면해오던 국가는 여성들에 대해 함께 해 주어야 한다’에서는 목적어가 빠져 있다.
	O	내용	· 근거 부분에서 첫 번째 근거가 250자 정도로 과도하게 짧다. 조금 더 근거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구성	· 문단 간 배열이 논리적이지 못하다. 가령 ‘필자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어지는 내용은 반대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문장이 ‘필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찬성 측의 의견을 살펴 보겠다’는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A	O	표현	· 수식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 어느 것을 수식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간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던 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있다’에서 ‘-의 -의’, ‘-다는 것’ 등의 수식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들이 한 문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면 문장의 의미가 복잡하게 된다.
		내용	·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공장식 축산의 효율성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다른 입장에 대한 고려 부분도 잘 담아냈으며 일관된 관점으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B	P	구성	· 2단락에서 3단락으로 넘어가는 연결이 유기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단락간 연결이 자연스럽고 유기적입니다.
		표현	· 띄어쓰기와 오타자 교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에서의 인용자료는 주석으로 참고자료를 표기하면서 필요사항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책과 논문 인용에서 표기법을 통일하도록 합니다.
	Q	내용	· 미디어와 관련한 글을 읽고 ‘광고의 양면성’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주장을 깊이 있게 풀어썼습니다. ‘~~입장에서 글을 전개한다’는 방향보다는 글 자체를 내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의 논제배경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글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완성물이 되도록 서술해보도록 합니다
		구성	· 논리적 흐름을 위해서 본론과 1) 소제목 사이에 전체를 아우르는 한 단락 정도를 도입단락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	· 의미상 다소 겹치는 문장들이 보입니다. ‘거짓 광고의 불필요한 소비 촉진’인지 혹은 ‘거짓광고의 불필요한 소비 유발’인지 의미를 분명히 써줍니다. 단락별 시작은 들여쓰기를 하도록 합니다. 참고문헌 표기법에 맞춰서 모든 서지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며 온라인 자료는 검색일도 추가합니다.
	R	내용	· ‘현대사회에서 소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와 같이 단언적인 명제를 제시할 때는 앞뒤 뒷반침 문장들이 바탕이 되어주면 좋습니다. 물론 뒤에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명제처럼 되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	· 구성이 아주 치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용을 일관된 흐름으로 작성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표현	·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 ‘따라서’로 되어 있어 앞단락에 이어진다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2장의 시작을 바로 접속사로 하게 되면 어색합니다. 접속사를 빼고 바로 단락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주2는재인용 자료로 보입니다. 가능한한 원자료를 활용해보십시오. 한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는 품사를 통일시켜 쓰길 권장합니다.

C	S	내용	· 주장의 근거도 적절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접근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글인데, 사용을 마냥 거부할 수 있느냐, 사용을 허용하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과제 사용에서만 금지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들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얻게 될 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대학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결론에서 말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구성	· 문제 상황의 이해와 설명이 좋습니다. 특히 글의 구성과 전개는 아주 빼어나습니다. 대학 과제의 성격, 챗피티의 특징, 문제점 등으로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고, 그 순서에 따라 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표현	·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고, 글쓰기 관습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T	내용	· 제시된 근거는 적절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챗피티를 과제에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구성	· 문제 상황의 설명은 좋습니다. 그런데 글 전체 구성과 전개가 좋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과 2.4절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	· 문장 표현이 어색하고, 띄어쓰기, 인용 등 글쓰기 관습을 어긴 경우가 많습니다. “챗 지피티의 사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장처럼 엉성한 문장들이 많습니다. 각주 달기도 익혀야 합니다. 각주를 달 때는 인용한 곳을 표기해야 합니다.
	U	내용	· 근거의 적절성과 충분성, 접근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모두 고용허가제가 무엇이며,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채택유지하고 있는지 이해 또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구성	· 글 전체의 구성과 전개, 문단 구성 적절성은 비교적 좋습니다
		표현	· 글쓰기 관습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교수자별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경우 내용, 구성, 표현이라는 큰 항목들에서 충분히 학생들 본인이 자신의 글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과 개선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 글쓰기 진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글쓰기 역량 진단의 피드백 내용들과 사후 글쓰기 진단 및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글쓰기 튜터링에서의 피드백 내용들을 비교해보더라도 내용의 서술이 보다 정교하고 정밀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학술적 글쓰기로 교육받고 훈련된 결과

의 결과물이 대학에서의 수학을 위한 글쓰기로 더욱 깊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의해 활용되고 있음을 미루어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피드백은 위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본문 내 직접 첨삭을 통해 보다 자세히 지도가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들은 교수자들의 열정과 애정 어린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글쓰기 역량을 함양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보인다.

2)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글쓰기 튜터링이 모두 끝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는 6개 분반 총 170명이다. 만족도 조사는 글쓰기 역량진단 피드백과 글쓰기 튜터링 피드백을 경험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이 보완해야 할 점들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익명으로 실시된 이 설문의 각 항목들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보다 솔직하게 작성하였다. [표 7]은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한 설문 항목이다.

[표 7] 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번호	설문 항목
1	글쓰기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
2	글쓰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3	글쓰기 역량진단과 튜터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점
4	기타 의견

학생들의 글쓰기 전후 인지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konlpy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Okt를 이용하여 형태소 태깅을 하였다.⁷⁾ 그 후 각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용언(형용사, 동사)을 중심

7) konlpy를 사용하면 한글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이 가능하다. 파이썬에서 원하는 단어를 적절한 코딩을 사용하여 검출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어절은 총 7,285개이다.

으로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다음은 만족도 조사의 각 기준에서 검출된 형용사와 동사의 활용형을 기본 형으로 바꾸어 빈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⁸⁾ 이는 [표 8]과 같다.

[표 8] 만족도 조사 용언 분석 결과

설문 항목	1		2		3		4	
품사 빈도	형용사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동사
1	있다 (92)	하다 (179)	힘들다 (84)	하다 (209)	있다 (156)	하다 (164)	좋다 (11)	하다 (23)
2	어떠하다 (59)	쓰다 (177)	있다 (49)	쓰다 (84)	어떠하다 (64)	되다 (129)	있다 (9)	되다 (7)
3	어렵다 (30)	되다 (35)	어렵다 (34)	되다 (19)	좋다 (28)	쓰다 (91)	같다 (9)	쓰다 (5)
4	부족하다 (9)	알다 (39)	어떠하다 (32)	알다 (18)	매끄럽다 (11)	받다 (41)	많다 (5)	받다 (5)
5	막막하다 (8)	모르다 (22)	부족하다 (3)	모르다 (10)	적절하다 (8)	고치다 (21)	이렇다 (2)	알려주다 (3)

분석한 결과에서 학생들 인식의 추이를 알 수 있는 형용사는 ‘어떠하다’, ‘어렵다’, ‘부족하다’, ‘막막하다’, ‘힘들다’, ‘좋다’, ‘적절하다’ 등이 있다. 그리고 동사는 ‘모르다’가 있다. 설문 항목 1번과 2번을 보면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해 ‘어렵다’, ‘부족하다’, ‘막막하다’, ‘모르다’ 등의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으나, 설문 항목 3번과 4번을 보면 ‘좋다’, ‘매끄럽다’, ‘적절하다’ 등의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이중 ‘어떠하다’가 설문 항목 1-3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하다’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지 변

8) 이러한 분석은 글쓰기 전후 학생들의 인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만약 용언을 중심으로만 분석한다면, 제한된 범위로 인해 피드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러 언어에서 인식의 변화와 관련된 것은 동사와 형용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학생들의 인지를 계량화한 것이며 빈도는 괄호 안의 숫자로 표기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글쓰기에서 어려워하는 점을 대략적으로 알고 접근할 수 있다. 만약 질문을 더 세분화하고 명사 등 분석의 기준을 좀 더 늘린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⁹⁾ 만족도 조사에서 ‘어떠하다’는 관형형 ‘어떤’, 부사형 ‘어떻게’로 실현되며 이들은 ‘무엇이 어찌된 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문장의 주요 성분을 수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설문 항목에서 이들이 어떤 주요 성분(이하 피 수식어)을 수식하는지, 나아가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설문 항목 1에서의 ‘어떠하다’는 학생들이 갖고 있던 고민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낼 것이고 설문 항목 2에서의 ‘어떠하다’는 글을 쓰면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것이며 설문 항목 3에서의 ‘어떠하다’는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나타낼 것이다.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각 설문 항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밑줄 표시를 하였다.¹⁰⁾

[표 9] 만족도 조사 설문 내용 분석 결과

항목	분석결과	
1	어떤 + 피수식어	· 형식(3), 글(2), 문제(2), 문제점(1), 부분(1), <u>주제(1)</u> , 표현(1), 개요(1), 방식(1), 내용(1) …
	어떻게 + 피수식어	· 해야(7), 하면(5), 하는(1), <u>시작(5)</u> , 써야(4), 써(1), 글(3), 수정(2), 써야 하는지(1), 풀어(1), 전달(1), 잡을지(1), <u>짜야(1)</u> , 전개(1), 작성(1), 고쳐야(1), 논리(1), 마무리(1), 끝내야(1) …

9) ‘있다’의 경우 기준 모두에서 빈도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가능성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수 있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어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다’, ‘되다’, ‘않다’ 역시 결합되는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는 의미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쓰다’, ‘고치다’, ‘받다’, ‘알려주다’는 학생의 인식 변화와 무관한 행위라서 제외하였다.

10) [표 9]와 워드 클라우드에 있는 동사 ‘하다’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는 ‘어떻게’ 바로 뒤에 후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즉, 부사의 수식을 받아 하나의 독립된 동사로 기능하는 것이다. 물론 ‘하다’와 같이 통사적으로 독립된 동사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이때의 의미는 앞뒤 맥락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문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후처리를 하지 않았다.

1	학생 반응 예	· 글쓰기라고 하면 어떻게 글을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할 지 어떻게 글을 써야 가독성이 좋을지 고민했던 것 같다 ·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다
2	어떤 + 피수식어	· <u>순서(4)</u> , <u>문장(2)</u> , 의미(1), 단어(1), 내용(1) …
	어떻게 + 피수식어	· 해야(3), 하면(3), 해야 하는지(1), 써야 하는지(1), 써야(1), 쓸(1), 사용(1), 구성(1), 맥락(1), 수정(1), 해결(1), 시작(1), 높일(1), 풀어내야(1) …
3	학생 반응 예	· 쓰고 싶은 정보들을 어떤 순서로 나열하고 어떤 문장으로 쓸 것인지 어려웠다 · 글 주제와 목차를 설정하고 글을 쓰면 나중에 다시 다듬을 때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고민이라 힘들었다
	어떤 + 피수식어	· 부분(6), 문제점(3), 내용(2), 순서(1), 문제(1), 문장(1), 방향성(1), 논거(1), 방식(1), 어려움(1), 습관(1), 경우(1), 말(1), 단어(1), 형식(1), 흐름(1)
	어떻게 + 피수식어	· 하면(3), 해야(2), 써야 하는지(3), 써야(2) 써(1), 쓰는데(1), 구성(2), <u>고쳐(2)</u> , <u>고치(2)</u> 고치는(1), 개선(1), 수정(1), 깔끔하게(1), 논리(1), 도입(1), 진행(1), 잡는지(1) …
	학생 반응 예	· 글쓰기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튜터링을 통해 알 수 있어 도움을 받았다 · 나의 글쓰기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설문항목 별 각각의 피수식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3] 설문항목 1. 글쓰기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



[그림 4] 설문항목 2. 글쓰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그림 5] 설문항목 3. 글쓰기 역량진단과 튜터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점

설문 항목 1을 보면 학생들은 지엽적 수준이 아니라 큰 틀에서 어떻게 주제를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개요를 잡아야 할지, 글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항목 2를 보면 학생들은 문장과 단어의 배열, 내용 표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설문 항목 3에서는 글쓰기 역량 진단과 튜터링을 통해 글의 흐름이라든지 수정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설문 항목 4에서는 ‘어떠하다’라는 표현이 없고 ‘좋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으로 글쓰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좋

다’는 대부분 피드백을 받아서 좋았고, 더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다. 설문항목 4의 대표적인 학생 반응 사례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설문항목 4의 학생 반응 예

학생	기타 의견
X	· 글쓰기를 쓰는 단계에서도 약간의 첨삭/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Y	· 아무리 퇴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글을 자신이 퇴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글을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니 어떤 점을 놓쳤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Z	· 보고서나 논문을 쓸 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처럼 만족도 조사 결과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보건대 학생들은 피드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피드백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학생들의 현장 반응은 자신의 글에 대해서 과제물로 제출하고 추가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으나 「열린 사고와 표현」수업을 통한 글쓰기 역량 진단과 글쓰기 튜터링 피드백이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개인에 맞춤형으로 진행되면서도 또한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글쓰기 실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처럼 도움이 되는 글쓰기 역량 진단과 글쓰기 튜터링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몇 사항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안된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은 매주 2학점 2시수의 과목으로 15주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 할 시간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교수계획표의 교과진도를 보더라도 한정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여 대부분의 해당 교과목 교수자들은 수업 준비와 과제 채점 외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진단 피드백과 글쓰기 튜터링 피드백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발견되는 결과와 같이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위한 시간 확보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글쓰기 채점 전문 인력의 확보 혹은 AI를 활용한 대학 맞춤형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의 개발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논의 및 결론

대학은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양교육 과정에서 글쓰기 교과목 운영, 글쓰기 튜터링,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학 초기 글쓰기 역량 진단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글쓰기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개별 수준에 맞춘 글쓰기 교육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글쓰기 역량 진단과 튜터링 등 사전-사후 피드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글쓰기 역량 사전-사후 진단 및 피드백 사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은 내용과 구성, 표현의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학생들은 평소 글쓰기에서 겪던 어려움을 전체적인 글의 작성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글쓰기 유형에서 더 많은 글쓰기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초중등 교육에서와 달리 자신의 지적인 성장을 글쓰기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 글쓰기 교육은 일반적으로 읽기-생각하기-쓰기-고치기의 과정을 포괄한다. 이 과정들은 학생들의 이해와 성찰의 과정을 담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글쓰기 교육도 이들 하나하나의 과정에 깊숙히

들어가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교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글쓰기 교육은 곧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글쓰기 교육은 이런 점에서 많이 아쉽다. 부산대학교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교양필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글쓰기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글쓰기 프로그램이 교양필수 교과목인 「열린 사고와 표현」 강좌와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그런데 글쓰기 역량 진단을 시행하는 여타 대학들(서울대, 경북대, 부경대 등)이 신입생의 입학 시점에 전체 시행하는 것과 달리, 부산대학교는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역량 진단을 시행한다. 따라서 2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입학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글쓰기 역량이 진단된다. 또한 교과목 수강생 중 소수지만 일부 학생들은 2~4학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입생만을 위한 진단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글쓰기 역량 진단 및 피드백 프로그램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해당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학 교육과정 전체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글쓰기 역량 진단의 시기를 일치시키고,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이 해당 학기가 지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글쓰기 튜터링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피드백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것 역시 중대한 문제점이다. 앞서 만족도 조사 조사에서도 보았듯이 학생들은 피드백을 통해 지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더 많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은 해당 수업에서 학생들이 더욱 수준 높은 글쓰기 실력을

배양하고 향후 대학에서의 수학을 위한 글쓰기 훈련이 더욱 정밀하고 고도화될 수 있으려면 담당 교수자의 강좌 이외 추가적인 노력 및 개인적인 역량에 대부분 의존해야 한다는 데 있다. 교수자는 강의를 계획하고 꾸려나가면서 글쓰기 역량진단과 글쓰기 튜터링에 대한 시행과 피드백이라는 추가적인 강좌 수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개 교수자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와 학술 활동, 학생 지도와 학교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글쓰기 역량진단과 글쓰기 튜터링 실무자의 설명에 따르면 피드백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과 교수자 교육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글쓰기 튜터링의 경우 튜터링 평가지의 양식상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권장하기는 하나 교수자가 총평을 간단히 작성하는 것으로도 튜터링의 과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받아보게 되는 피드백의 수량과 구체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피드백 교수자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지원 및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교육은 학생들에게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것보다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준별 교육과 개인 글쓰기 지도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 글쓰기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비교과 프로그램 혹은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 분석 결과의 환류는 글쓰기 수업 내에서 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해당 학기의 수업에서 환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이 학기 수업 중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글쓰기 튜터링을 통한 개별 피드백 이후에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해당 결과에 대한

환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대학교의 글쓰기 역량 진단과 글쓰기 튜터링은 향후 발전의 여지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여타 대학들에서 ‘글쓰기 센터’의 형식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정규교과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글쓰기 지도를 받는 것에서 나아가 원할 때마다 자신의 글을 보다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부분에서 더욱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갈증처럼 학생들에게 작용하고 교수자들에게도 지속적인 부담이 됨은 분명하다. 대학이 향후 글로컬대학 사업과 지역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학내 구성원들이 더욱 즐겁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실을 튼튼히 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학령인구의 감소 등 보다 큰 이슈들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근본에 충실한 토대를 학생들의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에서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고민과 기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고혜원, 「대학 교양교육에서 자기성찰적 글쓰기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양학연구』 21권,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2, 319-346쪽.
- 곽미라, 「첨삭논평과 수정반영안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방안 연구-〈학업기초글쓰기〉 수업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와 표현』 15권 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2, 7-34쪽.
- 구자황, 「수정과 피드백이 글쓰기에서 동인(動因)이 되는 방식을 위한 탐구」, 『어문연구』 56권, 어문연구학회, 2008, 325-326쪽.
- 권현주·김유정, 「기초학력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첨삭 지도 방안」, 『문화와 융합』 44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233-247쪽.
- 김지윤·이현정·구자황, 「온라인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 개발 사례 및 개선점: 숙명여자대학교 온라인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중심으로」, 『교양학 연구』 15호,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7-48쪽.
- 김형성, 「국내외 글쓰기 피드백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 『작문연구』 57호, 한국작문학회, 2023, 103-138쪽.
- 민병곤·오예림·이성준·안서현·김광식·김명운·손제연·이주영·장성민, 「대학 신입생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제 개발 연구-서울대학교 신입생 글쓰기 평가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3권 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45-76쪽.
- 배혜진·전은경, 「대학 글쓰기 진단평가의 실제와 수업 적용 사례-비대면/대면 수업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권 5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1, 41-81쪽.
- 배혜진, 「글쓰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과 운영 및 피드백 방안-K대학의 글쓰기 교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 연구』 16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101-112쪽.
- 백애송·박일우, 「1:1 맞춤형 과정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 운영

- 방안 연구], 『리터러시 연구』 13권 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417-448쪽.
- 송명진, 「글쓰기 피드백의 효과와 방법 연구」, 『리터러시 연구』 14권 5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3, 43-64쪽.
- 안상원, 「학술적 글쓰기의 온라인 피드백 사례 연구: 2020년 1학기, 2021년 1학기 부산외국어대학교 [나를바꾸는글쓰기]를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 31권 31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153-179쪽.
- 원진숙,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 대학 글쓰기 교육 사례 연구-Google Docs를 활용한 글쓰기 워크숍 활동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7권 1호, 국어교육학회, 2022, 45-81쪽.
- 유옥순, 「영화 ‘원더풀 라이프’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질문 만들기 전략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47호, 동아인문학회, 2019, 83-117쪽.
- 윤호경·구자황·김승민·유상희, 「비교과 프로그램의 고쳐쓰기 활동을 통한 대학생 글쓰기 능력 신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챌린지 라이팅’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1권 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71-210쪽.
- 윤호경·구자황·김승민·유상희, 「비교과 프로그램의 고쳐쓰기 활동을 통한 대학생 글쓰기 능력 신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챌린지 라이팅’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27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71-210쪽.
- 이성용·김진호, 「컴퓨터를 활용한 읽기 교수가 지적장애학생의 일견 단어 읽기 기술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50권 4호, 한국특수교육학회, 2016, 111-137쪽.
- 이슬기, 「자연어 처리 기반 교수자의 온라인 글쓰기 피드백 양상 유형화 연구」, 『텍스트언어학』 54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23, 175-210쪽.
- 이윤빈,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대학생 학습자의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양교육연구』 15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113-128쪽.

- 이효숙, 「대학생의 글쓰기 기초학력진단평가의 기능과 진단평가지 개발」, 『리터러시 연구』 2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47-67쪽.
- 조규찬, 「대학 글쓰기 교과 과정으로서 논증적 글쓰기 교육 운영 방식과 개선 방안-〈대학글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519-532쪽.
- 조남민, 「대학생 글쓰기 기초능력 진단평가 방안 연구-레 분석을 통한 진단평가의 개선 방안 고찰-」, 『이화어문논집』 49권, 이화어문학회, 2018, 254-274쪽.
- 추선진, 「대학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교수 피드백과 ‘글쓰기 클리닉’을 중심으로」, 『후마니타스 포럼』 10권 1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회, 2024, 35-69쪽.
- Mustian, A. · Mazzotti, V. L. · Test, D. L., “Disseminating evidence-based practices in secondary transition”,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vol. 15, 2013, pp.197-204.
- N. Sommers · L. Saltz, “The Novics as Expert: Writing the Freshmen Year”,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 56, no. 1, 2004, pp.124-149.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 효과성 및 만족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글쓰기 역량 진단(사전) 및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사후)을 살펴보고, 진단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용과 구성, 표현의 측면에서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는 긍정적이었으며 지속적인 글쓰기 피드백을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 글쓰기 피드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일관된 가이드라인 제공과 진단 결과의 교육과정 환류 강화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글쓰기, 교양교육, 피드백, 역량, 튜터링

■ Abstract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with a University Writing Feedback Program

Park, Ko Woon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h, Hye Lim / Pusan National University

Lee, Sang Ryong / Pusan National University

Lee, Jeong Min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a university writing feedback program. Specifically, the research examines the writing competency diagnosis and writing tutoring program implemented by Pusan National University, analyzing the corresponding diagnostic results. The analysis reveal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writing skills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particularly in areas of content, composition, and expression. Furthermore, satisfaction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students perceive the writing feedback program positively and express a desire for ongoing writing support. Accordingly, it is anticipated that the university writing feedback program can achieve greater efficacy through continuous implementation, the provision of consistent guidelines, and an enhancement of curriculum feedback based on diagnostic outcomes.

Keyword • Writing, Liberal education, Feedback System, Competency, Tutoring

민간경비원 신임교육의 메타버스 적용방안 연구

유 재 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메타버스 활용 유사 사례 및 적용 방안
4. 결론

1. 서론

안전한 사회 유지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관심 있는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이지만, 경찰의 한계 극복과 효율적인 안전 서비스 제공은 민간경비 분야에서 제공하고 있다. 비록 계약 관계를 통해 민간경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주변만 살피더라도 민간경비를 통한 안전은 우리 생활에 더욱 촘촘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경비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주체는 민간경비원으로서 고객

*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부 조교수

에게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 산업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에게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은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신입교육을 받고 있다. 문제는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과목을 보면 실무에 적용 및 응용되어야 하는 내용이 매우 많은데,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실내라는 장소와 강사와 피교육생으로서의 지위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경비원 대부분은 신입교육 이수 후 현장에 바로 종사하기 때문에 교육 후 현장에서의 실무적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실무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강의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강의 위주의 교육으로는 실질적 대응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이 현재 관련 법규상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비업법상 교육훈련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메타버스를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또 다른 현실 공간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 시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방법은 결과적 측면에서 교육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활동의 대체적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COVID-19 상황 종료 후 관심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 소방 및 군에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방법은 민간경비원 신입 교육에도 적용 및 실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경비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 유형과 이상 범죄 증가에 대해 공경비 한계 극복과 사회와 시민의 안전보호가 가능하다.¹⁾

공경비 분야인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간경

1) 박성수, 『민간경비론』, 윤성사, 2023, 3쪽.

비 분야에서는 예상 또는 예상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범죄 발생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입경비원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제 신입교육을 메타버스 프로그램 또는 플랫폼을 개발 후 관찰 및 결과를 제시되어야겠지만, 그 전에 민간경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살펴 보는 것 더욱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플랫폼 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와 교육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록 간접적이지만 메타버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근거로서 인용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 연구를 통해 더욱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신입경비원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의 신입교육 훈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실무에서도 응용이 가능하고 빠른 적응력을 위해 메타버스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 이하 메타버스)는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우주(Verse)라는 신조어로서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이 융합된 3차원의 가상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1992년 Neal Stephenson의 ‘Snow Crash’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년 동안 Second Life와 같은 가상의 소셜 공간과 Pokemon-GO와 같은 AR 게임 등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다. 비록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적

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기존에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제공되던 것이 최근에는 사용자의 실생활에 적합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술이 제공 및 개발되는 등 현실 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²⁾

미국 비영리 기술연구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Metaverse Roadmap, MVR)에서는 메타버스의 범주에 대해 구현공간과 정보형태에 따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세계(Virtual Worlds), 라이프로그킹(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³⁾

증강현실은 가상의 물체를 현실의 환경정보에 제공하는 상호작용으로서 현재 활용 분야는 차량용 HUD이다.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한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와 같이 360도 시점 변환과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몰입형 시스템과 PC를 기반으로 3차원 증강 세계를 제공하는 비몰입형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⁴⁾ 라이프로그킹은 평상시 사람과 사물의 정보 등을 저장, 공유하는 기술로서 웨어러블, 블랙박스가 그 예이며, 거울세계는 외부 환경정보를 현실에 모방한 가상공간으로서 구글의 지도기반 서비스를 들 수 있다.⁵⁾⁶⁾

2) 한송이·김태종, 「메타버스 뉴스 빅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2권 7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10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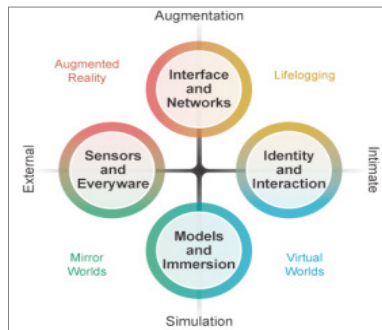
3) 황인호,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이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역량의 조절 효과」,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4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a, 643쪽.

4) 나해찬·이유진·김수영·김운상,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에 관한 연구: 사례 분석과 제언」,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5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830쪽.

5) 한송이·노양진,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대학 교수자 인식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2권 11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1796쪽.

6) 윤승배,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LMS 연동 체험형 메타버스 플랫폼 연구」, 한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8쪽.

이러한 메타버스 범주는 [그림 1]과 같이 2개의 핵심축을 기준으로 위치한다. 가로축은 세로축은 현실과 기술 관계인 내적(Intimate)요소와 외적(External)요소 축으로 세로축은 기술과 이용자 관계로서 증강기술과 시뮬레이션(Simulation)과 구성되어 있다. 내적요소는 이용자의 행위와 관련된 기술이며 외적요소는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기술이다. 증강 요소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기술의 접목, 시뮬레이션은 장소 제공 기술을 의미한다.⁷⁾



[그림 1] 메타버스 범주⁸⁾

메타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치(Devices)로서 VR과 AR 장비 및 출력장비(Display), 메타버스 실행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과 운영 체제(Platform), 메타버스 상호 연결을 위한 통신망(Network)이라는 4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한데, 사용자 접근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메타버스의 혜택이라는 서비스 가치 측면에서는 상호작용성, 동시 접속성,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이 있으며,⁹⁾ 일반적 특성으

7) 유승엽, 「기능에 따른 메타버스 플랫폼 비교분석: 산업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20권 4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2, 619쪽.

8) <https://www.w3.org/2008/WebVideo/Annotations/wiki/images/1/19/MetaverseRoadmapOverview.pdf>, 2024.06.05.

9) 정재현·김건하, 「메타버스 특성과 가치 인식이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마케팅저널』 15권 1호, 서비스마케팅학회, 2022, 107쪽.

로 사용자 경험적 측면에서 지속성, 개방성, 몰입성, 기동성, 상호작용성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⁰⁾ 메타버스의 특성에 대해 공통 영역이 있는 반면 연구자의 접근 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민간 경비 영역에 메타버스를 적용할 경우의 특성으로 지속성, 실시간성, 동시성, 무제한적 수용성, 경제성, 확장성, 상호 운영성, 대중성을 들 수 있다.¹¹⁾ 이러한 메타버스의 특성을 볼 때 민간경비원이 담당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의 대비를 위해서는 현실에 가장 적합한 훈련 및 교육에 대해 메타버스가 대안이 될 것이다.

2) 민간경비원 신입 교육

민간경비란 다양한 위험과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경비 서비스를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¹²⁾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의 목적은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정립된 가치관을 통해 원활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 훈련이다. 민간경비원의 직무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관행적인 업무보다 각종 사건·사고의 가능성과 실제 다양한 민원 업무 등이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필수적이다.¹³⁾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법」 제2조에서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하며, 일반경비원은

10) <https://www.nokia.com/networks/insights/metaverse/simple-guide-to-immersive-future>, 2023.10.05.

11) Ball, M., "The Metaverse: What it is, where to find it, and who will build it", 2020, Retrieved from <https://www.matthewball.vc/all/themetaverse>, 2024.06.14.

12) 유재두, 「4차 산업혁명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권 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110쪽.

13) 박동균·배철효, 「일반경비원 신입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분석과 함의-D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권,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124쪽.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를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경비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호송경비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신변보호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며,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¹⁴⁾

민간경비의 특성은 신분상 공경비와 사경비의 구분과 법률 집행을 제외한다면 매우 유사하다. 민간경비가 담당하는 분야에서도 사건과 사고가 시간과 대상 그리고 장소 등을 예측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민과의 접촉이 많은 민간경비의 활동과 경찰의 제복과 순찰 등은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민간경비원의 위험성과 돌발성은 노출되어 있다. 공경비와 민간경비 모두 가장 강조되는 역할과 분야는 범죄예방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활동을 들 수 있다.

민간경비원 중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 시간은 24시간이며 과목은 [표

14) 민간경비원 교육에는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신입교육의 경우 경비 유형에 따라 일반 분야 교육과 특수 분야 교육으로 과목과 시간에 차이가 있다. 일반분야의 경우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분야이다. 신입경비 교육 후 직장 고용 후 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이 있다. 민간경비원 신입 경비 교육의 경우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근무에 필요한 공통내용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유형 중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에 한정한다. 그 이유는 민간경비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교육에 대해 메타버스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향후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가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적 효과성이 있는 경우 직무교육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1]과 같이 4시간의 이론교육과 19시간의 실무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론교육 과목은 「경비업법」등 관계법령과 범죄예방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교육 과목은 시설경비실무, 호송경비실무, 신변보호실무, 기계경비실무, 사고예방대책, 체포·호신술, 장비사용법, 직업윤리 및 서비스로 편제되어 있다.¹⁵⁾ 이론교육 과목의 경우 법률과 관련 이론 및 사례와 판례 등 강의를 통한 교육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실무교육 과목의 경우 실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교재와 관련 사례 등 강의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에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 등을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¹⁶⁾

「경비업법」 제13조에서는 경비원의 교육에 대해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을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되어 있다.¹⁷⁾

[표 1]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과목시간

구분	과목	시간
이론교육	「경비업법」등 관계 법령	2
	범죄예방론	

15)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과목 중 시설경비의 경우 2023년까지 2시간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4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발생한 시설물에서의 살인 사건, 방화 사건 등으로 인해 시설경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6) 민간경비원 신입교재와 강의에서 사례 등 실무에 적합한 강의가 진행되어도, 실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과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 상황 대비 그리고 수감 보다는 직적적 행동을 통한 신입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17) 기존 민간경비원 교육장소의 지속적 활용과 최신 디지털 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제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용이한 접속과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다면 메타버스의 활용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실무교육	시설경비 실무	2
	호송경비 실무	4
	신변보호 실무	2
	기계경비 실무	2
	사고 예방 대책	2
	체포·호신술	3
	장비 사용법	3
	직업윤리 및 서비스	2
기타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계		24

3) 선행 연구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메타버스 프로그램 및 플랫폼 등을 민간경비원에게 적용하여 결과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특정 장소 한정 등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민간 경비원 신입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타버스의 유형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에게 능동적인 학습, 구성주의 기반 학습에 참여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의 학습 태도, 몰입, 만족도와 같은 학습의 정의적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한편, 메타버스를 통한 미술 교육이 학습몰입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은 참여자의 의사소통과 교육만을 위한 플랫폼 제작 및 제공과 확정성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동시접속 및 공간의 최적

18) Jang, R. Y. · Bae, J. H. · Lee, H. R. · Bak, S. H.,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terworking system for device interaction in a virtual reality setting”,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2, 2019, p.293.

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¹⁹⁾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은 장소, 시간, 인원 등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 제한적 영역까지 학습 제공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는데, 그 전제조건은 교육용 기기의 보급과 콘텐츠 개발이다.²⁰⁾ 또한 메타버스는 전문분야에 대해 시간의 한계를 극복 차원에서 교육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²¹⁾ AR/VR을 이용한 교육은 능동적 학습 몰입으로 일반 아날로그 대비 약 2.7배 이상의 학습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²²⁾ 메타버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모든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메타버스의 교육 효과는 긍정적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장비의 보급,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 상호작용성 등 메타버스와 현실의 차이점을 최소화가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이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몰입을 통한 효과를 위해서는 피교육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및 디지털 기술의 상당성과 편의성이 필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²³⁾²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상호 유연성을 통해 이질적인 모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²⁵⁾ 메타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의 플랫폼은 참여자의 조작 편리성과 다른

19) 이경아,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미술교육」, 『미술교육논총』 35권 3호, 한국미술교육학회, 2021, 344쪽.

20) 한송이·노양진, 앞의 논문, 2021, 1803쪽.

21) Jang, R. Y. · Bae, J. H. · Lee, H. R. · Bak, S. H., Ibid, 2019, p.293.

22) 이지혜, 「가상현실 기반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권 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9, 363쪽.

23) 황인호, 「메타버스의 사회적 기능과 원격실재감이 메타버스 참여 주체의 신뢰를 통해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7권 3호, 한국산업정보학회, 2022, 41쪽.

24) 이지훈,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게임 기획 요소가 게임 유저 간 공감 형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6권 2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2b, 235쪽.

25) 김평일, 「임장성(Telepresence)과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을 교육적 비계로 활용하는 메타버스 러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4권 6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1, 78쪽.

아바타와의 상호작용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이 제시되고 있다.²⁶⁾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을 위해서는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는 대부분 제페토, 이프랜드로서 교육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입경비원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이다.²⁷⁾

이외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이 능동적 참여로 학습몰입을 하며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이 교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제시되고 있다.²⁸⁾ 비록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 방법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방식에 메타버스를 통해 처음 경험한 교육생들 90% 이상이 긍정적 평가와 흥미도 그리고 행동적 목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³⁰⁾³¹⁾

3. 메타버스 활용 유사 사례 및 적용 방안

1) 유사 사례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및 훈련은 시간과 장소적 한계가 없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먼저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 이용자가 메타버스를 탐색하며 자전

26) 임태형·양은별·류지현, 「메타버스 기반 전시 박람회에서 관람객의 만족도와 추천 의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3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476쪽.

27) 김준호, 「온라인 몰입형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Metaversity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12쪽.

28) 서동기,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훈련이 교육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109쪽.

29) 이명숙, 「해커톤 수업사례를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교육적 활용방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4권 6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1, 66쪽.

30) 이시훈·박범수·손정명·한정혜, 「초등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맵 제작 수업」,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7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1210쪽.

31) 황인호, 앞의 논문, 2022a, 650쪽.

거 안전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전시, 교육, 훈련, 게임 체험 등의 복합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 및 주행 교육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등 코스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³²⁾ 메타버스 소방 훈련 사례도 시행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훈련은 현실처럼 가상으로 구현된 그래픽 상황을 확장현실(XR)장비를 통해 재난 상황의 체험,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 방법의 체험³³⁾이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소방관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훈련 상황 조성 후 VR기기를 통해 가상현실에서 소방훈련을 하는 방식³⁴⁾도 대표적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및 훈련이다.



[그림 1] 메타버스 범주³⁵⁾

32)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0107>, 2023.10.30.

33)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2112310101488311&rs=/synapFile/202311/&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2112310101488311%26rs%3D%2FsynapFile%2F202311%2F&synapMessage=%EC%A0%95%EC%83%81, 2023.10.01.

34) 이 훈련은 화재 공간에서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훈련도 실제 상황과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도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훈련은 위험도가 높은 교육과 훈련 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실제 상황처럼 실감 있는 재난상황에서 안전한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 소방 훈련 시뮬레이터’, 화학물질안전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화학사고 전문과정’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훈련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지난해 개청한 신청사에는 VR·AR 화학체험 시설을 구축은 대표적 사례이다.· “[창사기획-리얼메타버스④] ‘XR’로 응급처치 배우고 비행 훈련한다”, <뉴시스>, 2022.11.09.

35) 선연수, “ETRI, ‘실감소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테크월드>, 2020.09.24.

한편 주요 외국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요 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3]에서 첫 번째는 미국 플로리다주 Tequesta Police Department의 ‘Emergency Operations Center’에서 일상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가상현실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³⁶⁾ 가상의 시나리오에는 사격 연습, 교통 통제, 인질 상황, 폭력 사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의 가운데는 스위스의 경우 취리히시 경찰은 인질 상황에 대한 훈련을 세 번째 그림은 독일의 경우로서 독일 경찰이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훈련 장면이다. 이외에도 군에서의 교육 훈련으로 미 육군 보병훈련시스템(DSTS : Dismounted Soldier Training System), 미 육군 가상 현실형 VBS(Virtual Battle Space)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미 해병대 증강몰입형 훈련(AITT : Augmented Immersive Team Training), 영국 육군 가상 현실형 UBVT(Unit Based Virtual Training) 등은 대표 사례이다.³⁷⁾



[그림 3] 주요 외국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훈련

36) 경찰 훈련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Apex Officer회사에서는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적 효과가 194%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https://www.apexofficer.com/resources/private-security>, 2024.06.12.

37) 설현주·전기석,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활용한 군 교육훈련 사례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22권 5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22, 109-110쪽.

38) 메타버스 교육 시스템은 미국의 InVeris Training Solutions사에서 개발하였고 Tequesta 경찰서의 비용은 약 \$62,500이다.: <https://mixed-news.com/en/us-police-officers-practice-dangerous-operations-in-vr/>, 2024.06.11.

이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한 훈련이 외국의 경우 상당히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훈련 메타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현실 체험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준비 요소가 필요한 분야인 경찰의 테러 훈련, 소방관 훈련, 화학사고 대응은 메타버스의 활용성이 높으며 비용의 최소화와 시간과 장소의 제한점도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대부분 프로그램이 안전에 대한 예상된 시나리오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경비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것을 메타버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거나 체험하기에는 곤란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경비 실무에 필요한 교육이며 메타버스의 콘텐츠 확장은 무한정이라는 점에서 시나리오 등의 보완은 상시 가능하다는 점은 메타버스 활용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 적용 방안

메타버스를 활용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법률적 방안이다.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법률상 경찰청장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장소에 대해 교육 내용 또는 과정 특성상 일부 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장소에서의 이수 가능한 규정의 개정 또는 제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메타버스의 교육에 대해 피교육자가 선택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메타버스가 모든 피교육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장담 할 수 없다. 또한 민간경비원 신입 교육의 메타버스를 활용할 경우 신체 및 정신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따라서 일반 강의실에서의 교육과 메타버스의 교육에 대해 피교육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법률이 필요하다.

39) <https://mixed.de/vr-training-so-uebt-die-schweizer-polizei-fuer-den-ernstfall/>, 2024.06.11.

40) <https://mixed.de/wie-deutsche-polizisten-einen-tatort-in-virtual-reality-untersuchen/>, 2024.06.11.

둘째, 메타버스 개발 등과 관련된 비용이다. 메타버스를 교육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와 함께 플랫폼을 실현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기에는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국가 안전을 위한 군과 경찰은 국가가 교육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경비는 사경비(Private Security)이다보니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에 대한 교육적 투자 비용에서 부담이 된다. 비용적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장비와 장소 제공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경비 업무 영역 중 특수경비의 경우 ‘사격’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민간경비원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실제상황과 유사한 교육은 그 효과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교육과 훈련 대비 메타버스는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에 기여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과목 중 실무교육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체포·호신술, 장비 사용법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 가능하다. 민간경비 주요 역할 중 범죄와 화재 예방 및 실제 사건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초기 진압이다. [그림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기 다른 케이스에 적용하여 실제 가능한 사례에 대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메타버스 특성에 따른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원의 신입교육을 메타버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VR 교육을 위한 헤드셋과 AR교육을 위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운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과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업무부터 실제 발생 가능한 사건과 사고유형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이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등 메타버스의 구성요소와 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메타버스의 적용 분야와 발전은 한계라는 단어를 무색할 정도로 널리 활용 가능하다. 관리자 측면에서는 단일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관리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편의성,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의 무한정 확장성을 사용자 측면에서는 접속의 편리성 다양한 콘텐츠와 능동적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성 등이 있다. 또한 VR HMD를 이용하면 몰입감이 증가하겠지만 특별한 VR 장비가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며, 개인 디바이스를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을 위해 메타버스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간경비원은 최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이미 발생했던 사례 내지 발생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경비원의 신입교육은 일반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가장 실무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을 위해서는 법률적 제·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 메타버스 개발 등 관련 비용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사건·사고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의 안전한 사회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민간경비 산업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해지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과 진압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민강경비의 역할이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과 사고 등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고 있기에 더욱 현실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 교육 과목의 경우 실제 발생한 사례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한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활용한다면 실무 적용 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상 현실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적용을 위한 방안 이지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 연구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서 한계가 있지만 관계 법령과 실제 민간경비 영역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메타버스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실제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의 높은 몰입도는 교육적 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COVID-19로 인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그 이전으로 조금씩 회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는 비대면 교육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경험하였다. 비록 메타버스의 적용 가능성과 실현성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휴대폰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적 생활로 보편적으로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메타버스의 확장성 등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적용을 통해 실질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에 한정된 부분도 한계이지만,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민간경비 분야에 처음 근무를 시작하는데 적합한 교육 체계에 공통적인 내용의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 필요성과 효과성을 위한 방안으로 메타버스 활용 방안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접근을 하였다. 민간경비원이 각 분야별 근무를 하면서 월 2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진단한 후 민간경비 분야별 직무와 관련된 교육에 적합한 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메타버스 기반 민간경비원 교육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적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김준호, 「온라인 몰입형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Metaversity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김평원, 「임장성(Telepresence)과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교육적 비계로 활용하는 메타버스 러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4권 6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1, 69-80쪽.
- 나해찬·이유진·김수영·김윤상,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에 관한 연구: 사례 분석과 제언」,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5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827-836쪽.
- 박동균·배철효, 「일반경비원 신입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분석과 함의-D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권,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117-148쪽.
- 박성수, 『민간경비론』, 윤성사, 2023.
- 서동기,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훈련이 교육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설현주·전기석,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활용한 군 교육훈련 사례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22권 5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22, 107-113쪽.
- 유승엽, 「기능에 따른 메타버스 플랫폼 비교분석: 산업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20권 4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2, 617-625쪽.
- 유재두, 「4차 산업혁명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권 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105-124쪽.
- 윤승배,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LMS 연동 체험형 메타버스 플랫폼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이경아, 「메타버스 시대의 미술교육」, 『미술교육논총』 35권 3호, 한국미술교육학회, 2021, 324-348쪽.
- 이명숙, 「해커톤 수업사례를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교육적 활용방

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4권 6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1, 61-68쪽.

이시훈·박범수·손정명·한정혜, 「초등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맵 제작 수업」,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7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1205-1212쪽.

이지혜, 「가상현실 기반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권 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9, 357-366쪽.

이지훈,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게임 기획 요소가 게임 유저 간 공감 형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16권 2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2, 227-238쪽.

임태형·양은별·류지현, 「메타버스 기반 전시 박람회에서 참관객의 만족도와 추천 의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3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469-479쪽.

정재현·김건하, 「메타버스 특성과 가치 인식이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마케팅저널』 15권 1호, 서비스마케팅학회, 2022, 99-115쪽.

한송아·김태종, 「메타버스 뉴스 빅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2권 7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1091-1099쪽.

한송아·노양진,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대학 교수자 인식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2권 11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1793-1806쪽.

황인호, 「메타버스 공동체 의식이 메타버스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역량의 조절 효과」,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4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641-654쪽.

황인호, 「메타버스의 사회적 기능과 원격실재감이 메타버스 참여 주체의 신뢰를 통해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7권 3호, 한국산업정보학회, 2022, 29-46쪽.

Ball, M., “The metaverse: What it is, where to find it, and who will build it. MatthewBall. Vc.” 2020.; Retrieved from <https://www.matthewball.vc/all/themetaverse>, 2024.06.14.

<https://mixed.de/vr-training-so-uebt-die-schweizer-polizei-fuer-den-ernstfall/>, 2024.06.11.

<https://mixed.de/wie-deutsche-polizisten-einen-tatort-in-virtual-reality-untersuchen/>, 2024.06.11.

<https://mixed-news.com/en/us-police-officers-practice-dangerous-operations-in-vr/>, 2024.06.11.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0107>, 2023.10.30.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4_0002074011&cID=13005&pID=13100, 2023.11.01.

<https://www.apexofficer.com/resources/private-security>, 2024.06.12.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3>, 2024.11.01.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2112310101488311&rs=/synapFile/202311/&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2112310101488311%26rs%3D%2FsynapFile%2F202311%2F&synapMessage=%EC%A0%95%EC%83%81, 2023, 10.01.

<https://www.nokia.com/networks/insights/metaverse/simple-guide-to-immersive-future>, 2023.10.05.

<https://www.w3.org/2008/WebVideo/Annotations/wiki/images/1/19/MetaverseRoadmapOverview.pdf>, 2024.06.05.

Jang, R. Y. · Bae, J. H. · Lee · H. R. · Bak, S. H.,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terworking system for device

interaction in a virtual reality setting”,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2, 2019, pp.289-295.

Yu, J. E., “Exploration of educational possibilities by four metaverse types in physical education”, Technologies, vol. 10, no. 5, 2022, p.104.

■ 국문초록

최근 다중은집시설에서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와 진화하고 있는 수법을 통한 범죄로 경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범죄 발생이 시간과 대상 그리고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공경비인 경찰보다 민간경비의 경우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대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다양한 사건·사고 발생 및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기에 실무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은 이론 과목과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현실감 있는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에서 강의가 대부분인 점은 매우 제한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무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 교육이 필요한데 그 대안은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

가상공간과 현실 세계가 융합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은 더욱 현실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훈련 상황 자체가 위험 요소라 할 수 있는 재난 훈련의 경우 위험성의 감소와 비용 절감 등으로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와 민간경비원 신입교육과 유사 사례를 통해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에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 메타버스 활용,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안전 사회, 민간경비, 메타버스 교육

■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etaverse for the New Education of Private Security Officers

You, Jae Doo / Mokwon Unuversity

Recently, the importance of security has been more emphasized due to abnormally motivated crimes that have occurred in multi-carriage facilities and crimes through evolving methods.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is very important in that private security rather than police is exposed to the risk of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which are public expenses because crime occurrence does not have a fixed time, target, or space. In particular, suitable new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guard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tarting point of private security, is required for practice because they work in places with various incidents, accidents, and possibilities. The new private security guard education consist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subjects, and despite the need for the most realistic education as possible, the fact is that mostly lectures are conducted in the education field in a very limited manner. If so, the best situation for practice requires education, and one alternative can be the metaverse.

There are great implications for us regarding education using a metaverse in which virtual space and the real world are fused, enabling more realistic education. In the case of disaster training, where the training situation itself is a risk factor, the metaverse is being used to reduce risk and reduce costs.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etaverse for new private security guards through similar cases with a new metaverse and private security guards.

Keyword • Use of the metaverse, new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guards, safety society, private security, metaverse education

■ 논문투고일:2024.06.14. ■ 심사완료일:2024.07.19. ■ 게재확정일:2024.07.23. ■

‘철학하기’의 발전과 확장을 위한 기반 모색

: ‘철학하기’의 본질 탐구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임 윤 정**

목 차

1. 들어가기-‘철학하기’의 개념 및 특징
2. 어린이 철학교육과 사고력
3.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 ‘참여’
 - 1)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 참여를 위한 철학 자료
 - 2)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 참여를 위한 방법론
4. 나가기

1. 들어가기-‘철학하기’의 개념 및 특징

인간은 스스로 ‘철학적 인간’, ‘철학하는 인간’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철학은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철학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다. 칸트의 “철학을 배우려 하지 말고, 철학함을 배우라”는 언명이나 마르텐스의 “철학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철학함’으로부터 나온다”와 같은 언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철학¹⁾은 ‘철학’이 아닌 ‘철학하다’라는 동사적 성격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48510)

** 충남대학교 철학과 강사

1) 황경식, 『철학 속의 논리』, 철학과 현실사, 1999, 15쪽.

논자는 어린이 철학교육이 철학하기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린이들도 철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때 철학하기의 특징을 ‘참여’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참여란 대화 또는 토론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참여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다. ‘참여’를 위해서는 강력한 형식이 있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논자는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참여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에 관한 논구를 시작하면서 우선 철학과 철학하기의 의미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사랑을 ‘대상에 대한 앎을 갈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철학은 곧 철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철학적 물음’에 대한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대답 찾기를 의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혜에 대한 사랑을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한 후, 그것을 진리에 대한 탐구로 해석한다면, 진리를 알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 철학이 된다. 그러므로 철학은 이설이 아니라, 활동이다. 논자는 이러한 대중적인 철학의 정의로부터 철학하기의 특징을 발견한다. 철학은 실천이다. 즉 세상의 본질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치를 깨닫는 ‘철학적 사고’에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을 철학하기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 특징 또한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정의로부터 발견한다. 즉 철학은 진리 탐구를 의미하며, 사랑의 대상이 진리에 있다는 관점에서 철학의 특징을 발견한다.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한다면, 철학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랑이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랑만이 나의 것이듯, 자기 스스로 사고할 때 얻게 되는 진리가 곧 자신의 진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철학에 대한 이해는 야스퍼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발견 가능하다. 야스퍼스는 철학을 철학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누구

나 당연히 철학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철학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들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 그에 의하면 철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 철학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철학교육’은 단순히 철학 이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언명으로부터는 누구나 철학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들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어린이들 또한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낯선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경험한 어린이들이 스스로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 답하는 활동을 반복하며, 스스로 호기심의 세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활동에 철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이가 스스로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 답할 줄 아는 이성적인 존재라면, 그래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라면, 어린이에게 철학은 충분히 수행할만한 활동이 된다.

본고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 철학교육은 어린이들의 철학하기에 대한 참여, 즉 철학하기 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은 대체로 립맨과 매튜스의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이해로 대분 된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을 표방했던 립맨은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을 사고력의 부재로부터 발견하였기 때문에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목표와 의도가 매우 뚜렷했다. 반면 매튜스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을 표방했으며, 어린이들을 자연스럽게 철학하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당연히 각자의 목표에 따라 그들이 제안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은 상이했다. 다수의 연구가들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영미철학의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전통과 퍼스의 과학적 탐구공동체 이론, 듀이의 도구주의

2) 리프맨 외 저, 여훈근 외 역, 『세 살 철학 여든까지』, 고려원, 1992, 27쪽.

를 모델로 하여 사고력 교육으로서의 양자의 철학의 효용성을 주장하지만, 철학교육을 위해 교재와 교육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립만의 어린이 철학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선천적인 철학적 성향을 철학하기 현장으로 이끌고자 했던 매튜스의 방법에 우호적이었다.³⁾ 그러나 논자는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의 관계성을 논구하기 위해 차별점이 아닌 공통점, 즉 철학은 철학하기, 즉 철학하기에 대한 참여라는 특징에 주목한다.

논자의 애초 연구 의도는 어린이 철학교육이 왜 철학하기인가를 본질적으로 고찰한 후, 어린이 철학교육의 발전, 나아가 철학하기의 발전과 확장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즉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그러한 관계성을 토대로 어린이 철학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예상보다 매우 방대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의 발전을 위한 ‘기반 모색’ 자체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의 관계성, 즉 어린이 철학교육이 왜 철학하기인가를 고찰하고, 어린이 철학교육이 철학하기라는 전제 하에서 어린이 철학교육의 특징과 방향성 논의에 집중한 후, 후속 논문에서 본고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철학하기의 특징을 갖는 어린이 철학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철학하기 자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어떻게 확장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논자가 주목한 개념은 ‘참여’와 ‘사고력’이다. 어린이는 사고력을 활용하면서 어린이 철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이 철학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사고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어린이 철학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활용한 교

3) 박현주, 「IAPC 어린이철학 모델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한 진단과 비판, 『교육 철학연구』 42권 2호, 한국교육철학학회, 2020, 108-109쪽.

재와 방법론에 관한 논구를 이어감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2. 어린이 철학교육과 사고력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칸트는 “모든 철학적 인식의 체계”라는 객관적 의미의 철학이란 “어디서든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그저 가능한 학문의 이념에 불과”한 것이기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아니라, “철학하기를 배울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철학하기란 “이성이라는 재능을 보편적 원리에 따라, 어떤 주어진 시도를 통해 연마하는 것”이라고 칸트는 규정하고 있다.⁴⁾ 나아가 “인간 이성의 본질적인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개별학문의 인식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불러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성주의자 칸트가 파악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이성적 존재이기에 인간은 철학자가 된다. 철학자인 인간은 이성의 본질적인 목적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개별학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 또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기에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는 철학하기에 참여할 기회가 그다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진리에 대한 가장 개인적인 물음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로 뭘 하려고 했던 거야?—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의 교육에서는 배우지 않는 진리에 대한 물음이다. 그런 물음을 던지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없는 것이다. 아이들과 장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⁶⁾

4) 김수배, 「철학실천적 관점에서 본 칸트 철학」, 『철학논집』 54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8, 146쪽. (I. 칸트, 『순수이성비판』, B 866 내용을 재인용.)

5) 위의 논문, 146쪽.

6) 에케하르트 마르텐스 저, 박승역 역, 『어린이와 함께 철학하기』, 지리소, 2012, 13쪽에서 재인용.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권, 동서문화사, 2016, 196쪽에서 재인용.)

흥미 있는 것은 니체가 이러한 발언을 했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어린이들은 철학이라는 환경에 노출되기 어렵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물음들”이 매우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현재나 모두 그러한 질문을 제기할 기회는 부족하다. 특히 학교 교실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질문을 물을 여유도 필요성도 없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칸트의 언명을 니체의 언명에 적용하여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물음들”에 적절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개별학문들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 사고를 발동함으로써 스스로 답해야 한다. 이것은 철학을 하기 위해서 개별학문, 즉 교실에서 학습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순간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이자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물음들인데,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습득한 다양한 지식들-‘나’, ‘인간’, ‘AI’의 정의 및 기능 등-을 우선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이러한 지식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을 토대로 그것들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각자의 ‘의미’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논자는 립맨이 어린이 철학교육을 기획한 이유와 목표를 여기에서 발견한다. 립맨이 어린이 철학교육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들의 낮은 수준의 추론 능력과 사고력,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의 부족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학교 교육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기획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교실을 보다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교실에서 배운 지식들을 재구성을 하여, 그것을 논거로 삼을 줄 알고, 그로 인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립맨은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이 사고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향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유치원생으로부터 고등학생까지 철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교재와 방법론이었으며, 궁극적인 철학교육의 현장은 교실이었다.

그의 사고력에 대한 관심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리고 배려적 사고로 집중되었다. 립맨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고차적 사고’(higher-order-thinking)로 명명한다. 그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융합을 고차적 사고로 호명한 이유는 양자 사고의 상호 보완적 특성 때문이다. 즉 비판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의 매개 없이 불가능하며,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그는 고차적 사고에 배려적 사고를 더함으로써 ‘다차원적 사고’(multidimensional thinking)를 주장하며, 다차원적 사고이론에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배려적 사고의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이때 고차적 사고가 의미 탐색과 합리성에 기초를 둔 사고력이라면, 다차원적 사고는 사고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균형을 맞춤으로써 합당성에 기초한 사고력으로 확장된다.⁷⁾ 이것은 곧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뿐 아니라 관계적인 사유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차원 상승을 가져오는 사유를 할 수 있다”는 립맨의 가정을 포함한다.⁸⁾

여기에서 관계적 사유는 배려적 사고를 대신하는 개념인데, 이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개별적 관점이 아닌, 총체적이고 포괄적 관점에서 문제 해

7) 반명진, 「립맨(M. Lipman)의 다차원적 사고이론을 기반으로 한 음악 감상 수업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17쪽.

8) 이지애, 「‘철학적 돌봄(philosophical care)’으로서의 철학교육」, 『철학윤리교육연구』 23권 38호, 한국철학교육학회, 2007, 89쪽.

소 방법을 발견하고자 한 욕구 때문이다. 즉 “부분적으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이나 방법들”에 대한 요청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고 작용으로서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그것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⁹⁾ 립만의 사고에 배려적 사고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사고력에 있어서 이성과 정서의 이분법적 해체¹⁰⁾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인해 의의가 있다.

립만의 사고력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그의 사고력 교육은 사고 기술 교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교육은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토대로 자기 수정과 맥락에 대한 감수성을 훈련하는 것이다. 립만에 의하면 맥락에 대해 감수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 사고는 둔감하다. 또한 자기 수정이 없다면 그 사고는 비판적 사고도, 합리적 사고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수정이 없고, 맥락에 대한 통시성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비판적 사고가 아니므로, 단편적인 비판적 사고 기술이 아닌 맥락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습득했을 때 비판적 사고능력이 함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¹⁾

배려적 사고력에 대한 이해도 이와 유사하다. 립만이 제시한 배려적 사

9) 지혜인·강경희, 「배려와 철학교육: 립만(Lipman, M.) ‘사고로서의 배려’의 철학적 기반」, 『철학교육의 온도』, 한국철학교육학회 2024 동계 학술대회, 2004, 18쪽.

10) 여기에서 이성과 정서의 이분법적 해체는 사고력을 양자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사고력에는 이성적 사고만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편견에 대한 해체를 의미한다.

11) 위의 논문, 19쪽.

고의 기준¹²⁾은 “가치를 헤아리는/ 감정을 살피는/ 정동적인/ 활동적인/ 규범적인”이다. 이성적 사고와는 달리 배려적 사고는 가치를 다루며, 정서를 살핀다. 그리고 ‘정동적인’이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계성을 취급한다.¹³⁾ 특히 감정을 살피는 사고로 립맨이 제시한 ‘공감하는(sympatheti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감이란 단순히 표출된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감정과 관점을 상상하고, 추리하는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립맨이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주목했던 사고력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조명해야 하는 사고력이며, 단순히 이성적 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정서적 사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립맨이 어린이를 위해 철학을 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 향상과 같은 순수 이성적 사고능력으로부터 타인을 이해하는 정서적 사고 능력, 올바른 그림의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 즉 윤리적 판단능력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주목했던 사고력은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통시성, 관계성 등을 모두 살핀 후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전개되고, 확장되는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기존의 사고력 교육을 위한 교재와 그것을 활용한 교육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당연히 새로운 교재와 교육 방법을 모색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선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했다.

먼저 립맨의 사고력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과 관련 있는 사례를 보도록 하자.

12) 지혜인·강경희, 앞의 논문, 19쪽.

13) 립맨은 ‘정동적인’의 표준으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돌보는, 공경하는, 조화롭게 하는, 다정한, 격려하는”을 제시한다.

“하나의 문장을 거꾸로 할 수는 없다. 어느 한 문장의 앞과 뒤를 바꾸면 그때는 이미 참말이 아니다. ‘모든 참나무는 나무이다’ 문장을 예로 들어 보자. 이것의 앞뒤를 바꾸면 ‘모든 나무는 참나무이다’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
“어느 한 문장을 돌려놓으면 어느새 참이 아닌 것으로 바뀐다, 너!”

...
“어떤 독수리도 사자가 아니다.”(모든 독수리는 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해리는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어떤 독수리도 사자가 아니다” 문장은 참이다. 그런데 그 문장을 거꾸로 하면 그것도 역시 참이다.
...해리는 흥분되어, “그래 그렇지, 맞아! ‘어떤 ~도 ~이 아니다’가 참이면 그것을 거꾸로 한 것도 참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은 ~이다’는 형식의 문장 일 경우는 거꾸로 하면 거짓이 되고.”¹⁴⁾

립만의 언어-논리에 대한 관심은 논리학 이론을 철학소설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체화 된다. 그는 직접추리의 ‘환위’의 문제, 논리적 타당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논리학 용어나 규칙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철학 소설 내용 안에서 직접추리의 문제를 어린이들과 공유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논리학 규칙을 별도로 학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어는 사고 작용에 있어서 일종의 기호화와 형식화를 가능하도록 하므로 어린이들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적절한 사고행위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역적으로나 귀납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마르텐스는 립만이 다양한 철학의 물음을 언어-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 “각각의 이야기들은 철학의 고전적인 영역들을 다루는 셈이다. 그리고 그 각각은 다소 부드럽고 완화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철학적 문제들을 특히 언어-논리적 물음들로 간주하는 현대 언어 분

14) 이초식 저, 서울대학철학연구동문회 역,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서광사, 1980, 69쪽.

15) 위의 책, 69쪽.

석 철학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각각의 이야기들이 갖는 출발점은 매우 다양한, 더욱이 언어 분석적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만 하는 일상적 상황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⁶⁾ 마르텐스는 이와 관련하여 베리 헤센(Berrie Hessen)이 실제로 어린이들과 참여했던 한 사례를 제시한다. 헤센이 어린이와 함께 참여했던 대화는 의자의 개념 또는 용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어린이들의 대답은 기상천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자의 개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¹⁷⁾ 이에 대해 헤센은 “(어린이들이) 의자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어진 한계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미 있는 것들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¹⁸⁾ “이미 있는 것들에 생기를 불어 넣는 시도”는 곧 이미 ‘의자’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어린이들이 반성적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립맨과 마르텐스는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언어의 문제를 취급한다는 공통점 외에 문제를 입력한 후 하나의 정해진 정답을 어린이들이 출력하는 방식이 아닌, 사고 과정을 거쳐 스스로 도출해 낸 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철학교육을 시행한다는 공통점을 포함한다. 립맨은 구체적으로 ‘직접추리’의 문제를 철학소설의 줄거리로 채택한 후 소설의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독자인 어린이도 또한 직접추리의 ‘원리’에 관해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즉 어떤 명제를 제시한 후 그 명제를 환위한 명제를 답하라는 단편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헤센과 마르텐스 또한 유사하다. 의자를 앞에 두고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의자의 개념과 본질에 관

16) 에케하르트 마르텐스 저, 박승억 역, 앞의 책, 84쪽.

17) 에케하르트 마르텐스 저, 박승억 역, 앞의 책, 123-124쪽.

18) 에케하르트 마르텐스 저, 박승억 역, 앞의 책, 124-125쪽.

해 토론하지만,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의자의 사전적 정의를 암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은 아니다. 오히려 “의자”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어린이 철학교육 과정에서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취급하는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암기하여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기본적인 지식(또는 개념)을 토대로 하여 추리하고, 반성하는 사고 작용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 철학교육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의자의 본질적인 개념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새롭고 반성적인 앎과 능력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은 의자가 아닌 사물을 의자라고 주장하는 일은 드물다. 다만 의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의자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차용하면 “가족 유사성”을 포함하는 대상일 때 어린이들은 그 대상을 “의자”라고 부를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들은 의자와는 무관하게 보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의자가 갖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의자처럼 보이는 대상을 어른들이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철학교육이 언어의 문제, 특히 개념 구성의 문제를 취급한다는 사실은 어린이 철학교육이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어린이 철학교육은 스스로 사고력을 발휘하여 “이미 있는 것들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동을 지향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사고력은 단순하게 하나의 정답을 발견하는 기능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어린이 철학교육에서의 사고란 ‘반성적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사고의 절차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사고의 내용까지 고려하는 메타 인지적, 자기 수정적 사고이기 때문이다.¹⁹⁾

19) 박찬영, 「어린이철학을 통한 도덕적, 시민적 인성 함양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어린이 철학교육에서의 사고력의 복합성은 립만의 “다차원적 사고”로부터 잘 드러난다. 다차원적 사고는 립만이 어린이 철학에서의 사고가 인지와 정서, 지각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사이의 균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복합성 또는 다차원적 사고력을 고려한 립만은 철학교재를 소설 형식으로 구성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철학소설을 공유하며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논리적·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줄거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나 발언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그러한 행위와 발언의 이유를 상상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장인물의 행위와 발언은 어린이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일화나 감상을 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앞서 어린이 철학교육은 반성적 사고를 포함한다고 했다.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반성적 사고가 가능한 이유 또한 립만의 철학교재가 소설 형식을 차용했기 때문이며, 역으로 반성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립만이 소설형식의 철학교재를 구성했을 수도 있다. 물론 철학소설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고 유형이 활용될 수 있으며, 립만 또한 그러한 의도를 갖고 다양한 내용의 철학소설을 집필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반성적 사고 또는 배려적 사고를 위해서 립만은 철학하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대화나 토론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성적 사고는 다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배려적 사고는 토론 활동 자체에서 훈련될 수 있는 사고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설형식의 철학교재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고력을 달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철학교재의 내용이 가치의 문제, 특히 윤리적 가치에 대한 줄거리를 포함하는 경우 어린이들은 비판적 사고, 창의

구』51호, 한국윤리교육학회, 2018, 534-535쪽.

적 사고, 그리고 배려적 사고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도덕적 판단 외에도 도덕적으로 행위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위하고자 노력하고, 올바른 윤리적 가치 기준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인간의 인식능력과 관련하여 이성적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인식능력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자세를 통해 행위와 관계된 도덕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칸트의 사유 체계로부터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²⁰⁾

철학의 가치는 지식 체계로서의 철학이 아닌, 철학의 본질인 ‘철학함’에 있다. 어린이들의 사고력은 곧 철학함을 위한 것이자 철학하기에 참여함으로써 향상되는 능력이다. 그리고 립만의 판단대로라면, 철학하기에 참여함으로써 향상된 사고력은 교실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립만을 포함한 다수의 어린이 철학교육 연구가들은 어린이 철학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사고력이 훈련되기를 기대했고, 향상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것을 목표로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을 구상했다. 환원하면 철학하기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사고력은 향상될 것인데, 이를 위한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논자는 어린이 철학교육이 어린이의 사고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논자는 앞서 언급했던 철학적 토론을 위해 공유해야 하는 철학 자료, 즉 일종의 교재와 그러한 교재를 실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참여 방법론에 관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3.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 ‘참여’

립만은 한 인터뷰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은 ‘어린이를 위한 철

20) 김덕수, 「도덕적 문답법에 기초한 인성교육-칸트 실천철학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93권, 대동철학회, 2020, 3쪽.

학’의 작은 파생물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매튜스의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은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재와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철학적 토론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매튜스는 어린이 철학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를 어린 철학자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반면 립맨은 어린이 철학의 목표를 사고력 향상으로 설정한 후, 그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집필한 교재(철학소설)를 사용함으로써 어린이 철학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철학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사고력 향상 훈련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립맨은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어린이에게 철학적 사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철학교육 시간에 사고력 훈련을 함으로써 사고력의 고양을 추구하는 것을 초과하여 어린이 철학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향상된 사고력을 교과과정상의 개별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²¹⁾ 실제로 개별학문에 대해 통시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 철학교육, 또는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시도한 사고력 훈련이므로 어린이 철학교육은 학교에서의 교과목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립맨은 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²²⁾ 즉 매튜스는 어린이가 철학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철학적 성찰을 하고, 정체성 및 세계관을 구성하기를 기대했다면, 립맨은 어린이 철학교육이 어린이들의 교실에서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21) 철학적 사고, 개념에 대한 사고는 기본적인 지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논자는 ‘기본적 지식’을 편의상 교실에서 학습한 지식으로 언급한 바 있다. 어린이들은 많은 지식을 학교에서 습득하기 때문이다. 립맨은 어린이 철학교육 과정에서 향상된 사고력을 교실로 확장하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은 교실에서의 사고력 교육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사고력 교육을 위해 어린이 철학교육을 시도해야 하며, 그것이 학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즉 어린이 철학교육과 교실에서의 (사고력) 교육의 선, 후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22) 박찬영, 「범주로서 어린이 철학의 가능성」, 『철학논총』 4권 50호, 새한철학회, 2007, 205쪽.

치기를 바랐던 것이다.²³⁾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 철학교육 논의의 출발점에는 어린이 철학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표의 차별화가 립맨과 매튜스로 하여금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규정 하도록 했는가를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철학 자료와 철학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포함 될 것이다. 논자는 이를 위해 립맨과 매튜스가 활용한 철학적 사고를 위한 자료들과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철학하기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 논구하고자 한다.

1)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 참여를 위한 철학 자료

립맨의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향성은 다음의 그의 발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내게 어린이 소설 형식으로 논리를 제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나는 그 가능성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것은 한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여러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사고 과정과 그렇지 못한 사고 과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발견해 가는 이야기이다.²⁴⁾

사고력 교육으로서의 ‘어린이를 위한 철학’은 철학 교재와 교육과정, 교육 방법론, 그리고 좋은 교사들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들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사실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립맨의 어린이 철학교육은 철학소설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사고 과정의

23) 자칭 립맨의 인터뷰 내용은 매튜스의 어린이 철학교육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논자는 립맨이 자신과 매튜스의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표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어린이 철학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4) M. Lipman, "Philosophy for Children", 393쪽. (박찬영, 앞의 논문, 199쪽에서 재인용.)

맥락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사고 과정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이초식은 “립만의 철학소설에서 여러 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철학적 견해와 추론 법칙을 주인공들 스스로 배워왔던 것처럼, 어린이 철학 교육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 또한 철학소설을 활용하여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각 주제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해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⁵⁾ 어린이 철학교육이 사고력 교육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철학소설 내에서 등장인물이 스스로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철학소설을 활용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또한 소설의 등장인물과 유사한 사고 체계를 따라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등장인물의 사고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비판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답을 제시함으로써 사고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립만이 왜 어린이 철학교육을 기획했었는지를 상기해 보자. 립만은 대학생들의 부족한 토론 능력과 사고력의 부재를 목격한 후 어린이들에게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철학교육, 사고력 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립만에게 있어서 사고력 교육의 필요성은 단편적인 계산 능력과 유사한 단계의 사고력 향상의 필요성으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그것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논증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즉 언어-추론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립만이 추구했던 사고력의 종류와 특징들이 매우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 $1*3=6/ 2*5=20/ 3*4=18/ 4*3=?/ 5*2=11$ ”에서 규칙을 찾아 $4*3$ 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문제들을 취급하는 철학 자료가 아닌, 다차원적인 사고력의 내용을 포함하는 철학 자료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철학 자료로 내러티브 분석이 요구되고, 다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 소설 형식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

25) 이초식 저, 서울대학철학연구동문회 역, 앞의 책, 82쪽.

므로 립맨의 어린이 철학교육은 다양한 문제 상황의 문제들을 주제 중심의 탐구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²⁶⁾

립맨의 철학교재라고 불리는 교재는 그와 앤삽 교수에 의해 제안된 IAPC(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Philosophy for Children)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교재이다. 이 교재들은 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철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 해당 교재들에서는 저학년인 경우 언어 습득의 문제로부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언어-논리(형식 논리, 비형식 논리 포함)의 문제와 전문적인 철학적 주제를 취급하고 있다.²⁷⁾

그의 철학소설의 줄거리는 일반적인 소설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픽시』는 9세 소녀 픽시가 ‘신비한 동물’을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피가 따뜻하며, 뼈대가 있고 태생인 동물’로 규정한 후, 동물원에서 그 동물을 찾는 줄거리의 소설이다. 그러나 픽시는 동물원에서 ‘신비한 동물’이 지시하는 동물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픽시와 친구들은 신비한 동물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토론한다.

“픽시 너 모르는구나. 우리는 모두 한 반의 학생이잖니. 그러나 우리들로 이루어진 모임 자체는 학생이 아니잖니”

...

‘젖먹이동물은 어떤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구나’하고 내가 말했다. 그때 로버트가 말했다.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생물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지.”

“알았어.” 라고 나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다.

26) 김희용, 「립맨 ‘어린이 철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논의-립맨 자서전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6권 2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12, 76쪽.

27) 구체적인 내용은 이초식 저, 서울대학철학연구동문회 역, 앞의 책, 62-67쪽을 참조할 것.

“그래, 젓먹이동물의 모임 자체가 젓먹이동물은 아니다 이거지.”²⁸⁾

살펴본 바와 같이 『픽시』는 보편논쟁을 취급하고 있다. 립맨은 『픽시』에서 픽시가 경험하는 문제 상황을 언어-논리적 물음들로 간주하는 언어 분석철학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픽시』를 포함한 그의 철학소설에서 철학적 주제를 취급하고 있지만, 철학 용어나 철학자들이 할 법한 철학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노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립맨의 철학소설의 줄거리는 어린이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만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그러한 철학적 주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어린이 철학교육에 참여하여 립맨의 철학소설을 철학 교재로 공유하게 된다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흥미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철학소설에 등장하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소설 속의 상황에 대해 독자인 어린이들은 충분히 사고하고, 상상할 수 있으며,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스스로 철학 주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철학 토론을 구성하고,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 즉 자연스럽게 철학하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립맨의 어린이 철학교육의 단점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주제와 내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철학에 대한 자연스러운 참여가 곤란하다는 사실은 립맨의 철학소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피셔(Robert Fisher)에 의하면 문학작품은 맥락, 시간적 순서, 특정 사건, 의도, 서사적 동인(예측의 즐거움), 의미, 말하기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²⁹⁾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의 서사는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사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립맨의 철학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험

28) 에케하르트 마르텐스 저, 박승억 역, 앞의 책, 80쪽에서 재인용.

29) Robert Fisher, *Teaching Thinking: Philosophical Enquiry in the Classroom*, 3E, London: Cromwell Press, 2008, pp.79-86.

중 일부는 맥락 없이 기술된다. 그러한 경우 독자들은 등장인물의 사유내용과 행위의 이유 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픽시』에서 픽시의 행위와 그 행위에 대응하는 친구들의 반응에 대한 맥락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의도’라는 조건도 립맨에게는 매우 취약한 조건으로 판단된다.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며 등장인물의 행위와 대사 등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고, 추출함으로써 문학의 매력을 발견한다. 그런데 립맨의 철학소설은 등장인물의 행위나 대사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분석해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미 립맨은 계획하에 어린이 철학교육의 주제를 결정하고, 그 주제의 철학하기를 진행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고력의 종류까지도 예상한 다음, 그러한 의도를 고려한 채 자신의 철학소설을 집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립맨이 유연하게 자신의 의도를 철학소설에 노출시켰다면 꽤 매력적인 문학작품이 되었겠지만, 립맨의 철학소설은 적어도 작가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건대 매우 노골적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등장인물의 행위나 발언의 의도를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되며, 이로써 립맨의 철학소설은 어린이들에게 큰 흥미를 부여하지 못하였다. 피셔의 관점에서 립맨의 철학소설은 문학적 요소가 부족하여,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대화의 자료는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립맨과는 달리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재를 집필하지 않았던 매튜스는 기존의 동화책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안한다. 매튜스는 ‘어린이와 철학을 함께 하기’ 위해 철학적 물음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물음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일화를 먼저 제시하고, 그 일화를 소재로 철학적 토론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매튜스가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팀(약 6세 가량)은 열심히 알사탕을 빨다 말고, “아빠, 모든 것이 꿈이 아니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³⁰⁾

매튜스의 철학 자료는 생소하고 엉뚱하지만, 어린이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와 소재를 포함한다. 위 사례에서 팀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평소 의심하지 않을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의심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에 관한 확실한 답을 듣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확실한 것에 관해 지속적으로 묻는 활동이 바로 ‘철학함’이다. 러셀(Bertrand Russell)은 철학에 대해 “비록 우리가 물어보았으면 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 답해 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세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질문을 제기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상사에서까지도 그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낯설음과 경이로움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규정한다.³¹⁾ 매튜스의 자료는 일상적인 것 같지만, 기상천외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심각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한다. 땅 위에 떨어진 사과가 살아있는 것인지, 화병에 꽂혀 있는 꽃들은 살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³²⁾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답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답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고 작용이 발생할 것이며, 동일하기도, 때로는 상이하기도 한 답들을 비교하며, 자신의 대답을 반성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매튜스의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이 립만의 방법에 비해 호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매튜스가 활용한 철학교재는 이미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자료들 가운데에서 필요에 따라 선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학작품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을 받았거나, 적어도 어린이들에게 흥미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검증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있다. 일반적인 동화인 경우 독자인 어린이들이 동화로부터

30) G.B. Matthews 저, 김민남 역, 『철학과 아동』, 문음사, 1996, 15쪽.

31) 위의 책, 16쪽.

32) G.B. Matthews 저, 이초식 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 안암문화사, 1989, 20쪽.

맥락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른의 관점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일지라도 어린이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흥미 있는 철학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매투스의 철학 자료는 립만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학적 가치나 접근성만으로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자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립만은 철학교육의 목표를 학교 교실에 도입할 수 있는 사고력 교육으로 설정하였고, 매투스는 철학적 사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의도와 출발점으로부터 상이성이 발견되는 것일 뿐, 그 차별점이 질적 수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립만과 매투스의 어린이 철학교육의 출발점이나 목표가 어떠하든지 어린이들은 어린이 철학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철학 주제를 공유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의구심을 가지며,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고, 사고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각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의 주제 또는 내용 중 다수는 언어-논리의 문제, 특히 개념의 문제와 관련 있지만, 윤리적 가치와 규범 등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도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비중 있게 취급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로런스 콜버그의 유명한 “하인츠의 이야기”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포함한 이야기를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해 제시할 수 있다. 난치병에 걸린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아내의 병에特效약을 개발한 약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거절당한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막고자 그 약품을 훔친다는 이 일화³³⁾는 어린이들에게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과 윤리적 판단의 가치에 관해 고찰하도록 유도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어

33) 프랑수아 갈리세 저, 김주한 역, 『아이와 함께 철학하기』, 문학동네, 2010, 47-48쪽.

린이들은 이미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 반면 어린이들은 언어-논리, 또는 개념의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비상식적인 윤리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시하는 철학 자료의 다원적 분석 가능성에 있다. 즉 입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은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보편적인 윤리적 판단 기준을 알고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또 다른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인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철학교육이 사고훈련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입체적인 딜레마 상황이 포함되어 어린이들이 다차원적 사고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 자료가 유익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립맨과 매튜스의 철학 자료의 형식과 내용, 질적 차이는 존재한다. 아울러 각각의 철학 자료의 장, 단점 또한 뚜렷하다.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구성했기 때문에 철학수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립맨의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이 있다면, 매튜스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의 철학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철학자료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론 참여자들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자칫 철학적 토론의 방향이 오도될 수 있다는 단점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성과 무관하게 립맨과 매튜스, 그리고 이후의 여러 어린이 철학교육 연구가들에 의해 개발되거나 제안된 철학교육 자료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자발적으로 질문 거리를 찾으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작동하도록 한다. 나아가 어린이들이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기 위해, 또는 줄거리의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를 발동시킨다. 그리고 줄거리의 상황들을 공감하고, 등장인물의 상황을 이해하며, 어린이 스스로 행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때로는 다른 어린이들과 토론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배려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때 어린이들의 다차원적 사고가 균형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흥미 있고, 입체적으로 구성된 우수한 철학 자료의 발굴 또는 개발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자료는 어린이 철학교육이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의 현장이 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거나 선정되었다. 또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자료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한 명의 어린이가 철학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어린이가 철학하기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어린이가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형성하여 철학하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유해야 할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하는 토론이 가능하며,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탐구공동체 활동에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사고능력에 의존하여 스스로 사고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제 논의는 어린이들이 사고력을 활용함으로써 참여하게 되는 철학하기의 구체적 모형, 즉 탐구공동체 활동 모형으로 전개될 것이다.

2)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 참여를 위한 방법론

탐구공동체 개념은 퍼스(C.S. Peirce)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립만은 이 개념을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으로 채택했다. 논자는 탐구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탐구’와 ‘공동체’ 개념을 구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퍼스로부터 영향을 받아 교실이 탐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듀이(J. Dewey)는 탐구를 “어떤 신념이나 가정된 지식형태를 지지하는 기초에 비추어 능동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중하게 고려한 후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규정한다.³⁴⁾ 이를 근거로 ‘탐구’ 개념을 재구성하면, 탐구는

34) 강기수,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교육적 의의」, 『교육사상연구』 19권,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6, 6쪽.

능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립맨이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철학교육의 방법론으로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린이 철학교육이 사고력 향상을 지향하며,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사고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사고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탐구공동체 활동은 대화 위주의 활동이며, 대화는 탐구를 주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활동이다. 대화의 방법을 철학교육에 도입했던 립맨의 철학적 활동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비견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교육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대화’는 탐구를 위한 대화이며, 진리 탐구라는 명확한 목표를 포함하는 철학적 대화이다. 립맨은 철학적 대화를 “어떤 근본적인 종류의 내용이나 관념들에 관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철학적인 대화는 아주 다양하고, 능란한 사고를 도구로 사용하며, 자기 규정적, 반성적 대화를 그 방법으로 한다. 만약 이러한 특징들이 약하거나 혹은 아주 없을 경우에는, 단지 생각이나 기억 혹은 설명의 교환인 비철학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한다.³⁵⁾ 그러므로 립맨이 제안한 탐구 활동은 어린이 스스로 사고력을 활용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반성적 사고, 또는 반성적 토론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 개념에 주목해 보자. ‘공동체’는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탐구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동적인 활동이 조장되며, 그것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깊은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³⁶⁾

35) 에케하르트 마르텐스 저, 박승억 역, 앞의 책, 85-86쪽.

36) 강기수, 앞의 논문, 6쪽 재인용.

립맨이 제안하는 공동체는 명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는 것으로 탐구 활동을 위한 공동체이며, 특히 철학적 성찰을 위한 탐구공동체이다. 립맨은 그의 공동체를 암기 위주의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닌, 상호 질문하고, 답하며, 이때 상이성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발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설정하였다. 특히 그의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여 철학소설을 집필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립맨의 탐구공동체는 또래들로 구성된 탐구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립맨의 공동체는 또래 어린이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각자의 성찰의 결과를 제시하고,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토론·사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고찰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것은 철학적 탐구공동체에 참여하는 주체가 또래 어린이만으로 제한되는가와 관련 있다. 실제로 고려해야 하는 참여 주체는 어린이만이 아니다. 립맨은 매튜스와 더불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이론의 한계를 지적한 후, 그 대안으로 비고츠키 이론의 도입을 주장했다. 즉 어린이들의 인지발달은 선천적으로 어린이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어린이 주변의 다양한 환경, 즉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파악한다. 인간이 스스로 인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파악한 것은 맞지만, 비고츠키에 의하면 교사나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립맨은 비고츠키 이론에 대해서 “아이들이 교사의 도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여 어린이들의 인지적 발달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이해함으로써³⁷⁾ 자신의 철학 탐구공동체에 교사의 역할을 개입시킨다. 그럼으로써 립맨의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은 어린이와 어린이, 어린이와 교사 사이의

37) 임윤정, 『어린이 철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빈들, 2018, 57쪽.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 립만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탐구공동체의 건설은 단순한 열린 환경의 제공 이상의 보다 실질적인 성취이다. 어떤 조건들은 선결조건이다. 가령 추론에 기민하고, (어린이들끼리, 그리고 어린이와 교사 사이에) 상호 존중하며, 교화를 배제하는 것이 그것이다.³⁸⁾

상호 존중은 ‘공동체성’을 의미하며,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함을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방’은 어린이와 어린이 사이에서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교사 사이에서의 관계성 또한 포함하지만, 어린이 철학에서 공동체 활동은 일방적인 주입식 활동이 아니어서 교화를 제한하는 형태의 상호 교류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립만의 탐구공동체에서 교사의 역할은 공동체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공동체 활동을 돕는 역할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립만은 탐구공동체 단계를 “교재 읽기-토론주제 만들기-공동체 다지기-연습문제와 토론계획 활용하기-심화반응 고무시키기”의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단계에서 교사는 어린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며, 교사가 주도적으로 어린이들의 철학적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다.³⁹⁾ 즉 교재 읽기 단계에서 교재를 읽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어린이이며, 토론주제를 만들거나 실제로 토론 활동을 하는 공동체 다지기 단계에서도 교사의 참여는 거의 없다. 오히려 공동체 다지기 단계에서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인지적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인지적 기술을 고양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어린이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자신의 주

38) Matthew Lipman · Sharp, Ann M. · Oscanjan, Fredericks, *Philosophy in the Classroom*, p.45.

39) M. Lipman 저, 박진환·김혜숙 역, 『고차적 사고력 교육』, 인간사랑, 2005, 142-145쪽.

장을 정리하여 발화하며, 다른 어린이의 주장을 경청하게 된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다른 어린이들의 주장과 자신의 주장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 내용을 강화한다.

철학적 탐구공동체 단계 가운데에서 교사의 개입이 요구되는 단계는 연습문제와 토론계획 활용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철학적 토론을 요구한다. 그래서 교사는 어린이들이 제기하지 못한 철학적 주제나 문제들을 어린이들이 다루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어린이들에게 철학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조차도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철학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주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립만의 관점에서 유능한 교사는 철학적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잘 설명하는 교사가 아닌, 그러한 능력을 충족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자연스럽게 철학적 대화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 철학교육을 “교육에서의 사고” 활동으로 규정했던 립만은 어린이들에게 잘 사고하는 법칙이나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잘 사고하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교사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립만의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은 어린이들 스스로 잘 사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환경이며, 교사는 그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사고 방향성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유도하는 능력을 갖춘 안내자여야 한다.

그런데 립만의 탐구공동체가 ‘철학적’일 수 있는 이유는 토론의 주제가 철학적이고, 철학 이론이 언급되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 활동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한다는 사실에 그 이

유가 있다. 립맨은 ‘철학적’의 특징을 언어적으로 정식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매개체와 ‘추론 기술’이라는 철학적 탐구의 도구, 그리고 ‘자기-평가적(sdlf-appraisive) 대화’라는 철학적 방법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립맨에게 있어서 철학적 주제를 다루지만, 합리적으로 그 주제를 취급하거나 궁극적으로 자기 평가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철학적일 수 없다.⁴⁰⁾

그렇다면 립맨의 탐구공동체가 ‘철학적’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립맨은 과학으로부터 탐구기술을 획득한다. 듀이는 과학은 분과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철학은 분과학문으로서의 과학을 넘어 선, 모든 개별교과 이상의 교과로서 간주하였다.⁴¹⁾ 철학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곧, 개별학문에 대한 통시적 관점을 철학이 제공하며, 개별학문이 해소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런데 립맨이 어린이 철학교육을 기획한 이유는 어린이들의 사고력 향상이었으며, 이때의 사고력은 철학적 사고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사고력의 향상을 의미함으로써 교실에서의 사고력 향상까지를 포함한다. 개별학문에서의 ‘생각하는 힘’은 단편적이다. 모든 개별학문을 관통하는 사고력의 향상이 립맨의 목표였다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철학, 즉 철학하기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꽤 효율적이라고 립맨은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이 또래 어린이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성적 사고력 뿐만 아니라 배려적 사고와 같은 정서적 사고력을 훈련하는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들은 철학하기에 참여함으로써 인격적 성숙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0) 박현주, 「IAPC 어린이철학 모델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한 진단과 비판, 『교육철학연구』 42권 2호, 한국철학교육학회, 2020, 111쪽.

41) John Dewey, *Logic, The Theory of Inqui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38, pp.104-105.

4. 나가기

교육에서 철학은 ‘철학함’의 의미로 규정되며, 철학함은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철학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철학하는 사람으로의 전환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고활동이 전제가 된다. 2002년 고등학교 교양 교과목인 <인간과 철학>을 소개하는 내용에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 스스로 철학적 사유 과정을 익히고 실천하는 ‘철학함’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문헌에서 철학함을 통해 ‘철학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다양한 사유의 폭을 확장하고, 나아가 다차원적 사고를 함양한 개인들이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 방향을 구현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⁴²⁾ 해당 문헌에서의 ‘철학’ 또한 ‘철학하기’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철학하기는 지금까지 논구해 왔던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과 합치한다.

이와 같이 다수의 철학교육 연구가들은 철학교육을 철학적 활동, ‘철학하기’로 규정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사고하는 철학하기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 철학교육=철학하기’라는 정의 내용을 전제로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 교육 자료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언하면 ‘어린이 철학교육이 정말 철학하기인가’, 나아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고 보다는 어린이 철학교육을 철학하기로 규정한 후, 어린이 철학교육의 구체적 방법론을 연구해 왔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상 어

42) <인간과 철학> 교육과정 설계 및 개요 내용 중 참고 및 인용.

린이 철학교육을 철학하기로 규정하기 위한 조건 또는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논자는 어린이 철학교육이 왜 철학하기인가에 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논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철학하기’의 정의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연구 성과물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언명들 속에서 철학이 왜 철학하기여야 하는가, 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 과정을 고찰할 수 있었다. 또는 이미 철학하기의 유형으로 분류된 철학적 활동-대표적으로 철학상담-으로부터 그 특징을 추출해 내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해서 본고에서 이 내용과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의 관계성을 동시에 취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⁴³⁾ 그래서 논자는 철학하기에 관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언명들로부터 철학하기의 정의와 특징을 도출하는 것으로 우선 만족해야 했다.

논자는 철학하기의 특징을 능동적인 사고력을 발동함으로써 스스로 지적 탐구 활동을 해나간다는 점, 즉 ‘참여’로부터 발견했다. 어린이 철학교육은 사고력 교육을 지향했다.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리고 배려적 사고를 아우르는 인지적 사고력과 정서적 사고력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의 한 방법론으로 립맨은 어린이 철학교육을 제안했다. 립맨의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주목한 것은 교재와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이다. 립맨의 교재는 내러티브로 구성된 소설 형식으로 집필되었으며, 이 철학자료는 토론의 방식을 표방한 공동체 활동에서 활용된다. 철학소설을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해 사용할 때 어린이들은 줄거리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타인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비판하며,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다. 그러므로 립맨이 주장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발동한다. 어린이들은

43) 이에 관한 논의는 임윤정, 『철학상담, 왜 철학하기인가?』, 『동서철학연구』 71권, 한국동서철학회, 2014. 논문을 참고할 것.

이러한 토론 과정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자아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있게 된다. 자신의 행위나 타자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또는 서로를 위로할 때 배려적 사고가 발휘된다.

립만의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철학하기’가 립만의 철학소설과 철학적 탐구공동체로 인해 가능했다면, 매투스의 어린이 철학교육은 오히려 보다 일상적인 철학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유연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의 관계성을 논구해야 하는 본고의 주요 내용은 철학적 대화의 자료와 철학적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지향해야 했는데, 실상 이러한 논의는 한 편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논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철학적 대화의 자료와 방법론 양자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논의를 전개하거나, 양자를 모두 취급하지만 개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였다. 논자는 논제의 적절성과 논의의 필요성 때문에 개괄적이어서 치밀함은 다소 부족하지만, 양자를 모두 취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특히 이러한 연구 방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본 연구 목적이 단순히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하기의 관계성 논구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어린이 철학교육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을 논구하는데 본 연구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고의 전개 방향성은 논자가 어린이 철학교육의 발전 가능성으로 주목하고 있는 배려적 사고, 정동에 관한 논의, 철학적 토론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토대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기수,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교육적 의의」, 『교육사상연구』 19권,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6, 6쪽.
- 김덕수, 「도덕적 문답법에 기초한 인성교육-칸트 실천철학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93권, 대동철학회, 2020, 3쪽.
- 김수배, 「철학실천적 관점에서 본 칸트 철학」, 『철학논집』 54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8, 146쪽.
- 리프만 외 저, 여훈근 외 역, 『세 살 철학 여든까지』, 고려원, 1992.
- 반명진, 「립만(M. Lipman)의 다차원적 사고이론을 기반으로 한 음악 감상 수업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3.
- 박찬영, 「범주로서 어린이 철학의 가능성」, 『철학논총』 4권 50호, 새한철학회, 2007.
- 에케하르트 마르텐스 저, 박승억 역, 『어린이와 함께 철학하기』, 지리소, 2012.
- 이지애, 「‘철학적 돌봄(philosophical care)’으로서의 철학교육」, 『철학윤리교육연구』 23권 38호, 한국철학교육학회, 2007, 89쪽.
- 이초식 저, 서울대학철학연구동문회 역,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서광사, 1980.
- 임윤정, 『어린이 철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빈들, 2018.
- , 「철학상담, 왜 철학하기인가?」, 『동서철학연구』 71권, 한국동서철학회, 2014.
- 지혜인·강경희, 「배려와 철학교육: 립만(Lipman, M.) ‘사고로서의 배려’의 철학적 기반」, 『철학교육의 온도』, 한국철학교육학회 2024 동계 학술대회, 2004.
- 프랑수아 갈리세 저, 김주한 역, 『아이와 함께 철학하기』, 문학동네, 2010.

황경식, 『철학 속의 논리』, 철학과 현실사, 1999.

G.B. Matthews 저, 이초식 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 안암문화사, 1989.

G.B. Matthews 저, 김민남 역, 『철학과 아동』, 문음사, 1996.

G.B. Matthews, 『철학하는 아이들』(『철학과 아동』), 안암문화사, 1989.

Lipman, M., “Philosophy for Children and Critical Thinking”, *Thinking Children and Education*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1993.

_____, 박진환·김혜숙 역, 『고차적 사고력 교육』, 인간사랑, 2005.

Dewey, J., Logic, *The Theory of Inqui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38.

■ 국문초록

어린이 철학교육은 철학하기의 한 유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어린이 철학교육이 왜 철학이 아닌, 철학하기여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미 많은 철학자들과 연구가들은 ‘철학’이 아닌 ‘철학하기’에서 철학의 의의를 발견하였고, 진정한 철학교육은 철학적 이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철학하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논자는 철학하기의 구체적인 정의와 조건을 발견하는 대신, 철학자들의 철학하기에 관한 언명들로부터 철학하기의 특징을 추출해낸 후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이러한 특징을 발견하고자 했다.

우선 이러한 논의는 사고력, 또는 사고력 교육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립만은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표를 사고력 교육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소설 형식의 철학교재를 집필한다. 내러티브로 구성된 철학교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배려적 사고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역으로 어린이 철학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곧 이러한 사고력의 활용으로 가능하다. 다음으로 논자는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자료에 주목한다. 립만의 철학소설, 그리고 매튜스가 자신의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해 활용한 다양한 철학 자료에 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철학 자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토론 활동 참여에 관해 고찰했다. 립만과 매튜스는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해 어린이들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은 그러한 탐구 공동체 활동에서 철학 자료들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창의적 대안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가치 기준이 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가치 기준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이성적 사고능력의 발달만이 아닌 감성적인 사고능력의 향상까지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어린이와 어린이, 어린이와 어른 사이의 좋은 관계성을 획득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타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은 어린이들이 철학적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전제로부터 가능하며, 이러한 ‘참여’를 ‘철학하기’를 설명하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일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어린이 철학교육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을 본고에서 심

층적으로 취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본고에서는 어린이 철학교육이 왜 철학하기일 수 있는가에 주목한 후, 이후 논문에서 그 발전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 철학하기, 어린이 철학교육, 참여, 철학 교재, 철학적 탐구공동체

■ Abstract

Finding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Doing Philosophy'
: Focusing on the search for ways to develop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nature of 'Doing Philosophy'

Im, Yoon Jeong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has been known as a type of philosophy. However,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discussion on why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should be philosophy, not philosophy. Many philosophers and researchers have already discovered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y in 'Doing philosophy', not 'philosophy', and have argued that true philosophy education is not about teaching philosophical theories. Instead of discovering specific definitions and conditions of philosophy, the author tried to discover these traits in children's philosophy after extracting the philosophical characteristics of philosophers' statements.

First of all, this discussion starts with a discussion on thinking ability or thinking ability education. Lipman defines the goal of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as thinking ability education, and for this purpose, he writes a novelesque philosophy textbook. Philosophy textbooks composed of narratives enable children to improve critical, creative, and caring thinking, and conversely, 'participation' in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use of these thinking skills. Next, the writer pays attention to materials for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Lipman's philosophy novel and various philosophical materials used by Matthews for his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were mentioned.

Finally, participation in discussion activities was considered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philosophical materials. Lipman and Matthews made it possible for children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for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Children share, analyze, criticize, and propose creative alternatives

to philosophical materials in such exploratory community activities. In addition, they understand that they have different value standards from their own,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the other person's value standards. Through this process, children can acquire not only the development of rational thinking skills but also the improvement of emotional thinking skills. All of these processes allow them to acquire both good children-to-children and children-to-adult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children, children and adults, and ultimately, to understand themselves, the world in which they live, and the other living in that world. Of course, all of these processes are possible from the premise that children can directly participate in philosophical activities, and it is judged that understanding this 'participation' as another concept that explains 'philosophy' will not be a big problem.

However, it was not easy to deal in-depth with the search for specific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in this paper. So, first of all, in this paper, we will pay attention to why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can be philosophy, and then discuss the direction of its development in-depth in later papers.

Keyword • Philosophy,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participation, philosophy textbooks, philosophical inquiry community

화재조사관 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화재조사관 인식을 중심으로

조 용 선 · 채 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대상
4. 연구의 결과분석
5. 결론

1. 서론

현대사회의 건축 구조물과 편의시설은 다양성, 복잡성, 대규모 구조화, 장치 소형화 특성을 가지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 환경 또한 유용하고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도로 성장한 구조물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대형화, 집중화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 복잡화, 소형화로 인해 화재 원인을 분석,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¹⁾

* 조용선 (제1저자) 경기도소방학교 화재감정분석팀
채 진 (교신저자)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조교수

1) 이대혁, 「우리나라 화재조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21, 1쪽.

소방의 화재조사관 자격 기준은 화재조사관 또는 화재감식평가(산업) 기사를 취득한 소방공무원이 중심이다. 독학 또는 학원 등 외부 강의를 통해 취득하는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와는 달리 8주의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이후 1차, 2차로 구성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과한 소방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화재조사관 자격은 기초이론 및 심화과정 등을 통해 양성되고 있어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취득자와는 전문지식 및 화재조사 업무의 이해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낮은 합격률 및 승진으로 인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기존 베테랑 화재조사관들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는 추세로 전문 화재조사관을 육성하기 위해 또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대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정밀한 화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내부적인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화된 화재조사요원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²⁾³⁾

화재조사 분야는 관심이 부족하여 선진국에 비해 대응체계가 뒤떨어지고 있으며, 화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화재조사 분야가 전문화되어 국민이 소방의 화재조사 결과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화재조사 분야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⁴⁾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실시한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체계 및 만족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2) 김선재·강민혁·우승우·민준성·김태훈,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최첨단 화재조사 기법」,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8권 2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24, 56-61쪽.

3) 정진항, 「화재조사관의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23쪽.

4) 고기봉, 「소방의 화재조사전문화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5쪽.

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화재조사관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조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및 운영방식, 교수자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화재조사의 의의

화재현장을 조사한 후 화재발생 장소, 건축물 유형 등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또한, 화재조사관은 화재현장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에 축소하게 된다. 축소된 발화지점 내에서 가능한 발화열원 및 화재원인을 결정하게 된다.

화재조사를 통해 축소된 발화지점에서 다양한 발화열원 및 발화요인에 대해 과학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화재조사관 개개인의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재조사관은 발화요인에 대한 기초이론 및 실제 현장에 접목이 가능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전문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화재조사관이 조사한 화재정보는 화재통계를 통해서 화재예방 정책자료로 환류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발화열원 및 발화요인 등의 소분류를 통해 예방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장소 유형, 소방시설 작동 유무, 인명피해 현황 등 다양한 수집 정보를 통해 화재안전 조사를 실시하거나 유형별 효율적인 현장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소방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제품은 국가화재 분류 코드에서 분류하는 발화관련기기에 해당한다.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빛에너지 등 다양한 방식의 제품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정상적인 에

너지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고장이나 사고 등 비정상적인 상태의 에너지는 다양한 발화열원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었다.⁵⁾

2) 화재조사관 교육

화재조사관과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시험과목은 [표 1]과 같이 과목명이 일부 상이하나 과목별 주요항목을 비교해 보면 유사하다. 그러나 화재감식평가기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보험회사나 연구원, 기업 등 민간 화재조사관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의 화재조사 업무 수행자가 함께 응시하는 국가 기술자격으로 법과학 분야나 민사나 화재 분쟁 등 관련 법규 등이 추가되어 있다. 최근 5년 사이 화재감식평가기사 및 산업기사의 응시율이 212.5% 증가한 것으로 보아 화재조사 분야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되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화재조사관 관련 자격 시험과목

시험 명	구 분	시험 과목
화재 조사관	제1차 시험과목 (선택형)	화재조사론(화재조사 관련 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 진행 요령, 조사서류 작성)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판정)
	제2차 시험과목 (논문형)	화재감식학(구조물·전기·가스·차량·화학물질화재 및 미소화원감식)
		화재조사실무(현장감식, 발화기기별 감식, 기자재 사용법)

5) 이순호,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소방관서 화재조사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3-36쪽.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제1차 시험과목 (객관식)	화재조사론 (화재조사개론, 연소론, 화재론, 폭발론, 예비조사, 발화 지역 판정, 발화개소 판정, 화재현장 상황파악 및 현장보존)
		화재감식론 (발화원인 판정, 전기화재 감식, 가스화재 감식, 화학물질 화재감식, 미소화원 화재감식, 방화화재 감식, 차량화재 감식, 임야화재 감식, 선박·항공기 화재감식)
		증거물관리 및 법과학 (증거의 종류, 증거물 수집·운송·저장·보관·검사, 촬영·녹화·녹음, 화재와 법과학)
		화재조사관계법규 (관계법령, 관련규정, 기타법률, 화재수사 실무관련 규정, 화재 민사분쟁관련법규, 화재분쟁의 소송 외적 해결관련 법규)
	제2차 시험과목 (필답식)	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 (화재조사 서류 작성, 화재피해액 산정)
		화재감식 실무 (화재상황, 예비조사, 발화지역 판정, 발화개소 판정, 증거물 관리 및 검사, 발화원인 판정 및 피해평가, 사고대응조치)

민간 화재조사 영역 확대는 향후 민간 조사단 또는 화재 관련 법정에서 발화지점 검토, 화재조사 원인 결정 등으로 작성된 화재발생보고서의 논리성, 과학성, 전문성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방의 화재조사 목적이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라고는 하나 현재 법원 및 민원인 등에게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화재발생보고서가 외부로 공개되는 만큼 이를 작성하는 화재조사관의 전문역량을 키워 화재조사보고서의 전문성, 논리성 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은 높다 할 것이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보통은 중앙소방학교 및 시·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에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은 보통 24 ~ 140차 시의 원격교육과 8주간(280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교육훈련 과목은 전문 역량을 갖춘 화재조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교육 관련 근거를 표 2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이수시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습 교육의 경우 대부분 견학 및 관서 실습(25.8%), 과제 연구발표(5.8%)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전문적인 화재조사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론 중심의 과정보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⁶⁾ 화재현장 감식 및 원인 규명에 필요한 구체적인 유형별 참여형 실습과정 및 전문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⁷⁾

[표 2]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교육훈련 과목(2022년도 기준 교육시간)

구 분		교육훈련 과목 (교육시간 : 총 259h)
화재 조사관 양성 교육 (영 제6조 제1항 제1호)	소양 (9h)	국정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담기법 등
	전문 (130h)	기초화학, 기초전기, 구조물과 화재, 화재조사 관계법령, 화재학, 화재패턴, 화재조사방법론, 보고서 작성법, 화재피해금액 산정, 발화지점 판정, 전기화재감식, 화학화재감식, 가스화재감식, 폭발화재감식, 차량화재감식, 미소화원감식, 방화화재감식, 증거물수집보존, 화재모델링, 범죄심리학, 법과학(의학), 방·실화수사, 조사와 법적문제, 소방시설조사, 촬영기법, 법적증언기법, 형사소송의 기본절차
	실습 (104h)	화재조사실습(22h), 현장실습(67h), 사례연구 및 발표(15h)
	행정 (16h)	입교식, 과정소개, 평가, 교육효과측정, 수료식 등

3) 미국의 화재조사관 교육

미국의 소방청은 지원서비스국, 국립화재프로그램국, 국가도시조사·구조대응시스템국, 국립화재자료실, 국립소방학교, 위기관리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국립소방학교는 주(州)와 지역 소방 교육기관, 지역 대학과

6) 권현석, 「소방의 화재조사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이 조직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27쪽.

7) 이명호, 「화재조사 직무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화재조사 직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09쪽.

협력하여 표 3과 같이 기초화학, 건축물 구조, 화재안전, 화재원인 판단, 화재역학, 화재 현장 재구성, 증거 수집, 전문가 증언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를 위해 대면 교육 9주, 대학원 수준인 대학 과정, 응용프로그램에서 전문지식을 입증, 과학 저널에 논문 발표 등 2년에 걸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⁸⁾

[표 3] 국립소방학교 화재조사 교육과정

과 정 명	차수(시간)
화재조사 : 최초 대응자(F0770)	2일(캠퍼스)
화재조사 : 최초 대응자(O0770)	2일(캠퍼스)
화재조사 : 최초 대응자(S0770)	2일(온라인)
화재조사 : 최초 대응자(W0770)	2일(캠퍼스)
화재조사 : 법의학 인터뷰 및 증거(R0780)	6일(캠퍼스)
화재조사 : 사건 준비 및 증언(R0790)	6일(캠퍼스)
화재조사 : 전기 시스템(R0776)	6일(캠퍼스)
화재조사 : 필수 사항(R0772)	10일(캠퍼스)

미국 화재조사 체계는 주(州)마다 특성에 맞는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현장의 조사와 수사 권한은 각 주(州)의 소방본부장에게 우선 주어지고, 다시 소방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각 소방서의 소방서장은 화재, 방화, 폭발 등 현장에 대해 위임받은 수사권 한으로 화재수사관(Fire Marshal)을 통해 행사하고 있으며, 2 ~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화재수사팀(Fire Investigation Team)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된 화재수사관은 화재발생 원인, 피해조사 뿐만 아니라 방화 등의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확인되거나 방화범 등을

8) 김경호, 「NFPA 921에 의한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 방안」,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22쪽.

검거하면 경찰관에 인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있다.⁹⁾

4) 일본의 화재조사관 교육

일본의 화재조사는 「소방법」 제7장제31조에는 소방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화활동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화재의 원인 및 화재, 피해조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화재조사과에서 화재조사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전문적으로 습득시키는 동시에 교육 지도자 등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화재조사개론, 연소이론, 화재조사 현장운영 및 감식요령, 모의 가옥조사실습, 소송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화재조사 교육기법 및 강의연습을 통해 화재조사관 교수자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지도자 수강 자격기준은 상한 연령을 45세로 두고, 소방관장 이상의 계급으로 화재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소방학교에서 화재조사 전과교육을 수강하고 화재조사업무 실무경험이 3년 이상, 화재원인판정서 작성 실적이 5건 이상인 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¹¹⁾

소방학교는 도·도·부·현 47개소와 지정도시 8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소방학교마다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인 예로 사이타마현에 설치된 소방학교는 신입교육, 전문교육, 간부교육, 특수교육 등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전문교육으로 화재조사과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은 소방대학교에서 화재조사과 교육을 수료한 강사진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소방학교 화재조사과 교육은 화재조사 업무를 하고 있거나 예정자를

9) 박미경, 「화재조사체계의 국내외 비교연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29-30쪽.

10) 남현우,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48쪽.

11) 박미경, 위의 논문, 35쪽.

대상으로 10일간 70시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인조사개론, 원인조사 관계법규, 조사서류 작성요령, 사진촬영 요령, 전기화재, 자동차화재, 가스화재, 소송사례, 손해조사요령, 대형화재 원인조사, 특이화재 사례, 감식·감정 요령 등이 있다.¹²⁾

5) 선행연구 분석

화재조사관 교육 중 참여식 교육은 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사례연구 등으로 편성되어 전체 교육시간 중 약 16%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론식 위주의 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조사업무가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활동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¹³⁾

화재조사 교육훈련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 소방학교의 교과목을 분석한바 강의식과 참여식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식 교육의 비중이 낮으며, 그나마 실기실습이 아니라 거의 사례연구나 자기학습을 참여식으로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주요 화재사례를 분석하여 토론을 통한 조사능력 향상과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된다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일정 기간 화재조사를 수행한 조사자에 대하여 마스터 과정 등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조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프로그램 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¹⁵⁾

선행연구를 통해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실습 과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실무교육을 통해 현장과 바로 이어질 수

12) 이대혁, 앞의 논문, 59쪽.

13) 이명호, 앞의 논문, 32쪽.

14) 손은수, 「화재조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2쪽.

15) 김종진, 「화재조사요원 전문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65쪽.

있고 주요 화재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실습교과목을 세분화시키고,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현장실습 및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자기주도식 학습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연구의 대상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화재조사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화재조사 교육에 대해 설문하여 화재조사 교육체계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후 설문조사를 하여 교육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매년 40여 명의 화재조사관을 육성한 경기도 소방학교는 8주의 양성과정과 전기안전교육원이나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등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실험군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실험군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2023년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의 교육 운영체계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42명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을 이수한 실험군은 화재조사 교육만을 경험한 인원들로 개선된 교육과정의 추가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실험군은 2023년 4월 2일 ~ 5월 26일까지 운영한 2023년도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42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설문하여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교육 전인 3월 24일 ~ 30일(1주)와 교육 후인 5월 26일 ~ 6월 1일(1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42명이 응답하여 회수율 100%를 나타내었다.

2) 교육설계와 방법

실험군에게 실시한 2023년도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교육은 화재조사 실무 위한 기초 및 전문과목(148h), 유형별 화재 실습과 현장적용을 위한 실습(97h), 소양(14h), 행정(16h)으로 총 275시간을 구성하였으며, 참여형 실습 과목은 표 4와 같이 편성, 운영하였다. 화재조사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이론 과목을 교육 초기에 편성하였고, 이론적 이해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화재 실무와 연계되는 참여형 실습과목을 연결지었으며, 현장 적용 및 응용력 향상을 위해 관서 동행실습을 이후에 편성, 운영하였다.

2022년도와 비교하여 동행실습을 1주로 줄이면서 전기화재 및 미소화원, 자동차, 화학, 리콜 등 화재 유형별 참여형 실습과목을 20시간으로 재편성하였다. 참여형 실습과정은 교육생 참여율 증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개 조로 나눠 동일 실습을 2회 운영하였다.

참여형 실습과목의 구성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화재 유형으로 결정하였으며, 화재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화재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화재 실습을 참여하는 과목별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고, 실습에 필요한 조별 교보재도 준비하였다.

[표 4]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참여형 실습과목의 개선 전·후 비교

교육연도	방식	분야별 항목(시간 / %)				
		합계	소양	전문	실습	행정
2023년도	합계	275	14(5.1)	148(53.8)	97(35.3)	16(5.8)
	참여형 실습 과목	화재조사 동행실습(35h), 동행실습 과제 발표(13h), 전기화재 실습(7h), 미소화원 실습(3h), 자동차 화재 실습(4h), 화학화재 실습(3h), 리콜제품 감식절차의 이해(3h), 화재조사 기관 견학(25h), 보고서 작성실무(4h)				
2022년도	합계	259	9(3.5)	130(50.2)	104(40.1)	16(6.2)
	참여형 실습 과목	화재조사 동행실습(56h), 동행실습 과제 발표(12h), 감식·감정 장비 사용법(4h), 화재 재연실습(7h), 발화기기별 감식(7h), 현장 답사(4h), 화재조사 기관 방문(7h), 화재모델링(4h), 화재보고서 작성(3h)				

3) 인구사회학적 배경

실험군의 응답자는 2023년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에 입교한 42명이며,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5와 같다.

여성 소방공무원의 채용이 많아지고 소방 조직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면서 화재조사 분야로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화재조사의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재 현장의 경험과 전문분야별 연찬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조사관 실무자가 소방위 이하 계급 체계인 점을 고려할 때 연령 및 재직기간의 비율과 같이 교육생 선발 시 계급 제한을 두는 것이 향후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인구사회학적 배경

내 용	분 류	응답자수(명)	비 율(%)
성 별	① 남자	34	81.0
	② 여자	8	19.0
	합 계	42	100.0
나 이	① 20 ~ 30세 미만	5	11.9
	② 30 ~ 40세 미만	29	69.0
	③ 40 ~ 50세 미만	8	19.0
재직기간	① 1년 미만	2	4.8
	② 1 ~ 3년 미만	10	23.8
	③ 3 ~ 5년 미만	9	21.4
	④ 5 ~ 10년 미만	13	31.0
	⑤ 10년 이상	8	19.0
계 급	① 소방사	13	31.0
	② 소방교	19	45.2
	③ 소방장	8	19.0
	④ 소방위	2	4.8
학 력	① 고졸 이하	7	16.7
	② 전문대 졸	11	26.2
	③ 4년제 졸	23	54.8
	④ 석사학위 이상	1	2.4

4. 연구의 결과분석

1) 교육설계 분야 분석

교육을 통한 교육설계 분야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화재조사관 양성 과정 교육을 하기 전과 후의 설문을 분석하였다(표 6) 참조).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의 교육목표 적정성에 관한 설문의 평균이 교육 전 4.07에서 교육 후 4.40으로 0.33이 높아졌다. 교육을 통해 교육목표가 적정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교육편성과 화재조사 직무수행 관련성 설문에는 교육 전 4.36에서 4.52로 향상되었다. 편성된 교과목이 발화원인 및 발화지점 감식 등 현장에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였다고 분석된다.

편성된 교육과정 중 이론의 필요성 설문에는 교육 전 평균이 3.98로 나타났다으나 교육 이후 4.5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이론 교과목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강한 상황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및 실무 이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화재조사 분야는 기초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화재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한다는 개념이 교육생에게 정립된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어 유의미한 통계라 할 수 있다.

참여형 실습의 필요성 설문에 대한 답변의 평균이 교육 전 4.38에서 교육 후 4.50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관서 현장실습에 대한 필요성 설문에는 교육 전 4.14에서 교육 후 4.1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육설계 분야에서 참여형 실습과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교육 후 그 기대치에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교육설계 분야

변 수	교육 전		교육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목표	4.07	.677	4.40	.701
교과 편성	4.36	.656	4.52	.634
이론 필요성	3.98	.715	4.57	.590
참여형 실습	4.38	.697	4.50	.634
관서 현장실습	4.14	.814	4.19	.773

2) 교육개발 분야 분석

교육개발 분야는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에 편성된 교육과정의 적정성과 현업에 활용하는 정도, 교육과정별 편성 적정성 등에 대해 교육 전과 후로 구분하여 설문을 분석하였다([표 7] 참조).

2023년도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적정성을 묻는 설문에서 평균은 4.02에서 4.19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초 및 실무이론, 참여형 실습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교과목 편성 적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2023년도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에 편성된 교육과정이 적정하다는 유의미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업 활용도를 묻는 설문에는 평균이 4.31에서 4.33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화재조사 분야를 경험하지 못한 교육생의 경우 다양한 기초 및 실무이론을 접하면서 관련 분야의 필요성이나 이해도가 낮아 부정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타 분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식이 본 설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화재조사 분야의 기초이론 편성에 대한 적정성 설문에는 평균 4.12에서 교육 후 4.29로 상승하였다. 또한, 실무이론 교과목 편성의 적정성을 묻는 설문에서도 4.19에서 교육 후 4.33으로 상승하여 유사한 증가 추세를 나타

내었다. 교육을 이수하면서 화재조사 분야의 전반적인 이해력이 높아지고, 전문분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정성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형 실습은 화학화재, 전기화재, 자동차화재, 미소화원화재로 분류하여 교육하였으며, 화학화재의 적성성 질문에는 평균이 4.45에서 4.74로 상승하였다. 교육 후 긍정적인 답변 평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형 실습의 분야별 교과목 편성에 대한 적정성 설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초 및 실무이론에서 습득한 지식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직접 실습하면서 해소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참여형 실습의 교육 편성 적정성에 높은 긍정적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아주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주일간 실시된 관서 현장실습의 편성 적성성 설문에는 평균이 4.05에서 4.24로 상승하였다. 화재조사 경험이 없는 교육생에게 관서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전반적인 경험을 하고 화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접 체험하는 것은 화재조사 업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 타기관 견학에 대한 적정성 설문에서는 평균이 4.00에서 3.86으로 하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화재조사 관련 타기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견학을 실시하게 된 배경 설명 부족과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견학 프로그램의 미비한 점 등이 하강 요인으로 지적된다.

[표 7] 교육개발 분야

변 수	교육 전		교육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과 편성	4.02	.643	4.19	.594
현업 활용도	4.31	.604	4.33	.687
기초이론	4.12	.593	4.29	.636
실무이론	4.19	.594	4.33	.650

참여형 실습	4.45	.633	4.74	.497
관서 현장실습	4.05	.697	4.24	.692
타기관 견학	4.00	.826	3.86	.773

3) 교육만족도 분야 분석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후의 교육만족도를 설문하였다. 교육 전 설문은 각 항목별 기대 및 열의 정도, 기본 지식 보유 정도를 묻는 설문으로 구성하였고, 교육 후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표 8과 같다.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교육 전 교육목표를 달성에 대한 설문에서 평균이 4.10에서 4.19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갖고 교육받았으며, 교육 후에도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달성 만족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전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의 관심과 업무수행 열의 정도를 묻는 학습동기에 대한 설문에서 평균이 4.29이고, 교육 후 평균이 4.36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화재조사 분야의 관심도나 업무수행 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기초이론 교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서 평균이 2.90에서 4.19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많은 과정의 기초이론 교육을 이수하면서 화재조사 분야에 필요한 기초이론이 일정 수준 상승하였으며, 교육생 스스로의 평가에서도 기초이론이 정립되었다는 유의미한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생에게 기초이론 교육방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이론 교과목에 대한 지식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평균은 2.71에서 4.24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화재조사 관련 실무이론 지식을 일

반적으로 습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조사 전반에 대한 실무지식이 습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형 실습 중 화학화재 실습에 대한 지식 정도를 묻는 설문의 평균이 2.52에서 4.24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학분야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소방공무원에게도 평소 지식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나 본 화학화재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습득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참여형 실습 중 전기화재 실습의 교육에 관한 설문의 평균이 2.62에서 4.67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재와 관련된 전기실습의 특성상 안전에 크게 주의하며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의 실습으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화재의 실습 설문에서 평균이 2.48에서 4.52로 크게 향상되었다. 자동차화재는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도 많이 어려워하는 분야로 집약된 공간 내에서 해석해야 할 범위가 넓은 특성이 있다. 교육생들도 교육 후에 자동차화재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소화원화재 실습에 대한 설문에서 평균이 2.57에서 4.60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재 현장에서 감식을 통해 축소된 발화지점에서 발화를 일으킨 열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소화원은 담배꽂초, 향초, 모기향불 등 다양한 열원에 대해 주변 환경조건에 따라 발화 가능성을 실습을 통해 입증하는 과정으로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관서 현장실습에 대한 절차와 평가방식의 이해도를 묻는 설문에서 평균이 3.57에서 4.10으로 증가하였다. 관서 현장실습은 화재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과목이다.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교육

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교육을 통해 화재조사와 관련된 기관을 4개소 방문, 견학하였다. 타 기관을 방문하는 견학실습의 이해를 묻는 설문에서 평균이 3.88에서 3.95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보아 타기관 방문, 견학에 대한 과정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견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감식 시 기관 특성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관 견학은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될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조사관 교육 내용이 화재조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문에서 평균이 4.29에서 4.31로 증가하였다. 이는 화재조사관 교과 편성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8] 교육 만족도

변 수	교육 전		교육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목표	4.10	.576	4.19	.594
학습동기	4.29	.708	4.36	.821
기초이론	2.90	.983	4.19	.773
실무이론	2.71	1.019	4.24	.692
화학화재 실습	2.52	1.018	4.24	.692
전기화재 실습	2.62	.962	4.67	.570
자동차화재 실습	2.48	.943	4.52	.627
미소화원 실습	2.57	.941	4.60	.627
관서 현장실습	3.57	.941	4.10	.692
타기관 견학	3.88	.670	3.95	.962
현업 활용도	4.29	.554	4.31	.643

4) 소결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교육생 실험군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화지점 및 발화요인 등을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실습할 수 있는 교육생이 주도하는 참여형 실습 교과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화재조사관이 어려워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형 실습 교과목을 세분화하여 화학화재, 전기화재, 자동차화재, 미소화원화재로 분류하여 과정을 운영하였다. 셋째,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 실무 교과목에 적정하다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초이론 강의보다 실무이론 강의에 배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기초이론 교과목에서 가장 높은 적정성 및 만족도로 분석된 외부강사는 전문분야별 대학교수와 연구소의 연구원, 전문강사를 활용, 운영하였다. 또한, 증거물 감정, 재현실험 등 화재조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인력의 전임교수를 실무이론 및 참여형 실습 교과목 교수자로 배치, 강의하도록 하였다. 넷째, 화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사용법, 이론 강의에서 실물 교보재 활용,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측장비 등을 사용하여 교육생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운영하였다.

실험군은 개선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교육생 42명을 대상으로 교육설계, 교육개발, 교육방식, 교육환경 분야와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실험군은 대부분이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해보지 않았고, 화재조사 관련 자격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이다. 실험군은 화재조사 교육만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로 차별화시켰으며, 유의미한 통계자료라 할 수 있다.

5. 결론

화재조사 분야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일부가 아닌 모든 시·도 소방학교와 화재조사 담당 부

서, 유관기관 화재조사 담당자에서 일관된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화재조사 교육체계 개편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 분야의 전문 교수진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 학위, 세부전공, 경력 등 기준으로 각 시·도의 전문 교수진 인력풀을 구성, 활용한다. 또한, 화재조사 강사훈련 프로그램을 실무 및 실습 중심 교육으로 개발하여 전문 교수진을 재교육 및 확보하여 각 시·도의 화재조사 교육프로그램에 전문 교수진으로 활용한다.¹⁶⁾¹⁷⁾

둘째,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에 활용되는 공통교재는 전공이론 등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어 교육생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화재조사관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과 전문 분야(화학, 전기, 자동차, 화재학 등)에 따라 공통교재와 실습교재, 교보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각 시도에서 표준화된 교육을 하기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공통교재를 화재조사 기술기준(안)으로 확대, 개발하기 위한 초석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¹⁸⁾

셋째, 소방과 유사한 근무 및 업무 특성을 갖는 직군에서는 전문교육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초이론 과목을 관련 있는 실무이론 과목과 연계하여 함께 개설하고, 기초와 실무이론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양방향식 참여형 실습 교과목으로 검증하도록 하여 실무 중심 교육방식이 이루어지도록 응용할 수 있다.¹⁹⁾

16) 최돈목·인세진·이창우·박창우, 「화재조사자의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1권 4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 72-80쪽.

17) 한상대, 「화재조사 감식 업무의 개선방안」, 『한국화재감식학회 논문지』 1권 1호, 한국화재감식학회, 2009, 38-43쪽.

18) 고기봉·이시영, 「화재조사전문교육 및 자격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3권 5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 32-42쪽.

19) 최석우·최지훈·최돈목, 「국내 화재조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

넷째, 소방의 화재조사와 목적이 다르지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과학수사 분야,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감식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관기관별 교육프로그램에 상호 참여하여 교육체계를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방의 화재현장 감식 및 참여형 실습 교과목 등의 개발, 확대를 통해 타 기관에서 습득하기 힘든 내용을 교육하면서 기관 간 이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 협업력을 키워 신뢰받는 화재조사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⁰⁾

다섯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실무적, 법적, 정책적 제언은 복잡, 다양한 화재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화재조사관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화재조사 분야의 향후 발전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일부 시·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소방청 및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 화재조사 담당 부서, 유관기관이 서로 협업하고 논의하며,²¹⁾ 구체화하였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²²⁾

끝으로 각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에서도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분야별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화재증거물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감정기관은 감정 전문인력과 장비, 시설이 확보되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인프라를 화재조사 분야 교육에 활용한다면 지금의 교육체계 보다 많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각 시·도의 화재조사 분야 교육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 연구

재학회논문집』 17권 5호, 한국방재학회, 2017, 186쪽.

20) 이명호, 앞의 논문, 109쪽.

21) 이규호, 「화재예방 3법의 주요내용 고찰: 소방의 화재조사법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63권 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33-40쪽.

22) 이종인·최돈목, 「효율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5권 1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21, 110쪽.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청에서 지정한 화재감정기관의 감정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화재조사 분야 교육에 활용할 경우 교육효과와 교육 범위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참고 문헌

- 고기봉, 「소방의 화재조사전문화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5쪽.
- 고기봉·이시영, 「화재조사전문교육 및 자격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3권 5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 32-42쪽.
- 권현석, 「소방의 화재조사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이 조직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7쪽.
- 김경호, 「NFPA 921에 의한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 방안」,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22쪽.
- 김선재·강민혁·우승우·민준성·김태훈,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최첨단 화재조사 기법」,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8권 2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24 56-61쪽.
- 김종진, 「화재조사요원 전문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65쪽.
- 남현우,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48쪽.
- 박미경, 「화재조사체계의 국내외 비교연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29-35쪽.
- 손은수, 「화재조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2쪽.
- 이규호, 「화재예방 3법의 주요내용 고찰 : 소방의 화재조사법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63권 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33-40쪽.
- 이대혁, 「우리나라 화재조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59쪽.
- 이명호, 「화재조사 직무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32쪽.

- 이순호,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소방관서 화재조사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3-36쪽.
- 정진항, 「화재조사관의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23쪽.
- 최돈목·인세진·이창우·박창우, 「화재조사자의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1권 4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 72-80쪽.
- 최석우·최지훈·최돈목, 「국내 화재조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7권 5호, 한국방재학회, 2017, 186쪽.
- 한상대, 「화재조사 감식 업무의 개선방안」, 『한국화재감식학회 논문지』 1권 1호, 한국화재감식학회, 2009, 38-43쪽.
- 이종인·최돈목, 「효율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5권 1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21, 110쪽.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실시한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체계 및 만족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화재조사관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화재조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및 운영방식, 교수자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화재조사 교육체계 개편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 분야의 전문 교수진 확보를 위해서 각 시·도의 전문 교수진 인력풀을 구성, 활용한다. 둘째, 화재조사관 등급과 전문 분야에 따라 공통교재와 실습교재, 교보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기초이론 과목을 관련 있는 실무이론 과목과 연계하여 함께 개설한다. 넷째, 유관 기관별 교육프로그램에 상호 참여하여 교육체계를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화재조사, 화재조사관 교육, 참여교육, 실습교육, 유관기관 참여교육

■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raining for Fire Inspectors :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fire inspectors

Cho, Yong Sun / Gyeonggi-Do Fire Service Academy

Chae, Jin /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survey on the educational system, satisfaction level, and operation method of people who have completed the fire inspector training course conducted by Gyeonggi-do Fire Service Academy,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raining course for fire inspectors based on the results,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ducation system, operation method, and educational system to train professional fire investigato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necessar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system. First, in order to secure professional faculty in the field of firefighting, a labor pool of professional faculty members of each province shall be organized and utilized. Secondly, common textbooks, practical textbooks, and training aids will have to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grade and specialized field of fire inspectors. Thirdly, basic theory subject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related practical theory subject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for sharing the educational system by mutually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programs by the relevant agency.

**Keyword • Fire investigation, Training course for fire inspectors,
Participatory education, Field education, Participatory training
of related organizations**

■ 논문투고일:2024.04.30. ■ 심사완료일:2024.07.19. ■ 게재확정일:2024.07.22. ■

바로크 시대 역사주의 연주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현대적 재해석 및 재구성 기반의 교육적 접근

전 민 경*

목 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역사주의 연주 교육의 단계적 접근
4. 맺음말

1. 들어가며

바로크 시대(1600-1750)는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로,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George Frideric Handel, 1685-1759),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 등이 있다. 음악적으로 오늘날의 음악과 가까운 여러 특징이 확립된 이 시기에는 오페라의 탄생과 근대적인 조성 체계의 확립, 화성 음악의 기초 확립, 근대 관현악의 기초 확립, 바이올린의 보편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발전은 바로크 시

* 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학과 박사

대를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만들었다.¹⁾

역사주의 연주(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HIP)는 바로크 시대의 관습을 반영하여 당시의 음악 기풍에 맞춰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주 관습은 당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구성원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확립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습의 확립을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가 바로크 시대의 풍부한 음악 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역사주의 연주는 음악학적 연구와 실제 연주가 결합된 형태로, 음악 교육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²⁾ Mary Cyr(1992)의 저서인 『Performning Baroque Music』의 번역가 양승열은 이러한 음악의 관습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시대 및 지역의 음악적 심미기준(taste)을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³⁾ 그러나 음악 애호가와 전문 음악인들조차 이러한 연주 관습을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역사주의 연주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불확실한 배경지식과 더불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래 지속되어 온 관습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음악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역사주의 연주 교육은 학생들이 바로크 음악의 맥락과 형식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지속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향상된 음악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주의 연주는 단순한 연주 행위가 아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악적 표현의 깊이를 더하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교육적 방법론이다. 이러

1) 김경수,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다르다』, 한국문화사, 2008, 31쪽.

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https://music.snu.ac.kr/board/e-newsletter/view/10970>, 2024.06.10.

3) Mary Cyr, *Performing Baroque Music*, Amadeus Press, 2003, p.15.

한 교육 방식은 학문 간 통섭을 촉진하며, 음악 지식의 대중화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을 높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영국의 음악학자 로버트 도닝턴(Donington, Robert, 1907-1990)은 그의 저서 『Performer's Guide to Baroque Music』에서 현대의 연주자들이 바로크 작곡가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연주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모든 수준의 연주자가 역사적 정보에 기반한 역사주의 연주의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다.⁴⁾

이러한 역사주의 연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음악에 대한 깊은 감동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본 연구는 파리 국립 도서관과 브뤼셀 왕립 음악원이 보유한 《Carl Heinrich Graun의 플루트 소나타 D장조》의 사본을 중심으로 이음줄 표기와 꾸밈음 표기, 숫자 기보 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Musescore’⁵⁾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주의 연주(HIP) 기반의 음악교육의 가치를 탐구하였다.

가치를 탐구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역사적 자료 연구와 해석 단계에서 바로크 시대의 사본 악보와 문헌, 당시의 연주 관행을 설명한 이론적 자료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그 시대의 음악적 맥락과 표현 기법을 깊이 이해한다.

또한, 창의적 재해석의 교육적 활용 단계는 학생들이 파리 국립 도서관과 브뤼셀 왕립 음악원 사본의 차이점을 분석을 기반으로 ‘Musescore’

4) Donington. Robert, *Performer's Guide to Baroque Music*, Faber&Faber, 1982, pp.213-241.

5) 해당 프로그램의 활용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초보자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 학생들과 교육자 간의 악보 공유와 협업이 가능하여 교육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를 통해 악보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장식음과 다양한 연주기법의 즉각적인 실제 적용을 통해 기술적인 영역을 학습하고, 자신의 해석을 반영하는 능력을 기르며 음악적 표현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Fabian(2003)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이 단순한 존재 재현을 넘어 시대의 음악적 언어를 통해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부합한다.⁶⁾

본 연구는 음악교육의 가치와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자와 학습자, 연주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침이 된다. 이를 통해 시대적 배경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음악 해석 능력과 더불어, 연주자로서 지녀야 할 설득력있는 연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역사주의 연주의 개념과 의의

역사주의 연주는 음악 작품이 작곡된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특성과 연주 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연주로 재현하는 연주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을 대상으로 하며, 당시의 악기와 연주 기법을 통해 작곡자의 의도에 부합한 연주와 시대적 음향 특성의 전달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현대의 해석 및 연주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Lawson과 Stowell(2011)은 역사주의 연주가 단순히 옛날 방식을 재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시대의 음악적 사고와 미학적 가치를 현대에 되살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⁷⁾

6) Fabian Dorottya, *Bach Performance Practice, 1945-1975: A Comprehensive Review of Sound Recordings and Literature*, Routledge, 2003, pp.116-153.

7) Lawson Colin · Stowell Robin, *The Historical Performance of Music: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210-214.

이는 곧, 악기와 기법의 현대적 복원을 넘어서, 당시의 음악적 관습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역사주의 연주는 20세기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음악학자들과 소수의 연주자들이 이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당시의 연주 기록, 악보, 악기, 문헌 등을 철저히 연구하여 그 시대의 음악적 환경과 기법을 복원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연주자들은 작곡가가 의도한 음악적 표현과 해석을 재현하기 위해 바로크 시대의 악기인 하프시코드와 포르테피아노, 고전 시대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사용하여 연주하였다.⁸⁾

역사주의 연주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정격성(authenticity)은 특히 바로크 음악을 연주할 때 자주 고려된다.⁹⁾ 바로크 음악의 정격성 요소로는 장식음을 포함하여 빠르기와 셈여림, 음고 조율법, 통주저음, 아티큘레이션, 리듬 기보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의 활용은 당시의 음악적 특성을 재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장식음을 활용한 즉흥 연주가 중요시되었으며, 이는 연주자의 창의적인 해석이 요구되었다.

즉흥 연주는 연주자가 미리 준비된 악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당시 작곡가들은 큰 틀의 구성만을 담은 악보를 제공하고, 연주자가 자신의 연주 기법과 해석을 통해 즉흥적으로 음악을 완성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음악학자이자 하프시코드 연주자·오르가니스트인 David Fuller(1996)는 “17세기와 18세기에는 작곡가와 연주자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했으며, 이는 즉흥적이거나 미디어를 통해 직접 작곡되지 않은 모든 음악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언급하

8) Quantz, Johann Joachim, *On Playing the Flute*, 1752 ; Bach, Carl Philipp Emanuel, *Essay on the True Art of Playing Keyboard Instruments*, 1753, pp.147-168.

9) 정경영, 「음악학:새 길을 묻다:오래된 음악에 대한 새로운 논쟁-역사주의적 연주와 음악사 쓰기-」, 『음악학』 16권, 한국음악학학회, 2008, 33-50쪽.

며,¹⁰⁾ 즉흥연주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즉흥 기법은 단순한 변주부터 복잡한 장식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주의 연주는 이러한 창의적 재해석과 즉흥 연주를 장려하여, 현대 연주자들이 당시의 음악적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또한 Donington은 “바로크 시대의 이상은 연주자의 개성에 의존하여 간략하게 기보된 텍스트의 암시를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며,¹¹⁾ 콰츠(Quantz)는 바로크 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식음이 “좋은 연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로크 음악에서의 장식음은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닌, 음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연주자의 개성과 기술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연주자는 음악을 더욱 풍부하고 생동감있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¹²⁾

아티큘레이션 기호 역시 바로크 시대 작품의 악보에서는 부정확하거나 결여되어있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이에 콰츠는 아티큘레이션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음들에 ‘생명’을 주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연주자는 각 음들을 위해 정확한 연주기법의 사용과, 현악기의 경우는 ‘활쓰기’ 또는 목관과 금관악기의 경우는 ‘텅깅’을 통하여 음악에 생명(성격 또는 기풍 ‘spirit’)을 불어넣는 능력을 지녀야한다고 강조하며¹³⁾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리듬’은 부정확한 기보와 바로크 시대 음악에 대한 얕은 지식으로 인

10) Fuller David, *The Early Music Revival: A History*, Dover Publications, 1996, pp.89-94.

11) Donington Robert, *Performer's Guide to Baroque Music*, Faber&Faber, 1982, pp.213-241.

12) Quantz, Johann Joachim, *On Playing the Flute*, 1752.

13) 광동순·연상춘, 『요한 요아힘 크반츠 플루트 연주의 예술』,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2011, 154-290쪽.

해 혼란을 초래하며, 이는 잘못된 연주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이 진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시 된다.

이러한 역사주의 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올바른 해석과 더불어 창의적인 재구성은 전통과 음악을 다루는 데 궁극적인 지향점이 된다. 또한, 연주자는 청중에게 본질적인 음악의 의미를 전달하고 감동을 선사하며, 역사적 충실성과 함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2) 재해석과 재구성의 중요성

무한한 시간의 흐름에서 사물이 갖는 고유한 의미는 쉽게 희미해지고 왜곡되기 쉽다. 음악을 기록하는 매체인 악보에서도 기호들의 모양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수 세기에 걸쳐 의미가 변질되어왔다. 특정 시대와 지역, 또는 작곡가에 의해 쓰여진 음악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당연시되었던 요소들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악보 해석에 필요한 양식상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¹⁴⁾

역사적 문맥을 고려한 악보 해석은 음악적 해석의 깊이를 더하고, 연주자가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악보 편집자들은 최초의 자료를 거의 교정하지 않은 상태로 실기 때문에, 원래의 음가나 장식음 등의 기보 요소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편집자들의 제한적인 해석만을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원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전문 연주자들과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들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연구할 기회가 현저히 적다.¹⁵⁾ 연주자들과 학생들이 쉽고 자유롭게

14) Mary Cyr, op. cit., pp.62-86.

15) Jon Newsom · Alfred Mann, *The Rosaleen Moldenhauer Music History from*

최초의 자료들을 접하고, 편집자들의 기보법을 비교 분석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음악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필사본이나 최초 인쇄판에서 얻은 정보들은 연주자들에게 창의적 재해석과 재구성에 무한한 밑거름이 되며 이러한 접근은 연주자가 다양한 자료와 해석을 통해 음악의 다층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해석은 청중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며, 음악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해석 하는 과정은 작곡가 혹은 연주자가 새로운 통찰력을 활용하여 해석함으로써 곡의 보존과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접근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음악 작품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한다.

오늘날 클래식 음악은 다양한 형식으로 연주되며, 장르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해석이 탄생하고 있다. 타루스킨(Taruskin)은 음악 해석과 연주에 있어 창의적 재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주자가 음악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을 탐구하였다.¹⁶⁾ 또한, 니콜라스 쿡(Cook, 2016)은 그의 저서에서 음악을 연주로서 이해하는 접근법을 설명하며, 창의적 재해석과 음악의 지속적인 보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¹⁷⁾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해석을 뛰어넘어 현대적인 감각을 통해 음악 작품을 재구성하여 청중에게 더욱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 더불어 연주자들이 과거의 음악적 맥락을 이해하고 현대적인 감

Primary Sources: a Guide to the Moldenhauer Archives, Washington, 2000, pp.452-520.

16) Taruskin Richard, “*Text and Act: Essays on Music and Performance*”, Music Library Association, Second Series, vol. 53, no. 2, 1996, pp.419-423.

17) Cook Nicholas, *Beyond the Score: Music as Performance*, 2016, pp.303-325.

각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음악 교육과 연주에서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증진시킨다.

Fabian(2003)의 연구에서는 바로크 시기의 음악을 연주할 때, 당시의 연주 관습과 장식음, 템포, 셈여림 등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순한 악보의 재현을 넘어 그 시대의 음악적 언어를 체득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¹⁸⁾ 이는 곡의 빠르기와 조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감정 표현 방식을 통해 음악을 보다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또한, 곡의 의미를 세밀하게 해석하고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다.

역사주의 연주를 기반으로 한 재해석은 단순히 과거의 관습을 답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식과 기법을 현대적 문맥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음악적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접근은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생명력을 얻는 중요한 방법론의 역할을 한다. 또한 연주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청중에게는 더욱 깊이 있고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역사주의 연주 교육은 음악적 사고와 미학적 가치를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3. 역사주의 연주 교육의 단계적 접근

1) 역사적 자료 연구와 분석 접근법

역사주의 연주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역사적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해석이다. 이는 학생들이 바로크 시대의 연주 기법과 음악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서 이를 위한 단계별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 자료 연구는 당시의 악보와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하여 작곡가

18) Fabian Dorottya, op. cit., pp.116-153.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포함한다. 본 저자가 선정한 카를 하인리히 그라운(Carl Heinrich Graun, 1704-1759)은 독일 바로크와 초기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로, 오페라, 칸타타, 수난곡, 오라토리오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했다. 그의 작품은 바로크와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며, 이는 역사주의 연주 기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곡가에 대한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바로크 시대 초기 판본을 분석하여 당시의 기보법과 연주 관행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 개 이상의 초기 판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바로크 시대의 간략한 악보 기보법은 연주자가 많은 부분을 즉흥적으로 채워 넣어야 했기 때문에, 판본마다 다른 기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아르칸젤로 코렐리(Arcangelo Corelli)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5》의 다양한 판본을 비교하면, 각기 다른 장식음과 변주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로크 시대의 연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곡을 해석하고 연주했는지를 알 수 있다.¹⁹⁾

그라운이 활동했던 18세기 중반은 바로크 음악에서 고전주의 음악으로 전환되던 시기로,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바로크 음악은 복잡한 장식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며, 감정 표현과 극적인 요소가 강조된 반면, 고전주의 음악은 명료한 구조와 균형, 선명한 멜로디와 화성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의 음악은 이러한 두 시대의 특성을 결합하여 역사주의 연주에서 보다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그의 음악에서 고전주의 음악의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명확한 형식, 균형 잡힌 구조, 그리고 선명한 멜로디 라인이 특징이다. 이는 후에 하이든과 모차르트로 이어지는 고전주의 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19) Corelli Arcangelo, *Violin Sonatas, Op.5, Various Editions.:Original Edition, 1700; Roger Edition, 1710.*

악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화성과 리듬 구조를 분석하여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라운의 곡은 대위법과 화성이 여전히 바로크 음악의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보다 단순하고 명료한 화성 진행을 선호했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주의 연주는 당시의 화성 이론과 실습을 이해하고 화성적 특징을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그의 곡에서는 다양한 악기 편성을 활용하여 색채감과 음향적 다양성을 추구했다. 특히,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악기 편성을 정확히 재현하고 당시의 악기 배치와 음향 효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작곡가가 의도했던 음악적 색채와 분위기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다양한 출처의 악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출처에 따른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연주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소나타의 비교 분석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 양식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학생들이 역사적 연주 관행을 현대적인 해석과 결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본 저자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성이 반영된 《GraunWV Cv:XVII:75 플루트 소나타 D장조》를 선정했다. 파리 국립 도서관과 브뤼셀 왕립음악원에 소장된 주요 사본을 체택하였으며, 아티큘레이션, 이음줄, 리듬 및 음표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리듬 패턴, 장식음, 음표 해석, 박자 변화 등을 학습하며 음악적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시의 연주 관행과 기법을 이해하고,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재해석과 재구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발전시킬 수 있다.

2) 자료 연구와 분석 접근법의 활용

각 출처에 대한 악보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보된 기호가 실

제로 작곡가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작곡가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면, 그 기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사본에 기보된 사항들이 편집자의 제안 사항일 수 있으며, 이는 작곡가의 본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호들은 박자의 빠르기, 악기의 종류, 그리고 특정 연주의 맥락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채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연주자는 작곡가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자신의 창의적 해석을 더해 더욱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며 교육적 활용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장식음의 활용에 대한 기보 분석은 당시 여러 작곡가마다 즐겨 사용했던 장식음 패턴과 시대적 음악 흐름을 파악하여 올바른 표현 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연주 관행과 관련된 문헌을 참고한다. 예를 들어, J.J. Quantz(1697-1773)의 『On Playing the Flute』와 C.P.E. Bach(1714-1788)의 『Essay on the True Art of Playing Keyboard Instruments』 같은 문헌은 바로크 시대의 연주 기법과 관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문헌들은 악보에 나타나지 않은 즉흥 연주와 장식음의 사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연주자들이 그 시대의 음악을 보다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 연구 접근법의 활용을 통해 곡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한다.

다음 [표 1]과 같이 파리 국립 도서관과 브뤼셀 왕립 음악원에 소장된 두 사본은 각각 출처와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작곡가 명시, 페이지 수, 원고 사본의 물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표 1] 파리 국립 도서관과 브뤼셀 왕립 음악원 출처 사본의 세부사항

구분	파리 국립 도서관	브뤼셀 왕립 음악원
출 처	파리 국립 도서관, 음악 (D-5063)	브뤼셀 왕립 음악원 (B-Bc)
RISM 번호	840017586	702001761
분 류	플루트와 통주저음 (fl, b)	플루트와 통주저음 (fl, b)
키워드	소나타, 통주저음 작품	소나타, 통주저음 작품
범 주	GraunWV, Cv:XVII:75	GraunWV, Cv:XVII:75
작곡가/ 공동작곡	요한 고틀리브 그라운 (Johann Gottlieb Graun, 1702c-1771)	칼 하인리히 그라운 (Carl Heinrich Graun)
제 목	소나타, 플루트 솔로, 그라운 작품 Sonata. Flauto solo. Del Sig.r Graun	D장조 플루트 소나타 Flute Sonata in D Major
설 명	악보, 5페이지	악보, 8페이지
원고 사본	[1730-1780]; 워터마크: K B : 25x34cm	워터마크 없음; 35x22cm

작곡가 명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파리 국립 도서관의 사본에는 요한 고틀리브 그라운(Johann Gottlieb Graun, 1702-1771)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브뤼셀 왕립 음악원의 사본에는 칼 하인리히 그라운(Carl Heinrich Graun)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두 형제가 각각의 작품을 작곡한 것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한 고틀리브 그라운과 칼 하인리히 그라운은 모두 18세기 독일의 저명한 작곡가로, 이들의 작품이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Christopher Henzel(2006)의 저서에 따르면, 두 형제의 작품이 필사본에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해냈고 <WV Catalogue>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며, 작곡가의 명확한 식별을 위한 지침을 언급하고 있다.²⁰⁾

20) Christoph Henzel, *Graun-Werkerzeichnis: Register*, Ortus Musikverlag, 2006, pp.152-160.

둘째, 후대의 필사자가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사 과정에서 오류나, 필사자가 작곡가를 혼동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명시 차이는 당대와 후대의 음악 기록 및 필사 관행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학문적 연구와 음악 연주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차이와 더불어 각 출처의 사본에 대한 기보법을 분석한다. 파리 국립 도서관 사본은 섬세한 장식음과 다양한 아티클레이션 기법이 풍부하게 기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본에서는 트릴과 같은 장식음이 자주 나타나며, 이는 연주자가 보다 정교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아티클레이션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악보를 보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세부적인 이음줄 표시로 인해 연주자가 음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보는 연주자가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브뤼셀 왕립 음악원 사본은 간결한 리듬 패턴과 명확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 사본에서는 16분음표와 8분음표의 단순한 리듬 조합이 주로 나타나며, 이는 명확한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간결한 리듬 패턴으로 인해 연주자가 보다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전체적인 리듬과 구조가 간결하게 기보되어 있어 연주자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용이하다. 이음줄과 꾸밈음이 단순하게 기보되어 있어 연주의 명확성을 높이며 연주자의 창의적인 해석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 두 사본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악보를 제작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존의 사본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시대적 음악 기법의 특징에 기반한 작곡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현대의 창의적 해석을 반영한 새로운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3) 재해석과 재구성의 교육적 활용

바로크 시대 음악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

는 방법은 학생들의 음악적 기술과 이해를 심화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리듬 패턴, 장식음, 음표 해석, 박자 변화, 프레이징, 빠르기 설정, 다이내믹, 화성 분석, 바소 콘티누오(통주저음) 연주, 이음줄 사용, 악기 특성 이해, 연주 기법, 즉흥 연주, 악보 해석, 역사적 맥락 이해 등 다양한 기법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실내악의 경우, 한 연주자의 장식음 활용에 따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식음을 연구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적 조화를 이루며, 협업을 통해 연주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다양한 장식음을 실제 연주에 적용해보며, 서로의 해석을 비교해보고 분석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발전시킬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연주자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상호작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그라운의 소나타 곡에는 총 3 개의 악장이 있으며 각 'Adagio', 'Allegro', 'Un Poco Cantabile' 로 구성되어 있다. 'Adagio' 악장은 느리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통해 감정 표현과 프레이징(악구)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며, 'Allegro' 악장은 빠른 리듬과 복잡한 구조를 통해 연주 기술과 리듬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두 악장은 상반된 분위기와 연주 기술을 요구하여, 다양한 연주 기법과 해석을 실습할 수 있으며 플루트와 바소 콘티누오(통주저음)의 상호작용을 통해 바로크 시대의 화성과 리듬 구조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리듬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리듬감과 더불어 곡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연주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 작곡 및 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Musescor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두 사본의 음표, 리듬, 아티큘레이션 및 이음줄을 정확하게 기보하고 시각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본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차이점

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재구성을 위한 즉각적인 반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악보를 작성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Musescore’는 이러한 창작 과정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두 출처에 대한 악보 분석 및 제작 결과는 [그림 1], [그림 2]에 제시되었으며, 주요 분석 방법과 기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티큘레이션과 뉘앙스 부분에서는 파리 원고 사본에 있는 요소들을 괄호()로 제안한다. 이는 원본에 충실하면서도 연주자에게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연주자는 원본에 있는 정보를 참고하면서도 파리 원고 사본의 해석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이음줄 표기에서는 개인적인 제안이나 출처 A를 기반으로 추가된 이음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이는 기존 사본에 없는 이음줄을 추가할 때, 원본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이음줄은 원본과의 구별을 쉽게 하여, 연주자가 해석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꾸밈음 표기에서는 출처 A를 기반으로 추가된 꾸밈음을 괄호()로 표시한다. 원본에 없는 꾸밈음을 추가할 때, 출처 A를 기반으로 연주자가 이를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주자는 보다 풍부한 장식음을 활용할 수 있으며, 원본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넷째, 숫자 기보 표기에서는 출처 A를 기반으로 추가된 숫자 기보를 괄호()로 표시한다. 바로크 음악에서 중요한 통주저음(basso continuo) 표기법에 따라, 원본에 없는 숫자 기보를 추가하여 연주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부분에서 화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6’이 추가된 경우 이를 (6)으로 표기하여 연주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플루트와 함

게 연주되는 바소 콘티누오의 화성 진행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음악 해석의 기초적인 요소이며 곡의 뚜렷한 형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저음부 화성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은 화성의 구조와 진행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곡의 화성적 기반을 연주에 반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 즉흥 연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연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화성 분석은 학생들에게 음악의 이론적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실질적인 연주에 적용하여 더욱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통주저음의 화성 진행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루트가 적절한 다이내믹과 아티큘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화성 진행을 분석함으로써 바로크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시대의 화성적 특징도 이해하게 된다.

다섯째, 수정 사항 표기에서는 중복된 부분을 암묵적으로 삭제하고, 편집상의 수정은 괄호 안에 표시한다. 이는 사본 간의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고, 편집상의 수정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주자는 각 사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수정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two parts, Paris and Brussels, in a 2/4 time signature. The tempo is marked 'Adagio'. The score is written in treble and bass staves. The Paris part is in the upper system, and the Brussels part is in the lower system.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accidentals. There are several annotations: a red box highlights a measure in the Paris part, a blue box highlights a measure in the Brussels part, and a yellow box highlights a measure in the Brussels part. The score also includes a 'tr' (trill) marking and a '7 6 6 7' fingering indication. The bottom of the score shows a sequence of notes with a '7 6 6 7' fingering and a '6 5' ending.



[그림 1] 'Musescore' 프로그램 악보분석제작, 1악장 'Adagio', 1 ~ 5마디



[그림 2] 'Musescore' 프로그램 악보분석제작, 2악장 'Allegro', 1 ~ 15마디

이어지는 [그림 3], [그림 4]는, 악보 재구성의 결과물로 파리 국립 도서관의 사본에서 특정 마디의 섬세한 장식음과 브뤼셀 왕립 음악원 사본의 단순한 리듬 패턴을 결합하여, 두 사본의 장점을 모두 반영한 융합형 악보로 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추가적인 기술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Musescore' 프로그램 악보 최종본, 1악장 'Adagio', 1~10마디

첫째, 'Musescore'의 쉼여림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각 마디마다 쉼여림을 세밀하게 기보하였다. 이를 통해 연주자들이 곡의 감정적 뉘앙스를 더욱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곡의 속도를 정확하게 지시하여 일관된 연주를 유도하였다.

셋째, 프레이징을 표시하여 곡의 흐름과 멜로디 라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유려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플루트 부분에서 32분음표와 점 8분음표를 분석하면, 리듬의 세부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연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리듬 패턴은 곡의 전반적인 리듬감을 향상시키고, 연주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음표 해석은 각 음표가 곡의 구조와 감정 표현의 이해에 도움이 되며 특정 음표가 강조되는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은 음표의 역할을 이해하고 바로크 시대의 음고가 갖는 특성에 따라 음계에 따른 소리의 음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표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다양한 음표의 기능과 그들이 음악에서 차지하는 역

할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음표의 길이와 강약, 위치에 따른 감정 표현을 통해 학생들은 음악적 문맥을 이해하고, 각 음표가 곡의 전체적인 해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하게 된다.

다섯째, 트릴, 턴 등 다양한 장식음을 정확하게 기보하여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장식음 활용도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트릴, 아포지아투라 등의 장식음을 분석하고 연주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음악적 표현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여섯째, 복잡한 리듬을 세밀하게 나누어 표시하여 연주자들이 정확한 리듬을 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일곱째, 이음줄을 통해 멜로디 라인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자연스러운 프레이징을 구현하였다.

아홉째, 다음 장의 [그림 5]와 같이 반복 기호와 세그노, 코다 등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여 곡의 구조를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악기 파트를 명확히 구분하여 연주자들이 자신의 파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4] 'Musescore' 프로그램 악보 최종본, 2악장 'Allegro', 1 ~ 12마디



[그림 'Musescore' 프로그램 악보 최종본, 2악장 'Allegro', 1 ~ 12마디]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은 하이브리드 악보의 정확성과 표현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해석 방법을 탐구하고 연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현대적 음악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교육적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해석 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파리 국립 도서관 사본의 세밀한 아티큘레이션과 브뤼셀 왕립 음악원 사본의 간결한 리듬 패턴을 비교하면서 각 사본이 제공하는 음악적 표현의 차이를 학습하여 이러한 기술적 요소가 음악적 표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은 각 사본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해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연주 방식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주 방식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뤼셀 왕립 음악원 사본의 단순한 리듬 패턴을 바탕으로 파리 국립 도서관 사본의 장식음을 추가하여 새로운 연주 방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자유와 창의적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이를 통해 연주 능력뿐만 아니라 음악적 해석 능력도 함께 향상된다. 또한 학생들이 음악을 단순한 기술적 연마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예술적 활동으로 인식하게 한다. 음악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연주 기술의 습득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자기 표현과 창

의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파리 국립 도서관과 브뤼셀 왕립 음악원에 소장된 《GraunWV Cv:XVII:75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사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악보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주의 연주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탐구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본 복원을 넘어, 시대적 음악 기법과 작곡가의 의도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리 국립 도서관의 사본은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기법과 세밀한 장식음이 풍부하게 기보되어 있어 연주자에게 높은 수준의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한다. 반면, 브뤼셀 사본은 간결한 리듬 패턴과 명확한 구조를 특징으로 하여, 연주자에게 보다 직관적인 해석과 함께 간소한 기보들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연주를 가능하게 한다. 이 두 사본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악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Musescor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음표의 세부사항을 기보하고, 아티큘레이션과 이음줄, 꾸밈음을 세밀하게 표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파리 사본의 세밀한 아티큘레이션과 브뤼셀 사본의 간결한 리듬 패턴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이 역사적 자료를 직접 비교 분석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은 음악적 이해를 깊게 하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단순한 악보 연주를 넘어, 역사적 맥락과 음악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여한다. 두 사본의 차이점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적 표현과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사본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배양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함께 키울 수 있다. 또한, 독창적인 재해석과 재구성 과정은 학

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연주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학생들이 음악을 단순히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역사주의 연주와 현대적 재해석의 조화를 경험하며, 음악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GraunWV Cv:XVII:75 플루트 소나타 D장조》의 사본을 비교 분석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은 바로크 시대 역사주의 연주의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음악적 이해와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과 사고력을 촉진시킨다. 역사적 연주 관행을 현대적 교육에 통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음악적 유산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미래의 음악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음악 교육의 전통적 접근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과거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음악적 시각을 통해 더욱 풍부한 연주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음악 교육의 질적 향상을 넘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갖게 하여 평생 음악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현대와 과거를 아우르는 음악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는 음악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학생들이 단순한 연주를 넘어, 음악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적 표현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학생들이 음악을 보다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풍부한 연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참고 문헌

- 곽동순·연상춘, 『요한 요아힘 크반츠 플루트 연주의 예술』,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2011, 154-290쪽.
- 김경수,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다르다』, 한국문학사, 2008, 31쪽.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https://music.snu.ac.kr/board/e-newsletter/view/10970>, 2024.06.10.
- 정경영, 「음악학: 새 길을 묻다:오래된 음악에 대한 새로운 논쟁-역사주의적 연주와 음악사 쓰기-」, 『음악학』 16권, 한국음악학회, 2008. 33-50쪽.
- Butt. John, *Playing with History: The Historical Approach to Musical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51-96.
- Cook Nicholas, *Beyond the Score: Music as Performance*, 2016, pp.303-325.
- Corelli Arcangelo, *Violin Sonatas, Op.5, Various Editions.: Original Edition, 1700; Roger Edition, 1710.*
- Donington. Robert, *Performer's Guide to Baroque Music*, Faber&Faber, 1982, pp.213-241.
- Fabian Dorottya, *Bach Performance Practice, 1945-1975: A Comprehensive Review of Sound Recordings and Literature*, Routledge, 2003, pp.116-153.
- Fuller David, *The Early Music Revival: A History*, Dover Publications, 1996, pp.89-94.
- Henzel Christoph, *Graun-Werkerzeichnis: Register*, Ortus Musikverlag, 2006, pp.152-160.
- Jon Newsom · Alfred Mann, *The Rosaleen Moldenhauer Music History from Primary Sources: a Guide to the Moldenhauer Archives*, Washington, 2000, pp.452-520.
- Lawson Colin · Stowell Robin, *The Historical Performance of*

Music: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210-214.

Mary Cyr, *Performing Baroque Music*, Amadeus Press, 2003,
p.15.

Quantz, Johann Joachim, *On Playing the Flute*, 1752 ; Bach, Carl
Philipp Emanuel, *Essay on the True Art of Playing Keyboard
Instruments*, 1753, pp.147-168.

Taruskin Richard, “Text and Act: Essays on Music and
Performance”, Music Library Association, Second
Series, vol. 53, no. 2, 1996, pp.419-423.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파리 국립 도서관과 브뤼셀 왕립 음악원에 소장된 GraunWV Cv:XVII:75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사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악보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바로크 시대 기반의 역사주의 연주(HIP)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탐구하였다. 파리 국립 도서관 사본의 세밀한 아티클레이션과 브뤼셀 왕립 음악원 사본의 간결한 리듬 패턴을 결합하여 창의적 해석을 반영한 새로운 악보를 제작하였다. Musescor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음표의 세부사항을 기보하고, 아티클레이션과 꾸밈음을 정교하게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학습하고, 역사주의 연주를 기반으로 한 정격 연주의 이해와 표현 기법을 익히는 것이 교육적 목표가 된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음악적 이해와 창의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주의 연주를 현대적 교육에 통합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학생들은 각 사본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음악적 인식과 표현 능력을 길러주며, 역사적 충실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역사주의 연주, 바로크 시대 음악, 음악교육, 악보 재구성, 디지털 악보 제작, 음악해석

■ Abstract

Educational Applications of Historical Performance Practice of the Baroque Era : An Educational Approach Based on Modern Creative Reinterpretation and Reconstruction

Chun, Min Kyeong /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and value of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HIP)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GraunWV Cv:XVII:75 Flute Sonata in D major manuscripts from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and the Koninklijk Conservatorium Brussel. By merging the Paris manuscript's detailed articulations with the Brussels manuscript's concise rhythmic patterns, a new, creatively interpreted score was produced. Using Musescore, detailed notations, articulations, and ornamentations were meticulously documented. This method helps students learn various musical expressions and replicate HIP practices. The approach enhances music education by integrating historical performance into modern pedagogy. Additionally, students develop unique interpretations by understanding historical contexts through manuscript comparisons, fostering proper musical awareness and expressive skills.

**Keyword •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HIP), Baroque Music,
Music Education, Score Reconstruction, Digital Score Creation,
Musical Interpretation**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 연구*

강 성 루**

목 차

1. 마동석이라는 브랜드
2.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 분석
 - 2-1. 한국영화사로 보는 스타 약사: 마동석이라는 기이한 배우
 - 2-2. 하드 바디 영화의 사회학, 참교육
 - 2-3. 변화하는 천만 영화의 경향
3. 나오며

1. 마동석이라는 브랜드

현재 한국영화계에서 티켓 파워가 가장 강한 배우를 꼽으라면 마동석을 빼놓을 수 없다. <범죄도시4>가 천만 영화에 등극하면서 그 어떤 배우도 마동석보다 강한 티켓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시리즈물이 한국 시장에서 세 편 연속으로 천만 영화 고지를 점령한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한 할리우드의 <어벤저스> 시리즈를 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범죄도시> 시리즈의 감독은 바뀌어도 주연은 변하지 않고 영화의 스토리와 스타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관

* 본 논문은 2022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객들은 <범죄도시> 시리즈를 ‘마동석의 영화’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영화배우 브랜드평판 2023년 7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마동석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¹⁾ 라고 발표했다. 마동석이 배우 브랜드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동석은 2018년에 <챔피언>, <신과 함께-인과 연>, <원더풀 고스트>, <동네사람들>, <성난 황소> 등 총 5편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2019년에도 <악인전>,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시동>, <백두산> 등에 주연이나 조연으로 출연했다. 한국영화가 전문화된 2000년대 이후에 특정 배우가 한 해에 주연으로만 총 5편의 영화에 출연한 경우는 없다. 게다가 다음 해에도 주연 3편, 조연 1편, 도합 4편에 출연한 경우도 찾기 어렵다. 대개의 인기 배우들은 많아야 1년에 2편 정도에 주연으로 출연할 따름이다. 아마도 “자신이 ‘제작자’이기에 주연배우인 자기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것”²⁾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많은 영화에 주연으로 연이어 출연할 정도로 엄청난 스타덤을 형성한 마동석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이미지로 브랜드화 되었다. 일례로 마동석이 어떤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분노조절장애를 일상어로 쓰는데 그건 장애가 아니다. 장애는 조절이 안 돼야 장애다. 앞 차량과 시비가 붙어서 내렸는데 마동석이 나오면 분노가 쏙 들어간다. 마동석을 보고도 달려들어야 분노조절장애다. 근데 내린 사람이 나보다 약해 보일 때만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건 장애가 아니라 폭력이다.” tvN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범죄 잡학사전>(2021.05.02.)에서³⁾

- 1) 김지혜, ““‘범죄도시3’ 효과”…마동석, 7월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1위”, <SBS연예뉴스>, 2023.07.13.
- 2) 박꽃, “[박꽃의 영화뜰] 마동석이라는 유례없는 브랜드”, <미디어오늘>, 2023.06.17.
- 3) 김창한, 「분노에 대하여 혹은 정의와 쾌락의 이중주-일상적인 것의 철학④」, 『오늘의 문예비평』 122호, 오늘의 문예비평, 2021, 285쪽.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설명하며 마동석을 예로 든다. 앞 차량과 시비가 붙어 차에서 내린 상황에서 마동석이 나오면 분노가 쏙 들어가는데, 마동석을 보고도 달려들어야 분노조절장애라는 설명이다. 이 문장에서 마동석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되었다. 아마도 이 문장에서 마동석이라는 이미지는 강력한 완력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할 것인데, 이런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영화가 <범죄도시> 시리즈다. “영화 <범죄도시>가 강력한 완력을 소유한 마석도(마동석)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탑 영화’”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까지의 한국영화사에서 이런 영화는 거의 없었다. 형사 혼자 엄청난 완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화는 거의 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한 명의 배우가 대중에게 자신의 개성으로 어필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의 아이콘 내지는 기호로서 작동한다면, 이는 그 배우가 대배우임을, 스타임을 나타내는 것”⁵⁾이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마동석은 지금 우리 시대의 진정한 스타이다. 그는 이미 하나의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이 “한 스타를 향한 나르시스적 경험, 혹은 상상계적 거울 이미지적 경험”⁶⁾ 했다면, 연구자는 그 집단적인 경험의 원인을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스타는 얼굴, 신체, 사생활 등 개인으로서의 형상과 더불어 집단적 욕망과 가치, 이데올로기 등이 각인되는 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기

4)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8, 137쪽.

5) 서인숙, 「배우 송강호의 페르소나 연구-남성성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56권, 한국드라마학회, 2018, 159-160쪽.

6) 손영모·심효원, 「영화배우의 거울 이미지-루돌프 발렌티노의 다층적 캐릭터 분석」, 『CONTENTS PLUS』 15권 2호, 한국영상학회, 2017, 7쪽.

호로서의 스타-이미지(star-image as sign)로 존재”⁷⁾하는데, 이렇게 특정 배우가 하나의 브랜드로 스타-이미지화 되면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호로서의 스타-이미지”를 ‘스타 페르소나’로 칭하고자 한다. 왜 그런 것인지는 다음을 보면 된다.

스타 페르소나는 그 또는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을 통해서 스타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크린 상의 집합적인 개성이다. 스타 페르소나 또는 스크린 상의 개성은 수많은 영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집합적인 창조물이고, 한 편의 개별 영화에서 보이는 일회성 연기보다 더 대단하다.⁸⁾

이런 이유 때문에 기호로서의 스타-이미지는 스타 페르소나가 된다. 이 때 스타 페르소나는 특정 배우가 지닌 외모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오랫동안 활동한 스타의 영화 속 이미지가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스타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스타 페르소나를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영화학계에서 마동석에 대한 기존 연구는 별로 없다. 다만 “나르시시즘적인 남성성이 새로운 남성성으로 추앙받는 시대에 마초와 마요미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는 마동석은 타자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몸의 존재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담긴 대안적 남성성을 제시한다.”⁹⁾ 라는 내용을 담은 연구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마동석의 스타 이미지를 마초와 마요미라는, 전혀 다른 두 이미지로 분석한 논문이 존재할 뿐이다.

본고에서는 마동석 ‘현상’을 세 시각으로 분석할 것이다.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에 재현된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를 한국영화사라는 시각에서 다른 스타의 그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살펴볼 것이고, 강력한 육체를 내

7) 김이석·김성욱 외, 『영화와 사회』, 한나래, 2012, 231쪽.

8) Stephen Prince, *Movie and Meaning: An Introduction to Film*, Allyn and Bacon, 1997, p.88.

9) 김경태, 「‘마초’와 ‘마요미’ 사이에서: 배우 마동석의 남성성 연구」, 『현대영화연구』 46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22, 60쪽.

세운 마동석 영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동석이 출연하고 제작에도 참여해 천만 영화가 된 <범죄도시> 시리즈가 기존 천만 영화에 비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결국 본고는 마동석이 어떤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는지, 그런 소비가 기존의 스타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의 영화가 어떤 내용을 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천만 영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2.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 분석

스타 페르소나라는 시각에서 마동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선별해야 한다. 즉,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 가운데 흥행에 성공한 영화 리스트를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흥행 성과가 큰 영화 속 마동석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것이 그의 스타 페르소나를 분석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텍스트로 삼았다. 적어도 200만 명이상이 특정 시기에 한 영화를 보았다면 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인 스타의 페르소나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텍스트로는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 가운데 주연이나 비중 있는 조연의 경우로 한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¹⁰⁾

[표 1]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마동석 출연작

제목	개봉연 도	감독	흥행(명)	역할	빌런
부당거래	2010	류승완	2,725,860	형사	부패한 검경, 조폭
이웃사람	2012	김 휘	2,434,435	조폭	살인마

10)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성난 황소>, <동네사람들>, <원더풀 고스트>, <챔피언> 등의 영화가 텍스트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대중적 성공을 기준으로 스타 페르소나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텍스트에서 제외했다.

반창꼬	2012	정기훈	2,475,797	119구조대원	사고
군도: 민란의 시대	2014	윤종빈	4,775,924	의적	탐관오리
악의 연대기	2015	백운학	2,192,552	형사	부패 경찰
부산행	2016	연상호	11,567,928	예비 아빠	좀비
굿바이 싱글	2016	김태곤	2,108,561	연예인 코디	사회 의식과 구조
범죄도시	2017	강윤성	6,880,546	형사	조폭
신과 함께 : 인과 연	2018	김용화	12,278,010	성주신	저승사자와 비정한 사회
악인전	2019	이원태	3,364,924	조폭 두목	연쇄살인마
나쁜 녀석들: 더 무비	2019	손용호	4,573,902	착한 수감자	조폭과 일본 야쿠자
시동	2019	최정열	3,318,676	주방장 행세 의 조폭 두목	조폭
이터널스	2021	클로이 자오	3,050,518	길가메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대비안츠
범죄도시2	2022	이상용	12,693,415	형사	잔혹한 살인마
범죄도시3	2023	이상용	10,682,514	형사	비리 경찰, 야쿠자
범죄도시4	2024	허명행	11,421,636 (2024.06.10. 현재)	형사	온라인 불법 도박 운영자, 특수부대 출신 킬러

텍스트에 나타난 마동석의 이미지는 꽤나 선명하다. 코믹한 캐릭터로 출연한 영화는 <굿바이 싱글> 단 한 편뿐이고, <시동>에서는 초반부에 코믹한 캐릭터로 등장하다가 이내 정의로운 조폭으로 변신한다. 이외 대부분의 영화들은 형사물이거나 범죄물이고, 이들 영화에서 마동석은 강한 완력을 지닌 인물이나 의리의 사나이로 등장한다. <부당거래>, <반창꼬>, <악의 연대기>, <범죄도시1,2,3,4> 등에서는 형사나 구조대원 역을 맡았고, <이웃사람>, <악인전>,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등에서는 조폭 역을 맡았으며, <군도: 민란의 시대>, <부산행>, <신과 함께:인과 연>, <이터널스> 등에서는 의리 있는 남성 역을 맡았다. 이를 종합하면 주요 영화에서 마동석은 범인을 잡는 형사, 의리 있는 남성, 악한 조폭과 맞서는 착한 조폭 등의

역할을 맡았는데, 다시 이 캐릭터들을 요약하면, 형사물이거나 범죄물에서 강한 완력을 지닌, 다소 정의로운 인물을 연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에서 마동석의 이미지는 대부분 굳어져 있다. 이것은 서론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설명하며 언급한 그의 이미지와 일치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중들이 인식하는 마동석에 대한 스타 이미지이고, 스타 페르소나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대중들이 생각하는 스타 페르소나로서의 마동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거대한 체구의, 다소 험상궂은 얼굴, 그러나 범죄자를 한 방에 때려눕히는 강력한 주먹의 소유자, 정의로운 사람. 이것이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이다. 이런 페르소나로 그는 대부분의 흥행 영화에 등장했고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때로는 비슷한 캐릭터가 반복되면서 그의 이미지가 소모되거나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 받기도 했을 정도로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는 확고하게 굳어져 있다.¹¹⁾



[그림 1] <범죄도시4>의 마동석

이러한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를 근거로 생각해 볼 것은 대략 세 가지다. 그것은 한국영화사의 스타 연구에서 마동석을 위치시키는 것, 마동석

11) 마동석이 출연해서 천만 영화가 된 <부산행>, <신과 함께: 인과 연>, <범죄도시 2,3,4>를 보면 그의 스타 페르소나가 얼마나 확고한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영화들에서 마동석은 거대한 육체를 내세워 불의와 맞서는 사람이다.

처럼 강력한 완력을 소유한 1980년대 할리우드의 하드 바드 영화와 마동석의 영화를 비교하는 것, 기존의 천만 영화와 마동석이 출연해서 천만 영화에 등극한 <범죄도시> 시리즈의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 등이다. 이런 연구는 마동석을 한국영화사라는 큰 틀로 보기도 하고, 해외 영화와 비교하기도 하고, 한국의 흥행 영화와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지금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연구하는 작업이 된다. 이제부터 그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2-1. 한국영화사로 보는 스타 약사: 마동석이라는 기이한 배우

먼저,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를 기존의 최고 남성 스타의 경향과 비교하려 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한국영화사에서 마동석과 같은 배우가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동석 현상’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이고, 배우의 얼굴이다. 거대한 스크린에서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될 때 현실의 관객들은 판타지의 세상으로 빠져들곤 한다. 때문에 “인간의 얼굴이야말로 인성(personality)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매체이자 영화 속 의미가 새겨지고 캐릭터의 감정이 순환·통과하는 장소”¹²⁾가 된다. 그런데 마동석은 얼굴보다 몸-육체를 더 중시여긴다. 그 거대한 몸-육체로 상대를 제압하는 캐릭터로 스타가 되었다.¹³⁾

한국영화사에서 마동석이 얼마나 특이한 배우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영화 황금기를 맞이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최고 스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1960년대 내내 최고

12) 주유신, 「[김지미]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팜파탈: 영화배우 김지미 연대기」, 『영화천국』 56호, KMDb-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2017, 23쪽.

13) 본고에서는 마동석을 단지 하드 바디의 액션 배우로 보지 않고 당대 최고의 티켓 파워를 지닌 스타로 평가한다. 그래서 마동석의 비교 대상을 한국영화사의 액션 배우로 한정하지 않았다. 가령 장동휘나 이대근, 한소룡 등의 액션 배우와 마동석의 위치는 다르다고 판단해서 이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의 스타였고, 1970년대 중후반까지도 그 자리를 잃지 않았던 신성일은 한국영화사를 통틀어 최고 스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연을 맡은 영화가 무려 500편이 넘을 정도이니, 아무리 당시에 동시 출연이 흔했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기록임이 분명하다. 당시 언론에서는 “신성일은 한국의 ‘제임스 딘’”,¹⁴⁾ “청춘의 우상”,¹⁵⁾ “고독한 인생의 반항아”¹⁶⁾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성일이 이런 스타 페르소나를 지니게 된 것은 청춘영화에 얽매란과 함께 출연하면서 거대한 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청춘영화는 도시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소외된 청춘들의 좌절과 분노를 주로 그렸다. 다시 말해 “청춘 영화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근대화와 물질문화/미국 대중문화 속에 위치하지만 실제로 완전한 근대 문화의 향유 주체가 되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겪는 좌절과 억압을 국가/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하는 장르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신성일이 고독한 인생의 반항아로 불린 것은 이런 청춘 영화에서 기성 세대에 저항하는 캐릭터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맨발의 청춘>의 도시 뒷골목과 그들만의 도시 문화에 빠진 청년들 모습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1970년대의 호스티스 영화에서 신성일은 여전히 근대화 담론에서 소외된, 그러나 이번에는 중년의 이미지로 그려지면서 역시 좌절하고 고뇌하는 방랑자의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결국 1960~70년대의 신성일은 산업화에서 소외된 청춘의 저항과 중년의 방랑을 그린 영화 속 캐릭터로 최고 스타가 된 것이다. 이때 그의 가

14) “[새 영화] 반항의 몸부림/빛을 낸 신성일의 호연/성난 능금”, <경향신문>, 1963.11.05.

15) “[63년 톱.런너] 영화계/신성일 생애 최고의 해/“행운아라고요? 스스로 쌓아 올린 탑이지요”/올해 들어 21편 출연 매달 「팬.레터」 2백50통”, <서울신문>, 1963.12.02.

16) “[매력] ⑤ 신성일 / 고독한 인생의 반항아”, <조선일보>, 1966.01.09.

17) 정수완, 「1950~60년대 한일 청춘 영화 비교 연구: 청춘 영화에 나타난 근대/국가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26호, 한국영화학회, 2005, 327쪽.

장 큰 무기는 빼어난 외모였다.

1980년대 최고의 스타는 안성기이다. 그런데 안성기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신성일처럼 명확한 이미지로 고착되지는 않는다. 그와 배창호 감독의 대표작이 된 <고래사냥> 시리즈나 <겨울나그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등에서는 낭만적 도피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바람 불어 좋은 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적도의 꽃>, <무릎과 무릎 사이>, <기쁜 우리 젊은 날>, <개그맨> 등에서는 착한 소시민이거나 다소 생활력이 떨어지는 주눅 든 사람으로 등장한다. 가끔 <만다라>처럼 구도의 길을 걷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에로티시즘을 표상하는 <안개마을>, <내시> 같은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고 푸른 밤>처럼 악인역을 맡았지만, 이 역시 예외적인 경우일 정도로 편수가 적다.

이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안성기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안성기를 1980년대의 대표 배우로 만든 영화는 단연 <고래사냥> 시리즈이다. 전두환 군부 독재의 엄혹한 시대에 치열한 현실과는 거리를 둔 채 세상을 떠도는 낭만주의적 도피를 그린 이 영화는 시대의 이미지와 맞았고 (그리 잘 생기지는 않은) 안성기의 얼굴과 (다소 과장된) 그의 연기 스타일과도 맞았다. 순박한 청년이나 소시민의 모습을 그린 일련의 영화들은 낭만주의적 도피주의자가 현실에 주눅 들어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다. 그래서인지 ‘안성기 전성시대’인 “1980년대 초반에 안성기는 출연한 여러 영화에서 계속 집바깥을 떠돈다.”¹⁸⁾ 안성기 스스로도 1980년대의 자신은 사회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는, 하고 싶은 말도 가슴 펴고 말하지 못하는 역할을 연기했다고, 시대가 그런 인물을 원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¹⁹⁾ 결국 1980년대의 안성기는 전두환 군부 독재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심리를 독특한 캐릭터로 재

18) 구혜원 외, 『다시 한국영화를 말하다』, 미다스북스, 2023, 117쪽.

19) 무라야마 도시오 저, 권남희 역,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 사월의책, 2011, 141쪽.

현해서 최고 배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한석규가 등장한다. 그 역시 여러 이미지로 재현되었지만, 대중들의 뇌리 속에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배우이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는 나이 어린 주차 단속원을 사랑하는 사진사로, 불치병을 앓는 이로 등장한다. 지방의 소도시가 배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한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잔잔한 것들이 영화 안에 이어진다. 심지어 대사가 많지 않은 이 영화에서 한석규는 잔잔한 미소와 일상적인 연기로 시대를 풍미하는 배우가 되었다. 약간 과장되기는 했지만 <닥터봉>과 <접속> 역시 그런 이미지를 조금 변형했을 뿐이다. 잔혹한 연쇄 살인을 그린 <텔미썸딩>이나 분단 첩보영화인 <쉬리>에서도, 강한 영화 내용과 달리 그는 이 이미지에서 그리 많이 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넘버3> 같은 영화에서는 다른 이미지로 그려지다가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구타유발자들> 같은 극단적 폭력을 그린 영화에 출연하며 그전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연기의 폭을 넓히려고 출연했던 영화들이 오히려 한석규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한석규는 일상성을 강조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연기를 구사하는 배우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안경을 착용한 배우로 기억될 것인데, 평안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지적인 남성 이미지로 시대의 스타 페르소나가 되었다. 이런 것에는 페미니즘 바람이 강하게 일던 시대적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 그렇게 “한석규라는 문화적 코드를 지닌 이 시대의 관객들은 적어도 남루한 집단적 이데올로기에 동원되지도, 동의되지도 않²⁰⁾았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개성적인 것을 존중

20) 정현, 「90년대 문화적 코드 한석규」, 『인물과사상』 17호, 인물과사상사, 1999, 132쪽.

한다고 하던 1990년대 중후반의 시대적 아이콘이 한석규가 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IMF 구제 금융의 엄혹한 시기가 되면서 영화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개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최민식, 송강호, 설경구의 트로이카 시대가 2000년대 이후 지속되다가 이내 송강호의 시대로 통일되었고, 그런 시대는 거의 15년 이상 지속되었다. 특정 배우가 최고 스타가 되어, 시대적 아이콘이 된 기간이 15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한국영화사에서 신성일과 송강호, 둘 뿐이다. 그만큼 두 배우의 영향력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송강호가 주연으로 출발한 영화는 <반칙왕>이라는 코미디 영화이다. 한국영화사에서 코미디로 출발한 배우가 최고 스타가 된 경우는 없었다. 서울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연기를 해서 코미디적 감성을 지니고 있는 송강호가 최고의 스타가 된 것은 매우 특이하다.

<복수는 나의 것>처럼 극단적인 폭력을 다룬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송강호의 영화로 기억되는 <괴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의형제>, <관상>, <택시운전사> 등이 모두 코믹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IMF 이후 여전히 경제적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송강호가 채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만성적인 불안과 공포의 시기 이기에 송강호가 품은 해학(諧謔)적 요소가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엄혹한 현실에 대한 냉소(冷笑)로서의 웃음이든 치유(治癒)로서의 웃음이든, 웃음으로 삶의 고통을 덜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세대의 심리가 반영됐다.”²¹⁾라는 평가가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송강호의 영화에서 “탈

21) 이문원, “‘시대의 얼굴’ 남자 배우로 보는 전후 70년: ‘미국화 된 청년’ 이민에서 ‘불안한 시대의 액션 배우’ 마동석까지”, <월간 조선>, 2023.07.

멜로화, 탈 성애화”²²⁾도 중요한 요인이다. “유일한 로맨스 영화였던 <푸른 소금>이나 에로틱한 장면들이 재현되는 <박쥐>를 제외하고, 거의 전 작품들을 통해 이성애적 섹슈얼리티가 강한 영화는 찾기 힘들다.”²³⁾ 연애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영화에 송강호는 주로 출연했다.

이제 마동석을 언급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상대적으로 마동석에게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배우에게 얼굴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장 엡스탱은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고 영혼은 ‘세계’의 거울이다. 그러므로 클로즈업이 바라보는 것은 영혼 이상의 것, 즉 영혼의 근처에 있는 세계”²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배우 마동석에게는 그런 얼굴이 중요시되지 않는다. 마동석이 출연한 초기작인 <비스티 보이즈>나 <부당거래>를 보면 <범죄도시> 시리즈의 마동석과는 꽤나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변했다기보다는 몸이 변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몸의 체형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몸집을 늘려서 얼굴이 강조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후의 마동석의 영화에서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더 중요해졌다.

<범죄도시> 이후의 영화는 마동석의 얼굴의 영화가 아니라 ‘몸의 영화’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그가 등장할 때,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먼저 보여준다. 그런데 넓은 뒷어깨만 보고도 관객들은 그가 마동석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이처럼 마동석의 몸 가운데도, 운동으로 탄탄하게 만든 벗은 육체가 아니라 큰 얼굴과 연결된 강한 편치의 소유자인 몸을 강조한다. 이것이 이상한 것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배우들이 벗은 몸을 전시하는 것에 비해 마동석은 철저하리만큼 자신의 육체를 옷으로

22) 서인숙, 앞의 논문, 171쪽.

23) 위의 논문, 171쪽.

24) 에드가 모랭 저, 이상률 역, 『스타』, 문예출판사, 1992, 175쪽.

가리기 때문이다. 그의 무기는 괴력의 ‘핵펀치’이다. 그는 한 방의 펀치로 상대를 기절시키는 괴력을 지닌 캐릭터로 점점 변모하는데, 펀치의 강도는 점점 세진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마동석은 “정의로운 보통 사람 혹은 우락부락하지만 소외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믿음직한 형사로서의 이미지”²⁵⁾이다. 이런 이미지는 앞에서 거론한, 한국영화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다른 스타의 그것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마동석의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강한 괴력으로 한 방에 악당을 무찌르는 마동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왜 거기에 2020년대 관객들이 환호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 한다.

2-2. 하드 바디 영화의 사회학, 참교육

이제 마동석이 주로 출연한 범죄 영화라는 장르와 그것을 만들고 관람하는 동시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탐구해야 한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스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한국적 탐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다시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극영화의 의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배우와 그들의 연기에 의해 생겨”²⁶⁾나는데, 그들의 연기는 단지 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닌 고유한 이미지와 결합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배우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지이다. 그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대중적으로 성공하면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때 스타가 지닌 이미지가 스타 페르소나의 토대이다.

“실제 배우가 영화에서 매번 특정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형성된 스크린상의 이미지가 곧 스타 페르소나”²⁷⁾인데, 마동석의 스타 페르소나 관점에

25) 김윤아, 「마동석, 장르가 되다」, 『영화가 있는 문학의 오늘』 48호, 솔 편집부, 2023, 194쪽.

26) 크리스틴 글렌드힐 저, 곽현자 역, 『스타덤: 욕망의 산업Ⅱ』, 시각과 언어, 2000, 51쪽.

27)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아모르문디, 2018, 34쪽.

서 1980년대 할리우드의 하드 바디 영화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람보> 시리즈나, <록키> 시리즈의 실버스터 스탈런,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배우는 육체를 강조하는 마동석의 영화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된다.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영화사에서 마동석처럼 육체를 내세워서 최고의 스타가 된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 미국도 비슷한데, 1980년대의 실버스터 스탈런이나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이들도 1980년대에서야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서부극 전성 시대의 존 웨인은 이들과 같은 하드 바디는 아니었다.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와 하드 바디 영화에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논문의 순서이다.

정밀하게 살펴보면, 두 경향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 가령 “외로운 영웅이 타락한 사회와 홀로 맞서는 더티 하리 영화와 달리, 1980년대의 하드 바디 영화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봉사할 대상인 국민들과 교감을 잃어버린 관료에 맞서 싸우는 남성들을 영웅으로 내세운다.”²⁸⁾ 가령 월남에서 돌아온 <람보>의 람보는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 관료와 싸움을 벌인다. 그러나 <범죄도시>의 마석도는 관료와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더티 하리> 시리즈처럼 타락한 사회와 맞서 싸우는 경찰이다. 그렇다고 <더티 하리> 시리즈처럼 마석도가 타락한 경찰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맞서는 적대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서사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 하드 바디 영화의 서사는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두 가지 방법으로 관객들에게 제공하는데, 첫째, 하드 바디 영웅이 격렬한 육체적 행동을 통해 적을 제압함으로써 주변

28) 수잔 제퍼드 저, 이형식 역, 『하드 바디-레이건 시대 할리우드 영화에 나타난 남성성』, 동문선, 2002, 33-34쪽.

을 지배한다는 영화 플롯 차원이고, 둘째는 같은 영웅이 국가의 적을 격렬한 육체적 행동을 통해 제압한다는 국가적 플롯의 차원이다. 레이건 시대 관객의 희열은 둘을 합친 것에서 발생했다.²⁹⁾ 그러나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격렬한 육체적 행동을 통해 적을 제압함으로써 주변을 지배하는 영화 플롯 차원은 동일하지만, 같은 영웅이 국가의 적을 격렬한 육체적 행동을 통해 제압하는 국가적 플롯 차원은 아니다. <람보>가 시리즈를 더해가면서 소련을 상대하는 것과 마석도가 범인을 잡는 것에 충실한 것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마석도가 가리봉동의 조선족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필리핀에 가서 범인을 잡거나 일본의 야쿠자와 결탁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을 두고 국가적 플롯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해 람보나 록키는 미국을 대표하고 표상하는 인물로 재현된다.

이들을 스크린에 구현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1980년대 하드 액션 영화들에서 남성 히어로는 극도로 생생한 신체적 퍽박을 되풀이해서 겪는다. 가령 람보는 사디스트적인 러시아인과 베트남인들에게 고통당한다.³⁰⁾ 그러나 마석도는 그런 육체적 퍽박을 받지 않는다. 좀더 근원적으로 보면, 람보나 록키, 터미네이터는 상반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하드 바디를 스크린에 전시하고, 그 육체가 강한 퍽박을 받는 것을 통해 거꾸로 그들의 강한 정신을 강조하지만, 영화 속 마동석은 상반신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고, 육체적 고통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를 두고 하드 바디의 캐릭터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다.

하드 바디를 구현하는 방식만큼이나 두 경향의 이데올로기도 다르다. 1980년대 하드 바디 영화는 “결혼, 가족, 그리고/또는 부모되기”³¹⁾라는 매

29) 수잔 제퍼드 저, 이형식 역, 앞의 책, 48쪽.

30) 배리 랭포트 저, 방혜진 역, 『영화 장르-할리우드와 그 너머』, 한나래, 2010, 414쪽.

31) 위의 책, 415쪽.

우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다. 지미 카터라는, 미국 역사상 참으로 나약한 대통령이 다스렸던 시기를 지나 강한 미국을 만들려고 했던 도널드 레이건 시대에서는 하드 바디를 강조한 영화들을 통해 미국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를 살리거나 아버지를 이어가는 보수적인 전통이었다. 그러나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영화에는 그런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 <범죄도시> 시리즈만 봐도 마석도의 가족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마석도의 멘토(상징적 아버지)도 없다. 1970~80년대의 강한 보수적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서사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하드 바디를 강조한 영화가 등장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1980년대 할리우드 영화와 마동석이 등장한 2010년 이후의 한국영화는 여러 지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동석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슈퍼히어로 영화와 비교하는 것이다. “주인공 마석도(마동석) 형사가 만화적 캐릭터라는 사실”,³²⁾ “‘마블 히어로’(Marvel hero)에 가까운 한국 경찰 마석도”³³⁾라는 평에 기대어 마동석을 보는 것인데,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마석도 캐릭터는 마블 영화의 캐릭터와도 꽤나 다르다. 다음을 보자.

마석도 형사는 배트맨처럼 가면을 쓴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고, 스파이더맨처럼 옷을 갈아입거나 이상한 개미에 물려 초능력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 슈퍼맨처럼 신문기자로 정체를 숨긴 외계인도 아닙니다. 군인 출신의 캡틴 아메리카거나 역만장자 천재 과학자 아이언맨처럼 세상을 구하겠다는 전 지구적인 미션을 수행하려는 인물도 아닙니다.³⁴⁾

32) 조흡, 「[영화이야기] <범죄도시>: 공포와 영웅의 탄생」, 『대한토목학회지』 66권 1호, 대한토목학회, 2018, 78쪽.

33) 음영철·김정현·노동욱, 「재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7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21, 237쪽.

34) 김윤아, 앞의 글, 195쪽.

이제 마석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서 “우람한 덩치에 타격감으로 승부하는 복싱 기반 액션에 특화된 마동석”³⁵⁾이라는 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마동석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다소 괴력을 지닌 형사일 따름이다. 그의 무기는 오로지 핵펀치일 뿐, 다른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것이 아닌 것처럼 강한 펀치력으로 범인을 시원하게 때려눕혀 잡아 들인다. 그래서 “범인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과정에서 보이는 지난한 육체의 흔들림, 살과 근육의 부피감, 피의 질감들은 범인을 한 방에 죽이고마는 총보다 살과 피가 튀는 실감 나는 결투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효과는 훨씬 큰 쾌감을 선사”³⁶⁾ 한다. 관객들이 마동석에게서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악랄한 범죄자를 오로지 주먹으로 통쾌하게 KO 시키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³⁷⁾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인간계에서 살아가는 마석도가 엄청나게 강한 주먹으로 악인을 시원하게 잡을 때 통쾌함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을 관객들은 아예 ‘참교육’이라는 단어로 명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영화의 댓글을 보면, 그 어떤 단어보다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범죄 영화이자 액션 영화의 희열을 마동석이 주연을 한 영화에서 관객들이 맛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마동석이 맡은 역할이 형사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마석도(마동석)는 “비현실적인 완력을 기존 질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

35) 박꽃, 앞의 글.

36) 김윤아, 앞의 글, 200-201쪽.

37) 이런 것은 다음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 단 한 차례 후려갈긴 뺨따귀에 조폭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에서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은, 응징의 통쾌함을 넘어선 그 자체로 강렬한 몸-힘이다. 그가 벌이는 결투는 인과응보의 쾌감에 앞서 육중한 체구에서 발산되는 날것 그대로의 괴력으로 관객들을 전율시킨다.”; 김경태, 앞의 글, 51쪽.

서만 사용하는 현실적인 인물”³⁸⁾이다. 분명 그의 완력은 비현실적이지만, 현실 수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한다. 이 부분에서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마동석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빌런을 한 방에 잠재우는 경찰, 그들이 세우는 질서를 마동석이라는 스크린 속 배우를 통해 욕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폭, 살인마, 부패 경찰, 인신 매매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범죄 영화이자 액션 영화의 틀에 담아서 비현실적인 완력의 마동석이 연기한 캐릭터가 이들을 소멸하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칭하는데, 반성하지 않는 적대자들이 자신의 악을 행하다가 결국 마동석의 강력한 펀치에 녹다운을 당한다. 그 쾌감을 마동석의 영화가 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각박한 현실에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여러 고통과 짜증을 마동석의 영화가 해소해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저성장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는 데다 최근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커지면서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마동석이 핵주먹으로 범죄자들을 한 번에 제압하니 후련함, 통쾌함, 대리만족을 준다”고 밝혔다.”³⁹⁾ 관객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진상들을 경험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스크린 속 마석도의 통쾌한 펀치 한방으로 대리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화된 빌런의 등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대이다. 나의 일상과 관련된 빌런을 경험하는 시대에 소시민으로서 그들을 직접 처리하지는 못하지만, 마석도를 통해 대리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

38) 류찬열, 앞의 글, 141쪽.

39) 손은아, “마동석 핵주먹 ‘트리플 천만’ 강타 ‘범죄도시4’ 1000만 관객 돌파”, <세계일보>, 2024.05.15.

이렇게 보면 하드 바디의, 강하지만 보수적인 아메리카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범죄가 지능화되어 가고 폭력 수위도 높아가는 현실에 대한 반향으로, 점점 빌런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 대한 반향으로 마동석의 영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객들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영화 속 마석도가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하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2-3. 변화하는 천만 영화의 경향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천만 영화의 경향이다. 마동석이 주연을 맡고 제작까지 참여한 <범죄도시> 시리즈를 보면, 천만 영화의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을 마동석이 주연을 맡아 흥행한 영화는 기존의 천만 영화와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논의를 위해 먼저 기존의 천만 영화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2024년 7월 18일)까지 천만 영화에 등극한 영화는 총 33편인데, 그 가운데 한국영화는 24편이고, 외국 영화는 9편이다. 한국영화 가운데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범죄도시2,3,4>을 제외하면 총 21편이 되는데, 이 영화들의 특징 가운데 먼저 거론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주요 소재로 아버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괴물>, <해운대>, <도둑들>, <7번방의 선물>, <국제시장>, <암살>, <택시 운전사>, <신과 함께 - 죄와 벌>, <신과 함께 - 인과 연>, <기생충> 등의 영화는 아버지의 부재와 이로 인한 고통이나 상처, 그리움을 스토리의 주요소로 삼고, <명량>, <변호인>, <베테랑>, <광해, 왕이 된 남자>, <부산행>, <극한 직업> 등의 영화는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아버지를 욕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자의 영화는 아버지가 없어서 갖은 고생을 하거나 아버지 자리를 대신한 이가 겪는 고통을 스크린에 전시한다. 후자는 강한 아버지가 등장해서 세상을 구하거나 자녀를 구하면서 죽는 내

용으로 전개된다.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강한 아버지를 욕망하는 영화는 대부분 강한 가족주의 정서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때문에 신파적 정서에 입각한 눈물이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아버지가 부재해 고생했으니 그리움이나 고통의 눈물이 나고, 강한 아버지가 지켜주며 고생하거나 죽음을 맞으니 눈물을 강조한다.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게 비극적 엔딩과 연결되고, 다시 이런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재난 영화의 장르 컨벤션 속에 시각적 스펙터클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한국산 천만 영화는 아버지, 가족주의, 눈물, 스펙터클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⁰⁾

미국산 천만 영화는 다르다. <아바타1,2>, <겨울왕국1,2>, <어벤저스 2,3,4>, <알라딘> 등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이다. 먼저, 모든 영화가 권선징악을 다룬다. 이 영화들에서 주인공과 적대자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들의 선명한 갈등과 대결 구도가 스토리의 핵심이다. 게다가 한국영화와 달리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디즈니 영화가 강세를 띠면서 슈퍼히어로가 주인공인 영화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할리우드산 천만 영화는 한국영화와 달리 선명한 색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¹⁾⁴²⁾

한국산 천만 영화와 미국산 천만 영화의 차이를 요약하면, 한국의 영화는 아버지, 가족주의, 눈물, 스펙터클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고, 미국의

40) 이렇게 보면 <왕의 남자>는 부성이 아니라 모성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위에서 거론한 영화에서 모성은 대부분 부재하거나 미미하게 존재하는 반면 <왕의 남자>만이 부재하는 부성을 극도로 미워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재하는 모성을 깊이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왕의 남자>는 기존의 천만 영화와 구분된다.

41) 강성률, 『상처의 응시』, 아모르문디, 2020, 128-138쪽.

42) 할리우드산 천만 영화 가운데 <인티스텔라>는 예외이다. 오히려 이 영화는 아버지, 가족주의, 눈물, 스펙터클이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는 한국산 천만 영화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왜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크게 흥행하지 못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크게 흥행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영화는 권선징악, 해피엔딩, 슈퍼히어로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마동석이 주연을 맡아 천만 영화에 등극한 <범죄도시> 시리즈를 분석하면, 이 시리즈는 한국산 천만 영화보다는 미국산 천만 영화에 가깝다. 가령 <범죄도시> 시리즈의 마석도에게는 그 어떤 가족도 등장하지 않는다. <범죄도시>의 결말 부분인 화장실 대결 씬에서 마석도를 만난 장첸은 “혼자야?”라고 묻는데, 이때 마석도는 “응, 아직 싱글이야”라고 유머를 구사한다. 이 대사만 봐도 마석도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시리즈 내내 그의 가족은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가리봉동 지역의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지역 안정을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마석도를 ‘상징적 아버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기존의 천만 영화가 직접적 육친인 아버지를 내세웠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해석으로 두 영화들 간의 동질성을 논하기는 어렵다.⁴³⁾ 이처럼 <범죄도시> 시리즈에 아버지 이야기가 없으니 당연히 가족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가족주의가 없으니 아버지를 매개로 한 눈물의 신파 정서가 작동할 수 없다. 무엇보다 형사물 시리즈이니 재난 영화의 시각적 스펙터클을 스크린에 구현할 필요도 없다. 기이하게도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산 천만 영화와는 선명하게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천만 영화가 그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43)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범죄도시>에서 마석도는 연길식 당에서 일하는 소년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대한다. 그 소년이 장첸에게 피격 당하자 상징적 아버지인 마석도는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마침내 장첸을 검거한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상징적 아버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상징적 아버지 역할을 확대하면 공권력과 닿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계율을 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역할이 공권력과 무척이나 닮았다. 그래서 상징적 아버지는, 가족을 벗어나 국가의 아버지로 확대된다. 마침 <범죄도시>의 마석도가 원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의 평화를 되찾는 사람인데, 그런 모델은 한 국가의 상징적 아버지인 권력자를 생각나게 만든다. 원톱인 경찰이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상징적 아버지라는 틀로 <범죄도시> 시리즈를 해석하면 필연적으로 국가주의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해석은 육친을 강조하는 기존의 천만 영화와는 많이 다르다.

정의할 때, <범죄도시>의 이런 변화는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영화와 선명히 구분되니 더욱 의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천만 명 이상이 함께 보고 공유하는 한국의 집단무의식을 특정 영화가 담지 않고도 천만 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도시> 시리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멀리 갈 것 없이 할리우드산 천만 영화의 특징을 보면 <범죄도시> 시리즈와 달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권선징악, 해피엔딩, 슈퍼히어로라는 그물망에 정확히 포획된다. 영화 속 마석도 형사는 일반적인 형사라기보다는 괴력을 지닌 슈퍼히어로에 가깝다. 통상적인 형사물이라면 버디 무비가 되어 두 형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범죄도시> 시리즈에서는 오직 마석도 형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조력자일 뿐이다. 그의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펀치력은 슈퍼히어로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블 영화의 슈퍼히어로처럼 비인간적인 힘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인간계에서 마석도가 지닌 펀치력은 그 자체로 괴물에 가깝다. 이런 형사가 악한 범인을 잡는 내용이니 권선징악이 된다. 시리즈를 더해갈수록 더 강한 악당이 등장할 것인데, 결국에는 마석도 형사가 그들을 때려눕힐 것이다. 이런 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니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마동석이 주연을 맡아 천만 영화에 등극한 <범죄도시> 시리즈를 보고서 한국산 천만 영화의 경향이 변화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영화산업계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현상만 두고 단정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기존의 천만 영화 흥행 코드, 즉 아버지, 가족주의, 눈물, 스펙터클 등을 지닌 <비상선언>, <더 문> 같은 영화가 흥행에서 참패하는 가운데, <범죄도시> 시리즈가 연이어 천만 영화에 등극한 것을 보면,

이제 천만 영화의 경향이 바뀌어 간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게다가 2024년에 새롭게 천만 영화에 등극한 <서울의 봄>, <파묘> 같은 영화에도 아버지, 가족주의, 눈물, 스펙터클 등의 요소가 약화되거나 아예 부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천만 영화의 경향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고, 그 중심에 <범죄도시> 시리즈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연구자들은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만약 이 명제가 성립한다면, 마동석과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영화사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성공한 시리즈에 그치는 영화가 아니라는 말이다.

3. 나오며

스타를 연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정 시대에 스타가 된 배우의 외모를 비롯해 개인적인 특징을 먼저 연구해야 하고, 스타의 연기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스타가 등장한 영화의 여러 특징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다시 그 배우가 출연해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통해 스타 페르소나와 시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스타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동석이라는 배우의 스타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다시 말해, 본고는 마동석이 주연을 맡아 거대한 흥행을 기록한 영화의 특징을 세 시각에서 연구했다. 먼저, 마동석이 한국영화사의 최고 남성 스타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마동석과 비슷하게 강한 육체를 내세워 최고의 스타가 된 배우들이 영화계를 지배했던 1980년대 할리우드의 하드 바디 영화와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영화를 비교해서 분석했고, 마지막으로 마동석이 주연을 맡아 천만 영화에 등극한 <범죄도시> 시

리즈를 기존의 천만 영화와 비교해 보았다.

연구 결과, 기존의 한국영화사에서 마동석과 같은 배우가 최고 스타가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1980년대의 할리우드 하드 바디 영화와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캐릭터 재현 방법, 적대자, 이데올로기 등 많은 부분에서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범죄도시> 시리즈는 아버지, 가족주의, 눈물, 스펙터클을 강조하는 한국산 천만 영화보다는 권선징악, 해피엔딩, 슈퍼히어로를 강조하는 미국산 천만 영화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최고의 브랜드가 된 마동석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강성률, 『상처의 응시』, 아모르문디, 2020.
- 구혜원 외, 『다시 한국영화를 말하다』, 미다스북스, 2023.
-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아모르문디, 2018.
- 김이석·김성욱 외, 『영화와 사회』, 한나래, 2012.
- 무라야마 도시오, 권남희 역,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 사월의책, 2011.
- 배리 랭포트 저, 방혜진 역, 『영화 장르-할리우드와 그 너머』, 한나래, 2010.
- 수잔 제퍼드 저, 이형식 역, 『하드 바디 - 레이건 시대 할리우드 영화에 나타난 남성성』, 동문선, 2002.
- 에드가 모랭 저, 이상률 역, 『스타』, 문예출판사, 1992.
- 크리스틴 글렌드힐 저, 곽현자 역, 『스타덤: 욕망의 산업Ⅱ』, 시각과 언어, 2000.
- Stephen Prince, *Movie and Meaning: An Introduction to Film*, Allyn and Bacon, 1997.

<논문 및 신문 잡지 자료>

- 김경태, 「‘마초’와 ‘마요미’ 사이에서: 배우 마동석의 남성성 연구」, 『현대영화연구』 46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22, 43-61쪽.
- 김윤아, 「마동석, 장르가 되다」, 『영화가 있는 문학의 오늘』 48호, 솔 편집부, 2023, 194쪽.
- 김지혜, ““‘범죄도시3’ 효과”…마동석, 7월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1위”, <SBS연예뉴스>, 2023.07.13.
- 김창한, 「분노에 대하여 혹은 정의와 쾌락의 이중주—일상적인 것의

- 철학④], 『오늘의 문예비평』 122호, 오늘의 문예비평, 2021, 280-295쪽.
-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8, 137쪽.
- 박 꽃, “‘박꽃의 영화뜰’ 마동석이라는 유례없는 브랜드”, <미디어 오늘>, 2023.06.17.
- 서인숙, 「배우 송강호의 페르소나 연구 -남성성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56권, 한국드라마학회, 2018, 171쪽.
- 손영모·심효원, 「영화배우의 거울 이미지-루돌프 발렌티노의 다층적 캐릭터 분석」, 『CONTENTS PLUS』 15권 2호, 한국영상학회, 2017, 7쪽.
- 손은아, “마동석 해주먹 ‘트리플 천만’ 강타 ‘범죄도시4’ 1000만 관객 돌파”, <세계일보>, 2024.05.15.
- 음영철·김정현·노동욱, 「재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7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21, 237쪽.
- 이문원, “‘시대의 얼굴’ 남자 배우로 보는 전후 70년: ‘미국화 된 청년’ 이민에서 ‘불안한 시대의 액션 배우’ 마동석까지”, <월간조선>, 2023.07.
- 정수완, 「1950~60년대 한일 청춘 영화 비교 연구: 청춘 영화에 나타난 근대/국가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26호, 한국영화학회, 2005, 327쪽.
- 정 혁, 「90년대 문화적 코드 한석규」, 『인물과사상』 17호, 인물과사상사, 1999, 132쪽.
- 조 흡, 「[영화이야기] <범죄도시>: 공포와 영웅의 탄생」, 『대한토목학회지』 66권 1호, 대한토목학회, 2018, 78쪽.
- 주유신, 「[김지미]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팜파탈: 영화배우 김지미 연대기」, 『영화천국』 56호, KMDb-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2017, 23쪽.

“[63년 톱.런너] 영화계 / 신성일 생애 최고의 해 / “행운아라고요? 스스로 쌓아 올린 답이지요” / 올해 들어 21편 출연 매달 「팬.레터」 2백50통”, <서울신문>, 1963.12.02.

“[매력] ⑤ 신성일 / 고독한 인상의 반항아”, <조선일보>, 1966.01.09.

“[새 영화] 반항의 몸부림 / 빛을 낸 신성일의 호연 / 성난 능금”, <경향신문>, 1963.11.05.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마동석이 주연을 맡아 큰 흥행을 기록한 영화의 특징을 세 시각에서 연구했다. 연구의 전제 조건은 마동석처럼 육체를 강조한 배우가 한국영화사에서 최고 배우가 된 것을 ‘마동석 현상’이라고 규정 짓고, 그 현상을 세 시각으로 분석한 것이다. 세 시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동석이 기존의 한국영화사의 최고 남성 스타와 어떻게 구분되는 지 살펴보았다. 둘째, 마동석처럼 강한 육체를 내세워 최고의 스타가 된 배우들이 영화계를 지배했던 1980년대 할리우드의 하드 바디 영화와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영화를 비교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마동석이 주연을 맡아 천만 영화에 등극한 <범죄도시> 시리즈를 기존의 천만 영화와 비교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이렇다. 첫째, 기존의 한국영화사에서 마동석과 같은 배우가 최고 스타가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둘째, 1980년대 할리우드의 하드 바디 영화와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캐릭터 재현 방법, 적대자 설정, 이데올로기 등 많은 부분에서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 셋째, <범죄도시> 시리즈는 아버지, 가족주의, 눈물, 스펙터클을 강조하는 한국산 천만 영화보다는 권선징악, 해피엔딩, 슈퍼히어로를 강조하는 미국산 천만 영화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현재 최고의 브랜드가 된 마동석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 마동석, 스타 페르소나, 하드 바디, <범죄도시> 시리즈, 천만 영화

■ Abstract

A Study on Actor Don Lee's Star Persona

Kang, Seung Ryul / Kwangwoon University

In this paper, I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a hugely successful movie starring Don Lee, from three perspectives. This paper defines the "Don Lee phenomenon", the fact that an actor emphasizing the body like Don Lee became the best actor in Korean films, and analyzes this phenomenon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I examine how Don Lee was distinguished from the best male stars in traditional Korean films. Second, I compare the hard-body movies that dominated the movie industry of Hollywood in the 1980's, when actors with strong bodies, similar to Don Lee, to movies starring Don Lee. Finally, I compare The Outlaws series, which starred Don Lee and reached ten million viewers, with the existing ten-million-viewer-mark movi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very unusual for an actor like Don Lee to become a top star in the existing Korean film history. Second, both the movies starring Don Lee and the hard-body films of Hollywood in the 1980's share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in many areas: character representation, antagonist settings, and ideology. Third, The Outlaws series is even closer to American ten-million-viewer movies that emphasize poetic justice, happy endings, and super heroes, than Korean ten-million-viewer movies that emphasize fatherhood, familialism, tears, and spectacles. Therefore, the "Don Lee phenomenon", which has become the top brand today, can be described as highly exceptional.

Keyword • Don Lee, Star Persona, Hard Body, The Outlaws series, 10 Million Movies

■ 논문투고일:2024.06.21. ■ 심사완료일:2024.07.05. ■ 게재확정일:2024.07.22. ■

K-콘텐츠에서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

: 웹툰 <살인자ㅇ난감>을 중심으로

김 현 우*

목 차

1. 서론
2. 고유명사의 의미
3. 고유명사 번역의 선행연구
4. <살인자ㅇ난감> 사례 분석
5. 결론

1. 서론

최근 몇 년간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대장금>, <가을연가> 등으로부터 시작해 한류 열풍의 문을 연 K-드라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넘어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전 세계 시청률 상위권을 석권하며 여전히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BTS와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 그룹이 대표하고 있는 K-POP 또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에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되고 감독상, 작품상 등을 비롯하여 4개 부

* 목원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조교수

문에서 수상을 한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영화 또한 이듬해 배우 윤여정 씨가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고, 2022년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연이은 수상을 하며 대중성과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K-콘텐츠 가운데 웹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다른 성공적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도가 적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전 세계 웹툰 시장에서 K-웹툰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¹⁾ 또 다른 이유로는 웹툰이 가진 확장성이라는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웹툰은 그 자체로 대중성을 인정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웹툰이 드라마화 혹은 영화화가 되는 등 2차적저작물로 제작이 되고 또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웹툰 <유미의 세포들>은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극장판 3D 애니메이션 그리고 뮤지컬까지 제작이 된 일도 있다.²⁾ 이렇듯 다른 분야로 확장되는 특징을 가진 웹툰 원작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관심을 얻을 수 없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재 K-콘텐츠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지만 그 중 우리말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다른 언어로 바꾸어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만든 번역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의 번역은 단순히 출발어를 도착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다. 각 언어는 사용자의 고유한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은 하나의 문화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

1) <네이버웹툰>, https://www.webtoons.com/en/popular?rankingGenre=ALL&challengeRankingGenre=ALL&selectedComponent=WEBTOON_GENRE_RANKING, 2024.07.21.

2) <디지털 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0402109931078003, 2024.06.11.

와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작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영문 번역의 품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기생충>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영문 번역으로 큰 찬사를 받은 바 있지만 <오징어 게임>은 오역이나 원문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번역문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³⁾ 이에 더해 2차적저작물로의 확장성이 큰 콘텐츠인 웹툰의 경우 원작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웹툰 기반의 드라마와 영화로의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독자들과 처음 만나게 되는 원작 웹툰 번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번역은 번역가의 성향 혹은 역량에 따라 원문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비롯해 문화적 특수성을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번역을 출발어 위주의 직역으로 할 것인지 도착어 위주의 의역을 할 것인지는 번역가가 원작자, 편집자 등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도착어 문화의 이해도에 따라 번역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고유명사의 경우 충분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어떤 전략 취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 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말에서 고유명사는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의미를 담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차만 적용하여 번역한다면 작명을 통해 부여된 원작자의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하게 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가가 부여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번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명사의 번역에 있어서 적절한 전략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인명, 지명, 기관명 등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을 문학 작품의 번역 선행 연구와 <살인자○난감>의 번역 예시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BBC>,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787264>, 2024.06.11.

2. 고유명사의 의미

1) 서양에서의 고유명사

성명학 등이 발달해 있는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작명에 큰 관심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Barthes가 일반 명사는 다양한 의미들 가운데 하나만 지시하지만, 고유명사는 그 자체만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추억, 문화, 관습을 포괄하고 있다.⁴⁾ 라고 할 만큼 서양 문학에서도 동양 문화만큼이나 등장인물의 이름, 기관명, 지명 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명에도 큰 공을 들이기 마련이다. 이처럼 서양 문학에서도 고유명사는 자신만의 중요한 역할이 있으며 이는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기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요소이다.

서양 문학에서 사용되는 작명의 기법으로 최명원은 Birus의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해리 포터에서 쓰인 캐릭터의 이름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 가. 특정 인물을 구현하는 이름
- 나. 드러내 보이는 이름
- 다. 범주적 이름
- 라. 음색 상징적 이름
- 마. 등장인물의 특징과 무관한 이름

특정 인물을 구현하는 이름의 경우 역사, 신화, 소설 등 실존이나 허구의 인물의 이름을 등장인물에 부여하여 그와 비슷한 성격이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드러내 보이는 이름이란 고유명사의 소리가 가진 뜻 혹은 어원이 지칭하는 의미를 고유명사에 담아낸 작명

4) Roland Barthes 저, 김응권 역, 『글쓰기의 영도』, 동문선, 2007, 146쪽.

이다. 인물이 소속되어 있는 계층이나 집단을 지시하여 작품 내에서의 비중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범주적 이름과 고유명사의 음색이 주는 심상으로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음색 상징적 이름, 그리고 작가의 개인적 선호로 붙여진 이름도 있다.⁵⁾

이렇듯 서양 문학에서도 지시하는 인물 혹은 사물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는 역할을 고유명사가 수행하게 되므로 Lodge는 작가의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 소설에 등장하는 이름은 객관적이지 않고 늘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작명이라는 프로세스는 소설의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작가로서 깊이 고민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⁶⁾

2) 동양에서의 고유명사

동양 문화에 있어서 고유명사 작명의 특징으로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삼을 수 있다. 한글이나 로마자와 같은 표음문자와는 달리 한자는 각각의 문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의문자이므로 작가에게는 고유명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독자에게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⁷⁾ 특히나 문학작품이나 영화, 웹툰 같은 창작물의 경우 허구의 인물에게 특정 성격이나 서사를 부여 위해서 작가의 의도를 담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8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 비영어권 TV 시리즈 글로벌 1위를 기록한⁸⁾ <마스크 걸>의 경우 네이버웹툰에 “끝내주게 못생기고 끝내주

5) 최명원, 「문학작품 속의 어휘들: “해리 포터”시리즈 등장인물 이름의 분류와 분석」, 『독어학』 18권, 한국독어학회, 2018, 266-279쪽.

6) David Lodge 저, 김경수·권은 역, 『소설의 기교』, 도서출판 역락, 2010, 66쪽.

7) 박효진·박윤희, 「한영 문학 번역에서의 이름 및 지칭어 고찰」, 『국제어문』 64권, 국제어문학회, 2015, 194쪽.

8)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3-08-27>, 2024.06.11.

게 몸매 좋은 여자, 김모미⁹⁾ 라는 글로 소개가 되어 있다.

미모라는 글자를 거꾸로 쓴 ‘모미’라는 이름에서 주인공의 외모가 일반적인 미인의 기준과 정반대되는 외모를 가진 인물이라는 특징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강해 마스크로 얼굴은 가리지만 아름다운 몸매만을 본인이 자랑거리로 삼고 이를 활용해 인터넷 방송을 하는 ‘김모미’의 ‘몸이’ 예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모미’는 자기 외모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며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긴 하지만 자신 또한 끊임없이 타인을 외모로 평가하며 자신 또한 몸매를 드러내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몸매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격을 나타내는 등 미모라는 단어를 뒤집은 ‘모미’라는 이름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고유명사가 있다. 박철우는 이를 공유지식이라 말하며 이러한 이름들은 어떤 실체를 가리킬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를 이용하여 지시한 대상이 해당 언어 사용자들에게 공통된 존재로 인식되는 단어를 고유명칭이라 명명하였다. 고유명칭은 모두가 공유하는 지식으로 이런 이름들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이유는 고유명칭이 화자와 청자에게 같은 의미로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⁰⁾ 웹툰을 기반으로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어 세계 시청률 1위에도 오른¹¹⁾ <지옥>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기관명인 소도가 쓰인다. 천사의 사망 고지를 받은 이들은 세 명의 사자들에게 잔인하게 죽게 되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를 이용해 힘을 키우는

9) <네이버웹툰>, <https://comic.naver.com/search?keyword=마스크%20걸>, 2024.06.11.

10) 박철우, 『이름의 언어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61-62쪽.

11)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1-11-21>, 2024.06.11.

새진리회로부터 사망 예정자들을 돕는 단체가 등장한다. 작가는 삼한에서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서 죄인이 도망해 들어와도 함부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성역인 소도를 그 단체의 이름으로 삼았다. 소도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국사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이름으로 한국 문화 내의 공유지식이라 할 수 있다.

3. 고유명사 번역의 선행연구

동서양을 막론하고 창작물에서 이렇듯 중요한 요소인 고유명사가 번역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고유명사는 일괄적으로 로마자로 변형되어 그대로 쓰이는데 이는 가독성도 떨어질 뿐더러 작가가 고유명사에 부여한 의미를 타겟 텍스트의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타겟 텍스트 소비자에게 적합한 방식인지를 고민해 보고 웹툰의 번역에서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어 현재 활발히 번역되고 있고 웹툰의 원문 번역이 2차적저작물의 번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고유명사가 내포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를 타겟 텍스트 독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지만 웹툰이라는 장르가 소설, 영화 등 다른 창작물보다 역사가 짧고 웹툰에서 다루어진 고유명사의 번역에 관해 다루는 선행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웹툰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창작물의 번역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웹툰에 적합한 번역 전략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특히 소설이나 영화와 웹툰에서 고유명사의 작명이 가진 성격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오랫동안 번역이 되어 왔고 선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문학 작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되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살인자○난감>의 사례를 통해 웹툰 번역에서 사용된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고유명사의 의미와 로마자 표기법의 한계

우리나라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정하여 지명, 인명 등을 이에 따라 표기한다. 하지만 이미 여러 논문에서 표준 로마자 표기법의 한계가 논의되었다. 김선철은 우리나라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포함해 네 가지의 어문 규범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가장 자주 개정됐다고 한다.¹²⁾ 이 사실을 통해 로마자 26자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에 따르면 로마자의 현재 수요자인 한국에 있는 외국인 220명과 잠재 수요자로 분류할 수 있는 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220명, 총 440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만족도는 고작 57.3%로 평가되었다.¹³⁾ 절반에 가까운 수요자들이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로마자 표현의 한계점으로 김정우는 한글은 음가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로마자의 경우 국가별로 그 독법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꼽았다.¹⁴⁾ 이에 더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말의 고유명사는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단어 자체가 단순한 지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표의문자를 표음문자로 일괄 번역한다는 것은 타겟 텍스트의 독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유명사가 함의하고 있는 바를 찾는 노고를 타겟 텍스트의 독자에게 전가하게 된

12) 김선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한국어학』 56권, 한국어학회, 2012, 2쪽.

13)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 한글학회, 2010, 300쪽.

14) 김정우,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연구』 9권 2호, 한국번역학회, 2008, 85쪽.

다는 점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듯 로마자로 일괄 변형시키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는 고유명사의 번역을 효율적으로 타겟 텍스트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기존의 고유명사에 대한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번역 전략

Aixela는 지역 시설, 거리, 역사적 인물, 장소명, 인명 등 고유명사를 포함해 원본 텍스트가 가진 의미가 타겟 텍스트로 전환될 때 등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텍스트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가 다른 항목을 문화특정 항목이라 정의하고 문화특정 항목의 번역 전략을 보존과 대체라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리로 구분하였다. 보존의 경우 반복, 철자법의 적용, 언어 중심 번역, 텍스트 외적인 주석, 텍스트 내적인 주석을 통해 원본 텍스트에서 나타난 표현을 타겟 텍스트에서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반면 대체의 경우 동의어, 제한적 일반화, 절대적 일반화, 자국어화, 삭제, 자율적 창작을 통해 원문 텍스트와 타겟 텍스트 간의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타겟 텍스트의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¹⁵⁾

박효진은 현대 한국 단편 소설 중 한글 원문과 영어 번역문을 한 권으로 묶은 한영 대역본 중 의미를 지니는 이름, 지칭어 혹은 작가가 언어유희 등의 의도를 가지고 작명한 고유명사가 나오는 여섯 작품을 선정해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네 가지의 전략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고유명사 번역의 양상을 분석하고 번역문에서 작가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타겟 텍스트의 독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음차, 음차+직역, 음차+본문 주석, 타겟 텍스트 문화의 이름으로¹⁶⁾ 대체라는 주로 사용된 네 가지

15) Javier Franco Aixela 저, 윤일환 역, 『번역, 권력, 전복』, 도서출판 동인, 2008, 99-107쪽.

16) 박효진·박윤희, 앞의 논문, 199쪽.

전략을 추려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10년 웹툰으로 발행되었고 2024년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방영되어 비영어권 TV 시리즈에서 1위에 오른 <살인자○난감>¹⁷⁾의 사례를 통해 고유명사를 인물 지칭어, 사물 지칭어, 지명 지칭어, 단위 지칭어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 적용된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살인자○난감> 사례 분석

<살인자○난감>을 접한 일반 독자이든 번역가이든 제목에서부터 난감함을 느끼게 된다. 한글로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작품이기에 작가 자신도 “불친절한 제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¹⁸⁾ 웹툰으로 발행되었을 때는 게시판에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을 때는 각종 기사와 블로그에서 이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이어졌고 수많은 질문만큼이나 다양한 각자의 해석을 내놓았다. 글자 그대로 살인자 이응 난감, 살인자 오 난감과 같이 읽거나 살인자의 난감, 살인 장난감 등 이응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실 원작자는 2010년 단행본을 마무리하는 글에서 등장인물 중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각자의 해석에는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 독자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된다는¹⁹⁾ 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살인자○난감>은 제목부터 언어유희로 가득한 작품인 만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작품의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17)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4-02-18>, 2024.06.11.

18) 꼬마비·노마비, 『살인자○난감』, 도서출판 동인애니북스, 2011, 204쪽.

19) 위의 책, 206쪽.

이 작품은 등장인물의 이름에서도 작가가 작명의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주인공인 ‘이탕’, 그의 살인 조력자인 ‘노빈’, 또 다른 살인자 ‘송촌’ 그리고 이들을 집요하게 쫓지만 결국 이들에게 농락당하고 마는 형사 ‘장난감’까지 의미를 함유하지 않은 이름은 없다. 단행본의 끝에 실린 인터뷰 글에서 작가는 등장인물의 작명에서 드러난 본인의 심사숙고와 비록 작명의 진의를 독자들이 금세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이는 작가 본인을 위한 유희라고 설명하면서 각각의 등장인물에 붙여준 이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음은 등장인물의 이름 외의 고유명사를 그 종류별로 나누고 분류별 적용된 번역 전략을 살펴보았다.

1) 인물 지칭어

아이헬라의 전략에서 보존과 수용을 가리지 않고 가장 다양한 전략이 사용된 카테고리이다. 이름과 호칭의 경우 대부분은 삭제되거나 인칭대명사인 you로 대체되는 등 수용 전략이 가장 활발히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음차표기되었는데 주인공인 ‘이탕’의 경우 Tang이라는 음색에서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이미지가 반복되면서 범죄의 폭력성에 있어서 점점 과감해 지는 주인공의 성격과 맥을 함께하는 듯하다. 생략, 인칭대명사로 대체 되거나 음차 표기된 이름을 제외한 일부 호칭의 경우 일반명사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다.

[표 1] 인물 지칭어 번역의 예

어이!	Boy!	아저씨	Old Man
아저씨	Hey, Sir!	학생	Hey
김씨	Mr. Kim	아가씨	Miss
오빠	Babe	점순이	Moley

[표 1]의 예시 중 ‘아저씨’라는 한 단어를 ‘Old Man’과 ‘Hey, Sir!’로 다르게 번역한 것은 맥락에 맞는 어휘를 고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앞에 쓰인

‘Old Man’은 중년의 남자를 지칭한 말이고 뒤에 쓰인 ‘Hey, Sir!’는 중년 남자의 관심을 돌리려 부르는 말이었기에 같은 단어라 해도 달리 번역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인을 지칭한 단어로 ‘김씨’와 ‘오빠’가 쓰였다. 중년 여성이 자신의 외도 상대인 남편의 직장 동료를 칭하는 ‘김씨’는 호칭어에서부터 너무 친근감을 드러낼 수 없기에 ‘Mr. Kim’이라는 경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연인 간 남자 친구를 부르는 ‘오빠’의 경우 로마자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타겟 텍스트 문화에서 연인 간 애칭인 ‘babe’를 사용하여 타겟 텍스트 소비자 중심의 단어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얼굴에 점이 있어 ‘점순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등장인물의 별명은 로마자로 일괄 표기한 다른 이름들과는 달리 우리말 점을 뜻하는 영어단어 mole에서 따온 ‘Moley’라는 이름으로 대체하여 원문에서의 작명 의도를 타겟 텍스트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2) 사물 지칭어

원문에 등장하는 고유명사 중 다양한 사물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압도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다. 이 같은 사물 지칭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아이 헬라의 자국어화, 박효진이 언급한 타겟 텍스트 문화의 이름을 대체라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표 2] 사물 지칭어 번역의 예

디스!	cigarette	카스	beer
장	check	사짜	Doctor
짜장면	noodle	순대국밥	Soup combo
뷔스	buffet	터줏대감	seniority
디스	Lucky	플러스	Strike

이 전략은 한국 문화에 익숙치 않은 독자들에게 가장 무난하게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물이 내포하고 있는 의

미까지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스’는 출시 당시 국민 담배로 불리며 군 장병들에게도 보급될 정도로 일반 대중이 부담 없는 가격에 피울 수 있는 담배의 대명사로 불렸던 제품이다. ‘카스’와 함께 ‘디스’는 이를 주문한 아저씨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였지만, 영어로 번역했을 때 단순히 ‘cigarette’와 ‘beer’만으로는 이 사물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같은 담배 이름이 중반부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율적 창작에 가까운 타겟 텍스트 문화로 대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과 그들을 죽이게 되는 ‘이탕’이 만나게 되는 장치로 담배를 사용하게 되는데 앞 장면에서는 ‘디스’라는 소제목을 뒷 장면에서는 ‘플러스’라는 소제목을 사용해 두 소제목을 연결하면 디스 플러스라는 담배 이름이 되는 언어유희를 타겟 텍스트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첫 번째 소제목을 ‘Lucky’로 두 번째 소제목을 ‘Strike’로 번역해 두 소제목을 붙여 읽으면 역시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영국 담배회사의 제품명이 되는 새로운 언어유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번역은 담배를 매개로 잠재적 살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된다는 내용이 제목에도 드러나는 원작의 의도를 충분히 잘 살렸다 할 수 있다.

사물을 지칭하는 고유명사 중 타겟 텍스트 문화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부의 경우 직역을 하여 그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표 3] 사물 지칭어 번역 중 직역의 예

돈벌레	Creep with money	소꿉친구	Growing up together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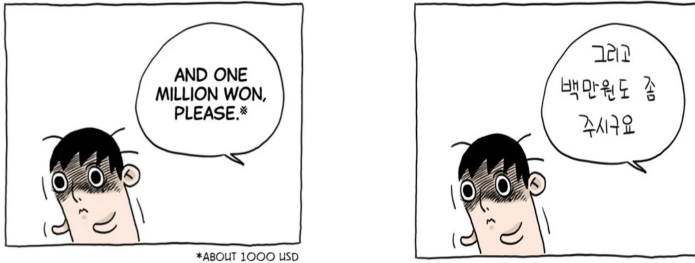
3) 지명 지칭어와 단위 지칭어

지명의 경우 모두 음차 번역을 했다.

[표 4] 지명 지칭어 번역의 예

강원도	Gangwon Province	대전	Daejeon
부산	Busan	서면	Seomeyon

단위의 경우 [그림1]에서 보이듯이 숫자는 직역 단위는 음차 번역을 했지만, 해당 컷 외부에 주석을 달고 달러 단위로 환산했다.



[그림 1] 단위 지칭어 번역의 예

사물 지칭어 다음으로 사용 빈도수가 높은 고유명사는 등장인물의 이름과 호칭을 포함하는 인물 지칭어이다. 이름과 호칭의 경우 다양한 번역 전략들이 문맥에 적당하게 사용되었는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음차표기된 경우 주인공 중 한 명인 ‘장난감’이라는 이름은 한글 제목으로도 그의 이름이 쓰이고 작가가 인터뷰에서 그의 이름에 작품 전체의 정서를 반영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만큼 입체적인 작명이지만 그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준다.²⁰⁾ 반면 주인공 ‘이탕’과 그의 조력자 ‘노빈’의 작명이 타겟 텍스트로 변환할 때도 유리한 작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가 주는 음을 때문이다. ‘탕’이라는 이름은 마치 단단한 물체를 세게 내리칠 때 나는 의성어와 같아 로마자 표기만으로도 인물의 상징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노빈’의 경우 원문에 설명이 나오듯 배트맨의 조력자인 로빈과 소

20) 꼬마비·노마비, 앞의 책, 213쪽.

리의 유사성을 지닌 이름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 등장인물을 성격과 그가 작품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 작가의 의도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살인자ㅇ난감>은 2010년에 완결된 웹툰이 2024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방영되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출간 당시 작가는 14년 뒤 이 작품이 영상화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리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등장인물 작명에 있어서 의성어를 연상케 하는 이름과 널리 알려진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타겟 텍스트 문화의 소비자들에게도 의미 전달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고유명사를 창작해 냈다. 흔히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이 시점에 창작자들이 고민해 봐야 할 과제는 창작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문화를 담고 있으면서 해외의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방법일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번역의 전략도 변해야 한다. 과거 영문 번역본의 소비자가 영어권 국가의 독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영문 웹툰을 비영어권 소비자들도 즐기고 있다. 그러므로 타겟 텍스트의 문화를 단순히 영어권 국가의 문화라고만 정의하기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작자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작품의 번역본에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담아 타겟 텍스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번역 전략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선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한국어학』 56권, 한국어학회, 2012, 2쪽.
- 김정우,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연구』 9권 2호, 한국번역학회, 2008, 85쪽.
- 꼬마비·노마비, 『살인자ㅇ난감』, 도서출판 동인애니북스, 2011, 204쪽, 206쪽, 213쪽.
- <네이버웹툰>, <https://comic.naver.com/search?keyword=마크%20걸>, 2024.06.11.
- <네이버웹툰>, https://www.webtoons.com/en/popular?rankingGenre=ALL&challengeRankingGenre=ALL&selectedComponent=WEBTOON_GENRE_RANKING, 2024.07.21.
-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1-11-21>, 2024.06.11.
-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3-08-27>, 2024.06.11.
-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4-02-18>, 2024.06.11.
- <디지털 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0402109931078003, 2024.06.11.
- 박철우, 『이름의 언어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61-62쪽.
- 박효진·박윤희, 「한영 문학 번역에서의 이름 및 지칭어 고찰」, 『국제어문』 64권, 국제어문학회, 2015, 194쪽, 199쪽.
- 최명원, 「문학작품 속의 어휘들: “해리 포터”시리즈 등장인물 이름의 분류와 분석」, 『독어학』 18권, 한국독어학회, 2018, 266-279쪽.
-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 한글학회, 2010, 300쪽.

<BBC>,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787264>, 2024.06.11.

David Lodge 저, 김경수·권은 역, 『소설의 기교』, 도서출판 역락, 2010, 66쪽.

Javier Franco Aixela 저, 윤일환 역, 『번역, 권력, 전복』, 도서출판 동인, 2008, 99-107쪽.

Roland Barthes 저, 김응권 역, 『글쓰기의 영도』, 동문선, 2007, 146쪽.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웹툰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서양과 동양에서 고유명사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 후 적합한 번역 전략을 찾고자 한다. 로마자로 일괄 번역하기에는 고유명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타겟 텍스트의 독자에게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양과 동양의 고유명사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였다. 아직 웹툰이라는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고 그 번역의 역사는 더욱 짧기 때문에 다양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문학 번역 연구에서 고유명사는 상호 연관성이 깊으므로 기존 문학에서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을 선행연구로 삼아 웹툰을 기반으로 2차적저작물까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살인자○난감> 속의 고유명사를 인물 지칭어, 사물 지칭어, 지명과 단위 지칭어로 나누어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어떤 번역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분류해 보았다.

주제어 ● 웹툰, 2차적저작물, 웹툰 번역, 번역 전략

■ Abstract

Translation Strategy for Proper Nouns in K-content : Focused on the webtoon <A Killer Paradox>

Kim, Hyun Woo / Mokwo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proper nouns used in webtoons. First, we seek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proper nouns in Western and Eastern culture, and then identify appropriate translation strategies. Since the Romanization of Korean may not effectively convey the meaning inherent in proper nouns to readers of the target text, we examined previous studies on the translation of proper nouns in Western and Eastern academia to find methods for effectively communicating the author's intentions. Given the relatively short history of webtoons and their translations compared to other fields, there is a lack of diverse prior research. However, since proper nouns in literature often exhibit deep interconnections, we drew from previous studies on translation strategies for proper nouns in literature. We categorized the proper nouns utilized in <A Killer Paradox>, which is a globally successful TV series based on a K-webtoon, into those indicating people, those indicating objects, and those indicating places and units. Then we classified the translation strategies used in each category.

Keyword • Webtoon, Adaptation, Webtoon translation, Translation strategies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 FGI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문가 의견 분석

노 기 수*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문화의 산업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많은 국가가 문화콘텐츠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추세이다. 특히 OTT(Over The Top)라는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은 콘텐츠 분야의 기술 투자를 확장하며 콘텐츠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2021년에 매출 137조 원을 달성했고 매출액은 연평균 5% 성장하였으며, 수출의 경우 124억 달러를 달성했고 수출액은 연평균 9% 성장하였다. 이는 전체 산업 연평균 성장률인 3%보다 3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과 도시·환경정책 박사 수료

배 높아 콘텐츠산업의 높은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있다. 특히 한 분야의 콘텐츠가 다양한 콘텐츠 및 상품으로 발전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속성을 통해 다른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지역에 촘촘한 콘텐츠 분야의 창업 또는 기업지원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콘텐츠 생산의 기반 및 수요를 확장하며 자생력을 갖춘 지역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K-콘텐츠를 세계 시장의 선두 주자로 육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보증·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게임·영상·만화·웹툰 등의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 확대를 국가 핵심 수출산업 입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¹⁾

정부는 그동안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정책을 통해서 2000 ~ 2010년간 2개 문화산업단지(청주, 춘천)와 16개 지역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11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개 시설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하였다.²⁾ 특히, 2006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역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였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8년에 부산, 대구, 부천, 전주, 천안, 제주, 인천, 고양과 함께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업체가 집적된 지역을 선정하여 상호교류 및 상호협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대전광역시 역시 2007년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개원하여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육성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이후 2015년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대전정

1)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policy/plan2024/plan2024.jsp?pTab=02#, 2024.05.21.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콘텐츠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15, 39쪽.

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꾸고 기능을 확장하여 정보통신산업도 전담하게 하였다.³⁾ 이와 더불어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은 2022년 기준 약 2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⁴⁾ 대전광역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여, 공주와 인접하고 있어 초광역권 문화 예술 및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과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가 융복합하여 차후 창의적인 첨단 콘텐츠 제작이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향후 대전시의 문화콘텐츠 분야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1)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과 분류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며,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이다.⁵⁾ 기존의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 또는 집단의 총체적인 삶의 양식으로 주로 정신적인 측면을 의미하였으나, 산업의 개념과 함께 쓰이며 문화를 하나의 재화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문화의 기획, 생산, 유통, 소비와 연관된 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3)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s://www.dicia.or.kr/hist.do?menuldx=MENU_000000000000061, 2024.05.20.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연구 결과 보고서』, 2023, 74쪽.

5) 이정근, 「대전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쪽.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정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1999년 이후 10여 차례 법 개정과 함께 조금씩 보완·확장된 개념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용어는 문화산업의 하위 개념이지만, 문화산업에 비해 보다 새롭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⁶⁾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법 성격을 지닌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흐름을 살펴보면, 최초에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2002년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0년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며 기존의 문화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산업 분야이자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분류를 살펴보면 문화산업의 범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 캐릭터, 디자인, 디지털문화콘텐츠, 대중문화예술, 의상, 조형물, 전시회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의 12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2)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클러스터(cluster)는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상호 연관된 기업, 전문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연관 산업 분야의 기업, 관련기관 등이 공간적으

6) 이병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과학기술정책』 14권 5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45쪽.

로 집적된 곳으로 정의된다.⁷⁾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는 201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실태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기업, 전후방 연관 산업, 대학, 연구소, 기타 지원기관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유기적 연결을 통한 사업 전개, 기술개발, 부품 조달, 인력 교류, 지식·기술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산업의 집적지’로 제시할 수 있다.⁸⁾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성공 요인에 관해 기존의 연구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성공 요인

연구자	구성 요소 및 성공 요인
이병민(2003)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할 체제 구축, 지역의 선정산업 타당성 검토 및 유망산업 선정을 통한 지원집중, 지역 상황에 맞는 성장 단계별 진화 모델과 지원 방향, 기능적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
Brown(2000)	과학 기반, 기업가정신, 회사 수의 증가, 핵심 인재 양성능력, 인프라 구비, 지역 내 자금조달원 사업 지원 서비스 및 연관 산업 대기업, 숙련노동력, 효율적 네트워킹, 적극적 지원 정책
고정민(2002)	산학 연계 강화, 포럼 개최, 비전제시자 확보, 시스템통합자 확대, 인력 공급, 펀드 구성, 아웃소싱 강화, 집적화, 복합클러스터 추진, 클러스터 브랜드화
박경숙(2010)	기업의 역량 강화, 문화콘텐츠산업을 둘러싼 제도적·문화적 환경의 창출, 혁신 주체들의 협업
정세일(2007)	사회적자본, 산업 체제의 흡수능력, 경쟁적 환경, 업체의 개혁성,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김삼철(2014)	공식적·비공식적 지식정보 교류 네트워크,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산학연 연계 강화, 대기업 및 스타 기업 등 비전제시자, 창의력 있는 전문 인력, 금융지원시스템,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의 아웃소싱 활성화, 기업 및 지원 시설의 집적화, 소비 관광단지 등과 연계한 복합 클러스터화, 클러스터의 브랜드화

7) Porter, M.,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6, no. 7, 1998, pp.77-90.

8) 박성식,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시론적 고찰」, 『문화경제연구』 19권 3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6, 167쪽.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체로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금융지원, 지리적 연접, 창의적인 인력의 공급, 성공적인 리더나 기업의 등장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콘텐츠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전의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중앙정부의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방향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자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지역콘텐츠산업 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전시 역시 지역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콘텐츠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지원강화를 위해 대전 콘텐츠 분야 기업 육성 거점 및 콘텐츠 창업 지원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5세대 이동통신 환경의 신시장이 대두되면서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과 분야 간 불균형 등 급변하는 생태계 위기가 발생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문화콘텐츠 관련 창·제작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환경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지역 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의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다.

연구 문제 1.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제 2.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FGI(Focus Group Interview) 대상은 대전지역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정책담당자, 실무자와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 전담 기관의 기관장, 단장, 팀장, 담당자 등 4명, 대전광역시 담당 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자 등 3명, 학계 전문가 4명, 관련 업계 종사자 5명으로 총 16명이었다. FGI를 통해 전술한 연구 문제 중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현황 및 평가,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16명의 참여자를 동 시간에 모두 참여하는 FGI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 분야별 관계자들 간의 FGI를 2 ~ 3회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FGI는 2024년 4·5월 중 수시로 개최하였다.

[표 2] FGI 대상자 정보

구분	소속	직책
지역 전담 기관 (정책/실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단장
	"	팀장
	"	실무자
대전광역시청 (정책/실무)	문화콘텐츠과	과장
	"	팀장
	"	실무자
학계	M대학교 영상 관련 학과	교수
	S대학교 웹툰 관련 학과	교수
	D대학교 게임 관련 학과	교수
	P대학교 예술 관련 학과	교수
업계 종사자 (민간 기업)	영상 관련 업체	대표
	연극·공연예술 관련 업체	대표
	웹툰·애니메이션 관련 업체	대표
	출판 관련 업체	대표
	음악 관련 업체	대표

FGI를 통해 전술한 연구 문제 중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현황 및 평가,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효과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적용하여, 총 세 단계로 의견 수집 과정을 설계하였다. 첫 단계는 선행연구에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유목화, 범주화 과정을 통해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 단계로 작성된 질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GI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인터뷰를 시행하고 수집한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연구 문제에 타당한 내용으로 답변이 수집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 질문을 바로잡아 최종 FGI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질문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FGI 질문 문항

질문1	대전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및 한계
질문2	대전지역 문화콘텐츠산업 강점 및 약점
질문3	대전지역 문화콘텐츠산업 기회와 위기
질문4	대전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필요성
질문5	대전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질문6	대전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마지막 단계로 참여자 간 응답 내용의 편차를 줄이고 연구자의 의도에 맞는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각 참여자에게 동일한 순서로 같은 질문을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FGI 대담 과정은 녹음한 뒤 전사(轉寫)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는 1) 참여자 16명의 응답 내용을 질문에 따라 분류하여 1차 범주화를 진행하고, 2) 각 참여자의 응답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이 이나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클리닝에는 참여자의 응답 내용을 익명 처리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전문가 3인에게 질문과 응답 내용을 함께 제시한 뒤, 중복과 관계없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수정 보완하여 데이터 검토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어지는 과정은 모두 수정 보완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4. 연구 결과

1)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현황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산업조사 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체 수는 3,746개, 종사자 수는 13,246명, 매출액은 1조 6,653억 원이다. 이는 특광역시단체 중 서울·경기,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전국 6위 수준이다. 콘텐츠 분야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대전광역시의 우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4]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체 현황

구분	전국	서울·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사업체 (개)	114,754	63,831	5,813	5,021	5,165	3,746
종사자 (명)	626,396	467,427	21,656	17,507	15,403	13,246
매출액 (억 원)	150조 9,771	131조 2,984	2조 5,317	2조 354	1조 9,127	1조 6,653

또한, 2022년 사업체 수 대비 매출액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당 매출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 광역시 중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는 모두 4위 수준이나, 사업체 수 대비 매출액은 1위이다.

[표 5]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체 수 및 매출 분포

도시	매출 (백만 원)	순위	사업체 (개)	순위	종사자 (명)	순위	사업체 수 대비 매출 (백만 원)	순위
부산	2,531,691	1	5,813	1	21,656	1	436	1
대구	2,035,420	2	5,021	2	17,507	2	405	2
인천	1,912,668	3	5,165	3	15,403	3	370	3
광주	1,307,196	5	3,326	5	11,456	5	393	5
대전	1,665,317	4	3,746	4	13,246	4	445	4
울산	736,246	6	1,886	6	6,222	6	390	6
세종	204,070	7	562	7	1,938	7	363	7

대전시 콘텐츠산업의 인프라를 살펴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스튜디오 큐브(대형 영상 촬영 스튜디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중소 규모의 영상 촬영 스튜디오, 넷플릭스 지옥 등) 등이 있다. 또한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전웹툰캠퍼스(웹툰 작가 창작공간 제공 및 지원사업 추진), 대전콘텐츠코리아랩(1인 기업 등 입주 공간 제공 및 육성), 음악창작소(대중가요 분야 지원시설) 등이 있다. 이스포츠 분야에는 대전 이스포츠경기장 ‘드림 아레나’가 운영 중이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글로벌게임센터, VR/AR 제작지원센터 등이 있다. 인적 인프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5곳에서 12개 학과, 종합대학 7곳에서 51개 학과, 전문/기능대학 5곳에서 16개 학과가 개설되어 매년 2,700명가량이 졸업⁹⁾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계 일반고를 중심으로 관련 학과로는 미디어디자인과, 만화예술과, 예술계열, 광고영상 디자인과, 미술과, 음악과, 연기예술과, SW 개발과, 임베디드 SW과 등으로 나타난다. 종합대학 관련 학과로는 영상애니메이션학과, TV영화학부, 실용음악과, 지능 SW공

9)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0, 147쪽.

학과, 공연예술학부, 컴퓨터공학과 등으로 나타난다. 전문/기능대학 학과로는 연극영상과, 방송콘텐츠과, 시각디자인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정보&스마트폰과, VR 미디어콘텐츠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표 6]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FGI 설문 결과

- 지역 내 인적자원 축적을 위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전문가 양성사업 및 우수한 신규 인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제작 유통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문화콘텐츠산업 특성상 단기적 사업을 통한 충분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점을 사업에 반영하여 기존 지원기관에서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
- 콘텐츠는 다른 분야와의 연계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야와 함께 컨소시엄을 통한 연계 방안 필요
- 전시박람회,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기업 인지도 및 경쟁력 측면에서의 역량 강화
- 문화콘텐츠 상품인 창조적 자산의 극대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및 활용
- 기술 진보와 함께 온라인 문화콘텐츠 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 지원사업 평가위원 인력 풀 중에 실무자급 위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 강화
- 콘텐츠 제작 자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정책 필요
-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적은 금액만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하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보다 지역에서 주도하고 지역의 고유성이 담긴 지역별 마스터플랜 수립
- 지역의 콘텐츠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펀드를 설립하고 특히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역 연고 스토리 발굴을 위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해야 함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산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으로 제시된 방안은 첫째로 전문 인력의 양성, 둘째로 장기적 관점의 지원사업, 셋째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이

었다. 전문인력양성의 경우 결국 콘텐츠 제작의 품질은 콘텐츠 기획자나 제작 인력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업무에 대한 숙련도 보다는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잠재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콘텐츠 기업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대전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지역에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의 지원사업 역시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콘텐츠의 경우 기획부터 실제 제작 및 유통까지 소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년도 지원보다는 2~3년 혹은 그 이상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경우 연초에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알리고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을 모집하고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실제 콘텐츠 제작이 시작되는 시기는 빨라야 5~6월 경이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콘텐츠를 제작하여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12월 쯤까지 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콘텐츠 분야 중 예를 들어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만 해도 장편 드라마 분야는 기획에 18.1개월, 예능 교양 분야는 5.9개월, 다큐멘터리 분야는 8.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¹⁰⁾ 단년도 지원사업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없다.

10)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trend/vol33/sub/s32.html>, 2024.06.10.

[표 7] 장르별 기획개발 소요 기간(평균값) 및 제작으로 이어지는 비율

장르	기획개발 소요 기간		제작으로 이어지는 비율	
드라마	장편	18.1개월	장편	28.9%
	단편/숏폼	8.3개월	단편/숏폼	56.1%
예능·교양	5.9개월		28.1%	
다큐멘터리	8.1개월		52.8%	

또한 제작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장르에 따라 28%에서 56%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1차 연도는 기획개발을 지원, 2차 연도는 실제 제작을 지원, 3차 연도에는 마케팅 혹은 배급유통을 지원하는 단계별 혹은 다년도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기관 혹은 대전시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근시안적 시야보다는 성공적인 콘텐츠 발굴을 위한 장기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시야가 필요하다.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역시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콘텐츠 분야 내에서도 OSMU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장르로의 확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소설의 경우 웹툰으로 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후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도 제작되었고, 드라마화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벌집 막내아들>, <선재 업고 튀어> 등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이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역시 <시동>, <신과 함께>, <내부자들> 등의 사례가 있으며 <무빙> 등은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콘텐츠산업 외 분야와도 충분히 융복합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관광이다.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경우 영화 촬영장을, 입장료를 받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의 테마파크까지 이르렀으며, 국내에는 <미스터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촬영 세트를 그대로 유지하여 테마파크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혹은 과학 분야와의 융복합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웹툰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작화 또는 배경 작업에 대한 상용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OST(Original Sound Track) 제작에서도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는 MICE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게임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등을 활용한 전시박람회 역시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의견 외에도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활성화 방안 역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시박람회 참여 등을 통한 판로개척, 저작권 보호 방안, 자금지원, 지역 특화 중장기계획 수립,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 제작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의견을 표6으로 정리하였으며, 굵게 표시된 내용이 다수의 응답자가 공통으로 제시한 활성화 방안이다.

3)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표 6]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FGI 설문 결과

- 대전시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업, 대학의 긴밀한 네트워킹 형성
- 지역콘텐츠산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들이 효과적으로 경력을 관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요구
- 대기업과 대전시 중소기업 동반 신흥시장 진출 및 시장 창출 활동 지원
-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사업 수혜 기업에 대한 분야별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지원사업 만족도 및 사업 보완 내용 등의 피드백 도출
-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 인력 조사연구 및 정책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 진입 경로, 노동시장 내의 인력들의 행태 등을 분석한 인적자원 기초 자료 양산 필요
- 대전시의 프로그램과 타 산업 및 지역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홍보 및 활성화 필요
- 시장 판로개척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및 역할이 요구되며, 콘텐츠 제작업체와 마케팅 업체 간의 연계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 중요
-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여 지역 내 액셀러레이터들을 통해 초기 창업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컨설팅을 지원
- 지역 내 콘텐츠 향유 계층을 확보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콘텐츠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저변 확대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 또는 학교와 다르게 이윤 추구의 목적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성장,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FGI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중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기관인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기업, 지역 내 대학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각종 현황자료 혹은 지원사업 현황 등을 모두 담은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분야 인력들이 더 유연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산-학-연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활성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클러스터의 주요 주체들 간의 정보교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고 각 주체가 가진 자원들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적으로 마련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시장의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원기관, 기업, 대학, 대전시가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동향 및 지역 동향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포럼 등의 기회를 대전시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연초의 신년 교례회, 연말의 주요 관계자 표창 등을 통해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들과 기업 간 교류할 수 있는 투자설명회, 장르 간 융복합을 기획할 수 있는 정책 세미나, 주요 의사결정자 혹은 트렌드세터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조찬 간담회 등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각 주체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 대전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외 콘텐츠산업 관련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들의 현황 자료, 혹은 창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 콘텐츠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보완 사항 등을 수집하여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민간에서 주도하여 만들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후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대전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현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전에는 문화콘텐츠 관련 고등학교 5곳에서 12개 학과, 종합대학 7곳에서 51개 학과, 전문/기능대학 5곳에서 16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인력들이 지역의 콘텐츠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에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이직 등을 위한 노동시장의 정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의 인력들을 지역에 계속 머무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개별 장르에 따라 ‘웹툰 잡페어’ ‘이스포츠 드리머’와 같은 인력 양성 정책 혹은 취업박람회를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나 전 장르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 재취업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양방향 피드백 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기초자료 양산, 대전시 내부의 지역 연계프로그램 또는 타 산업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집중 지원, 지역 내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초기 창업 및 기업 성장지원, 창업 전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창업문화 확산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의견을 표7로 정리하였으며, 굵게 표시된 내용이 다수의 응답자가 공통으

로 제시한 활성화 방안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FGI를 통해 대전지역 문화콘텐츠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FGI에는 지역 전담 지원기관(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4명, 대전광역시청 담당 부서 관계자 3명, 학계 전문가 4명, 관련 업계 종사자 5명 등 총 16명이 참여하였다.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 내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공급, 단기적인 관점의 성과 중심의 정책이 아닌 다년도에 걸친 장기적 관점의 지원사업, 관광 등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이 주로 제시되었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 내 클러스터 구성원 간의 활발한 거버넌스 구축,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들의 유연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여건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며, 대전시 역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물적·인적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문화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고 콘텐츠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례적인 기업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또한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콘텐츠의 정례적 미래 전략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분야별 성과평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인재 정보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지역 특성화고, 대학교, 직업전문학교 등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지속

적 홍보뿐 아니라 대전시 콘텐츠산업 인재채용박람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최근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의 초입에 서 있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내 청년 인력들이 지속해서 상주하며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해 문화가 꽃피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역시 과감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 육성 방향으로 정책적 유턴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권영길,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성의 모색」,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10권 4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6, 25-40쪽.
- 김관보, 「경기도 문화산업 클러스터 분석」, 『예술경영연구』 24호, 한국예술경영학회, 2012, 29-53쪽.
- 김삼철, 「문화콘텐츠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성공요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삼철·김일태, 「광주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평가지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권 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677-689쪽.
- 김성묵·차현희, 「문화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 조성 정책 사례 분석」,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31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12, 183-196쪽.
- 김용탁,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의 네트워크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영식, 「경기도 문화산업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5-18쪽.
- 김용천, 「문화콘텐츠산업의 사회적·행정적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결과 보고서』, 2023, 74-85쪽.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0, 147-160쪽.
- 박경숙, 「대구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트리플 힐릭스 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경숙·이철우, 「클러스터의 가치사슬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권 4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10, 601-622쪽.

- 박성식,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시론적 고찰」, 『문화경제연구』 19권 3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6, 165-186쪽.
- 심상민, 「지역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 새 모델 연구」, 『인문콘텐츠』 17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345-370쪽.
- 이강훈, 「우리나라 지역 문화산업의 생산요소별 성장 기여도와 외부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병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과학기술정책』 14권 5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45-50쪽.
- 이정근, 「대전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준호·원숙경,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7권 4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7, 242-270쪽.
- 정세일,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주수현·유영명·원광해, 「부산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 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권 5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1821-1845쪽.
- 최정수, 「경북 문화산업의 혁신환경과 클러스터 구축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권 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6, 364-381쪽.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콘텐츠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15, 39-51쪽.
- 한규창, 「첨단혁신클러스터 구축요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Porter, M.,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6, no. 7, 1998, pp.77-9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는 대전지역의 문화콘텐츠 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현황 및 평가,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 장기적 관점의 지원사업, 타 분야와의 융복합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펀드 설립, 저작권 보호 및 활용, 온라인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구축,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대한 피드백, 다양한 홍보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관계자들의 의견과 정책적 제언을 통해 향후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감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대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정부의 역할

■ Abstract

Strategies for Activating the Daejeon Cultural Content Industry Cluster : Analysis of Opinions from Daejeon Cultural Content Industry Experts through FGI

Noh, Ki Su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o study the activation plan of the Daejeon cultural content industry cluster. The FGI was conducted by officials in the cultural content field in Daejeon, and they discussed the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of the Daejeon cultural content industry cluster, its activation plan, and the role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s for the activation plan of the Daejeon cultural content industry cluster, it was suggested to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support projec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convergence with other fields. In addition, there was an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cal content fund that can support the growth of local content companies, protect and utilize copyrights, and change perceptions as demand for online content increas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was suggested to establish governance, establish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nd create a flexible labor market. Along with this, there were opinions that joint growth of large companies and SMEs, feedback on support projects, connection with various promotional programs, and support for market development were necessary. It is hoped that the Daejeon cultural content industry cluster will be activated in the future through the opinions and policy suggestions of the relevant parties proposed in this stud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and resolving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Keyword • Cultural Content Industry, Activating Strategies, Daejeon
Cultural Content Industry, Role of Government**

■ 논문투고일:2024.06.18. ■ 심사완료일:2024.07.05. ■ 게재확정일:2024.07.22. ■

중국 야오족 장고춤의 특징과 가치에 관한 연구

덩 단 니 · 김 태 덕*

목 차

1. 들어가며
2. 야오족과 장고춤
3. 야오족 장고춤 분석
4. 민족지 시각에서 본 야오족 장고춤의 가치
5. 맺음말

1. 들어가며

타악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고대부터 전 인류가 의 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 도구이다. 역사적으로 타악기의 쓰임새를 조사 해 보면 이 악기는 의사소통 수단, 종교적 및 의례적 의미, 심리적 및 감정 적 영향, 사회적 결속과 공동체 의식, 문화적 정체성, 예술적 표현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화교류경로를 살펴보면 중국·한국·일본은 다양한 문명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파되고 융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 덩단니 (제1저자) 경상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민속무용학 석사과정
김태덕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민속예술무용학과 강사

중국에서는 여러 소수 민족이 장고와 유사한 전통 타악기를 사용한 춤을 춘다. 특히 야오족¹⁾과 조선족이 대표적이다. 야오족의 장고춤은 전통 축제와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선족의 장고춤은 한국의 전통 농악에서 유래한 형태로 즐거움을 주기 위한 춤이다. 한국의 장고춤은 전통 무용의 작품으로 중요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장고는 한국의 전통 타악기로, 장고춤은 농악, 사물놀이, 풍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 음악과 함께 공연된다. 일본은 쓰즈미라는 전통 타악기를 사용하는 춤과 연주가 있다. 쓰즈미는 노(能)와 가부키(歌舞伎) 같은 전통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야오족의 장고춤을 한국에 소개하고, 이 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가치를 알려 문화유산의 가치를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야오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풍부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장고춤은 야오족의 독특한 문화 유산으로, 오랫동안 전승되고 있다.

야오족 장고춤은 주로 전통 축제, 추수 축하, 집들이, 결혼식 등 중요한 행사에서 공연되었으며, 이러한 행사는 야오족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고춤은 단순한 무용을 넘어 야오족의 생활 방식과 문화 관습을 담고 있으며, 야오족의 역사, 문화, 발전 과정 및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독특한 예술 형태 간직하고 있다. 야오족의 장고춤은 다양한 지역과 넓은 지역적 분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이는 야오족의 독특한 지역성과 생활 방식이 학습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장고춤은 야오족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며, 민족적 응집력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야오족 장고춤은 국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목록에 포함

1) 본 논문에 나타난 중국어 전문용어들에 대한 번역은 원칙적으로 발음에 의한 직역을 사용하나, 고유한 번역과 습관적인 번역 용어도 활용한다.

되어 있지만, 전승과 발전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리적 제한과 외부의 관심이 없으며 누구나 배울수 없기 때문에 일부 장고춤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야오족의 황니 장고춤과 같은 일부 전통춤은 지리적 제한과 외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야오족 장고춤의 특징과 가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야오족의 장고춤이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 목적과 방법으로 첫째, 야오족 장고춤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 과정을 탐구하여 그 문화적 뿌리를 이해한다. 둘째, 야오족 장고춤의 다양한 형태와 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야오족 장고춤의 사회적, 예술적, 종교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넷째, 야오족 장고춤의 현재 상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그 지속 가능한 계승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야오족의 장고춤에 관련한 선행 연구는 중국에서 야오족 장고춤을 연구한 저자 대부분은 발상지인 광둥성, 광서성, 후난성에서 연구가 진행했으며, 다른 지역의 야오족 장고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중국에서 야오족 장고춤의 움직임을 분석한 학자들에 따르면, 황홍(2014)는 야오족 장고춤의 역동성의 핵심은 공연으로, 건강과 오락의 가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야오족 민속성을 다룬 내용이 있으며 이 두 가지 특성은 모두 춤 동작에 구현되어 있다. 왕산밍(2014)는 야오족 장고춤의 종교적 의례적 의미로 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오락적 요소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왕판(2016)은 야오족에게 독자적인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야오족 장고춤 문화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남성만 장고를 칠 수 있었던 초기부터 남녀 모두 춤을 출 수 있는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야오족 장고춤이 지니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가

치를 배경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국에서 야오족의 장고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왕칭(2011)은 당대부터 현재까지 보존-발전되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야오족 장고춤을 조사하였고, 동작의 특징과 내용을 연구하여 야오족 장고춤의 특징과 가치를 제시하였다. 박대남, 현창주(2004)은 동산 야오족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야오족 마을의 민속 문화와 신앙에 대해 연구 하였다. 오도경(2013)은 한국과 중국의 야오족 장고춤을 비교하여 한국과 중국의 장고춤의 미적 특성을 풍류미(风流美)와 생동미(生动美)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에서 야오족 장고춤 관련 연구 사례가 빈약하며, 야오족의 장고춤 종류는 다양하나 일부만 연구되어 야오족 장고춤에 대한 전반적이면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야오족 장고춤의 다양한 분포와 지역적 차이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야오족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구체적인 춤 형태와 의식 절차를 직접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이 제한적일 수 있어, 문헌 연구와 기존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다. 이와 함께, 문화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야오족 장고춤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인식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자료와 문헌, 그리고 인터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체계적인 분류 작업을 통해 야오족 장고춤의 특징과 가치 및 그 차별성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2. 야오족과 장고춤

1) 야오족에 대한 개괄적 이해

야오족은 주로 중국의 광시, 후난, 윈둥, 장시, 하이난 등의 산악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산과 숲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 야오족이 임

업, 농업, 목축업과 같은 생산이 적합한 환경이다. 야오족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이러한 자원을 중심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해발 1000~2000m의 지역에 위치한 야오족은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집단거주의 형태로서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생활을 영위한다. 이러한 환경은 야오족의 생활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야오족의 대분산·소집단의 형태로 인하여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어 야오족의 씨족이 다양해지고 구성도 복잡해졌다. 그 결과 여러 씨족 간에는 관습, 언어, 의상에 차별성을 띄고 있다. 이는 야오족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장고춤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오야오의 황니장고춤(黄泥长鼓舞), 도산야오의 사자장고춤(狮子长鼓舞), 핑디아오의 루성장고춤(芦笙长鼓舞), 바부야오의 양을 쫓고 복을 장고춤으로 만들기(赶羊做鼓长鼓舞)등이 있다.

대부분의 야오족은 광시좡족 자치구에 거주하는데, 이는 역사적 기원과 지리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첫째, 광시성은 야오족이 제일 먼저 모여든 지역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둘째, 광시의 지리적 환경이 야오족의 생산과 생활 방식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또한 광시는 야오족 문화와 언어의 중심지로, 야오족의 계승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야오족의 전설

야오족은 고대 민족 중에서 이동이 잦은 민족으로 전쟁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야오족 사이에 전해지는 신화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야오족 민속에는 주로 <바다를 건너는 신화>(渡海神话)와 <판고우 신화>(盘瓠神话)가 있다.

① 바다 건너기 신화(渡海神话)

전설에 따르면 야오족은 원래 고대 동쪽의 주리족(九黎)²⁾ 중 한 부족과 관련이 있다. 5,000여 년 전, 황하 하류의 동이 지역에 ‘주리’(九黎)³⁾라는 부족 연합이 나타났고, 이는 특히 강력한 수령으로 황하 중류의 염제 신농씨, 황제 헌원씨 두 부족과 서로 다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염제와 황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염제 신농씨와 황제 헌원씨는 지속적으로 치우 리와 함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먼저 염제를 무찌르고 나중에 염황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치우(蚩尤)가 죽었다. ‘주리’(九黎)의 남은 부족 대부분 남쪽으로 이동하여, 각지에 흩어져, 산을 끼고 물 가까이에 살았다.⁴⁾ 이들은 점차적으로 후대에 마오족, 야오족, 쉬족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야오족이 탄생했다.

② 판후우 신화(盘瓠神话)

‘판후우’는 야오족에서 bienh hungh라고 발음하며 ‘판왕’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는 야오족의 일종의 토tem 숭배 문화이다. 토tem인 신견 ‘판후우’에 관하여 <后汉书·南蛮西南夷传>⁵⁾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상고 시기에 신견 판후우는 부락의 수령인 띠쿠(帝嚳)가 천하를 다스릴 때 큰 도움을 주어, 띠쿠는 고마움 끝에 자신의 딸을 판후우에게 시집 보냈다. 결혼 3년 만에 아들 여섯과 딸 여섯을 낳았다. 판후우가 죽은 후 이 열두 자녀는

2) 주리족은 고대에 황하 유역의 중하류와 장강 유역을 따라 살았던 부족 연합체이다. 즉, 산둥성, 허베이성, 허난성, 장쑤성 지역이다. 아홉 리에서 치유를 지도자로 삼고, 81명의 형제가 있으며, 아홉 리 족장이 있고, 치우가 큰 족장이다.

3) ‘九黎’라는 용어는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인물인 ‘九黎’를 가리키는 말한다. 후대에는 중국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 ‘依山傍水’는 산과 물에 의지한다는 뜻의 중국 사자성어이다.

5) 南朝宋国：范曄(公元398—445)《后汉书》·卷八十六南蛮西南夷列传第七十六
<https://gx.htpcn.com/book/read/CQPWCQRN/PWXVXVMEKO.shtml>
 남송 시대: 판예(서기 398 ~ 445년) 후한서-권 86, 남방 오랑캐와 서남 오랑캐의 76번째 전기

서로 결혼을 하였다. 그래서 많은 야오족은 판후우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섬겼다.

야오족의 판후우 전설은 토템 숭배(图腾崇拜)의 전형적인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토템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또는 자연 현상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한 씨족의 표시 또는 상징이다. 판후우는 야오족의 신화 속에서 신견(神犬)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야오족에게 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지위도 높다.



[그림 1] 야오족의 신화 속 개⁶⁾

(2) 야오족의 분류

야오족은 언어에 따라서 멘야오, 부누야오, 라자야오, 핑디아오 네 가지 주요 씨족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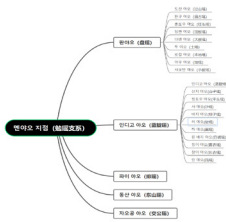
① 멘야오

멘야오는 5개의 주요 계통과 20개의 작은 지류로 나눌 수 있다. 멘야오는 판오 또는 판 야오라고도 불리는데, 멘야오 주요 계통은 판 야오, 블루인디고 야오, 파이 야오, 동산 야오, 자오 공 야오로 나뉜다.

그 중 멘야오 계통은 널리 분포되어 있고 인구가 많다.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에 판야오

6) <https://mr.mbd.baidu.com/r/1iZlvJy0KHu?f=cp&u=d8bbdd1e8bad99cd>

족이 있으며 판야오족은 초국적 민족⁷⁾이다.



[그림 2] 멘야오 계통⁸⁾



[그림 3] 장고 문화⁹⁾

② 부누야오

부누야오는 5개의 주요 계통과 6개의 지류로 나눌 수 있다. 부누야오의 주요 분포 지역은 광시성의 두안, 바마, 다화 및 기타 현이다. 부누야오의 주요 신앙은 전설에서 만물을 창조하고 부누야오의 생산 생명을 보호하는 창조주 여신인 어머니 여신 밀로타오를 믿는다. 매년 단오절인 5월 29일에 부누야오족은 구리 북을 치며 조상을 추모하는 의미로 점프를 하는데, 이를 '구리 북 문화(铜鼓文化)'라고 한다. 구리 북 문화에서는 밀루오투(密洛陀)¹⁰⁾를 숭배한다. 구리 북은 밀루오투에서 전승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구리 북을 보물로 삼고 있다.

7) 『야오족의 간략한 역사』, 베이징민족출판사, 2016.09. 9-12쪽.;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야오족이 있다. 이는 야오족은 매우 이동이 많은 민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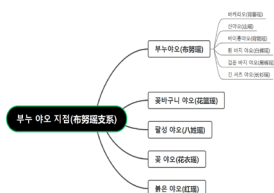
8) 위의 책 2016.09., 9-12쪽.

9) https://m.sohu.com/a/587719437_121124023

10) 밀루오투는 신화 속 천지개벽의 여신이다.

11) 위의 책, 2016.09. 9-12쪽.

12) <https://mr.mbd.baidu.com/r/1hIXwPR0Dks?f=cp&u=3d850249ab10de26>



[그림 4] 부누야오¹¹⁾



[그림 5] 구리 북 문화¹²⁾

③ 라자야오

라자야오는 차산야오족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라자야오가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랜 동안 차를 재배하였기 때문이다. 라자야오는 차를 재배하기 위해 많은 토지를 개발했고 토지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른 부족보다 생활 조건이 더 좋은 편이다. 라자야오는 주로 광시 진시우에 거주한다. 라자야오는 도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라자야오의 장고춤은 “도자기 북 문화(陶鼓文化)”가 존재한다. 도자기 북 문화는 불에 태운 점토로 만들어진 것으로 북의 모양이 큰 꽃병과 같아서 점토 북이라고도 불린다. 연주할 때는 북을 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가슴 앞에 매달고 작은 징을 사용하여 북과 함께 연주한다.



[그림 6] 라자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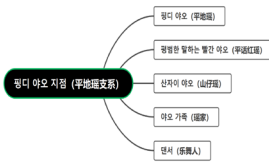


[그림 7] 도자기 북 문화¹³⁾

13) <https://mr.mbd.baidu.com/r/1hIXPgojY2Y?f=cp&u=3bb96e7489c55262>

④ 핑디야오

핑디야오는 5개 지류로 구분되는데, 핑디야오, 평자야오, 산자이야오, 야오가족, 댄서가 있다. 핑디야오는 주로 광서성 허저우시에 분포되어 있다. 핑디야오는 주로 생황(笙簧)¹⁴⁾과 함께 장고를 치면서 판왕을 축하하는 장고춤을 '생황 장고춤(芦笙长鼓舞)'라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이미 600여 년의 역사가 있다.



[그림 8] 핑디야오¹⁵⁾



[그림 9] 생황¹⁶⁾

(3) 야오족의 지리 인구 분포

야오족의 총인구는 약 330만 명(2021년 기준)¹⁷⁾이며, 현재 중국에는 야오족이 지역 자치권을 획득한 13개 현이 있다.

13개 자치현은 광시 진시우 야오족 자치현, 광시 려난 야오족 자치현, 후난 장화 야오족 자치현, 광시 두안 야오족 자치현, 광시 바마 야오족 자치현, 윈난 허커우 야오족 자치현, 광시 리원 야오족 자치현, 광시 부천 야오족 자치현, 광시 다화 야오족 자치현, 광시 공청 야오족 자치현, 광시 롱성 야오족 자치현, 광시 려산 좡 야오족 자치현을 말한다.

14) https://m.sohu.com/a/587719437_121124023

15) 앞의 책, 2016.09., 9-12쪽.

16) 광시좡족 자치구 뉴스 홈페이지, <https://mr.mbd.baidu.com/r/1kB53i7USD6?f=cp&rs=3654633053&ruk=eGeCFGf3iC9bKB1jdeVcWQ&u=b6dc88e19915f6c0>, 2022.04.06.

17) 中国非物质文化遗产网(중국 무형문화유산 웹사이트), <http://www.ihchina.cn/>

대부분의 야오족은 광시, 광둥, 후난에 거주한다. 광시 진시우 야오족 자치현은 야오족 인구가 가장 많고 씨족의 범위가 가장 넓으며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다. 진시우 야오족 자치현은 1952년 5월 28일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야오족 자치현으로, 세계 야오족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0] 중국 야오족의 성(省) 및 지방 자치 단체별 분포(%)¹⁸⁾

2) 야오족 장고춤의 개괄적 이해

(1)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야오족 장고춤

야오족 장고춤은 탄생과 발전과정은 야오족 사회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로 문화, 관습, 신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장고춤을 통해 미학과 풍습을 반영하고 있다. 야오족은 다양한 계통과 함께 지역성과 문화정체성에 차별성이 있다. 각 지역마다 장고춤은 치는 방식과 동작에도 차이도 있고 장고의 크기나 외형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공연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소원 반환 장고춤(还愿长鼓舞)은 제사 때 추는 장고춤이다. 공연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축제 장고춤으로 춘절이나 축제 때 행한 장고춤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갖춘 공연 장고춤이 있다. 예를 들면 양을 쫓고 장고춤 만들기(赶羊做鼓长鼓舞)가 있다.

① 소원 반환 장고춤

소원 반환 장고춤은 주로 멘야오 지점에서 인기가 많으며, 멘야오는 판

18) <https://mr.baidu.com/r/1jDYAcSnBpS?f=cp&u=6934d239dc2af39c>

왕(盘王)을 숭배하기 때문에 소원 반환 장고춤은 주로 반왕을 숭배하기 위해 춤을 춘다. 그러나 많은 씨족이 있기 때문에 의식에 사용되는 장고춤도 다양한데 파오산야오 소원성취 장고춤, 루성 장고춤, 황니 장고춤이 있다.

a. 파오산야오 소원성취 장고춤(过山瑶还愿长鼓舞)

광시좡족 자치구성 파오산야오가 사는 지역에서 주로 유포되는 춤으로, 판왕을 위한 소원성취 의식에서 추는 춤으로 춤 동작이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 루성 장고춤(芦笙长鼓舞)

루성 장고춤(芦笙长鼓舞)은 주로 핑디야오가 살고 있는 부촐야오 자치현에 퍼져 있으며, 판왕의 소원을 돌려주는 행사에 공연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축제나 축하 행사에서 볼 수 있다.

c. 황니 장고춤(黄泥长鼓舞)

진시 야오족 자치구(金秀瑶族自治县)의 아우야오(坳瑶)가 사는 지역에서 주로 유포되는 판왕의 소원을 돌려주는 의식에서 수행되는 원시 의식 춤이다. 공연 전에 장고의 표면에 황니를 묻혀 북의 가죽을 적시고 두께를 늘리며 음색을 밝게 만들어 사용한다.



[그림 11]
소원성취 장고춤¹⁹⁾



[그림 12] 루성 장고춤²⁰⁾



[그림 13] 황니 장고춤²¹⁾

19) https://view.inews.qq.com/k/20230924A04J6Y00?no-redirect=1&web_channel=wap&openApp=false

20) <https://ms.mbd.baidu.com/r/1hLoTKPgZIs?f=cp&u=bea8fab91ab15caaZq?f=cp&u=7b6e0c09a94c0c5c>

21) https://k.sina.cn/article_6650753477_p18c6a71c500100hw11.html

② 축제 장고춤

축제 장고춤은 춘절이나 축제를 맞이하여 야오족이 공연하는 장고춤으로, 오락적 요소가 강한 춤이다. 사자 장고춤(狮子长鼓舞)은 주로 허저우시(贺州市)에 있는 도산 야오(过山瑶)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주로 춘절과 기타 축제 기간에 공연된다. 이는 청나라가 끝나기 전에는 사자춤과 장고춤이 따로 공연을 했다. 이후 중화민국 초기에 춘절을 축하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이후 점차 사자팀과 장고팀이 함께 공연하는 사자 장고춤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 14] 사자 장고춤²²⁾



[그림 15] 집짓기 장고춤²³⁾

③ 장고춤 공연

장고춤 공연은 소원 반환 장고춤(还愿长鼓舞)과 축제 장고춤의 조합을 말한다. 장고춤은 야오족이 목조주택을 짓는 전 과정을 재현하는 집짓기 장고춤과 높은 테이블 위에서 연주하는 양을 쫓고 북을 장고춤으로 만들기(赶羊做鼓长鼓舞)가 있다.

집짓기 장고춤: 허저우시 바부구 야오산에서 주로 유포되는 이 춤은 36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을 지을 땅 찾기, 기둥 세우기, 지붕 덮

22) <https://mr.baidu.com/r/1hLp0OGWGyc?f=cp&u=4b77042f9805eb0b>

23) 위의 인터넷 사이트.

기, 새집에 불 넣기 등 야오족이 목조주택을 짓는 전 과정을 재현하여 장고 춤이 이루어진다. 이는 야오족이 잦은 이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양을 쫓고 북을 장고춤으로 만들기(赶羊做鼓长鼓舞) 허저우시 바부구 야오산에서 주로 유포되는 이 춤은 72개의 동작으로 장고의 기원으로 설명한다. 또한 높은 테이블 위에서 연주하는 기술도 있으며, 가장 높은 사람은 세 개의 정사각형 테이블에서 연주할 수 있다.

(2) 야오족 장고춤의 전승현황

중국의 주요 무용대학에서 학생들은 민족 민속무용을 배운다. 무용대학은 무용을 배우고 무용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전통 무용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대표적인 소수민족 무용만을 가르치고 있으며, 민속무용의 종류에 대한 발굴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야오족 장고춤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킨 대학도 거의 없다.

야오족 장고춤은 대대로 전승해 온 춤으로, 춤의 몸짓 언어를 통해 자연과 삶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계승해 왔다. 야오족 장고춤은 지역 문화예술 및 사회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장고춤에 대한 중요한 문화 예술적 연구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야오족 장고춤을 계승과 지속 가능한 전승에 있어 낙관적이지 않다.

야오족 장고춤은 송나라 때부터 전해져 왔지만 오늘날에도 야오족 장고춤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야오족 장고춤은 지리적으로 제한적이며 광시좡족 자치구 진시우 야오족 자치현, 광둥성 련난 야오족 자치현 및 상, 구이, 위의 야오족 일부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인기가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야오족 장고춤의 공연 형태도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축제 및 의식에 공연되었으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공연이 크게 줄었고, 다문화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문화적 배경이 변화되면서 장고춤은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이 춤에 대한 인식과 열정이 줄고 있다. 신성한 문화 요소와 트렌드가 야오족 장고춤 문화를 천천히 잊게 하고 야오족 사람들조차도 야오족 장고춤에 대해 관심이 적다. 축제와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야오족 장고춤은 이제 전문적으로 예술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공연되고 있다. 야오족 장고춤에 여전히 열정을 가진 소수의 예술가들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무형유산과 의미를 전승하고 지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 야오족 장고춤은 국가무형문화유산 2차 목록에 선정되면서 소멸 위기에서 벗어났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유적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성, 시, 현 단위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4단계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야오족 장고춤은 국가 춤으로 선정되었으나 전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젊은 층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장고춤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젊은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야오족의 장고춤이 전승에 어려운 요인으로 야오족은 높은 산과 가파른 언덕, 불모의 땅, 일반적으로 1000 ~ 2000 m 지역 환경에 살고 있으며, 야오족은 산악 민족에 속하는 등 여러 세대 동안 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 야오족의 경제 자원은 주로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의 야오족은 전반적인 문화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개념이 후진적이며 외딴 산악 지역에 살고 있다. 현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긴 드럼 연주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 지역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다. 국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춰 투자와 홍보를 늘려야 하며 관련 부서는 지역 문화 홍보, 적절한 정책 지원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형유산을 전승할 인재도 상실되고 있다. 야오족은 경제의 발전, 인터넷의 인기,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나가 노인 세대와 아이들만 남게 된다. 이로 인해 야오족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야오족 장고춤 분석

야오족 장고춤은 독특한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춤은 신체의 움직임, 음악적 요소, 복식과 무구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분석에는 춤동작과 장고의 위치에 따른 분석, 신체 자세에 따른 분석, 춤의 방향에 따른 분석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음악적 분석에는 야오족 장고춤의 음악적 특징과 대표적 곡인 판왕다송(盤王大歌)의 24연과 36연을 구성과 강렬한 리듬과 독특한 멜로디의 특징을 살폈다. 복식과 무구에서 야오족 장고춤의 시각적 요소를 구성하며, 이는 자연을 숭배하는 야오족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1) 움직임 분석

(1) 춤 동작 분석

야오족은 각 지역의 언어, 문화, 생활 및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 장고춤을 추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동작구사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과 무술에서 장고를 공연하는 모습도 차이가 있다. 우다(武打)의 춤 동작은 높은 점프와 빠른 템포로 움직임이 많은 동작이다. 웬다(文打)는 무릎이 약간 떨리고 높이 점프할 필요가 없으며 리듬이 비교적 느린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다와 웬다의 동작은 [그림 16]과 같다.

명칭	우다(武打)	웬다(文打)
동작		
설명	굴신과 신전의 폭이 넓다, 다리를 높이 찬다	굴신과 신전의 폭이 좁다

[그림 16] 우다와 웬다의 동작²⁴⁾

(2) 장고의 위치에 따른 분석

장고의 위치에 따라 분석하면 크게 높은 그룹, 중간 그룹, 짧은 그룹로 나뉜다. 높은 그룹은 장고를 머리 위로 회전하고 다리는 약간 쭉그려 앉는다. 중간 그룹의 장고는 복부에서 회전하고 다리는 반쯤 쭉그려 앉는다. 낮은 그룹의 장고는 무릎에서 회전하고 다리는 완전히 쭉그려 앉는다.

위치	동작 1	동작 2	설명
높은 더미			높은 더미의 동작은 폭이 넓고 장고의 위치가 높다.
중간 더미			중간 더미의 동작은 대부분이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장고의 주요 동작요령은 허리를 굽히고 무릎도 굽힌다.
낮은 더미			낮은 더미는 쭉그리고 앉아 뛰는 동작은 일반적으로 탁자 위에서 추는 장고춤에서 나타난다.

[그림 17] 장고의 위치에 따른 분석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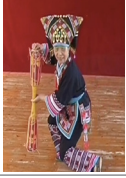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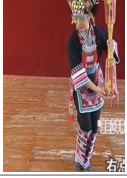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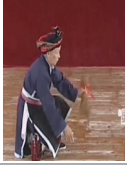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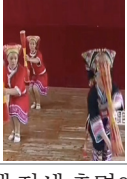

24) <https://mr.baidu.com/r/1hNRJojtgfm?f=cp&u=5bce9936ca633875>

25) <https://mr.baidu.com/r/1jE4B1VjcrK?f=cp&u=9ed25010c4c64cdb>

(3) 신체 자세 측면에서 분석

신체 자세 측면에서 분석하면 동작은 ‘떨림’(顫), ‘비틀기’(扭), ‘안정’(穩), ‘짧음’(矮)으로 요약할 수 있다. 떨림은 몸의 떨림을 말하며, 장고을 연주하고, 페이스를 뛰고, 무릎이 자연스럽게 약간 떨리고, 야오족 장고춤의 리듬은 산에 사는 야오족의 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 지형이 가파르고, 사람들은 좁은 길에서 매일 바구니를 들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반 시 약간의 떨림이 있다. 이 무릎 떨림은 춤에서 몸의 탄력 있는 움직임으로 발전한다. 비틀기는 몸이 좌우로 뒤틀리는 것을 말하며, 야오족은 좁은 길에 살고, 길에 평평한 짐을 짊어진 사람들은 옆으로 걸어야 하거나, 마주 보는 두 사람도 옆으로 지나가야 하므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임은 종종 비틀고 튼는(拉彈) 특성이 나타난다. 점프하면서 춤추려는 무용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고춤의 움직임에서 종종 비틀어지고 튼는 현상이 나타난다. 안정은 주로 춤 동작이 차분하고 강력하며 장고춤의 남성적인 정신을 반영한다. 장고춤의 위치가 짧음은 무용수가 완전히 쪼그리고 앉거나 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춤을 추는 전체 춤 동작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장고춤을 높이 평가하며 쪼그리고 앉는 것이 매우 짧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점프하며 춤추려는 무용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무용수는 무릎을 충분히 관리하고 다리 근육이 충분히 강화되었을 때 전체가 안정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명칭	동작 사진				동작 설명
떨림 (顫)					무릎에 힘을 빼고 몸을 떨게 한다.
비틀기 (扭)					몸을 비틀고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는 몸을 움직이는 동안 요추의 힘에 의해 형성된다.
안정 (穩)					"안정적"이란 스텝이 부드럽고 강해야 한다는 뜻이다.
짧음 (矮)					체중을 낮추고 다리를 최대한 아래로 내리고 점프하세요.

[그림 18] 신체 자세 측면에서 분석²⁶⁾

(4) 춤 방위에 따른 분석

장고춤의 춤 방위는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의미한다. 다른 민족에 비해 야오족 장고춤의 동작은 대부분 하나의 기본 동작을 중심으로 반복 연행한다.





첫 번째 유형은 사방을 향해 춤을 추기이다. 이 유형은 춤동작의 변화 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네 방향을 향해 반복적으로 춤을 춘다.

26) <https://v.douyin.com/i2eEPeQW/>

명칭	동작				설명
사방 동작					발차기 동작은 왼쪽-왼쪽-뒤-앞 으로 네 가지 동 작을 모두 수행한 후 다음 동작으로 전환한다.

[그림 19] 사방 동작²⁷⁾

두 번째 유형은 원을 구심점으로 춤을 추기이다. 이 유형은 많은 사람이 원을 그리며 춤을 풀 때, 원 가운데 중심을 두고 자유롭게 각기 기본 동작을 춘다.

명칭	동작				설명
원 중심 동작					야오족 장고춤에 서는 바깥쪽 원에 서 간단한 동작으 로 원 안에 많은 포메이션이다.

[그림 20] 원중심 동작²⁸⁾

세 번째 유형은 대칭 만들기이다. 장고춤에서 대칭은 춤의 앞뒤, 좌우 움직임이 대칭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동작이 왼쪽에 있으면 다음 동작은 즉시 오른쪽으로 연결된다. 첫 번째 동작이 두 걸음 전진 이라면 다음 동작은 두 걸음 후진을 한다. 또는 앞쪽에서 한 세트를 마친 후 뒤돌아서서 다시 뒤쪽을 향해 점프를 실시한다.

2) 음악적 분석

야오족 음악은 야오족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생산과 생활, 종교의식, 구애, 인간의 소통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야오족 음악의 곡조는 감성이 풍부하고 기쁨, 분노, 슬픔, 행복을 표현한다. 보통

27) <https://v.douyin.com/i2eTJPsn/>

28) 위의 인터넷 사이트.

무예(무예木叶: 나뭇잎의 일종)와 함께 연주된다. 야오족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곡은 판왕다송(盘王大歌)이다. 판왕다송은 ‘판왕송’이라고도 불리며, 야오족 민속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판왕을 숭배하는 모든 야오족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2014년 11월 11일 판왕다송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제4차 목록에 등재 승인을 받았다.



[그림 21] 무예(木叶)²⁹⁾

판왕다송의 가사는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야오족의 감정, 삶에 대한 사랑,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묘사하고 있다. 판왕다송의 가사 내용을 보면 조상의 지혜와 용기에 대한 찬사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이 가사는 종종 매우 예술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야오족의 삶과 자연,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추구를 반영한다. 판왕다송의 공연과 관람에 참여함으로써 야오족의 후손들은 조상들이 남긴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느끼고 민족의 결속력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판왕다송은 외부 세계가 야오족의 문화와 민속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민족 간의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판왕다송에는 24연과 36연이 가장 인기 있는 연이다. 서른여섯 구절은 큰 소원을 비는 의식, 스물네 구절은 작은 소원을 비는 의식으로 불려진다.

29) <https://mi.mbd.baidu.com/r/1kAZhuxp0E8?f=cp&rs=660377072&ruk=eGeCFGf3iC9bKB1jdeVcWQ&u=bba557d7b5223bea>
<https://mi.mbd.baidu.com/r/1kAZhuxp0E8?f=cp&rs=660377072&ruk=eGeCFGf3iC9bKB1jdeVcWQ&u=bba557d7b5223bea>

[표 1] 24연과 36연은 판왕다송³⁰⁾

판왕 다송	제 목
36연의 길의 제목	발성창(起身唱) '아침 일출(日出早)' '태양은 하늘 한가운데에 이다(日正中)' '하늘의 별들(天上的星星)' '달(月亮亮)' '가뭄(天大旱)' '이상한 현상(见大怪)' '조명 천지 진동(天地震动)' '하늘이 회색이다(天暗乌)' '번개가 땅에 떨어집니다(雷落地)' '홀루샤오(葫芦晓)' '홍수(洪水发)' '홍수 종료(洪水尽)' '결혼(为婚了)' '세상 만들기(造天地)' '당왕추시(唐王出世)' '판왕추시(盘王出世)' '시종부귀(石崇富貴)' '전 세계(天下事)' '양산백과 축영대(梁山伯祝英台)' '도원동(桃源洞)' '취산학당(闾山学堂)' '사찰을 짓다(造寺)' '사자가(四字歌)' '등고가(邓古歌)' '하물가(何物歌)' '낭로(郎老了)' '팽조(彭祖)' '사냥개 풀기(放猎狗)' '쌍배주(双杯酒)' '아육가(亚六歌)' '완합가(完合歌)
24연의 길의 제목	발성창(起身唱) '복령성(福灵圣)' '용위택(龙围宅)' '해괴가(解怪歌)' '가춘(歌春)' '가주(歌酒)' '대가(对歌)' '석류령(石榴岭)' '가화화(歌花)' '가과(歌果)' '채차(采茶)' '가누이(歌姊)' '가모(歌二娘)' '가신(歌新)' '가저(歌珍)' '가수(歌星)' '자고유유(鸪鸪遊)' '변인디고(邊靛)' '행유가(行遊歌)' '가조(歌朝)' '청서(请书)' '가탄(歌叹)' '가억(歌忆)' '가산(歌散)

다음은 판왕다송(盤王大歌)의 一발성창(起身唱)법이다. 숫자 ‘1234567’은 각각 do, re, mi, fa, sol, la, si에 해당하는 음을 말한다.

1 起 声 唱

1=C 中

中 速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1-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发 声 唱

-2-

30) 리샤오윈, 『판왕가』, 광둥인민출판사, 2006년, 44쪽.

421

3) 야오족 복식과 무구

(1) 복식

야오족의 장고춤 복식은 각 계열의 색상, 스타일, 장신구, 머리 장식, 자수 문양에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광시좡족 자치구성 난단현(广西省南丹县)에 거주하는 야오족 남성은 십자형 상의와 흰색 헐렁한 무릎길이의 반바지를 입기 때문에 ‘흰 바지 야오’(白裤瑶)라는 이름을 붙이고, 광시좡족 자치구성 룡성현(广东省龙胜县)의 야오족은 빨간색 자수 옷을 입어 ‘붉은 야오’(红瑶)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는 야오족 의상의 색상과 스타일이 다양함을 말한다. 이 역시 야오족 의상의 풍부한 색상과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다. 광둥성 칭위안시 려난 야오족 자치현(广东省清远市连南瑶族自治县)에 사는 파이야오족(排瑶)은 대부분 자수를 놓는데, 자수 패턴의 대부분은 뱀, 말, 숲의 무늬로 되어 있다. 이는 야오족의 자연 숭배를 상징하고 있다.



[그림 23]
도산 야오(过山瑶)³²⁾



[그림 24]
붉은야오(红瑶)³³⁾



[그림 25]
흰바지야오(白裤瑶)³⁴⁾

[그림 23] 는 도산 야오(过山瑶)사람들의 의상이다. 이 의상에 수놓아진 자수는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열두 성씨 문양은 고야사 노요에는 열두 개의 성이 있으며 각 문양은 성씨를 나타내고, 이러한 문양

32) <https://my.mbd.baidu.com/r/1jE59CPLzIk?f=cp&u=bed43355b91c0404>

33) <https://mq.mbd.baidu.com/r/1iZqVokHEdi?f=cp&u=9aee7fdcccf07bbc>

34) <https://my.mbd.baidu.com/r/1iZqI3lOaTC?f=cp&u=baa9619aa70e5076>

의 자수를 통해 각 계열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4]는 광시 좡족 자치구성 롱성현(广东省龙胜县)의 야오족은 빨간색 자수 옷을 입어 붉은 야오(红瑶)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는 야오족 의상의 색상과 스타일의 풍부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25]는 거주지 광시좡족 자치구성 난단현(广西省南丹县)의 야오족 의상이다. 남성은 십자형 상의와 흰색 혈령한 무릎길이의 반바지를 입기 때문에 흰 바지 야오(白裤瑶)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림 26] 부누야오³⁵⁾



[그림 27] 판야오³⁶⁾



[그림 28] 핑터우야오³⁷⁾

[그림 26]은 부누야오족(布努瑶)의 의상이다. 의상을 보면 짙은 검은색 옷을 입고 여성들은 가슴에 달 모양의 은색 장신구를 착용한다. 머리에는 구슬이 장식되어 있다. [그림 27] 판야오(盘瑶)는 판왕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한 이름을 딴 의상이다. 판야오 여성들이 쓰던 모자가 나무판자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판장고라고도 불린다. [그림 28]는 핑터우야오 의상이다. 색상은 대부분 밝으며, 상의는 보통 옷깃이 있는 짧은 블라우스에 소매와 목선 등 가장자리에 자수가 있다.야오 자수 문양은 야오족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자수 공예는 정교하고 아름답다. 야오 자수는 국가 무형문화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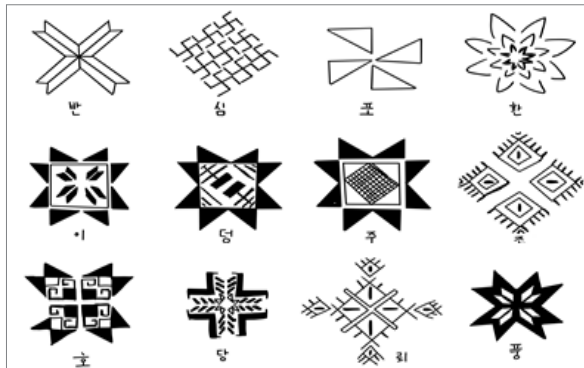
35) <https://mr.baidu.com/r/liZq2RBRGMM?f=cp&u=bfc5cd2d446d080c>

36) 위의 인터넷 사이트.

37) 위의 인터넷 사이트.

산 제4호로 포함되었다. 열두 성씨 문양은 왼쪽부터 반(盤)·심(沈)·포(包)·황(黃)·이(李)·덩(鄭)·주(周)·조(趙)·호(胡)·당(唐)·뢰(雷)·풍(馮)으로 되어 있다.

도산 야오종족은 12개 성이 있고, 각 문양은 하나의 성을 나타내는 구성 이기에, 도산 야오(过山遥)복식의 자수는 다양한 문양과 색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29] 열두성씨문양 1³⁸⁾



[그림 30] 열두성씨문양 2³⁹⁾

따라서 자수를 통해 각 지점의 문화적 특징을 배울 수 있다. 야오족의 자수 패턴은 야오족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자수 공예는 절묘하고 아름답

38) <https://mr.baidu.com/r/li8xYxuD2F2?f=cp&u=7550e0ba913816e4>

39) <https://mo.mbd.baidu.com/r/li4EgXU57gc?f=cp&u=a17ba87b16c9eb29>

다워 국가 무형문화유산 4호로 등재되었다. 의상 색은 옷의 영혼이며, 옷 구성의 가장 직관적인 요소이다. 색은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 다른 색은 다른 미적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흰색은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고, 빨간색은 열정과 활력을, 검은색은 낮은 키의 침착함을 나타낸다.

중국의 소수민족 옷은 색에 극도로 관심이 많은데, 간단한 옷이라도 옷의 아름다움을 높이기 위해 자수, 염색과 다른 방법으로 옷을 장식한다. 그러나 색의 사용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삶, 역사, 환경 등에서 진화하면서 다양성을 나타낸다.

특히, 광시좡족 자치구성 진슈자치구(广西省金秀自治区)에 사는 아오야오(坳瑶)를 예를들면 의상의 바탕색은 주로 검은색과 짙은 파란색이다. 이는 아오야오족이 오랫동안 깊은 산에서 장작을 패기 때문에 검은색과 짙은 색 옷을 입는 것이 다른 옷보다 더러움을 잘 견디고, 초기 사냥에서 검은 색 의상이 눈에 띄지 않아 보호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오야오족의 마음속에서 검은색은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색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은색과 어두운 색상의 의상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되었다. 빨간색은 야오족에게 행운과 축제의 상징이므로 자수 패턴에는 빨간색과 주황색 등 밝은 색상이 많이 사용되어 의상의 주 색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우야오 의상에서는 검은색이 의상 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빨간색만 옷깃, 팔목, 벨트 장식에 사용되어 의상의 전체적인 색상 대비가 독특하고 개성이 뚜렷하다. 오야오 의상의 모자와 벨트는 대부분 흰색과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시각적 효과를 더 강하게 표현된다.

(2) 장식

야오족의 복식에서 장식을 살펴보면 여성은 대나무 껍질로 만든 대나무 껍질 모자로 된 장식 모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모양은 납작한 원반과 비슷하며 모자 뒷부분이 약간 오목한 모양으로 머리 위에 대나무 껍질 모자를 쓰고 은색 장식품 및 기타 장식과 매치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림 31] 남녀 의상과 장식⁴⁰⁾

남자는 일반적으로 머리를 길게 유지하고 머리핀이나 머리띠로 묶고 기하학적 무늬와 꽃무늬가 수 놓인 흰색 터번을 머리에 감아 장식한다.

3) 소도구

춤에 등장하는 소도구는 민족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반영한다. 소품에 사용되는 재료를 분석함으로써 민족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소품은 다양한 크기와 색상 및 모양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정서적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무용 소품은 무용의 외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전통 문화적 의미를 반영하는 역할도 하며 춤의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결정짓는다.

40) <http://xhslink.com/GCysQH>



[그림 32] 중앙의 장고는 암북, 나머지는 수북⁴¹⁾

야오족 장고춤의 주요 소품은 지역마다 생산 방법과 예술적 표현이 다르다. 예를 들어 광시좡족 자치구와 성 진슈 야오 자치현의 다야오 산에서 아우 야오가 사용하는 장고는 크고 작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이 장고는 현지에서 황니 장고로 알려져 있으며 황니 장고는 숫고(公鼓)와 암고(母鼓)로 나뉘며, 수북은 허리가 길고 가늘고 두 끝이 나팔 모양이다. 길이는 106cm 이상, 두 입의 구경은 약 20cm이고 암북은 허리가 짧고 두껍고 두 끝이 컵 모양이며 장고 길이는 약 100cm, 두 입의 구경은 약 26cm이다.

광둥성 칭위안현 렌난에 있는 야오족의 장고는 큰 장고와 작은 장고로 나뉜다. 큰 장고와 작은 장고의 생산 공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장고의 모양은 트럼펫처럼 섬세하고 관대하며 몸통은 길고 양쪽 끝이 약간 크고 가운데가 비어 있고 작으며 장고의 전체 길이는 약 85cm에서 100cm이다. 이 장고 두 끝의 표면 크기는 약간 다르며 직경은 각각 15cm와 18cm이다. 장고 통의 모양에서 드럼에 빨간 리본이 묶여있어 등에 메고 다니기 쉽게 제작되었다.

41) 신화통신 기자: 루보시가 광시좡족 자치구 민족 박물관에서 야오족의 황니 장고를 촬영하고 있다(5월 18일).



[그림 33] 큰 장고와 작은 장고⁴²⁾

광시좡족 자치구 북동부와 후난 남서부의 높은 산, 평지 야오족과 도산 야오족이 사용하는 장고는 큰 장고와 작은 장고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장고의 길이가 약 100-133cm, 짧은 장고는 길이가 약 66cm 정도이다. 장고는 야오족 장고춤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 중 하나로, 연주자들은 특정 리듬과 멜로디에 따라 장고를 친다. 여기에 다양한 전통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강한 민족적 분위기와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낸다. 악기 반주는 야오족 장고춤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춤에 활력과 매력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성(笙)은 야오족 장고춤 공연에서 흔히 사용되는 악기 중 하나이다.

성은 맑고 선율적인 음색을 가진 대나무 관악기로, 수오나와 함께 다채로운 음악을 연주하여 춤에 생생한 음악적 이미지를 더하다. 수오나(唢呐)는 야오족 장고춤 공연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악기이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 악기 외에도 야오룽 격려 공연에는 탬버린, 징, 휘파람, 루쟁, 심벌즈, 종 및 기타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되기도 한다.

42) <https://me.mbd.baidu.com/r/1kARlmEzDNu?f=cp&rs>



[그림 34] 성(笙)⁴³⁾



[그림 35] 수오나(唢呐)⁴⁴⁾

이처럼 모든 악기는 각자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 악기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장고춤의 공연을 더욱 생생하고 흥미 있게 연출하였다. 악기들은 조합은 이루어져 장고춤의 역할을 차지 하지 않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4. 민족지 시각에서 본 야오족 장고춤의 가치

1) 신체적 가치

야오족 장고춤은 이제 그룹 스포츠 프로그램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춤은 추는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 오늘날 야오족의 장고춤은 전통적인 의식 활동에서 벗어나 대중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고춤이 가지고 있는 표현 형식이 독특하며,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적당한 운동량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야오족 장고춤이 지니는 신체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오족 장고춤의 동작은 주로 걷기, 달리기, 점프를 기본으로 하며, 전신 운동에 속한다. 장고춤은 무거운 장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의

43) 광시좡족 자치구 뉴스 홈페이지, <https://mr.mbd.baidu.com/r/1kB53i7USD6?f=cp&rs=3654633053&ruk=eGeCFGf3iC9bKB1jdeVcWQ&u=b6dc88e19915f6c0>, 2022.04.06.

44) <http://dz.cppfoto.com/activity/showG.aspx?works=555502&page=1>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운동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신체적 활동은 피트니스 효과를 제공하며, 동시에 공연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댄서에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회적 및 정신적 가치로 야오족 장고춤은 신체 운동을 통해 피트니스 효과를 얻는 것 외에도 공연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청중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여 정서를 배양할 수 있다. 전통 축제에서 야오족은 장고춤을 통해 예술적 가치와 함께 스포츠 가치와 피트니스 가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스쿼어 댄스와의 결합하여 새로운 계층 참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함께 모여 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오족 장고춤이 스쿼어 댄스의 피트니스 공연에 포함되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그림 36] 광시좡족 자치구 리푸시
풀루 야오 향진 중앙 초등학교(广西荔浦市蒲芦瑶族乡中心小学)⁴⁵⁾

장고춤의 피트니스 가치를 탐구하고, 야오족 장고춤과 피트니스 운동을 결합하여 장고춤의 계승과 대중화를 촉진하는 것은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로 적용되고 있다.

45) http://stzg.china.com.cn/m/2024-04/07/content_42748046.htm

일부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야오족 장고춤을 운동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캠퍼스에서 야오족 장고춤의 인기를 촉진하여 장고춤이 더 잘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역사적 가치

야오족의 장고춤은 야오족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야오족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장고춤의 동작은 야오족 조상들의 삶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야오족의 생활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장고춤은 역사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졌으며, 공연 형태와 내용이 광범위해졌다. 오랜 역사를 통해 야오족 장고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였다. 야오족 장고춤은 야오족의 전통 문화와 인생관, 가치관을 반영하며, 장고춤을 통해 야오족의 정신적, 문화적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야오족 장고춤은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장고춤은 노동, 수확, 이사, 장례식 등 중요한 행사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야오족의 조상들은 중요한 행사 전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이러한 활동에서 장고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여 신앙과 종교 문화를 이해하는데에 의미가 있다.

야오족 장고춤은 단순한 무용을 넘어 야오족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야오족의 귀중한 예술 유산이자 역사의 증언입니다. 장고춤은 고대의 전통춤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며, 야오족의 특정 역사적 뿌리와 모성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야오족의 신앙, 삶, 예술 유산을 통해 역사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광자원으로서 가치

야오족 장고춤은 야오족의 전통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관광적 가치도 매우 높다. 이 춤은 독특한 리듬과 풍부한 의미, 깊은 문화 유산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야오족 장고춤이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문화관광의 가치로 첫째, 야오족 장고춤은 독특한 리듬과 동작,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야오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야오족의 열정과 대담함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자연 경관과의 조화: 장고춤의 공연 장소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관광객들은 춤을 즐기면서 동시에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여 관광 지로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으로는 첫째, 야오족 장고춤은 지역 무용 예술 산업과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시킨다. 둘째, 관광객들에게 야오족 문화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 문화 수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야오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야오족 지역 사람들은 관광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광 상품 개발은 야오족 전통 예술과 관련된 제품의 소비와 홍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야오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야오족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야오족 장고춤은 전통 문화와 관광 산업이 결합된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이를 통해 야오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문화 체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야오족 장고춤의 계승 및 보호를 강화하고, 공연 수준을 향상시킴

으로써 야오족 장고춤은 앞으로도 관광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5. 맺음말

야오족과 야오족 장고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야오족의 신화적인 이야기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야오족이 넓은 분포 지역을 가진 이동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야오족 장고춤의 역사적 배경, 형태, 가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야오족 장고춤은 전통 축제, 추수 감사제, 집들이, 결혼식 등 중요한 행사에서 전승되어 온 춤이다. 이 춤은 야오족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다. 야오족은 다양한 계통과 지역에 따라 독특한 춤 형태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야오족의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성을 나타낸다.

야오족 장고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의례적인 춤은 소원을 비는 목적으로 공연되는 소원 반한 장고춤으로, 제사 때 추는 장고춤이다. 축제용 춤은 오락적인 춤으로, 춘절이나 축제에 공연되는 사자 장고춤이다. 의례와 오락의 기능을 모두 갖춘 공연용 긴 북춤으로, 양을 쫓고 북을 만드는 장고춤(赶羊做鼓长鼓舞)이 있다. 이 춤들은 야오족의 지혜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의상과 리듬을 통해 활기찬 생활상을 표현한다. 야오족 장고춤은 가치는 신체적 가치, 역사적 가치관관광자원으로서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가치는 무형 문화유산과 현대 생활을 결합하여 전통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신체적 활동은 피트니스 효과를 제공하며, 학교와 대중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 가치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야오족의 신념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야오족 장고춤을 계승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지역 관광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고용률을 자극하고, 야오족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인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야오족 장고춤은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리적 제한과 외부의 관심 부족으로 전승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황니 장고춤과 같은 일부 전통 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보호와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야오족 장고춤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를 분석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계승 방안을 모색하였다. 야오족 장고춤의 다양한 형태와 지역별 특징은 한국과도 차별성이 있어 탐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유산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제한점으로 야오족 장고춤의 다양한 분포와 지역적 차이를 모두 포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춤 형태와 의식 절차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이 제한적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해야 한다. 광범위한 현지 조사와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야오족 장고춤은 야오족의 지혜와 창의성을 담고 있는 문화적 보물이다.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전승과 발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도 민족 무용 형식과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속 가능한 무형문화유산으로 계승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문화적 유산으로 널리 알려져 보호받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박대남·현창주, 「중국(中國) 광서성(廣西省) 전주현(全州縣) 동산요족(東山瑤族) 민속문화(民俗文化) 조사(調查) 약보고(略報告)」,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37권, 국립문화재연구원, 2004, 169-211쪽.
- 오도경·김미숙, 「한국 진주·삼천포 농악의 설장고춤과 중국 요족 장고춤의 비교연구」, 『영남춤학회誌』 1권 1호, 영남춤학회, 2013.
- 왕 천, 「중국 요족 장고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국내석사학위논문, 2011.
- 왕 판, 「렌난 여오족 장고춤의 계승과 보호-광둥성 리난야오현의 사례」, 『하우스 오브 드라마』, 2016.
- 왕산밍, 「광둥성 북부의 현대 토속 생활에서 렌난 여오족 장고춤의 사회적 가치」, 『민속음악』, 2014.
- 황 흥, 「야오족 장고춤의 춤 동작과 기능에 관한 연구」, 위안칭 직업기술대학, 2014.
- 刘佳家, 「坳瑶传统黄泥鼓舞蹈文化研究——以广西金秀县六巷乡上古陈村为例」, 『广西民族大学』, 2007.04.
- 王 帆, 「连南瑶族长鼓舞的传承与保护——广东省连南瑶族县为例」, 『戏剧之家』, 2016.
- 王珊铭, 「粤北连南瑶族长鼓舞在当代乡土生活中的社会价值」, 『民族音乐』, 2014.
- 黄 虹, 「瑶族长鼓舞舞蹈动律与功能研究」, 『远清职业技术学院』, 2014.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야오족 장고춤의 특징과 가치를 야오족과 야오족 장고춤의 다양성의 특징, 문화적 특징, 장고춤의 리듬 특징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고 야오족과 야오족 장고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야오족 장고춤이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전승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소수민족 중 야오족은 이주 민족으로,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장고춤 종류가 다양하고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 문화유산의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야오족과 장고춤의 종류를 분류하고 장고춤의 특징과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야오족 장고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야오족 장고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풍습은 동일한다. 장고와 소품 및 소도구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주로 작은 장고, 중간 장고, 큰 장고로 나눠 정리하였다. 무용 표현 형식의 관점에서 볼 때 주로 소완 장고춤과 축제 장고춤과 위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장고춤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장고춤의 가치에서는 신체적 가치, 역사적 가치, 관광 가치로 살폈다. 이 논문이 더 많은 연구자에게 야오족의 문화의 다양성과 야오족 장고춤을 연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야오족 장고춤, 야오족 문화, 분류, 가치

■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Chinese Yao Django Dance

Deong, Danni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im, Tae Deok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Yao Django dance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 diversity of the Yao and Yao Django dance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rhythmic characteristics of the Jango dance, and analyzed the Yao and Yao Django danc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lthough the Yao dance was included in the list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t is difficult to transmit. Among the ethnic minorities, the Yao is a migrant ethnic group, and it contains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as it has various types of dango dance and characteristic elements under the influence of local culture.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classify the types of Yao and Jango dances, accurately grasp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Jango dances, and provide reference materials to scholars who study Yao's Jango dances in the future.

There are various types of five-jok dango dance, but the cultural meaning and customs contained in them are the same. From the perspective of dango, props, and props, this paper is mainly divided into small dango, medium dango, and large dango. From the perspective of dance expression form, it was analyzed mainly by dividing it into a small-wan dango dance, a festival dango dance, and a dango dance with both of the above functions. In the value of dango dance, physical value, historical value, and tourism value were examined. I hope this thes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more researchers to study the diversity of Yao culture and the Yao dango dance.

Keyword • Yao's dango dance, Yao's culture, classification, and value

■ 논문투고일:2024.06.23. ■ 심사완료일:2024.07.22. ■ 게재확정일:2024.07.24. ■

사동문의 구성과 의미에 대한 연구

송 홍 규*

목 차

1. 서론
2. 사동문의 형식적인 구분
: 장형(통사적) 사동과 단형(형태적) 사동
3. 사동문의 의미적 구분 :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
4. 결론

1. 서론

‘사동’은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주동’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주동이 주체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이룬다면, 사동은 주체가 다른 이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게 시키는 것을 이룬다. 사동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 유형이 다양하여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사동문은 그 형식적인 측면에 따르면, 크게 ‘이, 히, 리, 기’ 등의 접미사가 어근에 결합하여 구성되는 형태적 사동, 즉 ‘단형 사동’과 보조용언 ‘-게 하다’가 주동문의 서술어와 함께 쓰여 구성되는 통사적

* 국립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사동, 즉 ‘장형 사동’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가-게 하다’와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보내다’와 같은 단어도 있어 이를 어휘적 사동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앞에서 사동문을 그 형식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유형을 분류했지만, 사동문은 의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사동문은 그 의미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동의 행위가 사동주에 의해 직접 실행되면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 사동의 행위가 사동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실행되지 아니하고 피사동주를 통해 실행되면 ‘간접 사동’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동문의 형식적인 구분과 의미적인 구분 사이의 관계는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는 사동문의 형식적인 차이는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의미적인 차이는 그 구분이 명료하게 나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보이기 위해 제시된 아래의 예들을 살펴보자.

(1) ㄱ.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읽-게 하-었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읽-히-었다.

(2) ㄱ. 철수가 영희에게 옷을 입-게 하-었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옷을 입-히-었다.

(1)에 제시된 두 문장은 모두 사동을 나타내는 보조용언과 접미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동문이다. 하지만 (1)의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유형은 김운신(20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피사동주가 사동주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직접 사동이 되고, 피사동주가 비교적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사동주가 요구하는 행위를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는 간접 사동이 된다. (1)의 문장들은 비교적 피사동주가 능동적으로 읽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모두 간접 사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

진다.

이와 달리 (2)의 문장들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2ㄱ)의 경우 옷을 입는 행위가 피사동주인 영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간접 사동으로 분석되지만, (2ㄴ)의 경우에는 영희가 옷을 입는 행위가 사동주인 철수에 의해 완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직접 사동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의 두 문장이 모두 간접 사동으로 분석되지만, 이들이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두 문장이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피사동주에 나타날 수 있는 격표시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3) ㄱ. 철수가 영희-가 책을 읽-게 하-었다.

ㄴ. *철수가 영희-가 책을 읽-히-었다.

(3)에 나타난 두 문장의 격표시의 차이는 의미적이기보다는 문법적인 것일 수 있다. 주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문법적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격 조사 '가'의 출현은 피사동주의 능동적 행위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 사이의 의미적 차이를 보여주는 한 지표로 여겨질 수도 있다.

다음은 (1ㄴ)와 (2ㄴ)의 두 사동문의 차이를 그 예문이 다시 제시된 (4)를 통해 살펴보자. 이들은 모두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를 포함하고 있어 단형 사동으로 구분된다.

(4) ㄱ.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읽-히-었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옷을 입-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4ㄱ)의 문장은 비교적 피사동주가 능동적으로 읽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간접 사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4ㄴ)의 문장은 피사동주가 능동적으로 옷을 입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가 옷을 입은 상태는 사동주의 능동적인 행위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4)의 두 문장은 모두 단형 사동으로 분류되지만, 의미적인 측면에서 (4ㄱ)는 간접 사동으로 분류되는 반면 (4ㄴ)는 직접 사동으로 분류된다. (4ㄱ)와 (4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주다’라는 수혜문을 만드는 표현과의 결합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 ㄱ.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읽-히-어-주었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옷을 입-히-어-주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을 나타내고 단형 사동은 직접 사동을 나타낸다는 단순한 규칙화는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동의 형식적인 구분과 의미적인 구분 사이의 연관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단형 사동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두 유형의 사동이 구성되는 데에 관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탐구할 것이다. 아울러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에서 모두 수혜의 의미를 나타내는 ‘주다’라는 동사가 쓰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사동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동문의 형식적인 구분

: 장형(통사적) 사동과 단형(형태적) 사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형 사동은 주동문의 서술어에 보조용언 ‘-게 하다’가 결합하여 구성되고, 단형 사동은 주동문의 서술어에 ‘이, 히, 리, 기’ 등의 접미사가 결합하여 구성된다. 이런 형식적인 구성의 차이와 관련하여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이 보이는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피사동주에 결합하는 격조사의 차이이다. 먼저 장형 사동에 쓰일 수 있는 피사동주에 결합하는 격조사의 유형을 살펴보자.

- (6) ㄱ. 철수가 영희가 그릇을 닦게 했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그릇을 닦게 했다.
 ㄷ. 철수가 영희를 그릇을 닦게 했다.

김기혁(2009)은 사동문의 의미가 피사동주의 격 표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장형 사동에서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표시되면 피사동주의 행위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피사동주의 행위성이 높은 것은 피사동주가 여격으로 표시되는 경우이며, 대격으로 표시될 때 피사동주의 행위성이 가장 낮게 이해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단형 사동의 경우에는 피사동주의 격표시가 장형 사동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 (7) ㄱ.*철수가 영희가 그릇을 닦였다.
 ㄴ. 철수가 영희에게 그릇을 닦였다.
 ㄷ. 철수가 영희를 그릇을 닦였다.

(7)에서 보듯이 단형 사동의 경우에는 피사동주에 대한 주격 표시는 불가능하고 여격과 대격은 가능한데, 김기혁(2009)에서는 피사동주가 여격인 경우가 대격인 경우보다 행위성이 높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단형 사동의 경우 피사동주에 여격 표시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정의 동사들은 (8)에서와 같이 신체의 일부분을 목적어로 취하는데, 이 목적어는 주어와 떼어낼 수 없는 분리불가능성의 특성을 지닌다.

- (8) ㄱ. 철수가 무릎을 꿇었다.
 ㄴ. 철수가 머리를 감았다.

신체의 분리불가능성 때문에 (8)의 문장에서 신체 부위에 대해 다른 소유자를 상정하기 어렵다.

- (9) ㄱ.*철수가 영수의 무릎을 꿇었다.
 ㄴ.*철수가 영수의 머리를 감았다.

(8)의 문장들의 단형 사동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10) ㄱ.*영수가 철수가 무릎을 꿇렸다.
ㄴ.*영수가 철수에게 무릎을 꿇렸다.
ㄷ. 영수가 철수를 무릎을 꿇렸다.
- (11) ㄱ.*영수가 철수가 머리를 감겼다.
ㄴ.*영수가 철수에게 머리를 감겼다.
ㄷ. 영수가 철수를 머리를 감겼다.

(11ㄴ)는 영수가 철수에게 영수 자신의 머리를 감게 한 의미로는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영수가 철수에게 철수 자신의 머리를 감게 하도록 시키는 의미로는 어색한 문장이라고 본다.

(10)과 (11)의 문장들은 장형 사동의 형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12)와 (13)로 각각 표현된다.

- (12) ㄱ. 영수가 철수가 무릎을 꿇게 했다.¹⁾
ㄴ. 영수가 철수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ㄷ. 영수가 철수를 무릎을 꿇게 했다.
- (13) ㄱ. 영수가 철수가 머리를 감게 했다.
ㄴ. 영수가 철수에게 머리를 감게 했다.
ㄷ. 영수가 철수를 머리를 감게 했다.

(13ㄱ)는 영수가 철수에게 철수 자신의 머리를 감도록 시킨 의미를 나타낸다. (13ㄴ)의 경우는 영수가 철수에게 철수 자신의 머리를 감도록 시킨 의미보다는 영수가 철수에게 영수 자신의 머리를 감도록 시킨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13ㄷ)의 경우는 영수가 철수에게 철수 자신의 머리를 감도록 시킨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장형 사동에서 쓰이는 세 유형의 격 표시의 차이는 단순히 피사동주의 행위성의 강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1) 필자는 (12)의 문장들에서 영수가 철수로부터 행복을 받고 복종하겠다는 서약으로 철수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를 요구하는 의미로는 (12ㄷ)가 가장 적절하고 (12ㄱ)와 (12ㄴ)는 어색한 문장이라고 본다. (12ㄱ)와 (12ㄴ)는 사동문의 의미보다는 영수가 철수가 무릎을 꿇는 행위를 승인해 주는 허용문의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피사동주의 격표시와 피사동주의 행위성의 강도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생각된다. 피사동주에 나타나는 격표시의 차이는 각각의 격표시가 쓰이고 있는 장형 사동문의 통사적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²⁾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이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다양한 문법 현상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를 김윤신(2012)에서 언급된 몇 가지 현상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³⁾

먼저 대용언의 대용 현상과 관련하여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14) 철수가 순이를 울게 하니까 영수도 그랬다.

-> 철수가 순이를 울게 하니까 영수도 영희를 울게 했다.

-> 철수가 순이를 울게 하니까 영수도 울었다.

(15) 철수가 순이를 울리니까 영수도 그랬다.

-> 철수가 순이를 울리니까 영수도 순이를 울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형 사동은 대용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의성을 보이지만, 단형 사동은 중의성을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

다음은 재귀칭 대명사의 해석과 관련하여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⁴⁾

(16) 철수_i가 순이_j를 자기_{i/j}의 방에서 자게 했다.

2) 피사동주의 격표시가 다양한 통사적 구조의 반영인 것으로 보고 각각의 격표시와 관련하여 다른 통사적 구조를 제안한 논의에는 Song(2005), 이숙(2007), 이숙(2017), 박소영(2012), 박소영(2013) 등이 있다.

3) 이와 관련된 현상들은 Shibatani(1973)와 Yang(1976)에서 논의된 것들로서 Shibatani는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 간의 문법적 차이가 많아 두 유형의 사동문에 동일한 구조를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Yang은 두 유형의 사동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어 단일한 통사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어의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은 차이를 갖는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을 설명하였다.

4) 재귀칭 대명사 '자기'의 선행사는 통사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서술어가 취하는 논항 구조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17) 철수가 순이를 자기의 방에서 재웠다.

(16)의 장형 사동에서는 재귀칭 대명사가 사동주나 피사동주를 둘 다 지시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17)의 단형 사동에서는 재귀칭 대명사가 사동주만을 지시할 수 있는 해석만 가능하다.

또한 부정 부사 ‘안’의 작용역도 문장이 장형 사동인지 단형 사동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8) 철수가 순이를 안 웃겼다.

-> 철수가 순이를 웃기지 않았다.

(19) ㄱ. 철수가 순이를 웃게 안 했다.

-> 철수가 순이를 웃게 하지 않았다.

ㄴ. 철수가 순이를 안 웃게 했다.

-> 철수가 순이를 웃지 않게 했다.

(18)의 단형 사동에서는 부정 부사 ‘안’은 사동주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19)의 장형 부정에서는 사동주의 행위가 부정되는 해석도 가능하고, 피사동주의 행위가 부정되는 해석도 가능하다.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차이는 양상 부사와 관련된 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 ㄱ.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옷을 빨리 입게 했다.

ㄴ.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옷을 빨리 입혔다.

(20ㄱ)의 장형 사동에서는 양상 부사 ‘빨리’가 사동주나 피사동주의 행위를 수식하는 중의성을 보이지만, (20ㄴ)의 단형 사동에서는 ‘빨리’가 오직 사동주의 행위만을 수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문법 현상과 관련된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차이는 두 유형의 사동문의 통사적 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부정 부사 ‘안’의 작용역 해석의 차이나 양상 부사의 해석의 차이는 의미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듯하다. 즉 간접 사동을 나타내는 장형 사

동에서는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나타내는 두 개의 행위주와 관련된 별개의 서술어를 의미적으로 상정할 수 있어 부사의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지지만, 직접 사동을 나타내는 단형 사동에서는 사동주와 피사동주와 관련된 별개의 행위주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한 개의 서술어만 상정되기에 부사의 중의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사적 차이에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지던 여러 가지 현상은 사동문의 의미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는 사동문의 형식적 유형 구분과 의미적 유형 구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 사동문의 의미적 구분: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의미 해석 문제는 피사동주의 행위주성 의미 자질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논의해야 한다고 박소영(2013)은 주장했다. 부연하면 간접 사동은 피사동주가 행위주성 자질을 갖추어 사동주의 시킴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를 피사동주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이르고, 직접 사동은 피사동주가 사동주가 요구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없어서 사동주 자신이 피사동 행위를 직접 이행하는 경우를 이른다.

사동문의 형식적 유형 구분과 의미적 유형 구분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단형 사동은 직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내고,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낸다는 주장(Shibatani, 1973)과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은 각각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 모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Yang, 1976)이 있다. 이와 아울러 최근에 남기심 외(2019)와 유현경 외(2018)에서는 장형 사동은 일반적으로 간접 사동의 의미만을 지니지만, 단형 사동은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어의 단형 사동의 예를 보면 최소한 단형 사동은 직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내고,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21) ㄱ. 닦이다- *닦여주다 | ㄴ. 읽히다- *읽혀주다 |
| ㄷ. 쓰이다- *쓰여주다 | ㄷ. 갈리다- *갈려주다 |
| ㄹ. 썰리다- *썰려주다 | ㅈ. 널리다- *널려주다 |
|
(22) ㄱ. 먹이다- 먹여주다 | ㄴ. 보이다- 보여주다 |
| ㄷ. 알리다- 알려주다 | ㄷ. 입히다- 입혀주다 |
| ㄹ. 안기다- 안겨주다 | ㅈ. 업히다- 업혀주다 |

(21)에 제시된 사동 표현은 모두 단형 사동이다. 만약 단형 사동이 직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낸다면 (23)에 제시된 사동문에서 피사동 행위는 피사동주가 아닌 사동주에 의해 직접 이행되는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23) 철수가 순이에게 책을 읽혔다.

하지만 (23)의 문장에서 책을 읽는 행위를 이행하는 사람은 사동주인 철수가 아니라 피사동주인 순이로 이해된다. 따라서 (21)의 사동문은 단형 사동이라고 하더라도 간접 사동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22)에 제시된 사동 표현들은 모두 단형 사동이고 (24)에서와 같이 단형 사동이 쓰인 경우 직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4) 철수가 순이에게 밥을 먹였다.

(24)에서 밥을 먹는 피사동 행위가 이행되는 것은 피사동주인 순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동주인 철수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순이가 밥을 먹는 행위는 사동주인 철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21)의 단형 사동 표현과 (22)의 단형 사동 표현은 단형 사동은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남기심 외(2019)와 유현경 외(2018)의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들의 견

해가 하나의 단형 사동이 간접 사동으로도 이해되고 직접 사동으로도 이해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21)과 (22)의 단형 사동 표현의 구분은 그들의 견해에 반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21)과 (22)에 제시된 단형 사동 표현들이 각각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만을 표현하는 차이를 갖는다는 근거는 그 표현들이 수혜의 보조용언으로 분류되는 ‘주다’와의 결합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2)에 제시된 단형 사동 표현들은 모두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갖는데 이들은 전부 ‘주다’와의 결합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21)의 단형 사동 표현들은 모두 ‘주다’와 결합하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만약 남기심 외(2019)와 유현경 외(2018)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단형 사동이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21)에 제시된 단형 사동 표현들에 ‘주다’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예들은 (22)의 예들과는 달리 ‘주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 사실은 단형 사동이 직접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것들도 있고 간접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한 형태의 단형 사동이 직접 사동의 의미와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한다.⁵⁾

본고에서는 단형 사동과 ‘주다’와의 결합 여부 문제를 장형 사동을 구성하는 ‘-게 하다’와 ‘주다’와의 결합 문제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Yang(1976)에서는 장형 사동을 구성하여 간접 사동을 의미하는 ‘-게 하다’가 다른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5) 단형 사동과 ‘주다’와의 결합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형 사동을 나타내는 문장이 통사적으로 단문의 구조를 갖는지 복문의 구조를 갖는지에 따라 ‘주다’의 결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고, 단형 사동의 서술어가 갖는 논항 구조의 차이에 따라 ‘주다’의 결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수혜의 보조용언으로 불리는 ‘주다’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박소영·김도훈(2017), 김경열(2018), 명정희·이정훈(2022) 등을 참조할 것.

(25) 메리가 울고 싶다고 해서, 나는 메리를 울게 했다.

(25)에서 주절이 되는 ‘나는 메리를 울게 했다’는 장형 사동으로 구성된 간접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사동문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25)의 종속절은 사동 행위가 사동주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피사동주에 의해 시작된 것임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즉, (25)의 주절은 피사동주가 갖고 있는 의도의 실현을 사동주가 허용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관찰을 기반으로 Yang(1976)은 (25)의 주절은 ‘사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허용(permiss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행되는 전체 행위의 과정에 사동주의 영향이 어느 정도 관여하기 때문에 이를 사동의 하위 유형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⁶⁾

(25)에서 제시된 허용의 문장은 (26)에서와 같이 ‘주다’와 함께 쓰일 때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 (26) ㄱ. 철수가 메리를 울-게 해 주었다.
- ㄴ. 철수가 영수에게 칼을 갈-게 해 주었다.
- ㄷ. 철수가 영수에게 자기 옷을 빨-게 해 주었다.

만약 Yang(1976)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이 용법과 의미에서 유사하다면, 단형 사동도 ‘허용’의 의미를 지닐 것이고 ‘주다’의 결합도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의 관찰은 예측과 상이하게 나타난다.

- (27) ㄱ.*철수가 메리를 울-리어 주었다.
- ㄴ.*철수가 영수에게 칼을 갈-리어 주었다.
- ㄷ.*철수가 영수에게 자기 옷을 빨-리어 주었다.

6) Yang(1976)은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이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주장하기에 단형 사동의 경우에도 ‘허용’의 의미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27)의 예문들은 모두 비문이 되는데, 이것은 허용문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사동 행위가 사동주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피사동주에 의해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7)의 문장들은 모두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행위주성 자질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허용문의 구성에서 요구되는 피사동주에 의해 먼저 시작되는 사동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28) ㄱ. 철수가 영수에게 그 소식을 알-게 해 주었다.

ㄴ. 철수가 영수에게 그 그림을 보-게 해 주었다.

(28)의 문장들은 모두 사동주인 ‘철수’가 피사동주인 ‘영수’가 알고 싶어 하는 소식이나 보고 싶어 하는 그림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 문장들은 모두 장형 사동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형 사동의 형태로 대체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26)의 예들과 (27)의 예들의 문법성 차이는 (26)에서는 장형 사동일 경우 문법적이던 문장들이 (27)에서와 같이 단형 사동으로 바뀌었을 때 비문법적인 문장이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8)의 문법적인 장형 사동문들은 (29)에서와 같이 단형 사동문으로 교체되어도 그대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29) ㄱ. 철수가 영수에게 그 소식을 알-리어 주었다.

ㄴ. 철수가 영수에게 그 그림을 보-이어 주었다.

(29)의 문장들은 일종의 허용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이는 영수가 알고 싶어하는 소식을 철수가 알려 영수가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수가 보고 싶어 하는 그림을 철수가 보여 주어 영수가 볼 수 있게 하는 상황은 허용문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허용문으로 분류되는 문장은 장형 사동의 형태인 ‘-게 하다’에 보조용언 ‘주다’가 결합하여 구성되는데, 이는 단형 사동 중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갖는 유형들에 ‘주다’가 결합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이런 논의는 직접 사동이면서 단형 사동인 사동 표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형 사동이면서 간접 사동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들과는 달리 단형 사동이면서 직접 사동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들은 원래 장형 사동과 형식이 유사한 허용문의 구성 방식을 유지하다가 장형 사동의 형식이 단형 사동의 형식으로 대체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형 사동이면서 간접 사동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에는 ‘주다’가 결합할 수 없지만, 단형 사동이면서 직접 사동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에는 ‘주다’가 결합할 수 있는 이유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사동문의 형식적 구분과 의미적 구분에 대해 살펴보며,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특성 및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특성을 고려하며 그들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사동문의 형식적 구분과 의미적 구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단형 사동은 직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내고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낸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은 각각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며, 마지막은 장형 사동은 일반적으로 간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내지만 단형 사동은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째 주장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자료들을 점검해 보면서 단형 사동에는 직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이 모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단형 사동에는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최소한 단형 사동형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지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마지막 주장과 관련해서도 단형 사동형은 간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단형 사동이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함께 지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구분은 단형 사동형과 수혜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 ‘주다’와의 결합 가능 여부를 통해 가능했다.

위의 관찰을 통해 본고에서 단형 사동형 중에서 직접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유형에는 ‘주다’의 결합이 가능하고, 간접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유형에는 ‘주다’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간접 사동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장형 사동형에는 ‘주다’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다’가 결합하는 장형 사동문은 ‘사동’의 본래의 의미를 표현한다기보다는 ‘허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허용문은 일반적으로 ‘-게 하다’의 장형 사동의 형태로 구성되는데, 특이하게도 장형 사동의 형태는 단형 사동의 형태로 교체될 수 있는데 그것은 단형 사동형이 직접 사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찰은 단형 사동이면서 직접 사동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들은 원래 장형 사동과 형식이 유사한 허용문의 구성 방식을 유지하다가 그것이 단형 사동의 형식으로 대체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 참고 문헌

- 김경열, 「보조용언 ‘주다’ 구성의 의미와 통사」, 『우리말 글』 78권, 우리말글학회, 2018, 27-49쪽.
- 김기혁, 「사동 구성의 긴밀성과 피사동자 격 표시」, 『한글』 238호, 한글학회, 2009, 93-126쪽.
- 김윤신, 「국어 사동문에 나타난 사동 행위의 직·간접성-사동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0권, 우리말학회, 2012, 111-143쪽.
- 남기심·고영근 외,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2019.
- 이정훈·명정희, 「‘주다’ 수여구문과 수혜구문의 의미와 논항구조」, 『어문연구』 50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5-28쪽.
- 박소영, 「한국어 사동문의 통사론적 도출」, 『언어』 37권 3호, 한국언어학회, 2022, 547-570쪽.
- 박소영·김도훈, 「한국어 ‘-주다’ 수혜 구문의 통사론」, 『국어학』 84권, 국어학회, 2017, 117-153쪽.
- 유현경·한재영 외, 『한국어 표준문법』, 집문당, 2018.
- 이 숙, 「‘-게 하다’ 사동구문의 통사적 분석」, 『어문학논총』 26권, 국민대학교어문학연구소, 2007, 291-309쪽.
- , 「한국어 두 사동구문의 의미 기능 분석」, 『어문론총』 72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15-131쪽.
- Shibatani, M.,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9, 1973, pp.281-297.
- Song, H., 『Causatives and Resultatives in Korean』, 한국문화사, 2005.(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Yang, I.,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vol. 10, no. 1, 1976, pp.83-117.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사동문의 형식적 구분과 의미적 구분에 대해 살펴봄,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특성 및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특성을 고려하며 그들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실제적인 자료들을 점검해 보면서 단형 사동에는 직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이 모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형 사동에는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최소한 단형 사동형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지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단형 사동형은 간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단형 사동이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의미를 함께 지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구분은 단형 사동형과 수혜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 ‘주다’와의 결합 가능 여부를 통해 가능했다.

위의 관찰을 통해 본고에서 단형 사동형 중에서 직접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유형에는 ‘주다’의 결합이 가능하고, 간접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유형에는 ‘주다’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간접 사동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장형 사동형 ‘-게하다’에는 ‘주다’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다’가 결합하는 장형 사동문은 ‘사동’의 본래의 의미를 표현한다기보다는 ‘허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이하게도 이들 허용문에서 장형 사동의 형태는 단형 사동의 형태로 교체될 수 있는데 그것은 단형 사동형이 직접 사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찰을 통해 단형 사동이면서 직접 사동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들은 원래 장형 사동과 형식이 유사한 허용문의 구성 방식을 유지하다가 단형 사동의 형식으로 바뀌면서 형성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주제어 ● 사동문, 허용문, 장형(통사적) 사동, 단형(형태적) 사동, 어휘적 사동, 직접 사동, 간접 사동.

■ Abstract

A Study on Formation and Meaning of Causative Sentences

Song, Hong Kyu /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long-form and short-form causativ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rect and indirect causatives based on the distinctions between causatives related to th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By investigating the raw data of causative sentences, we can figure out that the short-form causative can be divided into indirect and direct causatives, but we can also understand that there is no causative sentence that has meanings of both indirect and direct causation. Furthermore, we also figure out that the short-form causative can be divided into indirect and direct causative sentences, but it is not proven that a short-form causative sentence can be used for expressing indirect and direct causation simultaneously. The type distinction mentioned in this paper is based on the co-occurrence relation between short-form causative and the beneficiary Korean verb ‘juda’.

Based on the observation reported above, it is claimed that the type of causative that can co-occur with the beneficiary verb ‘juda’ is actually the direct causative, meaning the indirect causative cannot co-occur with ‘juda’. However, an unusually long-form causative used with ‘-ge ha’ can co-occur with ‘juda’. Actually, it is well known that the long-form causative that can co-occur with ‘juda’ does not express the meaning of causation but rather expresses the meaning of permission. The long-form causative used in a permissive sentence is unusually replaced with the short-form causative, but this is only possible in the case in which the short-form causative expresses the meaning of direct causation.

Based on this observation, it can be claimed that the causative form that is a short-form causative expressing the meaning of direct causation basically originated from the permissive sentence in which a long-form causative is

used, and since the long-form causative was later changed to the short-form causative, the permissive sentence changed to the short-form causative and became to exist as it is now..

Keyword • Causative sentence, Permissive sentence, Long-form(syntactic) Causative, Short-form(morphological) causative, Lexical causative, Direct causative, Indirect causative.

유사 피사동 ‘-되다, -시키다’의 양태 의미

신 지 연*

목 차

1. 머리말
2. 유사 피사동의 확대
3. 유사 피사동의 의미 기능
 - 1) 유사 피사동과 양태
 - 2) 완곡어법과 양태
 - 3) 문장의 구조와 양태
4. 결론

1. 머리말

최근 한국어 사용문에 ‘N-되다’나 ‘N-시키다’가 서술어가 되는 유사 피사동문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 (1) a. 갈수록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b. 갈수록 업무량이 증가되었다.
- (2) a.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했다.
b.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시켰다.

(1a)와 같이 능동문으로 표현하는 대신 (1b)와 같은 피동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동을 문법 현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어휘적 성격을 가지는

*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명사+되다’를 국어의 피동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남수경(2007:35)에서는 지나친 생산성과 빈번한 출현 때문에도 피동 현상인지 의심되는 면이 있다고 하였으며, 임동훈(2023)에서는 “술어명사가 한 자리 서술어일 때에는 주어의 의미 역할에 변화가 없어 ‘하다’가 ‘-되다, -어지다’로 교체되어도 피동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이를 ‘사이비 피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1b)는 능동문 (1a)와 대응 관계를 가지는 전형적인 피동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시키다’도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사동 접미사로 제시되어 있지만 서술성 명사에 붙은 ‘N-시키다’ 또한 진정한 사동의 기능을 하는지 의심스러운 용법이 실제 사용문에서 많이 보인다. (2b) 또한 주동문 (2a)와 대응하는 진정한 사동문이 아니다. 사동의 요건인 사동주의 행위와 피사동주의 행위라는 두 사건이 보이지 않으며 대응하는 주동문과 사동문 사이의 통사적인 자릿수 변동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2b)는 피사동주가 없는 문장으로 능동문인 (2a)로 표현되어도 충분하다. 허철구(1998), 유경민(2005), 이정택(2005), 유혜원(2012), 양정호(2019), 신지연(2023) 등에서도 이렇게 논항 변화 없이 사용되는 ‘N-시키다’를 전형적인 사동사로 보지 않고 의미 강화 혹은 화자 의도 강조의 의미를 위해 사용되는 유사 사동 표현 혹은 비규범적인 사동 표현으로 보았다. (1,2b)와 같이 피사동 접사 ‘-되다, -시키다’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지만 진정한 피사동 현상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를 ‘유사피사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규범적인 유사 피사동의 사용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저 비규범적이라고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는 나름의 존재 가치가 필경 있는 까닭일 터이다. 본고는 이러한 유사피사동의 의미 기능을 고찰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것이 화청자의 사태 실현 의지와 관계있는 일종의 양태 의미 기능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다.

2. 유사 피사동의 확대

이러한 유사 피동과 유사 사동의 용법은 그 사용이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선혜·박철우(2004)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현대소설의 어휘조사 연구(2003)’와 현대국어 사용문을 자료로 하여 구축된 <연세 한국어사전(1999)>을 검토하고 ‘N+하다’ 형보다 훨씬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N+시키다’ 형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오염시키다, 고조시키다, 마비시키다, 망신시키다’는 아예 ‘N+시키다’ 형 어휘는 있으나 대응하는 ‘명사+하다’ 형이 없는 동사들이다. 이 경우에도 ‘N+시키다’는 점차 사동이 가지는 행위주 의도성 표현을 위해 주동-사동의 의미 관계에 한정하여 쓰이지 않고 ‘N+하다’를 압도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N+시키다’ 형보다 ‘N+되다’의 용례는 훨씬 더 많다. 실제 사용언어에서 추출한 <연세한국어사전(1999)>에는 ‘N+시키다’ 형이 361개, ‘N+되다’ 형이 1200여 개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N+되다’ 역시 대응형 ‘N+하다’를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학용어로서 비교적 새로 생겼지만 일반적 용법으로 확대된 어근 ‘마비(痲痺/麻痺)’는 사전에 ‘마비하다’ 없이 자동사로 ‘마비되다’만 등재되어 있으며 타동사형으로는 ‘마비시키다’가 쓰인다.

‘N-하다’ 형이 부자연스럽고 ‘N-되다’ 형이나 ‘N-시키다’ 형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어휘 쌍들은 매우 많다. 아래의 (3) ~ (5)는 ‘N-하다’ 형이 거의 쓰이지 않아, ‘N-하다’ 형과 ‘N-되다’ 형, ‘N-하다’ 형과 ‘N-시키다’ 형이 자유롭게 바뀌 쓰일 수 있는 위 (1), (2)보다도 더 유사피사동의 확대가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원래는 자동사 ‘N-하다’가 쓰이던 문장이 논항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N-되다’가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타동사로는 ‘N-하다’가 쓰였으나 역시 논항 변화 없이 ‘N-시키다’가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다.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N-하다’가

자동사문에서는 유사 피동으로, 타동사문에서는 유사 사동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숙성(熟成)하다’는 자동사이고, ‘고조(高調)하다’는 타동사이며, ‘역전(逆轉)하다’는 ‘형세가 뒤집히다. 또는 형세를 뒤집다.’의 뜻의 양용동사로서 각각 아래 (3)~(5)과 같은 용법을 가진다.¹⁾

(3) 매실주가 숙성하여 먹을 만하다.

- (4) 활기찬 응원이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했다.
- (5) a. 상황이 역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b. 그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 위 (3)~(5)는 부자연스럽게 여겨지고 (3')~(5')와 같이 자동사로는 ‘N-되다’ 형이, 타동사로는 ‘N-시키다’ 형이 쓰인 발화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3') a. 매실주가 숙성되어 먹을 만하다.
b. 매실주를 숙성시켰다.
- (4') a. 활기찬 응원이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b. 활기찬 응원에 경기장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었다.
- (5') a. 상황이 역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b. 그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켰다.

(5)와 같은 ‘역전하다’의 사용은 퇴화하고 (5')에서 보이듯 능동의 의미를 가진 자동사문에서는 ‘역전되다’가, 타동사문이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목적어를 가질 경우에는 ‘역전시키다’가 사용된다. “-하다” - “-시키다”의 ‘주동 - 사동’, “-하다” - “-되다”의 ‘능동 - 피동’ 관계는 점점 퇴화하고 “-되다” - “-시키다”가 각각 자동사문과 타동사문 서술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아래 (6)의 ‘N+하다’ 동사들도 사전에 예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형들이다. 이들 역시 타동사문에서는 ‘N+시키다’ 형으로 자동사문에서는 ‘N+되다’ 형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아

1) (3)~(5)의 예시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이다.

래 (7)의 어휘들도 ‘N+하다’ 형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이다.

- (6) a. 둘만이 같이 온 일행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 불안감을 가중(加重)했다.
- b. 이 문제가 시간을 지연(遲延)한다고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c. 그렇게 사람을 매료하는 목소리는 처음 듣는다.
- d. 여름의 황혼은 미풍에 흔들리는 가로수와 더불어 달콤하고 슬프게 사람들을 매혹한다. 《박경리, 토지》
- e. 그는 자신을 소외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 준 동료들이 무척 고맙게 느껴졌다.
- f. 순환 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分散)하였다.
- g. 전인적인 인격 수양에는 자신의 재능을 인격과 균형 있게 조화(調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부조화하다.
- (7) 감염하다, 결렬하다, 경화하다, 고갈하다, 경직하다, 두절하다, 약화하다, 연루하다, 오염하다, 전염하다, 증폭하다, 진전하다, 진척하다.

결국 품사를 바꾸는 문법적 기능만을 하는 접미사 ‘-하다’ 대신 품사 변화라는 문법적 기능 외에 ‘어떤 상황을 수동적으로 겪음’과 ‘어떤 상황을 의지적으로 일으킴’이라는 실질적 의미 기능까지 각각 가지고 있는 ‘-되다, -시키다’가 사용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때의 실질적 의미 기능은 명제가 나타내는 사태의 실현에 대한 행위주의 의지, 곧 양태 의미 기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유사 피사동이 ‘사이비’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존재하며 성장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독자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3. 유사 피사동의 의미 기능

1) 유사 피사동과 양태

이때 ‘-되다’와 ‘-시키다’는 자릿수나 의미역의 변동을 동반한 진정한 피사동의 기능을 하지는 않으므로 피사동 접사로 볼 수 없고 사건의 실현과 관련한 화청자의 태도와 관련되는 양태 접사로 볼 수 있겠다. 곧, 피동

접사 ‘-되다’는 [-비의도성, -행위성]을 나타내며 사동 접사 ‘-시키다’는 [+의도성, +행위성]의 양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태를 ‘명제가 나타내는 사건의 실현과 관련한 화자나 청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라고 할 때 피사동 접사를 이용해서 사태 실현의 의지나 비의도성을 드러내는 것도 양태적 표현이다. 임동훈(2008)에 따르면 Foley & van Valin(1984:214-5)은 “화자는 보통 사건의 행위주와 사건의 완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예컨대 행위주가 그 사건을 수행할 의무나 의도, 또는 능력을 가지는지를 측정하여 이를 표시”한다고 하며 이것도 양태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 피동이 어떤 행위의 대상을 주어로 내세워 행동성을 배경에 숨기는 화자 의도 표현이라면 사동은 사동주를 주어로 세워 다른 참여자인 피사동주에게 영향을 미쳐 행위를 의지적으로 일으켰다고 본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다. 모든 문장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지만 이 피동과 사동 표현에 의해서는 사태 실현과 관련된 주어의 행위성을 약화하느냐 강화하느냐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드러나는 것이다.²⁾ 의도성 관점에서 볼 때 피동문을 통해서는 주어의 행동성, 곧 사태 실현 의지가 경감되는 반면 사동을 통해서는 사태 실현과 관련한 주어의 행동성이 강조된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평서문의 경우 화자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서술성 명사를 어근으로 하는 ‘N-하다’ 동사 대신 주어의 행동성을 강조하는 사동 표현 ‘N-시키다’나 비의도성을 강조하는 피동 표현 ‘N-되다’가 선호되는 일이 많은 점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사동과 피동 표현을 이용하여 화자는 사태의 실현과 관련한 행위주의 의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1b)의 ‘되-’와 (2b)의 ‘시키-’는 피사동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2) 목정수(2020)에서는 주체존대의 ‘-시-’에 대하여, 이것이 분명히 통사적 요소이지만 “주어에 따라 ‘-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되다, -시키다’가 명제를 구성하지만 화자 판단에 의해 화용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본고의 입장과 일치한다. ‘통사론’과 ‘화용론’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의지와 관련된 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어의 사태 실현 의지를 ‘-되다’를 통해 축소하거나 ‘-시키다’를 통해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1b)의 ‘되-’와 (2b)의 ‘시키-’는 행위 의지 약화 내지는 강화를 위해 (1a)와 (2a)의 ‘-하다’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 체언이나 체언성 어근을 용언으로 바꾸어주는 통사적 기능만 하면서 의미적으로는 중립적인 접사 ‘-하다’ 대신 특별히 양태 의미를 갖는 접사가 사용된다.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접사보다는 그 문법적 기능에 더해 특별한 의미까지 담고 있는 접사의 사용이 선호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 양태의 기능을 나타내는 접사 ‘-되다, -시키다’가 통합되는 선접 명사 N은 서술성, 동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³⁾ 이는 의도의 연결어미 ‘-고자, -려고’ 등이 동작성을 가지는 동사와만 통합되는 것과 유사하다.

2) 완곡어법과 양태

화청자 관련 요소로서의 ‘-겠-’이 직접적으로 화청자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공손 표지로도 사용되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⁴⁾ ‘-겠-’이 가지는 추측과 의지 양태는 명제 상황을 현재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으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공손 표현은 의사소통에서의 담화참여자 간의 친교적 기능과 관련되는 화용적 측면의 하나로서, 그것은 사실성 판단이나 실현 의지를 완곡하게 경감하여 화

3) 이러한 유사 사동의 ‘N-시키다’의 어근 N은 동작성을 갖는 서술성 명사로서 상태 변화 의미를 내포하고 그 행위의 도달점이 화자 외부를 향한다. 신지연(2023) 참조.

4) 아래 (1a ~ c)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겠-’이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의 예이다.

(1) a. (내가)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a' 들어가도 좋습니까?
b. 내가 말해도 되겠니?
b'. 내가 말해도 되니?
c.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자 의견을 확고한 것으로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달성되는 면이 된다. 사태의 실현과 관련한 화청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서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화청자는 서로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성 판단 내지 실현 의지를 약하게 표현하는 완곡어법으로 공손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현성을 줄인 양태 의미를 가지는 ‘-겠-’이 공손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되다’도 이 ‘-겠-’과 유사하게 화자의 사태 실현 의지를 회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손성을 나타낸다. ‘-되다’도 ‘-겠-’과 마찬가지로 양태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N-되다’는 특히 주어가 1인칭이고 N이 판단이나 사유명사일 때 화자의 판단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이 많다.

(8) a. 하반기에는 환율 상승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b. 하반기에는 환율 상승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9) a.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8b)와 같은 능동적인 ‘판단합니다’를 서술어로 써도 되지만 화자는 피동 표현 ‘판단됩니다’를 사용하여 행위주 주어를 숨기고 판단 대상을 주어로 내세워 판단 행위를 표현한다. 행위주가 분명히 있는 사태이지만 행위주를 통사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김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위주의 행동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면서 행위주의 의도성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9)에서도 피동사를 사용한 (9a)가 능동사를 사용한 (9a')보다 선호되는데, (9a')와 같이 능동사 ‘예상하다’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행위주 주어를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a)와 같이 주어를 대상역 ‘날씨’로 세워 행위주를 전경에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⁵⁾ (9a)의 주어는 ‘날

5) 이러한 피동 표현은 언어책략적으로 행위자나 특정 사태를 전경화 혹은 배경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점이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 논의되기도 한

씨’이지만, 실제 사건은 ‘나는’과 같은 행위주가 능동적으로 ‘예상하-’는 사건이다. (9a)에서 행위주 ‘나’는 통사적 주어가 되지 않고 ‘나에 의해’라는 부사어로 나타나 매우 소극적인 행위주로 표현된다. 이 부사어는 문면에 표현되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숨어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피동문 선호를 통해, 행위 자체가 행위주가 분명한 능동적 행위이지만 행위주를 통사적으로 전면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행위주의 예상 행위가 적극적, 의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다.⁶⁾ 피동의 의미 특징으로 거론된 ‘탈행동성, 상황의존성(이익섭·임홍빈(1983))’, ‘행위자의 탈초점화(Shibatini(1985))’ 등의 의미들 양태적으로 보면 실현 의지와 관련되며 ‘-되다’의 경우에는 [-실현 의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동의 [-실현 의지] 양태 의미는 종종 완곡어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여 앞에서 언급한 양태 선어말어미 ‘-겠-’의 공손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표현할 때 “~라고 판단됩니다/ 생각돼요.”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실현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가 표현된다. 특히 능동사를 사용하여 행위자의 주장 행위를 강력하게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논증 텍스트에서 오히려 피동사 사용이 선호되어 주장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화자의 언어예절적 태도를 드러낸다.

주장이나 요청은 그 대상뿐만 아니라 주장하고 요청하는 행위주에게도 부담이 되는 행위이다. 명령과 같은 지시 화행에서 간접 화행이 많이 사용되어 의문문 ‘~해 주시겠습니까?’가 명령문 ‘~하십시오.’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청자나 삼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주장을 담은 문장의 경우에도 아래 (10a)와 같은 피동 표현이 (10b)와 같다.

- 6) 적극적 의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예상이 빚나갔을 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은 능동 표현만큼이나 많이 쓰인다. 이때 피동 표현은 행위주 부담이 경감되어 훨씬 공손한 표현을 만든다는 이점을 갖는다. 직접적 요구와 간접적 요구 사이만큼의 간극이 행위주에게는 상호간의 체면을 보호하는 여유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0) a.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b.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0b)의 ‘수립하다’의 주어는 수립의 의무를 지는 행위자인 ‘정부’이지만, (10a)의 ‘수립되다’의 주어는 수립의 대상이 되는 ‘정책’일 뿐이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행위자 주어에게 직접적으로 그 당위를 실현시킬 짐을 지우는 것이지만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상황만이 언급되었을 뿐이므로 주어는 일단 상황을 처리할 의무에서 피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능동태 대신 피동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 (11a ~ h)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언을 피하는 추측의 양태 표지 ‘-ㄴ 것’⁷⁾ 피동형 수행 동사 ‘보인다’ 등을 다양하게 더 동원함으로써 완곡어법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문어체 논증 텍스트의 언어 특징으로 굳어져 가고 있으며 이 경우의 ‘-ㄴ 것이다, -ㄴ 것으로 본다, -ㄴ 것으로 보인다, -ㄴ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은 사실성이 약화된 가능성 추측 표현 ‘-ㄴ 것’과 의도성이 약화된 피동 표현 등을 이용해 논증 화자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양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1) a.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b.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능성]

7) 이 경우 추측 양태를 나타내는 ‘-ㄴ 것’은 ‘-겠-’으로 대체되어도 무방하다.

- c.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 [의도성약화]
- d.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의도성약화-가능성]
- e.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생각한다/판단한다). [가능성]
- f.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의도성약화-가능성]
- g.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의도성약화]
- h.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생각된다/판단된다). [의도성약화-가능성-의
도성약화]

당위를 주장하는 화자의 판단이 전달 대상이 되는 문장 (11a)는 (11b ~ h)까지의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쓰기할 수 있는데, 가장 완곡한 표현인 (11h)에서는 피동 표현 두 번(‘검토되어야’, ‘보인다’)과 추측 표현 ‘-ㄴ 것’의 사용으로 의도성 숨김의 완곡어법이 극대화된다. (11e)와 같이 주장을 담은 발화에 ‘~라고 생각하다, 판단하다, 보다’와 같은 사고의 수행 동사가 드러나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화자가 도드라져 명제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단지 주관적인 견해로 제시할 뿐이라는 완곡함이 표현되어 공손성이 더해진다.⁸⁾ 이 또한 사실성 약화를 이용한 완곡어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 표현이 (11h)와 같이 피동 표현과 통합될 때 더 적극적인 완곡 표현이 되어 공손성을 극대화한다.

화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판단 내용이 당위(‘-야 하다’)로 표현될 만큼 강력한 것인데 비해 정작 그것이 최대한의 의도 숨김 양태 표현과 어우러지는 것은 확실한 주장을 담아야 하나 그것을 격식을 차려 전달해야 하는

8) 여기에 서술어를 (11e')와 같이 사실성이 더 약화된 추측 의미를 가진 서술어 ‘갈다’를 대신 사용하면 더 완곡한 공손 표현이 된다.
(11e')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논증 텍스트의 문체적 특징 때문이다. 밑줄 쳐 보이는 바와 같은 문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자유롭게 화자 의도 관련한 양태 의미를 드러내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나타나는 위치가 문장 구조에서 (11a ~ h)에서 밑줄 쳐 보인 바와 같이 화용론적 요소가 나타나는 문장 마지막 부분이라는 점도 이 피동 표현 ‘-되다’의 양태적 해석에 힘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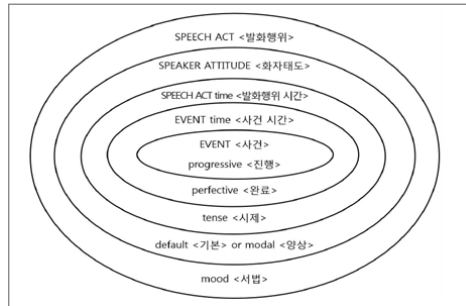
3) 문장 구조와 양태

일찍이 Fillmore(1968)가 문장(Sentence)이 명제(Proposition)와 양태(Modal)로 이루어진다고 한 것과 Lyons(1977:749 ~ 750)가 문장이 ‘phrastic(명제) - neustic(서법, 양태) - tropic(화행)’의 계층 구조를 가진다고 한 것은 바로 문장이 명제와 그것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상황 관련 표현으로 구성되는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화용론적 혁명이 일어난 현대에 와서는 화용론적 요소를 문장 구조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는데, 예를 들어 Driven & Verspoor(1999)에서는 문장 구조를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인 사건에 동작상, 시제, 양태, 화행 등이 겹겹이 붙어 있는 구조로 보이면서 이를 ‘문장 양파(sentence onion)’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부른다.⁹⁾ 여기에서도 사태를 나타내는 명제가 가장 핵심에 위치하고 여기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사건 시간-발화 시간-양태(화자 태도)-문장종결법(발화행위)’ 순서로 문법 요소들이 배치된다고 본다. 명제 관련 요소에서 맥락 관련 요소로 확대되며 문장에 문법 요소들이 배치되는 것이다. (11)에서 밑줄친 부분은 이 양파의 거의 겉에 있는 ‘화자 태도’ 곧 양태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한국어 문장 구조를 살필 때 명제적 요소와 화용적 요소의 출현 순서가 이 계층 구조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흥미롭다. 김태인(2019)에서 제시한 다음 (12)와 같은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는 그림 1의 문장 양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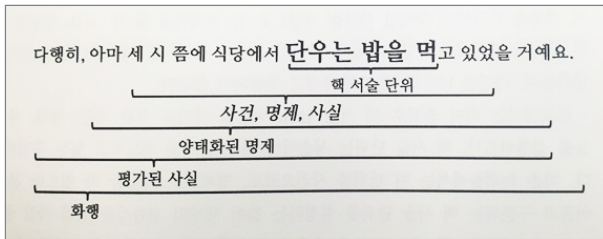
9) 이기동 외 역(1999) 재인용.

거의 일치한다.



[그림 1] Dirven & Verspoor(1999:130)의 문장 양파

(12) 김태인(2019)의 문장의 의미 층위



김태인(2022)에서는 인지 모형에 기반해 ‘문장’을 ‘유기체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감각 자료 혹은 기존의 서술기억(사건, 명제)을 지식 체계에 입각하여 전전두엽, 곧 작업기억 영역으로 불러들여 비교, 분석, 판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추측, 추론, 예측, 평가 등을 한 사고의 결과물을 부호화한 것’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서 ‘명제’는 ‘문장이 담고 있는 뜻’으로서 ‘화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비교, 분석, 판단’이며,¹⁰⁾ 이를 바탕으로 세계

10) 임동훈(2003)의 명제는 서술어와 서술어가 거느리는 논항들(arguments)의 구성으로서 문장 층위에서 작용하는 문법 범주가 제거된 구성체로 Fillmore(1968)의 명제 개념과 유사하다고 하였으나, 김태인(2017)의 명제는 서술어와 그가 요구하는 논항의 구성체가 구체적인 시공간에 실현된 것을 말한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능이나 태도가 배제된 사건 자체의 핵심적 서술이라는 점에서는 중심 의미가 같다.

를 추측, 추론, 예측, 평가한 것이 ‘양태’라고 한다. 명제는 시공간 상황 맥락에 놓이면서 문장의 표현 대상이 되고 화자의 사건의 실현에 대한 태도와 청자에 대한 발화 기능을 나타내면서 구체적인 발화가 된다. 따라서 문장에 나타나는 문법 요소들은 명제에 가까울수록 사건 구성 요소와 가깝고 멀어지면서 전달 요소인 화청자 요인들이 덧붙는다고 한다.¹¹⁾ (11)에서 보인 밑줄 친 부분은 (12)에서는 핵 서술 단위 뒤에 위치하면서 화용론적 기능을 나타낸다. ‘-되다, -시키다’가 파생접사인데 어떻게 명제 바깥에 위치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되다’와 ‘-시키다’가 통합되는 명사는 서술성 명사이므로 서술어의 기능을 실제로 담당하며 이 ‘-되다’와 ‘-시키다’는 많은 경우 ‘-하다’와 교체되어도 무방하므로 ‘-되다’와 ‘-시키다’는 핵 서술단위 혹은 더 나아가 명제 바깥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덧붙여 명사 어간 뒤에 통합되는 ‘-되다’와 ‘-시키다’는 거의 문법화되어 굴절 어미에 준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므로 명제 내부 요소로 보기 힘들기도 하다. 사전에 사동 접사로 규정된 ‘-시키다’는 그 파생형들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거의 굴절어미처럼 취급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시키다’를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라고 하면서 예시어로 ‘교육시키다, 복직시키다, 오염시키다, 이해시키다, 입원시키다, 진정시키다, 집합시키다, 행복시키다, 화해시키다’ 등을 들고 있지만, 이 예시어들이 실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실제 언어 사용에서 우리는 ‘-시키다’를 마치 어미처럼 사용하여 서술성 명사를 어

11) 예를 들어 문장종결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가지는 의사소통 목적과 관련되는 기능’으로서 직접적으로 청자를 향하는 담화 기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존대법을 동시에 드러낸다. 박진호(2011)에서도 이 문장종결법을 화행 유형(speech act type)으로 보면서, 화행 유형과 문장 유형은 서로 짝을 이루는 의미 범주와 문법 범주라고 한다. 청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장종결법은 가장 화용론적 요소로서 문장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영어의 경우에는 맨 앞에 국어의 경우에는 맨 뒤에 위치함으로써 문장 양파의 가장 겉 부분에 위치한다.

근으로 하는 ‘N-시키다’ 유형을 자유롭게 만들어 쓰고 있다. 비슷한 사정 일 것으로 예상한 피동 접미사 ‘-되다’의 경우에는 술어명사를 어근으로 하는 ‘N-되다’ 예시어들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실제 사용형은 등재형보다 훨씬 많다. 이들 피사동 접사가 이렇듯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은 이들이 엄격한 통사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양태 의미를 나타내기에 가능한 일일 터이다.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본고는 특별히 피사동 접사가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 요소로 기능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양태는 명제의 실현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추측, 의지, 의도 등을 나타내는 화용론적 요소이다. 본고는 명제의 사건 구조, 곧 통사 구조를 직접적으로 구조화하는 피사동 접사 ‘-되다, -시키다’가 어떤 경우에는 화자가 사태의 실현에 대한 주어의 행동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여 표현하는 양태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화용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보였다. 이제는 그 사용이 만연한, 비규범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N-시키다’나 진정한 피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N-되다’가 각각 주어의 의지나 비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양태 의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본 것이다. “-하다” - “-시키다”의 ‘주동 - 사동’, “-하다” - “-되다”의 ‘능동 - 피동’ 관계는 점점 퇴화하고 “-되다” - “-시키다”의 ‘비의도 - 의도’ 의미 대응이 각각 자동사문과 타동사문의 서술어로 활용되어 ‘-하다’의 설 자리를 빼앗는 경향도 화용론적 의미까지 가진 접사가 문법적 기능만을 가진 접사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피동과 사동의 의미가 의도의 약화 혹은 강화 표현으로 각각 활용되는 경우들을 살펴 이를 양태적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명제는 시공간 상황 맥락에 놓이면서 문장의 직접적인 재료가 되고 화

청자의 사건의 실현에 대한 태도와 청자에 대한 발화 기능을 나타내면서 구체적인 발화가 된다. 곧 명제에 화용론적 요소들이 붙어 실현된 것이 문장인 것이다. 문장에 나타나는 문법 요소들은 명제에 가까울수록 사건 구성 요인이며 명제에서 멀어지면서 화청자, 상황 등 맥락 요인의 성격을 띤다.

때로 실현 의지를 일부러 약하게 표현함으로써 공손한 표현을 만드는 것도 양태 의미 기능의 일부이다. 화자의 사태 실현 의지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청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공손법 관련 완곡어법이 사실성이나 실현성 약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장에 판단의 수행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사고하고 판단하는 화자를 내세워 객관적 단정을 피하고 주관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공손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피동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비의도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더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우연적 울타리 표현이 화용론적인 양태 표현으로서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하는 현상을 ‘-되다, -시키다’의 비규범적인 용법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유사 피사동이 가지는 양태 의미 파악이 피사동 현상 전체에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되다, -시키다’와 ‘-하다’의 관계를 보다 더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남기며 후일의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 문헌

- 김태인,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 「인간의 인지 체계를 기반으로 한 문장 이해」, 『한국어 의미학』 75권, 한국어의미학회, 2022, 121-145쪽.
- 남수경, 「한국어 피동문의 문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문경진·목경수, 「한국어 인칭 구조 보론-이선웅(2019)의 비판에 대한 반박-」, 『형태론』 22권 2호, 형태론, 2020, 149-184쪽.
-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2006.
- 박진호,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권, 국어학회, 2011, 289-322쪽.
- 신지연, 「소위 비규범적인 ‘N+시키다’ 구문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55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23, 101-123쪽.
- 양정호, 「‘X시키다’의 논항(論項) 구조(構造)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어문연구』 47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5-36쪽.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9.
- 유경민, 「“X하-”와 “X되-” 및 “X시키-”의 대응쌍 연구」, 『국어학』 46호, 국어학회, 2005, 147-182쪽.
- 유혜원, 「‘-하다’와 동일한 논항을 갖는 ‘-시키다’ 구문 연구」, 『우리어문연구』 42권, 우리어문학회, 2012, 212-247쪽.
- 윤석민,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2000.
- 이익섭·임홍빈,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 이정택, 「두 가지 유형의 {시키}」, 『한말연구』 16호, 한말연구학회, 2005, 175-195쪽.
- 임동훈,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 12권,

- 한국어의미학회, 2003, 12-154쪽.
- 임동훈,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권, 한국어의미학회, 2008, 211-249쪽.
- , 「피동의 경계와 사이비 피동」, 『국어학』 107호, 국어학회, 2023, 35-60쪽.
- 한선혜·박철우, 「‘명사-시키다’ 구성과 사전에서의 처리」, 『한국사전학』 4호, 한국사전학회, 2004, 485-221쪽.
- 허철구, 「조어법의 ‘시키-’에 관한 몇 문제」, 『서강어문』 14권 1호, 서강어문학회, 1998, 101-131쪽.
- Dirven · Verspoor ed.,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이기동 외 역, 『언어와 언어학: 인지적 탐색』, 한국문화사, 1999.).
- Fillmore, C. J., “The case for Case”, In E. Bach and R. T. Harms(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London: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8.
- Foley · Van Valin,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Levinson,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Lyons, *Semantics I ·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Shibatani, M.,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9, issue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sessment, 1973.

■ 국문초록

본고는 특별히 피사동 접사가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 요소로 기능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이제는 그 사용이 만연한, 비규범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N-시키다’나 ‘N-되다’가 각각 주어의 의지나 비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양태 의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본 것이다. ‘-하다’-‘-시키다’의 주동-사동, ‘-하다’-‘-되다’의 능동-피동 관계는 점점 퇴화하고 ‘-되다’-‘-시키다’의 비의도-의도 의미 대응이 각각 자동사문과 타동사문의 서술어로 활용되어 ‘-하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경향도 화용론적 의미까지 가진 접사가 문법적 기능만을 가진 접사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종래에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다소 느슨하게 정의했던 양태를 ‘명제의 실현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추측, 의지, 의도 등을 나타내는 화용적 요소’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피동과 사동의 의미가 의도의 약화 혹은 강화 표현으로 각각 활용되는 경우들을 살펴 이를 양태적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때로 실현 의지를 일부러 약하게 표현함으로써 공손한 표현을 만드는 것도 양태 의미 기능의 일부이다. 사태를 실현하겠다는 화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청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공손법 관련 완곡어법이 사실성이나 실현성 약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장에 판단의 수행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사고하고 판단하는 화자를 내세워 객관적 단정을 피하고 주관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공손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피동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비의도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더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우연적 울타리 표현이 화용론적인 양태 표현으로서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하는 현상을 ‘-되다, -시키다’의 비규범적인 용법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명제는 시공간 상황 맥락에 놓이면서 문장의 직접적인 재료가 되고 화청자의 사건의 실현에 대한 태도와 청자에 대한 발화 기능을 나타내면서 구체적인 발화가 된다. 곧 명제에 화용론적 요소들이 붙어 실현된 것이 문장인 것이다. 문장에 나타나는 문법 요소들은 명제에 가까울수록 사건 구성 요인이며 명제에서 멀어지면서 화청자, 상황 등 맥락 요인의 성격을 띤다. 명제에 대한 사실성 판단 혹은 실현 의지에 대한 담화

참여자의 판단을 드러내는 양태는 문장종결법의 바로 앞에 나타난다. 평서문에서는 명제의 실현 관련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며 의문문에서는 청자의 사실성 판단을 나타낸다.

주제어 • 유사사동, 되-, 시키-, 양태, 문장의 구조, 명제, 화용론적 요소

■ Abstract

Semantic Function of Non-Normative ‘-doeda, -shikida’

Shin, Ji Yeon / Mokwon University

A proposition becomes a direct material of a sentence as it is placed in the context of a time-space situation and becomes a concrete utterance by expressing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realization of the event and the utterance function toward the listener. In other words, a sentence is realized by attaching pragmatic elements to a proposition. The grammatical elements appearing in a sentence are event-forming factors the closer they are to the proposition, while the further they are from the proposition, the more they are contextual factors.

Modal expressions that reveal the discourse participant's judgment about the factuality of the proposition are located immediately before the sentence ending. In a declarative sentence, the speaker's judgment regarding the realization of a proposition is expressed, while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the hearer's judgment is expressed. It can also be used as a polite expression by weakly expressing the will to realize it. Because the speaker's strong expression of will to realize the situation is a burden to the listener, euphemisms related to politeness appear as expressions that weaken reality/realism. By using performative verbs of judgment in sentences, objective assertions are avoided by showing the speaker thinking and judging. Politeness can be shown as a way to express subjectivity, and by using passive expressions, a method of revealing unintentionality can be added. The hedge expression created by combining these factors is a pragmatic modal expression, located at the back of the sentence.

A passive affix sometimes changes into a modal element that performs a pragmatic function. In Korean, ‘N-shikida’ and ‘N-doeda’, whose use is now widespread but still considered non-normative, are used to emphasize the will or unwillingness of the subject, respectively. Of course, this determination of intentionality is made by the speaker. In addition, the active-causative

relationships of ‘-hada’-‘-shikida’ and the active-passive relationships of ‘-hada’-‘-doeda’ are gradually degenerating, instead, the ‘unintentional-’ relationship of ‘-doeda’-‘-shikida’ is emerging. The semantic correspondence of ‘intention’ is used as a predicate in intransitive and transitive verb sentences. This loss of place for ‘-hada’ also shows the tendency for syntactic affixes with pragmatic meaning to overwhelm affixes with only grammatical functions.

Keyword • Passive affix, causative affix, ‘doe-’, ‘shiki-’, modality, structure of sentence, proposition, pragmatic elements

미디어 이론을 통한 연극의 미디어적 특성 고찰

: 마셜 매클루언과 월터 옹의 이론을 중심으로

조 충 범 · 조 준 희*

목 차

1. 들어가며
2. 마셜 매클루언과 월터 옹의 미디어 이론
3. 연극의 미디어적 특성의 변화
4. 맺음말

1. 들어가며

미디어 학계에서 대표적인 미디어 환경론자로 여겨지는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은 미디어를 인간 사회와 문화의 주요 동인으로 인식하고 사회변화의 결정적 존재로 바라본다. 그는 『미디어의 이해』를 통해 미디어가 인간의 감각과 신경의 확장이라는 주장과 함께 미디어 중심의 사회변화에 대해 역설한다. 그의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경구는 미디어가 어떠한 메시지의 통로나 수단이라기보다는 미디어 자체가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양식을 바꾸는 주체로써 존재함을 의미한다. 매클루언의 제자이자

* 조충범 (제1저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준희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부 교수

미디어 학자인 월터 옹(Walter J. Ong)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매체인 말(word)에 집중했다. 그는 언어의 구술성과 쓰기, 인쇄의 문자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사고와 감각, 현존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였고, 이는 현대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방식, 미디어에 따른 언어의 변화와 감각에 관한 이해를 돕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매클루언과 옹은 미디어를 단순한 매개체가 아닌 환경으로 보았으며, 미디어의 내용보다 형식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미디어마다 각각의 시·공간, 감각, 사회적 편향성이 존재한다고 바라보았고 미디어를 문화의 지배적 요소로 간주하였다.¹⁾ 그러면서 이들은 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인류 문화의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한다. 매클루언은 문자 발생 이전의 구전문화 시대인 ‘부족화’ 시기, 표음문자와 인쇄술의 등장으로 야기된 ‘탈 부족화’ 시기, 전자미디어의 등장으로 시작된 ‘재 부족화’ 시기로 나누고, 옹은 말 중심의 ‘구술문화’, 쓰기와 인쇄술의 ‘문자문화’, 전자문화로 일컫는 ‘제2 구술문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른 감각의 재편을 논의하였다.

연극은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며,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그 형태와 기능이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무대 위 배우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 문화와 사회를 대변하고, 각종 극장과 장치는 총체적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매클루언과 옹의 세 가지 범주처럼 한스-티즈 레만(Hans-Thies Lehmann)은 ‘드라마 이전 연극’, ‘드라마 연극’, ‘포스트드라마 연극’으로 연극사의 단계를 구분한다. 이는 드라마 즉 ‘텍스트’를 연극의 바탕 혹은 근본으로 상정하여 모든 연극사에 적용한 것²⁾으로 연극은 구술

1) 이동후, 「기술중심적 미디어론에 대한 연구: 맥루한, 옹, 포스트만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4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1999, 27쪽.

2) 이재민,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역사적 형성과정」, 『獨逸文學』 62권 2호, 한국독어독문학회, 2021, 186쪽.

문화와 문자문화, 제2의 구술문화라 불리는 기술시대에 각기 다른 감각과 지각방식으로 구현되며 다양한 미디어적 속성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극 연구는 주로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관점 즉, 연극의 내재적 요인들에 집중해 고유한 연극학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었다. 오늘날 영상매체를 비롯한 뉴미디어 기술은 동시대 연극의 형식을 다양하게 바꾸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극학의 범위에서 독해할 수 없는 이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기존의 연극 분석 방법에서 벗어나 미디어적 관점으로 연극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연극이 연극만의 고유한 예술 형식을 넘어 뉴미디어 시대 하나의 주요한 매체로서 기능하는데 주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뉴미디어 시대 연극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극을 광의적인 미디어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매클루언과 옹의 이론을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된 연극의 미디어적 감각과 인식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디어를 인간 감각의 확장 기제로 바라본 매클루언의 이론을 살펴보고, 핫미디어와 쿨미디어의 개념을 통해 감각에 따른 미디어 구분과 지각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뒤이어 옹의 구술성과 문화, 현존을 중심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적용하여 연극을 미디어로 바라봄과 동시에 한스-티즈 레만의 관점을 바탕으로 미디어와 연극의 연관성을 고찰함으로써, 연극이 지닌 형식과 감각의 변화와 현존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마셜 매클루언과 월터 옹의 미디어 이론

1) 마셜 매클루언의 미디어와 환경 인식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 매클루언은 미디어가 단순한 정보전달의 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사고, 인식,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주체라고 이야

기 한다. 더불어 그는 미디어를 인간의 감각과 신경의 확장으로 이해하며, 미디어가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매클루언의 ‘감각의 확장’이라는 측면을 부족화(구전), 탈 부족화(문자, 인쇄술), 재 부족화(전자)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고, 그의 이론 중 주요한 개념인 ‘핫미디어와 쿨미디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감각의 확장

매클루언에 따르면 모든 역사는 구술 중심의 사회에서 시작하여 문자 매체로 인한 분절 시기를 지나, 새로운 구술 문화시대로 돌아간다.³⁾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청각과 촉각, 시각 등 각기 다른 감각으로의 편향적 특성을 나타내며 시대마다 특징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나타낸다.

매클루언이 부족화 시기라고 일컫는 구전 문화 시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인간의 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넓지 않은 공동체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는 발화자와 수용자가 같은 시·공간에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발화자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청각이 자연스레 주된 감각과 지각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지각의 요소가 “청각에 맞춰져 있지만, 다른 감각들 간에 동시적 상호 작용”⁴⁾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듣고, 보고, 접촉하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은 청각과 시각 그리고 촉각이 교감하는 공감각적이고 다감각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촉각적인 측면에서 매클루언은 이러한 양상을 “단순한 피부 접촉이 아닌 정신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생명 그 자체”⁵⁾라고 인식한

3) 이동후, 앞의 논문, 17쪽.

4) 대니얼 J. 치트럼 저, 임영호 역, 『미디어와 시대정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2023, 307쪽.

5) 마셜 매클루언 저,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208쪽.

다. 즉 문자 발생 이전은 다감각적 인식을 통한 공동의식, 공동지각, 공통감각, 보편성이 부각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표음문자인 알파벳의 등장은 “청각적 망인 총체적 상호의존과 상호관계로 구성된 세계”⁶⁾에서 시각 중심의 세계인 탈 부족화 시기로의 전환을 이끈다. 초기 상형문자시기를 지나 표음문자인 알파벳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이른바 ‘문자문화(text culture)’에 돌입하게 된다. 문자문화는 “알파벳에 의해 시간과 공간으로 확장된 시각에 따라 하나의 문화가 일률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뜻”⁷⁾ 하는데, 이는 인류 문명 탄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문자문화는 쓰는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 쓰기의 등장은 구전 전통의 쇠퇴와 세속적 권위의 부상을 야기했고, 시간적 관계 대신 공간적 관계를 강조하게 되었다.⁸⁾ 주로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문자 기록물은 인쇄술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확장을 하게 된다. 책과 문서의 생산성 증가는 지식의 대중적 보급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후 인쇄술은 문명의 지배적 미디어로 군림하게 되었고 대량 생산 발전과 상품, 지식 표준화의 모델을 제공하게 되었다.⁹⁾ 이는 구술문화의 다각적이고 비선형적이던 인간의 언어표현과 소통방식을 시각 중심의 획일적이고 선형적인 형태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알파벳과 인쇄술로 인해 유지된 시각 중심적인 탈 부족화 시기는 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감각적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재 부족화시기로 전환된다. 특히 TV의 등장은 그 동안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로 나뉘어 각자의 편향적 감각을 지향하던 미디어의 환경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킨 매체이다.

6) 마셜 매클루언 저, 임상연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51쪽.

7) 마셜 매클루언 저, 김상호 역, 앞의 책, 173쪽.

8) 대니얼 J. 치트럼 저, 임영호 역, 앞의 책, 281쪽.

9) 위의 책, 282쪽.

TV를 구성하는 영상과 소리는 각각 시각과 청각의 감각을 활성화 시키고 더 나아가 감각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촉각감각을 깨우게 된다. 매클루언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통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촉각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라 주장¹⁰⁾하였다. 공감각의 회복이 구술문화에 존재하던 감각의 공동체라는 유기체적 성격을 회복시키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매클루언의 감각의 확장 개념은 미디어가 단순히 메시지의 전달체가 아닌 인간의 감각 비율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인지과 지각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원인이 된다.

(2) 핫미디어(hot media)와 쿨미디어(cool media)

매클루언은 감각 비율에 따라 미디어를 핫미디어와 쿨미디어로 분류하여 정의한다. 각기 다른 여러 미디어가 정보제공 방식과 사용자들의 참여 수준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며, 이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상호작용에 관한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그는 핫과 쿨의 경계를 정세도(definition)에 따라 단일 감각과 복합감각의 지각 방식으로 구분 짓는다. 여기서 정세도란 “수용자가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 단일 감각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자세한 정도를 의미하며 데이터의 충실도를 뜻한다.”¹¹⁾

핫미디어는 단일한 감각을 통한 고정세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로, 사용자에게 많은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방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고, 시각이나 청각 등 단일한 감각만을 고도화시켜 사용자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모습

10) 마셜 매클루언 저, 임상원 역, 앞의 책, 208쪽.

11) 강보영·권상희, 「맥루한 이론에 관한 메타분석: 미디어학, 철학, 예술학 그리고 디자인학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487쪽.

을 드러낸다. 반면 쿨미디어는 낮은 정세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발시킨다. 쿨미디어에는 하나의 감각이나 기호가 전체를 지배하지 않으며, 모든 감각과 기호가 병존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다양한 경험과 표현을 가능케 하며, 자유롭게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 1] 미디어의 구분¹²⁾

핫미디어(hot media)	쿨미디어(cool media)
라디오	전화
인쇄	말
사진	만화
영화	TV
강의	세미나

[표 1]에 제시된 핫미디어와 쿨미디어의 목록은 서로 상대적인 분류이며, 고정적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¹³⁾ TV를 예를 들어보면, 정세도적 측면에서 초창기 TV는 차가운 미디어에 속해있었다. 흑백 영상은 수용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많이 남겼으며 이를 채워나가기 위해 그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수행했다. 이후 컬러 TV의 등장은 상상의 공간을 채워나갔고 자막과 같은 기술적 요소의 추가로 정보의 제공량을 늘려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핫미디어로써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시청자 참여, 대화형 콘텐츠와 같은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쿨미디어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매클루언의 쿨미디어와 핫미디어는 미디어와 인간감각 측면에서 유동적인 개념을 갖는다.

12) 마셜 매클루언 저, 김상호 역, 앞의 책, xxiv쪽.

13) 매체철학연구회, 『매체 철학의 이해』,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5, 26쪽.

2) 월터 옹의 미디어로서의 언어와 문화

옹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인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핵심이자 문화의 등장과 삶의 방식, 가치관, 환경 등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다. 매클루언의 영향을 받은 옹은 미디어의 물질적 형태가 개인의 인식과 문화 형성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에 주목하였고, 말과 글을 문화변화에 관한 법칙을 찾는 기준으로 삼았다.¹⁴⁾ 특히 옹의 연구는 소리를 중심으로 한 구술성에 권위를 부여한다.¹⁵⁾ 소리, 즉 음성은 ‘지금-여기’라는 현존과 관련되어 촉각이 부각되는 감각체계를 활성화 시키고 본능적인 소통을 가능케 한다. 이 장에서는 구술문화와 현존에 관해 살펴보고, 문자문화 이후 등장한 제2의 구술문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구술문화와 현존

구술, 문자, 제2 구술문화의 변화는 매체 진화에 따라 각기 다른 감각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문자문화를 거쳐 전자매체 등장과 함께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는 동시대 인류에게 문자가 없던 구술문화와 그 감각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말은 발화를 통한 힘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감각의 대상이다. 이는 곧 무의식을 통제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다.¹⁶⁾ 즉 말은 구술문화 전반에 걸친 역동성과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사고와 표현양식의 모체가 된다.

옹은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표현의 특징을 정신역학이라 명명하고 문자문화와는 다른 구술문화 고유의 특징을 아홉 가지로 구체화하여 설명한다.

14) 이동후, 앞의 논문, 20쪽.

15) 김기홍, 「오디오북 연구 담론에서 월터 옹의 구술성 개념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105쪽.

16) 월터 J. 옹 저,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8, 72쪽.

[표 2] 구술문화의 특징¹⁷⁾

분류	내용
종속적이기 보다 첨가적임	구어를 통한 소통은 문법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으며, 일상적이고 실재적인 맥락이 중요
분석적이기 보다 집합적임	정형구에 의지하는 기억과 연관이 있다.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한 용도
장황하거나 다변적임	발화되는 순간 사라지는 구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사고와 말하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임	기억을 위한 반복, 연장자가 지닌 많은 기억을 통한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인 경험들이 유산으로 남아 정신을 이룸
인간생활세계에 밀착됨	세련되고 분석적인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쓰기와 달리 구술문화는 모든 지식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방식으로 개념화, 언어화가 이루어짐
논쟁적 어조가 강함	지식의 사용방식이며, 입으로 내뱉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역동적인 상황 발생 시 나타난. 수사학과 추후 변증법의 시초가 됨
객관적 거리를 두기보다 공감적이며 참여적임	알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람들 간의 소통은 물리적으로 함께 존재해야 하며 이는 공동체적 감각을 느끼게 함
항상성이 있음	실존적 환경 속에서 현재와 관련이 없어진 기억을 털어버림으로써 오로지 현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함
추상적이기 보다 상황 의존적임	인간생활에 밀접한 사물이나 상황으로 개념적 사고를 함

아홉 가지 구술문화의 특징들은 기록문자의 부재가 단순히 기록수단의 부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문자문화의 표현 및 사고방식과의 차이를 만드는 주요 조건임을 보여준다.¹⁸⁾

구술문화의 정신역학을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은 현존의 부각이다. 음성 자체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적 실재와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향에서 출처가 인지될 수 있다. 결국 음성은 ‘지금-여기’라는 현재의 실존, 즉 현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¹⁹⁾ 인간의 목소리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청각이라는 물리적인 감각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현존이란 자

17) 월터 J. 옹 저, 임명진 역, 앞의 책, 78-96쪽.

18) 이동후, 『월터 옹』,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20쪽.

19) 월터 J. 옹 저, 이영걸 역, 『언어의 현존』, 탐구당, 1985, 106쪽.

신의 내면의 소리를 통해 타인의 내면에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촉각 및 여타 감각과 함께 내면과 내면의 만남을 형성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단순한 언어적 메시지 전달을 넘어 서로의 내면을 의식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²⁰⁾

이러한 현존의 특징은 문자문화에 들어와 변화를 겪게 되고 텍스트와 시각감각이 변화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묻혀온 구술문화와 현존은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도래한 전자문화와 함께 재발견 되었다.

(2) 제2의 구술문화

‘제2의 구술문화’라는 개념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자문화 이전의 구술문화와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집단의식의 부활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말하기와 듣는 행위는 일차 구술문화와 마찬가지로 “강한 집단의식을 낳았다.”²¹⁾ 문자문화를 지나온 인류의 감각체계는 시각중심으로 축소되어 있었고 이는 개인주의의 확립으로 연결되었다. 인쇄술로 인해 널리 보급된 책을 비롯한 각종 인쇄물들은 개인을 내향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공동체성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후 기술발전을 통해 등장한 전자 미디어는 시청자 및 청취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내고 약화된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시작된 제2의 구술문화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참가한다는 신비성을 지님과 동시에 고유한 감각을 키웠다. 이와 더불어 지금 이 순간을 중히 여기는 한편, 정형구를 사용²²⁾하면서 공동체의 감각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다만 시각적이고 분석적인 문자문화를 경험한 후 맞이한 전자시대의 새로운 구술문화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 미디어가 매개한 ‘말’은 자연스러움을

20) 이동후, 앞의 책, 51쪽.

21) 월터 J. 옹 저, 임명진 역, 앞의 책, 218쪽.

22) 위의 책, 217쪽.

추구하기 위한 인위적인 편집을 통해 '계획적이자 의식적'인 것으로 나타난다.²³⁾ 문자발생 이전의 말은 제한된 집단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소리와 몸짓이라는 한정된 표현방식으로 존재하였다. 반면 제2의 구술문화에서 나타나는 말은 다양한 전자매체에 탑재된 음성, 영상, 텍스트 등의 매체를 통해 대중적인 소통을 촉진하여 보다 확장된 의사소통의 영역을 가진다.

제2의 구술문화는 기술발전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집단적 정체성을 회복한다. 새로운 전자기술은 계획된 즉흥성을 바탕으로 일차적 구술문화와는 다른 방식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식을 창출한다. 옹의 제2의 구술성 개념은 새로운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 간의 상호작용 및 융합 현상에 주목하게 한다.²⁴⁾ 일차적 구술문화가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형태라면, 새로운 구술성은 문자문화로 인해 잠시 단절되었던 구술을 통한 상호작용 방식이 뉴미디어를 통해 재활성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극의 미디어적 특성의 변화

1) 연극의 형식과 감각의 변화

매클루언의 이론은 미디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로서의 연극은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 활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구술문화

연극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 중 제의적 접근은 원시주의

23) 이동후, 앞의 책, 69쪽.

24) 위의 책, 73쪽.

(primitivism)에 사로잡혀있던 19세기의 학문적 배경 속에서 확장²⁵⁾된 것으로, 인간의 본능과 문명 이전의 사회에 대한 향수를 의미한다. 제의를 주관하는 장을 중심으로 부족의 안녕과 번영을 희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동체의 집단 의식을 고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제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비극경연대회를 연극의 시작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후 로마시대를 거쳐 중세와 르네상스, 현대에까지 인류의 역사와 함께 2500여 년간 지속되어온 연극은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각 시대의 경제, 문화, 정치, 사회의 변화를 다루어왔다. 고대 그리스 시대 연극은 국가가 관장하는 가장 큰 축제으로써의 미디어였고, 대중에게 공통된 교훈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대중매체로써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 연극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도덕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대중에게 상연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 연극이 상연되던 시기는 이미 알파벳이 등장하고, 쓰기 문화가 정착되어 있던 시기이다.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전환된 시점이었지만, 인쇄가 아닌 필사가 주를 이루는 시기에는 시각적 지식의 대규모 복제가 불가능함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이라는 비시각적 범위의 시각화에 대한 욕망도 적었다.²⁶⁾ 즉 시각 편향적 감각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연극이 신을 위한 축제로 상연되었다는 점에서 문자문화 이전의 부족적 성격이 내재되어있으며, 청각-촉각감각의 상호작용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족사회의 제식은 공동체 생활을 구성하는 힘이자 소통의 형태였다.²⁷⁾ 표현수단 또한 음악과 춤, 제스처,

25) 김용수, 『연극이론의 탐구 - 대립적인 시각들의 대화』,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518쪽.

26) 마셜 매클루언 저, 임상원 역, 앞의 책, 311쪽.

27) 윤정선, 「연극과 제의, 그 뫼비우스의 띠」, 『한국연극학』 3권1호, 한국연극학회,

말, 가면, 의상으로 다감각적인 성질을 띠었다.

레만은 고대 그리스 비극을 “전(前)드라마적(Prädramatisch) 연극”²⁸⁾이라 명명하고 드라마 이전 연극의 특징을 부여한다. 중세시대까지의 연극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영함으로써 혼합된 문화의 형태를 보인다. 당시 문화는 글보다 말로 표현되는 영역의 사고방식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감각의 영역 또한 청각-촉각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제의적 본능과 극장이라는 공간에서의 동시적 경험은 시·공간의 공유라는 소통 중심의 공동체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한편 필사본의 지속적 생산은 서사구조의 강화와 같은 극작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레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통한 그리스 연극 분석을 부정했지만, 플롯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공연의 측면보다는 문학의 측면에 무게를 두었다. 여기에는 개별적 읽기를 통한 개인과 개인의 분리, 선형성, 균질성과 같은 문자문화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 문자문화와 인쇄술

이후 15세기에 등장한 인쇄술은 획일성과 반복성, 폐쇄성을 강화시키고 시각성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필사본에 비해 정밀도가 높아진 인쇄본은 대량 생산과 함께 많은 양의 일정한 정보를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또한 인쇄물을 통한 정보 전달, 개별적 읽기와 같은 과정은 시·공간의 분리를 나타냄과 동시에 발화자와 수용자의 분리를 통해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축소시켰다. 시각적 정보의 정밀성과 양이 늘어남에 따라 인쇄는 원근법과 더불어 고정된 시점으로 구성된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해 낼 수 있게 되었다.²⁹⁾ 다양한 감각들을 시각이라는 단일 감각에 환원시킴으로서 발생한 변

1989, 70쪽.

28) 한스-티즈 레만 저, 김기란 역, 『포스트드라마 연극』, 현대미학사, 2013, 63쪽.

29) 마셜 매클루언 저, 김상호 역, 앞의 책, 291쪽.

화는 이후 과학과 예술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연극은 대중예술·미디어로서 다각도로 영향을 받게 된다.

레만이 구분한 ‘드라마 연극’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한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연극은 인쇄술의 영향을 받아 문학성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문학(희곡)은 연극의 중심이 된다. 레만의 주장처럼 텍스트는 드라마 연극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문자 문화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이성 중심의 연극을 지칭한다. 17세기 신고전주의 연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 이성과 상식에 입각한 연극을 중시했으며, 19세기 자연주의자들 또한 객관적인 과학적 분석을 통해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연극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물론 신고전주의와 자연주의 연극의 표현방법과 무대구성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이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각을 중심으로 한 문자문화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 연극은 극장의 형태와 관객의 수용방식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야외에서 실내로 바뀐 극장은 원근법과 더불어 시각적 경험을 강조했고, 무대와 객석의 철저한 단절은 극적 환영(illusion)을 창출하여 현실과 다른 몰입의 환경을 만들어냈다. 극장은 배우의 목소리와 음악을 ‘듣는’ 공간에서, 장치와 배우의 몸을 ‘보는’ 공간으로, 청각적 공간에서 시각적 공간으로 전환³⁰⁾된 것이다.

(3) 전자미디어

20세기 초 아르토, 아피아, 크레이그, 메이어홀드, 브레히트와 같은 아방가르드 연극인들의 등장은 문학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몸, 소리, 이미지를 연극의 주요 매체로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주류는 여전히 드라마 연극이었지만, 이들의 등장은 1960년대 리처드 셰크너의 퍼포먼스 그룹, 리빙시어터, 우스터 그룹과 같은 네오 아방가르드 연극인들의 탄생

30) 이재민, 앞의 논문, 193쪽.

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은 문학 전통의 연극을 탈피하고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모색했으며, 형식과 내용을 혁신하고 확장시켰다. 이후 이른바 전자시대로의 전환은 라디오, TV,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등장과 함께 다원화된 감각의 장을 만들었다. “예술과 기술은 항상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³¹⁾를 맺어 왔기에 전자시대는 연극의 형식에 이전과는 다른 감각과 지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연극에 활용되는 영상미디어는 독립된 존재로서 무대와 함께 공존하며 연극성을 부각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며 나타나는 단일성과 파편적 특성의 구축이 연극의 현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³²⁾ 기술발전과 아방가르드 연극인들의 실험적 도전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시발점이 되었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현존, 경험 공유, 과정, 선언, 에너지 그 자체³³⁾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드라마 형식의 재현을 벗어나 지금-여기라는 현존과 수행성에 집중한다. 즉 포스트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중심적 문화에서 퍼포먼스 문화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관객으로 하여금 이해를 통한 즉각적 수용 보다는 감각적 차원의 강렬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³⁴⁾을 목표로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31) 플로랑스 드 메르디외 저, 정재곤 역, 『예술과 뉴 테크놀로지-비디오·디지털 아트, 멀티미디어 설치예술』, 열화당, 2005, 8쪽.

32) 윤주하·조준희, 「이보 반 호프와 로마비극[The Roman Tragedy]: 연출미학 연구」, 『예술교육연구』 18권 4호, 한국예술교육학회, 2020, 366쪽.

33) 한스-티즈 레만 저, 김기란 역, 앞의 책, 161쪽.

34) 이재민, 앞의 논문, 200쪽.

[표 3] 시기에 따른 연극과 문화

구분	드라마 이전 연극	드라마 연극	포스트드라마 연극
극장	야외, 객석과 무대 구분 희미	실내, 객석과 무대의 철저한 구분 원근법 제 4의 벽	탈 경계 실·내외 극장
연기	비 사실적 제시적 연기	사실적 재현적 연기	제시적 연기 재현적 연기 비 연기
관객	능동적 참여	수동적 참여	적극적 참여
기술 요소	간단한 무대 기술	조명, 음향 기술 고급화된 무대 기술	멀티미디어 적용 융·복합적 무대 기술
주된 감각	청각, 촉각	시각	청각, 촉각, 시각, 후각
주된 문화	부족화 구술문화+문자문화	탈 부족화 문자문화(인쇄)	재 부족화 재2구술문화

[표 3]은 레만의 연극 시기 구분에 매클루언, 옹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즉 미디어의 시기 구분을 상호 대입해 본 것이다. 문자, 인쇄술, 기술발전을 통해 각각의 시기에 주된 감각의 활성화가 일어났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와 같은 미디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연극은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자 미디어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매클루언의 쿨 미디어, 핫 미디어 개념에 연극을 적용시켜보면 시기별로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드라마 이전 연극은 청각과 촉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였고, 무대 배경이나 의상, 소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낮은 정세도를 나타낸다. 또한 관객은 코러스를 활용해 무대 위의 상황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했기에 쿨 미디어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시각중심의 문화 속에서 탄생한 드라마 연극은 극적 환영을 통해 무대 위의 상황에 몰입하게 만들고, 참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핫미디어로 볼 수 있다.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경우 무대와 객석의 탈 경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지향하며,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쿨미디어로 규정할 수 있다.

오늘날 ‘연극성’은 특수한 장르적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이론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³⁵⁾ 이는 연극이 문화라는 보다 확장된 영역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전 자시대의 도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장을 여는데 기여했고, 연극을 지각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현존과 수행성이 바로 그것이다.

2) 연극의 현존과 수행성의 부상

‘현재 살아 있음’ 혹은 ‘현재에 있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현존은 ‘지금’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있다’라는 공간적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아울러 현존의 시·공간적 복합성, 그리고 ‘앞에서 존재 한다’는 개념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공동 현존과 타자성의 개념을 포함한다.³⁶⁾ 주지한 바와 같이 배우와 관객이 같은 시·공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은 연극의 미디어적 조건이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표현방식이 나타났지만 배우와 관객이 몸을 매개로 소통하고 현존하는 것은 공연예술의 특징으로 존재했다.³⁷⁾ 두 요소의 공동현존은 타 예술 및 미디어와의 차이를 만드는 연극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배우와 관객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현존의 근거로 삼는 에리카 피셔 리히테(Erika Fischer-Lichte)의 수행적 전환에 관한 이론은 옹의 언어와 현존에 대한 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35) 이경미, 「매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극, 연극성-디지털 미디어 시대와 “inter-”의 미학-」, 『한국연극학』 1권43호, 한국연극학회, 2011, 156쪽.

36) 김방옥, 「연극에서의 현존」, 『한국연극학』 1권 57호, 한국연극학회, 2015, 27쪽.

37) 김영윤·조준희,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특성 연구」, 『지식과 교양』 14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413-414쪽.

(1) 연극에서의 현존

연극에서의 현존은 명확한 정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시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졌다. 현존의 개념도 앞서 분석한 구술, 문자, 전자기술의 등장에 따른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술문화는 소리를 주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여 발화자와 청중 사이의 현존을 구현했으며, 언어를 통해 정신과 실재의 관계 형성 및 만남을 형성하였다. 옹은 음성, 즉 소리가 시·공간을 아우르며 현존성을 확립시키는 요소라고 정의한다. 옹이 주장하는 현존의 개념은 마틴 부버의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하다는 ‘나와 너’ 철학은 인간의 실존이 혼자가 아닌 반드시 짝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³⁸⁾ ‘나’의 실존을 위해서는 ‘너’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둘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는 구어로, 청각감각을 뜻한다. 구어는 문자와 달리 발음한 뒤 바로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구어의 현존성을 나타낸다.³⁹⁾ 소리는 순간에만 존재하며 현재적 시간인 지금-여기를 드러낸다. 이는 곧 피드백 고리로 연결된 연극에서의 배우와 관객의 공동 현존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계획과 예측이 불가능한 창발 현상을 촉발하고 이는 곧 공연 예술의 특징으로 귀결된다.⁴⁰⁾

구술문화와 문자문화가 혼재되어 있던 시기에 등장한 그리스 연극은 배우와 관객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공동 현존을 통해 미디어적 특성을 확립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코러스가 있다. 코러스는 드라마 이전 연극의 특징적인 존재로, 무대 위 배우와 관객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

38) 윤석빈, 「마틴 부버의 대화원리 -인간 실존의 토대로서의 대화-」, 『동서철학연구』 42권, 한국동서철학회, 2006, 279쪽.

39) 위의 논문, 285쪽.

40) 신광민·조준희, 「동시대 연극에 나타난 배우 매체성 연구:재매개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9권 4호, 한국예술교육학회, 2021, 303쪽.

과 동시에 합창, 군무를 통해 연극을 통한 공동체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을 통해 플롯을 중심으로 한 문학적 완결성을 강조하였고, 그리스 연극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코러스의 역할은 작가의 사상을 표현하는 프로타고니스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⁴¹⁾ 구술문화의 음악성은 코러스로, 문자문화의 시각성은 무대 위 배우의 대사로 발화되면서 무대 위 인물들의 행동과 고통이 다양한 소리의 현존과 더불어 시각화되었다.⁴²⁾ 비록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코러스는 프로타고니스트를 포함한 무대 위 배우들과 함께 연극의 서사적 기능, 디오니소스축제의 제의적 기능, 나아가 시민 문화를 형성하는 총체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리스 연극은 참여적인 관객과 구술문화의 특징적인 고유의 현존 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드라마의 힘이 강해지면서 점차 문자문화에 밀려나게 된다.

인쇄술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문자문화로의 이행은 발전하는 무대기술과 함께 현존의 개념을 바꿔놓는다. 구술 언어가 인간의 외면과 내면을 아우르는 만남을 통한 현존을 창출했다면, 인쇄는 내면 의식과 무의식적인 자원을 사물,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촉발시켰다.⁴³⁾ 인쇄는 폐쇄적이고 개인적이며, 비 발화를 통한 개인적 사유를 강화시켰다. 드라마 연극은 실내극장으로 들어오며 다양한 기술 장치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드라마의 극적 환영을 창출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냈으며, 제4의 벽이라는 개념과 함께 무대와 객석을 구분 짓게 된다. 인쇄술의 유산인 책이 독자와 작가의 사이를 떨어트린 것처럼 드라마 연극은 관객과 배우의 사이를 단절시켰다. 배우와 관객의 공동 현존과 음성을 통한 청각적 현

41) 임형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의미 생산방식 - 몸의 현상과 수행성」,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48호, 한국브레히트학회, 2023, 120쪽.

42) 이재민, 앞의 논문, 190쪽.

43) 월터 J. Ong 저, 임명진 역, 앞의 책, 211쪽.

존의 조건은 갖추고 있었지만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약화되었으며, 관객은 공동체적 경험보다 개인적 사유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무대 위 배우의 연기와 현존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18세기 프랑스의 배우 뒤메닐(Marie Dumesnil, 1713-1803)과 클레롱(Claire Clairon, 1723-1803)의 뜨거운 배우와 차가운 배우에 관한 논쟁⁴⁴⁾은 드라마 연극과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의 에너지와 영향력 그리고 현존의 각기 다른 존재방식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진행된 현존에 관한 논의는 연기자의 현존에서 출발해 공연의 미적 독자성 획득으로 얻어지는 현존, 관객과 함께 만드는 수행적 현존으로 발전되어 왔다.⁴⁵⁾ 드라마 연극의 재현적 요소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비재현적, 퍼포먼스적 특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텍스트의 해체, 몸, 물질성으로 그 관심이 옮겨갔다. 이는 시각이라는 단일 감각이 지배하던 문자문화에서 청각과 촉각이 부상하는 제2의 구술문화, 즉 전자문화로의 전환과 연관 지을 수 있다.

(2) 수행성의 부상

퍼포먼스의 출현이 TV를 비롯한 대중매체가 활성화된 시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각을 넘어 청각, 촉각의 감각이 활성화 된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은 현재를 보증하고 강조한다.⁴⁶⁾

44) 뜨거운 배우는 역할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본성과 영혼을 통해 역할의 삶을 살면서 실제적 감정을 느꼈다고 강조한다.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얼리티'이며 주로 일반 관객이 선호했다. 반면 차가운 배우는 세밀한 관찰과 연구를 선행하고 상상력을 더해 자신을 역할에 맞추어 나간다.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픽션'이며 주로 비평가들이 선호하였다.; 이재민, 「뜨거운 배우와 차가운 배우」, 『한국연극학』 1권 54호, 한국연극학회, 2014, 255-256쪽.

45) 김방옥, 앞의 논문, 35쪽.

46) 월터 J. 옹 저, 이영걸 역, 앞의 책, 266쪽.

수행적 공연은 확장된 감각과 함께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던 배우와 관객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역할 바꾸기’, ‘접촉’, ‘라이브니스’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행위자와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인 ‘자동 형성적 피드백 고리’ 연구에 유용하다.⁴⁷⁾ 관객은 바라만 보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함께 참여하여 생산과정에 관여하는 창조자의 역할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관객의 반응과 공연의 진행 예측을 힘들게 하여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낸다. 관객의 능동적 참여는 공동체 형성의 전제조건이 되는데, 배우와 관객간의 눈에 보이는 행위나 태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유지⁴⁸⁾될 수 있다.

공연 중에 일어나는 역할 바꾸기 행위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구성원간의 접촉 가능성을 높인다. 접촉은 공동체 형성의 요소로 작용하면서 연극의 매체적 특성인 시각과 촉각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의 해체를 시도한다. “공공성 대 친밀성, 거리 두기 대 인접, 허구/환영 대 현실”⁴⁹⁾과 같은 연극에서의 이분법은 두 감각간의 구분과 연결되는 것으로, 시기와 형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접촉을 통한 공동체 형성은 공공성과 개인성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고, 더 나아가 배우와 관객, 주체와 객체의 경계마저 넘어서는 역치적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는 곧 행위자와 관객의 신체적 공동 현존 상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동 현존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연극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라이브니스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지만, 기술발전과 함께 등장한 TV와 영화는 연극의 라이브니스

47) 에리카 피셔-리히테 저, 김정숙 역, 『수행성의 미학』, 문학과 지성사, 2016, 86쪽.

48) 위의 책, 130쪽.

49) 위의 책, 136쪽.

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전기의 활용에 따른 기술발전은 공연 녹화를 가능케 했고, 이는 ‘라이브 공연’이라는 말을 성립시켰다.⁵⁰⁾ 전자매체는 등장 초기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연극에 비해 약하게 인식되었으나, 지속적 발전을 통해 라이브 공연의 본질을 이루는 자동 형성적 피드백 고리의 기능을 학습하며 그 기능을 향상시켰다. 연극은 영상매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능성을 활용하여 배우의 신체적 현존을 강화하는 효과를 창출했으며, 이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 현존이라는 고유 가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역할 바꾸기’, ‘접촉’, ‘라이브니스’와 같은 수행적 공연의 특성은 전자매체와 함께 시작된 제2의 구술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자매체는 음향으로서의 언어표현을 확장시킨다.⁵¹⁾ 청각의 활성화는 시각감각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문자문화의 선형적이고 단절된 특성을 와해시켜 예측불가능성을 높였다. 소리성으로 대변되는 즉각적인 청각적 접촉은 인간을 어떠한 사건의 앞이나 뒤가 아닌 현재 즉, 중심에 놓는 동시성을 가지며 배우와 관객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역할 바꾸기와 접촉을 통한 수행성은 전통적 극장 공간을 벗어난 공연들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셰크너의 환경연극(environmental theatre)으로 대표되는 공간의 변화는 프로시니엄 무대에 대한 단순한 반발이라기보다 관객과의 관계성에 집중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 환경변화가 역할 바꾸기와 접촉의 가능성을 강화시켜 현존과 수행적 공연을 생산하는 것이다. 관객의 공연 참여가 수 천 년 전 부족적 의식과 공동체 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⁵²⁾는 측면에서 관객 참여는 구술문화의 특징이 재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연극에서 파생된 이머

50) 에리카 피셔-리히테 저, 김정숙 역, 앞의 책, 150쪽.

51) 월터 J. 옹 저, 이영걸 역, 앞의 책, 98쪽.

52) Steve Dixon, *Digital performance: a history of new media in theater, dance, performance art, and installation*, LONDON: MIT Press, 2015, p.559.

시브 연극(immersive theatre), 장소 특정적 연극(site-specific theatre)과 같은 형식은 동시대 관객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며 제2 구술문화의 계획된 즉흥성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언어와 소리를 현존의 중심에 두는 옹의 이론은 라디오, 영화, TV와 같은 전자매체의 등장과 함께 라이브니스 개념 확장의 근거가 된다. 제한된 범위의 시·공간을 가진 예술인 연극은 기술 발전과 음향의 전달을 통해 광범위한 공동 현존을 이뤄내게 된 것이다.⁵³⁾ 연극에서의 현존은 시각의 지배를 벗어나 청각을 중심으로 한 다감각의 활용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 등장하는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4. 맺음말

본고는 21세기 다매체 시대에 접어든 현재, 연극을 하나의 미디어로 규정하고 마셜 매클루언과 월터 옹의 미디어 이론을 통해 연극의 미디어적 특성을 파악하여 연극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매클루언의 감각의 확장 개념과 핫미디어와 쿨미디어 이론, 옹의 구술성과 문자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극의 감각과 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디어 자체가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양식을 바꾸는 주체로써 존재함을 주장한 매클루언의 이론은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연극의 감각과 지각 방식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구술문화의 청각, 문자문화의 시각, 전자기술 시기의 다감각이라는 시기별 감각 편향성은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연극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옹은 언어를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인으로 정의

53) Patrice Pavis, *Theatre at the crossroads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2, p.101.

하였고, 소리를 통한 감각과 현존을 서술하였다. 특히 제2의 구술문화 개념은 기술발전을 통해 발생한 새로운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뉴미디어 속 연극의 현존을 고찰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청각을 중심으로 한 구술문화는 시각과 촉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공감각적이고 다감각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곧 공동체 형성과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으며, 공동지각, 공동감각과 같은 보편성을 부각시켰다. 이 시기 그리스 연극은 신을 위한 축제의 일환이자, 제의적 본능을 표현하고 시·공간의 공유라는 소통 중심의 공동체적 특성을 반영한다. 한편 필사본의 지속적 생산은 서사구조의 강화와 같은 극작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후 인쇄술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문자문화는 시각을 중심 감각으로 끌어 올렸으며,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개인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를 ‘개인적 읽기’를 통해 해석하고 지식을 쌓아 나갔다. 이 시기 연극은 문학 중심의 드라마 연극 시대로 돌입하게 되고, 오랜 기간 문학은 연극성의 중심이 된다. 희곡의 사실적 재현과 관객의 몰입을 위해 객석과 무대의 철저한 구분, 제4의 벽 개념과 같은 이론을 통해 관객의 참여를 축소시켜 상호작용을 약화시켰다. 이후 전화, 라디오, TV,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음성과 구어의 활용성이 확대되고 청각, 촉각 등 시각 외 감각이 활성화되었다. 재 부족화 시기, 제2의 구술문화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는 약해졌던 집단 의식의 부활을 이끌었다. 이는 현대 연극에서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활용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등장을 촉발시켰다. 전자기술은 연극의 표현 범위를 확장시켜, 영상, 음향,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극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는 연극이 단순한 무대 예술을 넘어 다중 매체의 융합체로 진화하게 함으로써, 관객의 감각과 인식을 더욱 풍부하게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고, 연극의 고유 매체적 특성이라 여겨지던 배

우와 관객의 공동현존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연극은 오랜 기간 인간의 예술 활동이자 대중매체로서 그 자리를 지켰으나 전자매체의 등장을 통해 대중매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연극은 연극성이라는 고유의 미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해 진화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클루언과 옹의 미디어 이론은 연극이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방식과 문화에 대응하며 변화한 발전 과정을 고찰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기술발전은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기존에 없던 뉴미디어의 등장은 연극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을 일깨워준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우리의 감각과 지각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고, 이에 발맞춰 연극 또한 인간의 감각과 인식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도 미디어 환경 속의 연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동시대 연극이 지닌 문화, 예술적 가치를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강보영·권상희, 「맥루한 이론에 관한 메타분석: 미디어학, 철학, 예술학 그리고 디자인학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484-497쪽.
- 김기흥, 「오디오북 연구 담론에서 월터 옉의 구술성 개념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103-118쪽.
- 김방옥, 「연극에서의 현존」, 『한국연극학』 1권 57호, 한국연극학회, 2015, 5-44쪽.
- 김영운·조준희,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특성 연구」, 『지식과 교양』 14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397-424쪽.
- 김용수, 『연극이론의 탐구-대립적인 시각들의 대화』,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 대니얼 J. 치트럼 저, 임영호 역, 『미디어와 시대정신의 탄생』, 컬처룩, 2024.
- 마셜 매클루언 저,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마셜 매클루언 저, 임상언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매체철학연구회, 『매체 철학의 이해』,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5.
- 신광민·조준희, 「동시대 연극에 나타난 배우 매체성 연구: 재매개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9권 4호, 한국예술교육학회, 2021, 299-323쪽.
- 에리카 피셔-리히테 저, 김정숙 역, 『수행성의 미학』, 문학과 지성사, 2016.
- 월터 J. 옉 저, 이영걸 역, 『언어의 현존』, 탐구당, 1985.
- 월터 J. 옉 저,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8.

- 윤석빈, 「마틴 부버의 대화원리-인간 실존의 토대로서의 대화-」, 『동서철학연구』 42권, 한국동서철학회, 2006, 271-294쪽.
- 윤정선, 「연극과 제의, 그 뫼비우스의 띠」, 『한국연극학』 3권 1호, 한국연극학회, 1989, 66-83쪽.
- 윤주하·조준희, 「이보 반 호프와 로마비극[The Roman Tragedy]: 연출미학 연구」, 『예술교육연구』 18권 4호, 한국예술교육학회, 2020, 353-376쪽.
- 이경미, 「매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극, 연극성-디지털 미디어 시대와 “inter-”의 미학-」, 『한국연극학』 1권 43호, 한국연극학회, 2011, 153-187쪽.
- 이동후, 「기술중심적 미디어론에 대한 연구: 맥루한, 옹, 포스트만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4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1999, 6-44쪽.
- 이동후, 『월터 옹』,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 이재민, 「뜨거운 배우와 차가운 배우」, 『한국연극학』 1권 54호, 한국연극학회, 2014, 241-278쪽.
- 이재민,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역사적 형성과정」, 『獨逸文學』 62권 2호, 한국독어독문학회, 2021, 185-211쪽.
- 임형진,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의미 생산방식-몸의 현상과 수행성」,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48호, 한국브레히트학회, 2023, 117-134쪽.
- 플로랑스 드 메르디외 저, 정재곤 역, 『예술과 뉴 테크놀로지-비디오·디지털 아트, 멀티미디어 설치예술』, 열화당, 2005.
- 한스-티츠 레만 저, 김기란 역, 『포스트드라마 연극』, 현대미학사, 2013.
- Dixon, Steve, *Digital performance: a history of new media in theater, dance, performance art, and installation*, LONDON: MIT Press, 2015.
- Pavis, Patrice, *Theatre at the crossroads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1세기 다매체 시대에 접어든 현재 연극을 하나의 미디어로 정의하고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과 월터 옹(Walter J. Ong)의 미디어 이론을 통해 연극의 역사적 시기에 따른 감각과 지각의 변화, 현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매클루언은 인간의 감각과 지각방식 변화의 주요 요인을 미디어로 정의하며 사회와 문화의 주요 동인으로 인식하였고, 옹은 언어의 구술성과 쓰기와 인쇄의 문자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사고와 감각, 현존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연극은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그 형태와 기능, 감각과 지각의 방식이 변화해왔다.

본고는 먼저, 미디어를 인간 감각의 확장 기제로 바라본 매클루언의 이론을 살펴보고 핫미디어와 쿨미디어로 구분지어 주장한 내용을 통해 감각에 따른 미디어 구분과 지각 방식을 도출하였다. 뒤이어 옹의 구술성과 문화, 현존을 중심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각 개념을 정리하였다. 앞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술, 문자, 인쇄, 전자기술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연극의 형식과 감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연극을 텍스트를 기준으로 나눠 설명한 한스-티즈 레만(Hans-Thies Lehmann)의 주장을 통해 미디어와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각 시기별 연극과 문화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어 옹의 언어적 현존과 연극에서의 현존 개념을 통해 연극의 매체적 조건을 정리하고 동시대 연극에서의 현존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고를 통해 미디어 환경 속의 연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동시대 연극이 지닌 문화, 예술적 가치를 연구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주제어 ● 마셜 매클루언, 월터 옹, 감각, 현존, 미디어, 연극, 문자문화, 구술문화, 인쇄술, 포스트드라마

■ Abstract

An Examination of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Theater through Media Theory : Focusing on the Theories of Marshall McLuhan and Walter Ong

Cho, Chung Beom / Dongguk University

Cho, Joon Hui /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defines theater as a form of media in the multimedia era of the 21st century and analyzes the changes in sensation and perception as well as the implications for existence through the media theories of Marshall McLuhan and Walter J. Ong. McLuhan defined media as a major factor in changing the way we feel and perceive, and recognized it as a major driver of society and culture, while Ong built a theory of human thought, feeling, and existence through his research on the oral nature of language and the literal nature of writing and printing. As a reflection of human history and culture, theater has changed its form and function, as well as the way it is sensed and perceiv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This paper first examines McLuhan's theory of media as an extension of the human senses, drawing a distinction between hot media and cool media through his argument that media are categorized and perceived according to the senses. Then each concept is summarized through Ong's view of media centered on orality, culture, and presence. Based on the above theoretical background, we examine the changes in the form and sensation of theater as influenced by media, including oral, written, printed, and electronic technologies. In the process, we examine the connection between media and theater through Hans Thies Lehmann's argument of dividing theater into texts and summarize the theater and culture of each period. The, through Ong's concepts of linguistic presence and presence in theater, we summarize the media conditions of theater and also summarize the concept of presence in contemporary theater.

Through this paper,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observation of the changes of theater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to the study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values of contemporary theater.

Keyword • Marshall McLuhan, Walter J. Ong, Senses, Presence, Media, Theater, Written culture, Oral culture, Printing, Post-drama

■ 논문투고일:2024.06.11. ■ 심사완료일:2024.07.22. ■ 게재확정일:2024.07.24. ■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 되기

: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

김 영 결*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추방·축출될 존재로서 인간
3. 추방의 위기 : 지구 온난화
4.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지구환경 교육의 필요성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군사독재체제를 거쳐 민주화를 이루었다.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은 무자비한 방식으로 민주화 운동의 싹을 도려내려 했었으나, 민주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은 스러짐 없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일반 국민이 수립한 글자 뜻 그대로의 1993년 문민정부(文民政府) 이래 약 30여 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가 전부인 대한민국은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99년 G20에 가입하고, 2021년에는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다.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제무

*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강사

대에서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명실공히 다른 선진·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를 선도(先導)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을 강제하며 이뤄진 근시안적 ‘국민국가교육’의 강화는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바깥 세계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향을 통해 주권을 되찾은 국민은 자유와 평등, 기본적인 이익을 보장·보호받으면서 경제적 풍요를 견인한 것은 물론,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하고, 최대한으로 대안적 행동 노선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들을 생각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고려”¹⁾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가진 속성이 충분히 계발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자의 이익을 배려하고, 중요한 결정에 책임을 지고, 최선의 결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범위”²⁾를 확장시켜 개인과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해준다.³⁾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획득한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열린 공론장에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광대한 통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거친 20세기 비약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정보의 실시간 교환과 인적·물적 교류의 시간적 축약을 가져왔다. 이는 국민국가의 기반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으로, 국민국가적 상대성보다 세계 시민적 보편성이 우선시 됨을 의미한다. 국민국가

1) 로버트 A. 달 저, 김왕식·장동진·정상화·이기호 역, 『민주주의』, 동명사, 1999, 82쪽.

2) 위의 책, 82쪽.

3) 물론,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탁함으로써 자본주의에 우선권을 내주어 평등과 자유의 향유 집단을 양적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우위의 세력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균열·괴리를 만들고 이를 고착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고는 민주주의의 일반론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의 시민이 갖는 특정한·고유한 문화 속 행위는 세계시민에게 다양하게 비칠 수 있다. 따라서 내 행위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인류 공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세계시민은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행위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적인 도덕 판단은 우리가 말 그대로의 이웃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도 느끼라고 요구하고 있다.”⁴⁾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합리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⁵⁾ 합리성의 요건은 무엇이든 보편적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고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⁶⁾ 이성적 행위자는 인격을 가진 대상을 상대적 가치만을 지닌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칸트의 이 두 가지 정언명령을 따르는 것만으로 보편적 세계시민주의의 기초적 덕목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⁷⁾

자기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여기는 것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탄생에 따른 일체의 소속감을 벗어던지게 하는 세계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국적적이고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자기(인간)에 대한 사유를 심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자기)은 세계의 시민이자 동시에 세계의 이방인이라는 이중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편적 동

4) 콰메 앤터니 애피아 저, 실천철학연구회 역, 『세계시민주의』, 바이북스, 2009, 272쪽.

5) 임마누엘 칸트 저,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12, 370쪽.

6) 임마누엘 칸트 저,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4, 148쪽.

7)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국제법 성립 가능의 우선 조건으로 합법적 상태를 들고 있다. 또한, 인간애와 인간 권리에 대한 존중을 의무로 들고 있다.

질화의 세계시민 의식은 국민 국가적 공동체의 소속감을 박탈시키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국내·외적인 문제의 경계 구분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는 인간 개체가 자기가 속한 어느 한 국가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직면해 있지 않고 세계 전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는 현재 인류 문명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자원 고갈, 에너지 위기, 전쟁, 무역 불균형, 빈부 격차 등등. 인류 전체를 문명 이전 야만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결코 몇몇 국민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종말의 징후는 손가락을 닦는 문제로 팔짱을 낀 채 구경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없다면 ‘나’도 ‘우리’도 ‘미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시대적 사명으로 받들든지, 세계의 이방인으로서 시대의 운명이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약관화해 보인다.

2. 추방·축출될 존재로서 인간

인간은 세계(지구)에 속한다. 즉, 인간은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다. 인간은 이성에 의한 관념적 조화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자기 안에 세계와의 관계를 설립한다. 그러나 인간은 세계 안 자신의 가치와 지위를 확신하는 경우에만 자신을 자유롭게 정연(整然)화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세계에 대한 사유는 인간을 세계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떼어 두지 못한다. 인간은 세계 안에서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심이 되는 설명을 발견한다. 이것은 세계를 상기시켜 주는 신이 인간 내면에 있다는 설명과 다름없는데, 인간은 이성의 원리에 따라 신을 안다. 이것은 신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

는 절대 무방비 상태로 홀로 있지 않다.⁸⁾

세계 안(內) 인간의 탁월한 지위에서 인간의 독립성을 보증하는 두 가지 도덕적 결론이 도출된다. 도덕적 숭고함과 자급자족의 행복을 스스로 요청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존중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고귀한 사유를 가질 수 있고 세계 안에서 안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숭고함과 안전은 출생·전통적인 사회적 지위·사건의 우연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따라서 각자의 자유로운 태도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 이것은 따라서 세계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대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을 수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계와의 관계는 따라서 도덕적 요구와 이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다. 인간은 규범에 맞는 사유와 행위를 통해 세계의 긍정적 전망에 참여하면서 안전하게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세계를 느낀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모든 소유의 조건인 거처는 내재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 자아는 이런 식으로 자기 집에 머문다.”⁹⁾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은 세계의 전유가 가져다주는 자신감과 안전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세계를 부정하고 거부하도록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 관한 정치적 사유에서 전쟁과 망명, 고립(독)의 상처받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여지와 일련의 정치적 용어의 변화를 이해한다. ‘도움을 받지 못하

8) “우리는 신적 통치 질서와 자신과 다른 것들과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현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도 치유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것들 중에서 완성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들에 내재된 이성 원리에 따라 완성해야만 한다.”; 에픽테토스 저, 김재홍 역, 『에픽테토스 강의 3·4』, 그린비, 2023, 93쪽.; 세계시민주의는 기원전 3세기 스토아학파에 의해 수용되고 발전된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인 에픽테토스를 참조할 수 있다.

9) Emmanuel Le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e Livre de Poche, 2009, p.139.

는 상태'로서의 고립(독)은 세계와의 유대를 확신하며 혼자 존재하고 자급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동행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안전과 신뢰를 추구하면서 소외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고유하다. 그러나 인간은 세계와의 내적 관계에서만 안전과 신뢰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에 뿌리내린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에서 파생된 평온함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 양면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인간이 어떤 누구도, 어느 것도 필요치 않다고 믿는 것은 오만하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이 전체 안에서 종속과 통합을 사유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동류(同類)와 연결되는 것을 안다면, 행복은 각자에게 필연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것이다. 고립(독)에 대한, 상처받을 수 있음에 대한 사유는 바뀐다. 이 사유는 적절한 사유를 갖지 못하는 데 있고,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실제로 무지(無知)와 두려움에 의해 세계와 분리되고, 동시에 세계와 자기로부터 고립되고 낮설게 된다.

전쟁에선 개인의 상처받을 수 있음의 결과만이 고려된다. 이것은 끊임 없는 불안의 감정을 유지하고 세계 내 존재를 방해하는 무질서한 상태이다. 전쟁은 사실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고려되기보다 사적이고 열정적이며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여겨져야 한다. 전쟁은 인간성의 부당한 분열에 연관되지 않고 불가피한 인간의 야망에 연관된다. 전쟁은 사물·환경이 나의 향유를 위해서만 전유되어야 하는 데에 따르는 발로이다. 열정, 잘못된 판단,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무지(無知), 우리의 독립에 대한 무지, 존재하는 것의 수용 거부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사소한 사건에 휘둘리게 하면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여 상처받기 쉽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삶의 각 상황은 강제로 부과되는 킬러 문항으로 가득한 시험처럼, 우리의 자유와 세계 안 우리의 지위에 대한 지난

하고 골치 아픈 투쟁의 연속일 것이다. 진정한 세계주의는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신과의 내적·도덕적 관계를 거쳐야만 이룩할 수 있다.

추방은 항상 소속된 전체,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안심이 되고 익숙한 인간의 틀 - 장소와 삶의 양상, 우호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등 - 을 깨뜨리면서 인간을 노출시킨다. 광의의 의미로, 추방은 세계와의 통상적인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뒤집어엮는 모든 변화를 나타낸다. 모든 인간이 겪는 단절과 상실에 직면한 낯섦의 감정에, 동일자의 영원한 회귀와 인간 경험의 동질성 - 장소와 사람, 관습 등에 대한 맹목적 순종 - 을 인지할 수 있는 규범의 인식은 따라서 개선되어야 한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이 복종의 파기가 여전히 일반적 질서 안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추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운명의 표지다. 우리 삶과 세계의 연속성 안에서 파기를 당연시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세계 안의 평안을 최대한 느끼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말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선 변화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추방과 모든 상실은 불가피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별개이고 떨어져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가 세계 안 '나의 자리'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세계는 "공통의 기반이나 땅, 소유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 "모든 관계 혹은 모든 소유는 포함하거나 포함 시키는 소유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위치한다."¹⁰⁾ 소유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요소적인 것(l'élémental)이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요소적인 것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운명이다.

추방은 이중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두려움에 빠지는 유일한 추방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세계 일반으로부터 그리고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무지와 거부에 의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축출되는 것이다. 이중적 재정의에도

10) Emmanuel Levinas, op. cit., p.138.

불구하고, 동일한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생전의 유배 생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최종적인 ‘나의 집’을 찾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추방을 수용하면 추방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일반적인 수용은 각각의 단일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되돌아가야만 할 것을 알기에 인생이라는 여정의 각 단계를 향유할 수도, 뜻밖의 사건과 대혼란에 의해 추방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멈출 수도 있다.

추방과 시민권을 세계와의 동일한 관계의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람·사건·장소·도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연관이 구성되어야 함을 고려하는 것이다. 인간이 세계의 시민이라면, 그의 정체성, 그의 임무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방에도 불구하고 추방에 반(反)해, 추방에 의해 끊임없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추방의 위기 : 지구 온난화

지구(세계)는 현재 고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세계의 가용한 모든 자원은 동력(動力)을 얻기 위해 꾸준히 그리고 가속적으로 불태워지고 있다. 지구는 설 틈 없이 불이 때워지는 거대한 용광로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열(온도)을 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수백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를 방해한다. 산업화 이후 대량 생산·대량 소비 문화는 지구 위 삼림의 절반을 사라지게 했고, 야생생물의 2/3 이상을 멸종시켰다. 지구 역사상 인류 탄생 이전 5번의 대멸종은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빙하기 도래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도래할 6번째 멸종은 인간에 의한 것으로 예기된다. “지구 시스템에 남긴 인간의 흔적은 대단히 광범위해 풍화, 화산활동, 운석 충돌, 섭입, 태양의 활동과 같은

물리적 힘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자연의 힘에 영향력을 미친다. (...) 바로 의지의 작용”¹¹⁾이다. “인간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과 같은 사건에 필적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대략 10,000년 전에 시작된 ‘홀로세(Holocene)’라는 지질학적 시대구분을 끝낼 정도가 되었다 (...) 인간 활동이 지구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¹²⁾

인간의 경제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하여 균열을 심화시켰다. 이로부터 ‘인류세’¹³⁾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그리고 이 ‘인류세’에 우리는 인간의 종말을 목도하는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지질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인류세의 정점에 도달했고, 지구는 인류의 자원 남용과 환경 파괴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다는 첫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 지구 시스템이 회복 탄력성을 잃고 있으며, 우리가 가하는 압박과 스트레스, 오염을 완충하고 완화하는 생물물리학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¹⁴⁾

전 세계 195개국이 모인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C 이내로 유지하기를 약속한 것이다. 1.5°C는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이 1.5°C “마지노선

11) 클라이브 해밀턴 저, 정서진 역, 『인류세』, 이상북스, 2020, 23쪽.

12) 시노하라 마사타케 저, 조성환·이우진·야규 마코토·허남진 역, 『인류세의 철학: 사변적 실재론 이후의 ‘인간의 조건’』, 모시는 사람들, 2022, 95쪽.

13) 인류세(人類世: antropocene)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처음 등장했지만, 파울 크뤼첸(Paul Jozef Crutzen, 1933 ~ 2021)이 2000년에 열린 국제 지권-생물권 계획(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 회의에서 ‘인류세’ 개념을 공론화시켰다. 그는 18세기 후반에 시작됐던 산업 혁명과 함께 활발해진 인류 활동에 의한 수권·기권·생물권의 환경이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하는 취지로 인류세를 홀로세 다음의 지질시대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홀로세와 구별되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인류세로 명명하자는 것이 ‘인류세’ 담론의 핵심이다.

14) 그레타 툰베리 외 저, 이순희 역,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감수, 『기후 책』, 김영사, 2023, 56쪽(요한 룩스트룀, 「티핑 포인트와 되먹임 고리」).

은 깨졌다.”¹⁵⁾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2023년 2월 ~ 2024년 1월, 이 기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C 오른 것을 관측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2°C 상승하게 되면, 산호초나 호주 열대우림 같은 생태계들이 회복 불능에 빠지고 석회질 성분의 해양 생물은 멸종한다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보고서가 있고, 생물 다양성의 절반가량이 자칫 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라고 96%의 생물학자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이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가 초래된다. 2024년 4월 21일 422.04ppm의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한 달 전 421.80ppm보다 0.24ppm 증가했다.¹⁶⁾ 이런 추세라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0년 이내에 450ppm에 달할 수 있다. 450ppm을 27.96ppm을 남겨둔 상황과 2°C 상승을 0.48°C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 현상 및 기후재난 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장장 10개월 동안 이어졌고, 2023년 봄 캐나다에서 일어난 산불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이었으며, 2024년 2월 미국 텍사스의 산불은 서울 면적의 7배를 잣더미로 만들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태평양의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점차 가라앉고 있다.¹⁷⁾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수상 도시인 베네치아도 100년 이내 물

15)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매달 지구의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졌고, 이 기간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치보다 1.63°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WMO는 2024 ~ 2028년 동안 한 해라도 1.5°가 넘어설 확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형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온다”... 기온 상승 1.5도 마지노선 무너지면 ‘재앙’”, <매일경제>, 2024.06.22.

16) 김정수, “아시아 기후재난 피해 가장 커...세계보다 빠른 온난화 속도”, <한겨레신문>, 2024.04.23.

17) 이경원·이택현·정진영·김지훈, ““우리의 섬은 가라앉는다” 사이바이섬 원주민의

에 잠긴다고 한다. 시리아 내전의 주요 원인은 오랜 가뭄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 또한, 전 세계는 최근 들어 거의 예외 없이 매해 여름 지금까지 관측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갱신하고 있다. 우리나라(대한민국)는 최근 봄이 한창인 2024년 5월 중순 강원도에 때아닌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졌었다. 5월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것은 22년 만의 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태풍·해일·허리케인·폭염·한파·호우·폭설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정치·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에만 관심을 두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후순위로 미뤄 둔다. 왜냐하면, 비용을 치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소비 자본주의의 편익·편익은 인류세의 문제 타개를 위한 불편한 실천을 쉽게 포기·단념시켜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의 사람들은 미래의 과학 기술 발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¹⁸⁾ 하지만 이 같은 기술 낙관론은 치명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지구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다다랐다.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는 점(point)이다.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지구의 기후변화는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커다란 바위처럼 급전직하하는 모습으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은 ‘작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생물물리학적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되먹임이 강화되어 시스템

편지”, <국민일보>, 2023.04.26.; 이수연, “바다에 잠겨가는 투발루...전 국민 호주로 대이동?”, <뉴스핌>, 2024.05.23.

18) “에코모더니스트에게 인류세는 인간의 오만이 낳은 위험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자연을 개조하고 제어하는 인류의 능력에 대한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클라이브 해밀턴 저, 정서진 역, 앞의 책, 48쪽.

이 점진적으로, 그러나 불가피하게 새로운 상태로 이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환경과 생계에 충격을 가한다.”¹⁹⁾ 예를 들어, “산불이 나면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그 탓에 기온이 더 오르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더 길어진다. 그 탓에 더 많은 산불이 일어난다. 그 탓에 더 많은 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된다. 그 탓에 기온이 훨씬 더 높아지고 날씨가 훨씬 더 건조해진다. 그 탓에 다시 훨씬 더 많은 산불이 일어난다.”²⁰⁾ 지구 시스템의 기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간과 지구(자연)의 동역학 관계는 역전된 셈이다.

우리는 “금세기 동안 인간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고향 행성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저하시킬 것이라는 현실적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²¹⁾ 인간이 저지른 만행(蠻行)은 동물·식물은 물론 인간마저도 지구(세계)에서 추방·축출·배제시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인류는 지구의 공기, 빛, 물, 경치, 먹거리 등으로 삶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지구의 이 요소들이 이제 ‘나’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이익·탐욕에 착취당한 지구(세계)는 더 이상 인간의 뜻에 부응하지 않고 분노를 드러내며 이익·탐욕에 눈먼 인간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인간은 종(種)의 우월성, 특권의식을 들어 지구(세계)에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능력만 휘두른 인간은 “무기를 가진 자에게 해를 끼치는 무기”²²⁾를 사용한 셈이다. 따라서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19) 그레타 툰베리 외 저, 이순희 역,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감수, 앞의 책, 60쪽(요한 루스트림, 「티핑 포인트와 되먹임 고리」).

20) 나오미 클라인 저, 이순희 역, 『미래가 불타고 있다』, 열린책들, 2021, 302쪽.

21) 클라이브 해밀턴 저, 정서진 역, 앞의 책, 23쪽.

22) Emmanuel Levinas,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e Livre de Poche, 2009, p.6.

세계적인 유명 패션 브랜드의 패션쇼장 앞에서 “NO FASHION ON A DEAD PLANET(지구가 죽으면 패션도 없다)”²³⁾이란 구호로 패션쇼 반대 시위가 있었던 적이 있다. 지구가 죽으면 패션을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지구환경을 끊임없이 다양한 상품화로 소비했던 인류는 지구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다. 기후변화는 분명 인간 소멸 문제와 관계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변화시켜 온전한 기후변화 속 지구(세계)에, ‘자기 집’에 남을 것인지, 지금까지 해 온 방식(경시·파괴·소거)으로 불확실하고 격렬한 기후변화 속 지구(세계)에서, ‘자기 집’에서 추방·축출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4.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지구환경 교육의 필요성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함께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을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사회 최대의 공동목표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3)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옷이 대략 1000억 벌이고, 이 중에서 330억 벌이 버려진다. 패션 산업의 재료, 물, 화학물질, 에너지 사용은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흰색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옷 염색 과정에서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옷 세탁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한다.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로, 이는 전 세계의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고, 전 세계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다.: <오늘 당신이 버린 옷, 어디로 갔을까>, KBS 방송, 2021.07.01.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의 목표 중 물관리(목표 6), 친환경 에너지 생산(목표 7), 기후변화 대응(목표 13), 해양생태계 보전(목표 14), 육지생태계 보전(목표 15)은 지구환경과 관련한 직접적인 목표에 해당한다. 나머지 목표들 역시 간접적으로 지구환경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는 농작물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식량 위기를 초래하여 빈곤(목표 1)과 기아(목표 2), 건강(목표 3), 분쟁 문제를 일으키고 부의 불평등(목표 10)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위기는 인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깨닫고 닥쳐올 기후 위기 상황을 더디 늦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최대 200년 가까이 머문다.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삶의 환경을 결정짓는 셈인데, “깨끗한 물과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계, 문화유산, 여가 활동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 세대가 당연히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마땅한 최소한의 유산이다.”²⁴⁾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

24) 그레타 툰베리 외 저, 이순희 역,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감수, 앞의 책, 221쪽(마이클 테일러, 「해수면 상승과 작은 섬들」).

한 결정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세대는 현세대의 파괴 행위로 망가뜨린 지구(세계)를 책임지지 않은 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려 한다. 이 ‘책임 전가’는 선진국(민)에서 후진국(민)으로, 동시대적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일찍이 산업 혁명을 통해 축적한 부를 가진 선진국(민)은 주변국의 자원을 헐값에 매입·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담 전부를 주변국에 전가하고 있다. “‘어딘가 먼 곳’의 사람과 자연환경에 부담을 전가하고 그 진정한 비용은 떼어먹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생활의 전제 조건이다.”²⁵⁾ 즉, ‘나’의 부족할 것 없는 일상의 삶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다.

기후 격변에 의한 전 지구적 위기의 책임을 희생자에게도 균일하게 강제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신이 주어진다면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에 일관되는 최선의 방식으로 최소 수혜자들의 관점을 가려내어 그들의 장기적인 전망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²⁶⁾ 따라서 “가장 혹사당하고 가장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비상사태에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활동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형평성이 개선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할 기회가 열린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²⁷⁾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세계 상위 10% 부국(민)이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안다면, 온실가스 배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나고 자란 조국이 가라앉는 지경의 국가(민)들에, 전통적인 농·수산업의 종사가 사회 인프라 부실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겪는 국가(민)들에 균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기후 부정의

25) 사이토 고헤이 저, 김영현 역,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다다서재, 2021, 32쪽.

26) 존 롤즈 저,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12, 420쪽.

27) 그레타 툰베리 외 저, 이순희 역,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감수, 앞의 책, 496쪽(나오미 클라인, 「정의로운 전환」).

(Climate injustice)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인류에게 마찬가지로 미치지만, 그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따라서 기후 부정의는 세계시민 모두의 공동 노력의 합세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 공동의 관심사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선진국의 탄소배출 이력을 통해 본다면, 선진국은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공정의 원칙과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각각의 역량(capability)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후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부작용과 맞서 싸우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제3조 1항>

복잡다단한 국민국가의 이해에 따라,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이미 시작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저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 논쟁의 주제로 참여하여 “기후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기후 역량이지만, 기성세대로 인해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 세대에게 더욱 필요한 역량이다.²⁸⁾ 따라서 이 역량이 길러지고 키워지고 발휘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적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추구해야 할 입장에 대해, 기후 위기의 완화를 위해 다양한 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입장과 과학 기술의 채택 및 정책에 관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에 의해 여

28)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15세의 나이로 ‘청소년 기후 행동’을 촉발시키며 전 세계 청소년들의 ‘결석시위’를 이끈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러 입장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논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⁹⁾ 예를 들어, 전격적 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소비재 생산과 소비는 불가부득 탄소배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과 발전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지 숙고해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상하다. 발전한다는 것은 도시를 확대하고 공장도 많이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자면 자원도 많이 쓰고, 자연으로부터 상당량의 물질을 채취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지속 가능할 수 있나? 지구가 점점 커지는 것도 아닌데 발전을 하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양극단의 두 개로 나누어 놓고 냉정하게 우리 사회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³⁰⁾ 이외에도 자연물의 법적 권리 인정, 원자력 발전소의 탄소배출 저감과 안전 문제의 대립, 기술 낙관론의 오류, 전기차 보급률 확대 對 대중교통 긴밀 노선 추진, 기후변화와 환경 난민, 메탄가스 배출 감축 농법 개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책임 할당 문제 등, 학습자는 이 같은 다양한 입장이 부딪치는 논쟁의 참여를 통해 기후 역량을 두텁게 키울 수 있다. 즉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고 조율하며 자신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푼아가는 과정으로 학습자는 기후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폭넓은 이해를 갖출 수 있다.

4. 나가는 말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각국의 정부를 피고로 하는 법적 다툼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2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주 구체적인 위협』, 동아시아, 2022, 183쪽.

30) 위의 책, 186쪽.

지금까지 약 50여 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진행됐고 진행되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청소년 환경단체 19명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기후 헌법소원을 4년여 만인 2024년 5월 21일 1차에 이은 2차 공개 변론을 마쳤다.³¹⁾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1년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불충분하여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 세계가 SDGs와 같은 대책을 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탄소배출의 대규모 감축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우선하며 탄소배출 감소를 극적으로 성공시키지 못해 벌어진 현상이다. “육조에 물이 넘쳐흐르기 직전인데 양동이를 찾으러 가거나 바닥에 수건을 까는 일부터 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가장 먼저 달려들어 수도꼭지부터 잠글 것이다. 만일 누군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그 사람은 사태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해야 할 일을 미룰 때 벌어질 결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³²⁾

기후 위기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 모색과 통시적·공시적 책임 전가, 지구가 여전히 과학 기술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는 믿음은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못하는 형국을 만들어 냈다.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여겨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부 환경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형국에 편승하여 TV 속 먼 나라 기후재난을 무심히 바라보며 아무런 대응 없이 일상을 살아낸다. 이제는 더 이상 기후에 대해 무

31) 임민정, ““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법정 B컷]”, <노컷뉴스>, 2024.05.26.

32) 그레타 툰베리 외 저, 이순희 역,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감수, 앞의 책, 256쪽(그레타 툰베리, 「실패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관심함이 없이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어차피 미래는 파멸로 끝날 텐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피하려고 아등바등할 이유가 없다는 무언의 확신을”³³⁾ 다지는 式의 냉소주의적 태도는 현재의 기후 위기를 타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관심의 만연, 위기의 외면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사회를 내맡기는 셈이 된다. 이것은 방향성 없는 자신의 운명을 더욱 개인의 고립된 삶 속으로 깊숙이 침잠시키는 꼴이다. 원자화된 자기중심적 태도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희박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계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배제 시킨다.

기후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문제일 수 없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³⁴⁾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가 더 나은 체제를 지향하고 늘 개선하려는 방법을 찾는 한에서, ‘나’는 연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나’와 ‘타자들’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 되기, 이것은 우리가 연대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번의 선택이 주변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³⁵⁾ 나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행동이 될 것이다. 나의 가치와 행동을 우리 그리고 세계에 일치시켜나가면 한층 건강한 지구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선한 의지의

33) 나오미 클라인 저, 이순희 역, 『미래가 불타고 있다』, 앞의 책, 25쪽.

34) 그레타 툰베리 외 저, 이순희 역,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감수, 앞의 책, 227쪽(엘린 안나 라바, 「사프미의 겨울」).

35) 엘리스 존슨·브렛 존슨·로스 핸플러 저, 장상미 역,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안내서』, 동녘, 2012, 31쪽.

내 행동 변화는 내가 한 그만큼의 변화만 만들어 내지만, 공동체 속 선한 의지의 영향은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진짜 불행이 거의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³⁶⁾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6) Emmanuel Levinas, *Les imprévus de l'histoire*, Le Livre de Poche, 2008, p.185.

■ 참고 문헌

- 그레타 툰베리 외 저, 이순희 역,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감수, 『기후 책』, 김영사, 2023.
- 나오미 클라인 저, 이순희 역, 『미래가 불타고 있다』, 열린책들, 2021.
- 로버트 A. 달 저, 김왕식·장동진·정상화·이기호 역, 『민주주의』, 동명사, 1999.
- 사이토 고헤이 저, 김영현 역,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다다서재, 2021.
- 시노하라 마사타케 저, 조성환·이우진·야구 마코토·허남진 역, 『인류세의 철학: 사변적 실재론 이후의 ‘인간의 조건’』, 모시는 사람들, 2022.
- 에픽테토스 저, 김재홍 역, 『에픽테토스 강의 3·4』, 그린비, 2023.
- 엘리스 존슨·브렛 존슨·로스 햄플러 저, 장상미 역,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안내서』, 동녘, 201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주 구체적인 위협』, 동아시아, 2022.
- 임마누엘 칸트 저,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12.
- 임마누엘 칸트 저,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4.
- 존 롤즈 저,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12.
- 콰메 앤터니 애피아 저, 실천철학연구회 역, 『세계시민주의』, 바이북스, 2009.
- 클라이브 해밀턴 저, 정서진 역, 『인류세』, 이상북스, 2020.
- Levinas, Emmanuel., *Les imprévus de l'histoire*, Le Livre de Poche, 2008.
- Levinas, Emmanuel.,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Le Livre de Poche, 2009,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대하고 긴박한 문제로서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한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은 지금까지 자연 자원의 무한한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사유하는 국민 국가적 서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일체의 소속감을 벗어던지게 하는 세계와의 관계를 구성하게 된 오늘날의 인간은 세계의 총체적 문제와 연관되어 직면해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간이 지구(세계)로부터 축출될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인간은 따라서 이 문제를 시대적 사명으로 받들든지, 시대의 운명으로 받아들일지의 기로에 서 있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지속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실천을 약속했다.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 공동의 관심사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숙고의 기회를 가질 교육이 더욱 요청된다. 기후 위기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민주주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가 더 나은 체제를 지향하고 늘 개선하려는 방법을 찾는 한에서, 우리 모두가 민주 시민으로 세계시민이 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민주시민, 세계시민, 기후 위기, 기후 대응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

■ Abstract

Becoming a Cosmopolitan as a Democratic Citizen : Necessity for climate crisis response education

Kim, Young Geol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in order to become a cosmopolitan as a democratic citizen in today's globalization era, attempted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climate crisis response education on the global warming problem as the most critical and urgent issue for us.

Until now, humans have not escaped the national narrative of thinking as beings granted the right to use natural resources indefinitely. However, today's human beings, who have formed a relationship with the world that sheds all sense of belonging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re faced with the world's tot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is the most serious problem among them, and it will lead to the crisis that humans will be expelled from the Earth. Therefore, humans are at a crossroads whether to accept this issue as the mission of the times or the fate of the tim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t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continuation of mankind and promised to implement them by 2030. Climate change is currently a common concern for humanity, and it is a problem that all nation-states must bear a common responsibility to urgently address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climate crisis cannot be a matter of just giving up if you cannot get over it. More education is required to have an opportunity to seriously consider this matter. The climate crisis could endanger everything about us, including democracy. Without democracy, it would be difficult to eve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we face. As long as democracy aims for a better system and always finds ways to improve it, if we all become cosmopolitan as democratic citizens, we will be able to demonstrate actions beyond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a better world for future generations.

Keyword • Democratic citizen, Cosmopolitan, Climate crisis, Climate response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 논문투고일:2024.06.23. ■ 심사완료일:2024.07.10. ■ 게재확정일:2024.07.22. ■

어린이집 영아반의 낮잠 시간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

: 초임 영아교사와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박 윤 자*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낮잠 시간 운영의 문제점
3. 효율적인 낮잠 시간 운영을 위한 방안
4. 맺음말

1. 시작하는 말

2023년 7월 26일 대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살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¹⁾ 최근에는 2022년에 생후 9개월인 영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낮잠을 재우기 위해 영아를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되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에서의 낮잠 시간에 일어나는 질식사나 아동학대 등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어린이집, 낮잠, 사망” 관련 기사를 빅카인즈를 통해

* 배재대학교 부속어린이집 원장

1) 김유민, “입에 토사물...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3살 여아 돌연 사망”, <서울신문>, 2023.07.26.

이순례(2004)에서 유아에게 낮잠은 충분하고 편안한 깊이 자는 것이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하였다. 김명순 외(2005)에서는 영아의 신체적 안녕과 건강에 직결되는 항목에 영양, 수면, 휴식 등이 있으며, 낮잠과 휴식은 영유아들에게 건강 유지, 감염 예방의 기초 조건이 되고, 영유아 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허혜경 외(2007)에서 수면 시간에 대해 영아는 하루에 낮잠을 포함하여 12 ~ 15시간의 수면이 필요하고, 오전과 오후에 1회씩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특히 영아들의 생체리듬은 대체로 오전 9시부터 상승하다가 11시가 지나게 되면 하락하는 데 따라서 영아들이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효율적인 오후 활동과 일과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낮잠이 필요하다(삼성어린이개발센터, 2002). 어린이집 평가매뉴얼(한국보육진흥원, 2024)에서도 영유아는 일과 중 낮잠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때 개별적인 영유아의 낮잠 습관을 수용하고 잠을 못 이루는 영유아의 경우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아의 발달 특성상 낮잠은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 요소이다.

이처럼 중요한 낮잠 시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교사일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주로 유아와 관련한 교과목 위주이고, 영아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어 예비교사들은 영아의 발달과 특징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가 부족하다.³⁾ 특히 보육 실습 때 경험한 낮잠 시간은 주로 경력 있는 지도 교사들의 노하우가 반영된 안정된 상태의 낮잠 시간을 경험한 것이다.

영아기에 충분한 낮잠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으며, 주의력이나 집중력 등 조절 능력과 판단력 부족으

3) 탁정화·황해익,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7권 2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2.

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이슬기, 2007), 잠을 자는 동안 뇌 세포는 쉬게 되어 기억을 재정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억력이 강화되어 낮잠은 신체적인 피로 해소 외에도 뇌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명순 외, 2005).

그러나 영아반을 처음 담당한 초임 교사는 영아에 대한 기본적인 발달 지식과 보육 경험의 부족으로 낮잠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낀다. 더구나 다수의 영아가 있는 교실에서 개별적 낮잠 패턴을 맞출 수 없음에도 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교사의 자질과 역량 부족을 제기하게 된다. 이는 예비 유아교사의 교육과정이 대체로 유아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여 영아의 발달 및 영아반의 일과 진행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임 교사들이 영아반을 담당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간 중 하나인 낮잠 시간 운영의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과 영아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개별화 보육 수행을 위한 효율적 운영 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낮잠 시간 운영의 문제점

1)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어린이집의 일과 중 낮잠 시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이슬기, 2008)을 살펴보면 교사와 부모는 낮잠 시간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부모의 요구 수용에 대한 압력이 있으며, 학부모는 낮잠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슬기(2007)에서는 영아들은 장시간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친구, 교사, 다른 성인 등 인적 요인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감이 누적된다고 하였다.

낮잠을 통해 휴식을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로감은 영아의 성장 발달을 저하하거나 감기 등 질병에 쉽게 노출할 것이며, 집중력이 떨어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래와의 다툼 또한 잦아질 수 있으며, 영유아들은 피로를 표현할 때 까다롭게 굴거나 주의 산만한 행동, 쉽게 울음을 터뜨리거나 상황에 과잉 반응하기, 다른 유아와 성인을 방해하거나 무관심, 멍함, 비활동성 혹은 과잉 활동성으로 표현된다(조경자, 2004).

하지만 영유아들은 한번 놀이에 열중하게 되면 피곤한 것을 개의치 않으며 잠을 자고자 하는 신체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정미라, 배소연, 이영미, 2006), 정작 자신 스스로 휴식을 취해야 함을 의식할 수 없으므로 교사들은 영아들이 쉴 수 있는 적절한 휴식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낮잠 시간 편성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낮잠 시간에 특기 적성 활동 진행, 놀이 프로그램 진행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⁴⁾

낮잠 시간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필수 요소이며, 낮잠 시간이 영아와 교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 필요가 있다. 낮잠 시간이 영아들을 재운 후 이루어지는 교사의 휴식 시간이 아니며, 돌봄과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영아 보육의 필수적인 시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낮잠 시간이 영아 보호와 영아의 교육 활동 시간임을 제시하여 예비교사와 학부모, 낮잠 시간이 불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하고, 영아에게도 더욱더 안정적이고 신체와 정서 발달의 낮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낮잠 시간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2) 적응과정에서의 겪는 영아의 어려움

4) 박윤자·이대균, 「영아반의 낮잠시간이 갖는 의미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6권 2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2, 2쪽.

영아들이 낮선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신학기에 교실 환경도 낯설고 교사와 애착도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낮선 선생님, 낮선 친구들과 잠을 자야 하는 것은 영아들에게 어려운 시간이다.⁵⁾

또한 맛별이 가정의 영아는 부모의 이른 출근 시간으로 등원도 빠르다. 빠른 등원의 영아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등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아는 오전 활동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원하는 일이 있지만, 다른 영아의 등원이 시작되면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루 중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영아교사는 영아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 요소인 휴식과 낮잠이 필요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영아가 보이는 행동으로 알게 된다. 영아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품하기도 하거나 짜증을 보이는 등 체력 소진의 모습이 보이며, 울음 등 영아의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 영아교사는 그 상황에서 보호자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이야기를 하며, 영아의 기분과 부정적 정서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어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아의 나이가 낮아지면서 주 양육자를 대신하여 영아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영아와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어린이집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와의 관계에도⁶⁾ 적극적이다. 이처럼 영아와 교사와의 관계 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아가 교사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고 애착 관계를 맺게 되면 영아의 적응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⁷⁾ 것처럼 영아와 교사와의 안

5) 박윤자·이대균, 앞의 논문, 194쪽.

6) 배미연·이순복,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교사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권 2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4, 340쪽.

7) 박선준·김성원,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인문사회 21』 18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1002쪽.

정적 애착 형성은 어린이집 일과에서 모든 활동 준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3) 초임 교사가 겪는 낮잠 시간 운영의 어려움

영아는 발달 특성상 자신의 의도나 생각 등을 언어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실제로 보육 현장에서는 언어적으로 의사 표현이 되지 않는 영아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영아의 마음 읽기에 실패하는 때도 있다.⁸⁾ 그런데도 영아교사는 영아에게 지속해서 말을 하고 상호작용을 시도하지만, 반응이 없거나 울음을 보이거나 짜증을 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초임 교사의 경우 영아를 접해본 시점이 거의 보육 실습 기간이 대부분이었기에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영아교사가 영아의 마음 읽기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영아는 교사를 신뢰하고 따를 수 없게 된다.⁹⁾ 영아-교사 관계가 친밀하고 갈등과 의존이 낮을수록 어린이집 적응이 잘 이뤄짐을 알 수 있으며, 교사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은 안정적인 영아의 교사 애착 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¹⁰⁾

대체로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중 낮잠은 점심시간 및 양치질 후 편성한다. 활동적인 놀이시간과는 달리 영아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적인 분위기를 마련해야 하는 낮잠 시간의 고유성으로 교실은 낮잠 자는 공간으로 바뀐다.

잠자는 시간을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영아들은 이불과

8) 임승렬·전방실·곽한나·조은비·김덕희·김영란, 「영아반 하루일과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양상과 그 의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8권 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426쪽.

9) 위의 논문, 426쪽.

10) 배미연·이순복, 앞의 논문, 353쪽.

요, 베개 등 준비하는 환경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이러한 환경을 좋아하기도 한다.¹¹⁾ 그러나 어떤 영아는 교실 불이 꺼짐과 동시에 울음으로 불안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각각의 개별적 특징을 지니고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영아 이기에 교사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파악하기보다는 보호자를 통해 영아들에게 효율적인 개별 수면 습관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보호자의 역할인 가정과 어린이집 생활의 중간 연결자(김현주, 2011)로서 영아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적절한 교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초임 교사의 양육 무경험, 경력 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초임 교사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초임 교사를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거나 초임 교사의 전문성을 의심하여 그것을 확인하려는 경우¹²⁾도 있어 초임 교사는 영아의 수면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한 부모와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

3. 효율적인 낮잠 시간 운영을 위한 방안¹³⁾

1) 대상별 지원활동

영아들의 편안한 낮잠 진행의 가장 기초적 환경 준비는 첫째, 잠자는 분위기 제공을 위해 커튼을 내리거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둘째, 영아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정하고 각각 영아의 매트를 펴고 이불과 베개, 개인 애착물을 준비한다. 영아에게 애착물은 놀이시간이 아닌 낮잠 시간에 보호자를

11) 노희연, 「어린이집 영아반 하루일과의 의미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8권 4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4, 469쪽.

12) 김필선·이성환, 「어린이집 영아반 초임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처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아동연구』 32권, 고신대학교 아동연구소, 2022, 107쪽.

13) 효율적인 낮잠 시간 운영을 위한 방안은 어린이집 15년 이상 보육경력을 지닌 A, B, C, D 총 4명의 원장과 검토를 거쳐 구축한 자료임.

대신할 수 있는 대상물로 영아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영아들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 조용한 음악을 준비한다.

이처럼 영아의 편안한 낮잠 지원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영아교사는 영아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영아의 기질이나 기본생활 습관 등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영아교사는 정보의 공유를 위해 개별 영아에 대하여 등·하원 시 전달하거나, 전화 통화, 알림장 등을 통해 부모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 부모의 협조와 교류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초임 교사의 경우 부모와 소통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효율적인 낮잠 시간운영과 관계된 대상을 영아, 부모, 교사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대상과 관련한 지원활동과 목표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상별 지원활동 내용

대상	지원활동	활동 목표와 내용
영아	보육실 내 가족사진 게시	엄마 아빠나 주 양육자가 보고 싶을 때 이용하도록 하며, 교실 공간이 편안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애착 물건	영아가 좋아하는 애착 물건(인형, 물건, 이불, 베개, 덮는 이불 등)을 지원해 주어 낯선 곳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래	함께 자고 싶은 또래와 자리 배치하여 영아의 심리적 안정감을 돕는다.
	수면 패턴 파악	영아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의 민감한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교사 애착 형성	교사는 영아가 낮잠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영아의 신호와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일과 중 긍정적 애착 형성을 하여 신뢰감을 형성한다.
부모	부모교육 및 면담	낮잠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관련한 부모 교육 자료와 어린이집 낮잠 시간 운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다. 또한 부모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서 느끼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

부모	스마트 알람장 활용	영아의 낮잠 시간을 제공하여 가정에서의 밤 수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밤 수면이나 아침 기상 시간,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받아 낮잠 시간 운영에 도움을 받는다.
	정보교류	입학 전 영아의 수면 패턴(낮잠 시간, 횟수, 방법, 애착 물건, 음악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정에서도 낮잠에 대해 준비하도록 돕는다. 특히 수면 시 애착 물건, 재울 때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교류하여 영아의 심리적 안정감을 돕는다.
교사	영아의 수면과 관련한 정보 수집	영아의 수면 패턴에 관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영아를 이해하고 개별적인 지원과 배려,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데 활용한다. 또한 낮잠 자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가정과 매일 소통하여 영아의 긍정적 적응을 돕는다.
	교사 교육 및 면담	영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 적응과정에 대한 지식, 긍정적 상호작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원장이나 경력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과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도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조 인력지원	낮잠 시간은 특히 개별 지원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조 인력 지원을 통해 영아의 개별화 교육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2) 낮잠 시간 운영과정의 구체적 실행 방안

박윤자(2012)의 연구에서 영아들은 잠을 잘 때 옆에 누군가 있기를, 젖병을 물고 잠자기, 엎어서 잠자기, 점심 전에 잠자기,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잠자기, 혼자 잠자기, 잠을 안 자기 등, 각 영아의 수면 습관은 영아의 수면 습관 다양하다고 하였다. 각 영아의 월령 차이와 가정에서의 개별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언어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여러 가지 행동, 울음, 표정, 몸짓, 짜증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다. 이에 영아교사는 그 속에 담겨있는 신호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한 사려와 민감함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개별 수면 습관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낮잠 시간에도 표출될 수 있어 세심한 관찰과 개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아의 수면 습관 중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자거나, 옆드려 자기도 하는

영아가 있고, 감기로 인한 코막힘, 발열, 기침 등으로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일도 있으며, 간혹 열경련을 동반한 건강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교사들은 영아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지속해서 영아의 낮잠 상황을 확인하고 민감하게 지켜봐야 한다.

이에 초임 교사가 원활한 낮잠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낮잠 자기 전, 낮잠 재우기, 낮잠 자는 중, 낮잠 깨기로 진행 순서를 구성하였고, 각 순서에서 진행할 효율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낮잠 시간 운영과정의 효율적 실행 방안

진행 구분	내용
낮잠 자기 전	실행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아가 어린이집 일과 중 일정한 패턴으로 낮잠 시간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예- 점심 후 양치, 배변 활동, 낮잠 순 진행) 2. 영아가 편안한 낮잠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 3. 영아 스스로 이불을 찾아 누울 수 있도록 한다.
	실행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아에게 낮잠 시간임을 미리 안내한다. 2. 영아의 대소변 활동을 진행한다. 3. 블라인드와 조명을 끄고 교실 환경을 낮잠 자는 분위기를 만든다. 4.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리를 정하고, 정해진 자리에 이불 매트를 편다. *영아의 신체 움직임이나 행동반경, 수면 시간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 5. 영아의 개별 애착 물건을 준비한다. 6. 조용한 음악 켜다. 7. 영아가 스스로 내 이불을 찾아 누울 수 있도록 돕는다.
	준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실 내 낮잠 자는 공간 선정 *영아의 개별 자리 정하기 *개별 영아 애착 물건 확인 및 준비 *조용한 음악 선정 *조명 확인-블라인드, 커튼 이용
낮잠 재우기	실행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 영아의 낮잠 특성을 반영하여 편안한 낮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개별 지원과 신체접촉을 통해 교사와 신뢰감을 형성한다. 3. 낮잠 재우는 방법 중 영아가 선호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4. 또래와 함께 잠을 자는 긍정적 활동을 통해 사회화를 경험한다.

낮잠 재우기	실행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트에 누운 영아와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다. 2. 교사는 영아의 옆에서 낮잠 자기를 도와준다. 3. 개별 영아가 선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교사는 낮잠을 재운다. : 상호작용 지원(스스로 누웠구나, 낮잠을 자려고 노력하는구나. 대단한데 등) : 어깨 토닥여주기 : 신체 쓰다듬어주기 (다리, 종아리 등) : 발 만져주기 : 눈썹 만져주기 : 가슴 토닥이기 : 작은 소리로 자장가 불러주기 : 혼자 자기 : 이불 덮고 싶지 않은 영아 이불 제거하여 주기 4. 영아가 낮잠을 들면 이불을 덮어주거나 주변을 정리한다. 5. 낮잠 시 커 둔 음악 소리의 음량을 조절한다.
	준비 사항	* 개별 영아가 선호하는 재우기 유형 파악
낮잠 자는 중	실행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낮잠 자는 영아의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안전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다. 2. 낮잠 중 일어나는 영아의 신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 주어 신뢰감을 형성한다.
	실행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교실에 있으면서 안전한 낮잠이 진행되도록 영아의 낮잠 상황을 지속해서 살핀다. 2. 교실 내 온도 및 환경 상황을 살핀다. * 냉난방을 사용하는 계절은 특히 실내 온도 확인 3. 낮잠 자는 영아의 모습에서 필요한 점이 있으면 즉시 지원한다. : 이불 덮어주기 : 베게 베어주기 : 기침할 때 베게 높이를 조절하거나 물 권하기 : 뒤척이는 행동 시 확인하고 발열 체크하기 : 낮잠 자는 중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면 즉시 대응하기 * 기침, 코막힘, 거친 숨소리, 앓는 소리, 식은땀, 상기된 얼굴 등 3. 일찍 깬 영아나 낮잠을 자지 않는 영아가 있는 경우 휴식을 권해본다. 4. 휴식이 필요 없으면 교실에서 함께 조용한 놀이를 하거나 보조 인력이 있는 경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놀이한다.
	준비 사항	* 조용한 놀이 및 대체 활동, 보조 인력
낮잠 깨기	실행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아가 편안하게 일어나 오후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2. 영아 스스로 자신의 이불을 정리하며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 받는다. 3. 추후 낮잠과 관련한 내용을 가정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낮잠 깨기	실행 방법	1. 밝은 음악을 켜고 조명을 밝게 한다. - 영아들의 상황에 따라 소리나 조명 밝기 조절할 수 있음. 2. 교사와 영아 간 스킨십을 하여 영아가 편안함을 느끼며 일어나도록 한다. 3. 기지개를 켜며 스트레칭을 함께 한다. 4. 영아와 함께 이불을 정리한다. 5. 이불 위에서 더 누워있고 싶은 영아가 있으면 쉴 수 있도록 한다. 6.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7. 낮잠 후 배변 활동을 진행한다. 8. 낮잠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여 가정에 정보를 제공한다.
	준비 사항	* 경쾌한 음악 준비
기타 준비 비품		1. 침구 보관장 2. 개별 침구- 매트(요), 베개, 덮는 이불 3. 이불 가방 4. 음악이나 동화 관련 서적

4. 맺음말

영아들은 신체적 피로감으로 여러 행동이 나타난다.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 친구와 갈등, 울기, 보챔이 많아지는 등의 피로감 표출 행동을 보인다. 그런데 피로감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완벽히 해소되어 오후 활동을 활기차게 하는 ‘에너지 충전 시간’¹⁴⁾이 된다. 이처럼 영아들에게 낮잠은 피로감을 해소하고, 해소된 피로감은 심리적 안정감과 또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영아들에게 낮잠은 꼭 필요하다.

이 연구는 어린이집 초임 영아교사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낮잠 시간 운영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낮잠 전략 실행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으로 개별 영아의 특성을 반영한 낮잠 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영아의 편안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 일상에서 교사와

14) 박윤자·이대균, 앞의 논문, 206쪽.

일대일의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자신이 욕구가 잘 반영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교사의 배려가 필요¹⁵⁾하다. 그러기 위해 교사와 부모는 영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협력해야 한다. 이 협력은 영아가 어린이집 적응에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소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는 영아의 어린이집 경험을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교사와 영아의 친밀관계는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영아의 사회성, 주의 집중력,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 간의 경로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남 외, 2014).

영아들은 기관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낮잠 시간에 불안함을 느낀다. 교실의 커튼을 치거나 조명이 꺼지는 상황은 놀이시간과 다르게 조용하고 어두워지는 환경변화에서 불안함을 느낀다. 영아의 불안감은 울음과 엄마를 찾음, 낮잠 거부,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잠을 설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들은 집에서 사용했던 베개, 이불, 인형, 우유병 등을 찾기도 하였다.¹⁶⁾ 이는 이용주(2004)의 연구에서 영아의 애착물은 엄마와 어린이집을 매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여 부모 대신 안전 기지로 삼는다는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어린이집에서의 낮선 환경 극복을 위해 엄마 대신 개인적인 물건에 심리적인 의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낮잠 시간 운영과정에서도 영아교사는 부모와의 협력으로 개별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낮잠을 잘 때 각 영아가 다양한 개별적인 수면 습관을 지니고 있어서 영아마다 재우는 방법이 다름을¹⁷⁾

15) 노희연, 앞의 논문, 473쪽.

16) 박윤자·이대균, 앞의 논문, 205쪽.

17) 박윤자·이대균, 앞의 논문, 200쪽.

알아야 하며, 영아교사는 영아마다 수면 패턴이나 애착물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영아에게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개별 영아 지원을 위한 인력지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감소이다. 낮잠 시간은 영아마다 각자 지닌 수면 패턴이 있어 교사 혼자 다수의 영아를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학기 초 일과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거나,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못한 영아, 놀이하다가 졸려 하는 영아(박근주 외, 2020)가 있는 경우 교사는 개별 영아가 처한 상황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조혜경(2010)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주로 담임을 맡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의 보육을 지원하는 인력은 배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 연구 결과와 교사 1인의 담임 체제의 열악한 보육환경이 결국은 보육의 질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조혜진(2007)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어린이집은 낮잠 자는 시간에 영아의 생리적 타이밍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영아 개개인별로 편안하게 잘 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¹⁸⁾

영아 보육의 질은 각 영아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개별화 교육의 지원 정도에 의해 좌우되므로 영아의 개별적인 욕구를 수용해 주지 못함은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양질의 영아 보육을 위한 선행 조건은 교사 대 아동의 낮은 비율이다. 영아 보육의 핵심이 개별화 교육임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별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만약 반별 정원 조절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각각의 영아반에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는 영아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 환경(이진희, 임진형, 2004)이고 좋은 영아 담당 교사는 신체적 건강이 필수 조건(백승선, 2010)이기에 교사의 건강한 에너지 충전을 위해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지성애, 2011)과 대체 인

18) 노희연, 앞의 논문, 474쪽.

력지원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셋째, 영아교사를 위한 지속적 교육이다. 영아교사들은 교사 양성과정에서 대부분 유아교육 과정과 이론 위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영아반을 맡았을 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조예진, 2007). 영아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질이라 할 수 있으며, 영아 보육의 성공 열쇠는 교사의 몫일 것이다. 영아의 낮잠 진행 과정을 낮잠 전 준비, 낮잠 재우기, 낮잠 자는 중, 낮잠 깨기의 순서로 살펴보았는데 각 단계에서 교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영아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낮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성장에 기초인 영아기에 충분한 양질의 보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전 교육에서 영아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론과 실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영아교사는 단순히 돌봄을 진행하는 교사가 아니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교육을 끌어내는 전문적인 교사이다. 예비 유아교사는 영아교사가 되거나, 유아교사가 되기도 한다. 지성애(2012)의 연구에서 초임 교사들은 예비 교사 시절 영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영아를 처음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예비 유아교사들에게 영아 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영아교사가 된 후에도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영아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장학 및 연수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김필선·이성한, 「어린이집 영아반 초임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처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아동연구』 32호, 고신대학교 아동연구소, 2022, 93-112쪽.
- 김현주, 「보육시설 적응 프로그램의 개별 실시에서 나타난 영아의 적응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노희연, 「어린이집 영아반 하루일과의 의미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8권 4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4, 457-474쪽.
- 박근주·강경민, 『영아와 교사 상호작용의 실제』, 공동체, 2020.
- 박선준·김성원,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인문사회 21』 18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983-1010쪽.
- 박윤자·이대균, 「영아반의 낮잠시간이 갖는 의미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6권 2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2, 187-214쪽.
- 백승선, 「좋은 교사의 특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배미연·이순복,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교사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권 2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4, 339-360쪽.
- 삼성복지재단, 『영유아프로그램 총론』, 다음세대, 2007.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린이연구원,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상생활 지도』, 파란마음, 2020.
- 이슬기,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슬기,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제」, 『육아지원연구』 3권 1호, 한국육아지원학회, 2008, 147-170쪽.
- 이용주,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나타난 만 1세 영아의 체험 연구」, 『열

- 린유아교육연구』 9권 9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4, 169-193쪽.
- 이진희·임진형, 「영아전담보육교사의 어려움과 요구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4권 2호, 한국보육학회, 2004, 193-215쪽.
- 임승렬·전방실·곽한나·조은비·김덕희·김영란, 「영아반 하루일과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양상과 그 의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2호, 학습자중심교육학회, 2018, 425-449쪽.
- 정미라·배소연·이영미, 『유아건강교육』, 양서원, 2006.
- 조경자·이현숙, 『유아건강교육』, 학지사, 2004.
- 조혜경,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9권 1호, 한국아동교육학회, 2010, 83-95쪽.
- 조혜진,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학논집』 11권 2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07, 237-263쪽.
- 지성애, 「영유아 권익 우선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 23-47쪽.
- 탁정화·황해익,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7권 2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2.
- 한국보육진흥원,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한국보육진흥원, 2024.

■ 국문초록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은 영아의 신체와 건강, 안녕에 중요한 일과이다. 중요한 일과인 낮잠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교실 환경과 교사에 대해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아교사는 영아의 개별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려와 개별화 보육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임 교사가 영아반을 처음 담당하였을 때 영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부모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낮잠 시간 운영이 어려운 시간으로 다가온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반을 담당하는 초임 교사들의 효율적인 낮잠 시간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낮잠 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와의 협력, 개별 영아 지원을 위한 인력지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영아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 어린이집, 일과 운영, 낮잠, 영아, 영아교사

■ Abstract

The Meanings of Nap Time to Infants and Infant Teachers

Park, Yun Ja / PaiChai Daycare Center

Nap time in daycare is a crucial routine for the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 of infants. For teachers to effectively manage this important nap time, it is essential for infants to feel comfortable and familiar with both the classroom environment and the teacher. Accordingly, infant teachers need to provide individualized care and attention to meet each child's specific needs. However, for novice teachers taking charge of an infant class for the first time, nap time can be challenging due to a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infants, as well as due to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parents. This study aims to assist novice teachers in effectively managing nap time when they are responsible for an infant class. The results indicate that successful nap time management requires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additional personnel support to cater to individual infant needs and reduce the teacher-to-child ratio, an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fant teachers.

Keyword • Daycare Center, Daily Operation, Nap, Infant, Infant Teacher

■ 논문투고일:2024.06.16. ■ 심사완료일:2024.07.10. ■ 게재확정일:2024.07.22. ■

어른을 위한 동화 활용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 기 자*

목 차

1. 들어가며
2. 대학생 독서치료와 회복탄력성
3. 회복탄력성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4. 효과 분석
5. 맺음말

1. 들어가며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적 전환기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과 경쟁에 직면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대인관계 문제, 대학 생활 적응, 경제적인 문제, 진로 및 취업 등 다양한 과업에 직면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극복해 내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힘을 기르는 것은 앞

*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으로의 삶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력, 즉 회복탄력성을 키운다면 삶의 역경에 처해도 긍정적 대처를 통해 새롭게 적응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더 나아진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로부터 가장 좋은 교육의 매체로 활용되어온 독서를 통해 그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책을 매개로 읽는 이의 삶을 들여다보고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독서치료는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른을 위한 동화는 대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과 내적 성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른을 위한 동화는 인간 삶의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어 어른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통찰과 힘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어른을 위한 동화를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생 독서치료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 독서치료에 활용된 어른을 위한 동화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중요 개념인 회복탄력성에 대하여 살펴본 후 실제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이를 위해 선정된 어른을 위한 동화의 서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반응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행 후의 양적 효과를 분석하여 참여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해석할 것이다.

2. 대학생 독서치료와 회복탄력성

1) 대학생 독서치료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적 전환기로, 독립적으

로 살아가며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과 경쟁에 직면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대인관계 문제, 대학 생활 적응, 경제적인 문제, 진로 및 취업 등 다양한 과업에 직면한다. 또한 급격한 기술 발전과 온라인 환경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은 모바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러스 문제, 기후 변화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가족 구조의 변화로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며 가정이 주는 안전한 보호막이 약화되어 정서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더 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²⁾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힘, 즉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다시 회복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갈 경우 역기능적인 심리상태와 행동으로 자신의 삶이 피해를지거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

역경과 고난에 처해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일컫는 회복탄력성에 관한 대학생 대상 연구는 교육학, 상담심리학, 가정학, 사회복

1)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학생의 휴대폰 사용률이 7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2023.07.18.

2) 이정석, 「[작가론] 류근원 장편동화에 나타난 가족의 회복탄력성 분석」, 『아동문학평론』 46권 4호, 아동문학평론사, 2021, 87쪽.

3) 이한우·김정은,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회복탄력성 연구」, 『정서·행동장애 연구』 33권 3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2017, 22쪽.

지학, 간호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서치료 방법을 적용한 대학생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독서치료를 통한 회복탄력성 연구는 이 분야에 새로운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품격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독서는 큰 역할을 해왔으며, 좋은 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한 자기 성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고대부터 존재했다. 책 속 인물이나 상황들이 독자에게 학습모델이 되어 대리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실제 일상 생활에 대안을 제시해주곤 했다. 특히 문학은 그 자체의 속성만으로도 읽는 이로 하여금 타인의 상황과 생각,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독자 스스로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여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촉매작용을 해왔다. 이렇게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자신이 처한 문제에서 벗어나 삶을 조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경험은 책에 내제된 무한한 잠재력과 치유적 힘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책을 매개로 독자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문학이 가진 치료적 특성이며 독서는 바람직한 자기 성장을 유도하는 교육의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 책의 서사를 통하여 독자는 자기 서사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서사를 어떤 책 속 이야기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전개에 자신의 서사를 비추어 앞으로의 서사를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독서치료에서 자료의 선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책 내용 자체가 치료적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매개로 대화가 촉진되고 독후활동을 통해 사고가 확장되면서 참여자의 반응 및 변화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독서치료에서 자료는 참여자에게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게 하고, 문제의 치료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방이 될 수 있

다. 즉 책을 선정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에 이르게 함은 물론 또 다른 문제에 처했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독서치료 자료를 선정할 때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부분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 자체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 자료가 참여자들의 독서 능력과 정신적 발달 상태에 부응하여 자료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도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참여자의 독서력을 고려하여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매체 환경에서 자란 대학생들은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화되어 읽기 보다는 빠른 속도로 주어진 정보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려 한다.⁴⁾

이러한 대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일 수 있다.⁵⁾ 따라서 연구자는 대학생들을 책 읽기에 데려오고 그 책을 통해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른을 위한 동화 읽기를 시도하였다.

2) 어른을 위한 동화

최근 동화 읽는 어른 모임 등 파랑새를 찾아 떠났던 아이들이 이젠 어른이 돼 동화의 세계로 회귀하고 있다. 어른을 위한 동화 등의 이름을 단 동화 책들이 어른의 잠자던 동심을 깨우고 있는 것이다. 물신의 시대에 순수한 서정의 세계를 회복시키는 동화적 상상력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⁶⁾

또한 동화 속 인물들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 서사의 역동성을 만든다. 동

4) 최병우, 「정보화 사회와 독서 다매체 시대의 독서」, 『독서연구』 5권, 한국독서학회, 2000, 33쪽.

5) 연구자가 2023년 2학기 독서치료 수업 시간에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학생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박천홍, 「'동심으로의 회귀' 이끄는 성인동화들」, 『출판저널』 280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0, 38쪽.

화를 읽는 시간은 어른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재정립하는 경험을 안겨주며, 동화의 세계가 지닌 항상성은 위기에서 내려와 연락처 가능한 마음의 활주로를 열어준다. 오늘 엉엉 울었다 해도 내일 또 만나서 놀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한다. 본래는 불안에 잠 못 드는 어린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약속이었지만 지친 어른도 다독이는 말이다.⁷⁾

점점 빨라지는 삶의 속도, 기계화된 환경, 핵과 전쟁, 기후 변화와 실업 문제 등으로 인해 지친 이 시대를 살아 내기 버거운 어른들은 좀 덜 공격적이고 편안한 동화의 세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삶의 무게를 나눠지고 안정에 대한 허기를 메워줄 책이 바로 어른을 위한 동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른을 위한 동화는 어른들에게 동심을 회복시키고 정서적 지지와 내적 힘을 강화시켜 삶의 비상구가 될 수 있다.

어른을 위한 동화는 한때 어린아이였던 어른에게 그 기억을 되돌려 주는 동화를 말한다. 동심을 이념으로 하여 어린이를 위해 지어진 동화라 할 지라도, 인간 삶의 보편적 진리를 담아 어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심을 회복할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라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분류될 수 있다.⁸⁾ 어른과 어린이, 동화와 소설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볼 수 있다.⁹⁾ 즉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들이 읽어도 좋지만 어른들이 읽으면 더 좋은 동화라고 할 수 있다.

동화책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삽화와 단순한 구성, 시적 상상력과 감성적 문체가 담겨 있어 독자를 끌어당긴다. 독자들은 화자의 말 안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거나 화자가 전달하는 지식을 받아들여려 진을 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책을 읽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거나 책에

7) 김지은, “어른을 위한 동화와 어른들의 동화 읽기”, <경향신문>, 2021.04.24.

8) 이항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 읽기 시도(試考)」, 『한국민족어문학』 67호, 한민족어문학회, 2014, 512쪽.

9) 안도현, 『관계: 어른을 위한 동화』, 문학동네, 1998, 173쪽.

흥미가 없는 대학생들의 독서 부진, 일명 책맹 현상에 동화는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동화는 성인으로 살아가기에 버거운 어른들에게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늘과도 같다. 책을 읽으며 동화 속 순수의 세계로 빠져들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만의 세상에서 지친 마음에 긴 숨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동화 읽기는 그 자체로도 치료적 효과가 있다.

독서치료를 위한 책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참여자가 책 속 인물에 공감하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동화의 상황이나 인물들이 참여자의 내재된 긴장 상황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으며 독자는 자신의 문제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동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사회적 책임 이전의 어린 존재인 자신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화는 시대의 빠른 변화와 불안한 환경에서도 정서적 지지와 내면의 힘을 제공하며,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어른을 위한 동화가 대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내적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화를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다음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 방안을 살펴보겠다.

3. 회복탄력성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의 어원은 다시 뛰어오르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resilio*에서 유래했다. 이는 물리적으로 용수철에 힘을 가하여 압축시키거나 늘린

후 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¹⁰⁾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문헌에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되고 정의되며 주로 삶의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의 저항 능력 사이의 균형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이 용어는 내성, 탄력, 신축성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어려운 생활 상황이나 부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응과 극복을 의미한다. 주로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 발달 위험에 대한 정신적 내성을 지칭한다.¹¹⁾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거나 적절하게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되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회복탄력성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역경과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결국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¹²⁾

김주환 등은 한국인 실정에 맞게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을 크게 세 가지 상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며, 이 상위 요인은 다시 감정조절능력, 충동조절력, 원인 분석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 확장력, 생활 만족, 감사하는 태도, 자아 낙관성 등 아홉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뉜다. 각 요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

10) 박남수,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마음챙김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권 1호, 2017, 6쪽.

11) Fröhlich-Gildhoff, Klaus, “Kinder stärken!-Die Förderung der seelischen Widerstandskraft (Resilienz) in Kindertageseinrichtung und Familie”, Bad Nauheim: Evangelische Hochschule Freiburg, Zentrum für Kinder- und Jugendforschung, 2022.

12) 이보배,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9쪽.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정조절력,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는 충동조절력,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 방안을 찾는 원인 분석력으로 구성된다.¹³⁾

둘째,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며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은 회복탄력성의 단단한 기초가 된다. 사람을 잘 사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위기에 강하기 때문이다.¹⁴⁾

셋째, 긍정성은 앞의 두 가지 요소인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긍정적 정서를 키우는 것은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과 나눔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행복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며, 타인에게 행복을 나눔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일구는 능력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이 강한 회복탄력성을 지닌다.¹⁶⁾

회복탄력성의 정의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내외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을 때 새롭게 적응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더 나아진 수준으로 향상되는 능력을 의미한다.¹⁷⁾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멀리 뛰어오르고, 실패를 극복하여 승리

13) 김주환,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2011, 93쪽.

14) 김주환, 위의 책, 156쪽.

15) 김주환, 위의 책, 219쪽.

16) 김주환, 위의 책, 220쪽.

17) 박남수, 앞의 책, 6쪽.

를 쟁취하며,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 한다.¹⁸⁾

위기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극심한 부담을 느낀다. 이때 우리를 보살피 주고 어려운 길을 당당하게 걷도록 지지해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새롭고 힘찬 힘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 속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독서치료적 방법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독서치료 참여자는 책 속에서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등장인물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그들의 대처 방식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학생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책은 다양한 인간 유형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엮여가는 관계 양식,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독자는 털어놓기 힘든 문제들을 이야기 속 서사에서 만난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이나 고민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을 아는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다. 이러한 독서치료적 경험은 작품과 독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독자는 책 속 인물과 동일화를 통해 감정의 정화과정을 거쳐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삶을 조망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독서치료의 원리이며 책이 담고 있는 서사성이 무한한 잠재력과 치료적 힘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본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이러한 독서치료적 원리를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김주환 등이 제시한 회복탄력성 항목에 적합한 주제를 담고 있는 어른을 위한 동화를 독서치료

18) 박남수, 앞의 책, 5쪽.

자료로 선정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을 토대로 이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을 위한 동화를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동화를 독서 치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자기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동화 읽기, 둘째,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동화 읽기, 셋째, 긍정성 증진을 위한 동화 읽기이다. 각 동화는 특정 단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였지만, 동화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엄격한 단계 구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진행 시 각 단계에 맞게 동화를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양 독서치료 수업을 통하여 실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참여 대학생들에게 해당 학기 전체 주제가 독서치료를 통한 회복탄력성 향상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여자¹⁹⁾들이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그 의미와 적용방안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안내받은 동화를 미리 읽고, 공감하는 부분을 표시하며 그때의 감정을 기록한 후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러한 독서 체험은 참여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이의 이야기, 즉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때로는 깊은 감정을 경험하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인용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동화 텍스트는 참여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고 회복의 동력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다. 참여자들이 읽고 회복탄력성이 부족하여 일어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 회복탄력성의 주요소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19) 이 연구에서 독서치료는 임상적 치료의 의미보다 발달단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참여 대학생들을 참여자로 부르기로 한다.

능력, 긍정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된 부분이다. 참여자들이 쓴 글을 제시함으로써 어른을 위한 동화 활용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그들의 회복탄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3) 어른을 위한 동화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1) 자기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동화

① 정호승, <가장 아름다운 꽃>

여기에서 꺾고 싶은 꽃을 하나 꺾어 보거라.

그녀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정원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꽃병에 꽂듯이, 하느님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먼저 꺾어 천국을 장식한단다. 애야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²⁰⁾

② 독서치료적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인용된 동화 <가장 아름다운 꽃>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장면은 감정 조절 능력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슬픔을 공감하며 그녀의 아픈 감정을 수용하고 존중한다. 이러한 위로의 행동은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정서적 치유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시아버지의 위로는 간단한 말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동화는 참여자들에게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도 유익하였다. 동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와 위로를 하는

20) 정호승,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정호승의 인생동화』, 해냄, 2011, 64쪽.

방법도 배웠다.

이 동화를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를 길러주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픔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하던 내게 건네는 위로처럼 느껴졌다.²¹⁾

③ 정호승, <꽃씨>

꽃씨 속에는 꽃이 분명히 있어.

다만 하늘의 바람과 햇살, 땅의 흙과 물이 한데 마음을 합쳐야만 꽃은 피어날 수 있는 거야.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니란다.²²⁾

④ 독서치료적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인용된 동화 <꽃씨>는 참여자들이 충동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 동화는 꽃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우리가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참는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화에서 소년이 꽃을 보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꽃씨를 칼로 파는 행동은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한다. 이는 충동적인 행동이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망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마음의 고삐를 조절하는 법을 일깨워준다.

어머니는 꾸준한 기다림과 인내가 꽃이 피어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해준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이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며, 꽃씨가 겨울의 한기와 눈보라를 견뎌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 동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조급함이 불러오는 불안정성과 인내와 건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동화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항상 거위 주인 같은 행동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데 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21) 김주은(가명), 22세, 여학생의 글.

22) 정호승, 앞의 책, 14쪽.

되었다. 제대 후 복학하고 듣는 수업인데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 같다.²³⁾

⑤ 정호승, <청둥오리의 노력>

언뜻 보기엔 청둥오리가 물 위에 아주 쉽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 밑에서는 양다리를 필사적으로 놀리면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청둥오리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다는 것과 전력을 다해 물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두 가지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한 가지 사실만 보고 부러워한답니다. 저 녀석이 물에 떠 있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겠어요.²⁴⁾

⑥ 독서치료적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동화 <청둥오리의 노력>은 원인분석 능력을 키우는 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둥오리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밑에서 양다리를 필사적으로 놀리면서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이는 남의 삶이 겉으로는 근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이 동화는 우리가 보는 것이 항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암시하며, 남의 삶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깨닫게 한다. 청둥오리 이야기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음의 글은 이 동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한 예가 될 수 있다.

나는 무대 불안증이 있다. 전공자로서 이 문제는 전과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많은 학우들이 비슷한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청둥오리처럼 해 보면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거 같다.²⁵⁾

23) 임동철(가명), 24세, 남학생의 글.

24) 정호승, 앞의 책, 72쪽.

25) 이미현(가명), 21세, 여학생의 글.

(2)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동화

① 안도현, <관계>

“나는 그동안 낙엽들에게 신세만 지고 살았어.” 도토리는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주 단단한 껍질이 도토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토리가 말했습니다. “이 껍질을 깨고 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이 말을 들은 낙엽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그건 벽이 아니야. 그건 또 하나의 너 자신일 뿐이야.” 도토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흥분이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또 다른 내가 힘을 합한다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²⁶⁾

② 독서치료적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안도현의 동화 <관계>는 자아 확장과 자신감 형성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토리는 단단한 껍질에 갇혀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만, 낙엽들의 조언을 통해 껍질이 벽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다.

도토리의 이러한 깨달음은 자아 확장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도토리가 껍질을 깨고 나가려는 의지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려는 내적 동기를 상징한다. 껍질이 벽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임을 깨닫는 부분은,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동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고, 자아 확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엄마 품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도토리는 무서웠다. 도토리처럼 부모님께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사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면에 자신이 없다.

26) 안도현, 앞의 책, 13쪽.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도토리 용기를 배우고 싶다. 나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가고 싶다.²⁷⁾

③ 안도현, <구두를 이해하는 법>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이예요. 구두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뒷굽이 이렇게 문드러지도록 나는 모르고 지냈구나.”

“이건 땅바닥에 닳은 자국이 아니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나를 깎아낸 자국 인걸요. 주인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게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나를 깎아내는 시간 말이에요. 주인님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거든요.”²⁸⁾

④ 독서치료적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동화 <구두를 이해하는 법>은 공감 능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화는 구두와 주인 간의 관계를 통해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 발 모양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구두의 변화 과정은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을 보여준다. 이는 공감과 이해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상징한다.

구두는 주인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뒷굽을 깎아내며 점차 주인의 발에 맞추어간다. 이 과정은 공감이란 단순한 감정 이입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하고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공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을 읽으니 친구가 되기 위해 개들을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면 진짜 친구를 가질 수 있을 거 같다.²⁹⁾

27) 이영미(가명), 20세, 여학생의 글.

28) 안도현, 앞의 책, 24쪽.

29) 임동철(가명), 24세, 남학생의 글.

⑤ 안도현, <내 마음의 자작나무>

누가 내 이름을 나직이 부르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 자작나무가 서 있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니까요.” “관심?” “그래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름부터 알게 되지요.” “서로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지요.” 나는 자작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³⁰⁾

⑥ 독서치료적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동화 <내 마음의 자작나무>는 소통과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과 자작나무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가 따뜻한 지역인 자신의 아파트에 심어져 왜소하게 말라가는 것을 보며 다정한 눈길로 위로와 지지를 한다. 어느 날 자작나무는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관심은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주인공은 자작나무의 이름을 알고 나서, 자작나무를 자신의 마음속에 심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관계 형성과 소통이 단순히 정보의 교환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 동화를 읽으며 참여자들은 소통이 어떻게 관계 형성과 이해를 촉진하는지 이해하였다.

나는 극다. 친구를 원하지만 표현을 못하겠고 엄마와 있지 않으면 항상 혼자다. 이 동화를 읽고 학우들의 발표를 들으며 나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³¹⁾

(3) 긍정성 증진을 위한 동화

① 샬롯 에이저,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구불구불 공원길 산책하기

30) 안도현, 앞의 책, 31-32쪽.

31) 이영미(가명), 20세, 여학생의 글.

멍하니 새들 바라보기
손가락 사이사이 느껴지는 풀잎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한
나른하고 포근한 낮잠
고양이와 눈싸움
정원, 아직 더운 저녁 이웃집 부엌에서 들리는 맛있는 소리³²⁾

② 독서치료적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샬롯 에이저의 동화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는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이 주는 큰 행복을 조명한다. 이러한 작은 즐거움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회복탄력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긍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생활 만족도는 긍정성의 한 측면으로,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동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면들은 참여자들에게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체험하게 한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에 평온을 얻는 경험들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삶의 현존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러한 경험들은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는 회복탄력성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동화를 읽고 참여자들은 “행복하게 하는 아주 작은 것들”을 주제로 글을 쓰고 발표하였다. 발표하고 듣고 피드백하면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미소가 번졌다.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순간에 몰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 시간이었다.

③ 구름, <옥상 상담소>

세상이 가끔은 내게 유난히 혹독하게 군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세상

32) 샬롯 에이저,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룬, 2023.

은 그렇게 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혹독하게 생각하면 혹독한 모습으로,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로 모습으로 오는 거죠.³³⁾

불안해도 하나씩 내려놓았더니 일도 좀 쉬워지고 그 뒤로는 아침이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어제와 조금 더 다르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기적.
누구에게나 주어진 아침이 아니란 걸 모르는 척했던 것 같아요.³⁴⁾

④ 독서치료적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구름의 동화 <옥상 상담소>는 감사하는 태도가 삶의 긍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은유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 동화는 세상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긍
정적인 태도로 전환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세상이 자신에게 유난히 가혹하다고 느끼지만, 결
국 세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다가온다는 진리를 깨닫
게 된다. 주인공은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통
해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과 변화를 경험한다.

감사하는 태도는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
안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의 부담을 덜고 낙
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변화
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감사하는 태도는 주변의 긍정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참여자들은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내게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말을 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 같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 표현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내게도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³⁵⁾

33) 구름, 『옥상 상담소』, 바른북스, 2024, 94쪽.

34) 구름, 앞의 책, 87쪽.

35) 동철(가명), 24세, 남학생의 글.

⑤ 최연주, <모 이야기>

그러니까 즐기자.

겨울에 할 일은 겨울에 생각해.

모두 잊고 이 순간의 즐거움만 느껴봐.

두려움이란 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야.

어두운 숲속 괴물같이 보이는 나무도 빛에 비춰보면

그저 나뭇잎이 붙어있을 뿐인 것처럼 말이야.³⁶⁾

⑥ 독서치료적 서사 분석 및 참여자의 반응

최연주의 동화 <모 이야기>는 자아 낙관성의 중요성을 그리고 있다. 이 동화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두려움을 용기 있게 극복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고양이 모는 웃는 빛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많은 숲속 동물 친구들을 만나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에게 무서운 검은 곰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모는 검은 곰을 만날까봐 두려움 속에서 숲을 걷지만, 실제로 만난 곰은 모가 웃는 빛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멋진 인물이었다. 모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졌던 두려움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두운 숲에서 괴물처럼 보였던 나무가 빛을 비추면 단지 나뭇잎이 붙어있는 것처럼, 두려움도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 동화를 읽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피드백으로 위로와 지지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한 학생의 글이다.

나는 종종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고양이가 모를 읽으며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모가 그랬던 것처럼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³⁷⁾

이상에서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에 활용된 어른을 위한 동화의 서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반응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변화양상을 읽을 수 있었다. 위에서 보듯이 참여자들

36) 최연주, 『모 이야기』, 옛눈북스, 2023.

37) 이미현(가명), 21세, 여학생의 글.

은 프로그램 참여 시작점과 다른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효과 분석

본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회복탄력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분석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대전광역시 소재 A 대학에서 2023년 2학기 연구자의 독서치료 교과를 수강한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와 연구 과정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51명(남 30명, 여 21명)이 참여하였으나 응답이 미흡한 1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총 5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측정 도구와 절차

설문에 사용된 도구는 김주환 등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3개 중범위 영역과 감정조절능력, 충동조절력, 원인분석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자아낙관성, 생활만족, 감사하는 태도의 9개 세부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5.0v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회복탄력성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 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 측정한 회복탄력성 점수($M=3.37$, $SD=0.24$)와 프로그램 실시 후 측정한 회복탄력성 점수($M=3.59$, $SD=0.19$)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17.25$, $p<0.001$)[표 1].

[표 1] 프로그램 실시 전·후 회복탄력성 변화($M(SD)$)

(사전)회복탄력성	(사후)회복탄력성	t	N
3.37(0.24)	3.59(0.19)	-17.25	50

*** $p<0.001$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 점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평가한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점수가 3.37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 점수 3.59로 상승하여,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이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5. 맺음말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도전에 직면하는 시기로, 이들이 다시 뛰어올라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른을 위한 동화를 활용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책 읽기에 흥미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단순한 이야기 구조와 감성적인 문체로 쓰인 어른을 위한 동화는 적합한 자료가 되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작품 속 인물과 동일화, 카타르시스, 통찰의 단

계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글로 쓰고 발표하며 서로 피드백을 통하여 위로와 지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향상되었음을 질적, 양적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한계와 제안이 있다. 연구 대상이 소규모의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 더 다양한 대학과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기초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더욱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기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구 름, 『옥상 상담소』, 바른북스, 2024, 348쪽.
- 김주환,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2011, 310쪽.
- 김지은, “어른을 위한 동화와 어른들의 동화 읽기”, <경향신문>, 2021.04.24.
- 박남수,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마음챙김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권 1호, 2017, 63-82쪽.
- 박천홍, 「‘동심으로의 회귀’ 이끄는 성인동화들」, 『출판저널』 280권, 대한출판문화협회, 2000, 38-39쪽.
- 샬롯 에이지,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룩, 2023, 56쪽.
- 안도현, 『관계』, 문학동네, 1998, 175쪽.
- 이보배,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정석, 「[작가론] 류근원 장편동화에 나타난 가족의 회복탄력성 분석」, 『아동문학평론』 46권 4호, 아동문학평론사, 2021, 72-93쪽.
- 이한우·김정은,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회복탄력성 연구」, 『정서·행동장애 연구』 33권 3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2017, 21-40쪽.
- 이항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 읽기 시고(試考)」, 『한국민족어문학』 67호, 한민족어문학회, 2014, 499-523쪽.
- 정호승,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정호승의 인생동화』, 해냄, 2011, 380쪽.
- 최병우, 「정보화 사회와 독서 다매체 시대의 독서」, 『독서연구』 5권, 한국독서학회, 2000, 25-44쪽.
- 최연주, 『모 이야기』, 옛눈북스, 2023, 168쪽.
- Fröhlich-Gildhoff, Klaus, “Kinder stärken!-Die Förderung der seelischen Widerstandskraft(Resilienz) in Kindertageseinrichtung und Familie”, Bad Nauheim: Evangelische Hochschule Freiburg, Zentrum für Kinder-und Jugendforschung, 202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른을 위한 동화 활용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복탄력성은 대학생들이 직면한 다양한 스트레스와 도전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자산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문학 작품, 특히 어른을 위한 동화를 활용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김주환 등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를 사용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유효한 방법임을 입증하며, 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다양한 집단과 상황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 독서치료,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a Bibliotherapy Program Using Fairy Tales for Adults on the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o, Gi Ja /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 bibliotherapy program using fairy tales for adults on the enhancement of resilience in university students. Resilience is a crucial psychological asset for university students to cope with various stresses and challenges they face, and it is essential for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This study implemented a bibliotherapy program utilizing literary works, particularly fairy tales for adults,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Using the Korean Resilience Quotient-53 (KRQ-53) developed by Kim Joo-hwan and others, the effectiveness of the bibliotherapy program was analyzed.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bibliotherapy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resilienc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bibliotherapy program is an effective method for enhancing the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suggesting that this program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dap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bibliotherapy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and suggest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argeting various groups and situations in the future.

Keyword • bibliotherapy, resilience, positivity, self-regulation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 논문투고일:2024.06.17. ■ 심사완료일:2024.07.08. ■ 게재확정일:2024.07.23. ■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오 인 근 · 주 소 희 · 권 지 성*

목 차

1. 서론
2. 문헌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교육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계속교육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실제적인 필요와 연구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탐색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론적인 필요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비해 현장에서 계속

* 오인근 (제1저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주소희 (교신저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지성 (공동저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들이 투입되어 있는 모든 사회복지현장에서 경력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해야 하는 대인서비스 전문직이다. 사회복지사가 개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인간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고, 기능도 다양해지고 있다.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예측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사회복지사가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작게는 부서(팀)에서부터 사회복지조직, 지역사회협의체, 크게는 사회복지 전문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연대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요한 대안이 계속교육이다. 개별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신입 사회복지사가 조직과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전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정체성을 내재화하며 각자 맡은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고, 중간 관리자와 최고관리자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조직인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공식화한 제도로써 2009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다.¹⁾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선 법정 보수교육은 연간 최

1) 배의식·류지선·류기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학습효과와 전이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8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4, 97-98쪽.

소 8시간 이상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최소’로서도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직접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었지만,²⁾ 만족도 자체로는 보수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 사회복지조직 차원에서 수행되는 계속교육에 대한 평가는 종합하기 어렵지만, 여러 학술문헌에서 직원교육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³⁾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만나고 있지만, 그러한 교육들이 전문성을 향상하고 실전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복지 전문직 내에서 계속교육에 대한 더욱 진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계속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서 계속교육을 주요어로 설정한 학술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계속교육이라는 우산 아래 포함될 수 있는 보수교육⁴⁾이나 경력관리⁵⁾에 대한 연구, 또는 일반적인 용어인 교육·훈련⁶⁾에 대한 연구들은 있지만 이를 하나로 연결하고 포괄하는 연구는 없었다. 또한 포괄적인 주제로서 사회복지사들의 직업경험을 다룬 연구들에서 연

2) 염태산·신유미,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분석보고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43쪽.

3) 모지환·최정민·장신재, 「사회복지사의 재교육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권 2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1, 125-145쪽.

4) 배의식·류지선·류기형, 앞의 책, 95-121쪽; 이은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2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109-132쪽.

5) 문영주,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경력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권 3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9, 189-219쪽.

6) 모지환·최정민·장신재, 위의 논문, 135쪽.

구결과의 일부로 계속교육의 하위개념들이 포함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인 중요성은 낮게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개념적인 수준에서만 계속교육을 고려하고 있을 뿐 이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에서 계속교육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속교육이라는 개념이 지금으로서는 낯선 현상이고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제에는 질적 연구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교육 경험은 어떠한가?”

2. 문헌 검토

계속교육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회복지행정 중심의 각종 문헌에서도 구체적으로 정의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계속교육은 사회복지행정론 교재에서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만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성규택⁷⁾이 규정한 “학교교육이 끝난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라는 정의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계속교육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장에서 ‘보수교육’이나 ‘직원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의 현장이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제도화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을 위한 구조화된 계속교육은 ‘보수

7) 성규택,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88, 289쪽.

교육'으로, 특정 사회복지법인이나 개별 사회복지기관 차원에서 해당 조직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직원교육'이라고 부르며, 이들 법인이나 조직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성장과 경력을 지원하는 과정은 '경력개발'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른 전문직의 문헌에서는 계속교육의 개념이 '평생교육'이나 '성인교육'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현장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개발의 책임을 가지고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지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계속교육 표준'을 개발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연속적인 교육 참여 안내 및 촉진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⁸⁾ 개인적 책임성, 개인 차원의 계속교육, 개발과 향상, 사명과 철학의 진술, 조직화된 교육경험, 책임성 있는 행정적 실천, 지역사회 협력, 실행기관 정책, 리더십(이상 행정가들을 위한 표준) 등 9가지로 제시된 표준과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계속교육에 대한 전문적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년 주기로 48시간의 계속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계속교육을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학습 이벤트', '전문적인 미팅/조직화된 학습 경험', 그리고 '개별적인 전문적 활동들'로 유형화하였다.⁹⁾ 이러한 유형화에 근거하자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보수교육은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학습 이벤트'이며,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각종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 학술 프로그램들은 '전문적인 미팅/조직화된 학습 경험'에 해당하고, 조직 안팎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독서클럽 등 학습조직을 만들어 운영

8)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 Standards for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2003, pp.1-17.

9) Ibid., p.12.

하는 것은 ‘개별적인 전문적 활동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는 계속교육이 공식적인 보수교육과 조직 내부의 직원교육, 조직 외부의 포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학부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 과정도 계속교육의 일부로 제시하기도 한다.¹⁰⁾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계속교육 표준안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계속교육 체계와 개념들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수교육’은 계속교육에 포함되지만 개념적으로 동일한 범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계속교육은 보수교육을 포함하며, 그 외에 학회나 연구소, 연구회 등이 개최하는 학술모임, 사회복지사들이 조직한 학습네트워크,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과정 등 다른 대안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개념체계를 토대로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교육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제적인 측면이나 이론적 차원에서 계속교육에 대한 논의를 찾기는 어렵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에서는 학부 교육과 현장 지식 사이의 차이, 즉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수교육을 제안해 왔다. 보수교육이 제도화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계속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계속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교육에 대한 연구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수준을 논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대학 교육과정의 유용성을 평가해 왔다. 사회복지사로서

10) Congress, E. P., “Guest editorial continui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for social work practitioners and educator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 48, no. 3, p.397.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학부 교육이 현장에 유용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를 고려할 때, 학부 수준의 사회복지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¹¹⁾ 계속교육의 대안 중 하나로서 특수대학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¹²⁾도 있는데, 이 연구는 학부나 일반대학원에 비해 특수대학원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훈련의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있는데, 소수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함의나 제언을 얻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김민정 외¹³⁾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전이를 매개로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이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자체보다는 교육훈련의 목표와 내용 등을 일반적인 진술로 물어보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Cochran과 Landuyt¹⁴⁾의 연구에서 계속교육 프로그램들은 자격 유지와 기술 강화, 증가하는 욕구에 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복지사들에게 관련성이 높고 유용한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
- 11) 김성경,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교육의 충분성 인식과 사회복지실천기술 수행의 관계」, 『한국사회복지교육』 10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9, 69-92쪽.; 노혜련·김수영·양민옥·이호경, 「사회복지실천교육의 평가와 과제: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15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1, 79쪽.
 - 12) 정순돌·박지혜·김수현, 「한국 사회복지특수대학원 교육의 발전방향: 학부 및 일반대학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6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4, 1-22쪽.
 - 13) 김민정·남정현·홍준의,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이 개인성과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훈련전이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권 2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1, 33-62쪽.
 - 14) Cochran, G. · Landuyt, N., “A survey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conducted by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inuing Social Work Edu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vol. 13, no. 2, 2010, pp.55-72.

다. 이처럼 계속교육은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계속교육 수행에서 행정·운영상의 한계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각 영역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속교육 프로그램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 그리고 통합적 시각에서 조정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각 학습 프로그램들은 합리적인 비용을 받고 교육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었다. Mark 외¹⁵⁾는 사회복지영역 실천가, 교육자, 자격위원회 위원, 기관 행정가 등 7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한 결과, 계속교육 대안의 다양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되었지만, 접근성 부족, 비용, 계속교육 내용의 부실, 품질관리 문제, 고용주의 지원 부족과 같은 이슈들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계속교육’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으며, 각 사회복지사와 조직들은 ‘직원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에서도 보수교육 제도를 통해 전문성 강화 또는 유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¹⁶⁾ 또한 이론적 맥락에서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속교육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계속교육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개발이라는 목적을 향해 전문직과 협의체, 사회복지조직, 개별 사회복지사들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사들

15) Mark, G. · J. R, Betty · Scott, M. G., “Social work continuing education: A statewide case study”,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vol. 36, no. 4, 2016, pp.342-262.

16) 권지성,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보수교육의 맥락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37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21, 33-62쪽.

의 입장에서 그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질적 연구접근: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계속교육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접근, 그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활용하였고, 현실에 근거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귀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FGI는 연구 참여자들이 모집되는 대로 3~4명씩 묶어서 3개 집단을 구성하고, SNS를 통해 일정을 조정한 뒤 온라인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이 코로나19가 심화된 기간과 겹쳐서 모두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모든 초점집단면접은 2시간 이상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였다.

면접은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비구조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별도의 질문지 없이 ‘사회복지사로서 그동안 계속교육 경험은 어떠합니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면접을 이끌어 갔다. 학부 졸업 이후 초임으로서 현장에 처음 투입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교육 경험을 탐색하는 질문과 계속교육 체계에 대해 탐색하는 세부질문들이 이어졌고, 첫 번째 초점집단면접 경험을 토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면접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사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접 전에 연구 목적,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이익 등 윤리적 고려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듣고 동의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은 수도권의 사회복지조직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10명이다. 연구 참여자 모집 기준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였다. 다양한 계속교육 경험이 있어야 하기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지 만 1년이 지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시설로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과 표집 방법은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번호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소속기관
1	남	30대	석사졸	10년차	종합사회복지관
2	여	30대	석사졸	12년차	종합사회복지관
3	남	30대	석사졸	4년차	종합사회복지관
4	남	40대	석사졸	19년차	종합사회복지관
5	남	30대	석사졸	11년차	종합사회복지관
6	여	20대	석사졸	4년차	장애인종합복지관
7	여	30대	대 졸	2년차	장애인종합복지관
8	남	40대	석사과정	16년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	여	30대	대 졸	6년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0	여	30대	대 졸	10년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FGI로 수집된 대량의 정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현상의 패턴과 주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연구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FGI를 통해 수집하고 자료를 기술하였으며, 주요 개념이나 패턴을 식별하여 유사한 범주들로 묶고 구조화하였다. 다음으로 범주화 분석에서 분류한 개념과 범주들을 해석하고 도출된 결과를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FGI에서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한 뒤, 진술문을 분석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묶어 가면서 사회복지사의 계속교육 경험을 잘 드러내도록 영역을 범주화하여 정리하였고, 질적 사례연구의 주요 특

징인 ‘경계를 가진 체계’가 잘 드러나도록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계속교육이 학부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시작되어 경력이 마칠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작업을 수행한 후, 사회복지분야의 숙련된 질적 연구자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1) 범주화 분석결과

사회복지사들이 진술한 계속교육 경험에 대해 범주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는 녹취록에 포함된 각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의미단위를 추출하고,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 개념으로 만든 뒤, 다시 유사한 개념들을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분류한 결과물이다.

[표 3] 사회복지사의 계속교육 경험에 대한 범주화 분석결과

상위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부 교육의 쓸모	학부 지식을 활용함	학부에서 배운 얇은 지식 활용하기 / 도움이 됨. 이론이라도 제대로 알고 오면 좋겠음 / 신입들은 실제적인 부분들을 더 배우고 옴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느낌	학부에서 배운 내용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느낌 / 학부 지식은 현장에서 쓸모가 별로 없음
	현실의 벽을 느낌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벽 앞에서 좌절
	현장(기관)에서 새로 배우	조직에서는 조직의 법.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현장 에서 터득 하기	슈퍼비전 활용하기	슈퍼비전을 통해 배움 / 선임이 이끌어 주고, 동료들이 서로 채움 / 슈퍼비전을 받지 못함
	필요에 따라 밖에서 배우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을 찾아 배움 / 인수인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일하면서 터득함	일하면서 익힘 / 현장에 와서는 선임들로부터 배우고, 하다 보면 알게 됨 6개월 정도면 시스템과 업무를 알게 됨 / 1년 정도면 차년도 사업 계획 가능 / 3-4년쯤 지나야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역량 발휘 가능

내부 교육	다양한 형태의 교육	의무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조직 내 자체 학습 등으로 구성 / 별도 팀이 기획 / 연간 계획 수립 및 실시 / 필요에 따라 개설하고 외부강사를 초빙 / 자격증이 있는 내부직원이 교육하기도 함 / 타 전공, 타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팀 안에서 공유하며 교육하기도 함 / 팀별 스터디 수행 / 도서 공유 및 외부지식 공유회 등 / 매주 직원교육
	관리자 주도의 내부교육 운영	관리자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 / 관리자들이 초빙 / 직원에게는 내부교육 강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 정책변화가 있을 때 외부강사 초빙
내부 교육	근무시간 외 운영	형식: 반기 4회, 연 6-8회 / 시간 외 수당 지원하여 7-9시 정도에 실시
	목표 또는 효과: 힐링과 심, 방향성, 관점 공유	힐링이 됨. 머리를 식히는 시간. 방향을 짚어줌 /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에게는 도움이 안 됨 / 보수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내부 집합교육은 지식 전달보다는 관점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외부 교육	기관 내부 피드백 한계 극복	기관 내부에서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함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교육	외부교육은 업무 연관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만족도가 높음 / 외부교육의 질이 높고, 관심, 적용 면에서도 긍정적임 / 내용, 강사, 트렌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됨
보수 교육	참여 방식과 동기: 기본+추가 / 직위에 따른 요구	기본 8시간만 채움 / 일단 8시간을 채우고, 관심 있는 주제가 있고 비용이 있으면 추가로 들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영역은 빨리 채워짐 / 중간관리자가 되면서 요구되는 교육들이 있음 / 보수교육은 기본이자 필수
	다른 직위 과정을 듣고 싶음	신입, 중간, 최고 등 직위에 따라 과정이 다름. 다른 과정을 들어보고 싶었음
	만족도: 전반적으로 낮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음	정말 듣고 싶어서 듣는 경우는 얼마 없음 / 보수교육에 대한 기대가 없음 / 어쩔 수 없이 해야 함 / 일단 듣고 보자는 식 / 내가 원해서, 궁금해서 신청한 것은 도움이 됐음 / 만족스럽지 않음. 여러 주제 중 하나라도 만족스러우면 성공
	불만족 이유: 강사의 질, 교육내용의 다양성, 업무 관련성 / 직급에 맞는 교육 / 인원이 너무 많음 / 적용 가능성	강사 풀이 좁음 / 강사의 질과 만족도는 점점 높아짐 /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함 / 업무 관련성이 낮음 / 자신(직급, 연차, 욕구)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려움 / 사례 경험, 조별 활동의 만족도가 더 높음 / 인원이 너무 많음 / 거시적인 내용은 들을 때 좋지만, 기관 안에서 풀어내지 못해 답답함
	강사의 전문성 차이가 큼	강사에 따른 차이: 교수는 현장을 모르고, 이론 중심이라 집중이 안 됨 / 실무자들은 사례와 경험 중심이라 집중하게 됨. 만족도도 더 높음 / 관장들은 안 하는 게 나옴. 개인 차이가 큼 / 강사가 누구든 들을 것이 있으면 좋음 / 강사 양성과정이 필요함

보수 교육	요구: 트렌드, 다양성, 시공간 한계 극복, 인원, 범위 확대, 시설유형 고려	요구: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역효과도 있음 / 8시간은 부족함. 영역별로 한 번씩은 들도록 해야 함 /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 / 회기당 인원이 너무 많음 /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횟수 증가 필요함 / 생활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
	의미: 재점검, 힐링, 반성, 적용	의미: 사회복지사로서 재점검. 힐링. 반성. 적용방법을 고민함
	영향 요인: 지역, 운영주체, 관리자와 동료	지역 간 차이 / 운영 주체가 독점체제. 다양화와 경쟁이 필요 / 협회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느낌 / 중간관리자나 선배들의 영향
	비용 지원	비용: 협회의 지원 / 지자체 비용 지원 / 예외: 대학원 등 상급교육 과정을 다니면 면제
전달 교육	전달교육 진행방식	매주 전체 공유회 실시 / 외부교육을 다녀온 뒤 팀 또는 전 직원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함. 15-30분 정도.
	평가지표에 포함됨	전달교육도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음. 강제로 하지는 않음 / 평가지표에서는 건수만 채우면 되는데, 하다 보면 다 채워짐.
	전달교육의 내용	전달교육은 내용 전달이나 공유 수준 /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 있음
	직원들은 대체로 싫어함	전달교육이 싫어서 휴가 내고 자비로 갔다 오는 직원도 있었음 / 전직원이 반발함.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암묵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음.
	전달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	보수교육 다녀오면 꼭 전달교육을 해야 했음 / 보수교육 이후 전달교육은 하지 않음 / 고액교육은 당연히 함 / 관장이 눈여겨보는 교육들만 함
계속 교육의 전체 구조	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독려함	기관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지원하고 관리해 줌 / 연초에 교육계획 수립 / 기관에서는 교육을 독려함 / 관장이 투자 / 직원 성장을 위한 팀을 별도 운영 / 기관 차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실행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기회 제공	시설평가지표에 직원교육 참여가 포함됨 / 복지관 평가에서 연 60시간의 외부교육과 내부 전달교육을 기준으로 제시함 / 연 40시간 교육시간 보장 / 연간 40-50시간 활용 / 직급에 따라 이수시간 차등 /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음
	중간관리자 중심	중간관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 팀장들이 먼저 공유하고 팀별로 공유
	대학원 진학 지원	대학원 진학 지원 정책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부서에 따라 다른 의무교육 규정	사회복지기관 공통 의무교육이 있음 / 안 하면 벌금 / 평가 때문에 함 / 복지관은 성희롱 예방, 직장 내 따돌림, 개인정보,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유인물로 대체), 노인학대, 인권교육 등으로 구성
의무 교육	업무와 조정 필요	업무시간과 충돌 / 내용은 좋지만 업무부담 / 규정과 조정

의무 교육	만족도는 높지 않지만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함	같이 듣고 이수 자료만 남기는 것이라 만족도가 높지 않음 /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함
교육비 지출	보수교육과 자기계발비 등 항목으로 직원 1인당 지출 한도 내에서 지급	직원 1인당 지출 한도 내에서 지급 / 보수교육과 자기계발비 포함하여 1인당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음
	한도를 넘어서면 사비 추가 / 고액 교육도 필요하면 결재를 통해 지원	고액교육도 필요시 추가지원 가능 / 한도를 넘어서도 꼭 필요하면 허용해 줌 / 100만원 이상의 고액교육도 결재를 받아 지원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사비로 지출 / 개인 부담하고 가는 경우도 많음
	가능한 한 많이 나가서 배워 오도록 격려함	기관 지침: 교육에 투자. 웬만하면 갖다 오라고 함 / 비용과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으며, 나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독려함
영향과 한계	교육을 통한 변화	교육을 통해 달라짐 / 시각의 확장 / 수준별 교육이 필요함
	수준별 교육 및 범위 확장 필요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함 / 다른 분야의 지식도 사회복지 관점에서 소화해 줄 수 있는 강사들이 필요함 /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통찰력이나 관점이 전달되어야 함
	업무 부담과 조정	교육을 들으면 업무 공백이 생김. 공백을 메울 수 없으면 업무가 우선 / 팀 안에서 업무와 시간을 조정해 줌 / 직원 간 상계
	교육 주체 및 관리자 마인드에 따라 방향성 달라짐	지자체, 법인 및 개별 기관은 교육 정책과 지침의 영향 받음 / 법인이 바뀌면서 교육의 양과 질이 달라짐 / 관리자의 마인드: 기관장은 독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함 / 중간관리자들이 권장함
다양한 요인들	평가에 따른 반응	기관 평가지표에 교육관련 지표가 많음 / 평가에 따른 보상: 표창장과 상급, 이력서 한 줄, 발전했다는 느낌. 동기과 자극, 도전이 됨.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개인(성향, 욕구, 가치관, 근속년수) 차이가 큼.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감 /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름. 이전 교육 경험의 영향 / 많게는 4배까지 차이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소속감)
	부서/업무/직종 간 차이	부서(팀)와 업무에 따른 차이. 일부 팀은 평가지표에 의무교육이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도 들음 / 기관 내 다른 전문직은 고액 교육도 잘 다녀옴 / 팀 특성에 따라 다름
	운영의 묘	저비용, 양질의 교육 활용 / 무료교육을 찾아 다님 / 방학 기간에 집중교육 / 가능한 한 많이
대학원 진학의 딜레마	미진학자의 경험: 고려함, 망설임, 미뤄둠	대학원 진학을 고려함 / 뒤로 미뤄둠 / 가고 싶은 곳, 갈만한 곳이 없음
	진학 고려 동기: 전문성, 슈퍼비전, 승진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음 / 슈퍼비전보다 더 넓은 생각,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음 / 중간관리자로서 슈퍼비전에 한계를 느낌 / 승진을 위해 스펙이 부족함 / 여차피 가야 하는 거라면 빨리 가는 게 나음 / 리더십 정체와 성장에 대한 의문

대학원 진학의 딜레마	효용: 배움을 통한 환기, 성장, 적용, 확장, 열정	다시 배우는 느낌이 신선하고 좋음 / 나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접목할 수 있음 / 시각이 넓어짐 /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됨 / 나는 좋았지만 팀원들은 힘들었을 것임 / 그 나머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네트워크 확장 한계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 실제로는 넓거나 깊지 않음. 다른 기관의 경험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해서 물어볼 수 있음.

2) 사례 간 분석 결과

(1)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계속교육의 구조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계속교육의 구조는 사회복지전문직 안팎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계속교육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하위체계들의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세 가지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학부 과정,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으로 구성되는 고등교육 체계이다. 둘째,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의무교육을 포함한 내부교육과 관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현직훈련과 슈퍼비전 등이다. 셋째, 조직 외부에서 ‘선택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구조화된 보수교육,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학습 네트워크, 그리고 학회와 교육전문기관들이 수행하는 외부교육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현장과 연결하는 현장실습, 대학교수가 현장에 강사로 초빙되어 가서 교육하는 활동, 외부교육에 참여한 사회복지사가 조직으로 돌아와서 교육내용을 공유하는 전달교육 등이 이 하위맥락들을 연결한다.

이러한 계속교육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계속교육의 맥락은 조직 내의 경력개발을 축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외부의 하위체계들, 그리고 서로 연결된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하위체계들을 포함한다. 조직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직원교육으로 불리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의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내부교육 프로그램과 보수교육을 포함

한 외부교육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외부교육에서 배운 것을 조직 내부에 공유하는 전달교육을 포함한다. 여기에 선임 사회복지사에 의한 슈퍼비전과 포괄적 의미의 현직훈련을 추가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개별 사회복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외부에 나가서 받는 교육이다. 내부교육은 다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 조직의 필요에 의해 직접 기획해서 추진하는 교육이 있다. 후자는 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기관 전체 종사자 또는 특정 부서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초빙강사의 선정은 팀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관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서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별적 적용이 어렵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외부교육은 보수교육을 기본 옵션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겨진다.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기관이 지원하는 비용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외부교육을 활용한다. 각 조직은 개별 구성원들에게 연간 허용되는 시간과 비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한한다. 하한선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틀과 항목, 지침에 의해 정해지며, 조직에 따라 조정된다. 상한선은 그 조직의 인간관, 인재상, 그리고 인사관리지침에 의해 정해지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기관장의 마인드와 방향성, 실제 일상적인 결재권자인 중간 관리자의 태도, 동료들의 피드백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들은 보수교육과 외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와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부교육의 일부분인 보수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그래도 “최근에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점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우선 ‘교육 내용이 일률적, 획일적이라서 한번 듣고 나면 더 새로운 것이 없고, 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강좌도 많지 않으며, 강사의 풀도 제한적이지만 강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수들이 이론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집단 강의로 모집하여 인원이 많다 보니 상호작용도 적어지고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복지사협회의 지원으로 ‘비용은 적게 들거나 전혀 들지 않지만 배울 것이 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다.

현실과 맞닿지 않는 학부 지식, 유익하게 느껴지지 않는 보수교육과 의무교육, 자신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내부교육, 체계적이지 않은 슈퍼비전 등의 계속교육 레퍼토리에 불만족하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 전문직을 벗어난 외부체계와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 기회를 탐색하였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학습프로그램(세미나, 워크숍, 교육과정, 학술대회, 단기연수 등)을 검색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자기계발비 예산 안에서 또는 꼭 들어야 한다면 고액교육을 신청하거나 사비를 써가면서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며,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인 사회복지사들은 외부교육이 대체로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른 대안들보다는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조직들은 외부교육을 권장하거나 독려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법인과 조직이 갖고 있는 인간관, 인재상, 인사관리지침, 기관장의 마인드, 중간

관리자의 지원, 선임과 동료들의 피드백에 더하여 가장 현실적인 제약조건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업무’다. ‘자신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 안에서만 교육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교육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 시간, 그리고 팀 내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와도 조정’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누군가가 외부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그 기회를 적게 누릴 것이며, 어쩌면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을 만큼 할 일이 적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더욱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였고, 일부는 이미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학위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나 고려중인 사람들이나 모두 대학원 과정에 대해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도 대부분이 특수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이 학부 과정과 그리 다르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학부 과정과 다른 과목들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원 과정을 더 높은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는 도구 또는 사회복지현장의 인맥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삼는 사회복지사들이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과정을 마친 참여자들은 인맥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외부교육은 사회복지현장을 벗어난 외부 환경에도 노출되고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인문학과 다른 학문분야들에 대한 지식이 사회복지현장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실제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복지현장에 접목하여 21세기의 환경변화에도 능숙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해 온 사회복지사들은 “With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들을 습득하기를 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기술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돕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도 대처해 가야 하지만, 이미 경험했고,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더 배워가야 하기에 ‘이미 지나간 미래’다.

또한 대부분의 조직은 외부교육을 내부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진 ‘전달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조직은 “어차피 실적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시키려” 하기도 하고, 일부 조직은 학습조직화를 위한 방책으로 활용하면서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과 그들이 속한 조직 구성원들의 다수는 전달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달교육은 대체로 외부교육을 듣고 온 종사자가 전체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15-30분 정도 간략하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발표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이고, 실제 전달하는 내용도 압축적이고 시간도 짧아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보수교육까지 전달교육을 하게 된다면 더 자주, 그리고 새울 것이 별로 없는 내용까지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계속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헌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ASW¹⁷⁾는 사회복지 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세 당사자 집단을 포함하였다. 그것은 개별 사회복지사와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공

17)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op. cit., p.7.

자,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행정가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교육 체계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주체들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회복지사들의 주체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부체계에서 경험하는 의무교육을 포함한 내부교육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슈퍼비전과 현직훈련도 상급자들로부터 ‘받는’ 것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학습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체계에 있는 보수교육도 사회복지사협회 등 교육주체에 의해 구조화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욕구조사 등의 경로로 대안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조직 외부에 펼쳐져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외부교육의 대안들을 검색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경력개발 계획 안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가장 주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영역에 대해 조직 외부의 사회복지사들과 연대하여 학습조직을 만들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매우 적극적인 대안도 있었다.

(2)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계속교육의 과정

위에서 살펴본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레퍼토리들을 시간 차원에서 재구성하면 계속교육의 과정이 된다. 연구 참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전형적인’ 계속교육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사회복지전문직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게 된 초임 사회복지사는 특정 사회복지조직에 취업한 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다. 학부에서 배운 지식이 현장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조직에서는 슈퍼비전과 현직훈련을 통해 사회

복지사가 조직과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실무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을 ‘일하면서 터득하기’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직훈련과 병행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조직의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큰 틀에서 현직훈련과 내부교육, 외부교육은 동시에 진행되는 동일한 패턴의 요소들이지만, 경력개발이라는 틀에서 보면 초임 사회복지사에서 선임 사회복지사,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로 이어지는 직급의 차이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달라지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선임 사회복지사 또는 중간관리자는 전문성 향상과 승진을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며, 최고관리자는 자아실현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전형적인 국면의 세부적인 축들을 중심으로 계속교육의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계속교육의 과정에서 기본을 이루는 전 단계는 학부 교육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대학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문제는 이 교육이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현장실습 또는 자원봉사활동이나 근로, 인턴 과정 등이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욱 복잡한 맥락 안에서 개별적으로 더욱 다양한 패턴을 경험하게 된다.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다가 다시 대학원 과정으로 진입할 수도 있으며,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계속교육의 과정은 사회복지현장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장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초임 사회복지사들은 결국 현실에 발을 딛고 일하면서 필요한 전문성을 터득해 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 선임과 중간관리자들이 적절한 슈퍼비전과 멘토링을 해준다면 이 과정은 상당히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많지 않다.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치워가면서 일하는 방법을 배워왔다”고 하였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면 “조직과 일이 보이게 되고,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그 뒤로 2년 정도 더 경험을 쌓게 되면 그동안의 경험을 녹여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갈 수 있는 정도의 내공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현직훈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을 명시적으로 내뱉은 사회복지사는 없었다. 이는 이 과정이 공식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사회복지조직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계속교육의 기본적인 레퍼토리는 해당 조직이 자체 운영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현장의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필수사항이 된 보수교육 프로그램, 특정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에 부과되는 의무교육 등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보수교육은 외부교육에 포함되며, 의무교육과 자체 직원교육은 내부교육에 포함된다. 이는 매년 루틴처럼 되풀이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목적, 조건들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한 신입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8대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조직이 이미 설정해 놓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매년 정해진 시간과 비용의 한도 내에서 외부교육에 참여해야 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관리자들이 추진하는 내부교육이나 조직학습을 위한 스

터디, 공유회, 전체 또는 팀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초임 사회복지사들은 선임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슈퍼비전을 받게 되며, 초기에는 이것이 유일한 계속교육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정한 연차가 쌓이면(대체로 팀장급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조직은 사회복지사의 대학원 진학을 허용하거나 지원해 준다. 학부 지식과 현장에서 터득한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할 때, 승진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인맥을 쌓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대학원 진학을 고려한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이 지식과 기술, 인맥에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지점에서 계속교육의 과정에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 중간관리자가 된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에서도 중간관리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의무교육도 자신이 관리하는 입장이 되고, 내부교육을 기획하거나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외부교육에 대한 욕구도 달라지게 된다.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교육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에 초점을 둔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사례연구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계속교육의 구조는 대학의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체계, 직원교육과 경력개발을 포괄하는 조직 내부교육 체계, 그리고 보수교육 등 조직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부교육 체계 등의 하위체계들로 구성되었다. 계속교육의 과정도 이러한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지만 시간

차원에서 재구성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계속교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전문직 차원의 계속교육 가이드라인 설정과 플랫폼 운영을 제안한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의 계속교육은 그 하위개념인 보수교육만을 제도화하고 있다. 보수교육 자체도 양과 질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최저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확장성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ASW의 계속교육 표준안과 같이 계속교육의 큰 틀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교육으로 확장된 플랫폼이 필요한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가장 큰 보수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협회, 협의체, 학회, (재단)법인, 학습네트워크 등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포괄하거나 연결하는 확장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계속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매우 단절된 형태로 사회복지사들에게 경험되고 있었다. 이상적인 계속교육의 패턴이 무엇인지 재정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예로 설명하면, 학부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가치를 심어주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술들을 골고루 갖추도록 한다.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현장에 투입된 사회복지사는 각 지역사회와 조직의 특성, 세부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은 새로 배워야겠지만 대체로 기본적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부족한 부분들은 선임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과 현직훈련을 통해 채워간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공유해야 하는 가치, 지식, 기

술, 문화 등은 내부교육을 통해 습득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1차적인 서비스제공자로서 의무교육들을 이수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직의 전문성을 되새기기 위해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고,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외부교육을 통해 습득하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① 학부 기초교육 - ② 초임들을 위한 적용교육 - ③ 전 경력에 걸쳐 전문성의 핵심을 재생시키는 보수교육 - ④ 환경변화와 클라이언트의 변화, 그에 맞는 업무의 변화를 위한 확장교육 - ⑤ 중간관리자와 최고관리자로 승진하게 될 때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을 터득하는 관리자교육 등이 물 흐르듯이 연결되고 체계적으로 조합되는 계속교육의 패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회복지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속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다. 계속교육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의 총체적인 역량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조직 차원의 직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조직의 인재상에 기반한 장기적인 경력개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수교육을 포함한 외부교육은 중간관리자들의 멘토링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조직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독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내부교육은 조직의 비전과 사명, 인재상, 문화, 정체성, 조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 사회복지사 수준에서는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 계획을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신이 직접 검색하고, 신청하고, 찾아간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외부교육 영역에서 두드러진 것이긴 하지만, 보수교육이나 내부교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대체로 보수교육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면서도 교육과정 목록 중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청해서 듣고 내용이 괜찮았다면 만족스러워하며, 자신이 내부교육의 스터디를 주도하거나 외부강사를 직접 섭외하여 초빙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개별 사회복지사의 계속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형화된 보수교육의 형태를 넘어 비정형화된 슈퍼비전이나 외부활동 교육 등의 다양한 계속교육 유형을 인정하고 예산지원 및 교육참여가 가능한 고용환경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계속교육은 복지현장에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는 상급자인 중간관리자나 최고관리자들을 포함하면 미래 시점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매우 풍부한 교육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개별 사회복지사들은 대체로 입사 초기부터 슈퍼비전과 현장훈련을 받았으며, 매년 일정 시간 보수교육과 의무교육을 받고 있고,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특강, 공유회, 스터디, 세미나, 전달교육, 전체 회의 중에 이루어지는 활동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조직의 격려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부교육에 참여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풍부한 계속교육의 레퍼토리 중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외부교육 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학부교육과 대학원 과정도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거나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즉, 계속교육은 ‘풍요속의 빈곤’ 상태와 같았다. 계속교육의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 복지현장간의 미스 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중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반의 교과목 운영 확대 및 현장 전문가와의 컨퍼런스, 세미나 및 멘토링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의무참여 교육이 아닌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자발적인 계속교육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에서 계속교육 경험을 탐색하고 그 구조와 과정,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교육의 큰 그림 안에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며, 더욱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 참고 문헌

- 권지성,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보수교육의 맥락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37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21, 33-62쪽.
- 김민정·남정현·홍준의,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이 개인성과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훈련전이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권 2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57-80쪽.
- 김성경,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교육의 충분성 인식과 사회복지실천기술 수행의 관계」, 『한국사회복지교육』 10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9, 69-92쪽.
- 노혜련·김수영·양민옥·이호경, 「사회복지실천교육의 평가와 과제: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15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1, 51-86쪽.
- 모지환·최정민·장신재, 「사회복지사의 재교육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권 2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1, 125-145쪽.
- 문영주,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경력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권 3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9, 189-213쪽.
- 배의식·류지선·류기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학습효과와 전이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8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4, 95-121쪽.
-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88.
- 염태산·신유미,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분석보고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 이은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2권 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109-132쪽.
- 정순돌·박지혜·김수현, 「한국 사회복지특수대학원 교육의 발전방향:

학부 및 일반대학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6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4, 1-22쪽.

Cochran, G. · Landuyt, N., “A survey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conducted by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inuing Social Work Education”, Professional developmet, vol. 13, no. 2, 2010, pp.55-72.

Congress, E. P., “Guest editorial continui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for social work practitioners and educator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 48, no. 3, 2012, pp.397-401

Mark G. · J. R. Betty · Scott, M. G. “Social work continuing education: A statewide case study”,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vol. 36, no. 4, 2016, pp.342-362.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 Standards for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2003, pp.1-17.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들의 계속교육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접근 중 하나인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속교육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범주화 작업을 통해 계속교육의 구조와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속교육의 구조는 ‘학부 교육의 쓸모’, ‘현장에서 터득하기’, ‘내부교육’, ‘외부교육’, ‘보수교육’, ‘전달교육’, ‘영향과 한계’ 등 다양한 범주로 구성되었다. 계속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 체계, 조직 내부교육, 조직 외부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를 기술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 계속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 플랫폼 운영, 연속성 있는 계속교육 운영, 개별 및 조직 차원의 계속교육 기획과 수행, 실용적인 계속교육 운영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사, 계속교육, 질적 사례연구

■ Abstract

A Qualitative Analysis Study of Continuing Education Experiences Among Social Workers

Oh, In Geun /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Ju, So Hee /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Kwon, Ji Sung /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ontinuing education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Data was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ocial workers, conducted remotely. The collected data was categorized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continuing education. The workers' experiences were categorized into various themes, including the utility of undergraduate education, field learning, internal and external education, in-service education, transmissive education, and impacts and limitations. Continuing education was analyzed within higher education systems, internal organizational education, and external organizational education, with an examination of their structure and significance.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system, such as operating educational platforms, ensuring continuous education, designing education a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s, and providing practical continuing education.

Keyword • Social worker, Continuing education, Qualitative case study

독거노인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를 중심으로

이 상 우 · 김 춘 남**

목 차

1. 연구배경
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논의 및 제언

1. 연구배경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사회문제 중 하나는 1인가구의 증가다. 1인가구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가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2023). 통계청 자료에 따른 우리나라 1인가구는 2017년 전체 가구의 28.6%에서 2022년 기준 34.5%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노인집단이 전체의 35.3%로 가장 많다. 이러한 가구특성의 변화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1인 노인가구 규모의 증가

* 본 연구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모니터링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2021)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이상우 (제1저자)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춘남 (교신저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와 이들의 경제·심리정서·사회관계 등 다차원적 상황에서 발생할하는 사회 문제 대응의 필요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1인가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1인가구, 즉 독거노인의 경제·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은 이전부터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뤄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의 경제수준·건강상태 등의 변수와 우울 등 정신건강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최영, 2008; 김예성, 2014; 석재은·장은진, 2016). 또는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사회관계, 삶의 질을 비독거노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연구동향을 발견할 수 있다(손정남, 2012; 서인균·이연실, 2015; 강은나·이민홍, 2018). 이 같은 연구동향은 개별 독거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규명하고 관련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1인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사회 문제의 형태인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면서(보건복지부, 2022), 관련 정책과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어유경 외, 2023). 이는 사회적 고립상태의 사람이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2020년 3월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이 제정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22.8 ~ '23.12).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시·도 지자체 역시 자체적인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서비스원의 주도로 1인가구 실태조사 등이 추진 중이다. 학계 또한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노인 1인가구의 예방책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김수진·류주연·성기옥, 2023; 정순돌 외, 2023).

경기도는 2013년부터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통해 노인 1인가구 문제에 대응해왔다. 2022년 기준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 비중은

6.7%로 전국 9.1%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5.2%에서 2022년 6.7%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22).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을 위한 경제적 소일거리,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중식 제공 등을 실시하는 별도의 경로당 사업이다. 2013년 6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3년 기준 27개 시·군 41개소의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경기도, 2024).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인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독거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정신 건강의 어려움, 여가문화생활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또 지자체 차원의 별도 조례(「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근거도 명확하다. 그러나 2015년 본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의미와 성과 등에 대한 연구자료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지난 9년간 누적된 경험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도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노인 1인가구의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조례(2015.11)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

진 하고 있다. 2013년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안양, 이천 등 6개 시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2023년 현재에는 27개 시군 41개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사업 대상이다. 시·군 소유 유휴공간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 등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한 건강·여가, 소일거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14개소로 가장 많으며 대한노인회(11개소), 마을에서 운영(5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증가하는 노인 1인가구의 고독사,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등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부양의 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그 밖에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군, 군수가 인정하여 추천하는 노인을 말한다(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 기본적으로 경로당과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노인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서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다만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경로당과 달리 독거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노후의 고립방지를 위한 공동체 활동 속에서 지속적인 사회관계망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카네이션하우스 관련 연구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사업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이 진행되어 왔다(경기복지재단, 2020). 그러나 여전히 카네이션하우스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까지는 시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카네이션하우스의 자체 모니터링 지표 적용을 통해 향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집중하였다.

카네이션하우스의 주요 사업내용은 시군 소유 유휴공간(마을회관 등) 리모델링을 통한 독거노인 친목공간 조성, 건강·여가 프로그램 제공, 소일 거리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 카네이션하우스는 전담인력 배치의 어려움, 시군별 운영예산 확보의 격차, 일반 경로당 이용 회원과의 갈등, 공간 내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춘남 외, 202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는 생활 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친목도모 공간을 제공하고 소일거리를 연계해준다는 중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 중인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노후생활 증진을 위한 경기도 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자체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경기도 독거노인 현황 및 관련 서비스 내용 등 행정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 기존 카네이션하우스 현황 및 선행연구 참조, 전문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를 실제 카네이션하우스에 자체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해 경기도청 공무원 2명(노인복지과 담당 노인정책팀장, 주무관), 관련 분야 실천 현장 전문가 2명(노인복지관 및 시니어센터 기관장), 학계 전문가 8명(사회복지학과, 건축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학계 교수) 등 총 12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서면자문 2회, 대면 자문회의 1회를 진행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자체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자체 모니터링에 참여한 카네이션하우스는 총 40개소이며, 응답은 시·군별 카네이션하우스의 담당자 40명이다. 이들은 각 시·군의 카네이션하우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주무관)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한 지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 카네이션하우스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자체 모니터링 평가기간은 2021년 7월 한 달간 총 4주간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의 절차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내용 및 연구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검토	학계 교수, 경기도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총 3회)	경기도카네이션 하우스 40개소 자체 적용	카네이션하우스 기능강화 방안 제시
연구배경 및 필요성 검토	자체 모니터링 지표 (논리모델 기반)	자체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결과 분석 근거

2) 성과 모니터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논리모델(logic model)에 기초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였다. 논리모델은 사회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업 및 프로그램에 투입한 자원에 대한 분석, 투입자원을 전환하는 활동, 이에 따른 산출과 성과에 대한 분석에 유용하다(이기영 외, 2023). 논리모델은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논리모델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용자 관점의 성과에 초점을 둔다는 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사업의 책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이민홍·정병오, 2019).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차원의 모니터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논리모델이 분석틀로 적합하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성과 모니터링 분석틀 개발을 위해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논리모델을 적용해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례들을 참조할 수 있다(백학영 외, 2011; 김춘남 외, 2018; 최권호·이상우, 2019). 해당 연구들은 특정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투입부터 활동·과정, 산출 및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련의 인과관계 흐름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평가지표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자활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주제로 한 연구(백학영 외, 2011)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기관 운영에 관련된 투입 지표, 자활사례관리 및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지표, 자활 취·창업자 수 등 산출지표, 자활성공 및 유지 등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했다. 최권호와 이상우(2019) 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강권 증진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인적자원, 물적자원, 인프라자원 등으로 구성된 투입요소,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의 활동요소,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대상 산출요소, 이용자·병원조직·지역사회 차원의 성과요소로 구성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모니터링 분석틀은 노인복지기금사업의 운영 과정을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한 연구(김춘남 외, 2018)를 근거로 참조하여 개발되었다. 해당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인 카네이션하우스와 같은 경기도의 지자체 사업이라는 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라는 점, 노인복지 사업에 포함된 인력 등 투입 요인, 프로그램 활동 요인, 목표달성 등 성과 요인 등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구성되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활동과 산출 영역을 한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리모델의 활동과 산출을 상호 독립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외에도 학계 교수 및 카네이션하우스 실

무 담당 공무원 등 12명으로부터 총 3차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모니터링 지표를 구성하였다. 최종 모니터링 지표는 투입 영역 5개 항목(25점), 활동 영역 7개 항목(35점), 산출 영역 3개 항목(15점), 성과 영역 5개 항목(25점) 총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표 2]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성과 모니터링 지표 구성

영역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내용	배점
투입 (25점)	1) 인력 배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가? (여부)	5
	2) 인력의 전문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5
	3) 시설의 적절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은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5
	4) 시설의 안전	노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한가?	5
	5) 운영주체의 사업 이해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운영주체(예: 노인복지관, 대한 노인회, 마을회, 사회복지법인 등)는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은가?	5
활동 (35점)	1) 이용자 선정	사업목적에 적합한 이용자를 선정하였는가? (여부)	5
	2) 안전사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가?	5
	3) 감염병 예방대책 준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준수하였는가?	5
	4)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	5
	5) 사업 홍보	회원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5
	6) 사업 일정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사업 일정을 지켜 수행하였는가?	5
	7)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행기관은 과거와 차별화된 창의적,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가?	5
산출 (15점)	1) 이용률	회원이 수행사업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가?	5
	2) 프로그램 수행	사업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5
	3) 예산 집행률 및 추가 예산부담	사업계획서 대비 실제 예산의 집행률은 어떠한가?	5
성과 (25점)	1) 만족도 조사	카네이션하우스 회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5
	2) 정책목표별 참여자 긍정적 변화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우울증, 공동체성)	5

성과 (25점)	3) 사업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소일거리, 건강,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5
	4) 기대효과 (또는 사업성과) 달성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또는 사업성과)를 달성하였는가?	5
	5) 지역 내 지지체계와 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의 다양한 시설 기관(예: 주민센터, 소방서, 체육회, 보건소,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기업 등)과 지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을 개발·공유하였는가?	5

3. 성과 모니터링 지표 측정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 지표의 배점은 5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정량 지표는 ‘우수(5점)’, ‘양호(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으로 구성된다. 정성 지표에 해당하는 항목(예: 운영주체의 사업 이해도)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논리모델의 투입-활동-산출-성과 흐름에 따른 모니터링 항목별로 어떻게 측정했는지 주요 문항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입 영역의 ‘인력의 전문성’ 항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② 사회복지학 정규 교육과정 이수, ③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확인하였다. 3개 항목에 해당하면 ‘우수(5점)’, 2개 항목 해당 시 ‘양호(4점)’, 1개 항목 해당 시 ‘보통(3점)’, 해당 항목 없음 ‘미흡(2점)’으로 측정된다.

다음 활동 영역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항목은 카네이션하우스가 과거와 차별화된 창의적·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기준은 ① 새로운 아이디어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 구축, ② 회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아이디어 또는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한 경험, ③ 외부기관과의 융·복합 접근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험이다. 3개 항목

에 해당하면 ‘우수(5점)’, 2개 항목 해당 시 ‘양호(4점)’, 1개 항목 해당 시 ‘보통(3점)’, 해당 항목 없음 ‘미흡(2점)’으로 측정된다.

산출 영역의 ‘이용률’ 항목은 회원의 사업 참여수준으로 총 등록인원 대비 월평균 이용인원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용률 90% 이상이면 ‘우수(5점)’, 80 ~ 90% 미만이면 ‘양호(4점)’, 70 ~ 80% 미만이면 ‘보통(3점)’, 60 ~ 70% 미만이면 ‘미흡(2점)’, 60% 미만이면 ‘매우 미흡(1점)’으로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목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여부로, ① 소일거리 프로그램 연계-운영, ② 건강프로그램 연간 3개 이상 운영, ③ 여가프로그램 연간 3개 이상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위와 같이 4개 항목에 해당하면 ‘우수(5점)’, 3개 항목 해당 시 ‘양호(4점)’, 2개 항목 해당 시 ‘보통(3점)’, 1개 항목 해당 시 ‘미흡(2점)’, 해당 항목 없음 ‘매우 미흡(1점)’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 성과 영역에서는 독거노인 이용자의 성과지표로서 긍정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울척도(CESD-11), 사회적 지지 척도(5점 리커트)를 사용하였다. 가령 카네이션하우스 이용자의 우울수준 평균 16점 미만은 ‘양호(2.5점)’, 16점 이상은 ‘우울(1.5점)’, 사회적지지 평균 점수 4점 이상은 ‘우수(2.5점)’, 4점 미만은 ‘보통(1.5점)’으로 측정하였다. 다음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항목은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개발 및 구축 노력을 의미한다. 외부기관 3곳 이상과 네트워크 수행 시 ‘우수(5점)’, 외부기관 2곳과 수행 시 ‘양호(4점)’, 외부기관 1곳과 수행 시 ‘보통(3점)’, 외부기관과 네트워크 없음 ‘미흡(2점)’으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40개소를 대상으로 앞서 개발한 성과 자체 모니터링 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논리모델의

흐름에 따라 투입-활동-산출-성과 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입

투입 영역은 전담인력 채용, 전담인력 전문성, 시설의 적절성, 시설의 안전, 운영주체의 사업 이해도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체 투입 영역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65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운영주체의 사업 이해도(평균 4.4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담인력의 전문성(평균 3.21점), 시설의 적절성(평균 3.25점)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담인력의 전문성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학 정규 교과과정 이수’,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업무경력’ 3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지 않는 시설도 일부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적절성 역시 ‘노인 이용에 편리한 1층에 위치’, ‘시설 내 엘리베이터 설치’,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등 필수 공간 배치’,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노인 상담공간 설치’, ‘휠체어, 보행보조기 사용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 5개 모니터링 내용 중 2개 항목에만 해당하는 ‘미흡’ 수준의 시설도 발견되었다.

[표 3] 투입 영역

구분	모니터링 세부 기준	n	평균 (SD)
전담인력 채용 ¹⁾	있음, 없음	39	3.77 (1.49)
전담인력 전문성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② 사회복지학 정규 교과과정 이수, ③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업무경력	39	3.21 (1.00)
시설의 적절성	① 노인 이용에 편리한 1층에 위치, ② 시설 내 엘리베이터 설치, ③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등 필수 공간 배치, ④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노인 상담공간 설치, ⑤ 휠체어, 보행보조기 사용을 위한 경사로 설치	40	3.25 (0.93)
시설의 안전	① 난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장치 등 설치, ② 화장실 양변기 안전대 설치, ③ 가스 차단기 설치, ④ 소화기 설치 및 사용연한 준수, 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설치	40	3.55 (0.99)

운영주체의 사업이해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40	4.45 (0.85)
	전체	40	3.65 (0.64)

주1) 응답기관 중 전담인력 ‘있음’ 59.0%, ‘없음’ 41.0%의 분포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카네이션 하우스의 영세한 사업 운영현황을 고려해,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5점, 없는 경우에도 0점이 아닌 2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2) 활동

다음 활동 영역은 이용자 선정의 적합성,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감염병 예방대책 준수, 예산집행의 적절성·투명성, 사업 홍보의 충실성, 사업 일정, 사업의 창의성·혁신성의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체 모니터링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95점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이용자 선정의 적합성이 평균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책 준수 평균 4.50점, 예산 집행의 적절성·투명성 4.23점,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4.0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4점 미만의 점수로 나타난 항목은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3.98점, 사업 홍보의 충실성 3.5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일정 수행률 항목은 평균 2.8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 활동 영역

구분	모니터링 세부 기준	n	평균 (SD)
이용자 선정의 적합성	① 전체 이용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50% 이상, ② 사업 계획서 대비 회원 충원율 90% 이상	40	4.58 (0.55)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① 안전사고 발생 횟수, ¹⁾ ②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책 준비 여부 ²⁾	39	4.03 (1.14)
감염병 예방 대책 준수	① 감염병 비상연락체계 구축, ② 발열체크 및 이용자 명부 기록, ③ 감염병으로 인한 시설 운영 중단 시 대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40	4.50 (0.51)
예산집행의 적절성·투명성	① 기본사업비 중 건강·여가, 중식 항목의 10% 이상 사용, ② 관리운영비 60% 이하 사용, ③ 소일거리 항목 지출 20% 미만 사용, ④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40	4.23 (1.29)

사업 홍보의 충실성	① 홍보물 제작, ② 홍보물 배포, ③ 회원 모집을 위해 주민 자치센터 등 외부기관 등 활용	40	3.50 (1.24)
사업 일정 ³⁾	①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일정 대비 실제 일정 수행률	40	2.85 (1.76)
사업의 창의성·혁신성	① 새로운 아이디어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 결정 제도 구축, ② 회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아이디어 또는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한 경험, ③ 외부기관과의 융·복합 접근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험	40	3.98 (1.07)
전체		40	3.95 (0.73)

주1) 안전사고 미발생(2점), 안전사고 3회 이상 발생 시 미흡(1점)

주2) 문서화된 대응책 마련(3점), 대응책 마련(2점), 대응책 없음(1점)

주3) 우수(5점): 수행률 90% 이상, 양호(4점): 수행률 80~90% 미만, 보통(3점): 수행률 70~80% 미만, 미흡(2점): 수행률 60~70% 미만, 매우 미흡(1점): 수행률 60% 미만

3) 산출

세 번째 산출 영역은 이용자 이용률, 프로그램 운영실적, 예산집행을 및 추가 예산부담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산출 영역의 평균 은 3.18점의 보통 수준으로 투입 및 활동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세부 적으로 총 등록인원 대비 월평균 이용인원 비율을 의미하는 이용률은 평균 3.55점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등록된 독거노인의 카네이션 하우스 이용률 수준이 대략 80%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는 조사 당시 코로 나19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실적의 경우 평 균 3.10점, 예산집행을 및 추가 예산부담 등 예산 관련 산출은 평균 2.97점 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투입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자체 성과 모니 터링 분석결과 대비 실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산출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일거리, 건강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등 「경 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명시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산출 영역

구분	모니터링 세부 기준	n	평균 (SD)
이용률 ¹⁾	① 총 등록인원 대비 월평균 이용인원 비율	40	3.55 (1.68)
프로그램 운영 실적	① 소일거리 프로그램 연계·운영, ② 건강프로그램 연간 3개 이상 운영, ③ 여가프로그램 연간 3개 이상 운영, ④ 기타 노인복지관,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40	3.10 (1.43)
예산 집행률 및 추가 예산부담 ²⁾	① 사업계획서 대비 실제 예산 집행비율, ³⁾ ② 시·군의 추가적인 예산부담 여부 ⁴⁾	31	2.97 (1.11)
전체		40	3.18 (1.23)

주1) 우수(5점): 이용률 90% 이상, 양호(4점): 이용률 80 ~ 90% 미만, 보통(3점): 이용률 70 ~ 80% 미만, 미흡(2점): 이용률 60 ~ 70% 미만, 매우 미흡(1점): 이용률 60% 미만

주2) ①+② 합계 미흡(2점) ~ 우수(5점)

주3) 우수(3점): 집행률 100%, 양호(2점): 집행률 90% 이상, 보통(1점): 집행률 80% 이상

주4) 있음(2점), 없음(1점)

4) 성과

마지막 성과 영역의 전체 평균은 3.77점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평균 4.67점), 우울수준 및 사회적지지 등 독거노인의 긍정적 변화(평균 4.61점)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 달성 정도에 대한 성과항목에서는 평균 3.05점의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대체로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수준이 약 80% 수준으로 평가되어, 향후 효과적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네이션하우스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평균 3.73점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타나 향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설 운영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개발 및 구축을 의미하는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항목은 평균 3.58점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 성과 영역 분석결과

구분	모니터링 세부 기준	n	평균 (SD)
카네이션 하우스 만족도 조사	① 만족도 조사 수행 여부, ② 응답자 만족도 평균 ¹⁾	37	3.73 (1.56)
이용자 긍정적 변화 ²⁾	① 우울수준, ³⁾ ② 사회적지지 ⁴⁾	28	4.61 (0.57)
사업의 지속가능성	①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② 사업수행을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③ 사업수행 이후에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39	4.67 (0.70)
기대효과 달성 ⁴⁾	① 기대효과(사업성과) 대비 실제 달성한 기대효과(사업성과) 비율	40	3.05 (1.66)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①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개발 및 구축 노력	40	3.58 (1.28)
전체		40	3.77 (1.03)

주1) 우수(5점): 평균 4.5~5점, 양호(4점): 평균 4~4.5점, 보통(3점): 평균 3~4점, 미흡(2점): 평균 1~3점, 매우 미흡(1점): 조사 미실시

주2) 우울수준 CESD-11 척도 cut-off 16점 미만(양호: 2.5점), 16점 이상(우울: 1.5점)

주3) 사회적지지 5점 리커트 척도: 평균 4점 이상(우수: 2.5점), 평균 4점 미만(보통: 1.5점)

주4) 우수(5점): 달성률 100%, 양호(4점): 달성률 90% 이상, 보통(3점): 달성률 80% 이상, 미흡(2점): 달성률 70%, 매우 미흡(1점): 달성률 70% 미만

한편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자체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종합하면, 40개소 총점수의 평균은 전체 72점, 최소 37점, 최대 96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카네이션하우스 간 사업수행 역량의 편차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투입 영역의 경우 25점 만점 중 40개소의 평균 점수는 18점, 활동 영역은 35점 만점 중 평균 28점, 산출 영역은 15점 만점 중 평균 9점, 성과 영역은 25점 만점 중 평균 1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노후생활 증진을 위해 설치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성과관리를 위해 개발된 자체 모니터링 지표를 40개소 시설에 적용하고 향후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체 성과 모니터링 지표는 논리모델의 흐름에 따라 4개 영역(투

입-활동-산출-성과)으로 구성되었다. 자체 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해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4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모델 적용에 따른 투입(평균 3.65점), 활동(평균 3.95점), 산출(평균 3.18점), 성과(평균 3.77점)의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산출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률, 프로그램 운영실적, 예산집행률 및 추가 예산부담으로 구성된 산출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논리모델의 성과 달성이 이전 단계인 산출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카네이션하우스의 정량 실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총점(100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40개소의 평균은 72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37점부터 최대 96점까지 시설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의 투입 영역 중 전담인력 및 시설 인프라 등 인적·물적 자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40개 응답기관 중 전담인력이 없는 곳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1.0% 수준이었다. 또 인적자원 측면에서 카네이션하우스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포함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학 정규 교과과정 이수,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업무경력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활동 영역 평가결과, 사업 일정 준수와 예산집행 등 항목에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는 다음 산출 영역의 예산집행률 항목과도 연결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즉 카네이션하우스가 본래 사업계획서에 수립한 사업내용을 실제로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의 사업 일정 대비 수행률이 낮으므로, 다음 결과물로 도출되어야 할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률 역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활동 영역의 사업 일정 준수를 위한 개별 카네이션하우스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성과 영역의 모니터링 결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의 우울수준 감소, 사회적 지지 향상 등의 변화는 독거노인 대상 사업의 성과로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기대효과 달성(평균 3.05점), 카네이션 하우스 만족도 조사(평균 3.73점) 등 점수가 낮은 항목들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두 항목 역시 논리모델의 흐름에 따라 활동 및 산출 영역의 문제로 지적된 낮은 사업 일정 수행률, 낮은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률에 따라 성과 영역에서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40개소의 시설 간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전체 40개소의 평균은 72점 수준인 반면, 최소 점수(37점)와 최대 점수(96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이용자의 체감 만족도 보장을 위해서는 각 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자문위원단 구성을 통한 정기/수시 자문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및 시설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투입 영역 분석결과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시설의 적절성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초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특성상 전담인력의 불안정한 처우로 인해 원활한 인사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카네이션하우스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력관리로서 교육 매뉴얼 개발·보급, 보수교육, 회계-예산처리 교육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내용 등 유사 분야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한국정책학회, 2023). 시설의 물리적 인프라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시·군 소유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등 기존의 경로당과 분리된 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상 1층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상층부 위치 시 엘리베이터 시설의 완비 등이 필수요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의 노화로 인한 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예방하는 무장애디자인(Barrier-free design)에 기초한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서울특별시, 2017).

셋째, 독거노인 대상 카네이션하우스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경로당과는 별개로 노인 1인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경로당은 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폐쇄체계에 가깝다. 반면 카네이션하우스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통한 개방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경로당이 주로 노인을 보호하는 역할이었다면, 카네이션하우스는 오히려 노인의 사회참여와 생산성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네이션하우스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하고 회원을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점진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 및 여가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향후 소일거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운영주체 역시 노인의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이외에도, 일자리 서비스 제공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중심이 되는 것도 소일거리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어르신 복지서

포터즈’,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 등의 사업을 카네이션하우스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및 접근에 있어 장벽을 경험했던 저소득 독거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박현남·허수연, 2023).

넷째,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주요 대상인 독거노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 개발 시 외부 활동 가능성 및 이동 접근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외부 이동이 가능하고 참여의지가 있는 독거노인은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가령 운동 및 걷기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역 내 이동 경로를 구성할 수 있다. 독거노인이 자주 방문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세탁소, 복지관, 카네이션하우스 등을 맵(map)으로 만들어 방문일지를 작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강화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최근 심각한 지역문제인 고립위험이 높은 1인 노인가구, 은둔형 독거노인을 위한 활동과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수 있다. 카네이션하우스 이용 회원이 지역의 고립도가 높은 독거노인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주체로서 양성되는 주민조직화 사업을 독거노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독거노인의 욕구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분석이 정기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노인돌봄 관련 고독사·자살 예방사업의 실행가능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유진, 2022). 카네이션하우스는 경로당과 달리 노인 1인가구, 즉 독거노인을 위한 경기도만의 특성화 사업이다. 실제 본 연구의 모니터링 분석결과에서도 활동 영역 중 ‘이용자 선정의 적합성’ 항목이 평균 4.58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카네이션하우스 고유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본 사업의 본래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카네이션하우스가 최근 노인 1인가구 및 고립가구 증대라는 시대적 위기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이미 201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나름의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아직 해당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환류 체계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자체 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정체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카네이션하우스 간 역량의 차이를 좁히고 상향평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네이션하우스의 성과 모니터링은 각 시설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 따라서 시설의 주관적 인식이 자체 평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카네이션하우스 성과관리 고도화 과정에서 정량·정성평가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카네이션하우스의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제 논리모델 단계 중 산출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후속 조사 및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카네이션하우스 이용 독거노인의 긍정적 변화(예: 우울수준, 사회적지지, 공동체 의식 등)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공사례 발굴 및 질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은나·이민홍,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효과 분석 연구: 성향매칭분석을 통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 『보건사회연구』 38권 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196-226쪽.
- 경기도, 『경기도 노인복지과 사업안내』, 2024.
- 김수진·류주연·성기옥, 「고독사 고위험 노인의 고독생(孤獨生)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78권 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23, 67-91쪽.
- 김예성, 「노인의 독거여부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4권 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14, 400-429쪽.
- 김유진, 「RE-AIM 틀을 활용하여 살펴본 고독사·자살 예방사업의 시행과정과 성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권 3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2, 1-35쪽.
- 김춘남·이상우·이광현·이미영, 『독거노인을 위한 여가복지시설 운영 방안 연구: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기능강화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2022.
- 김춘남·전용호·맹성준·김서인·박승희, 『2018년 노인복지기금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경기복지재단, 2018.
- 박현남·허수연, 「저소득 독거 노인의 여가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경험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9권 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23, 1-31쪽.
- 백학영·구인회·김경휘·조성은·안서연,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3-35쪽.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12.14.
-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023.

- 보건복지부,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2023.
- 서울특별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2017.
- 서인균·이연실, 「지역사회환경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69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383-415쪽.
- 석재은·장은진,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1권 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 321-349쪽.
- 손정남,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1권 2호, 2021, 한국정신간호학회, 118-126쪽.
- 어유경·김가희·안수란·이민홍·전용호·최지선·고숙자·서윤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이기영·문순영·엄태영·주은수·이상우·최혜경, 『사회복지행정론』, 신정, 2023.
- 이명진·김명희·윤소현·임효재·김은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반돌봄군 및 중점돌봄군 노인과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지원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2020.
- 이민홍·전용호·서동민·윤현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현황 진단 및 품질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20.
- 이민홍·정병오,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양서원, 2019.
- 이수진·허용훈, 「우리나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26권 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195-224쪽.
- 전용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노년학』 40권 4호, 한국노년학회, 2020, 599-616쪽.
- 정순돌·유재언·조미정·정지혜, 「고독사 위험군 유형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5권 3호, 한국사회

복지학회, 2023, 397-420쪽.

최 영, 「독거노인의 경제수준,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권 4호, 사회과학연구소, 2008, 103-123쪽.

최권호·이상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 성과지표 개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

통계청, 『독거노인가구비율』, 202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17 ~ 2047년』, 2019.

통계청, 〈독거노인가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701&conn_path=I2, 2024.02.27.

한국정책학회, 『노인일자리 종합 교육체계 마련 연구』, 한국정책학회, 2023.

황경란·정세미·윤성임·최성은, 『2020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020.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의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1년 7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논리모델에 기초한 자체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였다(투입 5항목, 활동 7항목, 산출 3항목, 성과 5항목).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점 만점 기준, 투입 평균 3.65점, 활동 평균 3.95점, 산출 평균 3.18점, 성과 평균 3.77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산출 영역에 대한 사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 영역 중 전담인력 및 시설 인프라 등 인적·물적 자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활동 영역 중 사업 일정의 준수와 예산 집행 항목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넷째, 성과 영역에서 사업의 지속성, 이용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독거노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논리모델

■ Abstract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Lee, Sang Woo / Mokwon University
Kim, Chun Nam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arnation House i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and explore tasks for improving the functions of its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is study conducted a self-monitoring evaluation based on a logic model for a total of 40 Carnation House employees.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based on a 5-point scale, the average input score was 3.65, the average activity score was 3.95, the average output score was 3.18, and the average outcomes score was 3.77.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irst, intensive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output area. Second, the level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cluding personnel and facility infrastructure was low among the input area. Third, in the activity area, administrative difficulties were found in terms of compliance with project schedules and budget execution. Lastly, relatively high scores were found in project sustainability and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upgrading the Carnation House project in the future.

Keyword • Gyeonggi-do, Carnation House, the elderly living alone,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logic model

클래식 공연 관람객의 체면유형이 주관적 행복감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 나 다 · 이 희 성*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실증분석
5. 결론

1. 들어가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공연예술 소비통계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분기에서 클래식 공연의 공연비중은 전체시장의 36.8%로 가장 높았지만, 티켓 판매액은 전체 시장의 12.7%에 불과했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발표 건수는 타 장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향유하려는 소비자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클래식이 연극, 뮤지컬 등 다른 장르와 비교해 문화상품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뮤지컬을 포함한 대중음악은 기업의 운영 방식

* 최나다 (제1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
이희성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관객을 늘리면서, 클래식 공연보다 더 활기찬 문화 지형을 만들어가고 있다(이찬, 최배석, 2018). 클래식 공연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연이 많이 열리는 점, 정부의 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공연의 성공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연히 관객들의 니즈에 대한 부분에서도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미 지원에 의한 수동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클래식 공연도 콘텐츠라는 상품으로 인식하여 관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Curim, Weinberg, wittink(1981)은 음악, 연극공연을 관람하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좌석 그리고 공연자의 명성이 핵심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Skrzypczak(1970)에 따르면 클래식 공연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은 연주자의 실력과 인지도라고 하였다. 최근 클래식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피아니스트 임윤찬 등 스타 연주자의 고가 티켓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매진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단순한 관객이 아닌, 공연상품의 티켓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클래식 공연 관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람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김선영, 이의신, 2017).

이와 같이 오늘날의 소비는 대상이 가진 단순한 사용 목적이나 실용성 뿐만 아니라, 대상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미나 상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해졌다(조현진, 김은실, 2023). 즉 소비를 통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비에 있어 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체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이면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로 개인주의적인 서양과는 달리 타인의 시선 즉 체면의식이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콘텐츠 관람에서도 주요 관람 동기로 작용한다(최가은, 강신겸2023). 문화예술콘텐츠 중에서도 클래식 공연은 개인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관람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남기기 위해 관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earden & Tell, 1983). 또한 최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시기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는 소비자들의 체면 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클래식 공연의 관객층 확대를 위해, 공연이 제공하는 가치와 관객이 원하는 경험을 깊이 있는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인 체면이 문화예술 콘텐츠 관람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 콘텐츠 중에서도 클래식 공연에 중점을 두어 체면유형과 주관적 행복감과 행동의도와 관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클래식공연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체면유형을 분류하고, 체면유형이 주관적 행복감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클래식 공연 관람의 의의

이섫별(2017)은 클래식 음악을 외적으로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교육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즐겨듣는 음악 장르라고 설명하였다. 클래식 음악은 과거 귀족층이나 교육을 받은 상류층의 문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이 있었다. 또한, Bourdieu(1984)는 클래식 음악이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즐기는 문화라고 정의하며 ‘세련됨’과 ‘우수함’ 등의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Bourdieu(1984)에 따르면, 바흐, 모차르트 등을 상위계급에서 선호하고 대중음악을 하위계급이 선호한다는 것을 밝혀 문화적 위계와의 상동성과 사회경제적 계급에 대해 최초로 주장하였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술 작품이나 클래식 음악과 같은 문화적 재화를 향유하려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비할 수 있는 능력과 성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최섯별, 이명진(2013)은 클래식 음악은 객체화된, 체화된, 그리고 제도화된 문화자본이 필요한 예술 장르이므로 고도화된 수준의 문화자본을 통해서만 향유와 감상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고 하였다. 서은아(2023)는 클래식 공연은 관람자의 미적, 감각적 영역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공연 관람자들의 대한 해석과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람객의 관람 행동과 내재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 클래식 공연의 개념

‘고전’을 뜻하는 영어인 ‘클래식(classic)’은 라틴어 ‘클라시쿠스(classicus)’에서 유래되었다. 클라시쿠스라는 단어는 ‘함대(艦隊)’를 의미하는 ‘클라시스(classis)’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이다. 고대 로마시대에 ‘클라시스’는 ‘군함의 집합체’라는 의미였고, ‘클라시쿠스’는 로마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라를 위해 함대를 기부할 수 있는 부호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클라시쿠스(Classicus)는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수한 작품’또는 ‘하나의 규범’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Wladyslaw Tatarkiewicz, 1990). 위와 같이 고전주의라고 우리 말로 해석되는 클래식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유행한 그림, 문학, 음악 등의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말한다. 음악에서는 1750년부터 1827년까지의 기간 동안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음악가들이 작곡한 음악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고전파 음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음악을 가리킨다(권송택,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클래식 공연의 범위를 17세기부터 19세기 말에 해당하는 서양음악과 무용 공연으로 규정한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음악은 기악 앙상블, 오케스트라, 오페라로 한정하며, 무용은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제외한 발레만으로 클래식 공연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3) 체면유형

체면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서용한, 오희선, 전민지, 2011). 최상진, 최인재(1999)는 체면을 경험적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사회격식성 체면, 창피의식성 체면, 자괴의식성 체면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명현, 이형룡(2013) 체면민감성을 타인의식성, 창피의식성, 형식격식성으로 분류하였다. 서문식, 이섫별(2018)은 위상적 부분과 타인을 고려한 권위 체면, 인격 체면, 능력 체면으로 구분하였다.

체면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체면에 관한 연구보다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체면과 브랜드 소비, 명품소비와 체면에 대한 논의가 많다고 보여진다. 유혜연, 방정혜, 김민선(2023)과 오희선, 서용한, 전민지(2011)는 체면 민감성과 체면 중시 성향이 명품 브랜드 소비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연구하였으나 브랜드 태도와 체면 민감성 영향 관계 연구에서 상호간 영향을 주지만 연구대상을 20-30대 중반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과 체면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의 품질이 행복감과 관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체면의식 중심으로(이섫별, 2017)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공연의 서비스 품질과 체면의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고 체면유형과 행동의도와

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가 20대와 30대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행복감에 대한 심리적 연구가 미흡한 점이 있다. 서문식, 이셋별(2018)은 소비자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콘텐츠를 소비 할 때 체면유형이 관람만족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 문화예술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면유형을 검증하고, 이러한 유형별 소비행동과 지각된 가치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콘텐츠의 범주화와 구체성의 설정에 다소 모호한 면이 있고, 문화예술과 체면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다.

박은아(2012)는 공연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사회적 욕구라고 설명하였다. 즉, 공연 관람 시 친목 도모와 같은 사회활동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형룡, 이덕원, 김재완(2015)은 체면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과시적 소비를 더 많이 하며, 자신을 남들과 다르게 여겨 특별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고 소비 수준 또한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의 소비 활동이 점점 주관적인 욕구와 감성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이러한 심리적 변수인 체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체면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연 분야에서 공연의 소비 특성, 관람 동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면을 본인의 행동에 대해 타인의 평가와 인정을 의식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체면을 위의 선행연구 체면유형을 참고하여 자기체면, 타인체면, 위상체면, 인격체면 4가지로 구성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4) 주관적 행복감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된다(전인수 2020). 행복감에는 여러 정의가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본인의 만족스런 삶이 행복에 대한 주요한 평

가 요소로 사용되면서(민성길,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2000), 행복감에 대한 의미가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삶의 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홍빛나, 김미옥, 오치옥, 2023). Van Boven(2003)은 행복은 추상적인 자극과 구체적인 자극에 기반을 두므로, 경험 소비가 제품 소비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체면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진 등(2018)은 야구용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체면이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체면이 구매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문화예술콘텐츠 소비자의 체면민감성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수, 우양일, 2012). 이는 행복감은 문화예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김태연, 2023). 김태연(2023)은 인간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매개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바다(2019)는 물리적 환경과 문화예술이라는 경험을 통해 경험, 지각하는 가치, 성취 등 가치의 모든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박은아(2012)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행복감을 더 증폭시키는 행위를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렇듯 행복감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관적인 평가나 가치관에 따라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인애, 2020). 이러한 주관적인 행복의 개념을 많은 연구에서 삶의 만족 또는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홍빛나, 김미옥, 오치옥,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삶의 질 등을 주관적 행복감으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하며 주관적 행복감을 본인의 삶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행복감이며 본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5) 행동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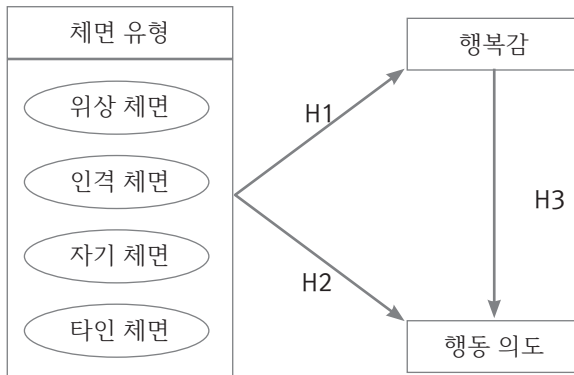
행동의도는 소비자들이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태도를 형성한 후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나타내려는 행위적 의도이다(Boulding, Zeithaml, Kalra Staelin, 1993). 또한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하는 행동 전후의 경험을 토대로 특정 태도를 형성하고 구전, 재구매, 추천 등과 같은 행위를 유발하는 개인의 의지나 신념으로도 볼 수 있다. 행동의도는 공연 관람에 있어서 특정 경험에 따른 만족결과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김영미, 2013). 이남경·강신겸(2023)는 예술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동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강신겸·류수현(2018)은 문화예술공연 관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의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긍정적 소비 감정의 행복감은 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연, 이은미, 최한나, 2019). 소비자들에게 있어 소비경험은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며, 수준 높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소비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Nicolao, Irwin, Goodman, 2009). 또한 행동의도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의도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활동이라고 하였다(정다훈, 백종은, 정경희, 202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동의도를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하는 행동 전후의 경험을 토대로 특정 태도를 형성하고 구전, 재구매, 추천 등과 같은 행위를 유발하는 개인의 의지나 신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클래식공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안에 1회 이상으로 공연장을 방문했던 클래식공연 관람객의 체면유형이 행복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 [그림 1]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1) 체면유형과 행복감의 영향 관계

박상수, 우양일(2012)은 체면소비가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람자의 체면 민감성에 따른 사회관계, 개인유익과 같은 추구지향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셋별(2017)은 체면 민감성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의식하는 편이고, 보다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 하였다. 앞서 행복감의 이론적 고찰에서 행복감은 삶의 만족, 심리적 만족 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이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H1 체면유형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1 체면유형 중 자기 체면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2 체면유형 중 타인 체면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3 체면유형 중 위상 체면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4 체면유형 중 인격 체면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 체면유형과 행동의도의 영향 관계

양성연, 양성진, 조용범(2022)은 체면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

의 반응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며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구매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령, 2020). 또한 체면 민감성과 명품구매의도, 명품선호도와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체면 민감성이 높은 고객은 명품선호도가 높으며 재구매의도 또한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이병관, 이병수, 2021).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체면유형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체면유형 중 자기 체면은 행동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타인 체면은 행동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3 위상 체면은 행동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4 인격 체면은 행동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주관적 행복감과 행동의도의 영향 관계

소비자의 행복감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신민정·원문기·송학준, 2018), 행복감은 구전효과와 재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송경숙, 2012).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주관적 행복감은 행동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체면을 본인의 행동에 대해 타인의 평가와 인정을 의식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안근석, 양병창(2000), 서문식, 이섫별(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체면을 자기체면, 타인체면, 위상체면, 인격체면 4가지로 나눠 하위 요소별 4개의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을 본인의 삶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행복감이며 본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상태라고 정의하며 박은아(2012), 유인애(2023), 홍빛나, 이미옥, 오치옥(2023)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

을 작성하였다.

행동의도는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하는 행동 전후의 경험을 토대로 특정 태도를 형성하고 구전, 재구매, 추천 등과 같은 행위를 유발하는 개인의 의지나 신념으로 정의하며 강신겸, 류수현(2018), 전주언, 이은미, 최한나(2019) 연구를 참조하여 행동의도의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는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요인
체면 유형	자기 체면	본인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개인적 특성	안근석, 양병창(2000)
	타인 체면	타인의 시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적 특성	서용한, 오희선, 전민지(2011)
	위상 체면	위상, 혹은 권위를 중요시 하는 개인적 특성	이섯별(2017)
	인격 체면	교양, 인격, 격식을 중요시 여기는 개인적 특성	서문식, 이섯별(2018)
주관적 행복감	본인의 삶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행복감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상태		박은아(2012) 유인애(2020) 홍빛나, 김미옥, 오치옥(2023)
행동 의도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하는 행동 전후의 경험을 토대로 특정 태도를 형성하고 구전, 재구매, 추천 등과 같은 행위를 유발하는 개인의 의지나 신념		강신겸, 류수현(2018) 전주언, 이은미, 최한나(2019)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내 공연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인구통계적 표본 특성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총 3개 변수에서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은 클래식 공연을 6개월 안에 관람한 경험이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

였으며 구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024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4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289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분석 불가능한 32부를 제외한 총 257부가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되었다.

5) 분석방법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7을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활용하였고,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변수의 구성요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사이의 영향관계를 도출하였다.

4.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성별은 여자가 140명(54.5%), 남성이 117명(45.5%)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가 84명(32.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졸업이상(재학)이 154명(59.9%)로 최다 분포이며, 월평균 소득은 500백만원 ~ 1000백만원 미만이 82명(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전문직이 70명(2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유형	빈도(명/수)		비율(%)
성별	남	117	45.5
	여	140	54.5
연령	20대	30	11.7
	30대	64	24.9
	40대	72	28.0
	50대	84	32.7
	60대 이상	7	2.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	16.7
	대학교 졸업(재학)	60	23.3
	대학원 졸업이상(재학)	154	59.9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6	6.2
	200 ~ 300백만원 미만	35	13.6
	300백만원 ~ 400백만원 미만	34	13.2
	400 ~ 500백만원 미만	38	14.8
	500 ~ 1000만원 미만	82	31.9
	1000만원 이상	52	20.2
직업	예술인	14	5.4
	사무직	50	19.5
	전문직	70	27.2
	기술직	35	13.6
	교육직	25	9.7
	자영업	38	14.8
	학생	3	1.2
	프리랜서	5	1.9
	주부	4	1.6
	서비스직	9	3.5
	기타	4	1.6
합계		257	100.0

관람특성에 관해서는 클래식 음악이 71명(27.6%)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선호도를 차지하였으며 관람 동행인은 가족이 85명(3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티켓 수령방식에서는 구매가 154명(59.9%)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관객이 유료로 관람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체면유형, 행복감, 행동의도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거쳐 검토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표 3,4,5]와 같다. 체면유형과 관련된 16개 설문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체면, 타인체면, 위상체면,

인격체면 4개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분산설명력은 70.297%로 분석되었다. 4개 하위요인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812, 0.820, 0.917, 0.937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체면유형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요인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자기 체면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765	.812
	타인에게 약점을 들키는 것을 싫어한다.	.862	
	자존심이 강한 편이다.	.857	
	타인에게 실수를 들키는 것을 싫어한다.	.790	
타인 체면	타인의 관점에 민감한 편이다.	.639	.820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편이다.	.781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편이다.	.856	
	타인을 의식하는 편이다.	.830	
위상 체면	인지도를 중요시하는 편이다.	.827	.917
	평가를 중요시하는 편이다.	.871	
	높은 품질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846	
	위상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822	
인격 체면	교양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741	.937
	인격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608	
	격식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811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735	

Total variance explained=70.297%, KMO= .84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281.751, df=120, p=.000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1개 단일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분산설명력은 81.166%로 분석되었다. 요인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785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주관적 행복감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요인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주관적 행복감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850	3.247	81.166	.785
	삶에 대해 만족감을 갖는다	.936			
	행복한 감정을 자주 갖는다.	.938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낀다.	.876			
Total variance explained=81.166%, KMO= .82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836.411, df=6, p<.001					

[표 5] 행동의도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요인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행동 의도	타인에게 이 공연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885	3.366	84.149	.812
	타인에게 이 공연을 긍정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다.	.948			
	이 공연 관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938			
	이 공연을 관람하고, 다른 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있다.	.898			
Total variance explained=84.149%, KMO= .82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948.755, df=6, p<.001					

3) 가설의 검증

(1) 체면 유형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체면 유형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단순회귀 분석 결과는 [표 6]이다. 체면유형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전체 회귀식 설명력이 18.8%이며, F값은 15.780이고, 자기체면은 주관적 행복감에 $\beta = -.118$, ($p = .037$)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 수준 0.05 이하에서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체면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고 볼 수 있다. 위상체면은 $\beta=.013(p=0.817)$ 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타인체면 $\beta=.361(p=0.01)$ 과 인격체면은 $\beta=.236(p=0.01)$ 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표 6] 체면 유형과 주관적 행복감 관계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주관적 행복감	(상수)	-9.149	.056		.000	1.000
	자기체면	-.118	.056	-.118	-2.099	0.037
	타인체면	.361	.056	.361	6.417	<.001
	위상체면	.013	.056	.013	.231	.817
	인격체면	.236	.056	.236	4.182	<.001

R²=.200 수정된 R²=.188 F=15.780 p-value=<.001b Durbin-Watson = .288

(2) 체면유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체면유형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단순회귀 분석 결과는 [표 7]이다. 체면유형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전체 회귀식의 설명력이 38.3%이며, F값은 40.727이고, 위상체면은 $\beta=-.039(p=0.425)$ 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표 7] 체면유형과 행동의도 관계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β		
행동 의도	(상수)	-4.008	.049		.000	1.000
	자기체면	.234	.049	.234	4.760	<.001
	타인체면	.513	.049	.513	10.454	<.001
	위상체면	-.039	.049	-.039	-.799	.425
	인격체면	.270	.049	.270	5.507	<.001

R²=.393 수정된 R²=.383 F=40.727 p-value=<.001b Durbin-Watson = .257

(3) 주관적 행복감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행복감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한 단순회귀 분석 결과는 [표 8]이다. 주관적 행복감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전체 회귀식의 설명력이 58.7%이며, F값은 365.511이고, 자기체면 $\beta=.234(p=0.01)$, 타인체면 $\beta=.513(p=0.01)$, 인격체면 $\beta=.270(p=0.01)$ 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위상체면은 $\beta=-.039(p=0.425)$ 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표 8] 주관적 행복감과 행동의도 관계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표준오차	β		
행동 의도	(상수)	-4.008	.049		.000	1.000
	자기체면	.234	.049	.234	4.760	<.001
	타인체면	.513	.049	.513	10.454	<.001
	위상체면	-.039	.049	-.039	-.799	.425
	인격체면	.270	.049	.270	5.507	<.001

R2=.393 수정된 R2=.383 F=40.727 p-value=<.001b Durbin-Watson = .257

5. 결론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클래식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체면 유형을 조사하고, 주관적 행복감과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6개월 동안 클래식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남정보다는 여성들이 클래식 공연에 대한 참여도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50대와 4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중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관람한다고 볼 수 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재학)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월

평균 소득은 500 ~ 1000백만원 미만인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전문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르디외(Bourdieu)는 클래식공연이 문화 자본의 고유한 특성 중 고급 예술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장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고학력, 고소득 계층일수록 클래식 공연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릴 때부터 클래식 공연에 노출되었거나 교육을 통해 이를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람 특성에서 클래식 공연 장르 중 무용 등 타 장르에 비해 음악 장르가 가장 높은 선호도로 나타나고 있다. 관람 동행인은 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람 동행자로 가족이 높은 이유로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 공연을 경험하게 해주는 교육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으로도 소비가 되었을 가능성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클래식 공연 수요층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통해 공연 장르별 타깃층을 확보하고, 40 ~ 50대 가족동반형 클래식 음악공연에 대한 기획 방향 등 실무적 활용 방안에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체면유형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자기체면은 주관적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상체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타인체면과 인격체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주관적 행복감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기체면, 타인체면, 인격체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위상체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즉, 위상체면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관적 행복감이 행동의도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클래식 공연 관람객의 체면 유형과 주관적 행복감, 행동 의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조사 결과, 클래식 공연 관람객은 타인체면과 인격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는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클래식 공연 관람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서용한, 오희선, 전민지; 2011 이형룡, 이덕원, 김재완; 2015)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클래식 공연은 일반적으로 고급스럽고 문화적인 행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은 클래식 공연 관람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클래식 공연 관람은 개인의 교양과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기도 하므로, 연구대상자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교양 있고 수준 높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부르디외(1984)에 이론에서 월평균 소득이 높고, 직업 지위나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하며 보유하고 있는 객체화된 문화자본이 높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결과,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계층이 클래식 공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술적 경험과 그에 맞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특정 작곡가나 연주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해당 작곡가 또는 연주가가 참여하지 않은 공연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같이 관람한 공연의 품질이 이러한 기

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상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위상체면은 장기간 지속되는 행동이나 취미를 통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계기나 목적으로 관람한 경우 지속적인 관람 의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관람 경험만으로는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관객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백스테이지 투어, 연주자와의 만남 등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경험으로 지속적인 관람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클래식 공연 관람 행위를 자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해시태그 이벤트나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시하는 타인체면을 중점을 두어 클래식 공연의 좋은 리뷰를 활용하는 마케팅 방안도 시사점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이 전국 관람객이 아닌 수도권 내 관람객으로 국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전체 클래식 공연 관람객에게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별로, 그리고 관람객 개개인마다 소득 수준, 교육수준, 문화적 소비 성향 등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클래식 음악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통계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설문 양으로 인하여 공연장에서 직접적인 설문을 진행하지 못하고 최근 6개월 이내 클래식 공연을 관람한 관객을 기반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닌다. 이는 공연 직후 느낀 감동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볼 수 있다.

셋째, 추가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상관계수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조방정식 추가 분석을 발전시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좁혀 연구하고 보다 넓은 표본층을 가지고 조사한다면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권세원·이애현·송인한,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Adolescent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권 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39-72쪽.
- 권송택, 「서양 고전주의 음악의 관용적 표현 양식」, 『음악과 문화』 13권, 세계음악학회, 2005, 89-124쪽.
- 강용수·이섿별·엄성원, 「공연 경험은 어떻게 측정되는가?-공연 경험이 즐거움과 재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44권 1호, 한국예술경영학회, 2017, 95-137쪽.
- 김바다, 「관광공연품질과 물리적환경이 경험가치와 재구매의도의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영미, 「문화유산 관람선택속성이 관광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창경궁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5권 3호, 한국호텔관광학회, 2013, 24-38쪽.
- 김태연, 「문화예술동아리 참여 대학생의 재미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검증」, 『한국무용과학회지』 40권 4호, 한국무용과학회, 2023, 61-74쪽.
- 류수현·강신겸, 「문화예술공연 관람자의 서비스 품질 인식과 만족도, 행동의도와와의 관계: 광주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5권 1호, 한국지역문화학회, 2018, 1-20쪽.
- 민성길·이창일·김광일·서신영·김동기,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권 3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0, 571-579쪽.
- 박상수·Liang-Ri Yu, 「체면민감성에 따른 문화예술상품 소비자들의 추구혜택과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중국 북경, 상해, 심천의 20~40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15권,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2, 31-63쪽.
- 박은아, 「공연예술 고객경험가치가 관계품질과 공연기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정과 액션플로우의 매개역할」,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서문식·이섫별, 「문화예술콘텐츠 관람 시, 소비자들의 체면유형은 관람 만족과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제공할까?-지각된 가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49호, 한국예술경영학회, 2018, 103-136쪽.

서은아, 「클래식 음악 공연의 가치혁신전략 연구-1인 관람객 유입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서용한·오희선·전민지, 「체면이 명품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권 1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11, 25-31쪽.

송경숙, 「와인 선택속성이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2, 431-446쪽.

송근원·이영, 「부산 시민의 행복 점수 측정을 위한 설문서 문항 개발」 『사회과학연구』 27권 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129-150쪽.

신민정·원문가·송학준, 「동기, 선택속성, 관광만족, 재방문의도, 생활만족간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공정여행 여행객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7권 6호, 2018,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1-16쪽

이섫별, 「문화예술 공연의 서비스 품질이 관객 만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체면의식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이남경·강신겸, 「예술관광객의 신기성 경험이 몰입과 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을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10권 1호, 한국지역문화학회, 2023, 1-18쪽.

이 찬·최배석, 「소비자의 클래식공연유형 인식과 활용이 클래식공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8권 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8, 661-674쪽.

유인애,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신체이미지가 심리적 행복감 및 자아

-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스포츠융합학회지』 18권 2호, 대한체육학회, 2020, 37-46쪽.
- 유해연·방정혜·김민선, 「명품 구매동기와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의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권 10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623-629쪽.
- 안근석·양병창, 「대학생의 주관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체면, 문화적 자기-개념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소』 27권,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0, 51-83쪽.
- 양성연·양성진·조용범, 「프리미엄 브랜드 커피 이용고객의 가격공정성과 심리적 반응이 체면 민감성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28권 7호, 한국조리학회, 2022, 99-110쪽.
- 전미영·김난도, 「재화소비와 경험소비에서 나타나는 소비자행복 수준 비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권 2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55-75쪽.
- 전주언·이은미·최한나, 「충동적 경험소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시간 경과에 따른 행복감의 망각」, 『대한경영학회지』 32권 8호, 대한경영학회, 2019, 1311-1330쪽.
- 조미령·추승우·이연우, 「호텔 이미지가 브랜드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MICE관광연구』 20권 2호, 한국마이스관광학회, 2020, 185-204쪽.
- 조현진·김은실, 「선물하기(gift-giving) 행동이 소비자의 정체성 위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미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3권 2호,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22, 153-171쪽.
- 정다훈·백종온·정경희, 「외식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신뢰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혁신연구』 38권 2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2, 129-139쪽.
- 최가은·강신겸, 「고객불평행동이 문화기관 서비스 인력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지역과문화』 10권 2호, 한국지역문화학회, 2023,

1-22쪽.

최샛별·이명진, 「문화자본 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한국사회학』 47권 2호, 한국사회학회, 2013, 31-60쪽.

최진·이지환·정아람·김태형, 「야구용품소비자의 체면민감성이 구매만족과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권 2호, 한국체육과학회, 2018, 585-596쪽.

홍빛나·김미연·오치옥, 「매체 기반 문화예술관람에서의 감정적 관여가 문화적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지속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3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533-544쪽.

Bearden, W. O. · Tell, J. E., “Selected Determinants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Complaint Repor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0, no. 22, 1983, pp.21-28.

Bourdieu, Pierre,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Brown, P. · Levinson, S,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C. B. Weinberg · K. M. Schachmut, “Arts plan: a model based system for use in planning a performing arts series,” Management Science, vol. 24, no. 6, 1978, pp.654-664.

C. S. Skrzypczak, “Is there a niche for a major symphony with its own symphony hall on LongIsland,” Community support of the performing arts-selected problems of local and national interest, vol. 7, no. 5, 1970, pp.163-202.

Holbrook, M. B. · Hirschman, E. C., “The Experiential Aspects of Consumption: Consumer Fantasies, Feelings, and Fu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9, 1982, pp.132-140.

- Nicolao, L. · Irwin, J. R. · Goodman, J. K., “Happiness for sale: Do experiential purchases make consumers happier than material purcha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6, no. 2, 2009, pp.188-198.
- Peterson, Richard A. · Simkus, Albert, “How Musical Tas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in *Cultivation Differences*, edited by Michele Lamont and Marcel Fourni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Van Boven, L., “Experientialism, Materialism,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9, no. 2, 2005, pp.132-142.
- Zeithaml, V. A. · Bitner, M. J. · Gremler, D. D., *Services marketing: Integrating customer focus across the firm*, McGraw-Hill Education, 2018.
- 전인수, 『문화마케팅』, 학현사, 2020.
- 현성용 외, 『현대 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15.
- Wladyslaw Tatarkiewicz 저, 이용대 역,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사, 1990.
- Pierre Bourdieu 저, 최정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2005.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체면 유형을 분석하고 주관적 행복감과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6개월 이내에 클래식 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후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클래식 공연 관람객들의 체면 유형은 자기 체면, 타인 체면, 위상 체면, 인격 체면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4가지 체면 유형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는 자기 체면은 주관적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상 체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타인 체면과 인격체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은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면 유형과 행동 의도의 관계에서는 자기 체면, 타인 체면, 인격 체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고 위상 체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클래식 공연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 관리와 타인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연구 대상이 수도권 관람객으로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공연 직후의 감정과 사고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클래식 공연, 체면유형, 주관적 행복감, 행동 의도, 관객분석

■ Abstract

The Effect of Facework on the Subjective Happiness and Behavioral Intention of Korean Classical Performance Audience

Choi, Na Da / Dankook University

Lee, Hee Sung /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of facework among audiences attending Korean classical performances and examines how these types influence subjective happines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 conduct this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individuals who had attended classical performances within the last 6 months. The responses were subsequently analyzed for reliability, validity, and hypothesis testing. The facework of classical performance attendees was categorized into four subfactors: self-face, other-face, prestige-face, and character-face.

It was found that these four types of facework have varying impacts on subjective happiness. Self-face was sh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subjective happiness, while prestige-face did not achieve statistical significance. Other-face and character-fa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subjective happiness. Moreover, subjective happiness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behavioral intent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work types and behavioral intentions, self-face, other-face, and character-face achieved statistical significance, whereas prestige-face did not. This indicates that classical performances play a significant role beyond mere leisure activities, contributing to personal social image management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However, the study's limitation lies in its focus on audiences in the metropolitan area, making it challenging to generalize the research findings. Future research should expand the scope of participants and utilize research designs that can reflect emotions and thoughts immediately after

클래식 공연 관람객의 체면유형이 주관적 행복감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최나다·이희성

performances to derive more comprehensive research results.

**Keyword • Classical performance, Facework, Subjective happiness,
Behavioral intentions, Audience analysis**

■ 논문투고일:2024.06.22. ■ 심사완료일:2024.07.22. ■ 게재확정일:2024.07.25. ■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1년 11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2024년 3월 1일 개정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 지식의 대중화, 교양 관련 이론,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2023년부터 적용)

-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2월 15일, 2호 학술지는 6월 15일까지, 3호 학술지는 10월 15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 1)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

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한다.
- 2)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kl@mokwon.ac.kr) 투고도 가능하다.
- 3) 모든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논문 원문파일(저자, 소속 삭제)’을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7조 8)항) 기준 10매 ~ 20매 (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25매(참고문헌, 초록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 또는 ‘MS Word’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 4) 원고는 논문 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한다.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학생	성명/ 학교명/ 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 등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 성명/ 전 소속/ 직위 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미성년자	성명/ 학교명/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①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②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 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 초록 10.5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 ①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 ②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 ③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 ④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②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 줄 띄움)
- ③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 ④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 ⑤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 ②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 ①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https://www.mokwon.ac.kr/lic>, 2022.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

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기하고,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김병정, 「영화 <혼자>의 롱테이크와 촬영기술 연구」, 『지식과 교양』 8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1, 25-47쪽.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0-85.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77.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문초록은 국문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제목과 성명, 소속을 병기한다.

(8) 기타 편집사항은 논문 템플릿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 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20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 40만원
-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2021.11.01. 개정)

- 1)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 위임한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lic.jams.or.kr/co/main/jmMain.kci>) 내에서 심사할 논문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재투고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재심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전면수정 후 재투고’,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 온라인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8. 3. 1.

개정 2021. 3. 1.

개정 2022.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 263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해 따른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서약서, 별첨 1, 2).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 규정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절 :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4) 중복 게재 :

-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

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 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논문에서 저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나눈다.

-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2) 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연구책임자이다.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저자(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

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②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③ 공동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자

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편집위원장,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위촉하는 인사 5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의 입증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 1) 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지식과 교양』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기타 학술지 관련 업무
- (4) 본 연구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 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와 검토와 판정
- (3) 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 (4) 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제6조(규정준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술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센터장 : 송석량

◇ 편집위원장 : 구진희

◇ 편 집 위 원 :

고혜영(서울여대), 박내정(배재대), 권용진(경성대), 김경래(한국교원대),
김광환(건양대), 김순정(성신여대), 김혜정(경인교대), 노은희(가천대),
배병윤(한라대), 변진이(경일대), 서유석(경상국립대), 원은석(목원대),
정옥희(전주교대), 조기웅(전북대), 조용림(목원대), 조준희(동국대),
최병진(제주대), 홍태한(전북대),

◇ 윤리위원장 : 송석량

◇ 윤 리 위 원 :

서정일(목원대), 서태원(목원대), 심영옥(경희대), 유경아(목원대)
이아람찬(목원대), 이희성(단국대), 장영란(한국외대), 최혜진(목원대)

◇ 표지디자인 : 현승훈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4년 07월 30일 / 30 July 2024

통권 제15호 / No. 15

발행인 송석량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담당 조교 김혜림

발행일 2024년 07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1관)

103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우편번호 35349)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omepage <https://lic.jams.or.kr>

편집·인쇄처 으뜸디자인기획

전화 : 042-825-6157~8